

# 요한복음 해설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BY THE REV. WILLIAM BRUCE

윌리엄 브루스 지음 /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성경 해설

# 요한복음

윌리암부르스지음

배제형 옮김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BY

THE REV. WILLIAM BRUCE

THIRD EDITION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NEW CHURCH

20, BLOOMSBURY WAY  
LONDON, W. C. 1

## 차례

서문.....	11
입문.....	14
제1장.....	21
제2장.....	72
제3장.....	96
제4장.....	126
제5장.....	156
제6장.....	184
제7장.....	224
제8장.....	247
제9장.....	277
제10장.....	293
제11장.....	316
제12장.....	350
제13장.....	385
제14장.....	416
제15장.....	443
제16장.....	467
제17장.....	493
제18장.....	526
제19장.....	557
제20장.....	592
제21장.....	616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요한복음 21:6

## 서 문

(PREFACE)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의 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와 분리되어 취급될 정도로 그 자체에 특이함을 지니고 있다.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두 가지 목적(object)을 지닌듯 여겨진다. 즉 다른 세 복음서 기자가 빠트린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무한히 긴 시대(Aeon)라는 실제적이 아닌 체현(embodiment)을 영원한 말씀(Eternal Word)이라는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것(incarnation)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가 그노스시즘(gnosticism)의 신상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참고 요한1서 4장2,3절. 요한2서 1장7절) 그리고 이 복음서도 일반적, 특수적으로 공히 사용되리라는 것, 이 복음서를 저술한 신성과 인간은 목적 측면에서 일치되리라는 것, 그 이유가 선한 모든 의도는 위로부터 있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을 성령의 지휘 감독하는 영향력 수준으로 격하하거나, 더한층 격하해서 복음서를 인간의 저술로 단정해버리는 한, 위의 견해에 대한 이의제기는 언제나 있어질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 주석서의 경우 성경은 신성하게 영감되어 있다는 원칙 아래 해설을 진행하는 바, 나는 이 책을 소개하는 첫 장에서 위 문제를 우선 다루고 있다.

여기서 나의 목적(object)은 요한의 복음이 주님과 교회, 그리고 영적 품성 측면에서의 인간에 관한 타 복음서와 가지게 되는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이를 연속적인 계시의 시리즈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는 계시들이 만들었던 (보편적) 교회의 몇개의 처방(the several dispensation of the church) 아래 살았고 행동했던 인간 종족에 관한 하나의 역사이면서 각 계시의 품성을 반영해놓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개개인의 역사는 서로 유추(analogy)되듯, 인간의 영적 역사의 시기원(epoch)들을 점철한 교회 처방도 거듭남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거듭나

는 삶의 실제적인 개시에 선행되는 상태들, 또는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들을 묘사하고 있다. 인간 종족의 역사로서 아담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기간은 거듭나는 인간의 첫 시기로부터 둘째 시기까지의 기간, 즉 살아있는 혼(a living soul)으로 만들어진 첫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시기로부터 소생하는 영혼(a quickening Spirit)으로 만들어진 둘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시기와 유추된다. 그러므로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주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음서들, 즉 그분의 영화하심의 전체 과정(the entire process of His Glorification)을 기술하는 복음서들은 주님의 일(Lord's Work)의 형상과 결과로서 인간 거듭남의 과정을 포함하여 기술해놓고 있다.

고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한편, 신약 성경 내에서 서로의 관계에서도 몇 부분들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역사를 포함하는 각 네 복음서의 존재는 인간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우리는 네 복음서가 신성한 지혜의 목적적 가치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복음서들은 서로 빠트린 대목을 보충하고 있을 뿐이다 라든가, 우리를 당혹케 할 뿐인 어떤 다양성을 지니면서 반복된 책일 뿐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물론 네 복음서가 신성하게 저술되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 저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요한의 복음서는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게 눈에 띄는 책이다.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새 출생에 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생명의 빵에 대한 유대인들과의 대화, 부활에 관한 마르타와의 대화, 아버지와 합일함(ONENESS)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하심, 재회하심 (Reconciliation)의 왕관에 해당되는 행동인 신성화하심 (Glorification)의 일을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라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장엄한 기도 등등이다. 또한 자비심이 넘치는 그분의 일들 중의 몇 가지 역시 이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베짜타 못가에서 허약자를 치료하심,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심, 라자로를 일으키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 등등이다. 더우기 요한의 복음서가 타 복음서와 위와같이 내용면에서뿐 아니라 특성면에서도 독특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타 복음서 기자들이 공적 측면에 더 치중하고 있는데 비해 요한은 사적 측면에 더 치중하여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의 복음서의 거의 절반



은 제자들을 놓고 있어진 시담 (transaction)인데 거기에도 가장 심오한 본성과 가장 깊은 취지가 담겨있다. 요한의 복음서는 타 복음서보다 품성 측면에서 더 영적이라는 것, 우리의 시선이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 그분의 역사 측면보다 교리 측면을 더 제시하고 있다는 등등은 대다수 주석자들이 인정하고있다.

주님의 사도들 중 저명한 두 제자의 구분되는 특성, 즉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이고,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제자로 네 복음서가 주목하고 있다. 요한의 복음서는 예수의 역사를, 타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더 조명하고 있다. 요한은 주님을 개인 측면에서, 타 복음서는 주님을 메시아적 측면에 더 할애하고 있다. 요한은 구세주 예수의 특성을, 타 복음서 기자들은 왕되신 그리스도의 특성을 더 표현하고 있다. 요한은 신성한 사랑의 특성을, 타 기자들은 신성한 진리의 특성을 더 표현하고 있다. 요한의 복음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지적 국면보다는 행동적 국면을 더 표출하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믿음보다 사랑의 목적(object)이 되게 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 아마 노블(Noble)이 그의 강연에서 말한 것 만큼 더 명백한 표현은 없을지 모른다. 즉 마태와 마가의 복음서는 외적 측면에, 누가와 요한의 복음서는 내적 측면에 더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요한의 복음서는 주님의 영화하심과 인간의 거듭남을 더 진보적으로 향상시켜 기술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요한의 복음서가 네 복음서의 마지막 짚에 놓여 있듯 거듭나는 인간의 마지막이요 가장 완전한 상태, 즉 보다 수준 낮은 품위(GRACE)들이 종교생활의 면류관적인 품위인 주님 사랑을 중심에 둔 상태들을 묘사하고 있다.

## 입문

### (INTRODUCTION)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다" (디모데후 3:16).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 움직였을 때 말했다" 때문이다 (베드로후 1:21). 성경은 근원 차원에서 신성이고, 본성 차원에서 가장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나 명목상으로나 공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드높은데 계신 지존하신 분을 올려다 보는 우리라면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말하셨던 것같이 고백할런지 모른다. 이 진리는 오류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단순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빛이시요 어둠이 전혀 없는 그분으로부터 (요한1서 1:5) 방출되는 바와 같은 진리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the Word)이 존재하는 특별한 진리(the Truth)는 이 진리가 바깥쪽으로 나타낸 일반적인 진리(the truth)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로 진실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mind)을 밝히 알게 하고 (계시하고)있다. 더구나 이 계시는 인간 언어의 단어들로 단순히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라는 형체를 옷입고 있다. 그러므로 계시는 신성과 인간성의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신성 측면에서 계시는 절대적 진리이고 인간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진리이다. 말씀 속의 절대적인 진리는 신성한 저자(Author)와 마찬가지로 영원하고 바뀔 수 없고 보편적이다. 그러나 말씀의 상대적인 진리는 인간의 저자들처럼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지방(local)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우주의 발생, 과학, 역사, 심지어 교회 조직이나 교회의 법 등 등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말씀이 씌어지게 된 시대에 속하는 인간의 사고(thought)의 형체들이다. 즉 신성한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 내려 올 때 그 진리 자체가 옷입는 인간적인 그릇밖에 더 아니라는 말이다. 구약, 신약 성서는 이에대한 가장 놀라운 보기(example)들이다. 계시는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mind)에 내려오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형체로 옷입혀졌다. 그런 이유로 성서의 많은 부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특이한 백성의 역사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성서의 가르침의 적지 않은 양이 그들의 정신적 발달 상태와 불완전한 영적 식별력에 숙박하고 있다. 히브리 성경들은 영혼의 불멸에 관한 직접적인 계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시적인 보상이나 처벌밖에 더 말하는 게 없다.이혼에 관한 법 외에 다른 법들은 그들의 심정(heart)의 완고함을 위해 주어졌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들 예배의 모든 체계는 육적일 뿐인 그들의 상태에 적합한 의식이였다. 신약성서는 그들보다 더 높은 마음(mind)에 보내지고 있다. 생명과 영혼의 불멸이 복음을 수단으로 빛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 영(Spirit)으로서의 하느님이 영(spirit) 안에서와 진리(truth) 안에서 예배되어진다. 의식(ordinance)에 관한 법이 폐지되었다. 도덕적인 법(moral law)이 더 높은 수준의 표준으로 들려졌다. 이런 놀라운 차이가 말씀의 글자 안에서 명백해지는 동안 말씀의 신성(Divinity)과 영성(spirituality)도 똑같이 글자 안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말씀의 어떤 부분들의 경우 신성과 영성이 말씀의 어느 부분보다 더 깊고 완전하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주님의 모든 말씀(word)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그분의 영적이고 생명있는 말들은 그 말을 투과해 내는 표현인 글자적 형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고 글자라는 형체만을 떼어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고 따라서 생명을 주지도 않는다. 글자는 죽이나 영은 생명을 준다 (고린도 후 3:6).

위에서 살핀 구분되는 사항(distinction)을 어떤 주석자들의 견해, 즉 성경의 어떤 부분은 신성에, 또 어떤 부분은 인간에 권위를 두려는 것과 뒤죽박죽 시킬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이 이론은 말씀을 두 조각(portion)으로 가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시대)의 교리는 이러하다. (모든)성경은 영감에 의해 주어졌는바 교리나 책망, 교정,정의를 위한 훈육등을 위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씀 전체는 신성하다. 그리고 그 전체는 인간적이다. 즉 본질 측면에서 신성이고, 형체 측면에서 인간이라는 말이다. 계시의 한 부분(part)이 아닌 한 쪽(one side)만이 신성하고 인간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식으로 인간 측면에 해당되는 것도 본질적으로 신성이다. 설사 말씀의 글자적 형체가 인간의 심정 상태 (men' state)라는 틀에 넣어 만들어 졌다 해도 그것은 그 인간의 뜻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신성이 현존하는 성전을 위한 물질들은

참으로 인간을 수단으로 공급되어 왔으나 그 물질을 만든 자나 그 성전을 지은 자는 하느님이시다. 성전을 위한 돌들이 인간 마음의 채석장에서 거칠게 다듬어졌을런지 모르나 건축하는 동안 인간의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거룩한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열왕기상 6:7). 여타 다른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성문서(the written)는 육을 입은 말씀과 같다.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하느님이 천국으로부터 인간 사이에 있는 성막으로 내려 오셨을 때 그분 자신을 옷입힌 인간성은 동정녀-어머니의 자연성(nature)으로부터 인간성의 바깥쪽 형체를, 그 여자의 심정 상태에서부터 인간성의 품질(quality)을 취했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은 마리아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독생자, 그러므로 내향적으로는 신성인 인간은 탄생 후에 인간들의 의지나 권력과는 무관한 채로 창조의 신성한 법칙에 의해 기묘하게 가공되어 갔다. 육을 입은 말씀처럼 계시(the revealed,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분명히 밝)도 인성을 옷입은 신성이다. 신성 측면에서 주님은 하느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었고, 인간 측면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이었다. 어머니쪽에서 받은 주님의 인간성처럼 말씀의 자연적 의미(natural sense of the Word)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 인간쪽의 표시들을 진열하고 있다. 육을 입은 말씀에 관해 말해진 것과 계시된 말씀은 동등하게 참되다. 그분에게는 늪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이사야 53:2). 그의 얼굴은 망가졌고 그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보다 더 훼손되었다 (이사야 52:14). 말씀의 글자는 인간의 작문 솜씨로 가능하면 대단한 칭송을 받을만한 스타일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글자가 기록한 사건의 많은 부분이 도덕적 결함까지 생산해놓고 있다.

말씀의 바깥쪽 형체와 외관은 그것이 발생했던 그 당시의 인간의 상태에 따라 폭넓게 차이가 있어 왔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인간의 죄는 말씀의 바깥쪽 조건에 변화가 있어지게 했다. 이스라엘 우상이 십계명의 돌판을 생산하게 한 것이 이에 대한 보기에 해당될 것이다. 모세에게 전달된 처음의 계명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썩어진 것, 하느님이 작업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32: 16). 그러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빙빙 돌며 춤추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돌판을 내던져 깨트렸다. 이 때 모세는 자기가 깨트린 것과 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도록 지시받았고 인간이 만든 이 돌판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분 스스로 만드셨던 첫 돌판에 썩어있던 신성

한 말씀들을 적어 주셨다. 인간의 죄를 위해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하느님의 작품(the work of God)이 되었고 영적 의미(the spiritual)가 그 작품에 새겨졌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저술(the writing of God)이다. 그렇다고 말씀은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보려 의도적으로 위의 설명을 늘어 놓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는 단지 인간적 수준인 것보다는 신성한 것이 훨씬 더 많고, 글썽씨 차원에서조차 지상적 수준인 것보다는 더욱 천국적인 것으로 씌어져 있다. 말씀의 글자는 더 완전한 글자의 영이 되어 갔다. 이 영적 의미에는 분노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고, 타 국가나 그 백성을 살륙하라는 명령도 없으며 다침제에 관한 어떤 언질도 없고, 죽인 짐승의 피를 그분께 바치는 예배도 없다.

어쨌든 우리는 씌어있는 말씀에 흠이 있다고 하거나 불완전한 말씀이라고 상상하려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 반대 즉 말씀은 복주시려는 목적에 대한 슬기로운 수단으로서 성경의 완전함의 증거로 간주함이 지당할 것이다. 계시의 형체는 그 자체 더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일치되도록 표현되었는바, 이 형체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 타락된 인간의 상태에는 어울리기 힘들다. 신성한 형상은 지상적인 형상을 지닌다. 그 까닭은 지상적인 상태에서 인간에게 더 가까이움으로써 그 인간을 신성의 형상으로, 천국적 상태에서 인간에게 더 가까이움으로써 천국적 상태로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지상적인 형상을 지니는 한편, 그 자체 드높이는 수단, 즉 영화하는 수단을 가진다. 그리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진실로 따르는 이들까지 드높혀 준다. 그리하여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조잡하고 육욕적인 것도 계시의 가장 완전한 형체가 함유하고 있는 거룩하고 순수한 영에 의해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마리아의 아들안에 거주했던 신성이 과거에는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천사를 통해 말하셨고, 황금등경 사이에서 계신 사람의 아들의 용모로부터 빛을 내셨다. 하느님께서 직접 작업하시어 만든 표현에 적힌 신성한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가 모세가 만든 돌판에 씌어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한 말씀은 신성한 손에 의해 직접 골격을 갖춘 것과 동일한 신성한 현존의 성전이다. 위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생각해보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둬냄에 관한 신성한 역사의 지상에서의 명판

(tablet)이나 일람표 같은 것이다. 에집트에 억류되고 해방됨, 위험과 탈출, 궁핍과 공급, 고난과 이의해결, 녹초가 되는 순례의 길과 영원한 휴식 등등은 영적 교회의 표현물로서 선택된 백성의 글자적 역사 위에 새겨진 신성한 계시이다.

그러나 이런 물음이나 논쟁거리가 생길런지 모른다. 어떻게 우리는 인간 형체를 수단으로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한 본질을 식별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껍질에 해당되는 지상의 발에 감추여 있는 천국의 보물, 대단히 비싼 이 진주를 확실히 찾아낼 수 있게 인도할까?

영감의 법칙이 없다면 해석의 법칙도 있을리 만무하다. 법칙이 있게되면 규칙도 있다. 신성한 사고(Divine thought)가 인간적 사고의 형체를 가지고 그 자체를 옷입히고 있을 때, 인간 사고는 신성한 사고에 상응되는 것으로 외관을 띤다. 이런 식으로 신성과 인간,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상응(Correspondence)을 수단으로 접합(join)되어 있다. 상응의 법칙을 수단으로 신성은 인간 안에서,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 신성한 진리가 그 진리에 상응되는 인간 사고로 옷입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것을 반영(reflection)해 봄으로 알 수 있을런지 모른다. 신성한 말씀이 계시에서 입고 있는 자연적인 형체들은 영원한 말씀이 창조 안에 진열한 것들이다. 계시에 있는 말씀이 덜 자연적이라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계시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끌어내졌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의 모든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연적인 사고들은 다양하게 결합되고 수식된 자연적인 것들 위에 있는 정신적인 형상 밖에 더 아니다.

성경의 영감 안에서 어떻게 신성한 진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형체로 옷입고 인간 언어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완전한 영감(plenary inspiration)은 구두로 된 영감(verbal inspiration)을 당연히 포함한다. 구두로 된 영감이 함축하는 바는 참 단어들이 성경 저자들의 귀에 소리내어져 기록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다음과 같은 생각, 즉 영감의 단어들이 성경의 저자 자신들에 의해 공급되었다는 견해와 어떻게 모순없이 이해될 수 있을까? 영계의 법칙들은 어떻게 계시가 주어졌는가를 설명한다. 천사나 영인들은 인간 언어의

단어들을 발음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사람 각자의 언어로 그 사람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천사들은 열조(아브라함, 이사악, 야곱)들에게 말했다.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던 오순절에 군중들과 있었던 사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천사들의 대화는 자연계의 대기를 통해 운반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외적인 경로로 해서 인간에게 올 수 없었다. 천사들은 내적인 경로로 사람들과 말한다. 천사들은 인간적인 기억이라는 창고에서 발견하는 언어로 그들의 생각에 옷을 입힌다. 이렇게해서 그들은 상대방의 언어로 그들과 말한다. 이것은 자연계와 영계를 연결하는 수단인 상응의 법칙에 일치한다. 이 법칙을 수단으로 두 세계의 거주민들은 서로 교류한다. 하느님께서 예언자와 천사에게 말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현존을 채운 천사를 매체로 하여 되어졌다. 그분께서는 천사들이 인간과 교통하는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신성하게 바쳐진 저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셨다. 그런 까닭에 신성한 진리는 계시가 있었던 시대에 소속된 인간 사고의 형체를 옷입고 있을 뿐 아니라 계시가 주어진 당사자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표현까지 옷입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예언자의 저술과 복음서의 저자들의 것은 다르고, 이 예언서와 저 예언서, 이 복음서와 저 복음서에 이르기까지도 차이점이 있다. 영감된 책들은 제각기 그 자체만 지니는 특유한 것을 가지고 그 책의 저자에 속하는 특유한 것도 지니고 있다. 주님께서 각 책의 저자들을 그분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도구의 특징들은 그 도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본성, 또는 그가 밝히 알리는(계시하는) 진리들의 본성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진리들은 저자 자신의 마음이 함유하는 언어 자체와 상응되는 언어들로 자체를 옷입히고 있다.

성경의 글자와 영을 연결하는 끈(bond)을 형성하는 상응(Correspondence), 이것을 수단으로 우리는 글자적 의미 안에 있는 영적 의미를 볼 수 있는 바, 이 상응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상응은 이 것과 저 것의 상호적인 관계이다. 이 것이 저 것에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을 때 그 두가지 것은 상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채용한 이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응은 두 가지 자연적인 대상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영계와 자연계의 것 사이에 존재

하는 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런 관계는 무한과 유한, 영계와 자연계, 영과 몸 사이에도 존재한다. 영적인 모든 상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영적인 상응과 자연적인 유사함과 구별되게 해준다. 상응된 것들의 존재는 상응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의 존재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상응은 영적 원인과 자연적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상응학(the science of correspondence)은 위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자연계와 영계, 말씀의 자연적 의미와 영적 의미 사이에 있는 상응은 이런 상황, 즉 모든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 원인을 가진다는 것, 자연계는 영계 안에 자연계와 가장 가까운 원인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자연적 의미가 영적 의미 안에 있는 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 두 가지 것들은 상응을 수단으로 하나되어 있다.

상응의 본성, 그리고 상응이 자연적 유사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예를들어 보면 가장 잘 이해된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각하고 있다. 한 해의 사 계절과 하루의 네 때, 그리고 이런 것들과 인생의 시기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하루 중 아침은 일 년 중의 봄에, 한낮은 여름에, 저녁은 가을에, 밤은 겨울에 유추되어 응답한다고 생각한다. 바꿔 말해, 봄은 어린 아이와 젊은이 시절과, 여름은 성인 시절과, 저녁과 한 해가 기우는 가을, 그리고 밤과 겨울은 노년기와 응답된다고 말한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답게 유추를 갖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관계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상응이 아니다. 위 모두는 자연계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다. 그것들은 도덕적인 요점을 위해서는 유용할런지 모르나 영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의 자연적인 존재의 연속적인 시기들이 아닌 영적 삶의 연속적 상태, 그래서 거듭남의 진보에서 서로를 따르고 있다고 이해될 때 그것들은 영적 상응이 되어가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이런 견해 아래에서 아침과 봄, 그리고 어린 시절 모두는 영적 삶의 그 계절과 상응됨을 수단으로 영혼이 하나님께 신실해지는 첫 번째 전환점, 생각과 애정이 그분의 빛과 사랑을 받기 위해 열려지는 때, 그리하여 마음에 이미 뿌려져 있던 진리의 씨가 싹트기 시작할 때에 응답한다. 여름은 종교적인 지식이 영적인 총명으로 성숙되는 때인 영적 성숙의 상태에 상응한다. 이 때 지성은 진리의 탁월함, 그리고 진리가 열어 보이는 가능성에



기뻐한다. 가을은 진리의 탁월함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건너 갔을 때의 상태에 응답한다. 이 때 종교는 애당초 자리잡았던 지성으로부터 떠나 심정을 그 거처로 삼는다. 그리고 심정의 에너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여기서 유추가 끝을 맺는 듯 보일런지 모른다. 그 이유가 기독교인의 삶에서 그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어떤 겨울이나 어떤 밤도 낮을 계승할 수 없고 오히려 거듭나는 영혼은 빛과 사랑의 더 높고 더 나은 상태로 계속 전진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유추는 아직도 완성되고 있다. 그 이유가 비록 영적 삶에서 겨울과 밤이 가을과 저녁의 뒤를 잇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듭나는 삶의 봄과 아침에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초기 상태에서 조차 영적 사랑의 따스함에 있기 전에는 자연적 사랑의 차거움에 있었고 지식의 빛을 받기 전에는 무지의 어둠에 있었다. 그 이유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5). 어쨌든 지금 그의 밤은 무지의 어둠 일뿐 아니라 잘못(error)의 총체적인 어둠이다. 그리고 그의 겨울은 영적 사랑의 부재일뿐 아니라 영적 미워함의 현존이다. 새 삶의 봄철과 아침, 즉 거듭남의 시작은 하느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때 (창세기 1:3), 그리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때, 애정이 신성한 사랑의 영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생각들이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계발될 때이다. 그리고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과 빛을 받고 영혼(soul)의 재 창조가 시작될 때, 꾸준하고 인내있는 주님과 의 협동 작전은 완전함과 행복함의 상태가 날로 증가하게 하면서 밤과 겨울이 없는 상태, 빛이 더욱 더 완전한 날이 되게 하는 상태로 끝 맺으리라.

# 1

이 복음서를 소개하는 1-14절은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취급하고 있다. 가장 심오하다고 말한 이유는 이 부분이 하느님의 무한한 본성과 관계되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이 부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알려진 분,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복음서 기자는 인간의 마음 앞에 예수를 우선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로서 그분의 신성한 품성을, 그 다음 시간 안에 나타

나신 분으로 그분의 인간 품성을 가져다 놓고 있다. 요한의 복음서는 이런 측면, 즉 주님의 신성에 관한 주제를 우위에 두고 그것을 돌출 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이하다.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복음서를 주님께서 세상에 기적적인 임신과 탄생으로 오시는 사건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인간 어머니에게 임신되고 탄생하셨던 그분이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두 가지 본성 중에서 마태와 누가는 주님의 인간 측면을 더 돌출 시키고, 요한은 신성 측면을 더 돌출 시키고 있다. 어쨌든 양쪽의 견해는 구세주라는 인물의 임신과 구세주의 일을 마음에 그려주는데 모두 필요하다. 인간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 즉 어둠의 권세가 종속되고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회복되어 영광스러워 졌다는 것, 이것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권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것 등등에 필요한 것은 신성과 인성이 그 일을 성취되게 한 그분의 인물 안에서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제가 세부적인 서술 안에 놓여 있는바 이제 생각해보자.

1. 복음서 기자는 창세기를 여는 단어, 즉 “한 처음...”으로 그의 복음서를 열고 있다. 세상의 구속에 관한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 그는 세상의 창조로 되돌아가되 창조의 일과 연결해 보기 보다는 창조자로서의 구속자에 관한 정체와 연결하고 있다. 모세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을 수단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존재를 시작할 때 말씀은 이미 존재했었다. 선재함(preexistence)이 본문의 경우, 영원한 존재요, 이는 모든 다른 존재와 달리 어느 것으로부터 파생되지 않고 독립적이다.

그러나 복음서의 언어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 선포하신 말씀, 즉 파트모스 섬에서 영광 가운데서 요한에게 나타나시어 하신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계시록1:8-11). 이렇게 말하신 그분은 참으로 영원부터 존재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알파와 시작, 그리고 처음으로서 존재하셨고, 육을 입으신 이후에는 오메가와 끝, 나중으로도 존재하셨다. 영원부터 계신 주님은 말씀의 첫 원리에 있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느님, 아

버지의 품 안에 계신 아들과 더불어서였다. 이와 똑같은 서술인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그들의 시작을 가졌고,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 안에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육을 입게 되셨을 때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그들의 끝을 가졌고 그분은 모든 것의 끝 안에 계셨다. 이것은 창조라는 품성에서의 말씀과 구속함이라는 품성에서의 말씀 사이에 있는 차이점이다. 창조자로서 그분은 시작이셨듯이 구속자로서의 그분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시다. 창조하심의 마지막 원리이요 창조의 월계관에 해당되는 인간에 관련해 생각해 보면, 이 진리의 참된 깊이와 취지가 알려 질는지 모른다. 인간이 창조된 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부패되지 않은 본성의 첫째가는 원리 안에서 그와 더불어 거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인간의 시작에 해당되는 그의 애정과 생각, 이로부터 그의 말과 행동들 안에 함께 계시어 인간 전체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어 인간을 만드신 분의 실제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the Word), 사도가 이제 선포하려는 육을 입으신 그분을 특색 있게 해준 이름인데, 이는 요한의 시대 훨씬 전에 이미 채용되어 왔던 용어로서, 인간 안에 있는 이성(reason)에 유추되는 신성(Deity)안에 있는 원리(principle)를 표현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애당초 그 용어를 사용했던 철학적 종파로부터 전환한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소개되었거나, 또는 초기 기독교 선생들에 의해 채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이방인적인 청중자들에게 이미 친숙해 있는 용어를 수단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그리고 기독교적 의미에서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의 마지막 책에 이 용어가 새겨짐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마지막으로 성별 되어졌다. 이는 신성한 진리가 인간 생각의 형체 안에서 그 자체를 옷입히고 있다는 놀라운 예에 해당된다. 인간 사상의 공통된 표시가 되었던 이 용어가 영감된 저자에 의해 들리워서 신성한 진리의 구동체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신성한 주제들에 관한 이교도들의 생각도 그 근원에 있어서 언제나 인간 측면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설사 동 시대의 교회로부터 파생되지 않았어도 고대 계시 또는 원시 신앙의 전통적인 형체 속에 있는 진리의 조각들이었을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초자연적인 것들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서 인간은 그 것들 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

기독교 저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초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있었던 것은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어 나르도록 의도된 생각이란 점이다. 신성한 의식, 이성, 이해, 사상, 생각, 지혜, 이런 등등이 말씀이란 용어와 동등하게 여겨서 놓여지고, 이를 수단으로 영원한 말씀은 여기서 하느님에게는 내적 관계로, 세상과 인간에게는 외적 관계로 놓여 있다.

모든 사항이 말씀을 영원한 지혜로서 간주되는데 일치되는 한편, 거의 모든 사항은 하나로 통일되어 유지되는바, 그것은 말씀이 추상적 품질이 아닌 실재(entity)라는 것,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되듯, 그것은 속성(attribute)이 아니라 인물(person)이라는 것이다. 라틴 교회가 단어 perona(인물)로 표현했던 것을 그리스 교회는 단어 hypostasis(인성)로 표현했다. 그 당시 인물(persona)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신학적 의미였던 것이 처음 채용되었거나 또는 아타나시안 신조어로 동시에 도입된 것은 신성 안에서 구분되는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였는바, 이는 절대적으로 확실치 않고, 또한 큰 중요성도 갖지 않는다. 그 이유가 모든 건전한 신학자들은 그것이 타당한 쪽이라기 보다는 편의주의 쪽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용은 현재 사용되는 단어 인물(person)처럼 서로 구분되는 개인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리스 단어 인성(hypostasis)은 기초 또는 본질을 뜻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생각, 즉 하느님과 말씀은 단지 속성만 아니라 속성들의 주체들이라는 생각을 표현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신성한 본성 안에서 구분되는 것은 단지 명칭만이 아닌 실재이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로부터 명백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술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는바, 이는 하느님과 말씀이 영원부터 구분되는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들이 신성의 삼위에 관한 교리를 포함하는 한편, 신성의 단일성(unity)을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교리도 그것 안에 하느님은 절대적 하나임과 일치 않을 경우 성경적일 수 없다. 신성의 본성 안에 삼위가 있는바 이 삼위는 무엇으로 구성될까? 하느님의 본성 안에 세 개의 신성한 본질들이 있는데, 이는 사랑, 지혜, 권능이다. 이들은 세 개가 하나를 형성한다. 이들은 혼동되지 않고 나뉘어질 수 없다. 본질 측면에서 구분되는 이것들은 한 인물

(person)밖에 더 다른 것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될 경우 이 주제는 생각 속에서 다툼이 될 소지가 하나도 없는 논제이다. 마음은 신성한 삼위를 신성한 단일성으로 조화되어 병합할 수 있다.

위 관점은 이렇게도 이의를 달 수 있는 듯 보일지 모른다. 신성의 삼위가 속성의 삼위를 만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랑, 지혜, 권능은 단지 속성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본성의 본질, 속성들의 주체이다. 때로 하느님의 품질이 사랑, 지혜, 권능인 실체(substance)로서 말하여진다. 이것은 유한한 존재의 본성으로부터 빌린 생각들이다. 그리고 무한한 분에 대한 자격 조건도 없이 옮겨진 것이다. 인간은 사랑과 지혜를 수용하도록 창조된 조직화된 형체이나 하느님은 사랑 자체, 지혜 자체이다. 사랑과 지혜는 단순히 신성한 실체만이 아니라 신성한 실체 자체이다. 그들은 신성한 의지와 이해성이다. 그 이유는 신성한 의지는 무한한 사랑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신성한 이해성은 무한한 지혜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마음을 구성하는 이런 의지와 이해성은 참으로 신성한 본질이고 모든 속성들이 거기에 소속된다. 신성(Deity)의 세 번째 본질인 권능(power)은 사랑과 지혜의 진행(proceeding), 또는 실행(operation)인데 이것이 성령이다.

하느님과 말씀은 구분이 되나 모두 영원하고, 평등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한편, 영원으로부터의 말씀은 하느님과 더불어 일뿐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있었다고도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과 말씀이 신성한 사랑과 지혜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이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사랑은 지혜의 아버지격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영원하게 낳고 지혜는 영원하게 낳아진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를 낳는데 마치 인간의 애정이 인간의 생각을 창출하는 것, 또는 마음이 단어를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 박식한 고대, 현대의 모든 주석가들은 이 주제에 관한 이런 관점에 본질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지혜이다. 이것은 말씀이 하느님과 있었고 하느님이었다고 요한이 말한 대목으로부터 더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2. “말씀은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이 구절은 14절에 기록된 서술과 대비하여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다. 말씀은 처음에 하느님이었고, 때가 차자 인간 사이

에 거할 수 있도록 육을 입게 되었다. 이 구절은 사도가 뜻한바가 있지 않다면 단순히 앞 절이 반복된 것같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어쨌든 말씀에서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 글자적 의미에서 이해에 곤란한 점이 있다 해도 영적 의미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음”이란 단어는 영적으로 생각해보건대 이는 거듭남의 시작, 새로운 창조의 시작, 새로운 심정과 올바른 영의 창조의 시작이다. 그러나 거듭남은 두 개의 시작이 있다. 가르침에 앞서서 마음에 형성된 모든 상태는 선한 것의 차원에서의 시작이다. 가르침을 수단으로 형성된 모든 상태는 참된 것의 시작이라는 차원에서의 시작이다. 전자는 의지 안에서 영적 삶의 시작이고 후자는 이해성 안에서 영적 삶의 시작이다. 전자는 영적 사랑의 싹틈(germ)을 형성하고 후자는 영적 신앙의 싹수(rudiment)를 형성한다. 전자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더 특별하게 파생되고 후자는 신성한 지혜로부터 더 특별히 파생된다. 이것들은 신성한 자비에 의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시작이다. 이것 없이 삶에 이어지는 거듭남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납득의 대상으로 분명히 나타나시기 전에 마음의 내면에 결과된 신성한 일이다.

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는 순수하게 신성한 일이다. 그래서 이는 전능하신 존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 왔을 뿐이다. 이 진리는 우리 대부분에게 자명하나 요한의 복음이 씌어진 당시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철학 종파에 의해 믿어진 것, 이것이 부분적으로 받아 들여졌고 크게 기독교신앙을 부패시키기도 했는데, 창조는 열악하고 악성적인 존재의 일이라는 것, 이런 창조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악이 상속되었는바 이로부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최고의 하느님에 의해 복주시는 존재, 최고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보내졌다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관념은 창조, 또는 항구적인 창조인 보존은 두 번째 원인의 결과이고 구속은 순수하게 신성한 일이 아닌 듯 여기는 신앙의 또 다른 형태밖에 더 아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들에게 이런 의문들 모든 것에 대해 안심되게 하고 있다. 창조와 구속은 신성한 일들이고, 모두 똑같은 존재에 의해 결과된다.

요한의 이 구절의 말들은 위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창조는 무한한 권능

의 일일뿐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항은 우리의 번역에서 주어진바대로의 그의 말로부터서는 쉽사리 보여지지 않고 있다. 복음서 기자가 서술하는바, 모든 것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는 매체로서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으셨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 뿐이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한분 주 예수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해서 만물이 존재한다”(고린도전8:6). “그분을 통해서(의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골로사이1:16). 하느님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무한한 지혜를 수단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창조는 그 목적을 신성한 사랑 안에 가졌고 그 원인을 신성한 지혜 안에 가졌다. 단순하지만 웅대한 이 진리는 우리의 이해성에 그 자체를 맡기고 심정에 호소한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 뿐만 아니라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 역시 창조를 수단으로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지혜에 의해 작업해 우리에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생물적으로 완전함과 행복의 가능한 최고 수준을 실감하게 해주려해서 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창조가 하느님의 섭리를 함축하는바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했던 똑같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선을 위해 계속 우리를 지켜본다는 점에 대해서이다. 더불어 창조의 마지막 원인에 종속됨으로 우리의 일시적인 복지까지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제의 공통된 관점은 최상의 수준에서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한분 신성한 인물이라는 것외에 또 다른 신성한 인물에 관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창조는 하느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나 더 이상은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창조가 근원된 신성한 의도와 그 의도를 결과되게 한 신성한 총명에 관한 계시 모두를 발견하고 있다.

4. 말씀에 관해서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인간의 언어로 신성에 관해 표현할 만한 단어가 이보다 더 없다.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의 가장 큰 구분은 이러하다. 창조자는 생명이고 창조물은 생명의 그릇이라는 차이이다. “나는 있다. I am”는 신성(Deity)의 전달할 수 없는(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호칭이다. 이것은 영원히 그분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대를 망라하는 그분의 기념

비이다. 우리에게 관해서는 그 반대로 말해지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진다. 창조를 엄격하게 생각한다면 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생명은 창조될 수 없다. 유기체(organism)들이 창조되고 거기에 생명이 나누어진다. 유기체들이 창조로 생겨나고 생명은 유입(influx)에 의해 주어진다. 완전히 다른 점은 그것이 하느님과 더불어 있었다는게 아주 다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시냇물 흐르듯 생명이 말씀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생명의 샘으로서 말씀 안에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말씀은 신성의 특징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것과 같다.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생명을 가지신 것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요한5:26). 그러나 복음서 기자의 서술은 이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아직 더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말씀이 영원한 지혜라고 이해될 때에만, 영원한 지혜가 영원한 사랑과 하나되어 영원부터 존재했다고 이해될 때에만 보여질 뿐이다. 그 자체만을 생각해보면 생명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가장 깊은 활동이다. 그러나 열이 빛 안에 존재하듯 사랑이 지혜 안에 존재하는바 생명은 사랑으로, 빛은 지혜로 서술된다. 사랑은 지혜의 생명이다. 마치 지혜가 사랑의 빛인 것과 같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이 말씀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이런 복된 진리, 즉 신성한 지혜 안에 신성한 사랑은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뼈대를 만든 말씀은 무한한 사랑의 무한한 지혜였다. 정녕 말씀은 지혜로서 사랑 자체요 빛으로서 생명 자체였다. 신성한 지혜는 신성한 사랑을 받는 그릇이 아니라 지혜로서 존재하는 사랑 자체이다. 생명이 그 자체를 빛이 되게 한 것이다. 무한하신 분이 빛을 옷으로 삼아 자신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 자체였다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생명과 빛은 마치 태양의 열과 빛의 관계같이 유한한 그릇들 안에서 분리될는지 모르나, 그들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흐르고 있다. 이 "처음", 사람이 자기제조자의 정신적 형상이었을 때 그들은 인간적 그릇들을 수단으로 하나되어 받아들였다. 그 다음 생명은 진실로 인간의 빛이었다. 그 이유가 의지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이 이해성 안에 있는 지혜의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생명이 시작된 곳인 모든 영혼의 가장 깊은 속 안에서 신성한 지혜로서의 신성한 사랑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밀한 거처를 두고 계시면서 불멸



에 관한 모든 선물을 증여하시고, 선한 자에게 행복의 축복을, 악한 자에게까지도 자유와 이성이라는 자질을 수여하시기 때문이다.

복음서 기자가 알게 만든 이 진리는 이러하다. 말씀, 육이 된 말씀은 자신 안에 세상이 자기의 소생을 위해 필요했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이 계발되는데 요구된 빛까지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사도 요한의 다른 서간문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1서 1-2). 생명이 사랑이고,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었던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분명히 나타난 생명은 신성한 사랑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진리가 얼마나 위엄과 위로를 주는지!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언제나 일한다. 마치 인간의 사랑이 인간의 총명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신성한 일 안에서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 마치 지혜가 결과를 발생하는 원인인 것과 같다.

5.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주님께 빛의 필요성을 제공한 인간의 상태와 조건이 이제 서술되고 있다. 빛이 영혼에 비쳤다. 그러나 계발되지 않은 마음의 어두움이 그 영혼이었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 열려 신성한 빛이 마음의 가장 높은 수준을 통해 들어가 중간 매체를 거쳐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어있었다. 타락과 동시에 인류의 하강으로 마음은 진리의 빛에 대해 계속적으로 닫혀졌는바, 빛이 어둠에서 빛났고 어둠은 그것이 빛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신성한 태양의 빛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모든 마음에서) 한결같이 꾸준히 빛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로부터 받는 계발의 수준은 마음 자체의 조건에 의존된다. 영적인 빛도 자연적인 빛처럼 그 빛이 대상(object)에 머무르면서 반사될 때에만 볼 수 있게 한다. 영적 빛의 대상은 감각이라는 매체를 통해 밖으로부터 획득한 진리들이다. 이 빛의 항구적인 현존으로부터 마음은 볼 능력, 즉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실지로 보게 하거

나 이해하게 하는 빛의 반사를 일으키는 진리들이 공급될 때만 가능하다. 신성한 빛은 새로 출생한 유아의 영혼 안에서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어둠 안에서 빛나고 그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에 지식으로서의 진리가 외부로부터 공급될 때 내향의 빛은 그 빛의 대상체로 그 진리 위에 머무른다. 그 다음 그 빛의 반사가 얼마나 진실되고 충만되느냐에 비례해서 마음은 총명해져간다. 빛이 자연에 관계되는 진리에 머무르면 그것은 과학의 빛이 된다. 그러나 그 빛이 영계와 영적 삶에 관계되는 진리 위에 머무르면 그것은 종교의 빛이 되어간다. 종교에 관한 빛 중 가장 높은 대상인 진리는 씌어진 말씀 속의 순수한 진리에 머물러 반사될 때 마음은 정녕 영적으로 계발되어진다. 이와 달리 마음에 공급된 대상이 순수한 진리가 아닌 가상적인 진리일 경우 그 빛은 불완전하게 반사된다. 더구나 그 빛이 진리 대신 오류나 잘못된 것들, 특히 왜곡된 진리에 떨어질 때 이 빛은 어둠으로 변한다.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다고 말한 그 어둠은 무지와 잘못이라는 어둠, 특히 이방인의 무지와 유대인의 잘못이라는 어둠이다. 인간 마음은 악에 의해 뒤집히게 되었다. 그래서 빛은 빛의 광선을 질식케 했거나 흡수해버린 대상에 떨어지거나 공허함만을 비추었다. 따라서 그 빛은 어둠과 침침한 것 외에는 지각하는 능력에 표출하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인류의 일반적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런 희망 없고 무기력한 인간의 조건을 치료하는데 요구된 두 가지 것이 있다. 그 두가지 사항이란 내부로부터는 영원한 말씀에서, 외부로부터는 씌어진 말씀에서 새롭게 가동하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씌어진 말씀을 표현했고, 예수는 영원한 말씀을 표현했다. 이 둘의 새로운 작업이 복음서에 기술되고 있다.

6-8.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주님의 선구자의 이름이 발표되었는데 그는 마치 주님 자신의 경우 같이 출생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이름이 주어졌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지니는 공식적이고 표본적인 품성은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요한, John”은 “요하난, Johanan”의 단축형이다. 요하난은 구약성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여호하난(Jehohanan)의 단축형이다. 이런 형태에 속하는 다른 이름들 같이 신성한 이름 여호와(Jehovah)의 일부와 병합되어 각기 적절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한이란 여호와

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성한 이름은 여호와이다. ”요한“은 씩어진 말씀을 표현한 사람을 위해 가장 적절한 이름이다. 씩어진 말씀은 신성한 사랑의 선물인바 요한이라는 이름은 신성한 사랑 자체가 육으로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7.8. 여기서 요한에게 주어진 묘사는 그의 공적이고 표본적인 품성에 정밀하게 응답하고 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씩어진 말씀은 내향의 빛에 대한 증언이다. 그 이유는 이미 살핀 바같이 우리가 내향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씩어진 말씀 속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대상이 되어 거기에 비추인 빛을 반사할 때 뿐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들은 그 자체 빛이 아니나 빛의 증거들이다. 말씀 속의 진리들은 증거로서 보내졌고 증거하기 위해 오고 있다. 말씀 속의 진리가 증거 하는 목적은 이렇다. 그 진리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그 진리들은 믿음이 형성되는 재료들이다. 말씀 속의 진리들의 빛과 생명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오고 있다. 이 진리들은 믿음의 몸을 이루고 그 몸체의 영혼은 주님이시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 개인적으로 그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때에 이 일을 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영접을 위해 회개로 준비된 마음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표본적으로 이를 행하고 있다. 내향의 빛으로서 주님의 길은 씩어진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 또는 말씀이 그 참된 의미에서 이해될 때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준비될 수 있다. 요한이 주님의 선구자로서 온 것은 말씀이 뒤집혀 있는 교회 안에서 말씀 속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원상태로 회복된 말씀이 요한으로 표현되었다.

9. 이제 요한이 빛의 증거로서 그의 증거를 전달하고 있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예수는 참 빛이고, 이는 왜곡된 모든 빛들에 반대될 뿐 아니라 그늘지거나 표현 자체에 불과한 빛과 구별되는 참된 실제의 빛, 또는 빛을 받고 반사하는 빛과 구별되는 근원적인 빛이다. 육을 입으시기 전 이 빛은 간접적이고, 유한한 통로를 통해서, 또는 천사를 매체로 해서 사람들에게 왔다. 이제 이 빛은 그분의 인성이 중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직접사

람들에게 왔다.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주님은 참 빛이시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고 이 진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빛, 보편적인 빛이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형체인 인간 마음은 빛을 받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 마음 그 자체는 등불이 아니라 등에 불과한바 위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어떤 빛도 없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다 라는 영감된 선포에서 우리가 확증하는바, 신성한 빛은 모든 인간 마음 안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지적인 세계의 빛이시다. 우리는 태양의 빛 없이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보다 더욱 신성한 빛 없이 지적으로 볼 수 없다. 참으로 주님은 비유적이 아닌 실제로 영계의 태양이시다. 이 태양의 빛을 수단으로 천사와 인간들이 보는 것이다. 이 빛을 수단으로 사람들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의 영의 측면에서는 영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천사라는 존재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자연계의 몸을 벗은 이들같이 가시적으로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리의 빛, 뿐만 아니라 이성의 빛도 태양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영적 차원에서,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의 처음 시기부터 마지막 시기 까지 마음 안으로 소개되어진 밝히 알려진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이다. 계시 속의 진리들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을 담은 그릇, 또는 빛이 떨어지는 대상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 이 영은 마음의 내면을 통해 들어가 밖으로부터 감각을 통해 들어온 계시 속의 진리 안에서 그 영에 알맞은 그릇들을 발견한다. 진리의 영이 생각에 들어갈 때 생각을 계발한다. 그것이 애정으로 들어갈 때 애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말씀 속의 진리들이 사실(fact)들로서 자연적 마음 안에 남아있는 한 그것들은 계곡에 널려진 마른 뼈에 불과하다. 그것들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이고, 이럴 때 계곡의 마른 뼈들은 대단한 위력을 지닌 큰 군대가 된다.

10,11. 주님께서는 육으로 그분을 드러내시기 전, 세상과 그분의 교회 안에 빛으로 계셨다.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 졌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의 것에 왔는데 그분 자신의 것은 그분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창조자요 유지자로서의 주님은 모든 마음들 안에서 빛을 내는 내향의 빛으로서, 그리고 천사와

인간을 통해 자신을 밝히 알리고 명백하게 해주심으로서 세상 안에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만든 세상으로부터 하느님이 차단 당하셨을 때 이는 깊은 악행과 죄있음에 대한 표시였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가장 높은 의도는 이리했다. 그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의 혼(soul)안에 거하시면서 그 혼이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다. 특이하게 인간의 혼은 “그분 자신의 것, his own”이다. 그분은 그것의 틀을 스스로 짜셨다.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독특한 거처로서 창조하셨다. 이와 똑같은 적용이 교회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교회는 지상에 그분의 나라가 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교회는 진리를 수단으로 형성되고 진리의 영에 의해 계발되고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말씀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틀을 짜서 인간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 교회는 주님께서 그것에 생명의 숨을 불어주실 때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된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오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 오시는 셈이다. 그 이유는 교회의 틀을 짠 진리들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진리들이 뒤집히고 왜곡되어있을 때 이 진리들은 빛을 거절하거나 질식시킨다. 그 다음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것에 오실 때 그분 자신의 것은 그분은 알아보지 못한다. 본문은 그분을 알지 못한 세상과 그분을 받지 않은 세상을 구분하고 있다. 글자적으로 볼 때 “그분의 자신의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의 교회를 형성한 이들과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 또는 교회와 구별되는 세상을 형성한 이들이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과, “그분 자신의 것”은 선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 또는 추상적으로는 그 지식 자체들이다. 주님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믿음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에게서든, 이타애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에게서든 빛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회와 세상 모두가 참 빛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어둠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인류에 평배되어있던 상태였다.

12. 비록 주님의 빛과 생명의 거절이 일반적인 상태 였다해도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지는 않았었다. 일부는 그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였던 이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까지도 그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셨다.” 주님을 맞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영을 애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분의 진리의 영을 이해성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받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만이, 또는 자신 안에서 선과 진리, 사랑과 믿음이 하나될 때 뿐이다. 그 이유는 이와같은때만 하느님 속에서 태어남, 또는 거듭나지기 때문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이란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영을 받는 마음 안에 있는 진리 자체들이다. 그리고 이런 영접을 수단으로 그 진리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받는다. 진리가 지니게 되는 모든 힘은 선으로부터 파생된다. 마치 선의 모든 힘이 진리를 수단으로 발휘되는 것과 같다. 영적인 힘은 분리된 상태에 존재 않고 언제나 하나된 상태에서만 존재한다.

13. “그들은 피로부터도 아니고 육의 의지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부터도 아닌 하느님의 의지로부터 태어나졌다.” 출생에 관한 두 종류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다. 이 구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전달되고 있다. 누구도 지옥을 위해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천국을 위해 태어난다. 만일 그가 태어난 상태에서 죽는다거나 악가운데 있는 자신을 확증하기 전에 죽는 이들은 천국에 간다. 참으로 어느 누구도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어느 곳에 가도록 예정되어 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천국적 마음씨나 지옥적 마음씨를 가지도록 예정되어 출생하지 않는다. 아무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반대로 악마의 자녀가 되도록 출생되지 않는다. 두 번째 출생만이 당사자로 그 어느 한 쪽에 소속되게 한다. 대체로 우리는 두 상태, 두 장소, 즉 선과 악,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악하다고, 천국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지옥이라고 단정짓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선이든 악이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둘 중 하나일 것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요, 의롭지도 않고 사악하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상태(state of positive)라고 불리울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으로 볼 때 무지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상태에서 출생하고 그들이 이성의 시기에 도달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른다. 이 시기 동안 모든 사람은 선하고 참된 것, 악하고 거짓된 것에 비교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고, 더구나 악과 거짓이 결합되고 확증되는 상태에는 있지 않는다. 유아기에 죽는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즉각 올려져 천사의 보호 아래 놓여진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천국 안에 있다해도 천국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천사

들 사이에 있다 해도 그들은 천사 자체는 아니다. 그들이 천사적 삶의 상태로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사실상 선함과 진리, 사랑과 믿음의 하나됨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결과될 때까지 천사는 아닌 것이다. 그 이유가 이 하나됨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영적 의미에서 “피로부터 출생한 이들”은 진리를 모독하고 이타애에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다. “육의 의지로부터 태어난 이들”이란 자아사랑이라는 악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사람의 의지로부터 태어난 이들”은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설득해대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이들”은 주님에 의해 거듭난 이들, 그러므로 해서 새 창조물인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신다.

14. 어떤 인간의 단어로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었던 사건이 가장 간결한 언어로 놓여 있다. “말씀이 육이 되셨다.” 그럼에도 이 간단한 발표는 무한히 큰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 자체는 무한한 사랑의 결과요 그에 대한 표현이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한 지혜의 직접적인 명백함이었다는 것과 같다. 육을 입으심은 창조의 보완물이었다. 그래서 이는 계시나 섭리 차원보다 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의 완전한 명백해짐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인 창조를 위해 설비된 것인바 이것 없이 첫 번째 창조의 의도는 실제화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듯 나타날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것에는 어떤 모순된 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비록 하느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사이에는 어떤 비교도 있어질 수 없지만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성을 취하게 되신 것에 관한 관계, 이 관계는 신성한 질서에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육이 된 말씀은 인간의 창조자일뿐 아니라 인간의 본보기, 원형(prototype)이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셨다. 만일 창조로 신성 자체의 모양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신성은 인간의 외관을 갖지 못하셨을 것이다. 어쨌든 주님의 경우 한 가지 중요한 특이함이 있다. 이 특성이 하느님으로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 육체적으로 거하실 수 있게 했다. 옷입혀진 인성은 단지 창조물만이 아니라 신성의 자손이었다. 예수는 단지 창조된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탄생하셨다. 모든 인간의 경우 그들은 인간적 부모를 지녀 유한하고 부패된 상태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

다. 오히려 그분은 신성의 원리, 더럽타지 않은 원리를 가지셨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의 혼(soul)이라 부를수 있을는지 모른다. 인간의 혼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받는 가장 깊은 그릇이다. 그러나 주님의 혼은 생명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신성이다. 인성 속의 신성한 혼은 죽음에 괴로워하는 혼과 혼동되어 있지 않는다. 슬퍼하고 죽을 수 있는 혼은 이성적인 혼(rational soul, psyche)이다. 주님의 인성은 신성에서와 인간 혈통 모두로부터인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의 참 출생으로부터 그분의 인성은 바깥쪽으로는 유한하고 죄있는 어머니의 본성을 가졌고 안쪽으로는 무한하고 완전한 아버지의 본성을 지니셨다. 이런 덕택에 주님은 어느 사람 같지 않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유한할뿐 아니라 그 유한을 무한하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 예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위 발표는 주님께서 육을 입으신 데 관한 장엄한 진리이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기서 이 진리를 표현한 언어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육(flesh)은 인간성에 대한 또 다른 이름,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대로의 인간성에 대한 이름이다. 천사도 사람이긴 하나 그들은 영일 뿐 육이 없다. 하느님께서 육을 입으셨을 때 그분은 지상의 인간 같은 사람이 되셨다. 여러 상황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사람 사이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 또는 천사라 불리우고 있다. 이렇게 불리울실 때에 주님은 천사들에게 그분의 현존하심을 채워서 마치 천국 안에 있는 것 같은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나타내심도 일시적일 뿐이었고 어떤 특별한 의도만에 국한해서였다. 이런 나타내심은 인류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구속해주는 효과는 가지지 못했다. 이런 나타내심은 무질서와 죽음에서 인간 본성을 구속하기 위해 인간 본성의 육적 요소에 신성한 현존을 가져오지 않았다. 참으로 주님께서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입으실 때 같이 각 개인의 의식과 감각을 흡수하여 그분의 현존을 사람에게 채우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쓸모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요구되는바 주님은 단지 육을 입으시기만 해서는 안되고 육이 되셔야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람처럼 태어나 살고 죽어야 했고, 인간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천국으로 승강하는 절차까지 모두



거쳐가셔야 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인간 본성을 입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 본성의 영화하심까지 함축하고 있다. 구속과 구원이 요구하는 바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것, 즉 신성이 인성이 되시고 그 인성이 신성이 되시는 것까지 이었다. 확실한 의미에서 하느님은 육을 만드시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을 영화하시어 하느님이 되셨다. 이와 같은 두겹의 일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출생, 동시에 인간 어머니로부터의 출생이 아니면 결과되어 질 수 없다.

“말씀이 육이 되었다”는 구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주님 안에서 신성은 인성이 되셨는데 이는 태내(womb)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성이 되셨다. 이는 출생으로 인성을 입으신 것뿐 아니라 체험을 거치는 삶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다. 엄격히 말하면 출생했다는 것만 가지고 인간이라 말할 수는 없다. 막 출생된 인간 존재는 인간이 될 소지(germ)만을 가진 것밖에 더 아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인간이 되어간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존재는 다시 태어날 때까지 진실로 인간이 아니다. 주님도 이런 인간의 경우와 같다. 말씀이 육이 된 경우가 절대적 의미, 그리고 최상의 수준이 된 때는 육 자체가 더 이상 어머니 쪽의 실체가 아닌 아버지 쪽의 실체가 되었을 때 였다. 이와 같은 경우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누가24:39). 문을 닫아걸었는데도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계셨을 때(요한20:19)의 그분의 몸은 물질계의 몸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몸이 덜 실체적인 것도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는 요점은 영화하신 몸에 관해서라기 보다는 인간 본성을 입으신 몸에 관해서 이다. 이를 수단으로 말씀은 글자대로 “우리과 함께 계셨다.” 그분에 인간 본성을 입히심으로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우리과 함께 하는 하느님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에 그분이 숙소를 마련하신(tabernacled)것이다. 그분이 입으신 인간 본성은 성막(tabernacle)이었다. 광야에서의 성막은 여호와와 의 모습(Shekinah),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 영광으로 그분은 성막 안에 거하셨다. 육을 입은 말씀은 신성한 이름 자체이다. 이렇게 말고는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하느님의 본성을 밝히 알리고 명백해지게 할 재간이 없다. 말씀이 육이 되신 것은 단순히 육을 입으

셨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사이에 계셨다는 말씀 역시 그 분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현존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려 해서 였다. 이 문장의 번역을 위와 같이 바꿀 수도 있다. 그분께서는 인성을 신성의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성령의 성전으로 만드신다. 이 성전 안에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우리의 거처를 만들리라”는 말씀의 참 의미에 따라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영광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 안에서 빛나는 이 영광은 인간의 감각과 부딪쳐 즐겁게 하는 바깥쪽 광채가 아니라, 마음을 꿰뚫고 영향을 주는 내향의 광휘이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보는 예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과 인자하심으로부터, 그분의 지혜의 말씀과 사랑의 일로부터 빛나는 것들이었다.

신실한 자가 보게되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 그대로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이 신성한 사랑과 지혜 사이의 영원한 관계에 관하여는 1절에서 이미 살핀바 있다. 주 예수의 실지의 자녀된 신분은 18절,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되는 곳에서 세세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을 입으심이 거론된 후인 여기서는 그 타당함만이 엄격히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바, 주님의 신성한 인성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셨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보았던 것은 독생자의 영광 자체가 아니라 독생자 그대로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의 독생자란, 주님께서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내면의 인간 원리, 인간 어머니 쪽에서 파생된 것과 구별된 원리, 즉 신성한 선함으로 생각되는 원리였다. 이와 더불어 하나된 신성한 진리가 영광이라 불리고, 이 영광은 신성한 진리의 찬연한 광채이다. 보통의 경우 주님의 아버지쪽 인성의 영광은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어머니 쪽 인성을 통하여서만 보여지고 있다. 이 영광은 변모하신 산에서 빛났는데 그 때 제자들은 보통의 상태 보다 더 높은 상태로 들려졌었다. 그리고 어머니쪽 인성이

그 영광을 희미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감춰지지 않았던 내향의 영광을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구세주에게 있어서 “충만한 은총과 진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에 인간성이 부여된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인성이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인간 구원을 위해 자유로이 제공된 것이다. 주님은 하느님으로서 사랑 자체와 지혜 자체이시고, 사람으로서는 은총과 진리의 충만함이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기꺼이 주셨다” (골로사이1:19). 그리고 그분의 속성은 무한한 것 외 더 다른 것은 없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 (골로사이2:9).

15. 이런 은총과 슬기의 존재에 관해서 “요한은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였다.” 요한은 자기보다 그분이 서열로나 시간으로나 앞서신 분이라고 증언했다. 사실 이 구절 앞에서 이미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 육이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다시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구절의 선포는 이외에 또 다른 의도와 더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살핀 바같이 요한은 씌어있는 말씀을 표현했고 예수는 말씀 자체가 육이 되신 것이다. 특히 요한은 인간을 위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표현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 또는 신성한 진리 자체, 만물을 만들고 그 속을 채운 분, 천사와 인간에게 빛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된 분이다. 그런데 예수, 즉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의미에서 참되다. “처음된 자가 나중된 자이고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이다” 라는 법칙이 이 구절의 요한과 그분 자신의 경우에서 놀라웁게 본보기화 되고 있다. 씌어진 말씀은 인간의 생명과 빛으로서 육이 된 말씀에 앞서 와서 그 길을 준비한 다음, 마지막 켤레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자신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밝히 알려진 말씀에 관해서도 같은 원리로 풀이된다. 가상적 진리가 순수한 진리에 앞서 오고 글자적 의미는 영적 의미에 앞서 온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영적 진리는 천적 진리에 앞서 오고, 천적 진리는

신성에 앞서 온다. 모든 경우에서 뒤에 오는 것은 원형된 것에 앞서고 있다. 참으로 선행된 것이 전에 존재했다. 그 이유가 보다 낮은 것은 보다 높은 것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낮은 것은 높은 것의 수단이 되어 높은 것의 목적이 달성되게 해준다.

16. 그러므로 요한은 육이 된 말씀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14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충만, 모든 충만, 신성으로 충만 되어 있는 것을 살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말씀이 육이 된 것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육을 입으심으로 주님은 최말단에서의 신성한 진리가 되셨다. 그리고 최말단 안에 신성한 진리는 충만되어있고 그 권능을 담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님의 인성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분 안에서 신성의 완전함이 더 가까이 가져다 놓여서 우리에게 더 접근하기 쉽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보다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더 가까우다.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충만되면 타락되고 무르디 무른 인간성에 더 가까이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예수 안에 거주했고 거주하는 충만은 이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공급되어야 할 충만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fulness)에서 받았다. 그분의 인성은 우리를 위해 열린 샘이다. 이로부터 사랑과 자비의 끊어지지 않는 시냇물이 흐른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을뿐아니라 “우리는 은총 위에 은총을 받았다.” 이는 특이한 어구이다. 그래서 생각에 잠기게 한다. 복음서 기자의 말씨로부터 추리되는바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체된 은총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이 문단의 글자적 의미는 저명한 주석자들에 의해 동의된 바 같이 은총 위에 은총이다. 즉 풍부한 은총이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했다” (로마5:20). 우리 주님의 신성한 충만이 이 어구와 연결되는바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것은, 둘 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이 제공되도록 더 가까이 가져다 놓는 그분의 풍부한 선함과 진리가 표현되도록 의도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실한 제자들에 의해서만 받아졌다. 은총(grace)은 마치 죄를 위한 큰 제물같이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제공되었고, 신성한 총애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게 일반적이다. 직바르게 이해할 경우 거기에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다. 은총은 자비의 자매이다. 둘다 사랑의 자손이다. 우리가 은총이나 자비, 또는 사랑을 말할 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구원의 수단으로서 신성한 사랑에 빚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은총은 우리의 필요성에 부응된 것밖에 더 아니다. 신성한 은총은 그리스도의 고통받음과 정의로움을 수단으로 우리를 위해 구매된 총애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교회나 하느님의 말씀은 모르는 언어이다. “넘치는 은총”이란 넘치는 사랑이다.

17. 이제 요한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모세에 의해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과 진리는 유대교회와 기독교회 처방으로서, 유대주의와 기독교주의로서, 율법과 복음으로서 서로서로 관계되어 있다. 이 둘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그 둘은 서로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모형과 원형(type and antitype)의 관계, 그림자와 실체, 글자와 영의 관계이다. 이들 사이에는 폭넓은 구분이 있다. 그럼에도 친밀한 관계이다.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고, 가까운데도 떨어져있고, 서로 닿고 있는데도 하나가 아닌 율법과 복음이 말씀 안에서 나란히 서 있다. 마치 하느님의 선함과 지혜가 연속적으로 명백해진 두 개로서 타락하고 죄있는 창조물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율법은 견본(type)이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선구자(harbinger)였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주는 학교 선생이었다.” 이 구절 같은 율법의 직능은 더 높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율법은 선생이라기보다는 관관으로 간주하는게 더 나은 것이다. 율법 기능 중의 하나는 유죄 판결의 선고를 낭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인간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얼마나 특이한지! 이것은 도덕적법이 예식적 법과 부분적으로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법이 일시적 처방의 규정과 함께 휩쓸려 진 듯 상상하게 해준다. 도덕적 법은 모든 처방에서 생명의 규율이어야 한다. 이것은 모세 시대보다 더 오래된 법이다. 돌판 위에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씌어진 계명들은 인간 심정이라는 판에 창조자에 의해 근원적으로 새겨왔던 영원한 질서의 법과 똑같다.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것, 기독교신앙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심정이라는 판에 그것들을 다시 적어서 근원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규율로가 아닌 원리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내향의 부분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 심정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33). 옛 언약은 율법의 글자, 즉 바깥쪽의 순종이라는 조건에 건설되어졌다. 새 언약은 율법의 영, 즉 내향의 원리에 건설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와진 은총과 진리는 율법의 대체물이 아니라 율법의 보충물이다. 진리는 이해성에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은총은 심정에 그 의미를 더 깊게 새겨지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근원 차원에서 주님과 관련된 은총과 진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이다. 그릇 차원에서 사람과 관련된 은총과 진리는 이타애와 믿음이다. 이타애와 믿음이라는 기독교인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와졌다. 이것은 글자라는 모세 법의 영이고, 그림자라는 유대주의의 실체였다.

교회와 인류 차원에서 율법과 복음서에 관해 말해진 것은 개개인 차원에서도 모두 참되게 적용된다. 모든 이 각각은 학교 선생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는바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데려와야 한다. 인간은 신성한 질서를 원리로서 소유해서 행동할 수 있기 전에 먼저 규율로서의 신성한 질서의 법칙을 배워 순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가 은총 아래 있기 전,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

18.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구원하는 선물을 주시는 분일뿐 아니라 이 전에 감추었던 근원, 보이지 않고 있던 저자를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셨다.” 하느님과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름들은 신성 안에 있는 구분이 되는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는 육을 입는 때가 도래해서야 비로소 그 사용이 시작되었다. 실로 육을 입으신 사건 때부터 이런 이름들은 글자대로도 적절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인성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성은 실지였고 하느님의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태어나게 하는 신성과 태어난 인성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되도

록 사용된 이름들은 후에 신성한 사랑과 지혜 또는 하느님과 말씀, 모두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유추적으로 응용되었다. 이 구분을 표현한 이름들은 신약성서가 지닌 독특한 것들이다. 신성한 본성을 구분 짓는데 관계되는 이름들,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들이 구약성서에서는 왜 거론되지 않았을까? 어떤 이들이 이에 대해 상상하는바, 유대인들은 외적 측면에 강한 백성이어서 다신교 쪽으로 쉽게 타락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이름의 사용이 구약성서에서는 억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름에 관련된 듯한 사항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희미하게 알도록 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 기독교인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혜롭게 감추여 놓았던 다양한 진리들을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신성한 이름인 아버지와 아들이 구약성서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수궁하게 하는데는 흡족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런 이름들이 표현하는 관계성이 구약성서 시대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서일까? 하느님은 그분의 호민관적인 본성 차원에서 존재하셨다. 그 이유가 이런 존재가 필요했고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실지의 구분은 욕을 입으실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욕을 입으신 후에야 두 이름의 상호관계가 정립되었다. 이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이름들은 신성한 본성에서 서로 상응되는 구분을 갖게 되었고 그에 관한 사상도 일관되게 펼쳐졌다. 말씀, 욕이 되셨을 때, 아들 즉 신성하게 태어난 인성과 하나인 아들이 되었고, 그 안에서 마치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무르듯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 또는 영원한 사랑은 아버지가 되어 지존하신 분의 권능을 수단으로 인성이 태어나게 한 것이다. 참으로 신성한 행동은 하느님 자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영에서 비롯된다. 이 영은 아버지와 구분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Divine energy) 또는 신성한 진행(Proceeding)이다. 이를 수단으로 신성한 사랑은 실행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해둘 것이 있는데, 구약성서에서는 신성한 아버지와 신성한 아들의 존재에 관해 어떤 암시도 없는 반면 하느님의 영에 관한 언급은 자주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일관되게 결론을 맺은 바같이 그 때에는 하느님의 영이 실제로 존재했고 하느님의 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된 그분은 말씀으로서, 또는 신성한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신성한 지혜로서 존재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사랑이 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또는 최말단에 있는 말씀을 보는 쪽으로 계시했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로 밝혀지거나 명백해지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다. 하느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의 어떤 모양새라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외아들만이 그분을 명백히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19-22.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교회 속의 원리가 거론될 경우, 교인들은 “유다인”이라 불리고 “예루살렘”은 그 교회의 지적 측면의 원리, 또는 교리에 관한 측면의 교회를 의미해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는 유다인”이란 이해성으로부터 과견되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마음이 과견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것은 그것의 애정과 생각들, 그것들이 선하든 악하든 어느 쪽의 애정과 생각들인데, 이것이 “대사제와 레위 지파 사람들”로 의미되고 있다. 복음서 기자는 특사를 보내는 유다인들에 관한 이 사건을 “이것은 요한에 관한 기록이다” 하고 말함으로써, 그의 증거는 본인과 그의 사명, 또한 주님에 관한 증거라고 말하여 소개하고 있다. 대사제와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고 있다. 이는 요한이 표현한 밝히 알려진 말씀 자체에 관해 묻게 될 때 있어지는 밝히 알게 된 말씀의 품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는 말씀 자체가 대답해야만 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그 이하의 증언은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요한에 관한 기록은 무엇인가? “이 때 요한은 고백하되 부정하지 않았고 다만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예상하려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진리 자체, 말씀이 육이 된 것이다. 요한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만을 고백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하고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자 약속된 엘리야인지 다시 물은 이유는 주님에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언의 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엘리야였으나 예언의 글자라는 측면에서 그는 엘리야가 아니었다. 장차 엘리야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에게 요한은 그 예언자가 아니었다. 글자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는 요한이 표현한 품성 측면이 보여질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요한과 엘리야 모두 씩어진 말씀을 표현했지만 요한은 엘리야가 표현한 씩어진 말씀은 아니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그 예언자요? 하고 다시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 구절의 대화는 신명기 18장 15절의 기록, 즉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한다”고 언급한 예언자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예언자는 주님께 앞서 오는 선구자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었다. 다시 말해 씩어진 말씀이 아니라 육이 된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 예언자가 아니라 그분을 표현했을 따름이었다. 설사 우리가 요한을 보통의 예언자로 이해해보려 해도 그는 아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마대로 그는 보통의 예언자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느 예언자라해도 예언자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다. 또한 여느 예언자도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교리를 표현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여느 예언자 그 이상이었다. 그 이유가 그는 말씀 자체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사제와 레위인이 요한에게 다그쳐 묻는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들의 이 질문은 이제까지 요한이 말한 것을 부정적 측면의 답변이었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선포를 해보라고 다그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는 만족될 수 없다. 만일 그것이 부정적인 상태 안에 있다면 마음은 향의할 긍정적 측면의 어떤 것을 원한다. 만일 마음이 확신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 확신된 것이 기댈 긍정적 측면의 어떤 것을 원한다. 그러나 주님은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알아봐야 기껏 그것을 부정하거나 모독하기 위한 방편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차원에 있는 자들에게 긍정적인 진리를 주시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사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분께 질의한 이들에게 긍정적 태도 또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분이 잡히시어 심리를 받았을 때 대사제가 살아 계신 하느님을 수단으로 그분께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다그칠 때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분께서 잘못 기소 되었을 때 그분은 기소자들에게 한마디 말도 결코 답하지 않으셨다. 이제 아래에서 요한의 자신에 관한 증언을

듣게 된다.

**23,24.** 요한이 말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오.” 요한은 썩어진 말씀을 표현하고, 그가 온 것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 메시아를 인정하고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표현한다. 이외에도 이것은 인간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되는 수단은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요한이 선포하기도 전에 세상에 계셨던 것은 진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은 위대한 선생으로서 세상 앞에 그분의 오심을 선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분의 공적인 일들을 개시하기 전에도 이미 그분은 사람들 틈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살아오셨었다. 이것은 거듭나는 이들에게서도 영적으로 실감하는 사항들이다. 주님은 자연적 납득의 대상이 되도록 보다 낮은 마음의 영역으로 내려오기에 앞서 마음의 내면들 안에 현존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기 전에 썩어진 말씀의 가르침들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 놓아야만 한다. 아버지의 심정이 자녀의 심정으로, 자녀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 주님의 오심이 저주로 지상을 내려치지 않도록 요한이 보내졌던 것이다. 특별히 이 준비는 회개와 세례로 결과된다. 아직도 이 두 가지는 주님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준비수단으로 되어 있다. 회개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 영적으로 순수해짐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과 악한 생활로부터 악을 제거해서 그 마음과 그 삶이 영적 수준의 사랑과 진리를 승인하게 만든다.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주님은 내부에서 작업하신다. 그 반면 밝히 알게 된 그분의 말씀은 외부로부터 작업한다. 이 말씀이 광야에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이다. 이 교회는 광야 같은 상태에 있었다.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마음은 광야 같다. 그래서 천국적 진리의 소리가 인간에게 회개하도록 먼저 요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권면한다. 회개는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든다. 그 이유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곧게 편다는 것은 무지의 악을 진리의 선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서기자가 주시했던 바는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의미에서 이 구절은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대해 질문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어쨌든 바리사이파 사람은 바깥쪽은 깨끗하게 하지만 안쪽에는

온갖 썩은 것들로 채워 두는 이들을 표현했다. 이런 품성의 소유자가 요한에게 질문을 해보았자 기껏 자기들의 품성에 관한 것만 되물어 볼 수 밖에 없다.

25.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물로 씻는 행위는 비록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세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예식 행위의 한 부분이었다. 교회로 받아들이는 예식에 관한 것은 모세의 법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모세와 엘리야가 세례를 베풀러 올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그들의 전통적 믿음이 되어 있었던 듯 여겨진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한다면 왜 세례를 베푸는가? 하고 다그쳤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주의로 전환할 경우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은 기독교신앙으로 전환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신앙이라는 말은 그들이 수긍하는 정도만큼에서 이르는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바리사이파 사람은 요한에게 자신의 고백대로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어떤 예언자도 아닌 신분인데 세례를 베풀 권리가 있는가고 묻은 셈이다. 그러나 이런 바리사이파 사람의 질문은 자연적 인간의 세례로 표현되는 깨끗해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순임을 보여주겠다는 언급이나 다를바 없다.

26.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서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요한의 말은 이렇다. “나는 다만(indeed)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의 세례, 즉 성령이 함께 있는 예수의 세례와 구별되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런 구분은 비록 이 구절에서 표현된 것이 없어도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는 별 의심이 있어지지 않는다. 요한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세례는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밖에 더 아니라는 것,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 그들이 묻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다”고 요한이 말했을 때 요한이 말해주려 했던 의미는 그의 세례는 외적 인간을 깨끗하게 함을 표현하는 외적일 뿐인 세례라는 것이다. 만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베풀음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예수의 세례에는 뭐라고 이

의를 제기했을까? 어쨌든 영적으로 이것은 상응되는 용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물론 베포 요한의 세례는 말씀의 글자로 결과되는 깨끗해짐이다. 요한의 세례에 있는 물은 글자적 의미 속의 진리들을 의미하는바, 물세례는 이 진리들을 생활에 응용함으로 결과되는 깨끗해짐이다. 그러나 이런 바깥쪽 세례가 결과되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한 분이 거기에 서 계신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은 모든 마음의 가장 깊은 속에 현존하신다. 그러나 자연적 인간의 순수해짐이 그분을 드러내지게 만든다.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했을 때 그분은 공적인 시야에 들어내실 수 있다. 그분은 안쪽 마음으로부터 바깥쪽 마음으로 나오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식하는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자신을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신다.

27. 이 세례자는 예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오.” 주님만이 위대하실뿐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밖에 더 아니라고 증언하는 요한의 겸허함은 이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다운가! 개인 차원에서도 요한보다 예수가 더 앞서 있고 더 위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구절인 15절에서 이미 살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이런 서술을 만드는 요한의 예증 자체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 요한은 예수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었다. 이 당시 순례자가 여행의 피로로 쉬고 싶었을 때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야 했는데 이 벗기는 일은 가장 천한 하녀가 맡았었다. 사람의 아들을 위한 가장 비천한 일조차도 수행할 가치가 없는 자라고 자신을 선포하여 그는 서열로나 완전함에서 주님에 비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위이라고 자신을 인정했다. 세례자의 이 구절의 말은 겸손이라는 일반적 교훈 그 이상의 것도 가르치고 있다. 발, 특히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인 발바닥의 경우 마음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의 자연적 원리와 유추된다. 발에 입혀져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은 육적인 원리들과 응답된다. 이 원리는 마음보다는 육체에 더 소속되는 물질적 생각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물질적인 것, 즉 진실로 영적인 것들을 덮어주고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신발이 가장 낮은 것을 상징하듯 신발 끈은 지극히 작은 것을 상징한다.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말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 끈조차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창세기 14:23). 신발 끈을 푸는 것, 주님께서 신발을 제거하시는 것은 구속과 구원이라는 그분의 일들을 완성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영혼의 산고를 보시고 만족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 부모로부터 상속된 육적인 모든 원리, 신발과 비슷한 의미인 지상의 흙처럼 땅 위 그분의 순례여행 동안 어머니쪽 인간성에 꼭 달라 붙은 외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실 때를 가리키고 있다. 그분의 인성에 있는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작업은 어느 인간도, 어느 천사도 돕지 않았다. 여느 예언자보다 큰 요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들 중 가장 위대하다고 말해진 요한조차도 주님의 그런 작업을 나누어 헤드릴수 없었다. 주님께서 포도주 틀을 홀로 밟으실 때 어느 백성도 그분과 함께 하지 않았듯 (이사야63:3), 그분은 홀로 그분의 인성, 죽어져야 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모두를 영화시키셨다.

28. 복음서 기자가 방금 기록했던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읍이 서쪽이었는데 이곳은 요르단의 동쪽이었다. 그러나 비록 전자는 가나안 땅의 안쪽이고 후자는 바깥쪽이었다 해도 요르단 강 건너편 베다니아는 교회를 표현했던 영역 밖이라고 엄격하게는 말해지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을 점유했을 때, 2/2지파는 요르단강 서쪽지역에 그들의 상속분을 정했다. 요르단 강의 동쪽에 있는 이들은 외적 교회와 외적 인간을 표현했다. 가나안 지역 자체 안에 있는 이들은 내적 교회와 내적 인간을 표현했다. 요르단 강 이쪽에 절반, 저쪽에 절반을 차지한 am나쎄 지파는 내적, 외적 인간 사이를 접합시키는 매체를 형성하는 상호간의 사랑이라는 원리를 표현했다. 베다니아는 르우벤 지파의 영토에 위치했다.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는 열 두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 이런 의미들을 지닌 곳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다. 베드로처럼 르우벤도 믿음이라는 품위(grace)를 표현했다. 베다니아(the place of late trees)는 믿음 속의 진리들을 지각하는 상태를 표현했다. 거기서 요한은 바리사이파 사람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육이 된 말씀이라고 가리켰고 그렇게 선포했다. 거기서 요한은 씹어진 말씀을 표현하는 자기가 인류를 구속하려고 세상에 오신 영원한 말씀 자체를 낳게 되는 연결 관계를 가르쳤다. 이 베다니아가 요르단 강 건너에 있었고 거기서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믿음 속의 진리들이 바깥쪽 인간 그리고 외적 교회 안에 이식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거기에 거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

지 가르쳐 주고 있다. 이는 마치 르우벤이 요르단 강 건너편에 그의 상속분을 가졌던 것과 같다. 그 반면 유다 지파로 그 모형이 된 내적 인간과 내적 교회의 원리인 주님을 사랑함은 가나안 영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거기서 있어졌듯 요한은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가 교회로의 입장, 그리고 바깥쪽 인간의 깨끗해짐을 표현했는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의 진입을 시도한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수행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르단 강을 건너 그들이 안식할 장소로 진입했다. 요르단 강은 마음을 훈육해서 순수해지게 하는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회개함과 그 일로 세례 받음은 기독교인이 통과해 가야 하는 과정, 즉 땅 위 그들의 고향인 아래쪽 교회에서 천국에 있는 그들의 고향인 위쪽 교회 사이에 놓여 있는 과정이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가 인간의 구세주이시다는 위 증언은 이 얼마나 고상한가!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주이신 구세주의 탄생을 발표한지 삼십 년이 흘렀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막 보여주시는 때에 요한이 그분을 두고 세상의 죄를 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천사와 세례자 모두 주님의 특사였다. 천국의 특사는 내적인간인 하늘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길을 준비하고, 지상의 특사는 바깥쪽 인간인 세상에 그분이 강림하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까지도 주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에 종사해 오셨다. 그러나 그것은 내향적이고 감추여 있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인간적 삶의 바깥쪽의 행동에서 보다는 그분의 인간적 의식 세계의 안쪽 깊은 쪽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도 마치 그분이 인간을 거둬나게 하실 때의 경우처럼 먼저 내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 거둬나게 하시듯 자신을 영화해 가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지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는 천국의 천사들 사이에서 더 함께 하셨다. 그 이유가 주님은 인간뿐 아니라 천사들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영화하시는 단계들은 그분 삶의 시기들과 맞추어져 있다.

인성 측면에서의 주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유대교 제물, 특히 매일 마다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위대한 대형(antitype)되신다는 차원에서 그분에게 주어

진 이름이었다. 더불어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도 주어진 이름이다. 과월절 어린 양은 예수의 이런 모형, 즉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제공하셨다는 측면에서의 모형이었다. 그러나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제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제물은 주님께 헌신된 것, 또는 그분을 섬기는데 성별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제물에 관해 그것은 그분의 죽음에 있는 것으로, 형벌의 고뇌로서 생각해 왔다. 이런 견해는 유대교의 제단에 제공된 동물의 죽음이 유대교의 제물을 구성했다는 잘못된 관념에 대체로 안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물과 그분의 십자가형을 뒤죽박죽해놓아 모형(type)으로부터 대형(antitype)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동물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과 유추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형의 죽음도, 대형의 죽음도 그들의 제물을 구성하지 않았다. 제물은 제단 위에 동물을 바치는데 있다. 주님의 경우 이에 유추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몸이 몸에 내재한 그분의 신성을 섬기는데 영원히 성별되어 졌던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형과 제물은 그 정체로는 거리가 멀고 품성 측면에서도 반대되어 있다. 십자가형은 옛 것의 죽음이다. 제물은 새로운 것의 성별됨이다. 이런 구분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구절을 몇 군데 찾아 읽어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 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6:5-6).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읽는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5:24). 그리고 같은 서간문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6:14). 그러므로 옛사람, 죄의 몸, 정욕과 욕망을 지닌 육신, 세상, 등등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되는 것들이다. 이 사도 역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제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 제물은 하느님께 역겨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흠족해하시는 제물들은 죽은 것도, 불결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순수하고 생명있는 것들 뿐이다. 육적 욕망을 지닌 옛 사람이 아니고 천국적 애정들을 지닌 새 사람뿐이다. 그러

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12:1-2).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느님께 찬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13:15-16). 구약성서의 경우 이런 종류의 예는 수두룩하다. 예배자는 정의의 제물, 기쁨의 제물, 감사함의 제물을 바치도록 권면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깨지고 회오하는 심정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납득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의해 바쳐지는 모든 제물에 응용되는 똑같은 법이 한 개의 위대한 제물, 주님에 의해 바쳐진 제물, 그분 자신의 제물로 충만되어졌다. 그분의 옛 사람, 무르디 무른 인성은 십자가형에 처했고, 그분의 새로운 사람 그분의 영화되어 일어난 인성은 제물로 바쳐졌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에페소5:2)”은 그분의 영화하신 몸에서 였다. 그 이유가 예수는 “하느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 (히브리9:14). 주님의 제물은 유대교회의 제단에서 모든 제물의 위대한 대형(antitype)이셨다. 여호와께 향긋함은 그 제물의 향기였다. 그 이유가 바쳐졌던 것은 성별되고 완전하게 영화된 인성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제물은 모든 제물 중의 제물이었다. “그분은 단 한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다” (히브리10:14).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제물은 세상의 죄를 없애실까? 이교도 국가에서 제물은 신성한 존재를 달래기 위해 바쳐졌다. 죄를 지었을 경우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그들은 참회의 표시로 신성이 응낙할 만한 제물을 수단으로 그분의 용서를 획득해야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인간 차원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계시는 우리에게 이런 큰 문제에 대한 참된 관점을 주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모든 그분의 창조물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이 창조물 안에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적이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을 중단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할 뿐 하느님이 인간과 화해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참으로 이런 견해도 있다. 하



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한편 그분의 정의는 죄에 대한 만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에는 어떤 기획, 즉 하느님의 정의가 그분의 자비와 회개하는 기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정의의 삶을 살고 죄지은 자의 죽음을 죽여서 신성한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획들이 이루어지면서 죄인은 이제 구원될 것같은데 죄인들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해서 구원된다는 것이다. 이런 대체됨(substitution)이라는 생각이 구속의 계획 안으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 앉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육을 입으심에 있는 어느 다른 씹씹이는 볼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을 준비도 된 셈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죄인들 대신에 살아주고 죽으러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죄인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될까? 우리는 이에 흡족할만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는 경우의 진짜 상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버렸는바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오는 게 인간에게 필요하다.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느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이사야59:2). 이것이 인간의 상태요 조건이었다. 하느님과 멀어졌다는 인간은 그것을 회복한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하느님과 불편한 관계인바 화해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더욱 구원받을 것이다” (5:10). 그러나 어떻게 이 화해가 결과되었을까?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불편해진 원인, 반역적인 본성을 입으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한 인물(person)안에서 자신에게 그 본성을 화해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에게 이런 화해가 있게 될까? 다음 글보다 더 명백한 진리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구세주의 형상과 일치됨으로 구원되어진다. 다시 말해 그분의 형상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 즉 인간은 주님께서서 살으셨던 대로 살고, 고통받으셨던 대로 고통받고, 죽으셨던 대로 죽고, 일어나셨던 대로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의 일함은 그분의 일함에 대한 형상(image)이고 우리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에 대한 형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영화하신 그분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면 주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작업되어야 하는 일의 원인과 모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있어

진 영화하심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을 일궈낼까?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완전해진 인성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해주는 권능과 효능을 주시면서 현존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한 때 그분 자신 안에서 결과되었던 것을 유한한 존재의 분량과 수준이긴 하지만 똑같은 일이 수행되게 하실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결과되었던 일은 인간을 천국에 알맞도록 하는데 요구하는 진짜 일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요한의 말에서 그것들의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영적 의미에서 주님은 순진 자체 되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순진의 저자 되신다는 측면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운다. 이 순진이라는 단어는 단지 부끄러운 점이 없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완전한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6절을 보면 주님은 옥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으로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인성은 순진이라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옥좌인 가장 깊은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은 세상이 죄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세상이 멀리 해버린 순진의 어떤 것을 세상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 이외 세상을 위한 구원의 방법은 없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될 수 없고 그분이 했던 것같이 행함으로, 그분이 계신 것같이 존재함으로, 그분 안에 있었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짐으로 구원된다. 물론 그분이 이론 완전함, 영원한 완전함에까지 도달하려고 이르는 말은 아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형체 상에서 그분의 것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지 수준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바, 구세주의 형상을 따라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30. 예수에 관해 요한은 말을 잇고 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선포는 세 번째 반복되어 발표되는 바인데 한 가지 세부사항에서 다른 두 발표와 다르다. 예수가 여기서 단지 어떤 분 (man)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물론 그분이 단지 사람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분은 진실로 한 인간이었으면서 하느님이셨다. 주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면서도 하느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전보다 더욱 진실로 사

람이신 데 그 이유는 인간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모든 것을 벗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신 분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한분 뿐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다” (디모테전서2:5).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 이유가 그분은 신성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이시다. 우리는 인간이 하느님과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인간의 구별지어주는 품성이 신성에 닮지 않음으로부터가 아니라 닮음(likeness)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자칫 잊기 쉽다. 높고 거룩한 측면에서 하느님은 무한하신 사람(infinite Man)이신 바 유한한 인간의 원형(prototype)으로 생각된다. 그분은 무한하게 확장되실 수 있다해서 틀이 없는 본체가 아닌 신성한 인물(divine person)이시다. 이렇게 신성한 바 그분만이 참으로 유일한 사람(Man)이시다.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어렴풋한 사람밖에 더 아니다. 그 이유는 무한하게 완전한 그분의 형상에 대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his image and likeness)을 더욱 더 획득함으로써 진실된 사람이 되어간다. 설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분을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복사한다고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다해도 신성한 형상이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형체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합당하게 의심할 수는 없다. 인간 형체는 임의적인 제멋대로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건축된 게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다. 영혼이 자기 거처로 삼기 위해 기계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 자기 거처가 되도록 영혼을 통해 창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인간 본질이 인간 모습으로 구상화된 것이다. 창조물은 자기 형체가 제 본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형체이든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창조물은 제 고유의 형체가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형체는 제 본성의 형체이다. 만일 하느님이 입으신 본성이 그분 자신과 동질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자신에게 인간 본성을 입히실 수 없었다. 만일 그분의 인간 형체가 그분 고유의 형상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인간 형체 안에서 나타나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기 전부터 사람이셨다. 육을 입으심으로 그분은 첫째 원리에서의 사람으로서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면서 최말단에서의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영화하신 인성은 완전한 인간 형체에서 사람이시다. 그 이유가 그것은 사랑과 지혜라는 그것 고유의 형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

31.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릴 것이다.” 어째서 메시아가 그의 길을 준비하도록 일으켜 세운 요한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았단 말일까? 거기에 공모한 어떤 낚새도 없었던 말일까? 거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이유가 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채 있게 해서 하늘로부터 그분께 내리는 표시를 통해 그분을 알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세례와 설교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면서 메시아에로의 그분의 길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이 오시고 땀흘리시는 원인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의 선교 목적은 이러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백해지도록 하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이스라엘로 표현된 영적 원리인 진리의 사랑으로 생명 있도록 하려는 것, 인간 마음에 진리를 위한 애정이 존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밝히 알리고 드러내 줄 수 있는 대상은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들 뿐이기 때문이다. 요한의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 각각은 요한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우리는 그분을 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 우리는 그분을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지로는 모른다. 잠정적으로만 알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천국적 표시를 수단으로 해서만, 높은데서 내려오는 영에 의해서만, 생기있게 빛나는 영에 의해서만, 진리에 머무르는 영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된다. 이 진리에서, 이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다.

32,33. 요한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알게 해준 표시는 주님의 세례에서 거행되었던 것들이다. “나는 성령이 천국으로부터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만일 우리가 이 신성한 사건을 씌어있는 대화체에 의거 감각적 측면에서만 응시한다면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분리된 인물을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성엔 우리에게 실체는 외관과 다르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는지 모른다.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즉 동시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상에, 하나는 그 중간에서 특사로 있다는 점일 게다. 말로 표현된 외관을 내향의 신성한 작동이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표시의 수준밖에, 주님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일하는 것에 관한 바깥쪽 표시밖에 더 아니다. 비둘기는 영 자체는 아니고 그 본성의 표현적 나타남, 즉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영으로서의 표현적 나타남, 주님의 신성 측면으로부터 오는 영이 그분의 인간 본성 안으로 하강하는 것을 비둘기의 움직임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영의 하강과 그 작동은 불변하다. 그러나 그분의 영화하심이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으로도 진전을 이루어 가셨는바 진전될 때마다 어떤 끝을 맺는 단계마다 점을 찍고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런 단계들 중의 하나, 그분의 인간 삶과 체험에 있는 획기적인 시대로 점철하는 주님의 영화하심이 지금 도착되었다. 요한의 세례는 외적 인간의 순수해짐과 거룩해짐을 표현하는바 이는 내적 인간에 있는 사랑과 지혜의 영이 외적 인간 안으로 내려오는 것을 수반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진전을 이룬 새 삶의 단계였다. 주님의 인간 본성 중 가장 말단 부분으로 영의 하강은 그분의 공적 선교 사업으로 들어가는 준비단계였다. 이리하여 사랑과 지혜라는 내재하던 영이 인류를 계발하고 복되게 할 목적으로 경이로운 말과 일을 생산하게 된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해준 표시는 이런 것이었다.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영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 고 말씀해 주셨다.” 이 주제를 우리 자신에 관련시켜 영적으로 찾아 보고 이를 수단으로 예수가 구세주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요한에게 주어졌던 증거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거듭남은 주님께서 영화하심의 형상이 결과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남을 수단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영화하시는 바 거듭남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는 표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내적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통해 외적 인간의 순수해진 생활, 세례 받은 삶과 대화 속으로 하강함은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지는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마치 그분께서 자신의 인성을 영화하셨듯 기쁘게 순종하는 완전한 거듭남을 일구어 내신다. 비둘기는 내려왔을뿐 아니라 예수 위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지나쳐가는 방문이 아니라 영이 계속 머무른다는 표시가 되게 그분 위에 머물렀다. 이 말들에는 이보다 중요한게 더 있다. 모든

움직임, 특히 새들의 움직임은 생각의 활동을 표현한다. 그래서 머무름은 의지 측면에서의 항구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비둘기가 내려옴은 주님의 인간 이해성 안에서 신성한 지혜가 작동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비둘기가 그분 위에 머무름은 그분의 인간 의지의 원리가 신성한 사랑임을 확증하는 것을 상징해 놓고 있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대단히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한의 세례는 표현적일 뿐이나 주님의 세례는 실제적이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죽은 것과 살아 있는 것의 차이와 같다. 바깥쪽의 모든 의례 의식, 인간적인 모든 매체 수단들은 생명이 흘러드는 형체밖에 더 아니다. 인간에게 세례를 주는 예식, 인간에게 설교하는 것 등등은 대단히 유용하게 작용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자체 안에 아무런 생명력도 없다. 이런 것들은 농부의 땀흘리는 노동, 토양을 갈아엎고 비료를 넣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모든 생명, 자람, 열매맺음은 하느님으로부터만 있어진다. 자연계에서조차도 씨라는 외적인 것은 천국의 태양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생명력의 작용을 산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요한이 표현했던 썩어진 말씀에도 응용된다. 썩어있는 말씀 속의 진리들은 왕국의 씨들이다. 인간 선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신과 타인들의 마음 안에 진리를 뿌리는 것이다. 이 진리들이 소유하는 모든 생명력은 그 진리 안에 현존하는 신성한 생명으로부터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또는 인간에게 하도록 요구되는 전부는 위의 농부의 노동과 유추되는 조건들만을 충족하는 것이다. 조건이 충족될 때 영원한 진리의 씨들은 아래쪽으로는 뿌리를, 위쪽으로는 결실을 맺게 한다.

34.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미 살핀바 같이 지금 주님은 실지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실제상에서 그런 것이다. 이미 살핀 것은, 예수께서는 출생 때보다 부활에서 더 완전하게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다. 출생으로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일뿐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되셨다. 영화하심으로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만이 되셨고, 인간 어머니로부터 파생되었던 무르디무른 인성을 모두 벗으시고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 비록 출생 때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칭함이 주어진 것은 꼭 맞는 말이지만 엄

밀히 구분해 보자면 이 칭함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인성의 원리에만 국한된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인성은 완전하게 신성이었고 이 인성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관한 기록은 단순히 주님의 신성이 아니라 주님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을 인정함과 그에 관한 지식들이다. 예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면서도 그분의 인성 속에 신성이 있음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지로 인정 않고 있는 것이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것은 아니다. 시간 안에서 태어나 영화하신 아들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참 진리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요한의 증언은 위대한 실용성과 교리적인 중요함이 담겨 있다. 그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는 하나님이 육안에서 명백히 보이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는 한 분에 관해 믿는 것, 이런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분과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게 한다.

**35,36.**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은 예수에 관해, 그분은 말씀이 육이 되신 분이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사야에 의해 예견되었던 여호와의 오심이라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증언했다. 그는 이런 사항을 세례받으러 온 군중에게, 요한이 누구였는지, 혹시 요한이 메시아인지 물어보도록 보내진 레위사람과 사제들에게 증언했다. 지금 그는 그의 제자 앞에서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위 구절에서 알 듯이 예수의 첫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시킨 대상은 넓게는 유대인이었지만 좁게는 그의 제자들이었다. 그들 중의 한 명이 주님의 첫 사도가 되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해 준 요한의 두 제자, 주님을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된 두 제자란 주님을 따라와 전환되는 두 큰 계층, 즉 이타애 가운데 있는 이들과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은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볼 때 이는 이타애와 믿음이라는 품위(grace)들이다. 그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를 따름은 이런 원리들이 마음의 자연적 수준을 떠나 영적 수준으로의 승강을 표현하는 것이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걸으실 때 서 있었다. 이

는 뒤의 것을 완성되고 앞의 것이 개시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의 일은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예수의 세례는 요한의 선교에 관을 씌우는 행동이었다. 천국과 지상의 연결이 인간의 세례로 결과되었고 천국 자체가 주님의 세례로 열려졌다. 이로부터 예수의 인성은 천국과 교회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둘을 교통하게 하는 직접적인 매체가 되었다. 그래서 거듭남의 영적 세례가 회개의 예식적인 세례를 이제 막 계승하고 있다. 태양이 강한 광선을 뺏치면 태양의 등장을 알렸던 별들은 그 광선으로 이내 감추어지고 만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와 자신을 증언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자신은 더욱 쇠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은 거듭나는 삶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다. 이타애와 믿음이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것들은 교리의 원리로서 씌어진 말씀으로부터 받아진다. 받아들인 원리가 신실하게 수행된다면 그것들은 결국 생명의 원리가 된다. 물 세례로 마음에 도입된 원리는 성령 세례로 활기 띠게 된다. 그래서 영적이고 천국적 생명으로 숨쉬게 되고 자연적 마음으로부터 영적 마음으로 들려진다.

**37.** 요한의 선포가 가져온 효과이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감, 또는 주님을 따름은 신약성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차원에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를 따름은 그분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진리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 그 진리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주님의 참된 추종자가 된다. 요한의 두 제자가 이렇게 했다. 글자 속의 참된 모든 제자들이 이것을 행한다. 즉 이들은 말씀으로부터 선행과 진리의 원리들을 배울 뿐 아니라 그것들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진리 속의 생명은 그들을 진리의 영되시는 예수에게 데려다 주어 그들에게 더 높은 진리를 받아서 따르도록 인도한다.

**38.** “예수께서는 뒤돌아 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 우리가 그분께로 되돌아 설 때 주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돌리신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서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서리라, 주님께서 이르신다.” 그러나 진짜 진리인즉, 주님은 우리를 그분께 돌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우리는 끌어당겨지기 위해서 자신을 고통받게



한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인도되기 위해 자신을 고통받게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린다는 성경의 구절은 오로지 가상(appearance)일뿐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리실 때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로 돌아 서신 듯 여겨질 뿐이다. 주님은 기분좋으실때만 우리에게로 되돌아 서 주신다고 상상하는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분의 기쁨은 그분의 창조물이 그분께 되돌아서는 것에 언제나 있다. 그분은 자유의지에 속한 모든 것이 항구적으로 작동하는 그분의 영의 영향력에 노출되도록 돌리신다. “주님께서 되돌아서심”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 누군가에게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그에게 내향적으로 마음을 연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 돌아서신다고 말해질 경우 이는 이전에 그가 주님을 외적으로 보았고 지금은 회미하게나마 내향적이고 분명하게 그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신다는 경우 같은 것이 여기서 말해지는 되돌아서심이다. 이때 그분은 요한의 두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셨는데 우리는 그분 쪽에 어떤 새로운 시야가 전개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되고 인간 쪽이 그러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보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실 때 참된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과 인간사이에 두 가지 다른 국면이 있다. 하나는 그분의 뒤쪽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앞쪽에서 보는 것이다. 처음에 외적 측면의 시야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 시야가 있어진다. 주님께서 되돌아 서셨을 때 뒤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 탐문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 관해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주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함으로서 그분께 대답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스승으로 부르며 말하고 있다. 스승이라는 칭호는 영적 차원에서는 그분의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호칭이다. 그분만이 믿음과 실제의 문제들에 권위를 가지신다. 제자들이 그분께 말한다.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묵는다(dwelling)는 말은 의지 안에 있는 선함의 상태와 관련을 가진다. 거기서 선함 또는 사랑은 그것들의 거쳐, 집을 가진다. 그들의 문의는 진리로 인도되는 선함의 본성을 알려고 하는 마음의 바램, 진리를 수단으로 삼은 목적을 알고 싶다는 마음의 바램을 암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는지 모른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묵고 있다. 그 곳은 회개하는 겸허한 영이다.” 그러나 주님은 바깥쪽에 존재하는 상태에 따라 말씀하시되 상응의 언어이다. 장소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분이 거하는 장소에로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물은 것인바 이는 주님의 상태에 도달하려는 영적 바램, 그분의 선함, 지혜, 축복에 참가하려는 영적 바램을 표현하고 있다.

39.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라” 온다(come)는 것은 의지의 행동이고, 본다(see)는 것은 이해성의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을 그 상태에로 오게 하라고 권면하시것, 그것을 아는데 있어 가장 낮고 가장 진실된 실용적인 방법만으로 알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다. 체험으로부터 배워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신 듯 하다. 지금도 그분은 이 제자들의 바램을 갖고 있고, 이 제자들의 거처를 차지하겠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시고 있으실지 모른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곳, 내가 있는 그 곳에 너희 역시 묵으리라. 땅 위 그분의 겸허한 숙소는 땅 위 그분의 교회, 천국에 있는 그분의 나라, 많은 저택이 있는 그분의 아버지의 집, 그분의 사랑이 거주하는 곳, 사랑하는 자들의 고향의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장소처럼 시간도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소는 선에 관련된 상태를, 시간은 진리에 관련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이 같이 등장하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게 된다. 그 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는 것은 선과 진리의 상태가 하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이 진입한 상태의 품질이 그 날의 시간, 즉. “때는 열시 썸이었다” 로 표현되고 있다. 열은 아껴둔 것들(remains)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아껴둔 것들이란 말씀 속의 선과 진리의 주입을 통하여 주님께 의해 마음 안에 형성된 싹틈(germ) 또는 근원(rudiment) 들이다. 다른 것들은 이 원리들에 관한 지식과 교통하는데 도구일는지 모른다. 주님만이 그것들에 뿌리가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실 수 있다. 아껴둔 것들의 이식(implantation)은 거듭나는 삶의 시작이다. 이것들을 나누어 주심은 어떤 시기에만 있게 된다고 제한해 말할 수 없지만 그것들의 이식은 첫 날이다. 그래서 이 첫 날은 그분의 거처에서 예수와 더불어 있는 우리의 날로서 기억해 둘 수 있다. 요한의 가르침 아래에서 형성된 상태들은 예수의 가르침 아래에서 완전해 지는 것들의 시작에 해당된다. 개혁은 거듭남의 준비물에 해당된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다른 제자 한 명은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말해지지 않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 제자는 요한 자신이었지 않은가 상상하기도 한다. 안드레아는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베드로는 주님의 첫 번째 사도였다. 이 제자의 표현적 품성을 알아보면 대단한 흥미를 주고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제자들은 종교의 모든 품위와 덕목을 표현했으나 처음 뽑혀진 제자는 마음 안에서 처음 존재하는 종교의 품위를 표현하고, 모든 다른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첫 품위이기 때문이다. 안드레아는 믿음의 순종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한 믿음, 순종은 자연적 수준의 믿음이라 불리는 것의 순종, 복음서를 주도하는 진리들을 인정하는 것, 이 진리가 교리가 되어 이해성에 입장하는 것을 승인함을 말한다. 이는 이해성 안에 있는 믿음이라 불리울 수도 있다. 이 믿음에의 순종은 애정으로부터라기 보다는 의무라는 차원에서 복음서가 가르치는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한다. 사실 이 순종도 의지 속에 존재한다고 보아야겠지만 이는 원리 차원이 아닌 규율 차원에서 법으로부터 행동하는 의지 속에 존재한다. 순종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이 두순종은 거듭나는 삶의 두 가지 다른 단계에 소속되고 있다. 즉 진리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의 자극에 순종하는 것이다. 거듭남이 완성되는데 순종은 첫째 되고 마지막도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다. 순종을 수단으로 우리는 위쪽으로의 길로 진입하고 사랑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길을 뒤쫓는다. 우리가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면 순종을 수단으로 선용을 이행하기 위해 내려온다. 첫 번째의 순종은 의무의 노동이나 둘째 번의 순종은 사랑의 노동이다. 안드레아는 첫 번째 순종을, 요한은 두 번째 순종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순종은 진짜 종교의 첫 요소이다. 그 이유가 지적인 믿음은 그 믿음이 순종으로 명백히 드러낼 때까지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존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순종은 진리가 선으로 바뀌게 해서 의지와 이해성이 일치하고 결합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41. 안드레아에 관해 말해지고 있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았다.”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라는 기독교인의 품위를 표현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가 시몬으로 불리울 경우 그는 의지 안에 있는 믿음, 또는 일반 원리로서 마음 안에 존재

하는 믿음을 표현한다. 베드로는 위와 같은 믿음이 이해성에 존재할 때를 표현한다. 그 반면 시몬 베드로는 의지와 이해성 모두에 있는 믿음을 표현한다. 안드레아로 표현된 믿음은 베드로로 표현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적 수준의 믿음이 영적 수준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아마 자연적 믿음에의 순종이 영적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안드레아가 이러한바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자연적 마음은 영적 믿음과 형제이고 순종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안드레아가 시몬에게 말한다. “우리는 메시아를 찾았소(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신실하고 진지한 이스라엘 후손의 경우,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행복의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하는데 그런 때란 우리가 주님을 말씀이 육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진리 자체 되신 분으로 영접할 때이다. 안드레아는 “우리가 그분에 관해 들었소”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찾았소” 라고 말했다. 그들이 그분을 찾았다는 것은 구세주의 발견과 구원의 발견을 함축하고 그렇게 납득되게 하고 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같이 기름부어진 자를 뜻한다. 기름부어진 자로서의 예수란 신성한 사랑으로 채워진 신성한 진리이다. 기름부음은 유대인의 표현적 처방 아래에서 결과된 것들인데 이 처방에서의 거룩한 기름은 신성한 사랑의 거룩한 기름을 상징했다. 이를 가지고 아버지(the Father)가 아들(the Son)에 기름부은 것이고, 이를 수단으로 주님의 신성이 인성을 신성되게 만들므로 인성을 영화하셨다.

42. “그리고 안드레아는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이 새로운 조사자를 즉각 알아보는 이 장면은 예수에게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어쨌든 그분이 인간 안을 알고 있다면 바깥쪽 상황까지 아신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시몬이 누구였는지 아시고 계셨고 더불어 장차 그가 무엇이 될지 아셨다. 그래서 이런 지식에 의거 그분께서는 즉시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장차 이 사도가 자기 스스로 벌어야 하는 품성을 표현했다. 만민에게 유명해진 이 사도가 예수와 첫 대면하는 곳의 간략한 이 대화를 주목해두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그를 가리키는 그의 이름들까지 간략하나마 함께 살펴보자. 그의 이름은 이렇게 불리웠다. 시몬, 시몬 베드로,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이 각각의 이름은 자연적 수준의 의미뿐 아니라 영적 수준에서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시몬은 글자대로 볼 때 들음(hearing)이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삶의 교훈과 지혜의 가르침에 청종하여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들음은 의지와 더 직접 교통되고 애정을 섬기는 감각 작용이다. 의지와 애정은 소리와 그것의 하모니에 영향을 받는다. 그 반면 봄(sight)은 이해성과 더 직접 교통을하고 좌우상칭(symmetry)과 아름다움에 관한 감명을 실어다 준다. 이 제자가 시몬이라 불리울 경우 그 이름은 진리의 애정(진리를 사랑함)에 관계된다. 진리에 애정을 가지면 그 진리가 마음에 영접되도록 마음이 열리게 한다. 그가 베드로라 불리울 경우, 이는 게파(Cephas)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신성한 진리, 즉 진리 자체로서의 주님, 모든 시대의 반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바위 위에 믿음을 고정시킨 이들의 품성과 관계된다. 그 이유가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사람, 특히 이런 고백, 즉 예수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유명한 고백을 만든 사람인바 그는 믿음의 표본이요 교회 자체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같은바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한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주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요나(Jona)란 비둘기라는 뜻이다. 비둘기가 인간에 관계되면 그 짐승은 이타애, 피해를 주지 않음, 단순 소박함을 상징하는바 이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순진과 친척관계가 된다. 비둘기로 의미되는 이타애와 마음의 단순함은 심정이 온전하고(singleness) 눈이 온전하다는 것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빛으로 밝아진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본문에서 주님께 의해 명명된 베드로가 표현하는 기독교인의 품위이다.

43.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대화의 이 부분은 이미 있었던 사건과 이 구절 뒤를 잇는 사건과 연결을 시켜주는 일반적 관점에 의하면 잘 이해되리라 본다. 안드레아가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를 예수께 데려왔듯이 필립보도 나타나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에는 서로 관계되는 어떤 연결이 있다. 안드레아가 예수를 따라왔던 곳, 시몬이 그분께 왔던 곳, 그 곳은 예수께서 머무르시던 곳인데 그 곳은 유

다 지역이었다. 그분께서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발견한 곳은 갈릴래아 지역이었다. 주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래아에 가신다는 것을 거듭남에 관련해 생각해볼 때 그분이 내적 측면에서 외적 측면으로 나아가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립보와 나타나엘은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 또는 안드레아와 시몬으로 표현된 내적 측면에 있는 이타애와 믿음과 상통되는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이타애와 믿음을 뜻한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 규율, 즉 두 사람이 함께 언급될 경우 하나는 의지에, 또 하나는 이해성을 언급한다는 원칙으로부터 나타날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들에 관해 더 말해지는 것들로부터서도 나타난다. 주님께서 필립보를 부르는 사건은 베드로가 그분께 데려와진 그 이튿날 갈릴래아로 가신다는 서술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이튿날(the following day)이란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표현된 것, 즉 영적 마음에서 이타애와 믿음이 결합하는 상태와 상통되는 것, 그리고 자연적 마음에서는 이타애와 믿음이 결합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때로 마음의 내면에 있는 애정과 생각쪽인 위쪽과 안쪽으로 진행되고, 때로는 생활에 해당되는 말과 행동쪽인 바깥쪽과 아래쪽으로도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주님이 갈릴래아로 여행하심은 바깥쪽으로의 진보를 표현하는데 이 진보에서 주님은 필립보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44. 필립보가 특별히 표현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 기자가 만든 서술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립보는 베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이는 필립보가 표현하는 원리는 그의 두 동료 고향 사람에게 의해 표현되는 원리와 공통된 연결을 가지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품성은 두 동료의 품성 같이 믿음에 관계되고, 장차 교회에로 신실한 자들을 모으는 기능과도 관계되는데 이는 고기잡는 성읍인 베싸이다가 지니는 의미에서 더 확인된다. 복음서를 통해 알려진 필립보에 관한 모든 것은 그가 믿음에 관련된다는 것, 그러나 그가 표현한 그 믿음은 희미함 또는 의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그 믿음은 보다 외적 또는 자연적 수준이었다. 필립보가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묻고 주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구절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필립보야” (요한복음14:9). 그럼에도 거기에 신실함이 있고 어떤 진실이 있다. 어쨌든 불완전한 제자이지만 주님을 따르

도록 직접 불리우고 있다.

45.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영적인 법칙, 생명 자체이신 분 안에 근원을 두는 삶의 법칙은 진리가 선을 바래고, 선이 진리를 바래는 것이다. 이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하듯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느끼리라는 우리의 바램이라는 기초에 놓여 있고, 거기에 마음과 행동의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함과 진리가운데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이들과도 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응용된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영들은 이런 원리로 자극되어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만들려는 바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남용이 선용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선용이 이 구절에서 작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말한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에 있는 그분을 발견했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자렛 사람 예수, 모세와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어왔던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예수를 영접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예수에 관한 필립보의 언어는 그분의 품성을 명백하게 지각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나타나엘처럼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분을 부른 것중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나자렛 사람으로서의 예수는 자연적 수준의 인성에 관한 주님, 또는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납득함에 숙박된 신성한 진리이다. 주님의 인성 속에 있는 이 원리의 영화됨은 참으로 그분께서 인간의 자연적 마음에 쉽게 접근되게 해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가장 수준 낮은 상태에서 까지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을 가장 바깥 수준에서도 구원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필립보는 주님의 인성의 신성에 관한 올바른 납득은 얻지 못했다. 필립보가 왜 그러했는지라든가, 주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진리를 새롭게 배운 누군가가 즉각 올바른 진리를 갖지 못한데 대해 의아하게 여길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영적인 제자의 특성인 것과 거리가 떨어진 총명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가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해졌던 분이라고 알고 있을 뿐 더러 그분이 율법과 예언 자체이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심으로 그분은 율법과 예언이 가르쳤던 진리와 선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삶을 통해 씌어진 말씀이 포함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행동하시었다. 그래서 그분은 인물(person)로 계신 말씀이시다.

46. 나타나엘은 필립보의 발언에 답할 때 그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자연적 마음의 반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런 질문과 함께 그는 메시아를 발견했다.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선함(goodness), 이것은 위대함(greatness)이라는 형체를 갖지 아니하면 외관으로 늘 판단해버리는 인간들에게서 준비된 받아들임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힘들다. 인간의 무질서와 비참함을 치료하기 위해 여호와에 의해 인성을 옷입은 것은 자연적 인간에게는 오히려 큰 장애물이었다. 마치 예언자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양쪽 가문에 있으리라고 선포했던 것과 같다. 어찌됐든 우리는 인간에게 결핍된 위와 같은 것들이 구세주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눈치챌수록 그분이 유대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냈던 비천한 모습 안에 있는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데 덜 자연적 수준으로 기울 것이다. 필립보는 안드레아가 시몬에게 사용했던 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엘에게 대답했다. “와서 보라.” 마치 그가 이런 것을 말했는지 모른다. 예수 그분께 가까이 접근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리를 식별하도록 주어진 자질을 사용해보라. 그러면 너는 너의 영원한 복지와 영원한 구원을 발견할 것이다. 나타나엘은 이 슬기로운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경유이다.

47. 나타나엘의 의심은 즉각 깨졌으나 그렇다고 즉각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사람이다. 그에게는 교활함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비록 이 말이 나타나엘에 관해 말해졌다 해도 그들은 그를 통해 듣게 된 것이다. 이 의심하여 조심스런 방문자가 받은 예수의 메시아 됨에 관한 첫 증거는 나타나엘 자신의 품성에 관해 밝히 알게 해준 것이었다. 그를 치켜세운 이 말은 그를 우쭐대게 했을 것이라고 상상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는 이것이 연설자의 요구의 자발적 테스트로 알아들어야 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짐찍어 말하신 것이 그분에게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따라서 예수는 초자연적 존재라는 증거라고 나타나엘은 느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알고 있었다고 지각했다. 예수께서 나타나엘의 내면의 품성에



관해 주신 묘사는 나타나엘이 표현한 기독교인의 품위, 또는 그런 인물이 지니는 품성을 표현하고 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란 진리를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의 사랑에는 “교활함이 없다”고 주님은 말하시고 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는 불성실, 언행의 불일치(insincerity)같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마음이 성실함(singleness of mind)은 마음의 필수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 “네 눈이 성하면 (if thine eye be single)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마태6:22). 나타나엘은 즉각 이 약속된 진리를 체험하여 선언하고 있다. 마음이 성한(single)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예수께 와서 그분을 볼 때 나타나엘과 똑같은 체험을 가지리라.

48.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진리를 사랑함에는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언제나 동반된다. 이 두려움은 제공되는 진리를 마음이 즉각 수용하지 않거나 확증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사실 성급하고 아무 질문도 없이 진리를 수용하거나 고백할 경우 이는 합리적인 믿음을 결과되게 한다기보다는 설득된 믿음만을 초래하기 쉬울 때가 많다. 게다가 변화무쌍한 인간 견해들에 흔들려대는 갈대 같이 되기 십상이다. 회의적인 것이 병들어 있을 경우가 많지만 건강해 있는 경우도 있다. 불성실함으로 끝을 내는 의심의 상태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도하는 의심의 상태도 있다. 긍정적인 원리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 느껴지는 의심의 기초가 된다. 이 사람은 기꺼이 확신하면서도 사기당하는 위험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는 의구심을 통해 믿음을 확대하고 더 확증하는 쪽으로 그의 길을 개척해간다. 이런 경로로 해서 나타나엘은 믿음으로 진입했다. 그는 기꺼이 믿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진리를 확증하려고 덤벼대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그는 그분이 어떻게 그런 지식을 소유했는지를 배우고 싶어한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초자연적인 지식에 관한 더 많은 증거를 주어 확신시키면서 대답하셨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들추어 보임으로 그는 예수가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바 이제 충만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선포하고 나타나엘이 인정하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위 구절 역시 우리를 위해 교훈이 담겨

있다. 무화과나무는 자연적인 선향의 원리를 상징한다. 비록 이 선향이 자연적 선향이라 해도 그것은 자연계에 근원을 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자연적 수준의 생각과 애정으로 들어가 영향을 미친다. 아마 이 원리는 영적 근원으로부터 오는 자연적 선향이라 불리울지 모른다. 평화스런 때에 관한 하느님의 약속, 예를 들면 “사람마다 제가 가꾼 포도나무 그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히 앉아 쉬는 때” (미가4:4), 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오가며 사는 때” (즈가리아3:10)는 신실한 자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들의 영적 삶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모든 그들의 악한 열정과 악습이 종속될 때 그들은 획득한 모든 영적 선향과 자연적 선향의 그늘 아래에서 고요히 거주할 것이다. 나타나엘은 아직까지는 위와 같은 약속의 한쪽 부분만을 실감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마 그 싸움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의심들을 정복해서 자기의 구세주로서 예수를 삼는 참된 믿음을 획득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주체의 가장 높은데 있는 지적인 평화에로 진입했다. 이것은 인간의 구세주로서 주 예수와 관계된다. 비록 나타나엘이 자기 앞에 펼쳐질 싸움을 아직 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어느 정복자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만들 힘을 소유했다. 그 이유가 그 힘 자체는 우리의 악과 잘못을 정복하는 주님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수고에서 우리를 지원하려고 작업되어 모든 이해성을 통과하는 심정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50,51. 그가 인정했던 주님에 관해 더 완전하게 명백해지게 해주리라는 그분의 약속이 나타나엘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천국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이제 주어지는 약속은 사람의 아들에 관계되고 있다. 이에 관해 글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받으신 후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던 기록 (마태4:11), 그리고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누가22:43)는 기록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위의 구절은 천사와 그들의 섬김에 관한 더 높은 작업과 일

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구약성서 처방 때의 천사들처럼 거역하지 않는 도구였을 뿐이고, 그들 안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은 말하셨다. 사실 예수께서는 어느 천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셨다. 이런 천사들의 섬김은 내향의 신성한 작용을 바깥쪽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분이 시험받으실 때 그분을 받친 것은 주님 자신의 신성이었다. 싸움이 끝난 후 그분을 섬긴 것도 주님 자신의 신성이었다. 나타나엘에 대한 약속은 기독교 제자들에 대한 약속, 즉 제자들은 이 신성한 일의 본성의 어떤 것을 납득할 특전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다. 납득할 어떤 것이란 주님의 인성이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그분의 자녀들은 거듭나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늘이 열림이란 내적 인간의 열림이다. 사람의 아들 위에서 열린 천국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주님의 신성과 인간 본성 사이에 있게 되는 상호간의 교통을 말한다. 오르고 있는 천사는 인간 본성이 신성이 되는 것을 암시하고, 내려오고 있는 천사는 신성이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된 것은 그분의 인간 본성이 그분의 신성과 하나됨으로 드높여진 모든 생각과 애정을 수단으로 해서였다. 그분의 신성이 인간이 된 것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그분의 인성에 가져다 놓음으로 해서였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한 주제를 두고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방법일 뿐이어서 아마 지극히 높은 천사들의 개념이 시들해지게 하고 한정되게 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서술 중에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어야만 한다.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렸다는 사항이다. 올라갔던 천사가 처음으로 내려왔다. 그 이유는 아무도 천국으로 올려지지 않았고 그분만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의 천사들은 “하느님의 천사”라고 말하여서 신성을 표현했고 전달자이기도 했는데, 예수에 관한 참된 인간의 생각은 그 근원이 신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신성한 지혜가 예수의 마음 안에 인간의 생각이라는 형체를 옷입히고, 신성한 사랑은 인간적 애정이라는 형체를 옷입힌다. 그런 다음 천국을 통해 그들이 왔던 영원한 신성으로 올려졌다. 이리하여 인간이었던 모든 것은 신성이 되었고 신성이었던 모든 것은 인간이 되어서 주님의 신성한 이기도,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가 성취되었다 (요한17:1). 인간과 인간 거듭남에 본 구절을 관련시켜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이고, 하느님은

영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이다. 천사들의 오르내림은 진리와 선함을 연결하고 결합되게 하는 진리와 선함에 관한 천국 원리들이다. 거듭남을 완성된 일로서 생각해본다면 이는 안쪽 인간과 바깥쪽 인간의 결합이다. 이런 결합은 안쪽 인간이 열림으로, 내부에 있는 천국 원리들이 상호적으로 작동함으로 해서 결과되어진다. 천사들이 오르내린다. 거듭남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오르는데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오르고 그 다음 내려온다. 인간은 지식으로부터 믿음으로 오르고, 믿음으로부터 사랑으로 오른 다음, 사랑으로부터 믿음과 지식을 통하여 내려와 선한 말과 일어로 들어간다. 이것이 거듭남의 순환이다. 이러한 위쪽과 아래쪽으로의 이동은 꾸준히 계속되고, 이와 동시에 천사들은 오르고 내리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광 함께 내부로부터 작용하고 외부로부터서는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작용하시기 때문이다. 승강과 하강은 상호적이고 상응적이다. 이 두 가지의 신성한 매체가 만나 하나될 때, 거듭남과 천국이 결과된다.

## 2

1. 주님께서 갈릴래아 지방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수행하신 기적은 여느 다른 그분의 일과 같이 신성한 교훈이 임신되어있다.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을 처음 드러낸 이 본문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표본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즉 그분의 오심은 그의 백성들과 새롭고 영원히 지속되는 계약(covenant)을 맺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 사이의 계약은 결혼 계약, 즉 주님 자신이 신랑과 남편이 되고 교회는 신부와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 기적이 결혼잔치에서 수행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다른 계약처럼 결혼도 상호간에 동의한다는 어떤 조건 위에 성립된다. 결혼의 조건은 상호간의 사랑과 서로의 섬김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흠모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랑과 섬김이 되돌려지기를 요구하신다. 이 상호간의 조건들 중 주님의 부분이 인간의 부분보다 덜 이행된 적은 결코 없다. 그분의 본성은 이에 관해 우리에게 충분히 보증을 하

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이렇게도 주어져 왔었다. 그분의 교회에 이렇게 말하셨다.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호세아2:19). 달리 이렇게도 선언하셨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예레미야31:3). 그래서 옛 것에서 한결같았던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계속된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49:15). 계약이 깨어질 때는 언제든지 위반한 쪽은 교회 쪽이었다. 거룩한 분은 교회가 그분의 부패하고 불성실한 배우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때문에 몹시 탄식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 사이의 결혼계약을 형성하고 보존하는데 요구되는 전부는 교회가 계약의 법이 잘 이행되도록 그 법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 그 법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의 결혼은 또다른 결혼을 함축하고 그 위에 안주하고 있기도 하다. 즉 교회의 멤버가 개인적으로 주체가 되는 것이다. 몸체로서의 교회, 이는 주님의 견지에서 볼 때, 그들 심정 안에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 삶에서 그 원리를 명백해지게 만든 이들만으로 구성된다. 이들만이 자신 안에 결혼을 가진 결혼의 자녀이다. 사랑과 믿음의 하나됨이 천국적인 결혼이다. 이것이 우리가 진입하기를 바래야 하는 결혼이다. 이것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결혼식의 손님이 되는 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고야만다. 그러므로 개인이라는 우리에게 참된 결혼은 선함과 진리의 결합, 또는 사랑과 믿음의 결합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결혼의 자녀로 만들어 준다.

주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복 주신 결혼잔치가 있던 곳은 갈릴래아지방 가나였다는 것은 이제 사라져 버릴 교회, 유대인 사이에 건설되었던 표현적인 교회대신에 이방인들 사이에 영적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 결혼잔치가 유대인의 결혼식이었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이 잔치의 각종 습관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들은 진실이다. 비록 교회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건설되어 진다할지라도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가 새로운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옛 교회 안에 남겨 둔 것들로부터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이다. 처음의 제자들과 열 두 사도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어떤 가시적인 교회를 형성시

키기 위해 특정한 백성을 뽑는다고 해서 그들을 뽑히게 하는 어떤 편파적인 애정이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분이 증거하는 혜택이 여타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직접 받도록 고안된 것은 더더욱 없다. 이와 반대로 어떤 특정 국가에 가지적으로 건립되었다 해도 그 교회는 모든 국가가 혜택을 입도록 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가지적인 교회는 한 때이긴 하지만 빛이 바깥쪽의 모든 방향으로 분산되는 현상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했던 것뿐이다.

본문은 이 결혼식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서술은 앞 장의 마감 이후의 어떤 때의 뒤를 잇는다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위해 언급된 말이다. 셋 이란 숫자는 완성함을 표현하는 숫자이다. 여기서 의미하는바, 지금 시간이 충만된 가운데 있음, 모든 필요한 수단들이 신성하게 설비 되었으므로 주님은 그분의 첫 강림의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교회의 소생도 주님의 부활처럼 셋째 날에 거행되었다. 그 이유가 신성한 섭리에서 죽음은 삶의 새로움 뒤를 언제나 잇고 새로운 시작 뒤에 모든 끝남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 자체만을 간주하면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알려 주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마리아는 이중적 품성, 즉 예수의 어머니로서, 표현적 교회로서 거기에 있었다. 마리아가 표현한 교회는 모든 교회 처방에서 보다 완전하든, 덜 완전했든 체현되어진 영적 원리였다. 이 원리는 모든 시대를 통해 섭리적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래서 이 처방이 종료될 때 또 다른 처방에서도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했다. 기독교 처방의 경우 모든 처방 중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일어난 교회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에 관한 언급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말해지지 않고 명령받는 상태, 그리고 단순히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는 정도로만 말해지고 있다. 마리아로 표현된 교회의 생명되는 원리는 이미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고, 단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보다 덜 가지적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이 원리가 구원하는 진리의 저자 되시는 예수와 그 진리를 받는 그릇되는 새로운 처방이 교통하게 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분의 왕국의 새 포도주가 인류의 새로운 필요를 위해 공급되고 있다.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예수는 신성한 선과 진리 이시고 이로부터 교회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선을 사랑함과 진리를 믿는 타입(type)들이다. 이 타입들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이든 집단적인 마음에서이든 그 마음에 존재하게 되는 주님의 왕국 또는 교회를 구성한다. 그들이 결혼식에 초대됨은 이런 환경, 즉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님을 영접하려는 적극적인 바램, 그분의 왕국에 관한 원리를 알고저하는 적극적인 바램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다. 또한 이것은 신성과 영적 진리에 관한 지식과 그에 대한 감사함까지 함축하고 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런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에 고마워했던 증거 중 일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유대의 왕으로 예수를 찾아 동방으로부터 여행한 박사들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대된 것도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기적의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리에 대한정, 이것이 교회의 생명있는 원리를 구성하는바, 이것이 마음에 현존할 때 진리 자체는 바래지고 추구되고야 만다. 그 이유가 선은 언제나 진리를 바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백성들의 후한 대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초대된 기록은 복음서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기록에서도 주님은 비천한 자들이 초대했다 해도 손님이 되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셨다. 사실 그분이 참석하신 목적은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초대했던 이들에게 보탬이 되어주기 위해서 였다. 이런 주님의 복주시고저 하는 동기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악에 물드는 것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그 잔치를 사랑의 잔치로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초대에 응하시는 모습은 이런 사항보다 더 높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를 심정 안으로 성실히 초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복을 되돌려 받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의 경우 이런 축복은 교회가 소유했던 진리가 더 증가하고 더 드높여지는 효과를 낳았다.

3.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첫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다. 사실 이 결혼잔치의 광경을 소개하는 목적이 바다난 포도주를 채우시는 광경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인바 어찌면 어떤 다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런지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결혼은 서로간에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교회에서 영적 진리가

소멸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그분께 알린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교회의 생명있는 원리를 표현하는 마리아는 교회 안에 영적 진리가 결핍되어 있음을 지각하여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즉 진리로서 현존하시는 그분께 그 부족함을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움을 호소하는 이 함축된 요청에 예수의 대답은 독특하다. 주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늘 그렇게 하신 바이지만) 여기서도 “여인, woman”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 이를 두고 주님에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하는 마음 같은 것이 부족해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하고 우리의 관습 어법을 가미해서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 당시 여인이라 말하면 그것은 경의를 표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존중한다는 관심에 대한 칭호였다. 어쨌든 주님께서 마리아를 두고 어머니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단지 여인으로 말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주님께서서는 다윗이 그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기를 거절하셨던 그 이유와 똑같이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피하셨다. 그분이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녀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참으로 그분은 자연적 출생으로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마치 자연적 혈통으로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이 가장 높은 권능으로 동정녀에게 임신시켰듯이 그분의 인간적 생각들은 내재하는 신성의 권능이 그분의 어머니쪽 인성에 드리움으로 임신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로서 말하셨을 뿐, 마리아의 아들로써 말하지 않았다. 비록 어떤 점에서 그분이 그분의 어머니쪽 인성 측면에서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해도 이것은 말씀으로서의 그분의 품성, 즉 인간의 납득력에 숙박되는 말씀이라는 그분의 품성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도 주님의 인성이 영화되심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바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로써 자신을 간주하거나 말하실 수 없고 단지 하느님의 아들로써만 가능하셨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느님에게 출생하듯, 주님은 영화하심으로 하느님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권능을 지닌 하느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을 때(로마서1:4), 주님의 일은 그분의 부활로 완성되어졌다. 그분이 마리아를 여인이라 부른 둘째 이유란 여인은 마리아가 표현한 교회의 상징적 호칭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여인이라는 호칭으로 그



녀를 말하시면서 이어진 말은 "그것이 나와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나?" 이었다. 이 말은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마리아이든 그분이든 아무에게도 상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런지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시려 했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그녀에게 기대했던 결과로부터 명확해진다. 미심쩍게 답하시는 이 구절 외에 다른 예들에서 같이 그분은 책망을 담은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말투이다. 마리아 자신의 경우 그녀는 예수께서 거절하는 것보다는 어떤 약속을 뜻하는 식으로 이해한 듯 여겨지게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의 답변 뒤를 이어 그녀는 하인에게 그분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 중에서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여하튼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가 이 사건의 기적은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는바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가 기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을까? 설사 그분이 권능을 소유한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면 비록 그녀가 이런 식으로 권능이 발휘 되도록 하는 게 있을 법 하지 않을 듯 어느 정도 예상했다해도 그녀가 권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는 아무런 모순이 있을 것같지 않다. 어쨌든 대화 그 자체는 표면에 놓여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함유한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했다. 이는 종결짓는 그분의 말로부터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는 일을 거들어 달라는 것을 거절했다기보다는 지연시키고 있는 듯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그분의 때란 무엇일까?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발휘되는 때를 두고 그분이 말하셨을까? 그분의 때란 이보다 더 중대한 시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공생애 기간 동안 이런저런 세부적인 때를 넘어서는 그분의 내부에 놓인 주님의 때는 그분이 영화하시는 시기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내다보고 계셨던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그분의 권능이야말로 그분이 지상의 그분의 교회를 위해 하시려던 모든 것,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수단들을 그 교회에 배가 시켜 주려 하셨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런 때를 두고 주님께서 말하셨다면 왜 그분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정하신 듯한 그 때에 기적을 수행하셨을까? 그분은 더 위대한 것에 대한 예정으로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 그 이유가 영적이고 구원하는 일은 영구히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완전히 영화하신 때에 가동된다. 마치 그분께

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수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과 같다. 이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이 잔치에서 수행된 것같은 여느 기적들 모두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뿐이다. 즉, 그분의 신성한 자비가 천국적 결혼으로 입장할 이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설비의 그림자 밖에 더 아니다. 이 기적이 그분이 베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거듭나는 일의 첫 번째 상태의 시작이기도 하다.

5.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우리는 마리아가 교회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미 위에서 말했다. 이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어머니로서 말해질 경우에 대해서 이다. 즉 여자가 자녀를 낳는 관계에서이다. 그리고 예수의 경우는 법 제도가 만든 한도에서 그분이 그녀의 아들이었다는 관계를 표현한다. 어머니로서의 여자는 아내로서, 즉 남편으로서의 주님과 그분의 아내로서 말해질 때의 경우와 다르면서도 혈연관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남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반사이다. 이와 같이 교인을 위한 교회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교회의 사랑의 반사이다.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한다. 또한 교회는 자기 자녀를 위해 간청한다. 마치 마리아가 결혼식의 자녀를 위해 간청한 것과 같다. 더구나 그녀는 자기가 아는 분, 자기보다 더 깊고 더 강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께 간청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아버지에게 간청했을 뿐 아니라 그녀는 자녀에게 아버지께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마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무엇일까? 결혼잔치에서의 하인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 곳에 참석한 손님들보다 지위가 더 열등하다고 굳이 간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교회의 성직자들은 교회의 하인들이다. 천사들은 인류의 더 수준 낮은 형제들에 대해 하인들이다. 그들은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을 위해 파견되는 섬기고 봉사하는 영들이 아닐까? 주님 스스로 비천한 그분의 제자들의 하인으로서 행동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본을 보이셨던 이 장엄한 교훈 - 너희가운데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 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주님의 비유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바와 같이 결혼잔치의 하인들이란 스승 되시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들이다. 물론 본문의 사건에서 하인들

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 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이 예수의 뜻대로 행하고는 있다.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성직자요, 천사들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들은 거룩한 진리의 원리들이다. 이 원리들은 거룩한 사랑의 목적과 목표를 섬긴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주님의 말씀 속의 최말단 진리들, 생명과 빛 가운데서 말씀 자체인 주님의 최말단 진리들이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 세 동이들이 둘 향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이 그릇들은 유대교회의 교훈과 규례를 표현한다. 아주 넓은 측면의 의미일 경우 이것들은 글자라는 형태로 있는 말씀을 표현한다. 이 그릇들이 담고 있는 물이란 하느님께서 유대인의 깨끗해짐과 거듭남을 위해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주었던 진리를 표현했다. 물향아리는 여섯 개가 있었다. 여섯이란 숫자는 시련과 시험을 수반하여 준비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마치 노동의 열새가 쉼의 안식일을 위해 준비되는 것과 같다. 유대교라는 처방은 기독교라는 처방을 준비하는 단계였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복음을 위해, 글자는 영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세속의 한 주간은 거룩한 주일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가장 특출한 것은 주님의 경우이다. 노고와 노동을 거치는 주님의 쉼은 신성한 쉼의 상태에 대한 예비적인 것들이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인성이 신성과 하나됨으로 쉼의 상태에 진입하셨다. 이로부터 안식일의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복 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셨다. 어쨌든 이런 일들은 싸움의 일이 아니라 자비의 일이다. 본문의 향아리들은 두 세 동이를 담을 수 있었다. 둘은 선에 관계되고, 셋은 진리에 관계되는 숫자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하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바, 선과 진리가 하나 되는 곳, 선하고 신실함이 함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것들의 중심되는 생명으로서 그분이 현존하시겠다는 것이다. 말씀 속의 법 가운데 어떤 법은 심정을 깨끗하게 하는데 치중되고, 어떤 법은 이해성을 더 깨끗하게 하는데 치중하기도 한다. 이런 두 종류에 관한 예를 십계명에서 발견한다. 즉 “살인하지 말라”와 “거짓증거 하지 말라” 같은 경우에서이다. 어쨌든 신성한 모든 법은 두 종류 모두를 포함하지만 이런 차이점, 즉 어떤 경우에는 선이 제일 순위이고 다른 경우에는 선이 두 번째 순위에 있기도 하는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저것 없이는 마음에서이든 법에서이든

존재할 수 없다. 순수한 애정들은 순수한 생각들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순수한 생각은 애정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두 종류는 서로 구분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어있지 않는다.

7. “주님께서 물로 채우라고 하셨던 그 항아리에 하인들은 넘치도록 채웠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어야 할 의미를 텅비웠고 그 안에 있는 권능을 박탈해버렸다. 주님께서는 그 법을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넘치도록 다시 채우셨다. 이 법은 두 가지 방법, 즉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고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넘치도록 채우셨다. 주님이 글자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회복하시고 충족시키셨음이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가득 채움으로 표현되어졌다. 물은 자연적 수준의 진리에 대한 모형이고 이 진리가 말씀의 글자의 참된 의미를 구성한다. 주님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율법을 채웠고 그분의 생활에서 그것을 충족시켰다. 그분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회복했다. 그리고 그분은 자아부정과 복주시는 삶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켰다. 더구나 그분은 그분의 다른 모든 이들 역시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런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율법을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는 것,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고 말씀이 진실로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가르침으로 그분의 법을 채우고 넘치게 채우는 것이 교회와 교인의 의무인 것이다.

8.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물을 날라다 주었다.” 한 가지 의문시되어 왔던 것은 항아리에 담겨진 그 많은 물이 전부 포도주로 변했을까이다. 이 질문은 거의 심사숙고할만한 질문은 못되지만 그것을 영적 의미와 실제응용에 관련시켜 볼 때는 생각해볼 만하다. 이 물은 그것을 퍼내는 행동에서 포도주로 변했는바 이는 사용됨으로 물이 변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사건과 유추되는 성경의 다른 사건은 이런 관점을 시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언자 엘리야가 기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마 라는 약속으로 과부의 심정을 격려했을 때, 그는 그녀가 소유했던 한웅큼의 양식과 기름으로 가뭄이 해제될 때까지 필요한 양을 즉각 생산해 비축시켜주겠노라 말하지 않았다 (열왕기상17:14).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를 무자비한 채무 독촉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기적을 베풀어 줄 때 그녀는 자기 기름 병으로부터 두 아들이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에 부음으로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그 기름을 팔아 빛을 값게 해주었다 (열왕기하4:5). 이와 똑같은 부풀림은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본보기화되었다. 예수께서 떡 몇 조각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분은 그 수천 명의 허기진 배를 채울 빵과 고기를 한꺼번에 다 만드시어 쌓아 놓고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배분하는 동안 음식이 배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은 경우들이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인들은 물을 퍼 날랐다. 항아리로부터서는 물이라고 퍼냈던 것이 포도주로서 그들의 그릇 안에 받아졌던 것이다. 이런 모든 기적들에 있는 이런 모양새가 이런 신성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제아무리 그 자체 귀중하다고 하는 천국의 선물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다.

하인들이 포도주를 퍼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잔치말은 이에게 갖다주고저 했다. 이 시대 때의 결혼잔치는 한 사람이 맡아 처리했는데 그의 직책이란 손님들이 잘 즐거워하는지 지켜보면서 술을 덜 먹게 하여 질서가 유지되는 것, 그래서 행복이 전체 참석자에게 골고루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혼잔치는 그것의 근원인 영적 잔치를 충실하게 표현해준다. 그 이유가 사회적 삶 속의 축제들은 영적인 우리의 상태들에 관한 형상이요 바깥쪽 출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결혼이 진정한 하나됨일 때, 결혼은 자연적 수준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건이다. 따라서 타인들에게도 가장 따뜻한 연민과 기쁨을 자아내게 해준다. 선함과 진리의 천국적 결혼은 우리영적 삶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주위에 우리의 가장 나은 애정들을 끌어 당겨 모른다. 그러나 자연적 수준의 애정들이 기쁨으로 흥분될 때 그것들은 자칫 결혼잔치의 손님들같이 어느 정도 무질서와 부절제로 진입하기 쉽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규율하여 통제해야 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성(reason)은 우리 잔치들의 적절한 통제자이다. 그러나 그 이성은 자연적 수준의 이성이 아니라 종교 원리의 영향 아래 행동하는 이성이다. 이 능력에 자연적 애정과 생각, 열정이나 욕구 등등은 언제나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잔치의 책임자는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내놓기 전에 먼저 마셔보아야 한다. 주님과 하인들은 연속되는 질서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고, 잔치 책임자와 손님들은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에 해당되는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질서의 법칙

이고, 이에 따라 주님께서는 모든 그분의 일들, 창조와 구원의 일들이 작동된다. 이 작동되는 힘은 첫째에 해당되는 것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에 의해 행동됨으로 발휘되는데, 이 둘의 병합된 행동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원리들은 완전해진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 안에서 위에 관한 실예를 볼 수 있다. 그분은 영혼과 몸을 소유한 존재 안으로 오신다. 이 영혼과 몸은 그분의 인간 본성 중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되는 구성물이다. 영혼이 몸에 작용하고, 몸이 영혼에 반작용하는데 이때 중간에 해당되는 마음(mind)이 발달되고 완전해져간다. 인간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이다. 거듭남은 인간의 영적 창조이다. 가장 높은 사랑은 가장 낮은 순종을 수단으로 모든 중간에 있는 원리들에 도입되고 배열되며 완전해진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구원의 수단들을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퍼 올린다. 생명있는 원리가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통해 나온다. 순종은 천국적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수단이다.

9.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렀다.” 이 책임자는 자기가 맛본 술이 최상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술이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다.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가 어디로부터인지를 아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사항이다. 전자는 계시(밝히 알게 됨)로 되지만 후자는 예증으로 된다. 전자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수단으로 되지만 후자는 진리의 빛을 수단으로 한다. 비록 잔치 책임자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몰랐지만 물을 떠간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행동한 진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수단으로 우리는 영적 진리의 근원을 지각한다. 그런데 책임자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대화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포도주가 신랑에 의해 준비되었는지 않았는지 하고 책임자가 상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님의 영에 의해 인간 이성이 계발되기 전의 상태와 같은바, 이 상태의 인간 이성은 진리를 신성애 그 근원을 두지 않고 인간의 것으로 상상한다. 또는 최소한도 진리는 신성보다 덜한 수준으로,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한 것보다 더 수준 낮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적하려든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바, 거듭남의 과정에서 신성한 진리를 지각함, 그 진리의 근원을 지각함은 위로 상승작용을 한다. 먼저 하인들, 그 다음 잔치

책임자, 마지막으로 신랑에 이르면서 예수가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진다. 비록 이 사건의 기록으로 볼 경우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잔치 책임자와 신랑도 예수께서 이 큰 기적을 수행하셨다는 것,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10.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불러 말한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보다 나쁜 것을 내놓은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모든 교회는 “좋은 포도주”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로 시작한다. 그리고 “보다 나쁜 포도주”인 선이 없는 진리로 기운다. 적어도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교회의 경우였다. 모든 교회가 타락되어왔다. 사람들이 만취되었을 때, 또는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었을 때 포도주는 “보다 나쁜”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적 측면의 중독, 영적인 중독 증세는 선함이 없는 진리로부터, 일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즐거움을 발견하는데서 야기된다. 선함보다 진리가 과잉되는 것은 그 초과된 정도에 따라 영적인 중독, 오히려 지적인 중독인데 이것이 말씀에서 술취함으로 의미되고 있다. 자연적 차원의 부절제한 폭주도 그 영적 원인을 추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이 마지막까지 좋은 술을 간직했다는 것에 놀라움과 더불어 찬동을 나타냈다.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이런 하강하는 단계를 거쳤다. 그리하여 결국 위선의 상태에 착륙했다. 손님들이 포도주의 품질을 평가하기 힘든 무능력한 상태로 취했을 때 손님에게 보다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상황이 바로 위의 위선의 상태인 것이다. 이런 일반적 규칙에 예외가 있었다. 주님께서 이제 건설하시려는 교회는 유대교회인들이 지금까지 소지해왔던 진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리를 받는다. 기독교회 속의 영적 진리는 유대교회 속의 영적 진리, 설사 그 교회가 최고 번영을 누렸던 때의 진리보다 더 높은 진리였다. 어느 교회의 시작에서 만들어진 계시는 옛 교회의 마지막에 있었다. 이 마지막에 소속된 이들이 새 처방 속의 진리를 받을 수 있었다. 갈릴래아 지방의 주님이 이에 관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바리사이즘과 사두가이즘에 덜 술취한 상태였다. 그들은 새 처방이라는 우박이 쏟아질 극에 달한 교회의 교리에 강하게 접촉되거나 정통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아니었는바 그들은 새 처방의 원리를 받는 그릇이 되었

다. 그들은 단순한 심정 상태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의 심정은 교묘하고 배타적인 인간적 신조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주님은 여느 인간과 다르게 언제나 행동하신다. 교회가 타락할 때 그 교회의 진리도 더불어 타락한다. 그러므로 교회 속의 은은 은찌꺼기가 되고 그 교회의 포도주는 물과 섞인 포도주가 된다. 분명한 것 하나는 슬기롭고 자비로운 섭리에 의해 허용된 것이 있다. 교회가 악에로 기울고 교회가 오류로 빠질 때 진리는 모독으로부터 건져져야 한다는 것, 그 교회의 단죄는 빛에 반대하여 죄지은 것보다 덜 심하리라는 것들이다. 새롭고 더 높은 처방은 새로운 계시에서만 근원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했던 교회 처방의 새롭고 더 높은 발달에 근원을 둘 수 있고, 설사 이것이 거행될 때조차도 왕국에 속한 것은 슬기롭고 신중하다는 이들에게는 감추어 있고 어린 아이에게만 밝히 알려질 뿐이다.

11.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주님의 기적들의 시작”이라 불리웠다. 이 기록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칭송을 들어야 하는지! 이 기적은 복주시는 일의 시리즈에서 첫째에 해당된다. 이를 수단으로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명백히 보이셨고 고통받고 고뇌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자비를 나누어 주셨다. 동시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표징적으로 진열하신 것이다. 그 이유가 인성이 죄의 결과때문에 고통받음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일들이 진리와 정의의 더 높은 상태로 올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영적 의미에서 시리즈의 첫 번째 것은 전체 시리즈의 특성에 대한 열쇠를 언제나 제공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뜻한 것은 시간의 순서에서도 첫 번째의 일일뿐 아니라 서열의 순서에서도 첫 번째가 된다. 하늘나라의 모든 유사한 것 중에서도 결혼은 가장 드높은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목적되는 끝이기도 하다. 하느님 안에서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은 신성한 결혼이다. 이로부터 창조는 그 출생을 가졌고 창조된 목적물 안에 있는 신성한 결혼의 결과와 형상을 통해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똑같은 신성한 결혼은 모든 다른 신성한 일들, 즉 섭리 안에, 계시에, 구속과 구원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 마음 안에서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은 영적인 결혼이다. 이 결혼이 우리 내부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 세부적 의미에서 하늘나라는 결혼에 비교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결혼의 결과로부터 모든 다른 하나



됨이 있고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의 결혼도 지상과 천국 모두에서 있어진 것이다. 어떻게 주님의 다른 모든 기적들 안으로 이 첫 기적이 들어가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함은 기독교 처방에서 특색을 이루는 선함과 지혜의 모든 일의 특징에 관한 표시이다. 기독교 처방에 앞서 있었던 몇 개의 처방 속에서 앞의 처방은 그 뒤에 이어지는 처방보다 덜 완전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올라가는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교회는 천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영적 수준에서 자연적 수준으로 내려왔다.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는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영적 수준에서 천적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은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했으나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다. 가나에서의 주님의 기적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하여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는 것이다. 이 첫 효과는 기적의 의미와 의도에 일치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께 관련된 영광은 신성한 진리인 신성한 빛의 찬연한 광채이고 이 광채로 그분의 품성과 완전함이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의 결과는 본문 그대로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이 믿음은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순수하고 더 영적인 믿음이 이제 그들 안에 출생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제자들은 이 기적이 있기 전에도 그분을 믿고 있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기적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산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 준 것이다. 다시 말해 기적 자체 역시 자연적 진리가 영적 진리로 바뀐 것을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결과 자연적 믿음이 영적 믿음으로 바뀐 것이다. 이 기적은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더 수행되고 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아직 글자에서 시작한다. 처음에 우리는 주님을 나자렛 사람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그분을 요셉의 아들 (1장45절)로 생각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 그분에 관한 우리의 첫 개념만큼이나 수준 낮고 천박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잔치에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목격했을 때, 신성한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 기적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영적 수준이 되기 시작하고 천국적으로 되려고 태동한다.

12. “이 일이 있는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셨다.” 성경이 “내려감”이라고 말할 경우 이는 보다 높은 상태에서 보다

낮은 상태로의 하강을 말한다. 그렇다고 이 하강이 상급의 상태가 하급의 상태와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향의 믿음에 있는 원리가 거룩한 생활이라는 행동을 있게 하는 것, 율법을 받은 산에서 내려와 그 법을 실천할 진리로 내려가는 것, 등등을 뜻한다. 주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신 기록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가파르나움은 주불룬과 납달리의 경계구역에 위치한 해안가였다 (마태4:13). 그러므로 가파르나움은 선함과 진리가 실제 결합하는 곳, 즉 인간의 외적 생활의 상태를 의미하는 곳이다. 도시로서의 가파르나움일 경우 그 곳은 교리를 의미한다. 그 도시가 주님 자신의 도시일 경우 그 곳은 주님에 관한 교리를 표현한다. 그 도시의 위치로부터는 생활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어머니, 형제,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셨다는 서술이 우리를 가르치는바, 주님께서 어머니로 표현된 그분의 교회를 이끄시는 것, 그리고 형제와 제자로 표현된 이타애와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의 자녀를 주님에 관한 교리와 생활에 관한 교리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그런데 진리와 선의 결혼에 이미 들어갔던 그들인데 왜 진리와 선의 교리로 인도되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 지식을 더하라..” (베드로후서1:5). 믿음이 넉넉해지고 미덕이 지식으로 드높여진다. 또 하나 기억해두어야 하는 것은 축하된 결혼이라는 사건은 결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참된 결혼을 구성하는 마음과 영혼의 하나됨은 결혼생활이라는 과정에서,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리고 참되고 선한 것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생산하면서, 서로의 품성의 융합이 자라남으로 점진적으로 결과된다. 참으로 결혼은 거듭남과 함께 진급된다. 이미 아는 바대로 이것은 인생 동안의 일이다. 거듭남이 완성되지 못하면 완전한 결혼도 완성되지 못한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 진리와 선함의 결혼은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간다. 주님은 위 두 가지 모두의 저자이신바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영적 여정에 필요한 단계를 통하여 그들이 천국적 결혼으로 진입할 때까지 결혼을 소개함으로부터 결혼한 상태로 인도해 가신다. 가파르나움에서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 시간의 길이는 삶의 상태를 뜻하는바 자연계의 날들은 영적 삶의 상태를 뜻한다. 영적 의미에서 숫자들은 양이 아닌 질을 뜻한다. 특정한 숫자는 확실한 품질을 표현한다.

본문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숫자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많다 적다가 말해질 때 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많다는 진리에 관련되고 적다는 선함에 관계된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불리웠으나 뽑힌 자는 적다 라고 말해진 경우이다. 이를 두고 불리운 많은 자들로부터 구원된 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진리 측면에서 불리우기는 많았으나 뽑히는 것은 선함 측면에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과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가파르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혼의 상태로 진입된 교회의 자녀들은 교리 속의 진리에 관한 상태라기보다는 선함에 관한 상태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

13.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지상생활 동안 주님께서는 과월절을 기념하시러 예루살렘에 세 번 올라가셨다. 유대의 법이 요구하는바,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일년에 세 번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주님의 세 번 방문은 이런 요구가 충족되도록 의도하시고 더불어 율법과 똑같은 표현적 품성을 가지도록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과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과월절, 그것은 에집트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에집트의속박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바, 이 절기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권능으로 인간의 구속이 결과되도록 주님의 인성이 영화하심을 모형화한 것이다. 주님께서도 세 가지 구분되는 행동들, 또는 진보하는 단계를 거쳐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셨다. 그 이유가 그분의 영화하심은 여느 인간의 거듭남같이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영적 수준으로부터 천적 수준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이런 상태들은 신성한 것이다. 그 반면 인간들의 상태는 인간적이고 유한한 것들뿐이다. 그분의 상태들은 신성하게 자연적이고 신성하게 영적이며 신성하게 천적인 수준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동등하다. 참으로 그분이 지상에 계셨던 때보다 지금 그분은 우리와 더 강하게 현존하신다. 우리가 과월절로 표현된 그 상태에 영적으로 있게 된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국적인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출발시키기 위해 밭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적의 진영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면, 이는 그분이 지금 과월절을 기념하러 올라가신 것과 같다.

14. 과월절 기념식에 참석하시러 올라 가실 때, 이 과월절은 주님의 인성이 영화하심을 표현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성전이 그분의 몸을 상징한다면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장사치들로 표현된 어떤 품성이 그분의 인성안에 있다고 상상해보는 것과 주님의 완전한 순진과는 모순된 듯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구분해보아야 하는 것은 유전적인 악과 실제의 악이다. 그분께서도 인간 어머니로부터 여느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본성 속의 육적인 모든 불완전함을 상속받았다. 이것 없이 그분은 죄로부터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과 여느 인간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악들을 상속받은 반면 여느 인간의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분의 출생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바, 더럽혀진 적이 결코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 위에 우리의 썩어진 본성을 입으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썩은 것을 제거하시려는 의도 때문에서 였다. 그분에게서는 부패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오점과 한 개의 흠도 없이 그것을 만드셨다. 우리 주님의 시험과 크나큰 시련들은 그분의 인간 본성의 상속된 부패함, 오히려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었다. 그분께서는 승리로 완전함을 달성하셨고 그분을 맹숙한 어둠의 권세를 즉각 정복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은 유전적인 악들을 통해 공격당함으로 오히려 순수해졌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주님의 어머니쪽 본성에 소속된 인간적일 뿐인 생각과 애정들이다. 그리고 “환전하던 돈”은 그것들과 연결되는 지식이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는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닌데 그것이 성전 안으로 반입되었을 때 악이 된 것이다. 팔고 사고 환전하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데 필요하나 이 거래는 성전 건축물의 구역 넘어 에서 수행되었어야 했다. 그것들이 성스러운 건축물에 침입함으로 거룩함을 섬겨야했던 것이 되려 모독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거룩치 못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본문의 경우에서 이것은 그분의 고유의 본성에서 나온 행동을 표현한게 아니라 상속된 조건에서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그분의 행동의 초점은 장사를 방해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몰아내는데 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께 관계되지만 한편 보다 낮은 의미에서는 교회와 인간 마음에도 응용되고 있다. 교회나 인간 마음의 경우에서 이런 악들은 상속될뿐 아니라

선택함에 의해 승인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달리 그들 스스로 그것들을 몰아 낼 수 없다. 주님만이 그들의 협조하에 그들을 위해 그것들을 몰아내 주실 수 있다. 그분은 그들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시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스스로 그것을 하셨기 때문이요 그들의 거듭남은 그분의 영화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5. “...밭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엮으셨다.” 그분께서 채찍을 만들었던 밭줄이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들이다. 이 진리들이 악과 고의적인 잘못들을 몰아내기 위해 심판의 방법으로 채용될 때 채찍이 된 것이다. 그분께서 돈을 쏟아버리심은 모든 거짓들을 흐트시고 사라지게 하심이다. 상을 둘러엮으심은 거짓 원리들이 바탕이 된 악들을 전복시키심이다. 교회와 인간에 관련해 주목해 볼 때 주님의 심판이 결과되게 하는 신성한 진리는 그 진리에 반대되는 악과 잘못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의 유일한 차이는 이것이다. 정의로운 자가 심판에 노출되면 그는 진리가 정죄하는 악과 잘못들을 기꺼이 포기한다. 그 반면 사악한 자는 그들의 악과 잘못을 판결하는 진리에 대든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들의 악과 더불어 주님의 면전에서 내던져지는 것이다. 주님께 관한 한, 그분의 심판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의 품성 측면에도 똑같이, 그들의 목적 측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분이 심판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비를 기억하신다. 다시말해 그분의 모든 심판은 자비로 가득 차 있다. 심판에서 자비를 거절하는 이들에게만 자비 없이 판결이 이루어질 뿐이다.

16. “그리고 비둘기 장사꾼에게 ‘이것을 거두어 가라’라고 말하셨다.” 소나 양은 몰아 낼 수 있었지만 비둘기는 그렇지 못한바 비둘기 장사꾼더러 치워버리라고 말했다고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에 영적 진리와 유추되는 게 있다. 이미 말했듯이 비둘기는 생각을 의미한다. 생각은 이해성 또는 합리적 자질 쪽에 소속된다. 그래서 생각들은 압력으르가 아닌 설득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의지의 행동이 아닌 추론의 행동으로 제거될 수 있다. 비둘기 장사꾼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장사꾼에게 해당되는 말이 본문에 이어진다.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을 집 또는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명칭이 거룩한 건축물에 적용될 경우 전자는 진리에 관계되고 후자는 선에 관계된다. 주님의 인성, 교회, 거듭나는 사람은 진리 측면에서 간주할 때 성전이라 불리고, 선의 측면에서 간주될 경우 집이라 불린다. 인간이 주님을 믿음 안에서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느님의 성전이다. 그가 주님을 사랑 안에서 영접할 때 그는 하느님의 집이다. 또는 거듭나는 인간으로서도 모두 하느님의 성전과 집이 있다. 그의 거듭나는 이해성은 주님의 성전이고 그의 거듭나는 의지는 주님의 집이다. 주님 역시 성전을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그분의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기적인 소득을 올리는 수단으로 성전이 변질됨으로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들에 의해서만 자행될 수 있다. 주님의 경우 이런 것은 그분의 실제 삶에서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 어느 사람들이 행한 짓들을 그분도 해보도록 유혹되신 적은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인성의 성전으로부터 상속된 모든 불완전함을 그 유혹자와 함께 모두 몰아 내셨다. 그리하여 그 성전이 하느님의 집, 아버지의 집, 본질되는 신성의 영원한 거처로 만들 때까지 계속 몰아내셨던 것이다.

17.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전을 귀히 여겨 주님의 열정이 북받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는 성서의 말씀을 상기했다.” 구약성서에서 주님의 열정(zeal)은 자주 말해진 편인데, 때로 그 열정은 우리의 번역에서 시기함이라는 단어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느낌 자체에 국한해 보면 열정은 사랑의 열렬함이다. 그래서 이 열렬함은 피해나 상함으로부터 순진한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데에서 더 특별히 나타나고 있다. 영적 느낌으로서 열정은 자연적 느낌으로서의 분노(anger)와 유추된다. 이 둘은 바깥쪽인 외관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내향의 품성에서는 본질상 같은 게 없다. 둘 다 사랑의 따뜻함이지만 전자는 천국적 사랑의 따뜻함이고 후자는 지옥적 사랑의 따뜻함이다. 열정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옹호하기만을 바랄 뿐이고 분노는 미워하는 그 대상이 처벌되기만을 바란다. 열정과 분노 모두가 지니는 외관상의 유사함으로부터 하느님 자신이 성내시는 분으로 자주 말해지고 있다. 어쨌든 그분 안에는 분노의 흔적조차 없다.

예수께서 성내셨다고 말해진 유일한 대목이 마가복음 3장 5절에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뿔 얼굴로 그들을 둘러 보셨다.” 이것은 신성한 분노의 품성이다. 또는 소위 성경의 글자적 수준에 있는 신성한 품성이다. 이것은 사랑과 자비의 따뜻함이다. 그 이유가 자비는 사랑의 탄식이기 때문이다. 탄식에서 비롯된 이 “노기뿔”은 실제에 있는 열정이다. 그래서 이는 악한 자에게 노기 띄심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제자들이 기억에 떠올렸던 성경 구절은 시편 69편에 있다. 이 부분은 주님의 가장 격렬한 시험, 십자가의 고난까지 취급하는 곳이다. 이 열정,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 주 구세주를 불사른 열정, 교회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가졌던 사랑인 그 열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성전과 집으로서의 천국과 교회를 포함한 인류 구원을 위한 열정이란 주님께서 구속하는 역사를 활성화하신 것, 세상 제일주의와 권세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싸우신 것이다. 이 열정이 그분의 참 생명이요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것은 그분의 존재 전체를 흡수해 버렸다. 그래서 그 열정이 생산하는 심판의 행동에서조차 그 행동은 자비라는 본질적 행동이었다. “나의 주,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하신 말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라는 말씀을” (시편62:12).

18. 거룩한 열정과 초인간적 권능이 명백해진 것을 구경한 또 다른 계층이 있었다. “그 때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표시를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는 추론이든 표시이든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 자체가 주는 증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증거를 요구한다. 그들은 진리의 힘으로 확신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이 주는 증거로 피임을 받아 믿기를 바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자체 믿기지 않는 것, 믿는데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믿도록 자기들을 찢는 표시를 원한다. 참으로 주님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시자 그 저자 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감각에 기대어서 그들에게 동의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마음에 보낸 진리를 통해 믿음이 생산되게 하실 뿐이다.

19.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믿지 않은 유대인의 요구에 응답해 말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참으로 이것은 표시였다. 그러나 이 표시는 그 당시 유대인이 이해 못했던 표시였다. 나중에 표시 그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기를 거절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것이 의미했던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을 때 그들은 성전을 허물었고, 그 뒤 사흘 후 주님은 죽은 자로부터 영화하신 인성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허물었던 성전을 세우셨다. 이는 그들의 예언자가 말한 예견의 성취이기도 했다. “나중에 지은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하깨2:9). 성전을 다시 세우심, 주님의 인성의 영화하심은 표시들 중의 표시에 해당된다. 이는 진리의 가장 높은 증거일뿐 아니라 믿음의 가장 깊은 바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표시의 능력은 또 다른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부활에서 완성된 주님의 영화하심은 인간의 거듭남에 근원이 된다.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의 주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이신 것을 내향적이고 실제적으로 명백히 하는 증거이다. 이 증거가 결핍된 곳에서는 참된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 옛 본성과 새 믿음이 한 곳에 어우러짐은 모순된 것이다. 새 믿음과 새 심정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한다. 깨트려진 심정과 회개하는 영, 심정과 이해성의 겸허함은 믿음을 받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십자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 주님과 함께 죽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 그런데 유대인이 대답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사십 육 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빌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재건되었고 후에 헤로데왕이 수리했던 성전이였다. 유대인이 말한 사십 육 년은 이 성전을 짓는데 소요된 햇수인데 이 숫자는 이 성전이 표현한 교회의 품질에 관한 표현이다. 사십은 마치 사십 년의 광야 생활, 사십일의 광야에서의 시험처럼 시험을 의미하고, 여섯은 이와 비슷한 의미, 즉 쉼의 안식일에 선행된 노동의 육일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존재했던 성전, 이 성전이 표현했던 교회처럼 이는 애당초 건설된 때의 성전과는 아주 다르고 훨씬 덜 장엄했다. 번영을 구가하던 솔로몬 통치 시대를 강력하게 표현하도록



보존된 첫 성전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 때에 재건설되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종교가 크게 평가 절하된 상태에 대한 표시였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오시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그분은 파괴를 위해서는 결코 오시지 않고 오히려 구해주려 오셨을 뿐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스스로 그들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그것을 파괴한 것이다. 주님의 몸이라는 성전의 파괴는 그들의 심정과 이해성에 있는 종교의 소멸에 대한 즉각적인 표시요, 결과였다. 그들이 파괴해버린 파멸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교회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교회, 단순한 그림자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이었던 교회이다. 그분이 일으켜 세우시는 기간인 삼일은 그 교회의 품질을 표현한 것, 즉 주님의 영화된 인성의 모양, 그분의 선함과 진리의 형체와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21.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것은 단지 비교함이 아니라 상응이다. 그 이유가 성전은 그분의 인성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마치 성전이 교회를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이유가 교회는 그분의 신비한 몸이기 때문이다. 마치 그분의 인성이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인 것과 같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성전에 관해서 주님의 진리와 인간이 납득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대한 예증이다. 주님의 말들은 그 말이 그분의 입술로부터이든, 성경에서 계시되든 각기 고유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인간의 자연적 마음 안에서 가지는 의미와는 대단히 다르다. 그 말들이 주님으로부터 진행될 때 그 말은 신성하다. 그러나 그 말들이 자연적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 말들은 단지 자연적인 말이 되고 만다. 더욱이 그 말들의 근원적인 의미나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22. 제자들도 유대인처럼 잘못 이해했거나 그분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잊었지만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삼일만에 일어나신다는 것이 그들로부터 감추여 놓였었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제자들에게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반복적으로 엄숙하게 선포되어 왔지만 기막힐 정도로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지내왔다는 상황에는 신비함도 있지만 의미도 담고 있다. 그들 안에 거행되는 것

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형상이라는 것이 미래 시대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체험이 있기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실로 알 수 없다. 그들은 일어나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화하신 인성 속의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의 이해성이 열릴 때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관한 위대한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분께서 우리 심정에서 일어나서고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귓전에 말해주셨던 말들을 알뜰하게 기억해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의 기억은 바깥쪽 기억에 그것들의 존재가 있는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진실로 소유할 수 있기에 앞서, 또는 그것들을 기억으로 영적으로 불러 올 수 있기에 앞서 내향의 기억에 새겨져야만 한다. 이것은 내적인 기억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의 기억에 속하는 내향의 기억 위에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을 새겨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에서 실감될 때 그것들은 살아 있는 기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성서의 말씀을 믿게 된다.” 씌여있는 말씀과 육을 입은 말씀 모두 똑같은 증거를 낳지만 전자는 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후자는 심정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밝히 알려신다. 후자의 내향의 증거가 전자의 영과 생명이 되어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전자의 바깥쪽 증거의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도 않는다.

23.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과월절은 팔레스틴의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때였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의도는 그분 역시 과월절을 기념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회중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더불어 교회와 인간 마음에서 그분의 생명 있는 작업의 표본적 모양새가 완성되도록 하시는 등등이 있을거라는데 별로 의심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교회를 표현한다고 생각해볼 때 이 큰 축제, 과월절같은 행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때와 상태들, 이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로 모이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들 사이에서 더 직접적으로 현존하심을 표현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각 개인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교회의 타입으로 간주될 경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들이란 한가지 공통된 목적에서 서로 함께 하고 하나되어 끊어져 나오는 갖가지 애정과 생각들이다. 이 생각과 애정들이 어떤

종교적 주제 또는 거룩한 의식업수들에 집중되어질 때 주님은 그들 위에 현존하시어 운행하신다. 그 이유가 더 순수한 느낌과 더 거룩해지는 믿음을 그들이 호흡하게 하여 주시려는 것 때문에서이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기적의 일들은 그 당시 그들의 신체에 건강과 힘을 주는 한편 영혼에서 야기되는 구원해주시는 효과와 상응하여 상징화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 당시 수행하셨던 경이롭고 복주셨던 기적들 그 자체는 정작 그 대상이었던 그들에게 믿음을 생산해주는데 있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종류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이미 그들에게 존재한 믿음을 강화시켜주거나 확증해주었는지 모른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같이 이미 그분을 인정했던 제자들의 경우가 이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극도로 피상적인 수준이었다는 것, 그런 믿음을 획득한 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적 변화도 생산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말해진 듯 여겨진다.

**24,25.**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다.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였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 즉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지만 그분으로부터 믿지 않았다고 다시 말해 볼 수 있다. 그분은 구원해 주시는 측면에서의 어떤 대상으로서 또는 구원의 저자로서 그들의 믿음 안에 계시지 않았다. 믿음(belief)은 신뢰(trust)를 뜻한다.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여 의존하는 이들 외에 누구도 주님을 진실로 믿을 수 없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다시 말해보면, 그분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분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알고 있고,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않으셨고, 인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셨기 때문이었다.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 말고 무엇을 더 우리에게 말해주시려는 것일까? 심정을 일일이 꿰뚫어보시는 그분 외에 누가 인간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신다.

그 믿음이 외부의 힘으로 생산된 것이든, 내부로부터의 힘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든 모두 아시고 있다. 내향의 영적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이런 연유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을 신뢰함은 진리로부터 생기지 않고 오직 선행으로부터, 이해성의 믿음이 아닌 심정의 믿음으로부터서만 발생된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자기 신뢰를 놓는 이들만이 진짜 그분을 믿는 것이다. 신뢰(trust)란 우리 고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신뢰는 사랑의 믿음을 소유한 이들 외에 누구도 지닐 수 없다.

### 3

교리와 그 실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님의 교훈 중 일부가 그분의 충고와 훈계를 받고자 했던 사람을 수단으로 그분으로부터 끌려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그분의 대화 내용 중에서 트집을 잡으려 획책한 이들을 수단으로 해서까지 건져 올려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마치 이런 사건은 복음서의 귀중한 진리들이 어떤 사람이 문의했다는 우연한 기회에 의존된 듯한 인상을 풍길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저런 우연한 듯 싶은 사항도 결코 뜻밖의 것은 아니다. 자연적 인간이 기회라고 부르지만 영적 인간은 섭리라고 부른다. 발생한 모든 것들은 신성한 질서 또는 허용이다. 이 허용은 어떤 슬기롭고 복 주시려는 목적을 위해서이다. 본문의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 당겨 줄 필요성을 느끼는 것, 빛을 바라는 것 등등은 축복을 수여하실 수 있는 그분에 의해 영감되어진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신성한 교훈이 인간의 원함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진실된 모든 바램은 그분의 사랑에 의해 불어넣어진 것인바, 어느 누구도 아버지(the Father)가 그를 끌어 당겨주지 않는데 아들(the Son)에게 올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바, 이 교훈의 발생은 인간 쪽에서 인 반면 그 발생의 원인은 신성 쪽에서 라는 것이다. 그리고 섭리나 계시는 동시에 일어나고 조화를 이루고도 있다. 니고데모처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진리를 배우고자 예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일들, 특별히 의지에 작용하는 은총의 기적들, 그리고 마음(mind)이 진리에 청종하는 쪽으로 기울도록 하는 은총의 기적들을 수단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신다.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출생, 천국적 출생이라는 주제에 관한 그분의 신성한 교훈을 그분의 교회에 전달하신다. 때로 대단한 암흑의 시기가 가장 큰 빛을 생산한다. 혹은 가장 부패된 때에 가장 광채 나는 본보기가 생산된다. 바리사이파는 니고데모와 바울을 등장시켜 주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저명인사인데 그들의 품성은 강력한 대조를 이룬다. 니고데모는 소극적이었으나 바울은 노골적이었다. 니고데모는 제자의 수준에 적합하나 바울은 사도의 수준이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특출함은 심정 상태 측면에서라기보다는 구성요소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그들 모두 신실했고 특출하게 유용했다. 전자는 변천의 시기에서 새 것과 옛 것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한 셈이고 후자는 분리의 시기에서 옛 것에 반대하고 새 것을 지지했다. 전자는 평화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후자는 전쟁의 사람이라 평하는 게 낫다. 니고데모는 “지도자”였는바 이는 우리가 지적 측면이라 부르는 인간 품질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는 그의 지적 측면의 품성이 천적 수준임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가 유대인을 순수한 측면에서 볼 경우 의지와 선함에 관계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이 니고데모로 표현됐는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니고데모와 관련된 더 다른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남, 새 출생에 대해 말하신 것을 이해해보자.

2.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를 찾아왔다.” 이 유대 지도자로 하여금 밤중에 방문하도록 만든 원인은 아마도 다른 유대인에게 목격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유대인이라는 사적인 생활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위선에 대해서 가차없이 나무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의 이런 방문 태도를 질책하지 않으셨다. 어쨌든 밤은 남모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용도 외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밤은 정신적인 희미함을 표시한다.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여 그 당시 교회

의 황폐된 상태를 표현해주었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옴으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그 교회가 침몰해버린 어둠의 상태를 표현했다. 또한 종교적인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 어둠의 밤에 빛되시는 예수를 찾아 뵙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대접하여 예수께 인사를 하는 것은 그분을 스승으로서 인정하는 것, 믿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들에서 최고의 권위자 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스승이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다” (마태23:10). 진리 자체이신 그분은 믿음의 문제들에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선생님께서 주님을 대접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님께서 말하고 있다. 이는 신성한 진리로서뿐 아니라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신성한 진리로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런 분이셨다. 니고데모는 그분이 신성한 선생이라고 믿어지도록 인도되었다. 그 이유가 그분이 수행한 기적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는 그분이 행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제대로 본 것이다. 그는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것, 게다가 수행된 기적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견해를 취했다. 그래서 그는 선생되시는 그분에게 왔고, 그분이 가져다 줄 어떤 메시지를 배우려 했던 것이다. 이 문의자가 예수의 진짜 품성에 관해서 매우 불완전한 개념밖에 갖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님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가 아니면 누가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도 니고데모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는지 모른다. 어찌됐든 하느님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느님이 “예수”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 자신이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쪽으로 한 단계가 발전된 것이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복음서의 제일가는 진리 중 하나이다. 원어일 경우,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남이라고 말하므로 해서 의미가 더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느님의 일 중에서 이 태어남만이 천국을 위해 우리를 준비되게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우리는 뚜렷한 어떤 것,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출생, 즉 두 번째 출생 또는 천국적인 출생

은 단지 눈에 띄는 모습만이 아니라 위대한 실재이다. 이 출생은 과거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있게 했던 출생만큼 실제적이고 실재적인 출생이다. 자연적인 작업과 영적인 작업, 또는 신체에서 행하여지는 것과 영에서 행하여지는 것 사이에는 꾸준한 상응이 있다. 이 상응으로부터 영적인 거듭남의 단계들은 자연계에서의 수태, 임신기간, 출생, 교육 같은 것들에 응답하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자연적인 출생들이 말씀에서 언급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은 영적인 출생들, 또는 마음 안에서의 선함과 진리의 출생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바탕으로부터 역시 주님은 아버지라 불리고, 교회는 어머니라 불리며, 주님으로부터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을 받은 이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출생했다고, 그분의 자녀라고, 그 자녀들 서로서로의 관계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과 혼(soul)에 관계된 모든 것에는 상응이 있는바, 우리는 첫 번째의 출생으로부터 두 번째의 출생에 관한 본성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육체의 생명이 심장과 폐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듯이, 혼의 생명은 의지와 이해성에 의존하고 있다. 출생때 의지와 이해성은 자연적 수준이고 자연적 생명에 속한 것에 집중적으로 충당되고 있다. 거듭남(regeneration)은 시작과 형성(form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바 천국적인 것들에 충당된다. 육체에 관련된 언어와 형상들을 수단으로 혼(soul)을 취급하는 말씀은 거듭남을 새로운 심정(heart)과 새로운 영(spirit)이라고 부른다. 그 한 예로 시편 51편 10절을 읽어보자. “하느님이시여 제 안에 깨끗한 심정을 창조하시고 제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로 지어 주소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예제키엘 36장 26절에서는, 옛 의지 또는 인간의 자연적 심장을 “돌”로 된 심정이라 부르고 새 의지는 “살(flesh)”로 된 심정이라 부르고 있다. 새로운 심정과 새로운 영을 받는다는 것은 새 의지와 새 이해성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 결과 새로운 애정과 생각들, 새로운 생명과 행동(conversation), 그리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4.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위 진리를 보지 못했다. 그는 대답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무지함과 관심 있음을 동시에 표

현하고 있다. 즉 그는 주님이 말하신 출생에 관해서는 무지했고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에는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 구원이 자기를 위해서는 대단히 불가능한 조건인 듯 싶기도 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즉각 마음에 품었던 출생,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두 번째 출생은 천국으로부터의 출생이 아닌 세상에서의 출생, 기껏해야 그가 이미 경험한바 있는 출생의 반복이었을 뿐이다. 자연적 인간이 흔히 가지는 바램은 니고데모의 관념과 영에 관한 것들, 즉 어린 시절의 행복과 순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지상 삶의 순수함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가운데 새 삶에 대한 열망의 싹틈이 있게 된다. 이것은 성인의 지혜와 유아의 순진이 병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생각 안에 있는 이런 회전, 즉 새로운 출생만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향한 부드러운 갈망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가운데 자기 속의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순진의 무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모든 사람은 먼저 영적인 것에 대해 자연적인 개념, 천국적 상태들에 관해 지상적인 생각들을 형성한다. 어쨌든 영적 바램이 있으면 그것은 영적 진리의 씨를 받는 바탕이 된다.

5. 영적 지식을 갖고 싶은 바램, 하늘나라에서 배척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등으로 유대지도자의 마음이 동요된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을 위한 혼(soul)의 품질을 가늠하는 두 번째 출생의 본성에 관하여 니고데모를 가르치시고 있다. “사람이 물과 영(the Spirit)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요한의 세례와 주님의 세례는 이렇게 구별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위 두 세례를 병합시키시어 물과 영의 세례라고 부르시고 있다. 요한의 세례는 개혁(reformation)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출생의 준비 부분에 대한 모형이다. 주님의 세례는 거듭남(regeneration)이라고 불리우는 새 출생의 부분을 구성한다. 전자는 옛 것과 죽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후자는 새 것과 살아 있는 것과 교류하는 것이다. 물은 진리인바 이를 수단으로 생활이 깨끗해진다. 영(the Spirit)도 진리인바 이를 수단으로 마음이 계발되고 영감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인간이 갱생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시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글자적 의미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바깥쪽 생활이 개혁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the Spirit)으로 의미된 말씀의 영적 의미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내적 삶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말씀 또는 말씀이 밝혀주는 진리는 천국으로부터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진리는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삶에 관계되는 이 세상의 빛으로부터 파생되는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진리 너머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례 받는 것이 물로 태어난다는 말이고, 그 물이 원죄를 씻어낸다고 상상해도 될까? 어떤 사람의 경우 물세례를 두고 세례의 거듭남이라 말하기도 한다. 물세례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용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교회에 입문했다는 표시이다. 주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천국이 그분에게 열려졌고 영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렀다. 지금도 세례는 천국을 여는 효과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 주위에 천국적 영향력의 기운이 감돌게 하여 물세례가 상징한 신성한 진리를 받기 쉽도록 호의적인 마음의 상태가 보존되게 해준다. 그리고 세례의 씻음이 표현하는 순수해짐이 성취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6. 주님께서 어떻게 두 번째 출생이 첫 번째 출생과 다른지를 보여주심으로 두 번째 출생의 본성을 가르치시고 있다. “육(flesh)에서 태어난 것은 육(flesh)이며 영(the Spirit)에서 태어난 것은 영(spirit)이다.” 이 서술보다 더 명백하고 더 결정적인 서술은 있을 수 없다. 지상의 부모로부터 파생된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육(flesh)이라는 단어에는 우리에게 얼핏 비치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용어로서의 육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신체 측면만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전체 본성을 뜻한다. 다시 말해 죽음을 못면할 운명의 인간, 죽지 않는 인간, 출생 때에 상속된 모든 것, 그의 본성 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계속하는 동안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들, 한마디로 그의 자아(selfhood) 전체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가 재 탄생함으로 영적 수준이 되어갈 때, 새로운 의지와 이해성을 가지게 되는바, 이때 그의 자연적 의지와 이해성이 영(spirit)과 구별되는 것, 그리고 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육을 구성한다. 특별한 측면에서 육은 자아사랑이라는 악을 뜻한다. 이 자아사랑은 인간 자아의 가장 깊은 바탕, 참 본체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모든 다른 것들의 뿌리이다. 어쨌든 이

것을 호의적인 사랑, 흔히 우리가 부르는 선한 사람과 관련해보면 이 육은 자연적 선함을 표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영적 진리로 방향잡지 못하고 영적 선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그런 자연적 선함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도록 영혼(soul)을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연적 선함은 오로지 지상에 속한 것, 무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사야 40장 6-8절을 읽어보자. “모든 인생(flesh)은 한낱 풀 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 가는 야훼의 입김에...” 이와 대비되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풀은 시들고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말씀자체, 말씀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견뎌낸다. 그 이유가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있어 다시 천국으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항을 거듭난다는 것에 의해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대비시켜 “영(the Spirit)에서 태어난 것이 영(spirit)이다”라고 말해주시고 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영(the Spirit)은 그분의 인성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이르시고 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구원의 작업은 그분 자신의 인성이 새로이 만든 것과 유추된다.

7.8. 위와 같은 증대한 교리를 서술한 주님께서서는 놀란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타이르시고 있다. 이 유대 지도자는 새로이 출생한다는 단어만 가지고도 이미 놀랬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이 출생은 영적이어야 하고 천국으로부터 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셨으니 그 얼마나 놀람이 추가되었을 것인가! 비록 지금 그가 이런 변화는 본성 면에서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라고 들었다 해도 아직도 그는 그런 변화가 바깥쪽 눈에 보이는 매체에 의해 결과되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느님의 영(the Spirit)의 작용은 보이지 않고 지각되지 않을 때조차에서도 결과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인간의 거듭남은 그것에 관한 지식 없이, 설사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주님만에 의해 결과되는 일이라고 위 구절이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 구절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바, 거듭남은 신성한 일이라는 것, 그 자체는 인간 마음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향의 작용에 의해 결과된다는 것

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의 주체인 이들의 선택과 협동함과 무관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과 유사한 대목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 있는 비유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위 비유와 본문을 거듭남에 관한 주제로서 함께 생각해 보면 이는 거듭남의 내향의 일과 외향의 일을 묘사하고 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영의 내향의 작용이고 씨가 자라는 것은 말씀의 외향의 작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 두 경우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려는 것, 우리 마음에 주려는 영향은 이것이다. 거듭남의 일은 그것이 내향이든 외향이든 하느님의 뜻과 권능에 소속되는 일이지 인간에 소속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힘은 풀의 싹을 띄우게 할 수 없다. 성장은 생명의 결과요 이 생명은 하느님의 속성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에게 복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전에 하느님과 더불어 일꾼일 수 있어야 할뿐 아니라 일꾼 되어야만 한다. 그는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씨를 뿌려야하고 작물에 물을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거듭나는 일 중에서 그의 책임 분야인 것이다. 여기까지에 인간의 능력과 매체 수단은 끝난다. 자고 일어나는 것, 즉 그에게 씨의 성장을 돌봄과 노동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물이 자라 오르는 것은 확실하나 그는 어떻게 그 작물이 자라 올랐는지 모른다. 이 진리는 신성한 지혜에 의해 놓여있고 중요한 진리에 속하는 바 이해해 두면 대단히 바람직한 진리이기도 하다. 위 진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 수단이 끝나는 곳과 신성한 수단이 시작하는 지점을 말하고 있다. 거듭나는 이 위대한 일을 놓고 비록 우리가 그분과 협동하는 게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일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주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우리더러 하라고 명령된 것을 행하는 것, 즉 악에는 저항하고 선은 행함으로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바깥 측면에서의 사용함이 없게 되면 마치 농부가 땅을 갈고 엮고 씨를 뿌리는 등등의 제반 노동을 하지 않고 땅이 수확물을 내주리라 기대하는 것 같이 거듭나는 것도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씨를 심고 하느님은 수확을 주신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영과 협동해야만 한다. 이 영이 내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

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바람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의지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같은데 이해성으로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유입(influx)이 의지 안으로 있어지고 의지를 통해 이해성으로의 진입도 있게 된다. 하느님의 영의 구원하는 작업은 들어서 느껴진 어떤 것으로, 평화를 들어서 느껴진 것으로, 모든 이해성을 통과한 평화로서 우리에게 와진다. 그 이유가 그 작업은 신성이 호흡된 평화와 호의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이 어디에서 와졌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해성으로 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바깥쪽 일을 충실히 하고 있노라면, 주님께서 내향의 일을 지휘해주시고 마무리되게 해주신다. 이 바깥쪽 의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부이다. 우리의 수단은 그 이상으로 더 확장되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쪽 의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내향의 일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주목해둘만 한 것이 있다. 하느님의 영이 내향으로 작동함을 기술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심정의 거듭남이 표현되는데도 거기에 인간적 매체 수단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삶의 거듭남을 기술하면서는 인간적 수단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 인간은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간섭할 수 없으나 씨의 자람에 관해서는 그 자람을 위해 끈기 있는 의무수행과 마음줄이는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들로부터 슬기롭고 자비스럽게 감추어져 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거듭남에 관해 모두 알고 있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눈치채고 산다면 우리는 거듭남의 진보되어 가는 취지나 질서에 간섭하려들 것이고, 그 간섭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목적을 패배하게 하려들 것이다. “하느님의 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협력하는 동안 주님만에 의해 수행되는 영혼(soul)안에서의 영적 생명에 관한 작업은 육체 안에서 있어지는 자연적 생명과 비교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심장 내지 여타 내부기관들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식함도 없이 창조자의 법칙, 또는 의지에 순종해서 거의 동시에 일을 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 가는 각 기관의 일에 우리의 협력은 필수 요건이다. 우리는 노동으로 우리의 양식과 의복과 안식처를 준비해야 한다. 여타 생명과 건강에 대한 조건도 충

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들의 운동은 시들해지고 끝내는 중단되고야 말 것이다. 이와 똑같은 것이 영혼에도 있다. 하느님은 영적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 부수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들의 생명있는 작업의 저자이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영혼의 보전을 위해 우리에게 위촉한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영적이고 영원한 삶의 축복을 즐기게 되는 조건들이다.

9.10.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처음 듣게 된 사람이 그것을 납득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놀람과 믿지 못함이 혼합된 상태는 설사 그가 거듭나야 할 필요와 그에 대해 배움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확증된 상태라 해도 이는 자연적 수준의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이다. 자연적 인간에게 엄청난 일은 거듭나는 일이고 불가사의한 것 중 하나이다. 첫 번째 출생을 주제로 두 번째 출생에 대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읊어서 경건한 마음에 강한 인상을 심고 있다. 그중 14-16절을 읽어보자. “내가 있다는 놀라움,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됄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참으로 위 구절은 자연적 의미에서 진실이다. 그렇다고 영적 의미에서 덜 진실된 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천국을 위한 영혼의 재창조는 세상을 위한 육체의 창조만큼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의 본성 중 얼마큼은 알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냐?’”하고 되물으셨다. 어떤 이는 주님께서 그 당시 유행한 형체인 과학의 신비가 깨시 되는 것을 암시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위에 인용한 시편을 위시해서 구약성서에서 가르쳐진 생각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66장 8-11절에서 이렇게 읽혀진다. “...시온은 몸을 비틀기가 무섭게 자식들을 낳아 놓았구나...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그 품에 안겨 귀염받으며 흡족하게 젖을 빨리라. 그 풍요한 젖을 빨며 흐뭇해하리라.”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듭남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통해 영적인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납득 못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진실로 바랬던 이스라엘의 선생조차도 본문에서 지적됐듯이 예수께서 거듭남의 본질적 진리들 중의 하나에 관해 가르치신 사항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11.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고 보셨다. 따라서 그분의 말과 증거에 관심을 두는 한 그분의 가르침은 논할 여지가 없는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위 본문을 얼핏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나누는 진리의 지식을 그분만이 소유했던 것이 아닌 듯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다. 영적 의미에서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라는 두 겹의 증언에 관계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하신 것을 그분의 말씀 속에서도 역시 말하시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영광 글자 안에서, 사랑의 진리와 지혜의 진리 안에서 말하시어 우리에게 이타애와 믿음이 태어나도록(begot) 설게해 놓으시고 있다. 이런 이중성이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투에서도 역력하다. 그분은 말하시고 증언하신다. 그분은 아시고 보시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관계되고 있고 그분이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그것을 받지 않는 이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 또는 선에 대해 진짜 영적 애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듭남의 일에 관계되는 진리의 내적 지각이 없는 것이다.

12. 니고데모는 아직도 놀람과 의심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을 더 해주고 계신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주님께서는 지상적인 방법으로 천국의 것들을 말하셨고 자연적인 형상을 수단으로 영적 진리들을 가르치셨다. 그가 자연적 형상으로 옷입혀져서 자연적인 납득에 잘 숙박할 수 있게 된 천국적 진리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면 옷도 안 입혀지고 잘 안착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않은 적나라한 천국 진리를 말해 줄 경우 믿지 않는 정도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우리의 처음 개념들은 자연적이다. 그러므로 영적 진리가 자연적 그릇으로 옷입혀져 우리에게 접근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유령같이 우리에게 의해 간주되고 만다. 따라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를 생산해주는게 아니라 경중만을 울려 주게 된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필요로 했던 긴급 상황(마가6:49)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현존을 두고 유령으로 착각했던 것과 같다.

13. 주님께서는 다음의 신비스런 말로 진리를 받는 것과 거절하는 것에 있는 비밀을 나누어주시고 있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자, 곧 천국에 계신 사람의 아들 외에는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가 인간적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하려 든다면 이 선포는 앞의 대목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듯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주한다면 이 주제와 앞의 주제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보여질 것이다. 이 구절이 우선 우리를 가르치는바, 예수라는 칭호로서의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은 그분의 자연적 인간성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분의 자연적 인간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따라서 하늘 안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신성과 인간 본성 사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언급도 없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말들은 어떤 곤란함도 내포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하느님이 육 안에서 모습을 나타내신 분으로서의 예수일 경우라면 그분은 천국 안에 계셨고 천국 그 너머에도 계셨고 동시에 지상에도 계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런 경우는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the Son of God)과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사이에는 언제나 정밀한 구분이 있어왔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신성한 인성을 말할 때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셨고,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으로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셨다.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라갈 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진리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고 천국 안에 존재한다.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워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다. 천국으로 올리워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서는 획득할 수 없다.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지상적이고 땅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 애당초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것 외에는 천국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님이 육을 입으신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은 천국 안에 계셨다. 그 이유가 천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그분이 육을 입으시어 세상에 오시기 전의 그분의 인성이

었기 때문이다. 천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땅으로 내려온 것은 땅으로부터 천국으로 사람들을 들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전에 있던 곳으로 승강하는 수단이 설비되어 있다. 이에 관해 주님께서서는 아래 구절에서 말하신다.

14,15. “구리 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자들의 경우, 이 구절의 요점은 뱀 자체가 아니라 뱀을 들어올린 것에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왜 하느님께서서는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벌과 치료를 둘 다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뱀을 사용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 의심할 것 없는바, 뱀은 이런 경우에는 파괴의 수단이 되고 저런 경우는 구원의 수단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리 뱀은 뱀으로 타락이 결과되게 했던 이들의 구세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예징(type)이었다. 따라서 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계속 저질이 되어 가던 뱀으로 표현되는 인간 본성 속의 원리가 승강되는 것을 묘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이브를 썬 뱀에게 내린 저주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dust)을 먹으라는 것이었다. 이 저주 내용은 자연적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한다. 타락 이전에 뱀은 서서 걸어 다녔을까? 타락 후인 지금의 뱀은 흙만을 먹고 살까? 동물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 “저주”는 인간의 본성 중 감각적인 부분에 관계해서 이해할 때 최고로 적절하다. 뱀이야말로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상징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다. 감각적 원리는 지상의 것들로 인식되고 그것들로 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자체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이 감각을 좌지우지해야 하고 지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위로 감각적 원리를 승강시켜야 한다는 것이 인간에 관한 창조자의 계획이다. 인간이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라는 것, 즉 각자 속의 동물적 본성 위에서 다스리라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였다. 인간, 그리고 뱀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이 인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참 좋았다” 라고 말해졌었고, “복 있으라” 이었다. 합리성이 감각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을 때, 또는 영적 측면이 자연적 측면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대단히 좋고 복있다. 그 반대로 감각적인 것이 합리성을 지배하고,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다스릴 경우 그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되어진다. 합리성이 감각적인 것을 승강되게 하는 대신 감각적인 것이 합리성을 끌어내릴



때 인간은 그의 높은 지위로부터 추락한다. 감각이 이성에 추종되는 대신 이성이 감각의 비위를 맞출 때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격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가 “지상적, 감각적, 악마같이” 되어진다. 만일 인간의 타락이 그의 합리성을 지배하게 된 그의 감각적 본성에 있다면 이것의 회복은 그의 합리성이 감각적인 것을 지배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브에 주어진 약속은 그녀의 후손(seed)이 뱀의 머리를 짓부순다는 것,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인간의 감각 본성이 타락을 수단으로 합리성의 지배를 획득한 것을 박탈하리라는 약속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분 스스로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다. 글자대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 즉 마리아로부터 입은 인성은 그 인성 안에 인간 본성의 모든 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상속되는 상태에서 타락된 인간의 특징을 이루는 모든 것, 거꾸로 된 질서로 모두 그 인성 안에 존재했다. 인간의 이런 원리들 사이에 감각적 원리, 자칫 땅에 속하고 마는 속성, 그야말로 타락을 통해 땅의 것이 되고만 것들이 있었다. 인간 본성의 이런 원리를 추락되어왔던 타락의 상태에서부터 들어올리는 것, 그것을 거룩해지게 하는 것,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신성과 하나를 이루도록 승강시키는 것이 주님의 신성한 작업의 한 부분이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 사람의 아들을 그렇게 들어 올리셨다. 그것은 복 주시려는 이런 의도, 즉 육의 욕망과 생명 속의 자만이라는 불뱀(민수기21:6)에 물린 이들이 그분을 믿는 가운데 쳐다봄으로 그들 영혼에 진입한 기어이 죽게 하고야 마는 독으로부터 해독되게 하시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거룩해진 감각적 원리, 또는 신성한 자연성을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감각적 원리에로 유입하시고 직접 연결하고 교통을 이루어 죽음으로부터 그 원리를 건져내시고 들어올리시어 합리성과 결합되게 하신다. 물론 주님 안에 있는 이 원리를 수단으로 그분께서는 천국과 교회, 인류의 개개인 모두에게 신성한 할례를 베푸신다.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하나됨이 무한하게 완전을 이루어 그분 안에 존재하기에 그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그분의 특사로 파견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악의가 없어야 한다” (마가10:16) 라고 강하게 요구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뱀이란 신성한 자연적 측면이고, 비둘기는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그분 위에 내려 온 비둘기 같이 신성한 영적 측면이다.

주님이 들어 올려져야 하는 목적은,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가지게 하시려는데 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또 다른 경우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요한12:32)라고 표현하시고도 있다. 영화하심으로 그분 자신의 인성을 들어올리신 주님은 인간을 승강시키고 그들을 그분께로 끌어당기는 권능을 가지시고 있다. 주님의 승강하심으로부터 인간은 자신을 승강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승강은 믿음을 통하여 결과되어진다.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라기 보다는 수단이다. 이 믿음을 통해 그분의 구원하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실시된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되는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되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이에게 자유로이 제공되어 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가진다. 이것은 축복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나 기꺼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식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설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인간이 생명을 가지기 위해 그분께 오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16. 자유로움에 관한 이유가 복음 속에서 이렇게 명백한 언어로 주어지고 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 구절이야말로 더 없는 복된 진리이다. 값진 선물이 배포되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 구속의 근원이다. 지상에서 참 미덕과 행복이 더 진전되리라는 희망의 기초와 천국에서 더 없는 행복의 수단으로서의 구원에 관한 기초를 형성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에 빛지고 있다. 이와 달리 어떻게 있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온유한 자비는 모든 그분의 일에 넘치고 있다. 그분이 계신 그대로의 것, 그분이 느끼시는 것 모두는 불변하고 영원히 그대로이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똑같으시다. 그분이 바뀌시지 않는바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불법에 표를 해두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은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다시 가져보기라도 할 수 있을까? 세상이 구속받는데 하느님의 사랑에 빛지고 있

다는 진리, 만일 놀라기라도 하듯 흥분할 필요가 없다면 그 사랑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히 여기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이 세상은 적대감만 갖고 반역적인 상태 안에 있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읽어보자.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경우 이렇게 읽혀진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동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셨다.” 사랑의 목적(purpose)이 실시되게 한 수단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와 불일치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더 나올 것이다. 무한한 사랑은 무한한 지혜로 그 사랑의 목적을 언제나 이루어낸다. 구속에 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양쪽에 관한 생각이 완전해지도록 드높여 준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구원의 자유로움(freeness)이 이런 보증, 즉 이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보증으로 주어지고 있다. 아들(the Son)이란 신성한 인성이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믿음의 대상(object)이고 영원한 생명의 저자이시다. 아들을 가지는 자는 생명을 가진다고 사도에 의해 말해졌기도 하다 (요한1서5:1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듯, 신성한 지혜 안에 신성한 사랑이 있듯, 인성 안에 신성이 있듯이 구원의 수단이다. 그런고로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과 결합하는 쪽으로 인도해주고 이런 결합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17.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말씀 또는 신성한 진리는 심판과 구세주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성한 진리는 심판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까별리는데 있어 쌍날칼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의 입에서 나오는 쌍날칼이다 (계시록1:16). 그러나 심판자로서, 또는 심판의 도구로서의 이 진리는 그 진리에 저항하는 이들을 단죄한다. 심판에서 단죄를 발표하는 것은 사랑과 분리된 진리이다. 더구나 그 분리는

주님이 아닌 인간에 의해 결과된다. 진리로 심판되는 이들이란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다. 그분의 진리가 인간을 단죄하는 어느 경우라 해도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그분의 진리는 그분의 사랑과 하나되어 있다. 그 진리는 사랑의 임무,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려는 목적만을 위한 임무만을 지니고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구속(redemption)은 사랑의 일임이 자명하다. 말씀이 육이 되셨듯 하느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보내셨을 때 그분의 신성한 목적은 영원한 진리를 통해, 그 진리가 명백히 알려짐을 통해 세상이 구원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신성한 진리는 심판이라는 한 개의 큰 행동을 수단으로 구속을 결과되게 했다. 이 행동이란 세상의 왕이 심판되는 것이었다. 어둠의 권세는 신성한 진리의 권능으로 정복되었다. 이런 경우에서까지도 주님은 질서에 관한 그분의 법칙으로부터, 또는 복주시기만 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진리가 그들에게 심판과 단죄로 되어버린 이유는 어둠의 영들이 그들 심정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차단하고자 닫아 걸었기 때문이다.

18. 비록 주님의 목적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는데 있다 해도 인간 스스로 단죄를 자초할 경우 이를 예방해 줄 수는 없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가 배우는바, 단죄는 신성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단죄된 상태에 있다. 똑같은 원리에서 믿는 자는 정당함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 어쨌든 인간은 하느님의 심판과 정의에 관해 무분별하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신성한 존재는 그분의 창조물에게 그분의 법을 강요하여 집행하는 분으로, 그분의 권위를 억지로라도 지키도록 하시려는 분으로 자신에게 쉽사리 설명한다. 그러나 신성한 정의는 변경할 수 없는 신성한 질서에 관한 또다른 표현밖에 더 아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칙은 신성한 질서에 관한 법칙이 또 다르게 표현된 것일뿐이다. 참으로 이들은 신성한 의지와 지혜 속에 존재한다. 더구나 신성한 뜻과 지혜는 그 자체가 행하려하고 요구하려는 어떤 것에 관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인류의 행복과 복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불신앙 또는 불순종으로부터 결과되는 단죄란 인간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그분의 법칙에 반대함으로 인간이 획득하는 상태에 불과하다.

19. 이런 단죄의 바탕을 주님께서 설명하신다. “이것이 단죄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사랑할 경우 빛이 그들을 단죄한다. 성경에서 대단히 분명하게 밝히 알리는 진리가 있다. 즉 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위반함도 없다는 것, 죄짓는 정도는 우리가 소유한 빛의 정도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이다. 빛이 주어진 것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정해주고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선용하라고 주어졌던 것이 자칫 남용으로 전용되는 일이 흔하다.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선택이란 것도, 미덕이란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무지는 책임의 부재를 함축하고 있지만 개선됨의 부재(absence)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다. 빛은 우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신실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미덕과 행복 속에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빛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러나 그 빛이 남용되고 뒤집혀 질 때, 설사 소홀히 하고 무시할 경우라 해도 축복의 빛은 오히려 저주의 빛이 될는지 모른다. 따라서 빛 자체이신 그분이 한 명의 인물로 세상에 오신 참 빛은 우리를 가장 높게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는 한편 가장 깊은 단죄의 수단도 된다. 엄밀히 말해 이 빛은 단죄하지 않으나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 이들이 죄지은 것과 그것을 밝히 보게 하는 빛과 비례해서 터트리신 분노라는 악한 상태를 그들 스스로 조장하여 확증하는 것이다.

20. 이런 상태가 단죄되는 이유가 주어지고 있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악과 진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 두 종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참으로 인간은 진리를 알면서도 악 가운데 있는 것이 가능하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개로 구분되는 것들이다. 인간은 진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만드는데 어떤 의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짓밟을는지 모른다. 만일 악인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의 심정이 감추여 있지 않는 곳, 위선적인 신앙의 동기가 있을 수 없는 곳인 영계에 오면 그렇게 헤버릴 것이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바, 악한 자가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것은 그들

의 행실이 드러날까봐여서 라고 말한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기 행동이 단죄될 때 빛을 미워한다. 영적 의미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바, 악인이 빛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악이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그 악이 제거되도록 그 자체 명백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서라는 것이다. 주님이 타이르시는 것은 그가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해서이다. 깨달음을 수단으로 인간은 생활이 고쳐지는 쪽으로 인도된다. 악한 자는 꾸지람을 거절한다. 그 이유는 고치고 싶은 바램이 없기 때문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구절의 자연적 수준의 의미는 쉽게 간파될 것이다. 직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그의 행위의 품성이 그 근본을 증언 해준다는 말이다. 영적 수준의 의미가 아직 더 많은 교훈을 가르친다. 진리와 진리의 빛은 다른 점이 있다. 진리는 외부로부터 오고 그 빛은 내부로부터 온다. 진리는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오고 빛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서가 가르치는 그대로의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참으로 모든 마음에 현존하는 빛이기도 한 진리의 빛을 영접하도록 마음을 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배워 순종하는 이들 외에는 아무도 계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교훈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다.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친 사람(good understanding)이다” (시편111:10).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 교리가 하느님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 (요한7:17).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지식도 빛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 수준의 이해성의 빛일 따름이다. 영적인 식별에 속하는 빛인 영적인 빛은 선함(goodness)을 통하여서만 올뿐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빛은 삶의 씩씩이에 적용된 지식에 의해서만 획득된다. 다시 말해 진리만으리가 아닌 진리의 선이 생명의 빛을 받게 하는 통로를 형성한다. 또 다른 요점이 이 주제와 연결될는지 모른다. 총명 없이 순종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이들은 식별해봄도 없이 선을 행할는지 모른다. 식별해봄도 없이 행하여진 선은 자연적인 선일 뿐 영적인 이타애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그 빛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우리의 일이 하느님 안에서 수행되는지를 분명히 해주는 게 그 빛이기 때문이다.

22. “그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가서서 그 곳에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영화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을 정화하셨고, 거듭남의 본성과 그 필요성, 그 결과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다. 이제 그분은 구원의 수단과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유다 지방으로 가시고 있다. 처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세례 베푸심과 이와 구분 되는 요한의 세례 베품에 관해 읽게 된다. 우리가 예수의 세례라고 구분해 말하는 이유는 그분에 의해 (사실은 예수가 아닌 제자들에 의해서이지만)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보다 더 내면적이고 완성된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서이다. 요한의 세례는 바깥쪽 인간이 깨끗해짐을, 주님의 세례는 안쪽의 인간이 깨끗해짐을 표현했다. 지금 교회에서 실시되는 세례는 내향과 외향의 세례 모두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모두의 의미와 사용을 병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타당할 수 있다.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로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간을 준비시키도록 의도된 것인바, 그 세례는 메시아 스스로 수행하게 될 세례를 준비하는 작업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두 세례의 확실한 구분이 주님의 승천 후에 사도에 의해 있어졌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 받았고 그럼으로 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아 제자된 신분의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 (사도행전19:3-5). 두 세례의 각기 다른 용도와 의미에 일치해서 요한은 처음에는 요르단 저쪽인 팔레스틴 땅에서 세례를 주었던 반면 예수의 세례는 유다에서 시작되었는바, 이것은 바깥쪽과 안쪽의 깨끗해짐이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표현할는지 모른다.

23. “한편 살림에서 가까운 애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아서 요한은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를 받았다.” 이 두 장소는 예수의 세례와 구별되는 요한의 세례에 관한 본성과 연결되는 어떤 것을 묘사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애논(Aenon)은 글자대로라면 눈(eyes)을 뜻하는데 이는 샘물 또는 샘에 대한 풍유적인 이름이다. 살림(salim)은 글자대로라면 평화를 뜻한다. 이 샘의 이름은 땅으로 솟구치는 물과 눈물이 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과의 유사한 점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요한이 집행한 세례, 회개의 세례가 이보다 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참회에서 있어지는 눈물은 부서진 심정이라는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물이다. 그리고 죄

를 자각시키는 진리의 하느님의 영이 그 속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이것은 희망적인 상태이다. 이 상태 자체는 평화는 아니지만 애논이 살림에 가까웁듯 평화 근처에 까지 와 있는 상태이다. 슬피우는 밤을 기쁨의 아침이 뒤를 잇는 경우와 같다. 요한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물로 의미된 많은 진리는 깨끗해지는 작업에 필수적이다. 교회가 진리를 더 많이 소유할 수록 더 충분한 가르침이 있을 수 있고 교인들의 깨끗해짐도 더 완전해질는지 모른다. 애논과 그 곳의 물은 좀 더 향상되는 것, 요한의 세례 수준까지도 진전을 이루는 것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애논은 요르단 강 서쪽, 그러므로 가나안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물은 요르단 강에 속한 게 아닌 샘물에 속하고 있다. 샘 또는 샘물은 성경에서는 생명있는 물이라 불리운다. 그래서 이는 진리가 생각으로부터 와서 생활 곳곳에 응용되듯 적극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 있는 진리를 상징한다. 애논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본문이 비치고 있다. 교회의 진리가 더 풍부하고 더 적극적일 때, 또는 교회가 성실하고 꾸준히 진리를 추구할 때, 그 교회의 가르침은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을 더 가치 있는 교인으로 만들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신하로 더 흡족해지게 하리라.

24. 마음이 말씀에로 더 끌어 당겨지는 시절, 깨끗하게 하는 말씀 속의 진리를 더 받아들이는 시절은 더 나은 결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거듭나고 있는 참된 교인에게 공통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시험의 때와 상태이고 이것은 천국적 진리를 성실히 영접한 뒤를 잇는다. 진리가 마음에 처음 도입되면 기쁨의 상태가 동반된다. 그 이유는 진리가 자유라는 느낌, 특히 불신앙과 의심으로부터 지적으로 자유로워짐을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태 뒤를 따라 있게 되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그 자체 의심에 종속될 때, 오류와 악의 암시가 진리의 권위에 반대하여 봉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례 사이에 있는 변천기이다. 바로 요한이 감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이런 환난의 기초가 되어있는 것이 우리 본성에 있는 악이다. 신실한 사람의 시련 중의 하나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계시록2:10).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것은 요한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신실함은 생명의 면류관을 확고히 붙들게 했다. 요한이 수행한 글자대로의 사건은 참된 모든 제자가 영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다. 이를 추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글자적 진리는 율법의 글자로부터 영으로 건너가는 참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어야 그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시험도 의미하게 된다고 앞에서 말했었다. 진리는 시험에 노출된 채로 우리에게 놓여 있으면서 그 시험 안에서 우리를 방어 해 준다. 진리는 우리의 악들을 빛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그 악들을 정복하는 도구가 되어준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와 필요함에 꼭 맞는 진리를 주심으로 전투의 날에 대비하여 무장하도록 설비하시고 있다.

25. 요한이 아직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깨끗해짐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표현되는 시험의 상태가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지적인 토론이나 말다툼은 슬픔의 시작이고, 일반적으로 더 깊은 악이나 더 심각한 시련으로 이끄는데 이는 교회이든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이든 공히 같다. 이 구절에서 일어난 의문은 깨끗해짐(purifying)에 관한 것이다. 다음 절은 이 말다툼의 본성을 밝히 알게 하고 있다. 이 구절은 단지 요한의 제자 중 누군가와 어떤 유대인 사이에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것은 유대주의와 기독교신앙 사이의 논쟁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다. 우리 모두는 복음서 아래 있기에 앞서 율법 아래 있는바 이런 토론은 거듭나는 모든 마음 안에서 있어진다. 유대인이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 요소나 원리에 관한 유형밖에 더 아니다. 첫 번째 다툼이 깨끗해짐에 관한 사항이 되는 이유는 실제의 깨끗해짐은 옛 것과 새 것사이의 경계선에 해당되어서 이 경계선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때문이다.

26. 이 의문은 또 다른 데로 이끌고 있다. “그 제자들은 요한에게 와서 ‘라삌여 당신과 함께 요르단 강 건너편에 계시던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증언하신 바로 그분인데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깨끗해짐에 관한 의문은 예수가 세례를 베풀 권한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의 세례와 요

한 세례 중 어느 세례가 중요한지에 관한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구절은 마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스승이 하는 일을 흉내내는 듯 보여져 어떤 질투심을 느낀 듯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말 속에 담긴 영적 의미만이 관심을 갖게 하는 전부이다. 이는 세례에 대해 예수에게 불평하는 것의 근원과 본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모든 마음 안에서 말씀의 글자의 증거가 말씀의 영의 가르침과 다투는 것, 심정 속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 예수의 세례가 더 높은 수준인지에 관해 다툴 때가 있다. 동기가 깨끗해짐은 행동이 깨끗해짐보다 더 높은 세례이다. 더 낮은 수준은 더 높은 수준 이전에 있는데, 전자가 후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린 아이에게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 전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순서는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사랑하고 의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기 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한다. 악행의 중단이 요한의 세례에 해당되고 악행을 사랑함의 중단은 예수의 세례이다. 옛 것이 사라진 후에야 새 동기와 새로운 생각이 주어지는바, 성령과 불로 주는 주님의 세례는 더 높은 세례이다. 질서와 진보해 가는 법칙이 이렇다해도 더 높은 것이 더 낮은 것을 계승하는 바 이것에서 저것으로 건너가는데에는 싸움이 언제나 있게 된다. 그 이유가 더 위대한 것에 복종해야 함에서 더 수준 낮은 것에 의해 산출되는 강한 반감이 어느 정도라도 있어지기 때문이다. 이 강한 반감은 질서의 주제에 관해서, 본문의 경우 우리가 주체자가 되거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깨끗해짐의 목적에 대해 잘못된 견해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마치 불만족스러워 하는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아갔듯이 우리가 말씀 자체에 갈 때, 요한이 표현했듯 밝히 알려진 말씀을 수단으로 진리가 우리의 이해성에 가져와져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27.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사람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 선하고 완전한 모든 선물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육체이든 영혼이든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복의 저자이시다. 생명은 그분의 선물이다. 이 선물에는 생명에 소속되는 모든 것, 의지와 이해성의 자질, 애정의 목적인 선한 모든 것, 생각의 목적인 모든 진리와 더불어 모든 애정과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은 없다. 그분만이

끓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런 것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 말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제자의 의문에 관련해서 요한의 말은 어떻게 적용될까? 예수께서 세례를 주는 권한, 그리고 그분의 세례는 천국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의 세례식은 하나님이 정한 제도였다는 말이다.

28. 요한은 주님이 베푸는 세례가 천국에 근원을 두어서 신성한 권위가 있다고 말해주었을뿐 아니라 자기 세례의 권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들은 증인들이다.” 우리 모두는 요한의 제자들 같아서 자칫 수단을 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을 뿐인 것을 놓고 마감 지은 듯 간주해버린다.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위한 율법의 목적이다” (로마10:4). 모든 의식, 예식, 모든 예언자와 사제들, 정녕 모든 계시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게 하는 한 분, 모든 자를 충만 되게 해주는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빛인 말씀 자체되는 그분에 관해 씌어진 말씀의 증인이요 기능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29. 요한은 예수에 관해 더 말을 잇고 있다. “신부를 맞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교회의 남편이요 신랑 되는 그분은 신실한 자의 모든 것과 가장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이런 칭호는 고유하게 그분이신 여호와에 의해 주장되었다. 신랑이란 칭호가 예수께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는 명백히 보여주신 여호와이셨기 때문에서이다. 신부를 맞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바 이 교회는 주님밖에 그 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요한이라 해도 신랑의 친구 수준 이상의 대열에는 낄 수 없다. 그는 신랑의 음성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심이 자기 기쁨이 충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사항에는 씌어진 말씀이 육을 입은 말씀으로서의 주님을 낳는 관계를 묘사하고도 있다. 분명한 것은, 밝히 알게 한 말씀이 신랑이었고 신랑이시라는 것, 그유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때문에 크게 기뻐하여 진리를 심정으로 느껴 받아들이

기 때문이다. 크게 기뻐함이란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따른 애정의 표현이다. 요한의 기쁨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결혼함으로 충만 되었다. 그 이유가 이 결혼 이야말로 계시가 존재하게 된 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 기쁨의 충만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선함으로 그 속이 채워질 때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분의 교회와 결혼함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마음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하나됨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가 거기에만 천국적 결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0. 요한이 계시된 말씀을 표현하고 예수는 계시된 말씀이 모습을 나타낸 것인바, 요한은 외적 경로로 해서 씌어진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파생되는 진리를 표현하는 반면, 예수는 내적 경로로 해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를 두고,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 하느님의 영의 내향의 증거는 말씀의 바깥쪽 증거를 언제나 능가한다고 상상하거나, 또는 씌어진 말씀의 권위는 영원한 말씀의 영향력이 증가됨으로 쇠약해진다고 상상하는 것 등등이다. 이 구절은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거행되는 상태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영적인 모든 진보에 속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주님께서 달리 표현하신 대목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리라는 말씀이다. 개혁이라 불리는 것, 즉 요한의 가르침과 그의 세례로 표현된 것인 거듭남의 첫 단계에서 진리는 첫째 자리에 있고 선은 둘째 자리에 있다. 외적인 것들이 첫째이고 내적인 것은 꼴찌이다. 주님의 일로 특별히 표현된 거듭남이라 불리는 새로운 삶인 두 번째 단계에서 선은 첫째 자리에 있고 진리는 둘째 자리에, 내적인 것이 첫째에, 외적인 것은 마지막에 있다. 이리하여 거듭남이 진전될 때마다 선의 영향력과 권위는 더욱 증가하고 진리에 속한 것은 줄어든다. 우리를 지배했던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이 지배하도록 길을 터 준다. 그리하여 더 높은 목적에 더욱 더 종속되어 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불어넣으신다. 상태가 이렇게 뒤바뀐 때 제일 가던 외적 진리들이 추락되는 것인 듯 비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외적 진리들이 참으로 경외 받고 드높여진다. 그 이유가 외적 인간의 상태를 위해 헌신해왔던 신성한 질서가 뒤바뀐 상태에서는 외적 인간에게 큰 기쁨을 만들었

기 때문이다.

31. 요한은 주님에 관해 더 말한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나온 사람은 땅에 속한바 지상 일을 말하고 천국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다시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지고하심을 증언하고 있다. 천사와 인간,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무한과 유한, 창조되지 않은 것과 창조된 것 사이에서 존재에 관한 등차는 없다.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이 되시고 있다. 주님과 요한을 비교하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문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요한의 서술을 말씀자체,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관련하든, 마음 안에 있는 말씀에 관련해보든 공히 똑같은 점을 표현하고 있다.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씀 속의 진리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주님이시고, 모든 인간적 진리 위에 있다. 외적일 경우 말씀 속의 진리는 땅에 속해 있는바 지상적이어서 지상에 관해 말한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옴에서 신성한 진리는 지상의 옷으로 그 자체를 옷입는다. 성경에서 계시된 바로서의 하느님의 지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상적인 것들을 취급하고 있다. 지상에 속하는 말씀의 글자는 지상에 관해 말하고 있다. 요한의 시대까지 씌어진 말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구약성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구약성서의 많은 분량이 지독하게 육적인 마음뿐이었던 백성들의 일시적인 역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 역시 일시적일 뿐인 그들의 관심 사항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의 내적 측면은 천국으로부터 있는바 천국적인 것들을 취급하고 있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 자체이시다. 그래서 천사이든 사람이든 그들이 납득 가능한 모든 진리 위에 계신다. 계시의 언어에서 “위, above”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속, within”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에 계신다는 말이다. 세례자 요한의 이 구절의 말을 실제 우리에게 응용한다면, 그가 말한 “천국과 땅, heaven and earth”은 우리 마음의 영적, 자연적인 것들이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자연적 수준의 마음 안으로 먼저 받아들여진다. 거기에 있는 진리는 그 자체 영적인 것이라 해도 어쨌든 자연적으로 납득되어 사랑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 관한 한, 그것은 땅에 속한바 땅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영적 수준의 마음으로 들리워진 다음 다시 자연적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은 천국적이다. 참으로 천국으

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다. 따라서 그 진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 더 나아가 우리의 온통 삶을 영적인 수준으로까지 만들어준다.

**32.** “그분은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구절의 경우 예수께서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신성한 어떤 인물(person)이 또 다른 신성한 인물이 행동한 것을 보고, 그가 말한 것을 듣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려한다면 이는 너무 모순된 것이다. 위 구절 같은 언어가 실어 나르려고 의도한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다. 예수는 여느 다른 존재, 즉 천사들이나 인간이라는 존재와는 달리 하느님과 매우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 여하튼 하느님을 보거나 그분의 소리를 들은 자는 아무도 없다. 아들(the Son)만이 이 특전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수단으로 이 아들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들을 수 있다. 무한한 사랑을 납득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지혜뿐이다. 본질적인 신성을 받아 명백히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성한 인성뿐이다. 어쨌든 요한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수는 하느님에 관한 것을 보고 들었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본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에 관련되어 말해 볼 경우 본다와 듣는다는 말은 더 높은 의미를 지닌다. 신성한 이해성은 무한한 지혜이고 신성한 의지는 무한한 사랑인바, 주님이 아버지를 보고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이 내재하는 신성의 사랑과 지혜를 그 자체 안으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인간에게, 그들의 연약한 납득력에 숙박할 수 있게 교통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신성한 인성의 증거는 아무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그분의 증거가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거절되었다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라, 어떤 시대의 교회, 절대 차원이 아닌 교회가 교회 자체에 거슬리는 진리의 증거를 거절했다는 뜻이다.

**33.** 다시 말해 교회 전체가 송두리째 거절했다는 말은 아니다. 어쨌거나 교회가 부패되어 가고 거의 완벽하게 황폐해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새 처방의 시작을 형성할 싹은 보존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

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증언을 받는 이들이 아껴두신 사람(remnant)들이고, 이들로 부터 새 교회(the New Church)와 새로운 사람이 형성된다. 그리고 증언을 받는 자 들은 하느님이 참되심을 확증한다. “예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진다” (요한1서5:10). 예수는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언이시라고 말해지고 있다 (계 시록3:14). 진리는 그 자체에 증거를 낳는다. 이것은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주는 능 력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진리의 증거는 진리 안에 그 자체의 증거 를 지니기 때문이다. 빛으로서의 예수만이 빛에 대한 유일한 증인일 뿐이다. 빛에 대해 가장 높고 진짜인 증거는 그 빛을 받는 마음을 밝게 해준다.

**34.** 이 선포에서 가르치는게 더 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신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에게 하느님의 영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 는 하느님이 보내셨다고 말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세례자 요한의 경우, 그는 신성 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위촉된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분은 하느님께서 보내셨는 데, 마치 그분 자신의 증거가 하느님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이 진행됨(proceeding)이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없다. 그 이유가 하느님은 어디에나 현존하는 존재인바 위와 같은 이해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 진행되었다. 마치 무한한 지혜가 무한한 사랑으로 부터 진행되는 것과 같다.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가 분리될 수 없듯이 사랑 으로부터 지혜가 생겨나는 것은 지혜를 수단으로 사랑이 명백해짐 또는 사랑의 계시 이다. 이와 같은 것이 예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리라는 데 대한 올바른 생각이다. 주님의 말들은 지혜만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사랑이나 선함과 하나된 상태에 서 표현된 것들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신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서는 그분께 하느님의 영을 한정해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측량하지 않음(without measure), 아낌없음은 무한하다는 말이다. 하느님의 영이 그분에게 무한하게 “주어 졌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성한 진리가 표현되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언어의 형체 때문에 잘못 인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들을 보내심 같이 하느님의 영을 주심도 말해진 존재의 본성과 일관되도 록 이해해야 한다. 사랑의 영(the Spirit)이 지혜에 주어진다. 마치 인간 애정 속의 영(the Spirit)이 인간 생각에 주어지는 것과 같다. 이보다 더 특별히 이해되어야 하

는 것은, 주님의 모든 신성은 그분의 인성과 교통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은 이렇게도 예증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인간 혼(soul)의 힘과 모든 생명도 육체에 주어진다. 그 이유가 인간 혼이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혼 자신의 기관적 형체로서 육체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인간 혼은 육체에 나누어준 생명과 힘을 거두어가지 않는다. 생명과 힘을 육체에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허약해지는게 아니라 더욱 풍요로워진다. 그 이유가 영혼의 생명과 힘이 육체와 연결됨으로 해서 영혼에 제한이 가해지는게 아니라 더욱 팽창되기 때문이다. 무한성이 유한성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인간적 유사함은 신성한 본성에 관련되어 상응되는 진리를 볼 수 있게 한다.

35. 이제 우리에게 보내지는 본문의 말은 위에서 생각해왔던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 생각과 일치하도록 표현된 신성한 진리를 가지게 된다. 아들(the Son)이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두고 마치 인간의 아들이 인간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object)이라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신성에 관해 우리가 형성하는 건전한 모든 관념과 대단히 모순된다. 본문의 아들(the Son)은 아버지의 사랑의 주체이지 객체 또는 대상이 아니다. 신성한 사랑은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셨듯 신성이 인성 안에 계셨다. 이 생각과 일치해서 이어진 구절 즉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도 읽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다. 이는 마치 사랑이 모든 힘, 권위, 영광을 지혜에 준 것과 같다. 또한 본질 되는 신성이 신성한 인성에 모든 것들, 그 자체까지 주고 있는 것과도 같다. 주님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모든 속성들은 창조된 인간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게 해 주고 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손”에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신성한 존재의 손이란 그분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신성의 모든 속성들이 인간 구속과 구원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아들의 손 역시 인성을 수단으로 전능하심이 작동되는 신성한 권능이다. 더불어 인성 그 자체는 신성의 수단이 되어 천사와 인간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36. 세례자 요한이 아들에 관해 말했던 사항과 일치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 커녕 하느님의 영원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에게 그분의 영으로 무한하게 채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분의 모든 권위와 권능을 쏟아 부으셨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께 돌리라고 요구했었던 모든 충절과 존경을 아들에게로도 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위 구절이 표현하는 인간적 생각이다. 올바른 해석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 인간이 희미하게 알았었고 불완전하게 예배했던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모습을 명백히 드러내셨고, 이후 그분이 하느님으로서 알려지고 예배되어진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것도 믿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의 참된 믿음은 우리를 신성한 본능의 분담자로 만든다. 그리하여 그 믿음은 우리 구세주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다. 이 믿음은 심정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생활에서 그 결실을 맺는다.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새겨진다. 이런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느님의 분노가 그 사람에게 상주하고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믿지 않는 것, 불신앙으로 번역된 원어는 불순종을 의미하거나 때로는 불순종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의 불신앙은 우리로 하느님의 분노 아래 오게 한다고 여기서 선포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하느님 안에는 분노라는 것은 단어조차 없다. 그분은 순수한 사랑과 자비이시다. 그러나 본문 같은 표현은 우리가 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믿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은 그 반대인 분노로 변해진다. 심정 안에 있는 하느님을 사랑함이 축복의 원천인데 비해 하느님의 분노라 불리는 것들은 슬픔과 고통의 원천이다. 그 이유가 심정은 생명이 유출되는 곳,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 나오기 때문이다. 완고한 불신앙의 상태, 그것은 전환 안 된 심정의 부패함 안에 뿌리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본문에서 하느님의 분노가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려야 한다. 주, 우리의 구세주께서 참되고 신뢰하는 믿음, 사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에 오시게 하자.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칠 분노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고히 붙잡자.

## 4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 이 장의 앞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건은 복주시려는 그분의 삶 중에서도 대단히 아름다운 사건 중의 하나이다. 겹혀, 온유, 지혜가 완전을 이루는 가운데 모두 나열되고 있다. 우리는 약하고 무른 인간성을 동정하는 사랑이 인격화 된 것을 사람의 아들 안에서만 볼 수 있다. 여인이 우물에 오게 되고, 한편 여행으로 피곤해지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신 사건이 우연한 일인 듯 비쳐질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 감명을 받고 나면 우리는 그 사건에 은혜를 빚진 듯 여기고 만다. 여인과의 주님의 대화가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신성하게 예견된 사건임을 어느 누구라 해도 쉽게 간파하지 못한단 말인가?

1-3.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사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야로 가기로 하셨다.” 앞장으로 거슬러 가서 생각하면,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 사이에 깨끗해짐에 관해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에는 예수의 세례도 끼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에게 불법이라고 간주되었다면 예수의 세례는 바리사이파 사람에게 한층 더 불법으로 간주되었을 것은 틀림없다. 마치 인간의 마음에 있는 바리사이파식의 원리가 그러한 것 같은 모양새이다. 예수의 세례는 요한의 것보다 더 내향의 깨끗해짐을 표현했다. 더 내향으로 깨끗해짐은 심정 속의 더 깊은 악들에 빛을 드리운다. 그리하여 이 악은 자기들을 밀어내려는 선의 힘에 죽도록 혐오하여 흥분되고야 만다.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 때문에 자주 책망하셨던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속임수와 하나된 자아사랑, 즉 악이 심정 안으로 가장 깊숙이 진입한 형체

를 표현한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푼다고 말해지면서도 그것은 예수 자신이 아닌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었다고 추가해서 말해지고 있다. 3장 26절을 살필 때 우리는 세례의 세 종류, 즉 요한의 물세례, 예수의 물세례, 그리고 성령과 불로 베푸는 주님의 세례를 거론했다. 첫 두 세례는 바깥쪽과 안쪽의 악들로부터 깨끗해짐이고, 마지막 세례는 깨끗해진 의지와 이해성이 진리와 사랑의 생명된 원리와 교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마지막 세례는 특별히 주님의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제자들은 종교의 지식과 교통될 수 있고 구원의 바깥쪽 수단을 처방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계발해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악을 제거하는 수단은 주님의 제자에 의해 공급되고 응용될 수 있으나 선은 주님에 의해서만 이식될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은 물세례가 주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주님에 관한 소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결과, 그분은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로 출발하셨다. 이 구절은 단지 예수의 인간성 측면만을 거론한 듯 보일지 모른다. 마치 자기 방어를 위한 인간적 신중함 때문에 갈릴래아로 떠나시는 듯 여겨질 지 모른다. 이 구절 외의 다른 실례들처럼 이 구절도 슬기로운 목적 때문에 표현되는 가상적인 것밖에 더 아니다. 영적 의미에서 이 모습은 인간의 상태에 섭리적으로 잘 적응되도록 다루시는 주님의 태도를 열어 보이시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적개심 있는 인간이 그분에게 대하는 식같이 그분이 그들에게 적개심을 품는 맞대응은 결코 없다. 그분은 다툼의 모든 소지, 위법하는 모든 원인을 가능만 하면 모두 제거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그분의 태도가 마치 다툼의 소리가 있는 곳을 떠나시는 듯, 그분의 진리의 유입이 완화되도록 하시는 듯 기록되고 있다. 그리하여 걸맞지 않게 봉기하려드는 시험을 조절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신다. 이 주제를 실용적으로 보려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악들에 대항하고자 우리가 획득한 진리를 통해 작업하시는 주님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이기심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에 격렬하게 반대하려고 흥분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전적 악이든, 우리가 획득한 악이든 그것들에 덜 직접적이고 덜 힘있게 작용하시어 그 악들의 갑작

스런 봉기로 그분께서 이미 붙여 넣으셨던 새로운 원리의 싹이 짓밟히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외관상으로 나타난 그분의 바램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주는 사랑과 진리,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사랑과 진리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잘 보존되기를 바래시는 그것이다. 이 구절같이 주님의 여행은 다른 사건에서나 마찬가지로 진보를 표현한다. 이 진보는 그분의 영화하시는 과정, 인간의 거듭나는 과정, 모두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유다를 떠나시는 그분의 목적은 그분이 전에 계셨던 갈릴래아로 가고자 해서였다. 이렇게 내려가시는 여행은 주님의 진리가 최초로 이식되어 있던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자연적 마음의 생각과 애정으로 진행되는 것, 그리하여 심정 속의 품위들이 생활에 있는 미덕과 상응되어 체현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4. 그런데 유다로부터 갈릴래아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영적 수준에서 자연적 수준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두 수준의 중간에 위치한 합리적 수준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의 영역은 세 구역, 즉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래아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구역은 마음의 세 영역 또는 수준을 표현한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옛날의 상태와는 그 형편이 아주 달랐다. 이 지역을 통치했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전복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로 대부분 잡혀가고 그 지역은 정복자의 나라 출신들로 채워졌다.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 백성이 된 아시리아인들은 합리적 원리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경쟁자, 적대관계일 경우 그들은 영적인 것에 반대하고 뒤집는 원리를 표현했다. 본문 시절의 역사 시점에서 사마리아인들 중의 절반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었다. 그 이유가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어난 후 포로 중에서 사제를 골라 되돌려 보내 그 땅의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회의 구역 내에 완전히 진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교회 내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주님은 이런 백성들 가운데에 오신 것이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

굽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다.” 시카르 성읍은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에게는 세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읍이 위치한 근처의 땅 구획은 창세기 33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거기에 기록된 바, “야곱은 바딤 아람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마을에 무사히 이르러 그 앞에 천막을 쳤다. 야곱은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울의 아들에게서 은 백조각을 주고 샀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이라 불렀다. 이 땅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의 재산이 되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장차 하느님께서 그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다 주시리라고 예견하고 있었다. 이 예견은 요셉의 경우 글자대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에집트를 떠날 때 과거 요셉이 그들에게 분부했던 대로 그의 뼈도 가지고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쟁취하고 여호수아도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모셔 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 곳은 야곱이 백냥을 주고 세겜의 조상 하울의 후손에게서 산 밭, 요셉 후손의 유산이 된 곳이었다(여호수아24:32).” 요셉은 주님의 예징(type)이었다. 매장이 부활을 의미하듯 세겜 땅에 묻혀 있는 요셉의 뼈는 교회에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소생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야곱이 땅을 매입한지 거의 이 천 년 후에 요셉으로 예징되었던 주님이 그분 스스로 참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라는 형태를 표현하도록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자 수준이었던 영적 상태를 실재의 존재로 가져 올 목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분께서는 마치 요셉의 마른 뼈 같이 그 백성 사이에서 매장된 채 있었던 교회의 원리를 새 생명으로 일깨우기 위해 오셨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선물로 주었던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야곱은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수준의 원리를, 요셉은 영적 수준의 원리를 표현했다. 야곱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의 이 땅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선이다. 그러나 그 땅이 요셉의 소유로 전환되었을 때 이는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승강된 선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자연적 선이 거듭남으로 영적 선으로 만들어 진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선은 선한 자연적 성품이 영적 원리의 영향 아래 가져다 놓일 때 존재한다. 시카르는 이 땅 구역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위에서 설명한 선함에 있는게 아니라 근접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 사

마리아 사람들의 성읍에 오십이 영적으로 뜻하는바, 위에서 말한 선함에 근접하는 교리 안으로 신성한 진리가 유입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진리 자체로서의 그분에 관해 더 명백한 지적 지각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분자신을 인간에게 가져다 놓으신다.

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이란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를 “야곱의 분수, Jacob's fountain” 로 읽는다면 표현이 더 풍부할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말씀은 영원히 솟아 오르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먼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혼의 노고를 보셨었다. 이제 그분은 만족하시려 하고 있다. 목마르고 배고픔 같은 것처럼 그분께서도 육체적으로 피곤하심을 느끼셨을는지 몰라도 이것 역시 상징적이다. 그분의 지치심에 대해 이사야 43장 24절에서 이렇게 읽혀진다. “...도리어 너는 죄를 지어 나의 화를 돋구었고, 불의로 나를 지치게 했다.” 말라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하는 말은 주님을 지치게 하는 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그분을 지치게 했느냐고 하지만 너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야훼께서는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야야 눈에 들어 귀여워 해 주신다! 하느님이 공변 되시다고? 그런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피곤하심은 설사 지상에 계셨을 때 조차에서도 인류의 불법으로 결과되는 그분의 영의 지치심에 대한 글자적 표현이다. 이것은 세상이라는 바깥쪽 측면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육체 안에 상속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분의 인성은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을 꿰어지고 있다. 마치 그 인성이 그분을 시련과 시험에 복종 당하게 해서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세상에서의 그분의 일에 있었던 것과 같다. 또한 주님의 피곤하심은 그분의 시험과 고통으로부터서도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본문의 시간으로 더 암시되고 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던 시간은 “제 육 시 (sixth hour)쯤 되는” 시각이었다. 이 시각은 노동의 상태에 관한 예언적 언급이다. 즉 주님께서서는 영화하심과 구속이라는 그분의 일을 거처가신다는 것, 창조자 되실 경우 그분은 옛새동안 창조하시고 이렛째 날에는 쉬셨다고 말해진다는 것 등등이다. 그리고 거듭남이 주님의 영화하심의 형상이기 때문에 표현적인 교회에서 노동에 관해 그들에게 명령된 바, 육일은 일을 하고 칠 일째는 쉬도록 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완성된 영화하심과 거듭남을 상징하도록 하셨다.

야곱의 우물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예징인바, 주님께서 이 우물에서 쉬신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 자체가 말씀 위에, 또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있다. 주님은 말씀의 주체이시고 그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고, 말씀 자체는 그분에 관한 계시일뿐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계시이다. 말씀이 그분과 관련된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은 생명있는 게 아닌 죽은 것, 영적인 게 아닌 자연적인 것, 신성이 아닌 인간적인 것에 불과 하리라. 위 구절을 개인 측면에 응용해보면 예수와 야곱의 우물은 영원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이다. 마치 그것들은 거듭나는 삶을 통과해 가는 말씀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피로로 지쳐 있으셨다. 우리가 노동과 시련을 통과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분의 선함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약해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쉬실 수 있는 곳은 그분 자신의 복된 말씀밖에 더 다른 곳이 있을까? 그 곳의 진리만이 영혼을 새로이 하여 회복시키신다. 내향적인 마음 속의 품성들은 삶의 바깥쪽 의무 안에서 쉰다. 우리가 여행으로 피곤해 있을 때 격려의 약속으로 딱 차 있는 곳, 피곤함에 새 힘을 얹어 주는 생명수를 풍부히 발견하는 곳, 말씀에로 가야 하리라.

7. 예수께서 샘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왔다.” 사마리아는 절반 정도만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표현하는 바, 사마리아 여인은 교회가 진리를 좋아하는 가운데 영향받은 애정, 이 애정을 수단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퍼 올리려는 교회, 하느님의 말씀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아 거기로부터 물을 길으려는 교회를 표현한다.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이는 아직도 주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하시는 요구, 특히 그분의 말씀을 소유한 이들, 그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요구이다. 주님의 목마름은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열렬한 그분의 바램이다. 인류구원을 위한 그분의 바램은 십자가위에서 죽어 가실 때 “목마르다”하신 말씀의 선포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 바램은 그분께 마실 것을 주라고 피조물에게 하시는 영원한 호소이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그분께 마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깊이 감사함으로 되돌릴 때, 특히 우리가 서로에게 줄 때 그분께 주는 것이 된다. 유대교회에서 곡식제물과 제주가 제단에 바쳐질 때 그것은 그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시

게 헤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이것은 참 교회에 관한 것, 즉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생각과 애정, 감사함과 찬양의 제물을 바치는 것에 관한 예징이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받았던 것만을 그분께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선용함으로 성별될 때 우리는 그분의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참된 예배는 생활 속의 예배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같이 타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주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분 스스로 이렇게 확증하셨다.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의인이 말한다.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당신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의 대답이시다. “너희가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어떻게 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까? 선과 진리로 먹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신다. 그 이유가 영적이고 천국적인 것들을 바라는 마음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만 있을 경우 주님은 그로부터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가 참회하는 겸허한 마음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분의 진리를 바라는 영혼을 만족시키려 노력할 때 그분께 마실 것을 드릴 수 있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이 여인하고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시내에 간 사이에 예수께서 우물에 온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여인과 제자가 동시에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영적 생명의 두 요소,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를 길어 올리게 하고 있다. 표현적 품성에서 볼 때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되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애정과 지각들이다. 그리고 시내(city)를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또는 교리에 관한 교회인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갔을 어떻게 주님이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사마리아 교회의 교리로 들어가 탐사해서 거기에 어떤 참된 선함이 있는지 찾아보아 그것과의 결합 내지 교체하는 수단이 되게 하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어쨌든 구입함



(buying)은 파는(selling) 이들 안에 자기 이익의 어떤 것이 들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피조물에게 값도 치루지 않는 그분의 은총, 구입하지 않고도 가능한 자비를 주시고 있다. 그분의 창조물들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대되고 있다. 그분께서는 어떤 꾸지람도 없이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한편, 그분을 섬기는 이들에게 보상을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시고 선물로 그들에게 증여했던 것들을 그들로부터 사주시기까지 하신다. 빵을 사라고 제자에게 돈을 주어 보내심이 우리를 가르치는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은 그 선에 지식이 보태져 더 풍요하게 되어 되돌려진다는 것이다. 영적 삶에서 팔고 사는 등의 행위는 존재 않는다고 말해야 지당하다. 그러나 거기에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팔아버리라고 권면하시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부패된 이기심에 속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소유물이라해도 천국의 보물을 가지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전부 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하자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이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미워함이 상존했다. 유대인에게는 역사의 대단히 쓰라린 대목이 되살아나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는 믿음과 이타애의 분리라는 것을 표현했다. 인간의 마음들, 특히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들이 서로 등을 돌려 댈 때, 이는 그들에게 진리 안에 있는 믿음, 즉 진짜 믿음이 없다는 표시인바, 이것은 그들에게 하느님을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셈이다. 본문의 여인은 짐짓 놀란 것같이 보이지만 유대인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요청받는데 대해 불쾌해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추리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녀가 예상 못했던 친구다운 느낌이 있는 주님의 표현은 그에 부응되는 어떤 애정을 그녀의 가슴에서 일깨우게 했다. 그래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녀가 느끼게 했다. 사마리아 사람의 동정심 많은 본성은 사제와 레위인이 보고도 못 본척하여 피해 가버린 강도 당한 사람을 구조하게끔 만들었다. 종파적인 원한 관계를 제거하려면 참다운 친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가슴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사랑의 감춰진 애정에 길을 만

들어야 하는지 모른다. 이 여인은 주님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여 말했다. 그러나 예수는 유대인에게 진정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모형, 즉 바깥쪽에서만 유대인이 아닌 안쪽에서의 유대인, 육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닌 하느님의 영으로 할례된 유대인,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느님에게서 칭찬 받는 유대인의 모형이었다. 그분은 선함 자체, 인간 본성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선함 그자체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를 바래셨으며 그저 선함을 풍부하게 하려 해서가 아닌 인간의 사용과 지각의 목적이 되도록 진리를 바래셨다. 유대인으로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그분은 형제 사이의 적대관계의 제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은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를 훈육하시는바,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애정, 그분의 창조물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사모함에 호소하시어 그분의 사랑과 결합하길 바라는 진리를 그분께 드리는 일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사랑을 수단으로 그분 자신과 우리가 결합되게 한다. 우리는 진리를 수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된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획득한다. 그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속의 애정을 수단으로 주님은 그 진리가 그분의 사랑과 결합되도록, 뒤바꾸어 우리가 그분 자신과 하나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는 듯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다음 절에 있다.

1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 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받을 수 있는지를 청하지 않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은 신성한 그분의 축복과 함께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묻고 있다. 가르침에 의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진 진리는 지식의 수준밖에 더 아니다. 그 진리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를 겸허하게 감사히 여기는 인정함에 의해 그 진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근원되시는 분으로서의 주님과 연결될 때 그 진리는 생명있는 진리로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 크나큰 축복을 실감하기 위해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을 주라”고 우리에게 청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하느님의 선물은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영원하고 구원해주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분은 말씀으로부터 받아 바깥쪽 인간 안에 있는 진리를 언제나 갈망하신다. 그래서 죽은 것이 생명 있는 것과 하나됨으로 드높여지기를 바래신다. 이리하여 정화되고 생기있어 질 때 생명있는 시냇물같이 다시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을 가져다주고 치료되어 진다.

11. 본문의 여인은 예수의 언어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납득력이 그 여자에 의해 영적으로 표현된 이들보다 더 아둔한 것만은 아니다. 종교적 총명이 초기 상태일 경우 우리는 글자와 영 사이의 연결과 상응을 거의 보지 못한다. 마치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 속의 물과 그 물이 상징했던 주님의 신성한 진리의 연결을 보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신데...’” 말씀에는 글자 의미의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고 있는 한, 말씀에는 더 이상 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은 듯 여겨지고 통상적인 “두레박”이 없이는 글자조차에도 닿지 못할 듯 여긴다. 용기(vessel, 두레박)는 선함과 진리의 저장소(그릇)를 상징하는데, 이 그릇은 두 원리들이 받아들여지는 곳인 마음의 자질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받고 담는 수단들인 지식까지 상징한다. 영적인 진리들은 과학적으로 배워지는게 아니고 영적으로 식별될 뿐이다. 이 진리는 말씀의 글자를 고심하여 애쓴 탐구로 길어내어 기억 속에 쌓여지는게 아니라, 지각(perception)이라는 더 순수한 이성의 빛에 의해 보여질 뿐이다. 여인이 샘이 깊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암시한바는 물이 깊다가 아니고 두레박 없이 물을 퍼 올리기에 너무나 먼 지면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께서 물을 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바,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퍼다 주시겠습니까?” 말씀에는 글자 의미 밖에 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알고 그렇게 믿는 이들은 글자가 알게 해준 것보다 더 높은 진리는 아예 마음에 상상 해볼 수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적 연역으로 가능한 논리를 넘어서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씀이 산출할 수 있는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글자적 진리 보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나? 라고 오히려 반문한다.

12. 예수께서 말한 샘은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샘을 두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여인이 그분께 묻는다.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서의 야곱은 그 교회와 거기에 소속된 모든 것을 표현했다.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다” 라고 말해진 이유는, 말씀이 이스라엘 교회에 계시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 백성들에게 와졌기 때문이다. 야곱도 그 물을 마셨고 그의 자손과 가축도 마셨다고 말해진 이유는, 말씀은 이스라엘 교회와 백성 모두에게 내적이고 외적인 애정 모두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마셔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고 알기를 바란 것은 말씀에는 글자 의미만 있다는 것이었다. 글자 의미만을 알고 그것만을 믿으려 드는 이들은 그 이상의 의미는 있을 수 없다고 상상한다. 글자 의미가 호소하는 목적이고 또 그 의미가 주재하는 자연적 마음에 속한 것외에는 어떤 체험도 그들에게는 없는데,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하는 것은, 자연적 마음이 내적, 외적 애정 모두를 동원해 그 마음의 단순한 진리에서 만족을 취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가능할 수 있는 만족이 어디 있으며 또한 더 바랄 필요가 있으냐는 것이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는 진리의 더 높은 종류 또는 수준에 그의 마음이 방향을 맞추려 들 때 자연적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대답을 들어보자.

13,14.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즉각 나타나는 단순한 자연적 수준의 의미만으로도 이 구절은 대단히 아름다운 참됨이다. 자연적인 것은 고갈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고갈될 수 없다. 더구나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목 중 어떤 것은 참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인간의 영적 본성은 진리의 새로운 공급을 요구하고 영원히 요구하고 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육체가 새로운 물의 공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과 같다. 육체가 목마름을 가지듯 영혼(soul)은 바람을 가진다. 따라서 위 주님의 말씀은 영적 의미에서, 비유적 표현의 의미에서 더 꼼꼼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이고 지상적인 진리들은 항구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여유가 없다. 영적인 것만이 꾸준히 지탱되는 평화와 더 추가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말씀을 살피는 것도

이에서 예외는 아니다. 글자는 충분하거나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글자의 영은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솟게 하는 샘의 물이다. 그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여인에게 말하는 가운데 야곱의 우물물과 그분이 주시게 되는 물을 구분하시고 있다. 마치 전자는 외부로부터 공급되고 후자는 내부로부터 공급되는 구별을 해놓으시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기억으로부터이고 후자는 심정으로부터인 것과 같다. 후자가 주님이 주시는 물이다. 전자는 우리 스스로 획득한 물, 설사 그 물이 계시로부터 파생된 물이라 해도 후자와 확실히 구별된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영을 수단으로 획득된 진리와 주님의 영을 수단으로 얻어진 진리의 차이이다.

15. 아직도 자연적 수준에 머물러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마음도 그들이 소유한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갖고 싶어한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 설사 자기들 속에 행복의 요소를 거의 지니지 않았다고 해도 천국은 행복한 곳이기를 바란다. 참된 행복의 원리를 거의 지니지 않았다고 해도 행복만큼은 더 갖고 싶어한다.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의미에 관한 지식, 그 존재 여부를 모른다 해도 그 의미를 좋아한다. 선한 모든 애정은 영적인 것의 그릇이 되는바 모든 이런 애정은 그릇 역할도 할뿐 아니라 참된 영과 생명을 구성하는 더 높은 것도 바라고 있다.

16. 주님께서 인간의 심정과 지성이 영적 진리를 갈망하도록 혼드시는 다음 그 진리를 받는 조건과 품질을 가르치시고 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이 구절이 당연히 의도한바, 주님께서서는 그녀의 일생에 관해 초자연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녀에게 밝히 알려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 말이라는 것이다. 글자대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앞 구절에서 언급된 주제 또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내용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는 듯 여겨진다. 영적으로 이를 이해해볼 경우 관련이 있다. 결혼은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음의 천국적인 결혼을 상징하거나 그것이 바깥쪽으로 뻗어 나온 결과

이다. 진리가 자연적 마음 안에서 선에 하나될 때까지 영적 마음은 영적 진리를 지각하도록 열려지지 않는다. 진리가 선과 하나됨은 진리를 행함으로, 또는 신성한 질서의 법칙에 의거 살아감으로 결과되어진다. 그러므로 여인더러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바, 내적 인간 안에 천국 진리의 영접은 선과 진리의 하나됨 또는 바깥쪽 인간에서 의지와 이해성의 하나됨을 요구한다. 주님께서 그녀더러 남편을 불러오기를 바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신성한 진리를 받으려면 의지뿐만 아니라 이해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국적 결혼에서 의지는 아내로, 이해성은 남편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런 이유로 여인이 물을 달라고 청하자 주님께서 “가서 남편을 부르라” 하고 말하신 것이다. 주님의 명령에서 “가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와라는 것은 이해성이 의지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의지와 이해성 모두 주님께로 나와 그분의 은총과 진리의 선물을 받아 가라는 것이다.

17.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신 것은 주목해둘만 하다. 물론 주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자기 죄를 기억에서 끌어내 겸허와 회개가 있도록 배려하셨을 것은 의심할바 없다. 여인의 행동에는 죄지은 행위와 솔직함이 혼합되어 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함으로 자기를 거짓 품성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반쪽이 유대인이고 반쪽은 사마리아 사람인 품성, 그래서 죄악에 있는 유대인, 단순함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품성에 대한 견본이었을는지 모른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는 것은 영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영적 사마리아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지녔으며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걸치레 수준의 진리를 소유한 이들이다. 그래서 진리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애정 사이에 참된 결혼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부정확한 연결만 있는 것이다. 그나마 소유한 진리가 가짜일 경우 그 진리에 대한 애정은 불순하다. 진리는 선을 순수하게 하고 선은 진리를 드높인다. 애정은 그것을 안내하고 순수하게 하는 진리가 없으면 영적이지 않고 자연적 수준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진리 없는 애정은 소경이다. 소경된 애정은 단지 충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무런 목적도, 어떤 대상도 그 애정에는 없다. 애정의 품질 또는 특성은 그 애정을 안내하는 수단인 진

리의 품질과 같다. 만일 진리가 가짜, 가상적, 그래서 진짜가 아니면 그만큼 애정도 불순하다. 그러므로 순수한 진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물론 이 진리의 가르침에 진실함이 언제나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수한 진리를 소유할 경우 최소한 진보의 수단은 지닌 셈이다. 천국적 결혼에서 진리는 남편이고 애정은 아내이다. 그들의 하나됨으로부터 선한 동기와 유용한 행동이 생산된다. 그러나 사마리아 교회와 교인은 순수한 진리를 가지지 못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는 여인의 고백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애정을 가졌으나 그 진리는 가짜 진리였을 뿐이다. 그래서 진리와 진리의 애정 사이에는 진짜 결혼이 있을 수 없고 부정합한 결합만 상존한 것이다. 교회자체 안에 이에 관해 지각함이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영적 상황과 상응되어 누군가가 이를 고백하고 있다면 이는 더 나은 상태를 위한 준비에 해당될 것이다.

18. 주님은 그녀의 역사가 더 폭로되도록 길을 트고, 이를 그분이 초인간적 특성을 지니고 계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있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에 관한 간단한 확증에 이어 주님께서서는 그녀가 자기의 사생활을 굳이 밝히지 않았어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진행시키시고 있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 당시의 경우 이혼은 매우 쉬운 일이었는바, 어떤 원인에서 였든 여인이 남편 다섯을 가졌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생활을 고려할 때 별로 특이한 일은 아닐 듯 보일는지 모른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사항은 위 구절 속의 영적 교훈이다. 이 구절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나됨이 있었을까? 결혼은 선과 진리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인이 관계했던 남편의 숫자가 더 커질수록 여인과 각 남편 사이의 연결고리는 더 약한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구절의 상황일 경우 결혼은 피상적인 하나됨밖에 더 아니었을 것은 틀림없다. 남편의 숫자 다섯이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 번 주목한 바대로 영적 언어에서 숫자들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을 표현한다. 다섯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다섯은 남아 있는 것(remains)을 의미하되 낮은 수준에 불과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남아 있는 진리와 선과의 결합이 있어 왔다. 그들 사이에도 교회의 참된 요소 중의 얼마큼은 존

재해 왔는데 유대인 사이에 존재했었던 것보다는 그 수준이 낮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태까지도 사라졌고 그 빈 자리에는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가짜이고 세상적인 연결만이 잔존했다. 이런 교회 상태에 소속된 교인들 역시 수준이 비등했다. 비록 선과 진리의 남아있는 어떤 것이 하나된 상태로 지상생활 동안 그들 마음에 이식된다해도 그것들은 이내 사라지고 지식의 수준에서 진리는 애정에 의해 붙잡혀 있어 선과 진리는 느슨하고 죄있는 증상을 나타내는 연결만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 하나됨은 오로지 세상을 위해, 세속적 쾌락만을 위할 뿐이기 때문이다.

19. 예수께서 그녀의 역사를 폭로시켜주자,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역사를 들춘 주님은 그녀에게 그분의 품성 중에서 예언적 기능을 밝히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현 생활 조건이 죄짓는 조건이라고 그녀가 알아챈 것은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진리를 영접하도록 마음에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녀는 그분이 예언자라고 지각했다. 이 지각은 진리 측면에서이다. 그녀는 아직 전체적 측면을 파악 못하고 있다. 예언자는 천국 진리를 표현했다. 예언자는 밝히 알리는 도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은 모든 예언자 그 이상의 분, 인물로 계신 신성한 진리이시다.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는 것이 있고, 진리 되신 분으로서 주님을 받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언자로서 그분을 보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있다. 어쨌든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기 전, 예언자로서 보여져야 한다. 주님이 예언자로서 보여지는 수단들은 이미 우리가 살핀 셈이다. 이제 두 번째 일을 생각하게 된다.

20. 예수를 유대인의 예언자라고 이해하는 여인이 그분께 말한다. “우리의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저 산이란 그리짐 산이고, 과거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위해 서있었다. 거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후 율법이 그들의 귀에 낭랑하게 낭독되었었던 곳이다.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 그들 자신의 왕국을 사마리아에 세우면서 그들은 예배를 위해 그리짐이라는 “이 산”에 성전을 지었다. 이 근처에서 구세주와 여인이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주민을 미워한 바탕은 이 성전 건축 때문이었다. 어쨌든 여인이



이런 문제를 토론해보려고 일부러 말했다고 상상해보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그 여자는 이 중대한 주제에 관해서 자기가 예언자로 간주한 분의 고견을 듣고자 했었을 것 같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된다. 그녀가 자기들 조상이라고 말한 사람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과거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 그리짐산에서 예배했는바, 그녀가 말하는 “이 산”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훨씬 전에 이미 신성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듯 싶다. 어쨌든 그리짐산에 성전을 세운 것은 온 지파가 한 장소에 모이도록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건설에 위반된다. 그러나 하느님이 이 성전 건립도 허용했다고 생각해보는다면 그리짐에서의 예배는 내적 측면 없는 외적 측면만의 예배를 표현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내적 측면이 있는 외적 예배를 표현했다. 그럼에도 제물을 바치는 모든 예배는 그림자 수준에 불과 했던 바, 그런 예배가 표현했던 실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이고 내적인 예배를 조직하셨을 때 사라져 버렸다. 이에 대해 다음 절이 말한다.

21.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곳이 이 산 또는 예루살렘도 아닌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는 모두 공간(local) 차원이었다. 두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배드린 곳을 거룩한 곳으로 간주했고 거룩한 장소 덕분에 거기서 수행된 예배는 성별되어 진다고 생각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상태에서 수행된 예배이다. 예배자의 상태가 거룩해질 때 그가 예배한 모든 장소는 거룩한 땅이다. 유대교회에서 장소는 상태를 표현했다. 예배를 위해 지정된 장소는 거룩한 곳이라 불렸다. 그 이유는 모든 참된 예배가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룩한 상태의 진행을 장엄하게 상징했기 때문에서 였을 뿐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단지 표현적일 뿐이었던 예배, 더불어서 공간적 차원의 거룩함도 중지되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 그리짐산도, 예루살렘 도성의 시온산도 아닌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교회의 바깥쪽 조건에서 급박하게 오는 변화는 예배자의 내적 상태에서 오는 변화를 표현했다. 장소로부터 상태로, 글자로부터 영으로의 변화는 거룩한 분으로서 주님이 오심으로 결과되어 졌고, 성전의 대형(antitype)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부응하는 변

화가 거듭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거행된다. 표현적인 예배는 이제 막 중단되었다. 그렇다해서 표현적 예배 자체는 거듭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각 개인에 관계되어서는 참되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의 예배는 설사 그의 예배가 신실하다해도 그분께서 영적으로 만드시기 전에는 지금도 표현적일 뿐이고 그림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서이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예배하거나 아버지를 발견하리라고 기대하는 곳이 자연적 수준의 사랑이라는 “이 산”도 아니고 교리적 총명이라는 “예루살렘 도성”도 아닌 때가 온다. 이런 상태는 거듭나야 보려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 오고 있다. 주님께서 마음과 삶으로 그분의 강림을 만드실 때 거듭나는 사람은 더 높고 더 순수한 원리로부터 아버지를 예배하리라.

22. 두 상태, 미발달된 상태와 준비 중인 상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진리 없이 선 가운데 있는 이들, 자연적 수준만의 사랑가운데 있는 이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교리적 총명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다. 그 이유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유리한 점이 많았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 말한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느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느님의 약속이 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로마9:4,5).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말하셨던 것이다. 말씀이 그들에게 밝히 알려졌고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했는바, 교회가 그들 사이에 조직되고 그 곳이 구심점이 되어 주변 국가들로 빛이 퍼져나갔다. 그들이 이새의 뿌리를 공급했고 이로부터 가지가 나왔는바, 구원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모든 세대를 위해서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위 말씀에는 이보다 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열조의 후손으로서, 유다왕국의 잔류자로서의 유대인은 사랑 또는 선함의 원리를 표현한다. 이 원리로부터서만 구원이 오게 된다. 어쨌든 유다는 표현적 교회였을 뿐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해지는 모든 것도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구속과 거듭남에 선행되는 상태를 상징한다. 구원은 구속과

거듭남 안에 실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이룩된다. 구세주 예수께서 유대인의 뿌리에서 탄생하셨듯이 구원은 유대인이 표현한 상태로부터 출현된다.

23. 자연적 애정과 교리적 지식으로부터 아버지를 예배함은 사랑의 영으로부터,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영과 진리란 예배자의 마음 안에 있는 품위와 상태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급하는 역사적인 시기와 관련해보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 영과 진리란 주님 자신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예배자는 영과 진리를 받는다. 영은 예배를 생명 있게 하도록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 또는 애정이다. 그리고 진리는 예배의 방향을 정해주고 계발시켜주는 총명이다. 주님 자신은 빛과 생명이시고 뿐만 아니라 참된 모든 예배의 대상되신다. 그분은 생명을 명백히 보여주는 빛이셨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주님의 신성한 사랑 또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주님은 예배자를 위해 참된 영적 예배를 찾고 계신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 예배함은 그 당시 인간의 감각적 상태에 잘 어울릴 수 있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정된 것일 뿐이다. 그 당시에도 하느님의 마음은 예배자가 영적 수준에서 예배드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그 바람은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 위대한 생명있는 제물이 되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유대인에게 있었던 모든 것, 제물도 되어주시고, 제물을 바치는 사제에 속한 모든 것도 되어 있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이 구절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 하느님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버지란 이름은 신성한 사랑에 속하는 반면 하느님은 신성한 지혜를 더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영적인 분이시라고 말해질 때 하느님은 영적인 실재(essence)이시다 라는 것만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하느님은 사람이시다. 창조된 인간이 불완전한 형상밖에 더 아니지만 그분만이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존재, 실체, 형체이고 그 외 다른 것들은 그분이 창조한 형상에 불과하고 그것들의 존재와 실체는 그분으로부터이다. 하느님은 그분으로

부터 진행되는 하느님의 영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영적인 분이시라 불리운다. 하느님의 영이 천사와 인간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그들을 영적으로 만들어 그들이 진리와 영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그분께 예배하도록 만든다.”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더불어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과 영안에서 그분을 예배함이다. 이것이 복을 내리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이고 이제 이스라엘교회라는 교회의 처방 시대 동안 있어 왔던 예배를 계승하고 능가하는 예배이다. 오고 있었던 때란 구속의 일이 마무리되는 때, 제물을 바치는 예배와 더불어 의식적인 예배가 끝나는 때이다. 그래서 영적이고 살아 있는 예배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배는 영적이고 생명있는 예배자를 수단으로 영과 생명이신 참 존재에게 바쳐진다.

25.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연설자와 관련시켜 위 선포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말에 영감된 의미만을 생각해보자. 진리의 애정은 그 안에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가 부분적으로 계발될 때 완전히 총명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내다보게 된다. “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사랑스런 심정의 언어이다. 이것은 옅의 이런 선포,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신 것을 안다” 는 외침과 같다. 더 확대해서 말하면, 희미하고 불확실한 내 현재의 상태는 사라지고 빛과 확실함만 그 뒤를 이으리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다. 메시아, 기름부어진 자, 사랑으로부터의 진리 자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내 심정이 알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내 이해성에 말해줄 것이라는 뜻이다.

26. 여인이 구세주의 오심에 관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 “구세주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영적인 것 안에서는 마치 영계에서와 같이 시간이 없다. 상태가 모든 것이다. 마음이 진리를 영접하는 상태에 와질 때 진리는 밝히 알려진다. 예수는 우리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때조차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심정이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될 때는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관해 밝히 알려신다. 여기서 그분이 예수라 불리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가 “말하심”이란 사랑으로부터의

진리이다.

27. 예수께서 말하시는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왔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기위해 성읍에서 나와 야곱의 우물로 오는 시각에 예수의 제자들은 성읍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었다. 이는 사마리아 이방인의 교회의 상태를 수색하는 것, 그리하여 그 교회가 함유한 선한 것은 무엇이든 찾아 끌어내 주님께 가져와 그분과 연결되게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붙잡았다. 즉 교회가 선을 산출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와 함께 나누기 위해 가져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유대인의 편견에서 연유된 것이다. 유대인의 견해로부터 일 경우 이 여인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제자들의 상태는 거듭나는 마음의 이런 상태, 즉 믿음이 이타애를 경멸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대할 때, 그리하여 이타애가 천국 진리를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요 그릇이라는 것을 기꺼이 생각하려 들지 않을 때를 표현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제자들이 느꼈던 대로 예수의 우월하심을 평범하고도 놀라웁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와 같이 신실하지만 실수투성이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타애와 교류하는 것에 놀라는 한편 주님의 권능과 미덕이 이타애에 작용되는 것을 느낀다. 주님의 수많은 행동들은 우리 눈에서는 놀라운 것뿐이고, 그런데도 우리의 눈은 그분의 슬기롭고 의로우신 통치체제를 보되 거의 일부분에 그치고 만다. 언제 그들은 그분을 존재하시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될까? 주님께서 이타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들에게 나누어주시게 되는 것은 믿음 가운데만 있는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28,29.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타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께 의해 영적 진리의 본성이 가르쳐 질 때 그들은 물동이로 의미된 자연적 진리의 과학물을 버려두고 성읍으로 의미되는 교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교리로 들어가는 목적은 교리를 수단으로 교훈 받기 위해서 이다. 더불어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로 최고의 진리를 인정하고 최상의 하느님과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리 속의 이런 진리들이 성읍내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끌어내서 승강시

키려는 노력이 여인의 이런 초대, “와서 보라.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녀의 지난 날의 모든 일이 그녀에게 말해졌다. 이 얼마나 인상적인가! 주님은 수색하시고 붙잡아 매신다. 그분의 진리는 은밀한 생각과 심정 속의 의도를 밝히 보여주신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서 밝히 보이신 그분에 관한 지식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은 자신의 양심이라는 집으로 가져와서 참된 회개를 만들고 회개의 원인에 자신 속에서인 내향으로나, 타인들 속에서인 외향으로나 열정적인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내향의 실제적인 계시는 진리의 테스트이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분만이 죄를 확인할 수 있다. 진리의 가장 참된 증거는 우리 앞에서 펼쳐 보여지는 바대로의 우리 행위들의 내향적 증거이다.

30.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성읍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진리들이 교리로부터 승강되어 졌다. 또는 달리 표현하면 지적인 지각들이 교리물로부터 신성한 진리의 영적 관점으로 들려진 것이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주님께서 인간의 음식을 대하셨다. 그분을 섬기는 이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여호와께서 잡수시라고 그분의 음식으로 제물을 제단에 바쳤을 때와 유사한 행동을 예수께 한 셈이다. 이미 우리가 획득한 선을 그분께서 받으시라고 칭할 때 이는 영적으로 주님께 잡수시라고 물어보는 것이 된다.

32.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앞 부분에서 주님이 물을 길으러 온 여인을 가르치셨던 때의 교훈과 비슷하게 이제부터는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도 가르치신다. 여인에게는 그분이 생명수의 샘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분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생명의 빵에 관한 참 본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 즉 그분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있는 빵임을 선포하는 강연을 아직 전달하지 않으셨다. 여인이 길러온 물이 자연적 수준의 진리에 대한 유형이었듯, 제자들이 주님을 대접하려고 구해온 양식은 자연적

수준의 선함에 대한 유형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잡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양식을 지닌 그분께 음식을 권한 그들에게 강연을 시작하셨다. 물론 그분의 참된 양식을 구성하는 선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아예 그런 선의 존재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암시되고 있을 뿐이다.

33. 제자들은 주님이 뜻하신 것에 무지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근거렸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선밖에 더 아는 게 없었고, 주님의 선이 인간적이고 유한한 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납득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초기 제자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의 상태이다. 이런 수준일 경우 대체로 주님을 생각하기를 마치 어떤 철학자가 태양을 생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34. 어쨌든 예수께서는 그분이 잡수셔야 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신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장엄한 진리인지! 이 얼마나 신성으로 휘감긴 교훈인지! 이 말씀은 은유적 표현이 아닌 참말로 위대한 실재적 표현이다. 주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물론 본문의 상황으로 보아 그분은 제자들이 가져온 자연적인 양식을 잡수셨을 것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먹도록 빵과 물고기를 배가시킨 그분임을 상상해본다면 그분의 양식은 자연계의 몸을 지탱시키는 양식이 아니다. 그분의 양식을 구성하는 것, 인간의 자연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몸에서 자양분을 공급하는 대상이란 인성이요 이것은 선함과 진리의 형체이고 그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그 이유가 신성한 선밖에 하느님의 의지를 구성하는 것은 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마치셨을 때 신성한 인성 안에서 아버지 자신이 되셨고 권능과 영광으로 일어나셨다. 이 상황이 주님의 경우인 것 같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육체를 먹여야 하는 물질적인 것들만큼 이상으로 불멸하는 영혼도 먹여져야 한다.

35. 그분의 양식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신 뒤 이제 그분의 교회를 위해 양식을 준

비하게 될 추수로 제자들의 관심을 모으시고 있다. “너희는 ‘아직도 녀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눈을 들어올리고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것은 교회 자체 또는 교회에 모여지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더불어 인간이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 받아들인 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들은 영혼의 영적 양식이다. 이런 준비는 주님의 구속하시는 일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분의 구속하심과 영화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만든 준비가 추수였다. 제자들이 말했던 추수는 녀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추수는 선함과 진리를 모아들이는 것이고 숫자 넷은 둘의 경우 같이 결합을 표현한다. 이 추수는 이미 당도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기를 주님이 바라신 것은 제자들이 눈을 들어 올려 밭을 쳐다보는 것, 즉 이해성을 승강시키는 것,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지금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들판은 추수하도록 다 익었기 때문이다. 서 있는 곡식은 마음에서 개념으로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익은 것은 이해성 안에서 성숙됨을 표현하고 거두어들임은 믿음의 열매가 생활에 모아지는 것과 관계된다.

**36-38.** 이런 거두어들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을 진행하신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샅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심는 자는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고 거두는 자는 신약성서의 사도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수고함, 다른 교회 처방 속의 수고함은 기독교 처방과 그 섬김을 위해 길을 준비한 것이다. 그들은 씨를 뿌려왔고 그 계승자가 이제 추수를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이 구절을 영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더 유익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씨를 뿌림과 거두어들임은 거둬나는 사람의 두 가지 다른 행동들, 또는 거둬나는 삶의 두 가지 다른 상태들이다. 씨를 뿌림은 말씀 속의 진리가 마음 속에 심어지는 것이고 거두어들임은 거룩한 생활이라는 열매로 모아지는 것이다. 진리들은 어린 시절과 젊은 시기에 뿌려진다. 이 씨가 뿌려진 마음 안에서 스스로 추수하여 거두어 들이는 동안 거둬나지게 된다. 씨란 이해성 속의 진리들이고 그 씨의 열매란



생활 속의 선들이다. 진리의 애정들은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선의 애정들은 거두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지적 측면의 애정은 마음 안에서 진리의 씨를 뿌리고 의지 측면의 애정은 생활에서 진리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이런 경영방식의 목적은 과종자와 수확자 모두가 기뻐하는데 있다. 이 기쁨은 선과 진리의 애정, 또는 의지와 이해성이 유용함(use)이라는 마지막 목적지, 구원과 행복이라는 최말단 상태에서 하나될 때 있어진다.

39. 이제 복음서 기자는 도성으로 갔다가 그분께 왔었던(30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인은 애정을, 남자는 생각을 의미한다. 애정이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 구절, 그리고 다른 성경 대화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활 사건 때를 기억해보면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맨 처음 알려 준 사람은 여인들이었다. 애정을 통해 오는 생각을 수단으로 진리를 영접함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된 시카르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함으로 의미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그 힘과 더불어 자체의 증거, 즉 내향과 실제의 증거를 이렇게 가져온다. 즉 하느님의 진리는 생각과 심정 속의 의도를 밝혀 주신다. 즉 “그분은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말하셨다.”

40.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예수에 관해 말해준 것에 관한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했다. 마음이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그 마음은 진리자체가 그 마음에 함께 남아 있기를 바란다. 주님이 동네 사람의 간청을 수락하신 모습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주님께서는 신실한 심정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갖추어진 이들과 결합하실 준비가 언제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님이 그들과 이틀 동안 묵으심은 결합을 표현하고 있다. 말씀 안에서 체류함(tarring)과 거주함(abiding), 또는 sojourning과 dwelling을 구별해놓고 있다. 체류함은 진리가 선과 더불어 삶을, 거주함은 선이 진리와 더불어 삶을 서술해주고 있다. 어쨌든 이 구절의 경우 이런 구별을 만들지 않고 있다. 생활의

상태들이 날(day)들로 의미되는바, 며칠간 체류하심은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 관한 생각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틀 동안”이란 진리가 선과 더불어, 또는 믿음이 이타애와 함께 있어지는 상태들, 그 결과 진리가 선과, 인간이 주님과 결합하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선과 진리의 결합을 말하든지, 또는 인간이 주님과 결합한다고 말하든지 결국 그 결과는 똑같다. 인간 안에서 이 원리들의 결합은 그에게 주님과 결합을 준다. 그 이유가 주님은 선함과 진리의 천국적 결혼 안에 있는 인간과 더불어 거주하기 때문이다.

**41,42.**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가르침에는 두 가지, 즉 직접적인 가르침과 간접적인 가르침이 있다. 마치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유입(influx)이 직접적인 경우와 간접적인 경우가 있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간접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먼저 진리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자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르쳐질 때까지 그 가르침은 완성되지 않는다. 인물의 이런 두부류, 삶의 상태의 두 부류가 예언자에 의해 말해지는데, 이는 마치 이웃에 관해 가르침을 받는 이들과 하느님에 관해 가르침을 받는 부류와 같다.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고 있다.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 드리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31:34). 참으로 인간에 대한 위 약속, 즉 인간적 가르침이 불필요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때가 교회 역사에서 있게 되는 것으로는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때란 믿음의 문제를 두고 인간적 권위가 중단되는 때, 하느님께서 그분 스스로 해석자가 되실뿐 아니라 선생이실 때, 인간이 자기들이 아는 것, 단지 배운 것만이 아니라 안 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을 알게 되는 때 등이다. 이런 상태의 변화는 우리 각자 안에서도 결과될 것이다. 이런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진다. 우리가 인간적 권위에서 진리를 받았을 때 주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만드는 것, 즉 그 진리 자체의 증거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더 완전한 상태에 도달된다면 행복한 결과로 끝맺음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진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소’ 하였다.” 직접적인 가르침과 유입은 간접적인 가르침과 유입을 확증하고 예증해준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간접적인 가르침과 유입은 마음의 외적 측면에서 주로 행동하고, 직접적인 가르침과 유입은 마음의 내적 측면으로 들어가서 밖으로부터 받았었던 것들에 영적 빛과 생명력을 준다. 그리하여 역사물의 수준에 그치던 말씀을 살아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준다.

43. 주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래아로 향하셨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 곳을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다.” 주님의 이 여행은 최고 높은 의미 측면에서는 주님의 인성의 영화하심이 진보되는 것을 묘사한 반면, 역사적 의미 측면에서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영적 애정이 얼마라도 남아 있는 이들의 각계각층 사이에서 그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묘사해 놓고 있다. 더불어 각 개인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왕국이 진보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거듭남과 관련해서는 이미 3절에서 살핀바 있듯이 주님께서 유다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래아로 가시는 여행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내적 측면으로부터 합리성을 통과해 마음의 자연적 수준으로의 발전을 표현했다. 일반적인 방법에서 볼 때 이것은 의지로부터 이해성을 통해 행동으로 진보해 가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의지로부터 행동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신성한 진리는 반드시 이해성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시카르에서 머문 “이틀”이 이를 다시 언급하는데, 이는 진리가 합리적인 원리 안에서 선과 결합함을 암시한다. 이 결합 후에 그 능력은 자연적인 마음과 바깥 생활에서 모습을 확실히 나타낸다.

44,45. 주님께서는 그분이 성장하셨던 지역인 갈릴래아로 가셨는데 이를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더 매혹되게 하는 사건이었다기 보다는 그분을 더 밀어내는 사건이었을 듯 싶다. “예수께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친히 증언하신 일이 있었다.” 이 대목은 파악하기에 곤란하다고 느껴왔었다. 이를 좀더 확대해보지 않고 주목할 경우, 이는 미래에 관계된 것이라고는 거의 말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이 말씀은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한” 이후 그분의 고향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께서 갈릴래아 사람들에게 위 구절을 이미 증언하셨던(누가4:24) 일을 요한이 이 부분에 삽입한 듯 여겨진다. “갈릴래아

사람 중 일부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성장하셨던 곳인 갈릴래아에 가셨다는 구절에는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 있다. 주님의 초기 생애는 우리라는 존재의 초기 시절 동안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생애이다. 그분은 모든 마음 안에서 성장하신다. 특히 주님의 가르침과 훈육을 부모를 통해 받으면서 성장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의 때이다. 그분에 관한 우리의 개념 또는 그분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개선 될 때 우리 안의 그분은 지혜와 총명이 증가한다. 간략히 말해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바깥쪽 삶은 그분 자신의 영화하심에 속한 것과 상응되는 거듭나는 삶의 단계를 통과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내향의 삶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갈릴래아를 떠나신다. 이는 그분의 선함과 진리의 아껴두신 것들이 젊은 마음 안에 이식될 때이다. 그러나 그분은 갈릴래아에 다시 오신다. 이는 성인 시절에 거듭남이 실제로 개시되는 때이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말해지는 때와 상태들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전과 후에서 갈릴래아 사람에 대한 가르침의 차이는 또 다른 바탕에서 납득해 볼 수 있다. 진리가 양육되거나 가르쳐지거나 하여 그 자체의 모습을 드러내어 어린 시기와 친숙해질 경우 그 진리는 처음에는 경외 받지 못한다. 더구나 종교적으로 잘 교육 받아왔던 이들이라 해도 성인시절에서 그 진리가 존경받는 낯선 것은 고작 회의와 무관심, 아예 적대시하는 등등에 놀려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가 영적 마음으로 승강되고 다시 합리적 마음을 통해 자연적 마음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경이로운 일들이 행해지고 말해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환영받고 존경받게 된다.

46,47.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래아의 가나에 다시 가셨다.” 가나란 이방인 사이에 있는 교회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자연적 진리로부터 영적 진리를 가져오심이다. 이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려고 수행되었었다. 주님께서 두 번째 가나를 방문하심은 또다른 종류의 기적을 수단으로 명성 있는 이방인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 “거기에 고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차원에서 호감이 가는 사례이다. 먼저 그는 그분께 도움을 간청하러 오고 있다. 둘째로 그분이 간단하게 말하셨는데도 이에 대한 그의 신뢰도는 대단

했다. 고관(noble man)이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표현될 경우 이는 왕의 공직자 또는 왕의 측근이다. 왕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이 구절의 고관이라는 호칭은 추상적으로만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는 진리의 정부를 상징하는바 고관이란 자기에게 알려진 진리를 그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뜻한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 그의 아들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애정은 사랑의 파생물이기 때문이다. 마치 자녀가 부모라는 나무의 가지에 해당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팠다. 영혼은 그것의 바램이 불만족된 채로 있을 경우 아프게 된다. 그 이유가 불만족한 사람은 마치 희망이 지연되는 때와 같이 심정을 아프게 만든다. 아픔(sickness)은 시험과도 상응된다. 그 이유가 악령이 천국적 진리와 선함이 결핍된 것을 느끼는 마음에 악한 영향력을 주입시켜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지경까지로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흡사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고야만 아들을 둔 고관의 상태와 같다. 그 이유가 자포자기는 희망이 꺼진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남아 있는 한 가지 희망, 꼭 한가지, 예수로부터 희망이 있음을 보았다. 시험이 허용된 것은 이런 희망에 마음을 가져다 놓아주기 위해서였다. 모든 다른 희망이 깨어져 주저 앉을 때만이 구세주로 충만 되는 희망은 우세해지고 번창한다.

48. 이 사건에서 주목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고관의 바램을 즉각 만족시켜 주지 않고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탄원자가 절박함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간구자의 성실에 맞추어 응답하고 있으시다는 것이다. 괴로워하는 부모의 탄원에 주님이 응답하신다. “너희는 표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고관뿐 아니라 여타 다른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 이유가 갈릴래야 사람들은 그분이 베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고관을 예수에게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낳았다. 그 기적의 결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53절). 예수에 대한 그의 첫 믿음은 그분을 예언자로서 믿는 것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분에 대한 그의 마지막 믿음은 메시아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고관의 첫 믿음은 자연적이고 지적 측면이며 역사물 수준에 속하는 믿음을 표현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심정과 지성에 속하는 영적 수준이다. 이 믿음이 시험을 수단으로 확증되면 건강과 삶의 새로움을 준다.

49. 외관상 책망하는 듯한 주님의 말씀에 이 아버지의 유일한 대답은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좀 가주십시오.” 이었다. 그의 아들은 가파르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이 장소는 가나와 비교할 때 보다 더 외적인 상태를 표현했다. 앞 장 (2:12,13)에서 우리가 읽는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후에 예수께서는 가파르나움에 가셨고 다시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되돌아 가셨을 때 가나에로 직행하셨는데 고관은 가파르나움으로부터 가나에로 와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관이 표현하는 것은, 진리에 신실하고 열심인 애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 애정이 감각과 과학의 오류들 같은 외적인 것들에 붙잡혀 있는 이들, 그런데도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주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승강시키기 위해 나아오는 이들을 표현한다.

50. 주님께서 “같이 좀 가주십시오” 는 간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그에게 “네 길을 가라. 네 아들은 살 것이다” 하고 말하셨다. 아이가 살았다는 확증을 주시는 그 순간에 기적은 수행되었다. 그분은 다음의 진리를 유대인에게 꾸짖듯 선포하시고 예증해 주신 것이다. “하느님은 멀리 떨어진데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신다.” 이 고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기서도 다시 믿음이 거론된다. 그는 아들이 치료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아들을 이미 치료했다고 지금 믿고 있다. 그분의 말씀은 충족되었다. 이것은 믿음의 새롭고 더 높은 국면이다. “네 길을 가라” 는 주님의 명령도 실제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간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진리의 법칙은 체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이 고관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 안에서 걷고 있다.

51.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중 나와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해 주었다.” 어떤 원리가 다른 원리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원리는 영적인 하인에 속한다. 마치 진리가 선에,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종속되는 경우와 같다. 하인이 주인을 마중 나가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은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과, 진리가 선과 협력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하인이 주인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상호성, 그리고 결합함을 표현하고 있다. 하인은 주인에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

뱀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영적으로 이해해 보건대, 진리는 선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지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비참해진 애정에게 이런 새 생명을 나누어주신다. 그러므로 선과 진리가 함께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 이미 믿어지고 실감될 때 그분의 진리는 확증되고 그분의 선함은 체험되어진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이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다. 즉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는 것,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52. “그는 종들에게 자기 아이가 낮게 된 시간을 물어 보았다.” 주님이 말했던 시간과 아들이 치유된 시각이 정확히 일치되었는지를 아버지가 알고 싶어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더 나아가 원인과 결과로서 그것들을 간주해 보고 싶어했으리라 본다. 시간은 상태이다. 아들이 치유된 시간을 알고 싶어함은 새로운 삶의 시작 초에 그 삶의 본성을 꼼꼼히 알기를 바라는 것을 표현한다. 하인이 대답했다. “어제 7시 쯤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칠시는 거룩한 상태이다. 그리고 특히 노동과 시험의 상태 후에 있는 쉼과 평화의 상태이다. 시험의 상태는 영혼에서 열이 나는 것, 생각이 근경에 빠진 마음을 소란스럽게 통과하여 돌진할 때 발생하는 열이다. 이때 느낌은 고통스런 흥분의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르고야 만다. 주님의 권능은 육체의 열을 제거할 때보다 영혼의 열을 제거할 때에 더 두드러지게 복된 것을 알게 해준다. 본문의 경우가 그러하다. 주님의 이 기적은 그분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아이를 고쳐주시되 오셔서 치료 해달라고 간청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보내시어 그를 치료하셨다. 그분이 치료하시고자 뜻을 세우면 삼킬듯 바다같이 격노하던 열이 잠잠해지고 혈액은 정상적으로 흐른다.

53. “그 아버지는 그 때가 바로 예수께서 ‘네 아들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사실 하나는 아이의 회복이 예수의 일로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인정이 온 집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는 쪽으로 인도했다. 영적으로 살필 때 온 집안이란 온 마음, 즉 애정과 생각의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이고 구원하는 믿음의 영향 아래 가져다 놓일 때 인간은 다시 태어남, 거듭나지는 것이다. 새 생명이 영혼에 나누어지고 그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어간다.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에 돌아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영적 관계가 갈릴래아에서 있는 두 번째 기적과 첫 번째 기적 사이에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다. 이 두 기적은 똑같은 효과를 내었으며 다른 인물에게 있었다는 것은 주목해둘 만하다. 첫 기적의 결과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고,” 두 번째 기적의 결과 “아이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기적들, 인물들, 장소들, 모든 것은 이런 사실, 즉 두 기적 모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생산하거나 확증하였으며 첫 번째는 마음의 내적 측면에서, 두 번째는 마음의 외적 측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도 통째로 연결된다. 일에는 두 가지, 즉 마음 속에서의 일이 있고 생활 속에서의 일이 있다. 이 두 가지 일이 하나를 이룰 때 인간을 완전하게 한다.

## 5

이 장은 또 다른 기적, 흥미 있는 기적의 사건을 함유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강연에 관한 기록도 담겨 있다. 이 내용들은 글자 의미만으로도 대단히 흥미 있고 중요한바, 그 영적 의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하다. 그 이유가 이 강연은 구원의 일인 우리의 거듭남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신성한 진리를 밝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1. 예수께서 고관의 아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래아에 내려왔던 바로 그 때였다. 본 장은 다음 말로 시작되고 있다. “얼마 뒤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무슨 명절을 기념하러 가셨는지, 또는 두 번째인 이 여행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영적인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사건의 연속을 아는 것만으로, 거기서 유대인의 예배의 중심이 명절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얼마 뒤”란 새로운 상태, 이전 것을 계승



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상태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는 영적 질병의 치료에서, 영적 진리와 교통함에서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더 명백해짐을 표현하는 말이다. 한편 “유대인의 명절”은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수단으로 심정과 지성을 거룩하게 함을 표현한다. 최고의 의미에서 유대인의 축제, 여타 다른 예식적 행동 또는 제물을 바치는 예배와 같이 주님이 제물되심, 즉 그분의 영화하심을 표현했다. 들째 의미에서는 인간의 거듭남을 표현했다. 이런 연유에서 예수께서도 이 축제에 참석하시고 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은 상태의 승강, 똑같은 것으로 그분이 거듭나는 사람의 더 깊은 내면의 마음으로 들어가시어 그와 더불어 사랑과 지혜의 축제를 기념하시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런 축제, 이를 교회와 인간에 관련해보면 이는 사랑과 믿음의 영적 상태이고, 이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고, 거기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다.

2.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영혼의 고질적인 병의 치료를 상징한 기적적인 치료들 중 하나가 수행되었다. “예루살렘 양 시장(sheep-market)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들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이 못은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짜타는 하느님의 뜻이 계시된 바로서의 신성한 말씀,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그분의 자비가 제공됨을 표현하고 있다. 못이 예루살렘 양 시장 근처에 있었다란, 거룩한 말씀이 예루살렘, 즉 교회가 돌보도록 위탁된 동안에도 이 말씀은 실제로는 양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 즉 영적 사랑 또는 이타애를 원리로 삼는 이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베짜타의 못이 말씀을 상징하되, 이는 책으로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 존재하는 말씀까지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특히 말씀 속의 진리가 기억의 못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 이유가 기억이라는 못에 수집된 진리는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경우 어떤 치료도 결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못이 마음 자체 안에 존재하듯, “거기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소경과 절름이와 중풍병자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병든 사람들이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마음, 부분적으로는 거듭난 마음에 있는 무질서한 수많은 애정과 생각들이다. 병든 사람 중에서 소경이란 진리와 선함에 관한 지적인 우리의 지각을 뒤집는 오류들, 그리

고 이런 지각함에 방해가 되는 무식함이다. 절름발이란 우리의 생활과 대화에서 진리와 선함에 관한 원리들이 불평등하게 명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풍병자란 의지 안에 있는 생명력의 적극성이 매우 미약한 상태, 그래서 실질적 행동으로 진리와 선함의 원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천성적으로 위와 같이 약하거나 실제에서 그 약함이 차이는 있을지 언정 그런 허약함이 있다. 이런 모습이 양 시장 근처인바 이는 자기의 영적 허약함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래서 자기에게 소개된 지식이라는 행각에 들어가서 그 결점으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간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를 위한 수단과 그 의미는 아래에서 생각해본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다.” 연못의 물이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획득해왔던 진리들, 특히 기억 안에 지식으로 놓여 있는 진리들이다. 천사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영이다. 이 영이 마음에 들어가 죽은 듯 놓여 있는 진리, 적극성이 없는 진리를 태동하게 한다. 이 천사는 이따금 내려왔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려온 것은 하느님 또는 그분의 천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다. 주님께서 인류에게 그분의 축복을 내리시는데에는 정해진 어떤 때도, 시기도 없다. 그분의 때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이다. 그분에게 있어 때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는 듯 여겨지면 그분은 우리가 은혜로워지기를 기다리신다.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그분께서 주시는 때이다. 따라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때는 우리에게 의해 결정된다. 그분의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와진다.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발견한 이후, 그것들이 자신에게서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래왔 다해도 바랬던 소망이 성취되기전 우리는 종종 기다려야만 하고 때로는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기도자들,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 점을 제거함이 결과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바램은 새로이 임신된 애정이고, 허약함은 자존하는 욕망 또는 습관이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과 우리가 결점에서 해방되는 때는 우리의 바램과 결점의 서로간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어쨌든 여기에 또 다른 특이한 상황이 있다. 그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만이 온전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 이런 큰 선물을 나누어주시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자비가 너무 인색한 듯 우리로 여기게 하시고 있을까? 물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일까? 사실 전능하신 그분에게는 이보다 더한 기적도 훨씬 쉬운 일에 불과했었다. 본문처럼 의도된 이유는 거기에 영적 교훈을 담으시고자 하는 깊은 배려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결함들은 단번에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간다. 우리의 악들이라는 “수많은 병자들”은 한 순간에 싹 쏘아 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 한 개의 행동을 통해, 은총의 단 한 개의 행동을 수단으로 차츰 쏘아내진다. 우리의 악들은 마치 베짜타 못가의 병자들이 한사람씩 치료되듯 한 개씩 제거된다. 이 치료는 물이 움직인 후 뛰어든 첫 번째 것에 의해 경험되어진다. 시간적으로 첫째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첫째인 것, 또는 우리의 생각과 바램의 제일 가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뛰어든 첫째 것이란 예의 주시해서 자신의 통제 아래 가장 일찍 가져다 놓았었던 결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을 산출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결점이다.

5. 그런데 베짜타 못가에서 기다리며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삼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수많은 병자들이 우리 속의 수많은 결점들을 예정(type)하고 있다면 이 구절의 병자는 무슨 허약함을 표현할까? 그는 우리가 지닌 결점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결점, 즉 우리를 통치하는 사랑(ruling love),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악, 우리를 따라 다니는 죄를 표현하고 있다. 가련한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삼십 팔 년이 함축하는바, 이 사랑은 악과 거짓된 것의 결합을 그 자체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랑은 의지와 이해성 모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참 자아를 형성하고, 그것은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뿌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제거되기 전, 오랜 고통스러움과의 투쟁이 선행된다.

6. 이런 악으로부터의 해방은 끈질기게 투쟁하며 기다려온 이들에게 마침내 오고야 만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해,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신다 라고 성경이 말할 경우 그 영적 의미란, 우리가 자신에 관해서, 또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안다는 말이다. 이것

은 지식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종류 또는 가장 높은 수준인 내향의 지각에 해당된다. 주님의 음성은 심정 안에서 “너는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라고 내향적으로 말하신다.

7. 주님의 이 질문에 병자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죄 있는 자신의 상태를 지각하고 있어도 마음에 널리 퍼진 생각과 느낌이란 자신은 무능력해서 죄있는 상태를 제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무기력 상태로 처져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병자는 자기를 못에 넣어 줄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 왔던 사람, 자주 한 숨 쉬며 그리워했던 사람, 자기에게 모든 도움의 저자 되시는 신성한 인간, 참 사람이 예수이신 것을 그는 아직 발견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빈궁함을 자각한 그의 모습은 그를 병에서 해방되는 길을 준비해주었다. 그는 비록 도와주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못에 들어가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다. 그러나 그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뛰어들었다.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에게 효험을 베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치료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생각, 아마도 모든 이들이 이해하는 이런 생각, 즉 주님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치료를 수행하셨다는 정도를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 스스로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을 인류에게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구속자로서, 심지어는 그들의 창조자로서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없으셨던 것까지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필요 불가결한 것에 그분의 권능과 그분 자신같은 것 말고는 어떤 적당한 방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덕을 가져다 놓기 위해 오셨다. 이런 신성한 권능과 덕행을 명백히 나타내 보이심이 특히 필요하게 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 같은 자기 속의 악들을 정복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였다.

8.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두고 걸어가거라’ 하셨다.” 스스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다(helplessness)는 것을 깊이 느낄 때 이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

게 심정을 열어 준다. 더구나 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도움이다. 그 이유가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권능을 보이시기에 앞서 있는 이런 방식은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흥미를 주는 방법이다. 육체의 행위를 영혼의 행동으로 이해해 본다면 일어나는 것은 생각과 애정이 천국적 상태인 지상적인 것 위로 일어나는 것이다. 요(bed)를 걷어든다는 것은 교리와 믿음을 설득의 수준으로부터 원리 수준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이타애와 믿음이 하나를 이루어 신성한 명령에 의거 살아가는 것이다.

9.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갔다.” 명령된 행동의 실시는 결과를 의미하는바, 이는 명령이 행위를 만들고 그로부터 축복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첨부된 말이 있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였다.” 안식일은 예수께서 복주시는 일을 많이 베푸셨던 날이기도 했다. 안식일은 다툼이나 노동의 상태 뒤를 잇는 영적 쉼, 교전 뒤의 평화, 고통 뒤의 기쁨을 표현한다. 또한 안식일은 구원과 천국을 예징(type)한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자비로운 일을 많이 수행하셨다는 것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증거이다. 즉 유대인의 안식일이 절대적 비활동의 날이어야 한다고 지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오히려 노예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노동을 멈추는 것, 대신 자유롭고 이타적인 노동, 사랑과 자비를 위한 노동에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의 증거자 되는 기독교인은 안식일에 영적 사랑과 자비를 위해 하루를 할당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의 백성에게 남겨 있는 영원한 쉼이라는 안식일은 목청 돋구어 찬양하고 감사를 외치는 단조로운 하루생활이 아니라 일주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 실천되는 하루, 서로간의 사랑을 여느 날보다 더 행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10. 위 주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도 표출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게 하고 병을 치료해 준 것을 트집의 건수로 삼고져 들추고 있다. “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된다’ 하고 나무랐다.” 예레미야 17장 21절을 보면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것을 금했는바, 위 병자의 행동은 유대인의 법에 모순되는 듯 여겨질지 모른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일 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원리에서 안식일의 주인

이신 예수께서는 병자에게 그의 요를 걷어 가라고 말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의 차원에서 오는 새로움과 글자만의 차원에서 있어진 옛 것사이의 차이점을 금방 보게 된다. 그래서 선포된 진리, 글자는 생명을 죽이고 글자의 영은 생명을 준다. 이런 모순은 불완전하거나 타락된 상태의 교회 안에 존재할뿐 아니라 불완전하고 타락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 속에도 꼭 같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은 설사 그 마음 속의 원리가 내적 인간의 동의를 얻어낸 후에서까지도 천국의 원리에 반대되어 있다. 어쨌든 원리라기보다는 개개인에 관계해서 이 주제를 살펴 보는 것도 유용할는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글자를 중시했는데 이는 글자의 영도 없이, 아예 영에 반대되는 한이 있어도 글자만을 고집했다. 안식일의 바깥쪽 의무 측면의 수행에 집착한 유대인들은 그 의무 수행은 수단이요 모형이도록 제정된 안식일의 취지를 위반했다. 안식일에 자비의 일을 하게 될 때, 특히 인간의 가장 수준 높은 흥미를 그 날의 일에 두고 그 일을 행할 때 안식일은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날이 된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다. 제자된 사람이라면 주님과 똑같이 해야 한다. 이 정도이면 위 구절의 유대인이 나무란 행동 안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지 알았으리라 생각된다. 요를 들고 걷는다는 것은 교리를 이해성으로부터 의지로 승상시키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교리를 글자 수준에서 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식일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누워 있는 요(bed)인데도 그날은 그 자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바깥쪽 의무 수행만으로도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의지 안으로 승강될 경우, 즉 요를 걷어들었을 경우, 다시 말해 안식일은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의기소침해진 자질의 승강을 위해 자비와 이타애라는 품위를 실습하는 날로 사용할 경우, 이때 예배는 단순한 헌신이 아닌 생활의 행동이 되어간다. 안식일에 요를 운반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나 영적 의미로나 합당하고, 사실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그 이유가 경건해 있는 것보다는 자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가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우리가 이 구절의 주제를 더 내면적으로 관조하면 그 대형(antitype), 즉 안식일이 모형화한 거룩한 상태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자신이 깊어지고 있던 요를 스스로

건어들어 운반한다는 것은 더 높고 더 나은 상태로 진입하는 표시인 행위 중 하나라는 것을 더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11,12. 위 주제에 대한 완전한 대답, 위 주제에 이의를 달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 병이 나은 사람이 자기를 나무라는 유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해 대답하는 바로 그 속에 들어 있다.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건어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건강과 힘을 주시는 분이야말로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최적의 분이심은 자명하다. 더 위대한 것을 행할 능력은 덜 위대한 것도 행할 권리가 그 안에 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내 발걸음도 지휘하시는게 마땅한 게 아닐까? 내향의 품위를 받은 이들은 내부로부터 율법을 쳐다보고 율법의 영에 의거 해석하여 그것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 밑에 있는 이들은 외부로부터 그것을 쳐다보고 죽은 글자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율법의 영 안으로 진입 못한 유대인들은 완치된 병자에게 이렇게 대들었다. “나더러 요를 건어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은 자연적 수준의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원리가 아닌 오직 권위만이 자연적 인간을 인도한다는 표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력 있는 인물에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가!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분을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려 해서 일 뿐이었다. 그들은 주님이 베푸신 복된 일을 중시하지 않았다. 복된 그분의 일의 가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안식일에 있어졌다는 조건만으로 다 사라졌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유대인뿐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대사회 아래서의 안식일은 실제보다 더 특유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염두에 두어서 육체에 대한 자비의 일을 위해 안식일을 사용하되 특히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 속에서 가장 값어치 있어지도록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리라.

13.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구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뜨셨고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물론 복음서에서 유일한 사건인 것만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

다. 예수께서 그분의 축복을 수여하셨으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비를 받은 병자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그 곳을 떠나신 이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이요 교훈이 있는지! 선은 선이기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위대한 교훈인가! 큰 기적을 베푸신 곳을 떠나시는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모아 볼 만하다. 인간이 감지 할 수 있는 현존으로부터 그분 자신을 철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부활 전과 후의 차이는 매우 놀랄만하다. 그분께서 영화하시기 전, 그분이 옮겨지심은 자연적 수준이라 생각되고 영화하신 이후에는 초자연적이라는 생각을 우리로 가져보게 하고 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제자들이 문을 잠구어 놓았는데도 그들 사이에 즉각 나타나시고 있다.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빵을 나누시면서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또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중지되고 있다. 이런 단순한 관계도 죽음을 통과하시기 전과 후의 그분의 인성에서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부활된 그분의 몸은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고 신성이었다. 어쨌든 본문의 상황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으로 되돌아 가자. 병자는 자기를 치료해준 분이 예수인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군중 틈으로 해서 그분 자신을 옮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현된 상태는 새로 건강을 받은 사람의 상태에 관한 것이나 그 사람의 자연적인 생각과 느낌은 그의 영적인 애정과 지각과 조화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군중들이다. 이것은 떠들썩하고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군중들과 같다. 마음의 올바른 법칙에 반대해 싸우려 들기만 하는 법칙도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옮기셨다. 그분께서 불찬성하려기만 하고 왈자지껄하는 느낌인 군중으로부터 마음의 내면 안으로 물러나 거듭난 인간의 회복된 자질에 그분 자신을 명백히 보이실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신다.

14. 이제 이를 행할 기회가 오고 있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기적을 베푼 자와 은혜를 입은 자가 성전에서 만나고 있다. 예배의 거룩한 상태는 우리의 자비들의 신성한 회복자를 명백히 나타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그것을 주신 분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런 위대한 교훈을 전달하시면서 자신을 밝히시고 있다.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 모른다.” 죄에서 해방된 자가 다시 죄짓기로 돌아 갈 경우 그는 이미



받았던 거룩한 선물을 모독하게 된다. 그리고 전보다 더 심각한 악한 상태, 더 지독한 죄를 짓는 데로 빠져들고 만다. 이런 상태의 중요성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선하신 위대한 분에 거역하여 뻔뻔하게 죄를 지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동댕이친 죄악들로 되돌아가면 그 죄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대신 채웠던 선을 고집스럽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전에 악이 마음속에 뿌리 박았던 것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그 중요함이 역설되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이 바로 모독이라는 죄이다. 가장 나쁜 형체인 이 죄는 용서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것을 제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선을 수단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분 스스로 우리 심정에 이식해 두셨던 선을 수단으로 우리 속의 악을 제거하신다. 우리가 이런 선을 파괴한다면 이 선을 수단으로 구원의 능력은 발휘되는바 더 이상 구원의 여지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과 그분의 전능하심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해볼는지 모른다. 물론 신성한 질서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다 가능하다. 그러나 마음과 이 세계를 지탱시키고 통치하는 영원한 법칙에 불일치 될 경우 그 어느 것도 가능치 않다. 하느님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마치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듯 보일는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그분이 하실 수 있다, 없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의 선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닐까?

15.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유대인이 예수와 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람이 그들에게 귀뜸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분이 권능있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분의 영광을 더 드높이려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된다. 그러나 자연적 마음과 자연적 인간은 얻어진 지식을 뒤집어서 그것의 목적에 맹종하도록 하려고 늘 준비되어 있다.

16. “이 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받은 병자의 입을 통하는 또 다른 경우에서 안식일에 그분이 하시는 행위는 자비와 선함인바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유대인의 습

관에 호소하신 것이다. 즉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해도 끌어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일 경우 이는 양보다 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은 흡사 자연적 수준의 열광자와 같아서 자기들의 독단적 주장과 신봉하는 것들에 불일치 될 경우 핍박해 왔었다. 따라서 자기들의 독단적 길을 이탈하는 자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지독한 미워함으로 반대해야 할 근거로 삼는다. 여기서 표현된 반대란 악이 선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유대인”은 악의 모형이고 “예수”는 신성한 선의 호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술된 반대는 악과 악의 거짓 모두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 반대함은 선과 진리 모두를 향하고 있다. 그 이유가 거짓은 진리를 핍박하고 악은 선함을 죽이려 들기 때문이다.

17. 그분과 그분이 해놓은 일에 적개심을 품은 이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복음서가 포함하는 가장 높은 진리 중의 하나에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주님은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는 자로서의 그분께 반대하는 자와 만나서 이렇게 말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전달하시는 이 위대한 진리에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구분 짓는 본성, 먼저 아버지가 일하고 그 다음 아들이 일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 두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다. 이런 진리는 단순한 서술을 수단으로 운반되는 것이 가장 나을는지 모른다. 아버지와 아들이란 인물로 계신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인간 본성이다. 이것은 이 주체에 관한 가장 간단한 생각이다. 또 다른 것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의 원리이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의 원리이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다” 라고 주님이 말하실 때, 이는 하느님께서 창조자와 그 창조의 보존자 라는 신성한 품성 측면에서 역사 하신 것이고, 이제 그분은 구속자와 구세주라는 그분의 인간적 품성 측면에서 역사 하신다는 것을 주장하신다. 주님의 언어는 한가지 점에서는 매우 놀라울다. 그분은 자신과 아버지의 일이 완전히 동등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서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육안에 계신 주님의 일은 신성한 일이라는 것, 이 일은 인류의 영원한 복지에 요구되는 신성한 작용의 원을 완전히 그리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육을 입으심은 이 방법 아니고서는 달리 그분의 창조물을 위해 행하실 수 없기에 있어진 단순한 수단이

다. 그들은 그분을 버렸고 그분은 그들 뒤를 따라가셨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분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몸을 감싼 갑옷에선 정의가 뺏어나고 머리에 쓴 투구에선 구원이 빛난다. 몸을 감은 속옷에는 응징이 숨어 있고 그 걸친 겹옷에선 열성이 훔날린다” (이사야59:17). 여호와께서는 인성을 입으셨을 때 모든 것을 입으셨다. 그래서 최말단에서의 신성한 진리가 되어 지옥의 권세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셨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시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시다. 모든 신성한 일을 요약해서 실재화된 것인 인간 거듭남의 일에서 신성한 사랑은 그 일의 앞 부분을 담당하고 신성한 지혜는 뒷 부분을 맡고 있다. 사랑에 관해 아껴두신 것들이 마음 안에 맨 처음 이식되어진다. 이런 사랑의 아껴두신 것들, 또는 사랑의 싹틈(germ)은 사랑의 구별된 형체인 천사라는 매체를 통해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과생되고 또한 그 사랑을 수단으로 이식된다. 이런 두 작용은 처음에는 연속되어 이어지는 듯하나 결국에는 동시에 실시된다. 그래서 사랑과 지혜는 선한 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간다. 이렇게 사랑과 지혜가 하나가 되는데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같다.

18. 이어지는 주님의 선포는 유대인들을 더욱 약오르게 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다. 예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며 자기를 하느님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임을 주장하셨다. 그 이유가 인성은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신성의 아들이 충분히 되셨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자연적 인간의 모든 생각과 느낌에 반대된다. 그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모든 자연주의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신 것이 인간을 영적으로 되게 해주었다. 그래서 영성에 반대하는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하여는 더욱 더 반대되기 마련이다. 유대인이 예수를 죽도록 미워함은 모든 자연적 인간이 최상의 선으로서, 최상의 진리로서의 주님께 반대함을 가지는 것이다. 신실한 이들의 마음에서조차 유대인의 이런 적개심은 거듭나는 과정 동안 실감 되어지고 있다. 주님의 진리에 있는 그분의 선함을 받아들임, 이것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실제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본성 속의 악과 가장 대칭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악들이 제거되려면 시험 없이는 결과되지 않는다.

19. 주님은 우리가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이 구절의 언어가 명시하는바,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물(person)이 아니라는 것, 권능과 권위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한다는 것,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어 그대로 아들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쨌든 이 말은 글자적 의미보다 더 높은 의미와 또 다른 것을 표현해야만 한다. 주님의 인간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확실하고도 필연적으로 참된 이것, 즉 몸이 영혼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듯 아들도 그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아들이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때 도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연한 진리인 것도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진리는 선함으로부터 모든 힘을 부여 받기 때문, 또는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그것의 모든 권능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마치 이해성이 의지로부터 모든 힘을 얻게 되듯, 빛이 열로부터 방산되듯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시는 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 “처럼”하신다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지각을 의미한다. 주님의 인간적 지각은 내재하는 신성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인성에 있는 그분의 신성이다. 마치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듯이, 또는 영혼이 육체를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원리에서 진리의 지각은 선함으로부터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혜의 지각은 사랑으로부터 있다. 참으로 지혜란 사랑이 보는 것이다. 신성한 지혜는 신성한 사랑이 모든 것을 “보는” 힘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로부터 더 나타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만을 할 따름이다. 그분의 일은 아버지의 일의 반복이다. 아름답고 교훈적인 진리는 이러하다. 주님의 인간 본성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서 먼저 행해진 것이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인간의 육체가 마음 안에서 먼저 있어진 것만을 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가 육체의 행동은 마음의 행동의 가장 낮은 영역에서의 복사, 또는 반복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형체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마음의 행동은 의지력과 생각이요 육체의 행동은 말과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음의 행동

이 생산한 것이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해성과 의지의 관계도 이와 같다. 이해성은 의지가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생각의 모든 행동은 의지 안에서 행해져 왔었던 애정이 지성 안에서 반복되고 지각되는 것밖에 더 아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형상인 인간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힘을 갖는바, 이 질서에 따라 모든 행동이 진행된다.

20.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이신다고 말하시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시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면 너희는 놀랄 것이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 자체이고 신성한 지혜는 이 사랑의 대상이다. 지혜는 사랑의 소산(offspring)인데 마치 생각이 애정의 소산, 빛이 열의 소산인 것과 같다. 그러나 신성한 영감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는 지혜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뜻할뿐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주체라는 것, 즉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 안에 거주하는 것, 지혜의 참 사랑과 생명되는 것까지 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사랑은 지혜의 것, 지혜는 사랑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말씀의 언어에서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바 아버지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사랑은 사랑의 모든 목적과 의도의 지각을 지혜와 교통해서 지혜가 그것들을 모두 작업해내도록 한다. 그 이유가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의 지혜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 마치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랑과 지혜는 하느님 안에서 구분되어지나 그 둘은 본질이나 행동에서나 분리되어질 수 없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히 하신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하신 것 외에도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일들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보면 너희는 놀랄 것이라고 말하시고 있다. 후에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심을 포함하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수행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약속한 더 큰 일들이란 신성하고 영적인 일들이다. 이 일들은 표시 또는 모형이었다. 먼저 그분 자신의 영화하심에 관한 엄청난 일, 이것은 그분의 부활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로 거듭남, 인간의 영적 부활이다.

21. 주님이 말하신 일들을 이제 언급하신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셨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살릴 것이다.”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는 사상은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혼의 부활, 즉 죄로 죽은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본문에는 두 개의 구분되는 행동이 언급되어 있다. 먼저 인간을 악으로부터 끌어내는 것, 이것이 죽은 자로부터 영적으로 인간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로, 끌어낸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소생케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악은 영적인 죽음이고 선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위 선포에는 또 다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 최상의 의미에서 신성이 그분의 부활에서 죽어 있는 인성을 일으키셨을 때 아버지가 죽은 이들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일에 의해 이제 아들은 그가 살리고 싶은 이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소생시키는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아직도 관여하고 있다. 그 이유가 신성한 사랑의 의지가 있는 심정에서 작업하시어 애정에 생명을 주고 있고, 신성한 지혜는 이해성에서 일해서 생각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타애와 믿음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다.

22. 비록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해도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다른 보증, 즉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인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본성의 두 가지 구분되는 요소들이라는 보증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하느님의 단일성을 가지고 모순 없게 한분 신성한 인물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예수의 심판하심은 참으로 예수가 신성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만든다. 그 이유가 전능하신 분 말고 누구도 인류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시에 보여주는바, 심판은 신성의 특이한 요소의 기능이라는 것, 아들이란 그 기능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모든 심판은 신성한 선 또는 사랑이 아닌 신성한 진리 또는 지혜로 수행되어진다. 사랑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랑이 신성한 심판을 하는데 배척하지 않는 때도 결코 없다. 그 이유가 모든 심판은 자비로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심판하는 것이다. 진리만이 생각과 심정 속의 의도들을 식별한다. 그리고 진리는 쌍날칼보다 더 예리해서 뺨골을 잘라 분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심판

의 주님의 일은 구속함의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선과 악의 분리, 천국과 지옥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 그 결과 인간 의지에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 인간으로 선과 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계된다. 여기에 유일하게 첨가된 한 가지, 심판은 거둬나는 모든 마음에서 악이 선으로부터, 거짓이 진리로부터 식별되어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행동은 심판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자신을 스스로 판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에게 낭독되는 재판관의 선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결과된 결정과 분리의 일, 선과 악, 진리와 잘못 사이의 분리이다.

23. 위 심판의 목적인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셨다.” 공평한 존경은 동등한 위엄을 함축하고, 동등한 위엄은 동일한 신성을 암시한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두 개의 구분된 인물이면서 신성한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가정한다면 어쨌든 두 인물로 나뉜 이상 완전히 동등해짐이 어떻게 있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운데 아들도 존경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 돌리는 존경은 만일 그것이 참된 존경이라면 그분의 인물 측면에 존경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분의 본성, 즉 그분의 속성과 품성에 돌리고 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이다 라고 이해할 때 어떻게 아버지는 더 존경받고 아들은 덜 존경받는 게 가능한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해야 할 필요가 어떻게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 때문에 존경에 존경을 더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는 여호와로서 존경되어야 한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인 창조자로서 예배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예배될 수 있고 존경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성 안에 있으실 때뿐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의 하느님은 없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영화하심으로 신성은 인성이 되셨고 인성은 신성이 되셨다. 모든 심판은 말씀이 육이 되신 것, 즉 인성을 수단으로 실시되어 진다. 그리고 신성한 존경은 그분께 돌려져야 한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다.” 인성은 신성으로부터 생겨나 그 신성이 인간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해주었다. 인성이 없는 신성에 접근하거나 예배하는 이들은 하느님과 천국으로 가는 참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해서 오르려는 이들이다.

24. 아직 더 주님께서는 청종자의 시선에 이 위대한 진리를 밀어붙이시고 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정죄됨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갔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심정에 그분의 진리를 받는 것이다. 이로부터 참되고 생명있는 믿음이 온다. 그 이유가 아버지를 믿음은 아버지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즉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원해주는 믿음이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은 그 안에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또는 천국의 선함을 가지고 있고 정죄되는 원인인 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함의 상태는 악을 단념하고 정죄해버림으로써만 획득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가 있다.

25.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구속하신 복된 결과가 묘사되고 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여기서 명백하게 의미되고, 영적 생명이 이제 막 받게 되는 생명이다. 이 구절의 부활은 보편적 부활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만이 살아 날 것이라는 것, 즉 사랑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죽은 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 측면에서 주님이 구속하는 일의 결과인 일반적 소생이다. 인성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수단으로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 거론하게 될 회복의 한 부분일 따름인바 다른 곳에서 더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26,27.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이유, 그러나 전자와는 다른 이유가 주어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는 주목할만한 선포이다. 근원 되는 생명은 파생되지 않은 생명, 독립된 생명이다. 이런 생명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고 받아질 수 있단 말일까? 이 인물에 의해 주어지고 또 다른 저 인물이 받는다는 말은 확실히 아니다. 무한한 본성에 의해 유한한 본성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예수의 인성이 어느 인간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분은 생명의 근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이유가 그럴 경우 무한한 생명을 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성 속의 무한이라는 능력은 무한에 의해 탄생된 결과이었다. 인간 육체는 인간 영혼의 생명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그이유가 둘 다 유한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의 생명을 충만 되게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탄생을 수단으로 신성이 내향적으로 인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내향, 외향 모두가 완전히 신성으로 만들어졌다. 아버지가 그분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 그분은 자신까지 주셨다. 신성한 실체는 나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 신성한 생명은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마치 영혼이 그 생명을 육체에 전달하고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과 같다. 생명은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에게로 이동되지 않는다. 육체는 영혼에 의해 소생된 만큼에서 영혼의 자산이다. 육체는 영혼과 연결된 덕택에 살아 있다. 인간의 경우에서 영혼과 육체, 모두의 생명은 유한하다. 주님의 생명은 무한했다. 이 생명이 인성에 전달되었을 때 인성 안의 이 생명 역시 무한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측량해서 하느님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보다 주님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것을 말해줄 더 명백한 증거는 없다. 타락한 믿음의 바탕을 형성하는데 위와 같은 높은 주제라 해도 이해성이 충분한 명백함을 가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이유가 우리는 각자 안에 이것에 대한 유한한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을 집행하는 권능은 이 생명으로부터 파생된다. 이것들 모두를 한데 가져다 놓으면 주님께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신다. 그이유가 생명은 사랑 속에 있고 심판은 진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고 심판을 집행할 권한을 주셨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시어 그분이 가르치시는바,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지혜 모두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하여 인간의 의지에 생명을, 인간의 이해성에 믿음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이다.

**28,29.** 구속하시는 그분의 일의 효과가 더 기술되고 있다. “내 말에 놀라지 말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세상의 끝에서 인류의 물질적 육체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끝에서 인간의 영적인 몸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내적인 역사적 의미에서 25절과 이 구절의 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수행하셨던 것, 즉 영계에서의 일반적 심판에 관계된다. 이 심판은 주님의 강림에 앞서 있었던 교회의 처방 기간 동안에서 죽었던 모든 이들에게 있어졌다. 이 모든 이들은 영들의 세계, 또는 중간 영역의 상태에서 결정이 있게 되는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다. 이들이 주님의 음성이 전달되어 듣게 되는 “무덤에 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로 의미되고 있다.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상적인 성막의 흩어진 먼지에서도 이와 똑같이 말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언급된 무덤으로부터 나와지게 되었던 이들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언급된 것, 주님의 부활 후에 열린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잠들었던 성인들과 같다. 이상은 죽은 모든 이들이 있던 곳, 모든 심판이 거행된 곳, 영계에서 거행되었던 사항의 간단한 내역이다. 여기서의 언급은 죽은 자 뿐만 아니라 매장된 자까지 라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왜 이런 구분이 있어졌을까? 그 이유는 25절에서 말해진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뜻한 반면 이 구절의 무덤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죽은 자를 뜻한다고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일관성이 거의 없다. 죽은 자와 매장된 자라는 말은 같은 장소에 같은 인물을 두고 말하는 두 부류 밖에 더 아니다. 인물이란 지상에서 죽은 이들, 장소란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곳, 심판을 기다리며 모여있는 영계이다. 무덤은 속박된 상태, 그리고 해방을 기다리는 이들의 상태를 비유적 의미로 기술하기 위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다. 위와 같은 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죽은 자와 매장된 자들이다. 죽은 자라는 말은 영적 품성에 더 가까운 반면 무덤에 있는 이들은 자연적 또는 감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의 품성에 더 가깝게 표현된 것이다. 어쨌든 두 부류는 선한 것과 나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양쪽의 구원이 불공평하게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후자보다 전자에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이 할당되고 있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영적 품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전자에게 말하실 때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칭하고 후자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로 칭하셨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 두 칭호는 주님의 영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를 표현하는바, 진리가 말

해지고 작용되는 하느님의 아들의 소리는 진리가 말씀의 영적 의미 안에 있는 것과 같고 진리가 말해지고 작용되는 사람의 아들의 소리는 진리가 자연적 의미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죽은 자와 무덤에 있는 자에 관한 이 두 서술은 말씀의 다른 부분에서처럼 인간의 거듭남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의 거듭남에 관계되고 있다. 이를 응용해보면 음성이 전해지는 대상은 인물이 아니라 원리들, 즉 마음 속의 생각과 애정이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는 내적 인간의 생각과 애정이 하느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 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가 행동에 있게 하는 외적 인간 속의 것들은 사람의 아들의 소리를 듣는 이들이고 그들은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 반면 주님의 진리를 행동으로 가져다 놓지 않는 것들은 정죄어로 부활한다. 더 내면적으로, 더 엄밀하게 이해해보면 주님의 소리가 전달되는 이들이란 썩어진 말씀으로부터 인간이 받았던 진리들이다. 인간이 거듭나지는 바로 그 때 주님께서는 사랑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 위 진리들을 부르신다. 이 때 사랑이 입장할 경우 살게 되어 일으켜진다. 그러나 사랑이 입장 못 할 경우 죽은 채로 있게 되어 내던져 진다. 더구나 진리가 생명있게 될 뿐 아니라 천국 질서에 있도록 잘 배열되어 진리들끼리 하모니를 이루는 관계까지 형성된다. 이런 진리의 배열은 심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따로 주님이 말하신 사항에는 이중의 일과 두 가지의 선물, 그분 자신과 그분의 교회에 관련한 두 가지, 즉 그분이 아버지로 받았던 생명의 선물과 심판의 선물, 사람을 생명있게 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다.

30. 이제 또다른 방법으로 위의 구분되는 사항이 서술되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말하시는 사항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성과 신성, 신성한 진리와 선이라고 보게 될 때만이 이해될 수 있다. 인성은 신성 없이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육체가 영혼 없이 그 자체 행동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하셨는데 여기서 듣는다와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 그 단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의 선포는 이 구절과 앞 구절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것만을 할 수

있다고 말하셨고, 여기서는 “들으신” 대로 심판한다고 말하시고 있다. 본다는 것은 이해성에, 듣는 것은 의지와 더 관계된다. 주님에 관련하면 보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듣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관계된다. 위 두 구절에서 “할 수 있다”는 행동은 의지의 행동이고, “심판한다”는 이해성의 행동이다. 그러나 의지가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해성에 의해 안내되어야 한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지혜에 의해 안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행동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행동하신다. 위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지혜가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지혜는 반드시 사랑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들으” 그대로, 즉 아버지로부터 듣는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러기에 “심판은 올바르다. 그 이유가 나는 내 스스로 내 것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나를 보낸 그분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더 추가하시고 있다. 신성한 의지는 신성한 사랑이다. 지혜가 올바르게 판결하는 이유는 지혜가 사랑으로부터 심판하기 때문이다. 진리 또는 지성은 심판하는 것에 참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진리 또는 지성 만일 경우 그것은 부정한 심판이다. 정의(justice)는 사랑과 선함에 속한다. 따라서 이것이 심판 안에 들어가 있고 심판을 관장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올바른 결정이 있어질 수 없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구분된다는 것, 반대되기까지 한다고 여러 번 말하신다. 그분의 인간성이 영화되지 않는 한 그것의 뜻은 신성한 본성의 뜻에 거슬러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조차 인간적인 의지는 신성에 그 자체 언제나 종속되어 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구세주의 언어였다. 이 말씀은 주님과 더불어는 경우, 신성한 진리로서 생각되는 주님의 경우 였다. 그분은 진리(Truth)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선(Good)이 뜻하는 대로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 진리 역시 선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더구나 그것만으로는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한다. 진리는 모든 사람을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지만 선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올린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실 뿐이라고 말하신 것은 이런 바탕에서 였다. 그분은 정죄하는 게 아닌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는 게 아닌 자비를 베푸시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의 어머니쪽 인간성에 있는 유전적인 의지는 또 다른 사람의 자연적 의지와 같은 본성이었다. 따라서 이 의지는 아버

지의 의지에 반드시 복종되어야 한다. 이러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도 있어질 수 없다.

**31,32.** 진리만으로는 올바르게 심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되게 증언할 수도 없다. 그 자체에 의해 그 자체를 증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나 자신의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된다.”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 번 말할 기회를 가졌었다. 다시 주목되는바, 진리는 그 자신이 증거이고 더불어 자신의 증언을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다. 어쨌든 모든 진리에는 두 증거, 즉 지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증거가 있다. 지적인 증언은 진리가 그 자체에서 생산하는 증언이고, 실질적 증언은 선이 진리에서 생산하는 증언이다. 지적인 증언은 이해성에, 실질적 증언은 심정에 호소한다. 전자는 아들의 증거이고, 후자는 아버지의 증거이다. 전자는 진리의 증거이고 후자는 사랑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셨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은 분명히 참된 것이다.”

**33-35.**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말하신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에게서 사람의 증언이 소용없으나 다만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환하게 떠오르는 빛이었다. 너희는 한 때 그 빛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요한은 예수를 두고 위로부터 오신 분, 모든 사람 위에 있으신 분이라고 증언했다. 요한이 탁월하고 유명했지만 예수께서는 요한의 증언 위에 그분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다. 어쨌든 요한이 표현하는 말씀에 관해서 이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말씀도 주님의 경우처럼 말씀 자체, 순수한 말씀으로 말해지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이해되거나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서 말해질 때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계시하고 증언하는 것들은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 개념이라고 여기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다. 즉 “나는 인간으로부터 증언을 가지지 않는다.” 인간 속에 있는 것, 또는 인간 총명으로부터 파생된 것은 진리를 증언하는데 기여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신성에 속한 것만이 신성을 증언할 수 있다. 신성같이 여겨지는 진리(Truth divine)에 관한 우리의 개념 안에서 인간적일 뿐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어떤 보탬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분에 관한 인간적 모든 증언을 거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성인 것은 그 자체와 함께 증언을 운반한다는 것, 인간이 그 자신으로부터

터서만 일 경우 신성의 충만과 완전은 아무 것도 추가할게 없다는 뜻이다. 이 사함은 요한이 표현한 말씀의 글자에 관해서도 말해질 수 있다. 글자가 아닌 글자의 영이 진리를 살아 있게 하고 확신시키는 증거이다. 씌어진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고 육이 된 말씀은 진리를 확신시킨다. 지식은 외적 경로로 오지만 진리의 확신은 내적 경로로 있어진다. “하느님의 영이 소생시켜 줄 뿐, 육은 그 소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대인 스스로 이에 관한 진리에 증거자 였다.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에 대해 증거를 주었다. 그럼에도 참으로 인간 수준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셨기 때문에서 였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증언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신 반면 혹시 그들이 믿지 않을까 해서 그분에 관한 일들을 말해주셨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강요될 수 없지만 믿음의 수단들, 즉 말씀을 가르친다던가, 하느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해준다던가 하는 수단들은 자비로 설비되어져 있다. 말씀은 언제나 가르치고 있고 하느님의 영은 언제나 애쓰시고 있다. 그러나 심정이 위선 또는 죄로 굳어져 있으면 확신해보는 것조차 실패되고 만다. 오히려 어릴적에 받았던 일부에 불과한 감명마저 진리를 더 쓰라리게 미워하는데, 더 완벽하게 거절하는데 충당되고 말뿐이다.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말하셨듯이 “요한은 불타오르는 환한 빛이었다.” 그 이유가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 모두가 말씀 안에 밝히 알려지고 있고 요한에 의해서도 보여졌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의 빛이신 그분에 요한을 비교한다면 그는 빛의 저자가 아닌 등불에 불과하고 그분을 밝히 알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유대인들도 요한의 빛을 보고 한 때는 기뻐했었다. 그러나 씨가 돌밭, 흙이 많지 않은 곳에 뿌려졌는바, 속히 싹은 텃었지만 이내 말라버렸다. 이와 같이 요한의 빛 가운데 기뻐 뛰던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인물로 명백히 드러내신 빛 자체를 소진시키려 지금은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최고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같은 것이다.

36.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셨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취하라고 맡겨 주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된다.” 주님께서도 그분의 일이 아버지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그분 자신은 인성을 옷입은 아버지이디는

증거를 그분이 하시는 일로 호소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고 선포하신 것과 같다. 주님께서 수행하셨던 권능 있는 일들은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에 관한 증거요 그 자체의 명백함이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상징적인 것밖에 더 아니고 그 일의 대상은 인간 영혼이요 영혼의 구원이 그 일의 열매이다. 이 열매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권능의 증거, 또는 사랑이 신성한 진리 안에서 작동되어 명백해진 증거이다. 이 일들은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산출함으로 그 영혼 안에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새 생명은 새로워져 구원해주는 믿음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37. 일이 아버지로부터 진행되었다는 증거 외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이 말씀은 주님의 세례 받음에서 있었던 아버지의 증거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만일 이러하다면 주님께서 이 구절에 첨가하신,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일도 없다”는 말씀은 매우 독특한 면이 있다. 이 구절은 어려운 문단으로 느껴져왔던 곳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이는 성경에서 말해진바 같이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느님의 소리” 다음 부분인 “하느님의 모습”을 본 일이 없다는 서술과는 모순되고 만다. “소리”와 “모습”은 같은 본성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다. 이 주님의 말씀도 구약성서에 있는 기록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리라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구약 성서에서 읽는 바, 그들은 하느님을 정면으로 볼 것이라고, 그러나 하느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 자신이 아닌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든 것, 천사라는 인물 안에서 본 것이다. 하느님의 소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이 소리도 유한한 매체를 통해 인간에게 왔고 와져야만 한다. 아버지가 보여졌고 듣게 해준 매체 중에서 가장 큰 매체는 아들, 그분이 입으신 인성이었다. 아들을 보고 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고 들은 것이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 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 신성한 사랑은 인간 마음의 지각에 직접적으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이 사랑은 신성한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질에 닿을 수 있다. 진리만이 사랑이 인간에게 보

일 수 있게 하는 “소리”와 “모습”을 준다. 예수는 하느님의 형체요 소리였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마무리 지으라고 주신 일이라고 말하신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고 나도 말한다” 라고 말하셨을 때 이 말씀이 암시했던 바, 육을 입으심은 하느님이 육 안에서 모습을 나타내시기 전에 시작해 놓으셨던 신성한 일을 끝내기 위함에서 였다. 주님은 구약성서에서 백성들과 관련해 흔히 불리우셨던 바 같이 그 당시나 그 당시 이전이나 존재하셨던 것은 구세주와 구속자 되셨던 것뿐이다. 주님이 육 안에서 수행하셨던 일들은 인간 타락 이래 진행되어왔던 주님의 일의 완성이었다. 그 당시 육을 만드셨던 말씀은 신성의 창조력 뿐 아니라 계발하는 능력이었다. 믿음 가운데 있다가 죽어 영들의 세계 안에 있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죄수들 같이 자기들을 구원하게 되는 수단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시는 권능을 통해 해방이 얻어지고 그분이 천국으로 승강하실 때 그분과 함께 승강하도록 되어있었다.

**38.** 주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유대인의 처신에 관한 진짜 원인을 서술하신다. “너희는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내향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낸 이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 생명있는 말씀이 우리 심정 안에 거주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없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생명있는 믿음은 존재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즉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진리로 우리를 끌어 당겨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하느님의 진리로 확신있게 나아오지 못한다는 말이다.

**39-42.** 그러면 위 사랑은 어떻게 획득되어질까?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획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전달한 말씀의 의미를 알 때까지 위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심정 안에 하느님을 사랑함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랑의 진리(The Truth of Love),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거절하는



원인이었다. 이는 성경을 파고들면서도 거기서 구세주를 찾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그들이 거룩한 저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들의 성서 탐구에 애정어린 심정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둔 주제에 관하여는 어떤 빛도 받지 못한다.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에 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넓은 규모의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 그 이유가 성서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주제는 바로 그분뿐이기 때문이다. 인물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독교라면 열심히 “파고 들되” 생명있는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발견 못할는지 모른다. 참으로 성경을 파고드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질책, 즉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성경을 파고 들어 얻어낸 그 이상의 수확은 기대하기 힘들리라.

43. 심정이 위와 같을 때 그 심정은 참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짓을 받아들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맞아들일 것이다.” 이 구절에서 명백해지는 한 가지란, “이름”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 그 이상의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권위를 지닌 사람의 이름은 그의 직권에 속한 권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이름에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아버지의 권위가 서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는 예언자이었을 뿐일까?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느님이셨다. 하느님이신 그분만이 홀로 하느님이셨다. 그 이유가 하느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결론을 갖는데 위와 같은 논리적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진리는 빛이다. 그래서 진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사랑은 열(heat)이다. 그래서 사랑은 심정으로 느끼게 해준다. 아버지와 아들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다. 예수 안에서 신성한 지혜는 신성한 사랑의 권능과 권위로 왔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분을 받지 못했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 안에, 자기들 사이에서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받게 하고 싶어하는 사랑을 아무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름

은 그 사람에 속한 권위 그 이상을 뜻한다. 이름은 그의 영광 권능, 그의 본성과 품성을 뜻한다. 예수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이유가 그분은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지혜로서 오셨기 때문이다. 지혜의 그분의 말씀들은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 권능의 그분의 일들은 복주시는 영으로 가득차 있다.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 사랑의 영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삶에서 명백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분의 삶은 순수한 이타적인 것임이 속속 나타나 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품성을 찬양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와 같은 완전함을 그들에게 나열해준 그분 주위에 모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이런 품성에 추상적 찬양을 보냈을 뿐 실제로 그것을 흠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과 예수 사이에서 품성이 일치되거나 유사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예수는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다.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이름으로 왔더라면 그들은 영접했을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함으로 온다는 말이다. 신성한 사랑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받는 반면 자아 사랑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인간적 사랑의 가르침을 받는다. 각각은 각각에 동조되고 열납할 수 있는 품성에 와진다. 타락된 인간과 더불어서도 이러했듯, 인간이 부패하는 동안도 그러했다. “어느 민족이나 저희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미가4:5). 인간은 그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따른다. 만일 그들의 우상의 대상이 자아, 세상, 육적인 것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복음을 설교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신의 계시같이 경청할 것이다. 그들의 하느님이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명목뿐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마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같이 선생들이 제 이름으로 올는지 모른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고 주장하면서까지 다가설는지 모른다. 그러나 교리들이 선생들이다. 이것들은 천국적 사랑과 선함 대신 지상적인 영을 은근히 주입할는지 모른다.

44.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거절하는 뿌리에 오시고 있다. “너희는 서로 명예를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명예는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불신앙의 실제적 바탕은 자아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아찬양(self-exaltation)은 겸손에 정반대 된다. 겸손은 모든 기독교인의 품위,

고로 믿음이라는 품위가 심어지고 자라나는 토양이다. 인간이 명예를 서로 주고 받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받으려고 하느님만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배척하는데 있다. 종교는 우리로 명예가 기인된 분에게 되돌리라고 요구한다. 슬기로운 자는 유용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명예를 받되 되돌린다. 어리석은 자는 명예를 목적으로 삼고 그 명예 자체에 체류해버린다. 하느님은 참된 모든 명예의 저자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는 미덕과 성실함이라는 명예이다. 이것은 선한 양심이 승인함으로 해서 받아진다. 이것은 여기서 내려야 할 유일한 명예, 이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명예이다. 우리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명예는 우리 속의 하느님에 속한 것에 대한 명예이다.

**45,46.** 유대인의 박해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엄했지만 그분의 사랑의 온유하심은 진리의 엄함보다 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이것은 신성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다. “만일 그분이 불법을 포해둔다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다고 사악한자가 일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두고 복주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함과 진리로 오래 참으신다고 선포하시면서도 이것이 죄있음을 없는 듯 만드는 수단은 결코 아니라고 선포하셨다. 죄 있음은 그에 상응하는 죄 값을 피할 수 없다. 무한한 자비까지도 죄 있음과 처벌을 분리되게 할 수 없다. 비록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을 고발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하셨듯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해도 그분은 이 구절의 엄한 경고, 즉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를 계속 죄짓는 자에게 주시고 있다. 이런 이유를 이렇게 말하시고 있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고백했고, 모세를 신뢰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했던 가장 위대한 메시지, 모세 같은 예언자의 오심, 그들이 경청해야 할 그분의 오심에 관한 메시지는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심판의 법칙을 배운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 특히 자신이 믿는 것에 의해 심판되어진다. 우리가 정죄됨은 우리가 아는 것을 믿지 않는데서,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서 발생된다. 우리의 증거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정죄될 것이든 우리 내부에 있다. 모세는 그리

스도를 위한 증거이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구세주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유대인을 향해 있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모세를 믿지 않은 때문에서이다.

47. 주님께서 다음의 결정적 결론으로 유대인에 대한 강연을 끝내신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참말이다! 그들이 모세의 예언을 믿지 않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실지로 존재했던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들의 예언자, 입법자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그를 믿는 것이다. 그들은 모세의 글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다만 그들에 대한 자기들의 해석만을 믿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해석으로 모세의 글에 건축물을 지어 올려놓고 그것이 전통이 되게 해서 모세의 명령은 힘을 쓸 수 없게 해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인물로 계신 신성한 사랑 자체가셨던 그분을 거절했다. 모든 진리가 여타 다른 진리와도 하모니를 이루듯, 구약과 신약성서의 진리들 즉 모세의 글과 그리스도의 말씀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거나 부정하는 자는 저것을 믿거나 부정한다. “네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 6

이 장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놀라운 강연을 포함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몇 개의 떡과 물고기를 기적으로 배가 시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다. 그래서 육체를 먹이는 썩어질 양식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기를 바라셨던 생명 있는 빵인 그분 자신에게로 수많은 군중의 시선을 돌리시고 있다. 떡과 물고기의 기적에 이어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신 사건이 뒤따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두 복음서의 기록에서 상이한 세부 사항의 설명을 제외하면 그 의미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으로도 여기서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1. “그 뒤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지금 주님께서서는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 가셨는 바 이는 가나안을 떠나 요르단 저편 지방으로 가시어 더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주시고 있다. 그분이 건너가신 바다는 말씀을 표징하고 있고 말씀 속의 진리들이 바다의 물로 의미되고 있다. 이 바다가 접경한 지역의 이름으로부터 갈릴래아 바다라 불리울 경우, 이 바다는 선에 관련된 측면을 가르치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바다의 해안가에 위치한 성읍의 이름으로부터 티베리아 바다라 불리울 경우, 이는 교리 측면에 관련된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이름이 모두 거론될 경우 두 의미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응용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의 글자에서 밝히 알려지는 진리, 즉 단순한 진리의 선을 수단으로 하는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너가시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개개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음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의 주님의 하강이 갈릴래아로부터 요르단 저편으로 건너가심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 다음 갈릴래아 바다를 건너심은 자연적 마음 안에 존재하는 말씀 속의 선과 진리를 통해 그분이 진입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2.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았던 것이다.” 병고치는 기적이 암시한 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심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자연적 생각과 애정을 주님께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려 노력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군중들에게서 자신을 떼어 놓으신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잡고 앉으셨다.” 군중과 구별되는 제자들이란 자연적 마음의 생각과 애정들과 구별되는 영적 마음의 애정과 지각들이다. 이 구절, 또는 다른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심은 생각과 애정이 세상으로부터 물러가 앉아서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경험들의 공통된 상태에 관한 상징이다. 기독교인의 유용함이 적극적으로 응용되는 영역은 세상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세상적 생각과 느낌이 바빠 혼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오르거나 골방으로 들어가 휴식하는 것을 바랄 필요가 있는 때가 종종 있다. 이는 생명의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함으로 영적 애정과 지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해서이다.

4. 여기서 이런 언급이 끼어 있다. “유다인의 명절인 과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이 장에 관련된 상황과 유다인의 명절 사이에는 명확하게 관계되는 점은 아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군중을 먹이심, 더 특별하게는 후반 구절에 드넓게 취급되는 사항인 사람의 아들의 고기를 먹이심과 유다인의 명절 사이에는 어떤 연결 점이 있다. 예수는 우리의 과월절이셨다. 이 명절이 구속과 영화하심에 관한 그분의 완성된 일을 수납할 것인데 그것이 가까워진 것이다.

5.6.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 쉴 때 군중들이 그들을 뒤쫓았다. “예수께서는 큰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산으로 물러가 쉬시고 군중이 그분에게 끌어당겨지는 이 구절의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 주님께서 마음의 더 높은 애정을 그분 자신과 천국으로 들어올리실 때 더 낮은 수준의 것들도 더불어 승강된다는 것이다. 군중의 움직임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이셨는데도 예수께서는 그분의 눈을 들어 올려 그들이 오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되고 있다. 눈을 들어올림 (the lifting up of the eyes)은 말씀에서도 자주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을 사람에게 관련해 생각하면 이는 이해성이 승강됨을 뜻한다. 이런 승강에서 대상을 봄은 지각을 표현한다. 이 말을 주님에 관련해 생각하면, 이는 그분의 지혜가 작동됨과 응용됨을 뜻한다.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시편 11:4). 그러나 주님의 눈이 들어 올려짐이 정말로 거행되는 곳은 그분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도록 하실 때 그분은 보신다. 그 이유가 모든 영적 시야는 그분의 진리가 지성에 나누어주는 지각이기 때문이다. 큰 무리가 그분께 오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필립보에게 하신 질문은 매우 흥미 있는데, 더 특별한 것은 “그분은 그분 스스로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 라는 말이 첨부된 것이다. 이 질문은 신실한 자들에게 증명해 보여 주시려 의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의도하신 것은 그분이 만족감을 가지려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개선시켜 주시려 해서였을 뿐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증명하신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분이 보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반성하는 자신이

인도하는 것인 곤란한 것을 제거함에서 그분의 신성한 선함과 지혜를 인식하는데 우리를 준비되게 한다. 그러나 본문의 이런 상황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마음 자체는 일종의 이중적인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신앙에서조차도 달처럼 밝은 쪽과 어두운 쪽, 믿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국면, 마치 이렇게 외치는 사람, 즉 “주여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 9:24)와 같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다.

7. 필립보가 주님의 물으심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이 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을 가지고도 충분치는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이었다. 그런데도 이 신실한 제자는 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급량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선입견을 먼저 지니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자연적 사상은 공적을 자랑할 수 있는 선함, 우리를 위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에 의존되어 있다. 이 백 데나리온은 아마도 돈 자루가 담고 있던 돈의 전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 해도 본문의 군중을 먹이기는 부족해 있다. 우리가 빵을 사가지고 마음을 먹인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동원해도 마음의 배고픔을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볼 때, 또는 우리의 애정들 각각에 조금씩 배분 해준다 해도 충분치 않다고 여길 때, 얼마만큼이라도 우리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을 수용할 준비는 되어있다. 그리고 이 선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되 충분하고도 남는다.

8.9. 최대한도로 계산해도 독선(self-righteousness)은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는데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고 확신할 때 마음의 또 다른 상태, 더 높은 상태가 뒤를 잇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곤란함을 해결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한다. 그리고 신성한 질문, “이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야될까?”에 대한 진짜 대답도 발견한다. “제자 중의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는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안드레아를 제자라는 점에 국한해 볼 때 필립보 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1장 43절에서 필립보에 관한 것, 그는 보다 희미한 진리의 지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미

살폈었다. 그래서 필립보가 표현하는 믿음은 안드레아로 예징되는 것보다 더 수준 낮은 믿음이다. 필립보는 군중을 위해 빵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반면, 안드레아는 군중 가운데에서 공급할 빵을 발견하고 있다. 영적으로 이해하건대, 어린 아이는 인생 초기에 있었던 선한 애정이다. 이 안에 천국적 선함과 진리의 아껴두신 것, 또는 그것에 관한 싹틈(germ)이 주님에 의해 이식되어져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당도할 때까지 보존되고 있는 바 그들은 이를 근원으로 새로운 사람의 시작을 형성해 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껴두신 것들(remains)이 빵과 물고기로 의미되고 있다. 숫자 다섯은 숫자 열처럼 아껴두신 것을 의미하지만 그 풍부함이 덜한 수준에서의 아껴두신 것을 나타낸다. 자연적 선함에 관한 이런 아껴두신 것의 품질은 빵(loaves)이 보리로 되어있다는 것에서 암시하고 있다. 조금밖에 안되는 빵인데다가 그나마 빵 재료가 보리라는 사실, 그리고 생선의 경우는 더 적은 개수에 작은 크기였다는 사실이 표징적으로 표현하는 바는 주님이 강림하시던 때의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선하고 참된 것이 얼마나 조금인가이다. 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조금밖에 없어 마음이 새로이 창조되는 바람에 관련해 볼 때 대단히 부족해 있어도 신성한 수중에서는 그것 역시 영혼의 간절한 열망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10. 이렇게 얼마 안되는 준비물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하고 분부하셨다. 마침 그 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약 오천 명이나 되었다.” 사람들을 앉히는 것으로 표현된 천국의 질서 안에서 애정을 배열하는 것은 주님께서 선함과 진리의 원리를 받게 하고 자기 것이 되게 하는데 있어 그들이 준비되게 하는 수단이다. 그들이 앉은 곳에 풀이 많았다는 것은 자연적 진리가 풍부한 것, 즉 잘 정돈된 애정이 기초를 두는 말씀의 글자에 포함된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11-13. “그 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 들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았더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했다.” 주님께서 군중



을 먹이시는 기적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특이한 점이 있다. 그분께서는 기적의 놀라움이 더 크게 할는지 모를 방법, 즉 군중이 먹을 양을 단번에 창조하시는 전시효과가 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단지 작은 양을 계속 불러나가셨다는 점이다. 이는 씨 한알이라해도 복을 내리시는 그분의 수중에서는 풍부한 수확이 있게 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님의 이런 방법에 그분이 의도하시려는 어떤 것도 없이 그렇게 실행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없음에서는 없는 것만 나온다는 법칙이 영혼의 영적 관심 조차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아닐까? 싹수, 싹틈, 핵에 해당되는 것이 시작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런 조그만 시작조차도 없다면 전능하신 그분조차도 우리를 위해 영적 삶의 수단들을 창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핵이나 싹틈을 근원(germ)이 하느님의 선물인 것은 참말이다. 그 이유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것은 그분의 영의 작용으로 천사와 부모의 협력과 함께 각 인생의 초기, 즉 영혼이 유아기의 순진에 머무르는 시기에 각 영혼에게 수여되는 선물이다. 이 공급이 제 아무리 작아도 신성한 권능은 풍부한 소출을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삶에 직접 유용 되도록 강화시키는 힘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는 열 두 바구니도 채울 수 있다.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오는 어떤 것도 결코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말이다. 빵과 고기의 남은 부스러기(fragment)는 만나의 향아리 같이 성소, 영혼의 가장 깊은 애정 안에 놓여진다. 거기에 신성한 자비에 대한 기념물로서, 하늘로부터의 빵이 우리의 순례 기간 동안 먹도록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보존되어진다.

14.15. 이 기적은 두 결과를 생산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다.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시다’ 하고 저마다 말하였다.” 그들의 이 확신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들의 확신된 믿음이 국가적 야망에 걸맞은 방법에서 실제적 결과를 빚는 시도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연적이고 천박한가를 금새 보여 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꾀새를 알아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다 라는 유다 군중의 갑작스런 확신은 그야말로 자연적 수준 그 이상의 것은 아무 것도 없었는 바, 단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어 로마를 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뿐이다. 그들은 주님이 왕이라 해도 그분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고 더욱이 배우고 싶은 바람도 없었다. 이런 무지함과 오류는 초기 기독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했다. 그들은 주님의 입법적 품성과 그분의 나라가 천국적인 것이기보다는 지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기를 기꺼이 원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그분의 권능이 자연적 목적을 위해 그들의 자연적 애정에서 발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일 경우 주님께서는 내적 인간의 선한 애정 안으로 물러가시고 다시 자연적 마음의 생각과 애정으로 오실 때는 뭔가 한 단계 높아진 때에야 다시 내려오신다.

**16-21.**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 마주친 폭풍, 그리고 예수의 두 기적, 즉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은 빵과 물고기로 군중을 먹이심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선함과 진리는 시험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확증되지 않는다. 이런 영적 원리의 수용이 오천 명을 먹이심으로 묘사되었고, 이렇게 수용하는 그 뒤는 시험이 따르고 있다. 그들의 확증에 필수적인 수단이 시험인데 이것이 폭풍으로 의미되고 있다.

본 장의 맨 앞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군중을 함께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문단의 시작에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헤어져 있는 것과 홀로 산 위로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배로 갔고, 군중은 저쪽 편에 남아 해안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이것들은 다른 상태, 교체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제자들은 내적 인간의 생각과 애정을, 군중은 바깥쪽 인간의 생각과 애정을 표현한 반면 주님은 두 부류 모두를 계발해 주고 지탱시키는 진리와 생명이 되어 있으시다. 이들은 때로 하나되어 행동하고 때로는 분리되어 행동한다. 인간이 천국과 주님을 찾고 있을 경우 하나되어 행동하나, 그가 자신과 세상을 찾게 될 경우 떨어져 행동된다. 이럴 때 그는 시험에 노출되어 진다. 이것이 현 관계에서 묘사되는 상태인데, 바다에 있는 제자로, 해안가에 있는 군중들로 묘사되는 바, 이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16-18.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은 호숫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저어갔다.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 물결은 사나와졌다.” 이 문단은 시련과 시험의 상태를 그려놓고 있다. 때는 저녁이었고 이내 어두워진다. 그리고 거센 바람은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역사적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바깥쪽 세계에 있는 어둠과 폭풍우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희미함과 환난에 대한 명확한 형상이다. 이것들은 모든 기독 제자들이 종교적 삶을 통과함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 바다를 건너 가파르나움으로 가는 것은 여러 단계 중의 하나일뿐이다. 그들이 진입한 바다란 말씀의 글자이다. 주님이 머무시는 도성인 가파르나움은 인성 안의 하느님에 관한 것, 주님에 관한 교리이다. 그들이 타게 된 배 한 척이란 구세주와 한분 주님에 관한 지식이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홀로 산으로, 그들의 적극적 생각과 느낌의 영역 그 위로 떠나셨다. 그래서 한 동안이지만 그들을 자기들 스스로에 남겨 두셨다. 그러나 구원의 때가 올 때 그들을 구제하려 내려오실 준비는 하시고 있다. 이런 희미함이나 환난의 상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두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할는지 모른다. 상태의 교체는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느낌과 자연적인 것의 활동이 교체됨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런 교체는 피할 수 없으면서도 유용하다. 그것들의 질서적인 연속은 마치 낮과 밤의 순환과도 같다. 마음은 육체의 것보다 더 꾸준하게 깨어 있음과 활동을 유지할 수 없다. 천사들 자신도 상태가 교체되는 상황을 겪는다. 그들의 상태도 활동함으로 일어나고 휴식함으로 가라앉는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그들은 평화와 잠들 안에 자신들을 내려놓는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들을 떠받쳐주기 때문이다. 이런 소극적인 상태동안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도성을 지켜주실뿐 아니라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한 거주지로 그들의 집을 지으신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잠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이 잠들은 달콤하다. 그들이 깨어날 때 그들은 그분의 모양새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아직 지상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순환은 언제나 질서적이고 평화스런 부류에 속한 것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가지리라.” 지상에서 우리는 어둠도 가지지만 여명

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배를 밀어주는 순풍도 있지만 배를 뒤엎는 큰 바람도 맞는다. 이 광풍은 바다를 뒤흔들어 우리의 영혼의 배로 하여금 난파되게 위협한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그들... 돌풍이 일고 물결이 치솟자 하늘 높이 올랐다가, 바다 깊이 빠졌다가... 혼이 나서 넋을 잃었다....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주님께서 사경에서 건져 주셨다” (시편 107:23-28). 사나운 물결로 다급해 있는 “제자들이 배를 저어 십여 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위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 오셨다.” 폭풍이 심해지는 동안에도 그들은 배를 저어갔다. 그들은 상심해서 젖던 노를 내려놓지 않았고 오히려 폭풍이 심해진 만큼 더욱 노를 힘차게 붙잡고 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던 그들은 조금씩 전진해 갔다. 그들이 십여리(about five-and-twenty or thirty furlong) 쯤 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숫자 25나 30은 5와 6이 생산한 숫자인데, 이는 영적 진보의 양을 암시한다기 보다는 사랑과 진리의 아껴두신 것들이 시험의 노동을 수단으로 생산된 것인 바 영적 상태의 품질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의 분투 노력은 그들을 바다 저쪽에 닿게 한 것은 고사하고 아마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는데도 흡족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은 조금이라도 그들의 길을 가게 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향해서까지 일보 전진은 있게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 그들은 육지로부터 꽤 떨어진 섬인데 거기서 파괴하려 위협하는 광풍과 함께 바다 가운데 내몰려 있는 처지였다. 이런 죽을 지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기대했을까? 그들을 삼키려는 바다 위를 여유 있게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았을 때 그들은 경이로움과 은택에 휘감겨야 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의 첫 기분은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 마태에 따르면 그들은 유령으로 착각했고, 아마 죽음의 사자로 여겨 소스라쳤다. 우리의 심정 상태는 갑자기 마주친 대상에 어떤 모양새를 준다. 영적 체험과 영계에서 이것은 불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영적 수준의 것보다 신성과 더불어서는 더욱 불변하다. 그것들은 우리의 개념들로부터 더 떨어져 있다. 주님의 현존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은 두려움은 모든 다른 제자들의 체험이다. 두려움은 사랑에 앞서 진행된다. 아마 사랑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신성한 현존이 처음 불어넣는 것은 노예 같은 두려움, 즉 우리가 죄 지었음을 자각하여 일어나는 두려움이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 앞에 나타난 대상이 예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데 있다. 노예 같은

두려움도 이와 같다. 우리가 주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무식해 있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밝히 알리실 때, 마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비단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심정의 애정으로도 알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랑으로 바뀐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 이유가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나다, 두려워 할 것 없다” 하고 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배 안에 모셔 들었듯이,” 그분을 밝히 본 이들은 그분을 자기들의 심정과 지성 안으로 기뻐하며 영접한다. 마치 지식의 참 대상인 생명이신 분을 수단으로 그분께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그들이 바래던 천국으로 그들을 데려다 놓는데 본문이 이렇게 표현했다. “어느새 배는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 이 경이로운 배의 속도는 주님이 현존하신 결과였다. “어느새” 라는 속도의 영적 생각은 확실함이다. 그 이유가 영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속도는 확실함뿐만 아니라 기쁨도 뜻한다. 그 이유가 영적인 거리는 상태의 측량이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상태는 짧고, 슬퍼하는 상태는 길다. 우리를 주님께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모든 영적 시련과 시험은 모든 참된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땅으로 기쁨과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결국 위쪽 가나안의 땅으로, 쉼과 안전함이 영원한 우리가 바래던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

**22-24.** 가파르나움에 배가 어느새 가 닿았다고 기록한 복음서 기자는 호수 저편에 남겨져 있는 군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 이튿날의 일이다. 호수 건너편에 남아 있던 군중은, 거기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끼리만 타고 떠난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티베리아로부터 다른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나누어 먹이시던 곳으로 가까이 와 닿았다.) 그런데 군중은 거기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튿날이란 새로운 상태이고 이것의 품질은 그 과정을 기술한 대목에서 암시되고 있다. 대화에서 표징적으로 묘사된 바 같이 사람의 첫 상태는 외적인 것이다. 그들은 제자들이 있던 해안가의 반대쪽에 서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바깥쪽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제자들이 타고 간 배 외

에는 다른 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자들이 탄 배 한 척이란, 이미 살핀바 같이 한가지 위대한 진리, 즉 예수는 모든 참된 믿음의 저자요 대상이시고 모든 선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주님의 제자들이 탈수 있는 배란 이 진리밖에 없다는 지식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고 제자들끼리만 떠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에 관한 이 지식이 그분의 사랑과 선함으로 충만 되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폭풍 같은 시험은 구세주 되는 주님의 현존이 구원을 주실 수 있기에 앞서 견뎌가야 하는 과정이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뒤에 남았다고 상상했다. 그 장소에서 그분을 발견 못한 그들은 그분을 찾아 호수를 건너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티베리아로부터 자기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 근처에 와닿은 몇 척의 배를 보았다. 이 배들은 제자들이 떠난 후에 도착했던가, 아니면 베짜이다 근처 또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진리에 관한 지식만이 그분께로 직접 인도하는 진리이다. 그런데 비록 즉각 그분께로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 해도 어쨌든 인도해 주는 또 다른 진리의 지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티베리아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와야만 한다. 그 이유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모든 지식은 말씀이 있는 교회로부터 와져야 하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오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바람을 가졌다. 즉 그분을 찾아내고 그분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것이 참으로 고상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뒤 구절로부터 나타난다. 여타 다른 대목에서 같이 주님께 집착했던 그들의 목적은 그분의 선함과 진리의 순수한 사랑,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는 사랑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5.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군중들이 주님을 부른 호칭은 그분을 찾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고백한 목적(object)과 일치하고 있다. 그 이유가 라삐, 즉 선생이란 그분이 가르치시고저한 진리를 의미한다. 라삐로서의 주님은 진리 자체이다. 그러나 지금 그분께 말하고 있는 군중은 차후 나타나듯 진리 자체라는 드높여진 품성을 지닌 분으로 그분을 간주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시 빵과 물고기로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을 수단으로 선함의 소유자에게 인도하는 선생으로서 그분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위 질문이 암시하는 바, 예수를 뒤쫓아 온 이 문의자

들은 선생으로서의 그분을 뒤쫓아 찾으려는 실제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지적일 뿐인 의도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언제 이쪽으로 오셨느냐고 묻고 있다. 시간은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이 상태는 진리에 관련된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장소는 선함에 관련된 상태를 뜻한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질문이 가지는 술어에 관한 어떤 생각을 구체화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에는 인간 관계에서 심오한 깊이가 있다. 그래서 신성한 영감은 이 관계 속에 그것에 상응되는 영적 의미로 채우신다.

26.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언급하신 기적은 병든 자에게 수행하셨던 것들이다. 질병을 치료함은 악을 제거함을 표현했다. 그분이 수행하신 기적적인 치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음식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은 악을 제거하지도 않은채 선으로 채워지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품성 가운데 있는 이들은 치료 약인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하는 작업을 먼저 하지도 않고 양식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바랜다. 악행을 미워하고 그것을 중단함도 없이 소유하고 싶고 행하기를 바라는 선함은 영적이지 않고 자연적일 뿐이요, 천국적인 것이 아닌 지상적인 것일 뿐이다. 다음 구절로부터 명백하듯, 이것은 예수를 쫓아온 군중들의 선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을 따르되 마음과 삶의 병을 치료하는 그분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 인간조차도 기꺼이 받기를 원하고 자연적 선과 진리로 배불렀기 때문에 그분을 추종하는 이들이 바라는 일련의 선들이다.

27.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훈계의 첫마디는 그들의 품성에 관해 그분이 지니신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여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달된 위 교훈은 실상 보편적으로 응용되는 교훈,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주님을 추구하는 여타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야 하는 교훈이다. 힘써라(labour) 라는 이 한마디의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표현되고

있는지! 노동은 인간에게 상속된 재산이다. 그분의 지혜 측면뿐만 아니라 선함 측면에서도 하느님은 노동이 우리 본성의 필수이도록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 그것 없이 우리는 동물의 조건 위로 부상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은 우리의 동물적 필요성, 또는 한시적인 요구사항을 공급하기 위해서만 고용되도록 신성한 존재에 의해 의도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정해 놓으시면서 기대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느님의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육체의 요구사항까지 포함해서 동시에 노동은 마음을 훈련시키고 풍부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시적인 복지와 영원한 복지를 동등하게 진취시킨다. 하느님은 모든 그분의 법칙, 즉 창조와 섭리에서 그것들을 수단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들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만이 필요하다. 즉 그분의 뜻과 기뻐하심이 우리의 행복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수단으로 하느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분리시킨다. 지금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한 어떤 바램도 없이 사라져 버릴 양식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는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있고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자연적 상태인 바, 주님께서는 일시적일 뿐인 우리의 목적대신 영원한 목적에 노동의 방향을 정하고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영원을 위해 요구되는 양식을 우리에게 설비해 주셨는 바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되게 한다. 영혼에 자양분을 대주는 양식, 영원히 지속되는 양식은 내적 인간에 의해 받게 되는 선이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주님의 인간 본성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진리에 속한 것, 인물로서의 그분 자신에서 명백히 보여진 것, 그분의 말씀에서 밝히 보여지는 바대로의 것을 표현한다. 그분은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멸해질 수 없는 것인 영적이고 영원한 선함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것만이 우리가 노동해서 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이것을 주신다. 그 이유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봉인해 두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분의 인성에 영원한 신성을 날인하여 표를 해두셨다. 아들은 이렇게 표를 해둔 형상, 아버지의 실체를 날인한 형상이다. 사람의 아들은 주님의 인성이 신성에 의해 영화하셨을 때 아버지에 의해 증명되어졌다. 마치 신실한 자가 거듭 나아짐으로 그의 신실함이 증



명되는 것과 같다.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은 신성한 사랑에 의해 증명되어 진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끝까지 존속되는 선함을 주신다. 선함 자체이신 그분은 우리가 그 선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을 때에만 주신다.

**28,29.**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 자신이 주실 수 있다고 선포하신 양식을 아직도 자연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군중들이 그 양식을 얻게 하는 수단인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해야하는 것을 묻고 있다. 주님의 답은 놀라운 것이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모세의 법이 말하는 일에 그들의 희망을 두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 종교의 기초를 제거하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가 그들이 공들여 놓은 계율의 체계가 그들이 기껏해야 라삐로서 인정하고 간주할 수 있었던 사람을 믿는 신앙으로 대체하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모세의 법이 완성되고, 그 법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수여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필수 되는 조건이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이 주제에 관한 유대인적인 관점을 취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유대인의 일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일까지도 대체된다고 상상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상상까지 한다. 사실이 믿음은 일을 포함하고 있고 하느님의 모든 일은 하느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데 있다. 명백히 나타나신 하느님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생활의 참 실재요 필수적이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일을 대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힘이다. 예수를 믿음은 믿음을 수단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분이시다. 사랑으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지혜를 수여하시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의 저자, 그분 자신이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만으로도 아니다. 사랑 없이 참된 믿음은 없다. 일이 없이는 믿음도 사랑도 없다.

**30.** 하느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다시 ‘무슨 표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

까?” 그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신 것을 이미 보았다. 그들 자신이 이미 기적으로 제조된 빵을 먹은 자들 중 한 사람인데, 아직도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다. 표적(sign)은 기적(miracle)과 다르다. 기적은 의지에 영향을 주는 일이어서 그것을 수행한 사람에게 청중하는 쪽으로 기울게 한다. 그러나 표적은 이해성에 영향을 주는 바역지로 동의하게 한다. 이해성은 표적이 아닌 추론으로 확신되어진다. 어떤 일도, 제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라 해도 확신시킬 수 없고, 그것은 계발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확신 없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 그것은 믿음을 진리가 없는 믿음이 되게 된다. 진리 없는 믿음은 소경된 믿음이요, 이 믿음은 설득하려들뿐 거기에 확신이 없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거절하셨다. 악한 세대는 표적을 요구하나 그것에 줄 표적은 없고 단지 요나의 표적, 즉 주님 자신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영화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예언자 요나에 관한 표적밖에 없다. 이것만이 그분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려 드는 이들에게 유일하게 확신시키는 표시가 된다.

**31.** 군중들은 표적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바랜 표적이 어떤 것인지 까지 암시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 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런 기적을 간청했던 바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그들 조상들을 사막에서 지탱시켜 주었던 빵의 기적과 같은 식으로 그들을 위해 설비된 빵으로 방금 전에 광야에서 먹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나에 호소해대면서 예수의 권능도 과거의 기적과 동등한가를 확신케 해달라고 그분께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불신앙자의 요구와 똑같은 것이다. 어떤 일도 그들 자신을 실지로 변화시킬 수 없고 오로지 한 가지만이 그들을 확신되게 할 수 있다. 심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표적은 그들을 이전보다 더 소극적 태도로 되도록 거꾸로 무한하게 커져 갈는지 모른다.

**32.**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바깥쪽 기적과 육체를 지탱해주는 방식으로부터 내향의 일과 생명으로 그들의 시선을 모으시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신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이에 대한 글자적 의미는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

을 먹인 빵은 비록 기적으로 생산되었다 해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빵이 아니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다른 어떤 이들은 만나, 비록 하늘로부터라 해도 참된 빵은 아니었다고 이해한다. 위 구절을 글자대로 직역하면, “모세는 하늘로부터의 빵이 아닌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다. 모세는 너희에게 참된 빵 - 생명의 빵이 아닌 것을 주었다는 말도 될 수 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여기서의 대비는 아주 중요하다.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들의 조상이 모세 아래에서 받았던 빵은 육체를 위한 것이었던 한편, 지금 예수에 의해 설비되고 제공되는 빵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이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모형(type)에서 원형에 의해 예시되는(antitype) 쪽으로 인도 되도록 노력하시고 있다.

**33.** 주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그들에게 점차로 그분의 빛을 드리우시고 있다. 지금 그분은 그 빛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게 하시고 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이시고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이 언어는 별로 이상할 것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의 참 의미를 아직 이해 못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진정한 빵이셨다는 것을 의미하셨다고는 아직 보지 못했고 단지 그분은 빵을 가지셨고, 인간 생명을 지탱해 가도록 그것을 주시리라는 것, 그러므로 이 빵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한 것은 육체의 생명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들의 관념은 사마리아 여인의 것과 거의 동등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생명 있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셨을 때 그녀는 결코 마르지 않는 어떤 자연적인 샘에 관해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고 이해했었다. 이 경우와 그녀의 경우는 정확하게 한 쌍을 만든다. 물론 그 결과는 조금 다르긴 하다. 거기서의 주제는 생명의 물이었고 여기서의 주제는 생명의 빵이었다. 거기서의 주제는 생명 있는 진리, 생명을 주는 진리였고, 여기서의 주제는 생명 있는 선, 생명을 주는 선함이었다. 둘 다 영적 삶에 동등하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용하는 차원에서는 둘 다 동등하게 쉽지 않다.

**34.** 유대인의 대답도 앞 장의 사마리아의 대답과 거의 같다. “주여, 그 빵을 저희에게 언제나 주십시오.” 주님의 인물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 온 진정한 빵으로

언제나 먹여지기를 원하는 참된 바램, 영혼에 필요하고 영혼이 받아야 하는 모든 것을 함유한 그분의 빵으로 만족되고 싶다는 참된 바램은 선함과 진리로 그 영혼을 채운다. 마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참 원리는 예수께서 만족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십시오”는 참된 자, 뿐만 아니라 이름뿐인 주님의 추종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빛이 처음으로 마음을 꿰뚫을 때 하느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도록 원하는 간청이다. 형체로는 모든 이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로는 참된 신앙자와 형식적인 신앙자는 매우 다르다.

35. 예수께서 그들의 간청에 그분 자신에 관련되는 진리를 더욱 명백하게 밝히심으로 대답하시고 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 같이 주님께서는 문의자가 놓은 기초 위에 그분의 교리를 건설하신다. 그들은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그분은 그 위에 영적인 초자연적 구조물을 지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인간 구속과 구원에 관한 표본적인 역사였다. 구속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졌다. 그리고 구원의 일은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과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빵,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바위에서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했던 물은 주님께서 영혼을 먹이시어 그것에 영적 생명을 주는 선과 진리에 대한 예징(type)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경험은 예징적이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것이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이었다)” (고린도전 10:2-4). 비록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서의 그분에 관해 예징적으로 말하시고 있다 해도 거기에는 생명수에 관한 예징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는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시기 때문이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오는 모든 자들, 자기의 이해성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불멸하는 본성의 가장 깊은 열망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불만족된 바램을 가지

지 않는다. 그들은 악하고 거짓된 것을 더 이상 탐내지 않고 오직 선하고 참된 것만을 바란다. 선하고 참된 것은 천사들의 양식과 음료수인 바 이것은 천사가 되고자 바라는 이들의 양식이어야 할 것이다. 최고도의 선과 진리로서 주님은 생명의 진정한 빵과 물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진실로 오는 모든 사람,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36. 예수께서 말하신 군중이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경이로운 일도 직접 보고 기적으로 먹여졌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불신앙에 남아 있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못보고 있는 이들, 또는 보는데도 지각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이미 말해졌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믿는 것 없이 본다는 것은 애정에 바탕을 둔 내향의 어떤 동의도 없이 진리를 지적으로만 납득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음 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밝히신다.

37.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두는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다.” 이 구절로부터 추론을 끌어낸 이런 서술도 있었다. 즉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셨고, 그들에게 그분의 은총을 내리시고 구원의 선물을 증여하시어 기뻐하셨다는 것, 이들을 그분은 그리스도에게 데려 오신다는 것, 그 외 누구도 그분께 올 자는 없다는 것이다. 위 구절은 글자대로에서도 위와 같은 견해에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원본에서 단어 “모두, all”은 중성인 바 사람이 아닌 사물을 뜻한다. 적절한 번역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올 것이다” 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란 인간의 마음과 심정에 있는 모든 것, 즉 애정과 생각, 경향성과 동기를 뜻한다. 그 안에 천국적 선함의 어떤 것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이와 같은 것이 그분께 온다고 말하실 때 그분이 뜻하신 바, 인간 마음의 내면 안에 진실로 선한 것이 있는다면 어디서든 그 선 안에는 주님을 인정함과 그분의 진리가 있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참으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바 그것의 참 본성을 수단으로 그것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진리를 받게 되는데 거듭남에 의해 이 진리는 실제의 삶 안으로 들러진다. 위 주님의 말씀의 글자적 의미 안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선포되는 형체 속에 있다. 아버지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그분의 신성한 지혜이다. 주님의 말씀의 심오하고 교훈적인 의미는 이러하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 끌려 당겨지도록 스스로를 감내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진리로 와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 외 누구도 올 수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다. 심정에 영향을 주는 신성한 영향력은 이해성이 주님을 믿도록 바꾸어 놓는다. 인간 영혼은 그것이 존재를 갖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의 영향 아래 있다. 그리고 사랑은 이해성이 진리의 지식을 받을 수 있기 오래 전부터 심정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의 일이 진리의 일에 앞서 있어진다는 것은 주님 스스로 선포하신 다음 구절로부터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있다.” 이것은 신성한 작업의 질서, 세상 안에서 뿐 아니라 개개인 안에서 작업되는 질서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인간 마음은 진리를 바래거나 수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은 강제로 집행되지 않는다. 오로지 끌어당긴다. 아버지 측면에서의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수단으로 끌어당기신다. 자유롭도록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우리는 그분의 매혹적인 영향력에도 자유로이 노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사랑의 계속 끌어당기는 영향에 따른다면 복된 약속은 이러하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주님은 누구도 내치시지 않는다. 내쳐진 이들의 경우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자아 사랑을 수단으로 진리로서의 그분께 끌어당겨지려 했던 이들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은 그분 안에서 안전함과 행복함을 발견한다.

38. 주님이 수용하는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기대고 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이 구절의 경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이것은 신성한 인물로서 고려해볼 경우 이해가 불가능하였다. 주님의 인물 안에 있는 신성과 인간 본성으로서 이 구절에서와 같은 구분과 다양성은 쉽게 이해되어진다. 인간 의지는 신성과 사이가 나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왔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님의 인간 의지는 언제나 그분의 신성한 의지에 복종되어 있다. 이를 수단으로 그분의

인간 의지는 신성, 즉 하느님-인간이 되었다. 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더 추상적 의미가 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시고 있다. 앞에서도 간혹 말한 바 있듯이 그분은 신성한 사랑의 뜻을 행하기 위해 신성한 진리로서 하늘로부터 내려 오셨다. 더불어 주목해 볼 것은, 신성한 진리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나 신성한 사랑은 모든 이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이런 신학적 관념, 즉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정의는 서로 반대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어쨌든 두 관점, 즉 진정한 관점과 잘못된 관점 사이에는 폭넓은 차이가 있다. 실수한 관점인 즉, 자비와 정의는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반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된 관점인즉, 이 둘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반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을 입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간 마음으로 입히셨고, 그 안에서 자비와 정의, 사랑과 진리 사이의 반대가 존재했다. 그래서 육 안에서 그분의 일은 그 둘이 서로 화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다. 주님께서 진리만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가정한다면 구원될 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세상에서 그분의 일은 심판의 일 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는 내쳐졌을 것이다. 그 이유가 심판하시는 그분의 작업에 견뎌낼 자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로서의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오시지 않고 그를 보내신 분의 뜻, 모든 선의 근원, 만복의 근원인 신성한 사랑의 뜻을 행하시러 오셨다.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사랑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신성한 진리는 정죄의 저자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되려고 오셨다. 그럼에도 우리가 꼼꼼이 되새겨 둘 것이 있다. 신성한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뜻하심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사랑이 그것의 선한 기쁨을 뜻하고 이루고자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구원된다는 것이다.

39.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선포하신 주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하시고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 구절에서 있는 “모두, all”은 중성이고 모든 것(everything)을 뜻한다. 참으로 모든 것이 “모두, it”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미 살핀바와 같이 진리에 관한 지식과 진리에의 순종으로 기꺼이 끌어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모든 것이다. 사랑은 진리의 통치와 가

르침 아래로 우리를 가져다 놓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만일 사랑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뜻하신다. 그 이유가 사랑은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 위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에서 명백히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명백해지신 목적은 지상에서조차 신성한 진리가 하늘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매체 또는 완전한 도구로 만드시려 해서였고, 사랑의 영향력으로 악에서 선으로 끌어당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진리의 힘을 방패로 삼아 보존되고 계발되고 순수해지게 해서 결국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 해서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심정 안에서 생산하는 선한 모든 애정은 그것의 발달과 보존을 위해 그에 부응되는 지각이 이해성 안에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지각은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온다. 인간의 모든 애정이 진리의 빛 안으로 가져다 놓일 때 그 모든 애정은 아들에게 주어지고, 아들이 받는 모든 것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들어 올려진다. 인간의 거듭남에 관련해 볼 때 마지막 날은 새로운 삶의 마지막 또는 완성된 상태이다. 부활은 삶의 새로움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것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의 범위를 넘어 일어나는 것이다. 씨가 땅에 떨어지고 죽게 될 때 생명으로 불리울 수 있는 싹틈(germ)이 있어야만 한다.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 심정에 이식한 선만이 잠재력이 있고 진리를 매체로 해서 실제적이 된다. 선한 모든 애정을 일으키고 그것에 의식과 시야를 주는 것은 진리이다. 진리는 그것들이 선용을 수행하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기쁨(delight)이라는 것을 준다. 따라서 신성한 뜻, 사랑(Love)이 주었던 선한 모든 가르침들에 속한 것을 진리(Truth)는 하나도 잃지 않고 더불어 마지막에는 그것들 모두를 생명 있고 활성적인 원리들로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거듭남의 완성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삶의 마지막 또는 최말단 수준이기도 한 바, 처음 것이 나중 것도 되는 것, 그리고 흩어진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기도 하다.

40.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을 더 밝혀 주신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여기서는 아들을 보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해 말하고 있다.



우리들과 관련시켜 보면 보는 것은 아는 것, 지적 시야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가지려면 믿음이 지식에 더해져야 한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하는 생명은 상태이지 조건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는 상태를 믿는 상태가 계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적 선함의 상태이다. 선함은 첫 번째 상태이고 마지막 상태이기도 하다. 첫 번째 있는 상태는 무지의 선이고 두 번째 상태는 지혜의 선이다. 첫 번째 선은 우리를 진리로 끌어당기는 선이고, 두 번째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풍요로워지고 순수해진 선이다. 선은 진리와 하나될 때까지 진짜 선이 되지 못하고, 사랑은 지혜와 하나될 때까지 참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생명이다. 그러나 지혜와 하나된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어떤 선이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진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진리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진리를 수단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선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도 그분의 뜻이다. 이런 이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한 이들이다. 이것은 세상의 존재의 마지막 날에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날이 장차 오리라고도 상상해볼 수도 없다. 여기서 약속된 일으키심은 신앙자에 의해 즐거워지게 되는 것, 신앙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외에 더 아닌 것, 즉 죄의 죽음으로부터 정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체험 외에 더 아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부활이다. 정의로운 자를 위한 또다른 부활이 있다. 그것은 지상적인 존재의 마지막 날에 거행되는 부활, 천국으로의 부활이다.

41. 예수께서 위와 같이 간략하지만 뭔가 내포된 말을 끝마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하늘로부터의 빵으로서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자기들 같은 인간 존재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힘들었을 것임은 당연지사이다. 그런데도 사실 그들은 그분의 권능 있는 일들을 보았고, 배를 채우고 싶은 그들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권능이 생산한 빵도 먹었었다. 영혼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주장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도 뭔가 심각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자연적 인간의 모형, 어느 시대에서나 흔히 있는 인간의 자연적 마음의 예징이었다. 이런 인간은 영인들에 관한 것에 대해 웅성거리고, 최고의 선으로서 주님께 관련되는 것들인 가장 높은 영적 사항에

관해서는 뭐든지 못마땅해서 중얼대고, 천국의 천사, 지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선이라 불리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는다.

42. 외관적일뿐인 것(appearance)은 주님이 천국적인 모든 선함의 근원이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분의 주장에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가 하늘에서 내려 왔다니 말이 되는가?” 주님이 요셉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상 군중들에 의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상상되어질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할는지 모른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러나 이 주장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그분의 권능 있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들이 악한 권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했다. 인간이 자연적일 때 그들의 모든 개념, 신성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은 자연적이다. 유대인이 육을 입으신 말씀에 반대함은 자연적 인간이 씌어진 말씀에 대한 이의 제기와 똑같다. 주님처럼 말씀도 인간 형태로 옷입혀 있기 때문에 외관으로부터 판단하는 이들은 말씀을 단지 인간적인 것으로서 간주한다. 우리가 말씀에 관해 품는 평가는 우리가 주님에 관해 품는 것, 신성한 진리 자체이신 분,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말씀 자체는 그분이시다는 것에 대해 품게 되는 생각과 필수적으로 유사하다.

43. 유대인들의 중얼거림과 불찬성은 뒷전에서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너희들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이는 그 자체에서도,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관련해서도 꼭 있어야 할 훈계이다. 우리들끼리에서나 우리 속에서나 중얼대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각과 애정이 하나되어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 불평하는 이유는 신성한 진리의 법칙에 종속되고 싶지 않아서이고, 그 법칙이 일시적인 혜택을 즉각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서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 왔다는 것, 그분이 신성하시다는 주제를 놓고 그들과 왈가왈부하는 대신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중얼거림과 초조함이 누그러지게 하시고 있다. 이 불평함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불평같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진리와 선을 확증함으로, 불성실한 자는 거절함으로 끝장을 보는 시험이다.

44.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은밀한 배경을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이들에게 밝혀 주시고 동시에 참된 믿음의 근원도 알려주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37절에 특별히 포함된 이와 유사한 선포에 관한 소견은 이미 있었던 바 이 구절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살폈듯이 아버지는 본질적인 신성이고 아들은 신성한 인성이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는 이러하다. 그분께서 내재하는 그분의 신성의 힘으로 그분께 끌어당겨 주시지 않으면 육을 입으신 하느님으로서의 그분께 나아올 자 아무도 없다는 것, 그분께서 신성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께 끌어당기지 않고서는 신성한 지혜로서의 그분께 아무도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는 머리만에 속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심정에 속해 있다. 의지는 지적인 모든 행동 안에서 동력인 바 거기에 믿음에 속한 모든 행동이 근원 되고 있다. 모든 사람 각각은 어떤 동기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겨진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 구세주 되시는 그분께로 우리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아사랑으로, 혹 어떤 이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서 그분께로 온다. 이것들은 육욕적인 동기들이고, 자연적 인간은 이를 수단으로 종교의 고백을 하라고 꾀고 있다. 그들도 예수를 따른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분께서 선함과 지혜의 그분의 일을 보았고 경험했다거나, 악마를 내쫓고 질병을 치료해서라거나,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물고기와 빵을 먹었고, 그들의 심정이 바라는 선만을 채우려 해서였다. 이런 동기들은 자기의 구세주로서의 그분께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없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로 데려다 주고, 말씀이 육을 만든 분으로서의 그분을 영접하게 한다. 심정에 사랑이 없을 경우 이해성에 믿음도 있을 수 없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믿음이 사랑의 결과일 뿐이다. 이해성 안에 믿음이 있을 수 있기에 앞서 심정에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논리적 확인으로부터 수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느님의 권능과 하느님의 지혜” 되시는 분으로서의 그분께로 나아올 자 아무도 없다. 오로지 심정의 중요한 품위(grace)인 그분의 사랑이 지닌 매혹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이 획득되는가? 우리를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느님이 선물하신 사랑이다. 하느님은 이 사랑을 받으라고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여타 신성한 선물의 경우처럼 그것도 자유이다. 자유로이 제공되었는 바 받는 것도 자유롭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고루 미치고 모든 것을 살아 있게 한다. 태양은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모두에게 떠오른다. 이 태양의 열에서 감추어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열은 자연적, 도덕적, 영적으로 모든 것의 영이다. 이 사랑은 우리의 심정이 호의적이 되어 받을 준비가 될 때는 언제든지 심정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채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다. 오히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 사랑은 영적 사랑의 영향을 받고 이식된 자연적, 도덕적 애정 안에 거주함으로 언제나 심정 안에 있으면서 심정이 팽창력과 승강력을 기꺼이 산출할 때 영적 사랑으로 그 자체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심정이 주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진입을 방해하는 악들을 제거함으로서 열려진다. 자만은 심정의 문을 닫고 자아 부정은 심정의 문을 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 사랑의 탐닉을 스스로 부정해 버림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이 자아 사랑이 차지했던 자리에 들어앉게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지혜에로 끌어 당겨준다. 주님의 말씀 속에 교리적 의미로 있는 한 개의 단어가 있다. 주님께서는 한분 신성한 인물로서 아버지에 관해 말하시지 않고, 또 다른 인물로서 그분 자신에 관해 말하신다는 것은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에서도 명백하다. 이 구절의 경우, 아버지가 그를 끌어당기지 않고서는 그분께 나아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하신다. 다른 구절의 경우,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12장 32절).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뜻해지고 있는 때라 해도 그분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고 이해해야 한다. 한분, 그럼에도 따로따로 구분되는 한분이시다. 한 인물, 그러나 그 본질은 구분된다. 이는 영혼과 몸, 인간 속의 이해성과 의지의 관계와 같다. 주님의 경우 이는 신성과 인성, 사랑과 지혜이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기신다.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그분의 지혜는 그들이 끌어 당겨지게 한다. 사랑이 지혜로 끌어당기듯 지혜는 사랑에로 인도한다. 이에 관해서는 14장 6절의 필립보와의 대화에서 더 자세히 살핀다.

45. 예수께서 더 말하신다.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여기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구별해 언급하신 게 아니고 자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대비되도록 언급하신 것이다.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자아의 가르침을 받거나 한다. 만일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진리를 보고, 만일 자아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아를 사랑함으로부터 진리를 볼 것이다. 주님 측면일 경우 영원한 지혜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출현하듯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도 그분을 사랑함으로부터 출현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아버지에 관해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아들에게 온다. 듣는다는 것과 상응되는 것이 애정인 바, 이 애정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애정은 그분의 진리에 온다. 이를 더 뾰족이 말하면 애정은 생각을 바꿔게 한다. 그 이유가 듣는 것은 애정이고 배우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46. 신성한 선생께서 계속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이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구약 성서에 의거하면, 하느님을 보고 살아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들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아들 안에 있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영원한 지혜만이 영원한 사랑을 납득할 수 있고, 우리로 각 수준에 맞게 그것을 납득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하시고 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밝히 알려려고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마태 11:27).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에게로 끌어당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매혹적인 사랑을 따를 때 지혜인 아들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상기시키는 바,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직접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고 있다. “너희는 여하튼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다.” 주님의 신성만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즉 그분의 지혜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만이 보고 들을 수 있다. 주님 측면일 경우 영원한 지혜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출현되듯,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인정함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출현되어야 한다.

47.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불가능은 우리가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상쇄 되어진다. 그 이유가 아들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도 보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 자체 그대로는 보여질 수 없고 알려질 수 없으나 그것이 인간의 납득력에 와 닿는 만큼에서 보여질 수 있다. 마치 사랑이 지혜 안에서 그 자체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신성은 인성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 명백해진 여호와와 예수가 신바 그분만이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정말 잘들어 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도 보게 된다면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도 믿는 것이다.

48-50. 그분이 진정한 빵이시다는 이전의 선포를 언급하시어 말하신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빵과 모든 인류에게 지금 제공되었던 빵의 차이점을 지적하시고 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 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들은 자연계에서 죽었다. 참된 빵을 먹는 이들은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글자적 의미에서의 경우는 평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상응에 의거 말하시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는 육체를 먹었고, 진정한 빵은 영혼을 먹인다. 만나는 자연계에서 죽는 것을 막지 못했으나 생명의 빵은 영적인 죽음에서 구해준다. 이런 견해보다 더 깊은 관점이 있다. 만나는 진정한 빵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예징이었던 바, 만나는 이스라엘 교회라는 하늘의 처방 아래에서의 종교생활을 유지하는 전체 수단을 표현하고 나타내었다. 이스라엘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그림자밖에 더 아니었던 바, 그 교회 자체에 속해 있는 것은 살아있거나 생명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듯이 그들의 곡식 예물의 빵 역시 정의의 삶을 제공하거나 받쳐 줄 수 없다. 죽음은 이스라엘 교회를 구성한 모든 것 위에 적혀져 있었다. 그리고 죽음은 그 교회가 관여된 만큼 그것 아래 살았던 이들의 지분이었다. 그것을 형성했던 이들에게 구원 또는 영적 생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은 그들의 상징적인 모든 예배가 향하고 있는 그분을 통해 그들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만나를 먹었던 이들 중에서 믿음과 순종을 겸했던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 진정한 빵을 기대했는

바 이를 수단으로 그 빵도 먹었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인간이 먹어야 하는 유일한 빵, 죽지 않는 이 빵이 주어졌다.

51.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힘에 유추되는 것을 소개하시어 더 완전하게 납득하도록 해 주시려고 위 주제를 계속 이으시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셨다. 지금 그분은 자신을 살아있는 빵이라고 부르신다. 이 빵을 먹는 것은 죽음을 면하게 한다고 그분은 선포하셨다. 지금은 그것이 영원히 살게 한다고 말하시고 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 살아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보려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한다. 죄의 면제, 죄에서의 해방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도 진정이다. 그럼에도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과 생명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전자는 악의 제거이고 후자는 선을 수용함이다. 전자는 후자에 선행한다. 그 이유가 악은 선이 받아질 수 있기 전에 먼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분을 지금 주님께서 소개하신다. 앞에서 그분은 자신이 빵이라고 말하셨다. 지금 그분은 살이라고 말하신다. 유대인의 사회일 경우 이와 유추되는 것은 백성들을 먹었던 만나와 그들이 바쳤던 제물의 고기에서 발견되어진다. 이것들은 제단 위에 놓여졌는데 마치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받아 기뻐하시는 음식과 같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느님의 빵이라 불렸다. 그러나 제물로 불리우는 헌물에서 번제물과 구분되는 것이 있는 바, 제물의 어떤 부분은 제단에서 살라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제가 먹었고, 어떤 경우는 백성들이 먹었다. 제물을 바침에서 사제는 예수의 예징되는 것 외에도 제물을 제공한 사람들도 표현했다. 마치 예수 자신이 백성들 대신에 서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을 위해 해주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빵은 그분의 살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만나와 제물의 고기가 그분의 백성에게 있게 된다고 주장하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인류는 신성하고 영적인 원리들을 가진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것이 표본이 된 백성들의 이 세상의 삶을 수단으로 거기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분이 말해 오셨던 빵은 그분의 살이었다. 후에 그분이 표현하셨

던 그분의 참된 몸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 표현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만일 주님께서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그분 자신으로부터 주시고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실체를 주시어야만 한다. 이외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더 세세한 내용은 다른 부분에서 살필 것이다.

52. 우리는 이 구절의 행동에 의아해 할 필요는 없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신성한 선생이 자신에 관해 말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 생명을 준다고 말했을 때, 그분의 살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지독하리 만큼 자연적인 생각 그 이상을 넘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야 할까? 어떤 기독교인조차도 주님이 말하신 살은 그 당시 그분이 거주하셨던 물질적 몸이었다고 믿는다. 이런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차이란 오로지 비유적 측면에서 기독교인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 뿐이다. 그들은 믿음을 수단으로 주님의 삶의 공적과 육체에서 받으신 고통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바 유대인의 관념보다 약간 더 승강되었을 뿐이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크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으라고 살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들은 자연적 인간의 진짜 모형(type)이다. 이 인간은 모든 영적 진리를 자연적으로 납득한다. 그 다음 영적 사항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연적일 뿐이어서이다.

53. 이런 의구심 있는 질문은 명백하고 충만된 상태에서 이 주제에 관한 주님의 교리가 나오게 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놓고 의심하거나 논쟁할 때, 또는 그 진리를 용인하는데 주저하는 때 조차에서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생명과 죽음은 우리가 만드는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바 우리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할 것이다. 살과 피는 육체를 구성한다. 이 구절의 경우는 주님의 몸에 관련되어 있다. 나중에 설명되었듯이 주님께서 이를 글자적이 아닌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물질적



몸이 아닌 영화하신 몸, 신성한 몸을 두고 말하신 것이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몸,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몸은 두 개의 신성한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선함과 진리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몸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 또는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만드신 것, 이렇게 하여 타락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몸, 그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분의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지혜, 지금 신성이 거주하시는 참된 몸을 구성하는 이 두 본질은 천사와 인간의 생명이다. 이것들은 그들 영혼의 양식이다. 이것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은 어떤 생명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은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온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 말씀으로서의 주님을 뜻한다. 말씀 속의 선과 진리는 주님의 살과 피이다. 먹고 마시는 상징적 차원에서 표현된 것인 바 중요하다. 이 신체적 행동은 그것과 상응되는 정신적 행동, 생명의 영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융합시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행동들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내것되게 함(appropriation)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자연적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듯 영적 요소들도 영적 몸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위 교리는 유추됨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있는 교훈적인 형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위 교리는 만일 우리가 배우고 싶어한다면 불멸하는 영혼에 어떻게 자양분이 공급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완전한 형상은 성만찬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 만찬은 선함과 진리의 신성한 원리를 영구히 표현한다. 이 두 원리가 주님의 영화된 몸을 구성하는 바 이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먹여지고 이를 수단으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자양분이 공급된다.

54. 주님께서는 위 신성한 교훈을 더 진전시키시고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 중대한 진리의 부정적 측면을 주시기 전, 우리의 거듭나는 날들이 끝날 때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약속을 새로이 하시면서 확답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생명을 가지지 못하나 먹고 마신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언어는 이미 제공된 자비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모든 이 각각은 구세주에게 와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채워질 수는 있다. 이 선물의 제공이 자유롭듯 받는 것도 자유이다.

55.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이유를 주님께서 선포하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살과 피는 본질적인 선함과 진리이다. 참으로 이것들을 먹고 마신다. 이것들은 육체의 양식과도 비교될 뿐 아니라 마음의 여타 다른 양식과도 비교된다. 마음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양식 말고도 도덕적이고 지적인 양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양식에 비교해 본다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야말로 참된 음식이다. 그 외 모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님의 것만이 필수적인 것이다. 모든 다른 것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일 뿐, 주님의 것만이 영원하다.

56. 주님께서 더 말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주님의 선함과 진리를 내 것 되게 함은 마치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만든다. 다시 말해 신성한 그분의 몸의 일부라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비스런 몸의 일부(member), 땅 위 그분의 교회의 살아있는 회원, 그 후 천국에서 그분의 교인이 된다는 말이다. 주님과 결함, 이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확고히 수용하게 하는 바 주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에 있게 해준다. 이 상태는 상호성(reciprocal)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 두는 게 중요하다. 즉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상호적인 삶은 주님의 모든 특질, 즉 그분의 자비, 진리, 거룩함에 제한적으로 참가하게 한다. 상호적으로 주님께서 내재하심은 인간이 생활과 예배에서 그분께 꾸준히 되돌아오는 것을 수단으로 신성한 작업을 계속한다. 주님은 적극적 작용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는 반작용으로 그분 안에 거주한다. 이렇게 하여 신앙자가 받은 생명은 그 신앙자가 수용하기에 적절한 신성한 생명, 즉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분의 생명이다. 이 구절의 주님의 서술은 최고로 교훈적인 유익한 서술이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분은 모든 이 각각 안에 계시지만 모든 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계신 곳, 거기에는 그분의 선함과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행복해지는데 요구되는 전부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듯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

57. 주님께서 더 이으신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육을 입으신 목적과 쓰임새를 밝히 알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이렇게 보내시고 오신다는 것을 공간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무소부재하신 하느님께서 어떤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오실 수 없다. 신성한 측면에서의 보내심과 오심이란 그분의 현존을 더 명확하게, 또는 확실히 느끼는 방법을 뜻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이것을 영원하신 분께서는 인간 본성을 입으심으로 행하셨다. 그 결과 그분의 신성한 사랑, 지혜, 권능, 한마디로 그분 자신을 인간적 생각과 애정에 더 가까이 가져다 놓으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을 보았던 이들의 감각에 직접 가져다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때의 행동과 권능을 정신적으로 실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관념 특히 이해성과 의지라는 인간의 자질에 더 가까이 가져다 놓으셨다. 육을 입으심으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거주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가장 바깥쪽 영역에, 그분 성전의 바깥뜰인 지상의 교회에 내려 오셨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인간 시야에 까지 가져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영화하신 주님의 인간 본성은 살아있는 권능이어서 우리의 것을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 주님의 이런 인성은 그분의 신성이 지닌 모든 생명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고 주님이 말하신 대목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인간은 신성한 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인성 속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르치는 장엄한 실제적 진리는 이 대목의 후반부가 결말짓듯,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 듯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의 영혼을 먹이기 위하여 인간에게 자신을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 구절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신성은 인성을 먹이고 그 인성이 우리를 먹인다. 다른 말로 말해보면, 주님의 인성은 잘 조절함을 수단으로 인간이 신성한 선물과 은총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

준다. 아주 명확한 바, 인간의 마음에 구원하는 은총과 진리가 도달하고 자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주님의 인성을 매체로 하는 것밖에는 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58.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 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로 이 주제를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빵과 구별되고 있는 이 만나란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 또는 그의 거듭남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하늘로부터 받은 선을 뜻한다. 주 구세주께서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 온 진정한 빵이란 인간이 거듭나는 삶의 시기 동안 주님으로부터 하늘을 통해 받는 선이다. 어린 시기 동안의 선은 엄밀히 말해 선이 아니다. 따라서 그 선은 영적이지 않고 구원해주는 선도 아니다. 인간이 거듭남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만이 진실로 선이다. 그 이유가 그 선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다 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이 첫 상태는 사라진다. 만일 첫 상태만이 그의 유일한 상태라면 영혼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는다. 그러나 둘째 상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둘째 상태 안에 진입해 보존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상태는 종종 부활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가 이것은 초기 삶의 선이 새롭고 더 높은 조건으로 일어나서 진실로 영적이고 살아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59. “이것은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하셨다.” 이미 살핀 바 대로 회당은 교리를 의미하고, 가파르나움은 교회의 외적 조건을 뜻한다. 가파르나움에서 가르치신 한편 회당에서 말하셨다는 것은 내적인 진리를 교회의 외적인 진리들에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60.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방금 주님께서 그의 청종자들에게 전달하신 이 위대한 교리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된 여러 사람까지에서도 못마땅해하였다. 복음 속의 진리들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는 어려운 말씀이다. 자연적

수준의 지배에서 아직 탈피 못한 이들은 그 진리를 실제 응용할 때에는 쉽사리 그 진리를 한쪽으로 제껴 버린다. 제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다른 이들이 듣기에 어려웠 듯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해 수근 거렸다. 이 말씀이 믿음과 생활의 문제로서 받아들이는데는 지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그들에게 너무나 반대되어 있었다.

61.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여기서의 또 다른 예는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다. 제자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자신들 속에서 은밀히 불평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에 관해 확증을 주신 후이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불평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짐짓 놀래는 듯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들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 말한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신 듯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외에도 이 구절에는 또 다른 교훈,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이 지각하는 것에 관한 암시가 있다. 성경 글자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분의 교리를 두고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그분 스스로 아셨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 글자의 영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평은 진리의 내면적 생명을 관통해서 진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만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본문에서 불평해댄 주제는 주님께서 청종자들에게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요구하신 대목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것이 귀에 거슬리느냐?” 고 물으신다. 어쨌든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터에 그들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성경의 언어와 형상은 그들을 그것의 신성한 의미 쪽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 그들 역시 거룩한 것인 그들이 바친 제물의 살을 먹는데는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제물이 되신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지닌 생각과 불일치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예배 모두가 이 위대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유다인에게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육적일뿐인 마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음의 이 장엄한 교리에 대한 모든 장애물의 기초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 구

세주의 선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양하려 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팔의 살을 먹는 것, 즉 자신의 자연적 선함을 신뢰하려 들고 그것만에 의존하려 든다.

62. 오히려 주님께서서는 더 불가사의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신다.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 오셨다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은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말 지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그분이 전에 있던 곳으로 승강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어떤 개념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당시 주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거슬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든 기독교인이 인정하는 바, 주님께서서는 천국으로 감지할 수 있게 승강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승강이 내포한 것을 믿고 싶어하는 자는 거의 없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은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만드심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오르심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심을 내포한다. 많은 제자들이 인정하는 바, 주님의 신성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이 신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자는 거의 없다. 복음서의 본질 되고 필수적인 이 진리를 들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인정하여 고백하는 기독교회 역시 얼마나 드문지 모른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이 귀중한 진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강하심을 수단으로 새롭고 복된 삶을 쟁취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63. 제자들에게 장애물이 된 육적일뿐인 그들의 생각과 경향성을 떠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하신다. “육은 무익하나 하느님의 영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살에 관해 말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분이 물질적 몸이 아닌 신성한 몸을 두고 말하셨다. 영혼은 유한한 인성이 아닌 신성한 인성의 덕목에 함께 함으로, 영화하신 구세주의 살아있는 몸으로부터 생명 있는 원리를 받음으로, 한마디로 영의 작용으로 소생된다.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분의 말씀은 이해성에 영감을 주고 심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주님이 말하신 것들은 그 당시 사람에 대한 주제 그 이상으로 폭넓은 응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분의 말들은 영적이었

고 살아 있었다. 그분의 인간 입술로 말해진 말씀들은 신성한 마음의 무한한 깊이로 부터 왔다. 그래서 그분 자신처럼 유한한 인간 형태로 옷입혀진 신성한 지혜였다. 이 사항들이 현 주제와 관련되는 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처럼 외관으로 판단하고 싶어한다. 설사 우리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요구하신 물질적 차원에서 글자대로 상상하면서 그들을 따른다 해서 어떤 위험은 없다. 그러나 그런 식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들을 영적 의미라기 보다 비유적인 의미라고 간주해 받아들이기 쉬운 실수를 초래한다. 많은 이들은 주님의 살과 피로 덕을 입었고 아직도 입고 있다고 믿는다. 고통받았던 살, 흘렸던 피는 아버지의 평가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가치를 가졌다고 믿기위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효능 있는 믿음을 통해 구세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구매하신 용서와 정화를 받는 가운데 그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으로 상상했다. 주님께서는 은유가 아닌 유추되는 언어를 사용해 말하시고 있다. 그분의 살과 피로 그분께서 의미하신 것은 그분의 물질적 몸이 아니라 신성한 몸의 살과 피였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대상인 물질적 몸의 살과 피에 유추되는 것, 즉 영화된 그분의 인성에 관한 신성한 원리를 뜻하셨다. 주님의 인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분의 말들의 의미에서 완전히 빗겨가고, 우리 자신에 관련되는 중대한 의미까지 찾지 못한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받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이를 수단으로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그분의 원리는 타락되고 퇴보된 창조물로 변경된 상태와 조건에도 잘 숙박할 수 있게 되었다.

**64.** 이런 용기를 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주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불신앙의 영에 소유 당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뜻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다시 구세주의 전능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다. 선견은 인간의 자유로움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그렇다. 그러나 자기들이 뜻하는 것을 수단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다. 하느님은 그들을 위해 결정하지 않으신다. 그분만이 그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아신다. 그들이 피해당하는 것이 멀어지도록 그분의 지식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 이유가 그분의 선견은 예방할 수 없는 악이 온건해지도록 그분의 섭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65. 다시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반복하신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시고 있다. 이미 살핀바 대로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 인간은 사랑을 수단으로 믿음에 이끌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은 언제나 현존하시고 모든 사람의 심정에 밀어닥치고 있다. 만일 인간이 이 사랑에 반대하여 자기의 심정을 굳히고 있다면, 하느님의 의지의 결과는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인간의 것만 잔존할 수밖에 없다. 이 구절같이 반복된 선포는 교리의 더 높은 또 다른 형태, 즉 이타애는 영혼의 첫 번째 출생되는 품위이라는 것, 그것은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원리이라는 것을 말한다. 심정 안에 이타애가 없다면 이해성에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이타애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데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하느님에 속한 교리인지 아닌지 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은 똑같은 사실, 즉 참된 믿음은 설사 지성에 소속된다 해도 심정에 그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출발시키는데, 단지 형식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66.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 다니지 않았다.” 그분의 원리,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앞 구절들에서와 같은 위대한 설명은 그분의 제자들을 흐트렸다. 이런 암울한 사실을 이 구절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저자에 등을 돌렸고,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할 길에서 자기들의 발을 옮겼다. 우리 역시 영원한 진리의 교훈에서 마음을 틀어버리는 무례함과 우둔함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 모른다. 정말 놀라웁게 두려운 상태는 “그들이 되 돌아갔고 그분과 더 이상 함께 걷지 않는” 것이리라.



67. 변절된 자들이 떠났고 사도라고 불리운 이들만이 남은 듯 여겨진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호소는 얼마나 애처로운지! 그분의 호소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였다. 사도들은 그 시대의 제자와 비교해 볼 때 영적 인간을 의미하고 영적 원리를 표현한다. 주님의 여타 다른 질문의 경우처럼 위 질문도 연설자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자의 반향을 위해 의도되었다. 이것은 자아 검증을 해보게 하는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의 바탕을 발견하도록 의도되고 있는 것이다.

68. 우리의 애정이 열 둘 중에서 베드로의 믿음처럼 외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상념해야 할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 이 구절도 대단히 교훈적이고 귀중한 구절 중의 하나이다. 시험이나 유혹이 비비꼬인 심정과 유약한 본성을 뒤흔들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도우셨던 주님을 떠나 버릴 때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오리까” 라는 신뢰 있는 질문은 그 얼마나 값있고 절실한 것인가? 베드로의 이 값진 선포는 시편 기자의 또 다른 형태로 표현되었다.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 준다면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시편 73:25). 이 시편에 이을 수 있는 고백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이다. 영원한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도의 선포는 예수께서 장엄한 교리를 주시자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그분을 떠나 간 빈약하고 믿음없는 제자들의 행동과 정면으로 대비되고 있다. 비참할 뿐인 제자들이 빚어낸 것 같은 모습, 그것이 연약하고 망설이는 마음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강한 자를 더 강화시켜 주고, 더 탄탄하게 확증을 더해주고도 있다. 결정적인 때와 상태는 교회나 개개인의 기독인을 위해 좋을 수 있다. 그런 때나 상태들은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내어 다른 가지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더 알찬 결실을 갖게 한다. 비단 이런 것은 제자들 사이에만 있는 시련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 내부에서도 있다. 시련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짜와 가짜를 그들 마음 안에서 분리시켜 준다. 그리하여 참된 것과 진짜를 주님이 계시는 최고의 선과 더 친밀한 관

계로, 더 가깝게 연결시킨다.

69. 용기 있고 헌신적인 제자가 그와 그의 동료들이 따라가기로 결의한 그분의 품성을 자아내는 대답은 그 얼마나 고귀한 증언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확실합니다.” 이는 대단히 유명한 고백이다. 이 고백에서 베드로 또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발표되었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터인 바 지옥의 권세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한다고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또는 거룩한 분으로 예수를 인정함은 베드로의 이전 선언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또는 거룩한 분은 신성한 진리, 진리의 원천, 인간에게 거룩함 자체로서의 주님에게 적용되는 이름이고, 또한 신실한 자들로 형성되는 교회에 응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사도가 말하는 확신은 우리의 칭송을 받을 만 하다. 즉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사도가 말한 믿음에는 불확실성에 속할 어떤 의혹도 전혀 없다. 이 대목에는 어떤 제자들 같이 주체 넘은 건방진 확실함 같은 것이 없다. 참된 제자의 믿음과 확실성은 바깥 측면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주요하고 본질적인 것, 내향의 증거에 두고 있다. 그의 것은 지식에 놓인 믿음이고, 경험에서 자라난 확실함이다. 즉 주님은 불변하는 진리, 구원해 주는 진리의 저자이시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저자이시다는 원리에 대한 믿음과 확실함이다. 우리가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그 사람, 감격적인 말을 내뱉은 그 사람은 예수가 무한한 사랑의 무한한 지혜이셨다는 것을 경험과 신념으로부터 알았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해성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의 심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답해야 한다. 당신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으로부터 출현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는 미약하고 죄있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전부요 그들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아왔고 느껴오고 있어야 하리라.

70. 베드로의 위 구절 같은 열렬한 선언과 고백에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너희 열둘은 내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 대목은 이런 암시를 비추시려고 의도하신 듯 여겨진다. 비록 많은 제자들이 불신앙을 노출하고 그분을 떠날 때 비록 사도들이 그분 곁에 남아 있다 해도 그분이 뽑은 숫자 안에도 쓰라림의 뿌리는 있다는 것, 인간의 결점 그 이상의 어떤 것에 관한 요소가 있

다는 것이다. 사도란 인간 마음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원리들을 표현한다. 사도들을 열 둘로 모아서 부를 경우 그들은 믿음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거듭나는 동안 천국적이고 영적인 상태로 입문한다. 그 이유가 인간이 거듭나는 동안, 즉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로 되는 동안, 지상적인 존재로부터 천국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는 동안 그는 주님께 의해 다양한 상태를 통과해 인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인도되는 전체 상태, 일반적인 상태가 주님께서 열 두 사도를 연속적으로 뽑으시는 것, 구약 성서의 경우 열 두 지파의 선조가 연속해서 출생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도들 중 한 명이 악마였다는 것은 인간의 부패된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이 자아는 그의 모든 활동들, 특히 거듭나는 초기에 있는 그의 활동 안에 많은 적든 스며 있다. 인간 본성일 경우 이 요소는 뱀으로 표현되었다. 뱀은 근원적 차원에서 인간을 현혹했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주님을 유혹했고 배반했던 그 때까지 군림했다. 그리고 이 뱀은 구속의 일이 완성됨으로 정복되어 내쳐졌다.

71. 주님께서 가리키신 그 사람은 “가리웃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였다. 유다는 비록 열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자였다.” 시몬의 아들 유다는 거짓으로부터 파생된 악을 상징한다. 우리 각각은 설사 부분적으로 거듭나는 상태에 있을 때라 해도 우리 자신의 심정에 유다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가 하느님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면전에 모여 있을 때 조차에서도 사탄은 그들 사이에 오기 때문이다. 그 인물의 됴됨이가 훌륭해서, 또는 신성한 존재가 승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장소와 직능을 위해 선택되도록 거기에서 있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설사 우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인정하는데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할 수 있다 해도 정작 우리가 환영한 그분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심정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거듭나는 삶 안에서 심정 속의 유다가 주님을 실지 행동으로 배반할 수 있게 하기까지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주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시험은 지옥으로부터 오고, 각자의 부패된 본성 속의 악을 동요시키지만 그것의 행위는 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시험은 그 시험을 오게 한 악을 거절해서 끝낸다. 그리하면 주님은 거듭남에 반대하는 적의 권능에 맞서 승리하게 하신다.

## 7

1. 본 장은 우리에게 이런 통찰을 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으려고 했으므로 유다 지방으로는 다니고 싶지 않아서 갈릴래아 지방을 찾아 다니셨다.” 앞의 여러 장에서 본 바대로 실지로 권능을 지니시어 자신을 보호하시고도 남는 그분이 유대인의 분노나 음모를 두려워하실리 없다는 것은 새삼 말할 건수도 안되리라 본다. 그분이 유다 지방을 다니지 않고 갈릴래아 지방을 걸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교회 내에 신중하고 슬기롭다는 이들에 의해 미움받고 거절될 때, 교회밖 순박한 이들에게서 그 안식처를 발견한다는 것을 본보기화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분의 두 원리는 설사 무지함이 어느 정도 동반된다 해도 차라리 선함이 있는 곳에서 그 원리의 적극적 현존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주님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 의미가 유다지방이 아닌 “갈릴래아 지방을 걸으심”으로 특별히 뜻하고 있다. 그 이유가 걷는다면 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훈에 따라 사는 이들 사이에서 걸으신다.

2.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 명절은 유대인 교회의 가장 큰 명절 세 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사랑으로 그분과 결합하는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고 최고대 백성에 의해 성막에서 있었던 주님께 대한 가장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도록 제정되었다. 거듭나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예징하는 명절이어서 그것은 선의 이식, 그러므로 악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됨을 의미했다. 이 명절은 인간의 거듭남과 주님의 영화하심을 묘사하고 있다. 이 명절에 예수께서 참석하심은 위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명절이 가까웠다고 말해지는 바, 이것은 명절이 표현한 상태에 접근됨, 그리고 영화하시는 그분의 일과 구원하시는 작업의 완성이 확실히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유가 가까움의 영적 의미는 상태의 근접 또는 확실함이기 때문이다.

3.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 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훌륭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이 명절은 가장 높은 상태를 표현하는바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낮은 동기로 들어가게 하려는 유혹을 받으시는 것을 표현하는 상황과도 연결되고 있다. 육적 관계로 있는 주님의 형제는 육 그 자체의 원리를 표현했다. 마치 그것이 주님의 어머니쪽 인성 안에 존재한 것과 같다.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바, 그것은 주님의 형제들이 그분에게 명절에 올라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때와 방법, 목적면에서 주님의 의도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의 요구가 표현한 것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지혜에 따라 행동되어야 하는 것을 자연적 신중함에 따라 자연적 사랑으로부터 행동하라는 주님께 대한 시험이다.

4. 그들이 예수께 유다로 가라고 종용한 근거는 “널리 알려지려면 숨어서 일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평판을 추구하지 않았다. 물론 그분이 하셨던 일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분은 공적으로 추구하신 적이 결코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관련되어야 할 경우에도 침묵하도록 명령하셨고 흔히 남모르게 베풀어주시려 애쓰셨다. 그분께서 형제들의 권유에 따라 결코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뱀은 말,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같이 알려지고 싶은 바램은 자연적이고 이기적인 바램이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의 일이 공개 될 때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칭찬을 예상하여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그 사람의 선행의 목적은 아니다. 그 외 “세상”은 그 단어 자체에서 같이,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되듯 천국에 반대된다. 이 구절의 사건에서도 주님은 그분의 일을 두고 칭찬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

5. 그들의 요구가 주님의 참된 목적에 근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이렇듯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금방 나타난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 자체이셨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 중에서 어머니 쪽의 요소는 모든 목적에서 신성에 반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거듭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 안에서도 자연적 인간은 영적 인간에 반대되어 있다.

6. 이것이 주님 자신에 의해 더 선포되고 있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영적 인간은 완전해짐 쪽으로 계속 진행되지만 자연적 인간은 더 나은 상태를 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다. 주님 안에서 조차 사람의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나누어 주지 못하는 발전을 계속하였다. 사람의 아들에 꼭맞는 상태는 미래에 있었고 마리아에 걸맞은 상태는 현재였다. 주님의 “때”는 영화하신 “그분의 상태”였다. 이 상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분의 형제들의 때는 현재와 같은 상태, 자연적 마음으로 굳혀진 상태였다. 때는 상태를 뜻한다. 주님이 영화하시는 상태는 아직 충만 되지 않았다. 자연적 마음뿐인 형제들의 상태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영적 인간의 예배는 영적 사랑으로부터인바 그 사랑과 상응되어 있다. 자연적 인간의 예배는 자연적 사랑으로부터인바 그 사랑은 그분의 행동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또한 그 사랑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7. 위 차이점의 바탕을 주님께서 밝히 알려신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워 내기 때문이다.” 자연적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세상과의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시험도 없다. 영적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 더구나 여느 사람들에게 있게된 어떤 다툼이나 시험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가 주님 안에서의 경우였다. 그러나 시험의 때는 단식의 때이다. 그 이유가 단식은 자아부정과 상응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태일 경우 영적 인간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갈 수 없는바, 명절과 축제로 의미되는 것인 선과 진리에 흥미를 더하거나 그것을 음미할 수 없다. 자연적 인간은 이런 시험을 가지지 않는다. 그의 단식과 명절은 동등하게 형식적인바, 아무 때든지 명절을 지킬 수 있고 단식할 수 있다. 그야말로 그의 상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예수께서 그분의 형제들에게 그분이 세상의 악한 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한다는 그분의 선포는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아왔고, 늘 받게 되는 미워함과 적대시함의 진정한 바탕을 밝히 알게 하고 있다. 진리는 자연적 인간, 또는 자연적 마음에 의해 미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자연적인간 고유의 부패함과 악한 행위를 들추워 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사용의 법칙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참으로 밝히 알려지고 명백해진 두 측면 모두에서 신성한 진리의 최말단적인 사용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직능은 두 가지, 즉 자연적 인간이 그것을 미워하는 측면에서, 영

적 인간은 그것을 찬양하는 측면에서 사용된다. 영적 인간은 진리를 알고 싶어한다. 그 이유는 진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서이다.

8.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셨다. “너희는 어서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라.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분의 형제들더러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이르신 주님의 말씀이 암시하는바, 자연적 인간조차도 종교 예배의 어떤 종류에 참가해서 말씀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것은 모세에 의해 설정된 명절을 지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기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법을 준수하도록 그분의 형제들에게 권면한 것이기도 하다. 그분 스스로도 이 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명절을 지키셨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는 목적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셨다. 그분은 이 명절의 원형으로 그것들과 연결하여 완성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는 아무도 몰랐다. 올라가실 그분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9. “예수께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갈릴래아에 머무르셨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과 함께 머무신다. 설사 진리의 총명이 덜 한 수준의 사람이라 해도 선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와 함께 현존하신다.

10. “형제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가셨다.” 주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신 모습이란 거듭나는 마음 안에는 감추인 작용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신성하고 천국적인 진리의 발전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내적 인간 안에서 거행되는 것. 거기에 현존하는 것은 지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외적 측면에서 모습을 명백히 할 때에만 지각된다. 내적 측면에서 있어지는 지각할 수 없는 주님의 현존과 작용이 마치 비밀리에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의미되고 있다. 은밀히 말해 알려지지 않는다는 위의 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그것은 믿음에 밝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 차원에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치”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말해져 있는 것이다.

11. 주님의 현존이나 작용이 은밀하게, 또는 감추여 있게 된 듯 하는 이유는 외적 인간 속의 악들이 신성한 진리를 파괴하려 들지 않도록 하려 해서이다. 이런 악들이 바로 “명절 동안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며 찾아다닌” 사람들이다.

12. 그렇다고 자연적 마음이 위와 같은 악들에 완전히 소유당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군중사이에서는 예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그는 좋은 분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견해가 틀려 있어지는 싸움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서도 있다. 이런 다툼은 영적 삶이 진보하는 동안 선과 악, 참됨과 거짓 사이에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다툼은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때에서조차 경험된다. 그 이유가 사람은 자신이 확인하기에 앞서 의심의 상태에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영접하는 그의 수준이 더 내면적으로 될 수 있어 승리한 이 후 그는 더욱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13. 의심하는 다툼의 상태는 언제나 바깥쪽, 공개적인 것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단된 마음의 내면의 일일 때가 흔하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에 관하여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는 것 안에 의미되어 담겨 있다. 유대인을 두려워함이란 악을 반대하는데 있어 두려워함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를 좋게 평하려는 이들에 의해 느껴져 온 두려움임에 틀림없는바, 이 두려워함은 악과 거짓에 반대하거나 그것들의 영향력 때문에 진리가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함축하고 있다. 예수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좋게 평가하는 백성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는 군중을 속이고 있다고 결론 맺은 부류도 있었다. 선함은 진리를 테스트하는데 최적의 기준이다. 무엇이 교리의 실제적 경향성일까? 이것은 진리의 공과를 결정하는데 제일 가는 질문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는 군중을 속이고 있다” 고 하는 종교적 진리에 반대하는 소리에 함세해 함성을 지르는데는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교리는 행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방패의 황금 측면이다.



14. 위 말다툼의 주제가 되었던 “예수께서는 명절 중간쯤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 시작하셨다.” 명절 중간쯤이란 그 명절이 표현한 가장 깊은 선이다. 그리고 성전은 신성한 진리이고, 이 진리는 주님의 몸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성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바,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깊은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그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무리와 은밀히 있는 그분의 친구들 사이에 그분이 나타나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움다. 여기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 마음이 진리를 보는 관점을 놓고 다툼이 있어 심하게 흔들릴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진리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명백히 보여주시어 악을 이기고 선을 더 한층 강화시키는 그분의 기회를 발견한다.

15.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들이 기이하게 여겼을 것은 당연하다. 그분은 율법박사들 중의 한 명도 아니었는데 지혜를 능란하게 발표하셨는바 이는 시시하고 생명 없는 학교의 공론을 훨씬 넘어 있다. 인간의 지식이 유용하다해도 그것 모두를 훨씬 능가하는 학식이 그분에게서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천사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비교할 경우라든가, 인간의 진리를 신성한 지혜에 비교할 경우 견줄 상대가 못되는 경우와 같다.

16. 주님 스스로 이렇게 가르치신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그분의 가르침(doctrine)은 인간의 것이 아닌 근원에 속하는 가르침이다. 영적으로 이해해본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과 선함의 가르침이다. 이는 아들만에 속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선함과 더불어 그분의 영향력과 권능에 속하는 비밀, 그분의 지혜 속의 비밀이었다.

17. 주님의 교리는 그분의 사랑에 근원을 두었는바, 그분의 교리는 사랑에 의해서만 그 진가를 인정할 수 있고 납득도 가능하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14:21). 신성한 모든 교리(가르침)는 그 교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성한 교리는 선을 참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참으로 진리는 도구인바 이를 수단으로 하느님 안에 있는 무한한 선함은 인간 안에 있는 유한한 선함을 꼭 붙든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의 어떤 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마음에 은근히 심어 진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는 그 선함을 불러내서 완전해지도록 고안되어 있다. 비록 주님의 교리(가르침)가 진리이지만 그것이 선인 것도 분명하다. 그 이유가 형체상으로는 교리가 진리이지만 본질상으로는 선이기 때문이다.

**18,19.** 주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정직하여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영적으로 이해할 경우 이렇게 가르친다. 만일 주님의 교리가 진리만에 속하였다면 그 결과는 지적인 영광만을 발견한다는 것, 그분의 선함보다는 그분의 지혜 때문에 하느님을 드높이도록 인간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총명 때문에 그분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등등이다. 그러나 진리는 그분 자체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과 선함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렇게 행하는 것만이 참되고 그 안에 불의한 게 없다. 그 이유가 진리는 진리가 가르치는 선인 정의로운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실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위해 서로 미워하고 박해하면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은 선함 위에 진리를 놓는다. 그리고 진리를 채용하여 선함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변조시킨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지 또는 잘못에 대해 인간 존재를 나무라신다는 견지를 유지하려드는 이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정의롭다 해도 진리의 영광을 추구할 뿐 진리를 보낸 사랑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만일 인간 사이에 있는 진리가 선함의 특사 내지 매개체가 아니라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도덕적, 정치적, 과학적 진리는 그것의 유용한 응용과 결과 안에서, 다시 말해 그것이 응용되게 하는 선 안에서 그 진리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을까? 건강문제를 도외시한 생리학은 무엇일까? 시민의 질서와 안전을 도외시한 시민법이라면 그게 무엇이라 해야 할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대인에 말하신다. “너희에게 율법을 제정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진리를 존경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영광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요구하는 선함, 진리를 보낸 선함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율법을 거룩히 여겼으나 율법에 순종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실제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파괴하려 애쓰고 있는 셈이다. 즉 율법이 인물화된 분, 예수를 죽이려 들고 있는 것이다.

20. 율법 되시는 분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즉 율법이 근원된 신성한 선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서 거리가 먼 유대인들인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악마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선에 반대된다고 고발했다. 다시 말해 거짓에 근원을 두고 있는 근본된 악이라고 참소했다. 더불어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그러므로 그분이 말한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의 진리는 그들 자신에 반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선함과 진리 모두를 뒤집고 있다. 악한 이들은 설사 신성한 진리가 그들을 고발하는 장소에서조차 자기들이 선함이나 진리의 파괴자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용인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가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선이라고,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우기기 때문이다.

21. 주님께서 언제나 그래오셨듯이 여기서도 악담하는 적들의 고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하신다. “내가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하여 너희 모두는 놀라고 있다.” 이는 5장 8절에서 베짜타못가의 병자를 치료하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 일은 경이로움을 자아내 주었다. 그러나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는바 유대인의 분노를 자극했다. 기적이라 해도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 안에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미미한 것으로 전락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기적들은 참으로 확신시키려고 의도되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놀람과 존경 같은 느낌을 강하게 인상 지워서 행동본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통해 지적 본성까지도 영향을 받게 하는 것뿐이다. 어찌됐든 실제로나 지적으로나 반대하고자 작정한 이들에게서 기적은 그들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거나 환심을 사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굳히는 상태로, 더 격양된 상태가 되게 한다.

22,23. 기적 한 가지에 너희 모두가 놀랐느냐고 말하시면서 왜 안식일에 그 기적이

수행되어도 율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신다. “모세가 할례법을 명령했다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내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 - 사실 할례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 너희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온전히 고쳐 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할례는 그분이 그와 더불어 만든 계약의 표(seal)였다(창세기17:10). 이것은 육적인 욕망 또는 불순한 사랑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해짐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로 받아들여짐, 깨끗해짐을 통해 삶이 새로워짐을 표현했다. 할례는 선조(fathers)로부터 라고 말해지고 있다. 선조란 영적으로 고대 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회에서는 규범으로 할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깨끗해짐에 관한 교리는 그 교회에서 근원 되었다. 이와 유사한 깨끗해짐이 세례로 표현되었다. 세례는 기독교회로 받아들여진다는 표시(sign)이다. 그리고 이는 심정과 삶의 깨끗해짐을 의미하며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새 창조물이 되어간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으로의 치료는 이와 비슷한 영적 의미를 가졌다. 그 이유가 질병의 제거는 죄의 제거와 정의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깨트리지 않고서도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었다. 비록 그들이 안식일과 관련된 예식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안식일에 복주시는 일을 하신 주님께 관련해서는 반대하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어쨌든 자비의 이런 일들은 그것이 수행된 거룩한 날에 꼭 맞는바 그것은 거룩하고 복된 의미의 한 부분, 즉 주님의 오심으로 도입되어진 거룩한 상태의 예징이 되는 날의 한 부분이었다. 안식일은 창조의 옛새 후에 주님께서 쉬신 것을 기념하도록 제정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의 창조는 영적인 창조를 뜻하는바 그것은 주님의 영화하심과 인간의 거듭남이다. 그래서 영화하심과 거듭남은 생명과 건강이요, 쉼과 평화이다. 사실,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구원, 이는 인간 안에서 선한 것과 참된 것의 하나됨인데,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남아 있는 쉼이고, 이 쉼이 천국의 입장이라는 면류관을 쓰는 조건이기도하다.

24.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어 침묵된 군중에게 이런 권면으로 말을 맺으신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 말씀은 외적인 백성에게 가장 절

실하고 유익한 충고이다. 물론 모든 이에게도 유용하다. 법의 글자에 노예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그 법의 영을 소홀시하여 어긋나기까지 하였다. 예수의 복주시는 일이 법에 어긋난다고 단죄한 것은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서였다. 글자는 진리를 외관보다 조금 더 포함하고 있다. 정의 또는 공정, 판단하는 것조차 신성한 말씀의 영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의 영이 말씀의 영에 순응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정의로워지게 해놓아야 한다. 정의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선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 모두를 가져야 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모두로부터 판단해야 한다. 진리만으로부터의 판단은 외관으로부터의 판단이나, 선과 진리가 하나된 상태에서부터의 판단은 공정한 판단이다.

25. 죄를 깨닫게 하는 위압적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결과 예루살렘 주민으로부터 이런 문의가 있어지게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지혜의 말들을 쏟아놓는 입술을 지닌 그분을 죽이려 찾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왜 이 문의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의해 말해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교회, 특히 교회의 교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참 교리는 주님의 선과 진리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과 악이 참 교리를 죽도록 미워해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26. 그들은 더 말하고 있다.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죽이려드는 사람들의 방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말하신 모습은 그분의 현존과 연설은 죄를 자각하려 들지 않는 사람,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서조차 발동되는 신비스런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의 연설의 매력은 마치 야만적 본성을 바꾸어 놓지도 않은 채 귀 기울인 짐승을 황홀하게 한 오르페우스의 우화적 음악 같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신성한 권능과 영향은 악에 속한 많은 행동을 예방해서 질서를 파괴 않고도 지상으로부터 평화를, 천국으로부터 행복을 가지게 해준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관한 의구심에 반쯤은 근원이 된 듯 나타난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이 질문은 마음에서 일으켜지는 물음, 즉 마음

을 통치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혼의 최고 통치자로 만드는 사랑의 진리들에 신하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물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기름부어진 자는 신성한 사랑이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 그래서 이를 참으로 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실제로 아는 것이 된다.

27. 이제 우리가 말했었던 것에 관한 의심이 오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자연적 인간이 예수의 인성에 관해 당혹해함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서 얼마나 계속해서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그들 자신의 견해에서 그들은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을 마리아의 아들로써, 어떤 이는 요셉의 아들로써 생각한다. 이것가지고 그들은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신성이 담긴 인성일수 없다고, 생명을 나르는 빛일 수 없다고 결론 맺고 있다. 유대인 자신에 국한해 볼 때 두 서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헤로데에게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보고한 것과 본문의 경우같이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오시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모순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학설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후 마치 모세가 에집트에서도 망했을 때 같이 사라지셨다가 아무도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모르는 가운데 백성들 사이에 다시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그분의 출생으로 떠들썩했다가 공적 관심에서 사라지셨다. 그러나 그분이 삼십 년이 지나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잘 알려졌었다.

28,29.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정녕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주셨다.’ 이 구절의 경우 주님께서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참 의미 측면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이 나자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

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인간 어머니를 알고 있었으나 그분의 신성한 아버지는 몰랐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즉 신성으로부터 출현되어 나온 인성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성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어머니로부터의 인성은 아버지로부터의 인성을 덮은 물질적 덮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의 육체가 진짜 인간인 그의 영혼을 위한 덮개인 것과 같다.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그분은 그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르는 참되신 그분이 보내셔서 왔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참되신 그분이란 왜곡된 모든 선과 구별되는 참된 선이다. 참으로 우리가 참된 선이라 하든지 참된 하느님이라 말하든지 똑같다. 그 이유가 하느님은 선함 자체이시기 때문에 선함으로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진리 자체로서 또는 참된 하느님으로서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에 관한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진리가 가르치는 것인 하느님의 선함에도 반대된다. 이렇고로 해서 주님께서 자주 선포하신 바, 사람들이 그분께로 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에 의해 이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또는 신성한 진리를 모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 또는 신성한 선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을 알았다. 그 이유는 주님은 그분으로부터 였고, 그분에 의해 보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이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아버지를 밝히 알릴 것이다.” 사랑만이 지혜를 알고, 지혜만이 사랑을 안다. 신성만이 인성을 알고, 인성만이 신성을 안다. 이는 우리 안에서도 꼭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수단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면 지혜가 사랑을 아는 이유는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이고 사랑에 의해 보내졌기 때문이다. 주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보내져서 왔다고 말하셨다. 불과 같은 신성한 사랑의 열렬함은 빛과 같은 신성한 지혜를 내보낸다. 지혜는 그 자체로, 제스스로 오지 않는다. 지혜는 보내진 자(the Sent)이다. 그래서 보낸 자를 밝히 알리는 자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처럼 심정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빛처럼 지혜를 이해성으로 보낸다. 우리는 사랑과 지혜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 안에 쌓아둘 수 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빛은 생명 있는

사랑으로부터만 와진다. 이와 같은 것을 본문의 유대인의 경우로부터 배울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참된 지혜 역시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다.

30,31.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에 관한 진리가 주님의 연설의 결과이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양면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그분께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서였다.” 진리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서 반대되는 결과를 빚어낸다. 악한 자의 경우, 위 본문의 예와 같이 반대함이 의지 안에 있으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적들의 마음에서까지 좌지우지하시는 신성한 구세주의 비범한 실제적 영향력에 기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향력은 제지하는 권능밖에 더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자명한 것, 비록 신성한 권능이 사악한 자의 행동을 억제해 놓을 수 있다해도 이 세상이든 저 세상에서이든 사악한 자의 의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악한 행동의 억제는 이 구절에서조차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의지가 자유로이 되면 모든 굴레를 부수고 실제의 악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한 이유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서였다. 그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너희의 때이고 어둠의 권세의 때이다.” 본문에서는 억제되고 그 후 멋대로 하게 되는 한가지 원인은 악의 왕국에 의한 권능의 발휘가 덜 되거나 더 세어지는데 있고, 인간이 그것과 협동하는데 여러 가지 등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주님의 인성의 상태에 의존되고 상응되고 있다. 그분 자신의 시험을 이 본문의 때까지는 비교적으로 볼 때 내적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때가 가까웠을 때, 이런 시험들을 가장 충만된 조건에 진입해 있어 주님의 유전적인 삶의 가장 안쪽과 가장 바깥쪽에서 한꺼번에 발생하여 죽음을 초래하고 동시에 불완전하고 유한했던 모든 것을 벗으셨고, 일시적인 쾌거는 사라지고 대신 어둠의 왕국을 영원히 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손은 권능의 최말단을 의미한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이유가 악의 권능과 시험이 활동적인 권세가 발휘되는 마지막 수준에까지 그 자체가 발달해 있지 않아서였다.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악한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한편, 그분의 말씀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생산해주었다. “군



중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정말 온다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 군중들은 그분의 기적적인 일들을 그분이 메시아 되신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였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들을 표시(sign)들로서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란 단어가 뜻하는 것이다. 기적의 일들이 의지를 통과해 이해성에도 작용할 때 기적은 표시가 된다.

**32.**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과 사제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장교들을 보냈다.” 자연적 생각과 느낌들이라는 군중의 중얼대는 마음의 보다 수준 높은 힘들을 행동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해성과 의지는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원리들이 왈가왈부해보아야 감히 시도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성취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하나된다. 바리사이파 사람과 대 사제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장교들을 보냈다. 악이 선에 피해를 입히고 결국 파괴하려 할 때 선함 또는 진리로 걸을 이룬 어떤 것을 도구 삼아 일을 시작한다. 악이 말씀 속의 진짜 진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 할 때 마치 악마가 예수를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수단으로 자기 권세 아래 있게 하려 시도했을 때같이 말씀의 걸 진리들을 이용한다. 그 이유는, 진리와 외관상 인척관계에 있지 않은 완전한 거짓은 진리를 붙들어 자기 권세 아래 가져다놓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저 세상의 삶에서 악이 선을 피려들 때 악은 단순한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수단으로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악은 말씀 속의 진짜 진리를 반대하려들 때 말씀의 바깥쪽 진리들(apparent truths)을 사용한다. 마치 유대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할 때 장교들을 채용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장교들의 행동에서 외관상 진리의 각기 다른 품성과 행동의 독특하고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된다. 장교들은 예수를 잡고자 바리사이파 사람들로부터 나갔고, 예수의 면전으로부터서는 그분을 잡고 싶은 생각도, 힘도 없이 되돌아갔다.

**33,34.** 명령을 하달 받은 장교들이 예수 앞에 당도했을 때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신 모습을 발견했다. 더구나 경청하도록 강요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얼마 동안은 너희와 같이 있겠지만 결국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 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가 없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현존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말하신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위와 똑같은 말로 제자들에게도 말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와 지금의 경우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제자들의 경우, 그분은 다시 오시고 영원히 그들과 거하시리라고 말하셨다.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의 경우에서도 악하든 선하든 모두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지상에서 그분의 말씀은 모든 이와 함께 현존하기 때문이다. 선한 자는 말씀 속의 진리를 이해해서 행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악한 자는 진리를 뒤집으려고 발버둥친다. 이 세상 삶의 짧은 시간이 가버릴 때, 교회 내에서 살았던 악한 자는 거기서도 계속 진리를 바래고 추구하나, 그 추구는 진리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인바, 그것은 자비 덕분에 그에게서 감추여 놓인다. 그와 반대로 참된 제자에게는 지상에서 덜 이해해서 덜 행동되고 말았던 것들이 완전히 충만 되고 완전해지도록 진리는 그 속을 드러낸다. 참으로 악한 자는 진리로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저 세상 삶에서 진리는 사랑과 더불어서만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받고자 바라는 이들에 의해서만 발견될 뿐이다. “결국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위와 같은 맥락이다. 이 세상의 경우 진리는 사랑과 분리된 채 존재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죽음에서 진리는 그것을 보낸 분께 돌아간다. 진리는 사랑의 품으로 귀향한다. 저 세상에서 설사 악한 자가 계속 진리를 추구하여 문을 두드린다해도 그들은 발견할 수 없다. 악한 자는 진리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그 이유가 악한 자는 진리가 거주하는 사랑에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의미에 있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도 적용된다. 유대 백성에게 전달된 사항들은 유대 교회에도 적용된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교회로부터 떠나신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 교회도 죽었다. 그분의 일어나심은 새로운 교회에서 였다. 이 교회는 사랑의 진리(the Truth of Love)로서 그분을 영접한 이들 사이에서 건설되어졌다.

**35,36.** 유대인은 스스로 주님에 관련해 거행된 것을 실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자기를 찾아 내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셈인가?” 본문

의 유대인이란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열 지파, 그리고 바빌론으로부터 귀환하지 않은 유다 백성을 의미했다. 이 백성들이 떠나가 있는 동안 주님의 교회는 그림 사람과 이교도들에게로 옮겨졌다. 또한 이방인 사이에 흩어진 사람들은 구약성서에서 자주 반복된 약속에 따라 모아지기도 했다. 그 이유가 영적일 경우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은 이방인 사이에 보존된 선함과 진리의 영접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본문의 유대인같지 않게 그들이 받았던 선함과 진리를 뒤집거나 모독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방인의 원리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안에 흩어져 있어 왔던 진리와 선들을 수단으로 인생 초기에서 받았던 주님을 영접하는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루터기(remains)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사가야 이렇게 말할 때의 그들이다. “그 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 싹은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가 있는 곳에서 영광이 빛나리라...야훼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깃발을 드시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자들까지도 불러들이시며 유다에서 쫓겨난 자들을 땅의 구석구석에서 모으시리라” (이사야11:10,12). 우리 주님의 말씀들의 이런 의미를 암시한 유대인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섭리는 그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들의 자연적인 생각과 말들을 구부리신다. 유대인들은 미래에 주님께서 역사 하시는 것에 관하여는 총체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이렇게 계속 수군거렸다. “우리가 자기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다느니 또는 자기가 있는 곳에는 올 수 없다느니 하는 말은 대관절 무슨 뜻일까?” 자연적 인간이 이런 주님의 말들을 말해보아야 그것은 어둠뿐이다. 주님의 영화하심에 관한 진리가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표시인 거듭남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37. “그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은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여겨 왔다. 주님의 강연의 형체는 사제들이 다른 축제의 날에서와 같이 이를 수행했던 그 행동과 관련된다는 것, 즉 이사야의 예언적 노래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고 노래했듯 (12:3), 성전의 산 아래

로 흐른 실로아의 시냇물에서 길어온 물을 금잔에 담아 제단에 쏟아 붓는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물을 받아 마시기를 원하는 모든 이를 생명 있는 물의 샘이신 그분께로 초대하고 있다. 진리를 바라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이다. 이 유추(analogy)는 대단히 표현적이고 교훈적이다. 목마름은 신체가 물이 필요할 때 요구되는 자연스런 갈망이다. 진리를 실지 바라는 것이 영혼의 원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갈망은 영혼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필요로 해서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 원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께로 가야만 한다. 그분만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분께 오라는 초대는 축제의 마지막 날과 대단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초대에 응함은 축제의 마지막 날로 표현된 것인 구속의 마지막 작업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을 쓰는 선물이다.

38.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그분께 와서 이 선물을 받아 사용해야 할까? 우리는 믿음을 수단으로 주님께 오게 되어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뱃속에서 살아 있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적 의미에서 믿음(faith)은 주님이 구원의 저자, 거듭남의 저자 되신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살아 있는 신념과 신뢰이다. 확신함(belief)은 기독교생활의 품위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주님과 연결하여 그것을 받는 자로서 그분을 가져다 놓는 제자 안에 있는 살아 있는 신념의 상태이다. 그래서 믿음은 당사자로 주님을 받게 만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타인에게도 흘러들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신뢰함(trust)은 샘일 뿐 아니라 시냇물이기도 하다. 불신앙자 안에서 진리는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이다. 이 물도 허영심이나 말싸움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인공적으로 휘저어 질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휘젓는 동작으로 심정으로부터 솟는 살아 있는 시냇물이 될 수 없다. 믿는 자 안에서 진리는 살아 있는 물이다. 그래서 그 물은 강이라는 총명으로 살아 있게 솟아 흐른다. 그리고 배(belly)로 의미되는 생각을 통해서도 흐른다.

39. 위 사항이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말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 때는 예수께서 영화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다.” 진짜로 믿는 자와 형식적으로 믿는 자 사이에 오 갈 수 없는 선(line)은 이런 것이다. 신앙자는 그분의 진리뿐

아니라 성령도 받는다. 비신앙자는 진리는 받으나 성령은 받지 못한다. 진리는 감각을 통해 성경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워진다. 그러나 성령은 영혼을 통하여 오고, 성령으로부터 배워진 진리 안으로 들어가 죽은 자의 진리를 살아 있는 신앙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예수의 영에 의해 행해진다. 신약성서에서 말해지는 예수의 영은 구약에서 언급되는 여호와와 영이 아니다. 예수의 영 또는 성령은 주님의 영화된 인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영향이어서 육 안에 계셨을 때 있었던 주님의 일 속의 모든 덕목(virtue),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분의 인간 본성이 영화되심으로 획득된 주님의 구속과 구원의 공적과 정의를 운반해준다. 보존된 상태의 영과 거듭남의 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표해 놓기 위해, 성령은 아직 있지 않았다. (주어짐이란 단어는 써넣은 문구이다) 그이유가 예수께서 아직 영화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의 영, 즉 두 번째 아담의 영이라는 것, 이 영만이 첫 번째를 통해 죽어 있었던 이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40,41. 위 진리의 발표는 마치 약속된 결과를 작업해낸 듯 보인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저분은 분명히 그 예언자입니다.’ 또는 ‘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여기서 말해진 예언자는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기로 된 자, 또는 모세에 의해 약속된 자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특사로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예언자란 진리의 교리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가 교리 안에서 주님을 받게 될 경우 그분은 우리에게 예언자 되신다. 그러나 진리되신 분으로 받는다면 그리스도 되신다. 주님은 진리 자체이실뿐 아니라 교리 자체이시기도 하다. 그 이유가 모든 교리는 그분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오고 그분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분은 합리적 수준의 마음 안에서는 교리이고 영적 수준의 마음에서는 진리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했을 경우 그분은 우리 안에서 교리이고, 지각했을 경우 진리 되신다. 그러므로 교리는 진리의 전조(forerunner)여서 진리를 인정하는 길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조차 주님은 예언자로서 영적으로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서 받는 이들이 있게 된다. 그 이유가 거듭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이런 측면에서 받기 전에 저런 측면에서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 즉 주님이 예언자이신지 그

리스도인지에 관해 의심하는 부류가 있다. 특히 인간 마음은 진리 중에서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이나에 관해서 의심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의심자가 되어 있다. 의심은 인정함에 선행되고 있다. 우리가 지닌 의심의 속성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있겠는가?’” 이 경우에서의 의심 또는 의의제기는 여타 다른 경우 즉 진리에 대한 의의제기나 반대같이 오류에 바탕을 두고 있다.

**42-44.** 예수가 그리스도이는데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그분이 갈릴래아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성서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육에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리스도의 진짜 근원과 겉으로 보이는 근원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우리를 위해 지니고 있어 위대한 영적 교훈을 운반해주고 있다. 인간 안에 있는 진리는 마치 육을 입은 말씀의 경우 같이 진짜 근원과 다른 가상의 근원 또는 시작을 가지고 있다. 실지로 진리는 감각 안에서는 태어나지 않는다. 비록 진리가 감각 쪽에, 감각 안에 진리의 외관을 만든다 해도 진리는 영혼 안에서만 태어난다. 마치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처음 알려진 곳은 갈릴래아였던 것과 같다. 종교는 내적 인간 안에서 시작을 가진다. 다시말해 그 시작은 주님의 자비에 의해 인간 초년기의 삶에 저장되었던 선과 진리에 관해 아껴두신 것 안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성년기의 인간 삶에서 거듭남이 개시될 때 그것 위에 처음 이동하는 주님의 영 안에서 시작을 가진다. 참으로 이런 사항은 거듭나는 자신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가 그것은 의식 세계에 그 자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작은 우리가 배운 진리, 우리가 들은 교훈이나 경고 받은 사항들 안에 있는 듯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식에 오는 종교적인 처음 감명과 느낄 수 있는 결과들을 생산해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내적 생명을 위해 있지 않다면, 즉 심정의 애정을 휘저어 주지 않는다면 감명이나 느껴본 것은 우리에게 아무 효과도 없다. 우리 속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내향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면 갈릴래아 출신인 바깥쪽 그리스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도 못하고 확신시켜 주지도 못한다. 이로부터 두 종류의 의심자, 의의제기자가 있다. 믿기에 앞서 의심하는 자와 부정하기에 앞서 의심하는 자이다.

의심에 이어 믿게 되는 이들은 그들 안에 구세주가 탄생된 이들도. 의심하고 부정해버리는 이들은 구세주가 없는 이들도.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군중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어하였지만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정에서 부정하면서도 그분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들 역시 덜 강력한 힘이기 는 하나 앞서와 똑같은 힘으로 억제된 것이다. 그들은 진리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진리가 그들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도 진리의 영향과 힘을 수단으로 위와 같이 억제력의 혜택을 본다.

45. 이제 또다른 계층이 등장한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요소들, 마치 인간의 취득물처럼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나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들은 제일가는 중요한 것으로가 아닌 도구적 수준인 일종의 부품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것의 품성은 그것들의 행동을 통치하는 힘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것이 식욕과 감각들, 또는 소위 감각적 원리 같은 것, 감각으로부터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장교들이다. 이들은 대사제와 바리사이과 사람의 영향 아래에서는 그들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대사제와 반대되는 영향 아래 가져와 질 경우 그들의 의도로부터 돌아섰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파견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기들을 파견시킨 이들에게 그분을 잡아 오지도 않은 채 돌아 가 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경비병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고집센 심정과 뒤집힌 이해성이라는 뱀의 독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마음일 경우 예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휘어잡으셨는지는 대화자체로도 명백한 증언이 된다. 이 세상 누구도 그분같이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참말이다. 영원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의 근원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말씀의 목적일진대 그분의 말씀들이 그 얼마나 강력했을까! 의심할 것도 없이 이는 설득에 관한 주님의 비밀이다. 사랑으로부터 흐르는 지혜는 참된 웅변이다. 여타 다른 웅변도 청중을 감동시켜 감탄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이 마음에 확신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

47,48. 장교들의 놀라운 선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너희마저 속아넘어갔느냐?’...”하고 다그쳤다. 진리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리를 신뢰한 것이 사기 당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쨌든 질서를 거꾸로 놓아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이 빛이라고 우기는 게 악이다. 모든 종교는 사기라고... 세상의 명예와 재산을 획득하는 것 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없다고... 위대해짐과 부귀를 추구하는 과학 외에 참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을까? 바리사이파사람처럼 자기들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들을 위해 종교를 디딤돌로 삼는 이들은 파렴치한 불신앙자만큼이나 진리에 대한 적들을 자기 심정 안에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안에 바리사이파의 어떤 것들, 영원한 진리에 적개심을 품도록 자극하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허약함으로 돌려 경멸하려드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은 바깥쪽인 세상에서 어떤 것을 보고 때로 안쪽인 심정에서 시험으로서 느끼기도 한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장교들의 마음이 변절되었다고 느꼈던 만큼이나 같게 그들은 아직 한 가지 더 문의함으로 더 배반당하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지도자들이 굽히지 않는 동안 그 태도의 원인이 의심스러워질는지 모르나 절망적일 리 없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도 이러해서 통치하는 원리들이 굳혀져 있는 동안 비록 하급의 요소들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해도 그 요소들이 실패하는 결과에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경우 때때로 양심이 허가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데도 자연적 인간의 탐닉이 적은 것이라고 납득될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은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저수지 독에 있는 조그만 물구멍일는지 모른다. 때로 이런 구멍을 통해 홍수 같은 물이 흐르도록 독이 터진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 안에는 자칫 악에 기울기 쉬운 자연적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49.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냈던 장교들이나 많은 백성에게 미쳤던 영향력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많은 백성이 믿는 것을 경멸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뱉었다.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파위 무리는 저주받을 족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관한 지식이란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자들이 펼쳐 놓은 전문적인 지식이다. 이런 바리사이파 사람처럼 우리 역시 신학적 지식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면서 종교적 선생의 경우 성경을 연구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헌신하여 노력했다해서 더 나은 인간인양 생각해 버릴지 모른다. 만일 인간이 영적이고 선하다면 이런 지식은 그의 영성과 선함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구원해주는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 전문적인 종교 지식은 자아 드높임으로 끝나 같는지 모르나 구원하는 종교 지식은 자아를 낮추는 실재를 언제나 산출한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해도 이 타애가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영혼이 가난 할 뿐 아무 지식도 없는 무리들 속의 어떤 사람이 오히려 천사에 더 가깝고 차츰 천사가 되는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혈은 종기와 배고픔으로 문가에 있었던 라자로는 자색 옷을 입고 호위호식한 부자보다 더 위대했다.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닌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있다.

50,51. 전체적으로는 쓸모 없는 지도자들 중 사이에 외로이 진리와 덕행을 외치는 소리도 있었다. “그 자리에는 전에 예수를 찾아 왔던 니고데모도 끼어 있었는데 그는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소?’ 하고 한마디하였다.” 주님의 친구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듯 니고데모는 그분의 적들 사이에 있었다. 그는 그분의 추종자들 모임에서는 비밀스런 적이고 그분의 박해자들의 회의장에서는 비밀스런 그분의 친구가 되어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다른 경우나 모든 개인들이란 점에서 적용된다. 선한 자는 모두 깨끗하고 악한 자는 모두 썩은 것뿐이지는 않는다. 어떤 은밀한 악은 인간 심정에서 숨어 기다린다. 즉흥적이었던 어떤 선함이라해도 인간 양심에 보존되어진다. 주님은 모든 땅에서, 모든 종교에서, 모든 종파에서, 모든 개개인의 마음에 증인을 가지고 있으신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각각 안에 참으로 조그마치만이라도 남겨두신 게 없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분의 은밀한 제자일 뿐이어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두둔하지 않고 있다.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소?” 심판의 법칙은 보편적인 법칙인 공평이라는 위대한 법칙, 즉 남에게서 바라는 것만큼 남에게 해주어라는 법칙에서 발견된다. 모든 사람은 이 법칙의 올바른 인식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의 양심으로부터 이 법칙이 말살되었다면 그 전에 먼저 지독하게 그것을 부패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 각각은 자신에게 돌려 생각해봄으로 타인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지 뻔히 안다. 그

러므로 본문의 니고데모같은 충고자를 지니고 있어 설사 폭력적 분위기까지 고조되었다해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결정하도록 마음을 만든다. 이 충고자가 우리에게 말하는바, 사람을 단죄하기 전에 그를 알아보아야 하고 그를 재판하기 전에 그에게서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52. 유대 원로 회의가 니고데모의 슬기로운 충고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들은 재판 과정의 타당성을 토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의 출신지를 들먹거리려 그분을 미리 판단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편견을 주었다. “당신도 갈릴래아 사람이란 말이요? 성서를 살살이 뒤져보시오. 갈릴래아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은 없소.” 갈릴래아 출신인 예수는 예언자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거였다. 꾸며낸 사실은 참으로 진정한 것이 아니다. 요나와 엘리야는 갈릴래아 사람이었다. 설사 그것이 진정 그렇다해도 위 니고데모의 질문과 아무 관계가 없다. 어쨌든 이런 대꾸가 인간의 소경된 것, 모순된 것이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들을 꾸며내고 그것을 판단의 기초로 삼는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예언자도 갈릴래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종파간의 외침이고 이를 수단으로 진리는 부정되고 들어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진리 자체인지, 진리 쪽에 있는지, 우리 자신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하려 들지 않고 믿어버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경우가 진리이신 그분이 거절되고 단죄되어지는 바탕이었다. 이런 행동결정에 깔린 비밀이란 빛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인간이 빛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53. 이런 결정 후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장교들의 증언과 니고데모의 진언이 있었어도 거룩한 구세주에 찬동하는 쪽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은 헤어졌다. 선한 것이 동기가 되어 움직여진 끝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결말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품성이다. 우리는 결말(end)로부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생각과 애정,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는 뿌리이다. 우리의 결말이 악할 때 모든 것은 악하다. 우리의 결말이 선할 때 모든 것은 선하다

## 8

7장 마지막 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구절에 대해서는 성서 비평가에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다. 그 이유가 이 본문이 빠진 사본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원문에는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생략 한다.

**1.2.** 7장에 기록된 사건 이후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 다시 성전에 오셨다.” 올리브산과 성전은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이다. 이 거룩한 산으로 물러가 계심은 그분 자신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심을 뜻한다. 그리고 이 곳으로부터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에 오심은 그분의 사랑이 지혜를 수단으로 가르치심을 표현했다. 그분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셨다.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일어나신다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다 (7:13). 그분이 세상에 오심은 저녁과 아침이라고 불리운다. 그 이유는 옛 처방이 끝나고 새 처방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오심은 구름 없는 아침이라 불리운다. 그분 자신은 그분의 강림을 수단으로 구원의 날을 알리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불리운다. 그분의 인성은 아침과 아침의 별 모두이다. 그 이유가 내재하는 신성의 영광은 인성에서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기 위해 빛났고 아직도 빛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신 모습은 그분께서 그분의 몸인 성전에 구원의 날 새벽에 오시어 그분의 영광을 밝히 보이시고, 그분의 왕국의 비밀을 벗겨 주시며 그분의 지혜의 탁월함을 나열하시는 것을 상징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들이 아침이란 단어에도 역시 담겨 있다. 성전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물려들었다.” 이는 진리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느 다른 경우같이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셨다.” 이는 그분께서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표현한다. 앉음은 쉬는(repose) 상태를 표현하는 바 사랑의 상태를 암시한다.

**3.4.** “그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내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정에 있는 역사적 의미로부터 끌어내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서 이 죄 있는 여인을 다루시는 포근함, 그리고 그녀의 경우가 그녀를 고발한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건이 포함하는 도덕적 가르침을 과소 평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장 드높은 도덕적 교훈인 영적 의미를 헤아려 보자. 그 이유가 영적인 것은 도덕적 지혜의 영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영적 의미에서 여인의 죄는 교회 안에 있는 선에 관한 원리를 모독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로 언급된 교회에 대해 부과된 죄와도 같다. 결혼은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이고, 그 중 아내는 선함에 관한 원리, 남편은 진리에 관한 원리이다. 참된 질서와 영적 의미에서 결혼은 교회와 천국을 구성하고, 간음은 세상과 지옥을 구성한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순결한 아내는 주님의 순수하고 신실한 아내로서의 교회에 관한 표본이고, 부정한 아내는 세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사랑함으로 썩어버린 교회에 관한 상징이다. 보다 낮은 유추적 의미에서 순결한 아내는 선함의 원리가 진리의 원리와 하나된 것, 또는 사랑의 품위가 믿음의 품위와 하나된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부정한 아내, 즉 자신의 남편 외 또 다른 사람을 용인한 아내는 선함의 원리가 왜곡된 것과 하나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해서 부패된 것, 똑같은 것으로 부패된 의지가 부패된 이해성과 하나됨을 표현한다. 간음한 여인은 세상 것에 몰두하거나, 세상 것으로 인해 부패된 유대교회를 표현한다. 각 개인에 이를 적용해 보면 왜곡된 교리로 뒤집혀진 교회에 있는 선함의 원리를 표현한다. 내적인 역사적 의미에서 여인은 이방인 교회를 표현하고, 그녀를 고발한 이들은 유대교회를 표현했다. 우리는 그녀가 잘못 고발되었다고 상상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가 죄 아래 있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방인의 죄는 비록 유대인의 죄보다 바깥쪽으로 더 심각한 듯 보일지 몰라도 유대인의 죄 보다는 덜 가증스럽다. 그 이유가 이방인의 죄는 비교적 무지 가운데서 발생했고 유대인의 죄는 빛에 반대하는 죄였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에서 주님은 의롭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세리들이 그들에 앞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셨던 것이다. 죄에 관한 지식을 담뱃 포함한 말씀을 소유함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참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죄인들이라 불렀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처럼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께 데려와서 간음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상황은 타인 특히 이방인들에게 있는 죄를 간파하는데 용의주도한 것, 그리고 그것을 처벌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참으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보다 더 날카롭다. 사악한 자의 흥미나 경향성이 눈멀거나 부드럽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벌을 집행하는데 사악한 자가 의로운자 보다 더 격렬하다.

5-9. 그들이 예수에게 간음한 여인의 케이스를 위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가버렸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의 적들의 간교함을 대파하는데 나열된 주님의 지혜를 보게 된다. 그보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로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동, 그분이 말한 모든 단어는 그 하나 하나마다 의미심장하다. 그분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말을 상기하게 한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흙 위에 기록될 것이다” (17:13). 유대인에 대한 호소요, 고발자에 대한 상징적 답변이기도 한 주님의 이 행동이 그들에게 말하셨는 바, 그들은 땅 위에 씌어졌다는 것이다. 말씀에서 행동 또는 대화가 반복될 경우 이는 언제나 이중적인 적용을 표현하는 바, 이는 지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의 본성, 또는 안쪽 인간과 바깥쪽 인간을 나열하고 있다. 본문의 경우 행동의 반복인 바 이는 유대인들이 악의에 차 있고 사람을 속이는 양쪽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 또는 지적으로나 실제로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 총체적으로 땅에 속한다는 것, 지상적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실 그들은 여인의 죄가 미워서 그 여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녀의 경우가 정당하게 판결되기를 바래서 예수께 끌고 온 것도 아니다. 그들은 주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 자신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녀를 예수께 데려온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죄가 있음을 발표

하게 했다. 이 위선자들이 가진 양심 속의 선이 매우 적은 양이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그들의 의표를 찌르신 분의 면전에서 그들을 몰아내기에는 충분했다. 물론 거룩한 예수의 영향력이 그들을 휘저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는 저 세상에서 악이 종속 당하는 모습과 같다. 저 세상에서는 자신이 큰 죄인이어서 하늘 나라에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에는 너무 무가치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자기 양심 안에서 알아챌 때까지 아무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사악한 자들 사이에 있는 양심은 소극적 수준일 뿐이다. 그래서 그 양심은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악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자에게 있는 양심은 죄를 짓지 않게 해 주는 안전장치이고 선행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어준다.

10,11.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에 있는 주님의 행동은 그분께서는 유죄를 두고 무죄라고 하는데 찬동하는 것에 관한 어떤 증거를 남긴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비스러운 선언과 일치되도록, 즉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죄있음을 선포하려는 게 아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위 주님의 행동에도 더 설명되어야 할 납득력 있는 원리가 담겨 있다. 그분께서는 이런 것을 서술하는 셈이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말했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님 자신은 어느 누구도 결코 고발하지 않으신다. 고발자가 없는 곳에는 어떤 정죄함도 있을 리 없다. 주님께서는 누구도 정죄 되기를 바라시지 않고 모든 이가 구원받고 복되기를 바라실 뿐이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 하고 말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자비의 복된 특권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모든 죄인이 죄짓기를 단념하기를 바라신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데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받는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단념하고 정의를 배우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 이 주제를 두고 생각해볼 것이

있다. 죄의 책임(blame)은 지식에 비례한다는 윤리의 신성한 법칙이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고, 그 반대의 경우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한결 가볍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임의적인 명령으로 있어진 게 아니라, 주변의 사실, 즉 빛에 반대한 죄는 영혼을 썩게 하는 한편, 빛이 없는 죄는 영혼을 확증된 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내버려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자연적 수준의 의지에 있는 악은 그것이 이해성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죄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의 여인을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방인의 의지에 대한 모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녀를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즉 악이 의지 안에 존재하면서 행동으로 나오되 이해성에서 고발하는 자가 없는 상태이다. 이럴 경우 악은 실질적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이유가 경향성과 행동들의 실제적 품성은 행동적인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행동되어질 때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전한 마음에 속하든, 성숙된 연령에 속하든 어느 것도 죄에 대한 가책이 전혀 없이는 악을 사랑하거나 범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제아무리 무식한 어느 누구라 해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완전히 무지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마음들이 상대적으로 죄 없음 또는 죄에 대해 책임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완전히 무지한 유아는 참으로 완전히 죄없는 상태이다. 지적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는 성인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주님의 시대 때에 이방인은 유대인에 비교해 볼 때 위와 같았다.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나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12. 위 사건의 여인은 무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표현한다는 관점과 일치되고 있다. 고발자들이 그녀를 떠나 간 다음 주님은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빛(the Light)은 진리(the Truth)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진리를 수단으로 계발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도록 방향 잡아진다. 참으로 그분은 빛, 신성한 지혜로서 영원으로부터 처음 시작에 존재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 특히 그분의 지혜가 죄짓는 사람,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세상의 빛이시다. 이는 하느님께서 육 안에 계시어 명백히 보이신 것 같이, 즉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됨을 통해 사람에게 가깝게 그분을 가져다 놓으시어 그들의 발에 등붙이요, 그들의 길에 빛이 되신 것과 같다. 이렇게 명백히 나타나신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의 세상이란 단어가 지니는 뜻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추되는 인간 마음의 부분, 즉 외적 또는 자연적 수준의 인간 마음이다. 이 수준의 마음이 주님께서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빛을 비추는 인간의 부분이다. 주님은 영원부터 사람,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유한한 인간의 원형이셨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그분은 인간이 거듭나는데 대한 유일한 형상이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거듭나지게 하는 마음의 더 높은 수준을 닫아 버린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마음의 자연적 수준만을 열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육을 입으실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주님의 인성 외 또 다른 매체로 신성한 빛에 의한 계발은 가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는바 구세주는 “나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분의 가르침과 본보기로 생명의 길에 뿌려놓은 빛을 따라오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듭남 속에서 그분이 하신 것 같이 행동하고, 그분이 지닌 품성 같은 것을 지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걷는 이들은 어둠, 그 어둠이 무지이든, 잘못이든, 불신앙이든 여하한 어둠 속이라 해도 걷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따라 오는 이들은 생명의 빛을 가진다. 그의 지성의 빛은 생명인 사랑에 도달하도록 지성을 안내한다.

13.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을 들었을 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됩니다’ 하며 대들었다.” 외적일 뿐인 백성, 유대인들은 진리의 외적 증거만을 원했다. 그들은 진리 자체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 스스로가 산출하는 증거(record)가 참된 것임을 용납할 수 없었다.

14. 어쨌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스스로 증언한 것이 참된 이유, 그 증언을 부인하는 바탕은 이러하다. “...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진리는 선함의 형체요 선함을 밝히 알린다. 진리가 선함과 관계가 없으면 그 진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실제 없는 형체요 목적



없는 수단이다. 진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인지 알고 있다. 이것이 진리의 증언이 참된 이유이다. 진리를 알고 있되 진리로부터 진행되는 선을 받지 않는 이들, 진리가 지적하고 인도하는 것을 받지 않는 이들은 진리가 어디로부터인지 모른다. 진리는 선함의 특사로서, 사랑의 소산으로서 우리에게 온다.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과 선함 쪽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이다. 진리는 사랑과 선함으로부터 와서 사랑과 선함으로 간다.

**15,16.** 주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원인 중 한 가지가 예수에 의해 이렇게 서술되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영적으로도, 합리적으로조차도 판단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에 관해, 그분의 말씀에 관해, 아예 자신에 관해서까지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외관(appearance)에 따라 판단한다. 그럼에도 자기들은 판단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들의 판단에 가장 많은 신뢰를 두려 하고 있다. 본문에서 사용된 판단이란 단어는 유죄임을 판결한다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육에 따라 판단하는 이들은 영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단죄해 버린다. 때로는 영 자체의 존재까지도 부인한다. 주님은 “아무도 심판 않으신다.” 이 선언은 한번 이상 있었던 주님의 선언이다. 이 선언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심판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하셨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죄인임을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판결하시는 게 아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았던 진리 자체, 그러나 그 진리로부터 선함을 분리시킨 진리 자체로부터 유죄임이 판결되어진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것을 수단으로 천국으로이든, 지옥으로이든 어느 곳으로 가도록 심판된다. 선이 없는 진리는 단죄되고 선을 가진 진리는 의롭다고 판결된다. 이 사항은 아주 쉽게 간파된다. 왜 악은 단죄될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알되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진리가 가르치는 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단죄이다. 왜 정의로운 자는 의로운 것일까?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알 뿐 아니라 안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와 더불어 진리가 가르치는 선을 가지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고 말하실 때 뜻하는 바, 그분은 진리만으로는 아무도 심판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단죄 않으신다. 그 이유

가 그분은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진리는 진리를 알되 진리를 위반하는 이들을 단죄한다.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 말하신다.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혼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 그분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진리만으리가 아니라 선함과 하나된 진리로, 사랑과 하나된 지혜로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아들은 진리 또는 지혜이고 아버지는 선함 또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17,18. 주님의 판단은 바리사이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에도 일치한다는 것을 예증하고 확증해 주시고 있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나 자신을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증언해 주신다.” 두 증언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 다른 측면일 경우 악과 거짓에 관한 원리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신성한 측면에서의 두 증언이고 “두 사람”은 똑같은 증언이다. 이 두 증언의 증언은 아들의 증언에 유추된다. 그 이유가 두 증언은 똑 같은 원리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선과 진리의 원리이고, 두 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이다. 모세 법전이 명시하는 바대로의 율법 자체는 죄있다는 것뿐 아니라 결백하다는 증언과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선함과 진리는 정당함을 입증하는데 요구되는 한편, 악과 거짓은 유죄임을 판결하는데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이나 진리 어느 쪽만으로도 의로워지지 않듯이 악과 거짓 어느 쪽만 가지고도 단죄되지 않는다. 증언 한 사람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신명기 19:15). 참으로 우리는 진리만이 단죄한다고 말해오고 있다. 자기를 단죄하는 진리를 가진 그는 자신 스스로 진리에 적인 셈이다. 공개적이지는 않는다 해도 심정에서 그는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믿는다. 진리는 적극적이지는 않고 소극적으로 단죄하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죄인에 반대하여 행동되어서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진리에 반대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진리에만 충실해 있다면 진리는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 진리에 불성실함이 사탄에게 속박당하게 하는 원인이다. 진리를 미워하는 악은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과 하나되어 있다. 이

는 악인이 진리의 고백을 하는 때 조차에서도 하나되어 있다. 이런 악과 거짓의 하나됨이 지옥적 결혼이고 상태 차원에서 지옥이다. 그 반면 선한 것과 참된 것의 하나됨은 천국적 결혼이고 이것이 천국의 상태이다.

19. 그분의 말이 참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 자신과 하나된 바로서 아버지의 증언에 호소하시자 유대인들이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필립보의 질문,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와 비슷하다. 그래서 두 질문의 대답은 똑같은지 모른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나?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제자의 요청은 믿는 자에 의해 있었는 바 대답을 받았다. 본문의 질문은 불신앙자에 의해 있었는바 대답 없이 그냥 남겨져 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심 없이 아는 바,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보았자 어떤 확신도 생기지 않고 오로지 단죄만을 추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바, 형식적인 요구가 아닌 깊이 뿌리 박힌 경향성이 우리의 종교적 문외에 대한 응답을 막고 있거나 그 반대로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인성에 관한 지식은 신성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질문자에게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육에 따라 판단하는 그들은 주님의 인성에 관한 것 조차에서도 주님을 모르고, 그분의 인성의 본성과 근원을 모르는 그들은 그분의 신성을 알 수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도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고 지칭한 유대인과 같다. 그러므로 이런 고발은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는지 모른다. 주님의 인성은 하느님의 진리이고, 그분의 신성은 하느님의 선이신 바, 진리는 선함이 명백해진 것이요 권능인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선함과 진리 모두에게 무지해 있는다.

20.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분이 하신 말들은 그분의 지혜의 보고(treasury)로부터 출현되었다. 성전은

그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와 관련해보면 이 보물창고란 우리의 이해성이고, 성전 안의 돈궤(coffer)가 담고 있는 돈은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상징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분노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경이로운 주위사정은 주님께서 인간 위에 실시하신 비범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이로운 게 더 있다.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영적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로지 악한 자는 선한 자를 붙잡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이를 추상적으로 보면 악은 선을 뒤집는 수법으로 선을 붙잡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은 진리를 어느 정도 뒤집는 수법으로 진리를 붙잡기만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순수한 진리와 선, 그리고 단지 거짓이고 악인 것은 서로 접촉되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가로 놓여 있다. 그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 중간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요구된다. 악이 선과, 거짓이 진리와 접촉하기를 바라나 그것은 오로지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뿐이다. 그러므로 악과 거짓은 그것들이 뒤엎을 수 있을지 모르는 진리와 선을 가지기를 열렬히 바란다. 이 방법만이 진리와 선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램이 지옥의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탄원한 것, 즉 라자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축여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서 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악한 자는 지옥에서조차 진리를 왜곡시키고자 진리를 원하고 있다. 이러기에 진리는 그들에게 금해지고 있다. 악한 자는 진리를 뒤엎고 싶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선과 진리가 우선 뒤엎어지지 않고서는 악과 거짓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과 진리의 이런 뒤집음은 선과 진리를 아는 이들을 수단으로 또는 그들과 동업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를 배반해서 자기들에게 협력할 때까지 예수를 잡지 못했다. 이런 뒤집힘이 가룟 유다 안에 존재했고 그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예수께서 헌금궤에서 가르치신 그 때는 예수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때가 차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다.

21.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연설하신다. 이 구절과 앞 구절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구절 이하에서 말해진 진리들에도 구분되는 점이 암

시되고 이 진리를 듣는 이들의 상태도 바뀌어 있다. 앞의 구절들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셨으나 여기서는 그분의 떠남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에 관해 암시하시고 있다. 이 죽음은 그분을 유대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유대교회같은 품성을 지닌 이들로부터 떠나버리시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주님께서는 제아무리 타락되었다 해도 그것이 죄인이든, 교회가든 어느 곳으로부터 서도 그분 스스로 떠나시지 않는다. 주님이 마리아로부터 파생된 유약한 인간성 또는 “육”에 속한 어떤 것을 지니시고 계셨던 때까지는 그분은 유대교회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이것을 벗으셨을 때 그분과 이런 육적인 교회의 처방 사이에는 비슷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더 이상 없었고, 그들 사이의 모든 연결도 절단되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고 말하셨을까? 이는 그들이 그분을 잃어버린 후 정작 자기들이 경멸했던 그분을 발견하려는 그들의 바람이 한쪽 구석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 그것은 확실히 그러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찾는 목적은 무엇일까? 어쨌든 주님은 진실로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감추이지 않는다. 주님은 생명을 바래서 찾는 누구에게서도 생명을 거절하실 수 없다. 유대인의 경우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찾을 것이나 그들의 죄 속에서 죽으리라고 말하시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 목적과는 매우 다른 목적에서 그분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다시 지상의 왕국을 복원할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주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분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찾는 교회, 그런 목적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너희는 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뿐이다. 유대교회라는 하늘의 처방은 그들의 불법 속에서 멸망되었고,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함으로 그 멸망은 완성되었다. 교회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라면 그 교회는 주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가든 따라야 하고 그분이야말로 영화하신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고 주님은 말하셨다. 그분이 육에서 죽으신 후 신성이 된 인성으로 승강하셨을 때 유대교회와 백성은 그분께 올 수 없었다.

22.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자살은 영혼을 지옥이라는 과멸로 보내는 범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품어보는 것을 의미했는바,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도 따라가지 않을 장소에 자기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을 예수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살의 그럴듯한 의도에 대해 위와 같은 비난이 예수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얼마나 반대되는지는 그분의 말씀으로 추론되고 있다. 예수께서 자살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말하셨고 행동하셨던 모든 것과 대비되고 인간 구속의 일을 통째로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잔인하게 뒤집는 것이고, 이런 구원하는 원리의 흔적조차 실제로 지워버리는 것이다.

23.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분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sentiment)은 근원적으로 정반대인바 위와 같이 말해질 수밖에 없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은 신성하고 천국적이고, 그들과 그들의 것들은 지옥적이고 세상적이다.

24.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으리라고 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 정의의 수단이고 생명의 수단이다. 주님은 정의 자체요 생명 자체이신바, 그분은 인간에게 그것들의 저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께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주님은 모든 영혼이 가진 존재 수준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사랑과 복되심으로서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라 불리는 것의 저자이시다. 이 생명 없이 존재함은 죽음이다. 자기의 죄 속에서 죽는 이들은 사랑 있는 죽음만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가는 것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서 죽어가고 있어야만 한다.

25. 죽음에서 구원되는데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들이 그분께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이 질문은 뭐가 알고 싶

은 바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고 있는 태도에서 있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신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다.”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어거스틴 이후인 클라우(clowes)의 경우, 이는 주님께서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 또는 시작이셨음을 유대인에게 말해주시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제가 원문과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이 구절의 “처음부터” 라는 단어는 해석이 분분하다. Olshausen의 경우같이, 단어 “arche”를 부사적으로 사용하면 “맨 먼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나도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말할 뿐이다.” 라고 읽게 된다.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말해주어야 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이란 신성한 진리가 이제 유대교회 안에 있는 것을 열어 제쳐 드러나게 하려는 많은 악과 거짓들이다. 그 이유가 말한다는 것은 악을 노출시킴에, 판단한다는 것은 거짓을 노출시키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런 주님의 말하심과 판단하심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데,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그분이 참된 분이기에” 때문이다. 예수를 보내신 그분이 참되다면 예수 자신도 참되어야만 한다. 영적일 경우 더 감명을 주는 교훈이 있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는 언제나 그분을 보내시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파견하시고 있다. 지혜 또는 진리가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랑으로부터 말하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 참되다는 확증으로서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사항들을 세상에 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께서 말하시고 아들이 들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한 글자적 의미로는 이해 할 수 없다. 인성 측면의 주님은 내적 계시로 신성의 영을 들으신 것, 신성이 인성으로 흘러내리는 것, 주님의 내면적 의지에 있는 신성한 사랑이 그분의 내면적 이해성에서 신성한 진리가 되는 것, 이로부터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복을 주시는 그분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27. 주님께서는 그분을 보내신 분에 관하여 위 구절의 사항을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버지에 관한 지식은 주님의 신성, 그리고 신성한 사랑에 관한 지식이다. 이는 주님이 인물(person)이라는 차원에서 명백히 나타내주고 구속과 구원이라는 그분의 일로 나열되어 있지만

그분이 아버지다운 원리(the Fatherly principle)로 묘사하신 언어는 아무도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성한 인성 또는 신성한 진리가 내적 인간의 애정과 생각으로 승강되게 한 이들, 즉 아래 구절에서 취급되는 이들의 경우 이해 할 수 있다.

28.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무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글자대로라면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짐은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고 그분을 들어올린 이들은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이들도.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심은 그분의 영화하심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사건에 있는 영적 의미이다. 주님께서 “만일 내가 들려진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끌어당기리라” 라고 말하셨을 때 가리키신 것이 이 구절이기도 하다. 그분의 신성한 인성은 영적인 매력의 중심이어서 이 중심으로 기꺼이 끌어당기기를 원하는 영혼은 끌려 당겨진다. 이 주제를 개인적 응용에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짐은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내면의 생각과 애정 안으로 승강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들어 올려지실 때만이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 이시다는 것, 그분의 인성은 그 안에 내재하는 신성 없이는 그 자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분의 진리는 사랑으로부터 꾸준하게, 전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자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등등을 실험적으로 알게 해준다. 우리가 구원하는 힘을 알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행동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진리는 사랑에 관해 가르쳐진 것,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29. 신성과 인성, 사랑과 진리는 주님 자신 안에서 이든, 우리 안의 주님에서 이든 분리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놀라웁고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그들은 보낸 자와 보내진 자의 관계인데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내진다는 것은 진행되어 나오는 것이다. 영적일 경우 진행(proceed)된다는 것은 이탈(depart)하는게 아니라 공간을 통해 나아가는(advance) 것이다. 마치 사랑으로부터 진행된 것이 생각이고, 생각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대화이듯, 또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과 같다. 이런 모든



경우 안에서 보낸 자와 보내진 자는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소멸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는 나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로나 교리로나 대단히 중대한 진리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성(Godhead) 안에서 분리될 수 없듯 우리 안에서도 똑같다. 만일 우리가 둘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쪽도 소용없어진다. 지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설사 우리가 사랑 없는 진리, 선함 없는 진리를 가질 수 있는 듯 여겨져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 때로 지식일 경우 홀로 존재할 수 있으나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을까? 지식은 선함에 관한 과학이고 진리는 선함의 형체이다. 사랑은 이론상에 있지 않고 실제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진리의 선 안에 존재하고 있다. 주님께서 아버지는 나홀로 내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만을 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이렇게 해서 알려진다. 즉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일치하는 일만을 행하여 알려진다. 이것이 진리가 홀로 있지 않는 이유이다. 실제(practice)가 사랑과 진리를, 이타애와 믿음을 하나되어 있게 한다.

30.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포함하는 진리가 지금 본보기화되어 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을 믿었다. 그러나 파종자의 씨가 떨어지는 토양에도 많은 종류가 있듯 믿음의 바탕도 그러하다. 믿음(belief)은 그 첫 순간에서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열렬할 수 있으나 그 마지막 상태는 믿음이 떨어진 토양의 품질에 좌우된다. 믿음의 신실도는 그것을 연마하게 해주는 실습으로 테스트 되어 진다. 그 믿음이 버터 내거나 사라지는 것이 실습에서 결정된다. 어떻게 이것이 여기서 작동되는지 보자.

31.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2장 23절을 읽어보면,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게 된 이들이 있었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 이 경우 주님은 그들을 형식적인

제자로 분명히 간주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시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새기고 있으려면 그분의 말씀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악에 꾸준히 반대하고 악을 행하려는 유혹에 계속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믿음과 거룩함을 꾸준히 견지한다는 것은 종교적 성공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주제를 놓고 간곡한 권유와 엄숙한 경고 등등은 성경 안에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의 필요성이 간단히 입증된다.

32.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견지하는 이들에게 이런 격려의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시는 진리에 관한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 즉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감으로 획득되는 지식이다. 진리가 우리를 위해 확보해주는 자유는 이 구절 이후의 구절에서 주님이 보이시듯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여타 다른 자유, 즉 무지, 오류, 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 자유의 뒤를 잇는 귀중한 자유가 더 있다. 그것은 우리의 욕구나 열망에 노예 되는 처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를 불신려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33. 그럼에도 “믿었다”던 이들 중 일부는 이 교리를 지탱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자유로워져 있다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노예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 교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하시는 자유와 속박된 상태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참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인에 속박 당해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분개하고 있다. 이런 처지의 그들은 자연적 인간, 즉 자기의 열정에 노예된 인간, 그런데 자신은 자유롭다고 떠벌리는 인간을 적절히 잘 표현했다. 이런 이유가 자연적 인간은 종교가 억제하는 것으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말한 바탕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더라면 그들은 영적 자유를 소유했다고 주장

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육에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참된 자유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남, 거듭남을 수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수밖에 없다.

34. 주님께서서는 속박과 자유의 참된 본성을 계속 설명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죄가 노예이고, 이것만이 노예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 이것은 여타 다른 노예상태의 부모 격이다. 죄는 처음에는 포부나 탐욕에 노예가 되게 한다. 그 다음 타인도 자신의 것을 추종하도록 자극한다. 속박에는 영적 속박과 자연적 속박이 있는바 이런 차이가 있다. 영적 속박은 자발적이고 자연적 속박은 때로 비자발적이다. 어쨌든 죄는 노예 근성의 큰 스승이다. 스승격되는 죄인 자아사랑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서 자유로움에 큰 적이다. 인간의 바깥쪽 조건, 그 조건이 압제하는 위치이든 압제 당하는 위치이든, 위 조건에 모두 공통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속박된 상태인바, 이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35. 노예된 처지와 자유로운 자의 결과이다. “노예는 집에서 영원히 살지 않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산다.” 이 집이란 천국이고 거기서 주님은 계신다. 이 집이란 선함이라는 원리이고 선함은 인간 마음 안에 그 거처를 둔다. 죄의 노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태어난 자, 하느님의 자녀만이 영원히 거기에서 산다. 추상적으로 말해보면, 죄의 노예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이고, 아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이다. 최고 높은 의미에서 아들은 신성한 진리, 진리자체로서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사신다. 주님이 육을 입으시고 영화하심이 시편 기자는 이런 장엄한 선포, “주여, 당신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습니다” 로 증명하고 확증하여 받았다. 거기서 신성한 진리는 그것 자신의 성막같이 영원히 고정되었고 그로부터 지상의 교회와 인간의 심정으로 내려오고 있다.

36. 거기에 머물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천사와 인간을 만든다.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유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있고 노예 되는 것은 자아의 인도함에 존재하고 있다. 자연

적 인간이 갖는 자유에 대한 관념은 주님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자연적 인간은 자아의 인도가 모든 억류됨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상상한다. 어쨌든 양 자는 공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 또는 지옥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 되든, 죄의 노예가 되든, 어느 쪽에 있어야 한다. 최상의 안내는 어느 쪽일까? 전자는 행복으로 후자는 재난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 그분은 청중이 친숙해져 있는 구약시대의 사회체제로부터 말미를 끌어내셨다. 히브리인의 종은 죽을 때까지 성전의 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어느 기간만 봉사하고 그 후 종의 신분을 벗었다. 그러나 자유인인 아들은 상속자이고 언제나 그 집에서 머문다.

37.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주제로 되돌아 가신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보건대 그들은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주님의 모형이었고 그의 후손은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소유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지상적인 아버지의 거꾸로된 자손이었듯이 그들은 그 진리를 뒤엎었다. 그들이 주님께에서 받았던 진리를 뒤엎었을 때 그들은 말씀을 파괴해버리기를 바랬던바, 그 진리가 진행되어 나온 주님도 파괴해 버리고 싶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이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마련해 놓지 않는 마음은 그분과 적대관계에 있고 언제나 그분을 죽이려 한다. 똑같은 말로서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참되고 선한 모든 것을 자신과 타인 안에서 죽이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함 자체요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죽이는 것이다.

38. 반대자의 성향은 서로서로 파괴하는 것이다.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서로 반대이다. 이런 반대됨이 주님과 유대인들로 본보기화되고 있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일러 준 대로 하고 있다.” 진리는 선함의 소산이고 거짓은 악의 소산이다. 진리는 그것이 본 것, 즉 선함으로부터 지각된 것을 말한다. 그 이유가 진리는 선함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

이다. 거짓은 악으로부터 본 것을 행한다. 그 이유가 거짓은 악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과 유대인들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본보기화되어 있다. 그분은 선함으로부터의 진리였고 유대인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 또는 그 형체였다.

39.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종족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이고 주님은 신앙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그들은 육의 관계에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을 뿐 영의 관계에서는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사랑 측면의 주님에 대한 모형(type)인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들이다. 추상적 의미로 볼 경우, 아브라함은 심정에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이라는 원리이고, 그분의 자녀란 이해성에서 이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라는 원리이다. 심정에 사랑이 있고, 이해성에 진리가 있으면 선한 일은 당연히 뒤이을 것이다.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일이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란 사랑의 일들이다. 그 이유가 사랑은 진리를 수단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비슷한 여타 다른 영적인 후손까지도 아니다.

40.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다. 선은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를 바래고 진리를 받고 싶어 꾸준히 노력함은 심정에 선함이 존재하는 확실한 표시이다. 그러나 진리를 파괴하려드는 인간에게는 선함이 결핍되어 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진리였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모든 사람, 자신들 안에 이와 비슷한 상태를 가졌던 모든 이들은 기쁘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하고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증거를 자신 안에서 발견했어야 한다. 아브라함을 우리 안에 있는 원리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그는 초기 삶의 선, 즉 마음이 성숙되어 살게 될 때, 더 높은 선을 잘 받도록 준비시켜주는 섭리에 의한 선이다. 이 선 속의 단순한 진리들은 마음으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삶 속에 있는 더 높은 진리들의 납득이 가능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어쨌든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의미되는 상태들을 파괴해버릴 때 천국의 일원이 되도록 그

들에게 제공된 더 높은 것들을 더욱 파괴하려 언제나 몸부림친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려드는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 것이 아니다.

41. 행위는 그 근원을 가리킨다. 우리의 동기는 우리 일의 부모 격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한 대로 하고 있다.” 주님께서 철천지원수에게 말하신 이것은 원수들이 지닌 것과 똑같은 악마적 동기로 활동하는 지금의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행위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다. 행위는 내적 생명의 목적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행동의 샘으로부터 길어 올린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아 은밀하고 더 멀리 떨어진 듯한 행위를 튀어나오게 한 동기들을 검사해 보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그들 아버지의 행위대로 했다는 주님의 선포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그들은 음행이란 단어로 우상을 뜻했다. 그들은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숭배자, 우상의 자녀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라고 주장했다. 이를 영적으로 보면 음행(fornication)은 진리의 거짓화이고 음행으로 태어남은 거짓화된 진리를 확증하는 것, 그래서 그 확증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것은 순수한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확증한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으로 태어난 것과 정반대 된다.

42. 이런 상태이든 저런 상태에 있든지 결정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가지 테스트를 주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으니 만일 하느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 사랑한다. 이는 자명하다. 자기 아버지로 하느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보냈기에 왔다”고 결론 맺는 말씀은 정녕 깊이 있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만일 주님이 진실로 하느님이셨다면, 설사 그분과 동등한 또 다른 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까지도

포함해 생각한다해도, 이것은 글자대로 있어질 수 없다. 주님께서 위 서술을 수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신성안에 있는 사랑은 육을 입으시도록,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시도록 움직이게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말씀, 영원한 진리는 그 스스로 왔던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에 의해 구원하시는 자비를 완성하도록 보내진 것이다. 이 상황은 지금도 여전하다. 진리는 사랑에 의해 지금도 보내지고 있다. 진리는 스스로도, 자체를 수단으로 해서도 오지 않는다. 진리는 그 스스로 오지 않고 또한 그 자신을 위해 추구하지도 않는다. 진리가 추구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의 천국 안으로 인간을 인도하는 것뿐이다. 여러 번 주목한 바 같이 진리는 판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스스로 오셨다면, 또는 진리로만 오셨다고 가정해본다면 그는 심판자로서 오셨을 것이다. 만일 심판자로 오셨다고 말한다면 그의 오심에서 보편적 정죄됨 안에 죄인들, 그러므로 인간 종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진리의 권능과 위엄에서 자신을 명백히 보여주시기만 하여서가 아니라 사랑의 인자함과 온유함에서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려 오셨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인류는 “그분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안에서 구속되었다.” 자주 반복된 그분의 선포란, 그분은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는 것,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는 것, 자신 스스로 말하고 행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등등이다.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고 복주시는 확증을 표현하는바,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어 성취하시려는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의 근원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주님의 영원한 진리가 구속하는 모든 작업(operation)에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43. 주님께서 물으신다. “너희는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신다. “내 말을 새겨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지적 측면만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심정 측면으로 이해한다는 것, 즉 진리를 사랑의 영향 아래 이해성 안으로 받는 것이다. 위 구절이 이 사항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분의 연설을 이해 못했다고 말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는 것이 이해성과 더 직

접 연결되는 감각작용이듯 듣는 것은 의지와 더 직접 관계되는 감각작용이다. 성경이 듣는 것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의지로부터 지각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설(speech)과 단어(word)역시 서로 차이가 있다. 또는 어떤 것에 관해 발음된 것과 어떤 것이 말해진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형체와 본질상의 차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외적 경로로 오는 신성한 연설을 이해 못한다. 그 이유는 내적 경로로 오는 신성한 단어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적 진리를 이해 못하는 까닭은 내적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44.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서이다. 앞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짓을 했다고 이미 말하셨고 지금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다. 악마란 악이라는 원리를 의미한다. 마치 사탄이 거짓된 것의 원리인 것과 같다. 참으로 악마와 사탄은 추상적이지 않다. 개인 측면일 경우 그들은 무수한 악령으로 구성되는 어둠의 권세들이다. 이것이 인간마음에 작용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사랑하고 믿는 악과 거짓들을 통해 작업한다. 그러므로 악과 거짓들은 인간이 사랑하였던 악과 거짓들로 의미되어진다. 심정에 있는 악이 악마이다. 주도하는 사랑(ruling love)이 악일 때 그 애정들은 욕망이다. 이 욕망들은 악마의 자식들이 행하는 것들이다. 모든 악 안에는 선을 파괴하려는 욕망이 있다. 이것이 영적인 살인이다. 이 악이 “태초로부터 살인자다”라고 말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살인자(murderer)는 글자대로라면 살해자(manslayer)이다. 사람(man)이 이타애라는 원리를 뜻하는 바, 이 천국 원리의 소멸이 악마가 살인자(homicide)이다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참으로 이것은 태고 때부터 저질러진 행동, 즉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묘사된 행동이었다. 악은 그 자체 영적, 자연적 차원 모두에서 살인이다. 살인은 악의 품성, 악의 가장 깊은 본성, 악의 시작이다. 살인은 악이 결말을 보려는 의도 속에, 그 발버둥치는 과정 안에 언제나 숨겨 있다. 그러나 악은 자기 의도를 결과되게 하는데 거짓을 수단으로 한다. 거짓은 진리를 뒤집음으로 골격을 짜고 있다. 그래서 흔히 거짓말의 아버지라 불린다. 진리에 대한 그것의 적개심은 진리가 드러내져 악을 정죄하는 상황에서 발출된다. “그는 진리로 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의 경우, 글자대로의 뜻에서까지도, 악마는 한때 진리 안에 있다가 타락했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고, 오히려 악마는 진리를 가졌던 적이 한번도 없고 언제나 진리의 적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악마에 대한 진실이다. 여하튼 악마는 진리 안에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악마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선은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악은 그 안에 거짓을 가지고 있다. 악이 “거짓을 말할 때 그는 제 속성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가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악에 관한 이런 서술이야말로 얼마 참된지, 얼마나 두려운지! 악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이다. 악은 선한 모든 것의 파괴자요, 참된 모든 것의 왜곡자이다. 악은 하느님 자신의 큰 적대자이다. 그 이유가 본질 측면에서 하느님은 선함이시어서 악과는 본질로나 실행 측면으로나 직선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악에 “고유한 것(his own)”은 두 종류이다. 그 것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다. 이 두 사랑은 악행과 거짓의 뿌리이고, 이것이 영적 살인과 거짓말, 또는 이타애와 믿음을 파괴한다.

45. 위와 같은 것이 악의 본성인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본성적으로 거짓을 말하는데 진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예수를 거절하는 바,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46.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는 큰 원인은 진리가 그들에게 죄에 관해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적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죄에 관해 깨닫게 해주려고 도전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분을 고발할 구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의 말이나 행동을 경청하는 척하는 그분의 파괴자에 대한 위 주님의 호소는 어떠한지! 그분께서는 간음한 여자의 경우에서 같이 자기 죄를 자각하도록 하는 부드러운 심판을 추구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기회만 닿으면 그분을 정죄하려드는 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들 마음 안에 심판자로서의 그분 자신을 놓으셨다. 더럽이라고는 어느 하나도 타지 않으신 사람의 아들! 죄를 뒤집어씌우며 발버둥쳐대어 이리저리 질문해낼때마다 오히려 그들을 병어리가 되게 하신 분!

약하고 무른 타락한 본성의 상속자이심에도 완전히 죄없으신 분! 악인, 그들 안에 있는 악은 죄에서 정의를, 거짓에서 진리를 추적할 수 없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을, 차가운 것에서 뜨거운 것을 추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악도 혼합됨이 없는 선이신 그분이 “진리를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가 다음 절에서 주어지고 있다.

47.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발표된 진리는 명백하고 가장 중대하다. 하느님의 영에 의해 감화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인다. 영적 진리는 자연적 진리 같지가 않다. 과학 또는 자연계에 관한 지식은 선한 사람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악한 자도 고마워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방 인지할 수 있으런지 모른다. 그러나 영적 진리는 선한 사람만이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선한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진리를 원하게 된다. 참으로 선은 진리를 사랑한다. 악은 그것을 미워한다.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말하셨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져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선함과 사랑이다. 이것이 결여된 이들은 진리에 아무런 애정도 없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

48. 진리는 그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더 미워할수록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더욱 증명해줄 뿐이다. “유대인들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마귀 들린 사람시오. 우리 말이 틀렸소?’ 하고 내대었다.” 이교의 우두머리(arch-heresy)와 사악함이 위의 내대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 영적 측면에서 이것은 진리 자체, 선함 자체에 거짓과 악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 이것은 선을 위해 악을 놓는 것, 빛 대신에 어둠을 놓는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주님에게도 죄가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해도 그들은 그분을 마귀 들린 자와 사마리아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내 말이 맞지 않소?” 하고 되묻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모순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떤 종교, 종교인의 경우 자신의 품성 속의 무가치한 동기나 행동을 하느님에게 조차 전가한다. 동시에 악한 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는 선한 것만을 돌린다. 이런 것이 실수이든 심층에

있는 경향성으로부터 그러했던 나쁜 동기나 행동들은 주님이나 그분의 말씀 탓으로 돌려댄다 해서 유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49. 사악한 책임을 그분께 떠밀친 유대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헐뜯고 있다.” 진리는 유대인의 비난 같은 것에 한 가지 대답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하시든, 양심 안에서 말하시든 그분이 주신 대답은 온유한 답변이었다. 진리는 악에서 비롯되는 책임이행은 거부하실 뿐아니라 진리는 선함을 가르치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공로가 있다는 것까지 주장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높인다.” 진리는 선한 뜻을 행함으로 선함을 높인다. 이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리 되시는 그분을 높여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버지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서” 모두가 하나되기를 기도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높여야 한다. 아들이 무시당할 때 아버지도 무시당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헐뜯는 것은 이중으로 헐뜯는 것이 된다. 진리가 선함을 높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진리는 우리의 존경을 받을만한 것이다. 진리는 선함에 경의를 언제나 표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진리는 선함을 위해 우리의 경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0.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진리는 그 자체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진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진리는 그 자체에 인간의 시선을 끌어당김으로 그 자체의 영광을 추구하려들지 않는다. 진리는 더 깊은 품 안에 있는 더 높은 원리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인간 영혼을 그리로 가져다 놓으려 애쓰고 있다. “추구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은 따로 한 분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아들을 수단으로 판결하신다. 추구함(seek)은 사랑 측면이고 판결함(judge)은 지혜 측면에서 이다. 사랑은 추구하고 지혜는 판단한다. 그분의 신성한 영광은 인간을 구원하심에서 명백해지고 인간의 구원을 반대하는 적의 권세에 맞서 그들을 변호하는 가운데 그분의 판결은 명백함을 보인다.

51. 설사 아들이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란 그분의 교훈들이다. 이 말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되는 이들을 지켜준다. 영적 생명은 천국적인 사랑과 믿음의 상태이다. 이 생명의 소멸이 죽음이다. 이런 상태가 정죄됨이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죽어 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함과 진리가 결여되어 있고 악과 거짓에 잘 기울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죄됨을 초래하는 죽음은 악과 거짓을 확증한 상태이다. 이것은 의로운 자가 결코 보지 못하는 죽음이다. 의로운 자는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

52. 유대인들은 이런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면죄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정녕 마귀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말들을 자연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이들에 의한 위 구절 같은 관점은 그야말로 그 얼마나 자연적일 뿐인지! 그들의 상태가 자연적인 수준에 머문 것이 그분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해도 어쨌든 이것은 그들 안에 지닌 영적 상태를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예언자가 죽어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예언자로 의미된 것, 즉 선함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각하는 것이 소멸된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

53. 유대인들이 더 말한다. “그래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자연적 수준의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 일컬어진 이들도 피해가지 못한 죽음의 운명을 면제되게 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적 의미로 건너가 보자. 아브라함과 예언자가 죽어 있는 이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쪽만을 선택한다. 그들이 위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려는 것도 거절하는 쪽이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느바, 말씀은 죽은 글자라고,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예수의 복음은 인간적 우월함과 권위 그 이상은 못된다

고 말한다.

54. 그러나 주님은 그분 자신의 말만을 인간이 신뢰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분께서 유대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면 그 영광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너희가 자기 하느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증명하신 그분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높인다, honour”로 번역된 것은 영광(glory)이란 뜻이 더 적절하겠지만 여기서 높인다고 사용된 것은 이미 49절에서 살폈듯이 선에 관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서이다. 한편 이 구절의 ”영광“은 진리와 관계되고 있다. 앞 구절의 경우 예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고 말하시고 있다. 지혜는 사랑을 높이고 사랑은 지혜에 영광을 준다. 지혜 없이 사랑은 어떤 드높여짐도 없고 사랑 없이 지혜가 영광되지 못한다. 신성 안에서 조차 이 필수적인 본질들은 서로로부터 그들의 품질을 받고 있다. 사랑은 지혜와 하나된 덕택에 사랑이고, 지혜는 사랑과 하나된 까닭에 지혜이다. 이것이 저것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신성 안에서와 같이 인간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혜와 하나된 상태에서만 참된 사랑을 가진다. 우리는 사랑과 하나된 상태에서만 참된 지혜를 가진다. 이 둘은 서로에게 상호적이다. 사랑과 지혜의 관계는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답다. 이 두 품질은 서로에게 자기의 품질을 나눈다. 아마도 서로 깊숙이 스며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이것이 신약성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밝히 알리고 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영광되게 하려했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하셨을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지혜 그 자체로부터서는 아무런 영광도 파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고 말하실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바, 사랑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광을 지혜에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우리 속에서 참되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이런 원리를 더 잘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두 속성은 하느님 안에서 분리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마음 안에 있는 지혜 또는 진리가 스스로를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 것도 아니다. 만일 지혜가 그 자체 스스로 말할 수 있었다든가 드높였다든가, 또는 영광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런 것 모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만일 지혜가 그 자체

보다 더 높은 목적이나 대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익해질 것이다. 그 이유가 지혜의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이고, 진리의 목적은 선함이기때문이라, 이것만이 귀중하고 영광스럽다. 사랑으로부터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것에 광택을 주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움을 드리우게 한다. 고귀한 목적에 방향을 두지 않은 위대한 재능은 참된 영광을 가지지 못한다. 만일 그 재능이 재능 자체에 영광을 두었다면 그 영광은 아무 것도 아니다. 사랑과 선함만이 그것들을 영광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의 질서이다.

55. 예수를 영광되게 하신 그분이 유대인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신 한편,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내가 만일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나 그분의 참된 본성은 무지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진리에 반대되는 품성을 돌려 그들 자신과 똑같은 품성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에 관한 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하거나 뒤집었는바, 이런 짓이 그들로 거짓말쟁이가 되게 했다. 그이유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느님을 안다고 하신 예수께서 하느님이 모르는 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면 아마 예수도 유대인같이 거짓말쟁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주님이 그분자신에 관해 말하신 것들은 진리 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되는바, 진리 또는 말씀이 예수로 인격화된 것이다. 만일 하느님의 계시, 즉 말씀의 진리들이 뒤집혀 해석됨으로 해서 말씀에 관한 참된 지식이 파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허위를 선포하는 것이고, 참된 것 대신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행하셨다. 진리는 신성한 의지를 아는 것뿐 아니라 행함에서 언제나 식별된다.

56.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칭한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서는 거절했다해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해서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했다.” 이 구절의 단어들과 이 구절을 글자대로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유용하리라 본다. 이렇게 간주되었다. 그것은 구세주로서의 주님에 관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

르치고 있다. 주님은 모든 시대의 바램이고 희망이 되어 왔었다. 이 거룩한 분을 모든 시대에 있는 신성한 자들은 잃은 세계의 구세주, 포로된 인류의 구조자로서 내다 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아마 이 구절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11장13절에서와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자, 약속 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 간주함이 타당할 듯 보인다. 이 믿음이 그들을 지탱시켰고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함이라는 혜택을 붙잡게 했다. 어쨌든 열조(patriarch)들은 오시는 구세주에 관한 약속에만 안주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눈으로 그분을 보도록 주어졌다. 마치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채워진 천사라는 인물로 그들에게 그분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분이 현존하신 천사”가 그들을 곤경에서 구했다. 이 천사는 일시적인 인성이었고, 이 인성 안에서, 이 인성을 통해 그분께서는 육을 입으시는 때가 찰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받쳐 주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 오셨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진리로 사랑을 실현한 (the love of truth)이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적 인간 안에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지각했다. 진리의 사랑을 수용함은 그들에게는 기쁨의 근원이다. 두 가지 감정 표현이 이 구절에 있다.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것에 기뻐했고,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했다.” 이 표현은 의지와 이해성의 양쪽에서 받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반가워함(gladness)과 기뻐함(rejoicing)은 원본이 요구한대로 여기서 뒤바뀌어 있다. 그 이유는 반가워함(gladness)은 의지측면의 애정표현이고, 기쁨(joy)은 이해성측면의 애정표현이기 때문이다.

57. 위 같은 주님의 선포에 유대인이 이렇게 따졌다. “당신이 아직 쉰 살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이오?” 그들이 예수의 말들을 이해했던 낮은 수준처럼 참으로 자연적 수준의 질문이다. 어쨌든 “원샷”이라는 그들의 표현은 의아하고 놀라웠다. 표현된 “오십”이라는 단어는 단어자체보다 더 높은 의미를 담고자 기록된 것이다. 오십은 진리가 선함으로 채워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주님께서 영화하심으로 그분자신을 완전해지게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표현되어지는 이들 안에서는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주님에 관련된 진리를 알고 있으나 알고 있는 진리 안에 선을 가지지

않는 이들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기쁨도 가지고 있지 않느바, 그런 믿음이나 기쁨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들이 다.

58. 예수께서 이런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구절의 위대한 진리는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일부의 사람과 이 구절이 직접 전달된 본문의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의 선존(pre-existence)이 부인됨으로 그 중요성이 논쟁거리가 되고 만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이 구절은 신실한 이들의 구세주의 영원함과 신성함에 관한 신앙만에 건설될 목적을 위해 그분의 신성과 선존하심을 부인함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섭리적으로 끌어져 나온 말씀일 것 같다. 이 구절은 이 위대한 진리에 관한 신성한 발표로서 언제나 남아 있으리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는 있다(I AM)”이신 분, 자존(self-existent)하시고 영적인 실재(self-essent)이신 분,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도 계시는 전능하신분이지는 것까지 증명해 보이고 있다. 모든 논쟁들이 위의 관점에 도달해서는 언제나 중단되었느바, 위 선포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흥미를 가지는 위대한 영적진리를 가르치도록 지금도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개개인의마음의 경험 안에서 아브라함 전에, 그후에도 계셨다. 마치 그분은 세상의 역사안에서, 교회의 진보안에 계셔온 것과 같다.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분은 모든 영혼 안에서 가장 깊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마음의 영적인 모든 활동 안에서 그 활동의 원인 되신다. 그분은 생명이 체현된 최말단에 있는 선, 생명활동이 선용안에 고정된 최말단의 선이시다. 그분은 우리 영적 생명의 모든 원리와 상태에 관한 원형(Archetype)이자 대형(Antitype)이시다. 진실로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것의 그림자요 그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주님의 인성은 지상과 천국에서 유한하게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요 완전해집이다. 인간은 완전한 하느님의 형상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죄있는 인간의 모양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것은 거듭남이라는 영적 창조의 질서이다. 영적 측면과 육적측면 그 사이에 놓인 우리 안의 합리적 원리는 영적 측면을 생산하고, 이를 수단으로 자연측면안에서 그 자체를 밝혀놓아서 영적 측면이 모든 것안에 있는 모든 것이도록, 즉 인간 전체에서 스스로 계심(the I AM)을 밝혀준다.



59. 위 진리는 교리적으로나 실제로나 영적인간외에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진리이다. 자연적 인간 안에서 일 경우 그것은 언제나 반대된 상태가 결정지어져 있는 것만이 언제나 발견된다. 유대인들이 위 주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돌을 집어 들고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자연적 인간은 그 속의 거짓추론과 왜곡된 원리를 집어들어 이 위대한 진리, 즉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인간성으로 옷 입고 계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시다는 진리를 내치려고 한다. 그이유가 자연적 인간은 교회의 가장 필수 되는 이 원리를 파괴하기 위해 맹렬히 습격하고 싶은 속성이 상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 가셨다.” 여기에는 기적에 속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경우에서 같이 주님께서는 적들의 한가운데에서 사라지신 것이다. 이 상황은 신성한 진리에 반대하는 거짓관념들이 그분의 진리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자 할 때, 그들의 시야와 권세로부터 섭리적으로 철수하시어 가장 심각한 영적이고 영원한 상해가 그들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심을 표현한다. 내적인 역사적 의미에서 이 상황은 유대교회로부터 주님이 떠나신 것인데, 이것이 “성전을 떠나 심”에서 특별히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밤에 도둑같이 그분이 “오신다”에서 같이 그분이 “가심”은 인정하지 않았기에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이들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신다. 특히 결정의 때가 닥쳤을 때, 거짓원리들이 악의 찬 마음에서 돌출할 때, 영혼이 복되신 구세주의 생명 있는 현존 없이 남기어질 때 주님의 떠나심은 더욱 두드러지리라.

## 9

1. 앞 장의 마지막 절을 살피는 가운데 언급했던 것은, 주님께서 군중 사이를 통과해 성전을 나가심은 그분께서 유대교회로부터 떠나시는 것을 내적인 역사의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이 유대인에 의해 거절되고 이방인이 그분을 영접함이 본 장의 전체에 기록된 사건 속의 사람과 연결되어 표징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대화 자체로만 보면 주님께서 소경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인 듯 이렇게 읽혀지고 있

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보셨다.” “길을 가시다가, passing by” 란 현존과 유입(presence and influx)을 뜻한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처음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고뇌에 지친 대상임을 지각하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이 거기에 당도하시기 전에도 그 소경이 거기 있을 것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신다고 말해질 경우 그 영적 의미는 이렇다. 이는 누군가가 아니라 주체가 되게 만들도록 그의 이해성이 받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분의 빛을 통해 영적으로, 특히 구원의 섭리로써 그 사람을 보신다. 주님께서 보셨던 이 사람은 출생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 구절은 이방인과 관련해 볼 때 대단히 잘 어울리게 표현되었다. 비록 그들이 간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 성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나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성에 관한 얼마간의 지식은 소유했었다 해도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의 수준에서는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고 진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 소경을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무지함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본문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됨으로 특별히 의미되고 있다. 이것은 이방인의 소경됨이었고 그들은 무지의 소경됨에 있었다. 이것이 그들 주변의 상황인데 예언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오심, 진리의 빛으로 그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의 이해성이 그분의 진리를 받도록 열어 주심이 예언서에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죽음의 그늘과 어둠에 앉은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비의 이런 복된 일은 그 당시 그분이 오시는 때, 빛을 받았던 백성에게만 국한 된 것은 참으로 아니고, 이 백성의 상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계는 진리에 무지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섭리의 길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그분의 품위를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2.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주시하여 멈추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물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유대인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견해, 즉 이미 존재한 영혼이 죄에 대한 벌로서 병든 육체 안에서 태어났다는 식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없을 줄로 안다. 우리는 위 질문이 이방인에 관해, 또는 이방인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에 관련해 자주 느껴졌고, 때로는 표현되기도 했던 어떤 의구심으로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들의 부모 내지 조상의 어떤 결점 때문에 그들이 진리에 무지한 가운데 살도록 되어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사실 성경에는 지구의 한쪽 거주민만이 알려 지고 있다. 어쨌든 위 질문은 진솔한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진지한 물음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서, 라빠로서 인정하여 가르침을 주는 그분을 존경하여 제안된 질문일는지 모른다. 우리 역시 겸허한 제자의 신분으로 어느 사람같이 말한 적이 결코 없으셨던 그분의 대답에 경청해보자.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 또는 그의 부모가 죄가 없다거나, 그 질병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하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고, 이 사람의 특별한 고뇌는 그사람 자신 또는 그의 부모의 특별한 죄 있음의 결과가 아니라고 가르치시고 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련해서도 위와 똑같은 것을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선택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런 교회에서 배척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못나서도 아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족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어서 그들 주위의 나라에 있는 백성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는 마지막 결과에 있는 원리를 수단으로 조절되어 진다. 여러 나라들은 하느님의 일이 그들 안에서 명백히 드러나지기 위해 소경으로 태어나고 있다. 이 나라들에 허용된 어둠은 슬기롭고 복된 목적을 위한 현명한 허용이다.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보류된 것은 그들이 그 빛을 수단으로 이윤이 창출되는 조건에 있지 않아서 었을 뿐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이 그들 안에서 드러내는 때가 올 것이다. 어둠에 그렇게 오래 앉았던 이 나라 백성들은 아마 눈으로 보여 왔던 교회보다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의 눈부시는 주체가 될 것이고 그들을 도구 삼아 성경에 관한 지식들은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어 갈 것이다. 이 주제를 개인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 각각은 정신적 소경인 무지에서 태어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이해성을 열어 주시는 때까지 영적 차원에 소경되어 있다. 영적 이해성이 열려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4. 소경이 보는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드러내지는 하느님의 일은 낮 동안에 작업 되어야만 한다. “나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주님과 관계되는 이 구절의 일반적 의미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권고의 말씀, “낮 동안에 일하라”는 것과 비슷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수습 기간 중의 일은 수습 받는 날 동안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그분의 창조물의 구원을 위해 할 일을 가지셨다. 주님이 말하신 낮(the day)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낮은 빠르게 지나치게 되는 날, 즉 주님의 강림 전의 밤에 단히어 결코 원위치 할 수 없게 허용되었던 유대교회의 날과도 관계되고 있다. 이 낮이 계속되는 동안 주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분의 일을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 이 작업은 주님께서 “온 땅에 어둠이 있기” 전에 신성한 그분의 일을 “끝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인류를 위해 희망과 빛인 새 날의 새벽이 그 날에 있어졌다.

5.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첨부해 말하셨는데, 이는 육체에 관련해 그분의 떠남이 어둠 가운데 세상을 남겨두신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 그분의 진리의 빛은 그분이 승천하신 이 후가 그 전보다 더 큰 광채를 가지고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세상에서 인정될 때 주님은 세상에 계신다.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진리의 실제 응용됨을 수단으로 합리적 마음 안에 그분이 현존하심은 그분으로 그 사람의 길잡이요 선생이 되게 한다. 이것이 이해성이 열리는 길을 준비해 주는데 이제 아래에서 취급되고 있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 말씀 한 마디로도 큰 기적을 수행하셨던 그분께서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께서 특이한 수단을 사용하신 것은 이 소경이 특이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던 대로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진리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이들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교리로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합리적 자질이 발달된 적이 결코 없는 이들과 같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외적 또는 감각적 상태에 있는 바 그들은 진리가 그들의 감각적 납득 수준으

로 내려오기를 요구하는 썸이다. 이렇게 주님의 진리를 감각적 수준, 또는 감각적 납득력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 땅(ground)은 수용하는 능력 측면으로 볼 때 자연적 마음 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자연적 마음에서 자연적 선과 하나됨이 침으로 진흙(clay)을 만드심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 진흙이 소경의 눈에 발라지는 모습이 표현한 바, 단순한 선에 하나된 단순한 진리는 믿음이 활동하는 동안 이해성을 여는 도구로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에 의해 허용된다는 것이다.

7. 한 단계가 더 요구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내진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실로암 연못은 말씀을 상징(type)하는데 특히 글자적 의미 측면에서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이 연못에서 씻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로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연못의 이름은 보내진 자(Sent)인데 이 이름은 주님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 보내진 자는 선함으로부터 발산(감화)되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함을 함유하고 있는 진리이다. 그 이유가 보낸 자와 보내진 자는 썸과 시냇물의 관계같이 실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연못으로 가라고 명령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다(going)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 또는 거룩함이 진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서 씻는 그는 보게 되었다. 그의 눈은 “이 세상의 빛을 보도록” 열려졌다. 이 얼마나 축복된 변화인가! 복주시는 구세주에 감화를 받고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에 기쁘게 순종하여 그분의 방향제시에 따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체험 그 이상의 축복이 더 있을까? 실로암 연못에 소경으로 갔던 그는 보게 되었다.

8. 이 구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 사람의 이웃에 이 기적이 미친 영향력에 관한 사건을 읽게 된다. 이 소경이 이방인 사이에 있는 교회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의 이웃들은 반 이방인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 즉 한편으로는 이방인과 연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교회를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이웃사람들이 진리에 무지한 상태에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감각 수준 위로 전혀 승강되지 않은 이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면 눈을 뜬 소경의 이웃들이란

자연적 수준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명시한다. 그 이유가 선은 진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이렇게 읽는다.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소경이었던 때에 그를 보았었던 사람들이 말한다...” 이 구절은 사람의 두 계층, 즉 의지로부터 “소경”된 부류와 이해성으로부터 “눈먼” 부류를 묘사해 놓고 있다. 그들이 말한다. “...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이 말 역시 소경된 사람의 경우같이 교회를 형성하는 이들과 관련하여 이방인의 조건을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다. 거지는 자신 스스로로는 공급할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바라는 부잣집 문간에 누워있는 거지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교회 멤버가 되는 특전을 갖는 것은 “젓더미에서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서서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무엘상 2:8). 구걸하는 것은 결핍을 표시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핍에서 해제되기를 바라는 것도 표현한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보금의 처방에 속하는 원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서 교회의 진리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어둠에 앉아 있는 모습은 소경과 비슷한 처지를 표현한다. 그 이유가 원인은 다를지언정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앉음은 의지와 관계되고 구걸함은 이해성과 관계된다. 우리는 주체자일 뿐 아니라 목격자로서의 변화도 있다. 우리 모두는 소경으로 태어난다. 무지는 상속되는 상태이다. 이 무지는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등하다. 영적 차원에서 봄(sight)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보게 되지 않고 지식이 가르치는 믿음을 수단으로, 특히 가장 높은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상적이고 감각적 상태에 있는 동안 비록 우리의 이해성을 열게 하지는 못한다 해도 안약을 만드시고 바르심으로 언젠가 우리의 이해성이 열리도록 하는 수단을 주시어 열릴 준비를 갖추어 주신다. 특히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상 삶 중에서 대단히 활동적이지 않을 때 이런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우리가 적극적 상태일 때, 즉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협동하게 되고, 말씀을 생명수로서 여겨 그 곳으로 가고,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말씀의 진리들을 응용할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시력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 안에서 계발된 믿음을 획득한다. 이 새로운 상태는 옛 것과는 단편이다. 새 것은 우리에게 새 감각을 주고 새 세계를 밝히

알린다.

9. 눈뜬 사람을 보고 그의 이웃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였다.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यो’ 하고 말하였다.” 위 구절의 의문은 그가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과 비슷할 뿐이나에 대해서이다. 눈이 먼 채 구걸하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다고 인정하는 이들이란 개혁되어 가는 발전 단계를 시작부터 추적할 수 있는 이들, 즉 그들 속에서 개혁하는 주체의 정체와 두 상태,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이들이다. 한편 눈을 뜬 사람은 과거 눈이 멀고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 뿐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이란 신성한 자비가 작업한 똑같은 토대를 두 상태를 통해 볼 수 없는 이들, 즉 개혁의 진보를 추적해 볼 수 없는 이들이다. 어쨌든 눈뜬 소경 자신도 타인들이 자기가 눈을 뜬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의심은 회의적이라기 보다는 경이로워하는 쪽에 속했다. 나 자신이 과거에 어떠했었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에 관한 지식은 우리 마음을 신성한 선함과 권능으로 강하게 인상짓게 해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가져다 놓이게 해준다. “지금 보고 있는 나는 과거에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거룩한 많은 것과 행복한 정서 안에서 납득하는 인정함이다.

10.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현상을 보거나 들을 경우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주목해둘만 하다. 일상생활에서의 흔한 어떤 사건 조차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발생했을까?” 라는 문의는 언제나 있다. 그런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본성에 합리적인 자질을 이식해 두셔서 이 자질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원인을 통해 첫 원인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추적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경우 “어떻게 당신 눈이 열렸소?” 이다. 이것의 대답은 한 개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의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원인과 첫 원인 둘 다 가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원인은 실로암 연못의 물이었다. 첫 원인은 주 예수였다. 생활의 사건이라면 이 두 가지는 합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의는 그것들의 진짜 품성을 보는 진짜 진리들이 언제나

거기에 있다. 가장 큰 질문을 두고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뉘어짐이 자주 존재한다. 우리 마음 속의 회의장에서 분단이 있을 경우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기심의 거짓과 악은 당연히 되듯 당당하게 우리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고 참되고 선한 어떤 것을 수단으로 점검되고 평형을 이루는 수준에만 머물 수 있을 뿐이다. (참고: 11-16절까지는 이미 설명되었던 내용인 관계로 저자 원문에서도 생략되고 있음)

17,18. 예수의 품성에 관한 논란이 서로 엇갈려 있는 중에 바리사이파 사람이 눈뜬 당사자에게 묻는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라고 고백하든지, 그를 과문시킬수 있는 건수를 만들려는 계책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질문은 단지 그 사람의 언어 행동을 떠보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 이런 이유에서 눈을 뜬 그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단지 예언자로 표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불신앙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다. 눈뜬 사람은 믿음을 통해 보게 된 이들을 표현한다. 주님은 믿음의 최고 대상이자 동시에 믿음의 저자이시다. 이따므로 그분은 신실한 자에게는 그의 신앙을 세우는 반석(the Rock)이고 불신실한 자의 경우는 그를 깨트리는 바위일 뿐이다. 인간의 손이 예수를 대접한 것들은 모든 시대에서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대접받는 것을 적나라하게 진열해 놓은 것이다. 불신앙자는 타인 안에 있는 믿음을 소진시키려고 노력해댄다. 이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지만 믿으려 하는 이들까지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점철된 유대인의 행동에서 이런 것을 명백하게 본다. 이 사건 역시 그것에 대한 예이다. 눈뜬 소경이 예수를 예언자로 말했는데 이는 교리 측면에서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뜻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견해 속의 진리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 하는 짓은 지금도 그러하지 않을까? 자연적 인간은 모든 인간의 경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연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 영적 진리를 자연적 진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자연적 인간이 그렇게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유일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공부해 볼 가치도 없고 신용할 가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상태에 관해 또 다른 국면도 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총명한 믿음의 목적으로서가 아닌 눈먼 믿음의 목적으로, 추론과 체험이라는 앞쪽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아닌 과거의 전통이나 권위라는 뒤쪽으로 후퇴하는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소경의 부모가 알아 볼 때까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당사자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소경의 부모란 인간의 유전적 본성, 즉 천국과 영원한 삶에 속한 것들에 갇혀 있는 인간 본성 그 자체이다.

19.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유대인이 소경의 부모에게 질의함은 영(spirit)에 관해 증명하라고 문초하는 인간 속성, 즉 어떻게 영적 인간이 영적 수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라고 자연적 인간에게 묻는 것이다. 이제 그 대답을 들어보자.

20,21. “예,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자연적 인간은 그 인간 자신의 후손은 아는바 그것의 유전적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간은 그것의 회복에 관한 수단과 능력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쨌든 자연적 인간도 그의 합리성이 성숙해져 자연적 인간에서 독립할 때 그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22,23.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자연적 원리는 악 자체에 의해 합리적인 것과 하나되지 않도록 예방되는데 동시에 그 원리는 자연적 마음에 들어가 하나되도록 강요되고, 교회의 교리로부터 인정된 신성한 진리를 떼어내라고 위협하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를 회당밖으로 쫓아내려는 모습이다.

24.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반대하는 악들은 그 자신을 합리적 원리

의 증거를 왜곡되게 하려고 합리성에 이렇게 직접 대든다. “유다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놓고 ‘하느님께 찬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보지 못하다가 보게된데 대해 하느님께 찬양이나 영광을 돌리라고 그에게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된 것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지 자기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도 강력히 주입시키려 해서였다. 그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고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지로부터 예수가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유도해 내려 했던 것이다.

25. 그들의 욕박지르는 요구에 응답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척 하면서 그 결론을 그들 스스로 끌어 내게 하고 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뚫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 대답은 대단히 걸출하다. 그래서 특출한 교훈도 가르치고 있다. 실험적인 지식,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기적적인 빛으로 데려와지게 된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자체의 실체, 또는 기적을 있게 한 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반박의 형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 내 영혼이 이런 사항들을 알게 하자. 그러면 불신양자가 시도하는 모든 흠집내기도 실제로 나에 관한 한 끝장난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나 자신의 자연적으로 부패된 심정 안에 든 불신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시들에도 효능이 있다.

26. 진리를 안팎으로 공격하는 또 다른 바탕이 있다. 앞 구절에서의 이의제기는 눈을 뜨게 한 권능에 관해서였고 여기서는 그 수단에 관해서이다.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요?” 사실 질문 자체의 단어 수준에서라면 자연스런 문의이다. 이미 주목해 본바 대로 우리의 합리성은 어떤 것의 원인을 조사해 보도록 우리를 자극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던가, 발생했다던가 하는 것만을 아는 것에 만족치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를 알고 싶어한다. 설사 알아보았자 쓸모가 자신에게 별로 있지 않는 때라 해도 무작정 알고 싶어 묻는 때가 자주 있다. 유다인들의 이 질문은 전에도 있었던 문의이다. 부정적 태도를 지닌 많은 다른 경우같이 그들도 전에 공격했던

수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 심정 속의 악들 역시 최후에는 승리하여 참 진리를 꺾으리라는 기대 하에 같은 짓을 되풀이 간다.

27. 눈뜬 소경이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 때에는 듣지도 않았다.” 이전의 답변은 어떤 확신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 그들이 다시 물은 것은 그들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서가 아니냐는 식에서 눈뜬 소경은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들은 듣지 않았다.” 들을 귀를 가지지 않는 그들인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상태는 그들이 눈뜬 소경이든, 예수가든 고 발하려드는 마음의 바탕이다. 악은 진리를 듣는 귀가 없다. 따라서 제자 이유를 묻거나 설명을 반복하라고 할 경우 당연히 “어째서?”, “묻는 의도가 무엇이나?”, “제자가 되려해서 인가?” 라고 되돌려 질문할 수밖에 없다. 사실 여기서의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사악한 자나 불신양자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위의 질문에 이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마음이 좁은 신앙자들, 즉 자기들의 신조 그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이들, 종파의 영역이라면 진리나 덕행도 제대로 삼을 수 있는 신앙자들을 표현한다. 진리로서의 그리스도는 그들의 관념과 목적에 순응되어야 하나 그분의 원리나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2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가 아는바, 그들은 모세의 제자일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들은 모세가 적어 둔 그분의 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세로 표현된 말씀의 글자적 수준에서의 제자이고, 그런데도 그리스도로 표현된 말씀의 영에는 적개심을 품고 있는 제자라 말해 볼 수는 있다. 말씀의 글자는 생명을 주는 말씀의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글자는 그 사람을 죽인다.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위해 율법의 목적이다” (로마서10:4). 율법의 목적되시는 분, 정의로운 분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이분을 믿는 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이들이 어떻게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은 자신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반대하는 애정을 지닌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제자되다는 이들이 진리를 비방하는 그 밑에는 자아를 사랑함이 깔려 있다. 이 사랑

은 사랑 자체이신 분을 사랑함의 적이다.

29. 유대인들이 모세는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참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세대를 이은 그들 조상에게 그 예를 보였기 때문이다. 타인들이 믿었던 것을 믿는다고나, 믿게 됨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 예상되어 나도 믿어 본다는 것은 쉽다. 그러나 추천될 게 어느 하나도 없는 어떤 것을 두고 우리로 믿으라고 요구할 때 큰 변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의문이 되는 것은 새 진리에서의 불신앙자가 옛 진리에서는 얼마나 참신한 신앙자 이었을 것이냐에 대해서이다. 새로운 것은 옛 것 안에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가 출생된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요한5:46).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에게도 말하셨다고 알았을는지 모른다. 하느님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서 모세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서도 말하셔야만 한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지금도 모세와 더불어. 그리고 그리스도와도 말해야 한다. 그 이유가 자연적 진리 되는 모세는 자연적 마음에 있고, 영적 진리되는 그리스도는 영적 마음 안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살아 계시고 참된 분으로서의 하느님이 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우리가 소유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뿐이다. 자연적 진리를 수없이 인정하는데 영적 진리가 어디로부터인지 누가 모르고 있는가?

30. 위 행동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이렇게 답하고 있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아 예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의 근원은 그것의 본성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어디에서”란 진리의 근원 되는 선을 표현하고 있다. 진리가 선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은 진리가 작동된 복된 결과로 우리는 안다. 이 중간에 이해성의 열림이 있다. 기독교신앙은 많은 나라의 백성들의 눈을 열었다. 이 신앙은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에 무지함으로부터 천국과 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주었다. 그 이유가 종교와 과학은 서로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같이 그것이 어디로부터인지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31. 이 가련한 거지는 예수란 분은 신성한 권능으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자기에게 나누어 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이상은 알지 못한 듯 보인다. 이런 단순한 마음 바탕에서 그는 올바르게 추론하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두고도 예수는 정의로운 분이셨다. “나 만일 내 심정에 나쁜 뜻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아니 들어 주셨으리라. 그러나 하느님은 들어 주셨다.” (시편66:18). 예수의 하신 일들은 이 구절의 그분의 경우였다고 선포했다. 하느님은 들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 신앙과 불신앙은 심정에 뿌리고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 구절은 그 얼마나 놀라운가!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이해성은 심정에 뿌리박은 것을 확증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증거를 가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완고한 심정은 예수를 구세주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32. 주님이 하신 일들은 보통 수준의 일들은 아니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진리가 글자대로 위대한 만큼 영적으로도 위대하다. 인간은 정신적으로이든 영적으로이든 소경 되어 태어남은 타락의 결과이다. 인간이 본연의 모습대로 남았더라면 여느 피조물같이 인간도 자기의 본성과 필요함이 요구하는 지식으로 태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소경으로 태어나 그 소경됨에서 영적으로 해방된 자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아무도 없었다. 주 예수만이 그 시작의 첫 번째요, 소경으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의 눈을 여신 유일한 분이셨다. 다시 말해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데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유일한 분이셨다. 본 장의 가련한 눈뜬 소경은 영적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주님의 일의 상징적인 첫 열매였다. 그분의 권능의 어느 권능도 이 위대한 기적을 수행할 수 없다.

33. 거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일뿐 아니라 신성한 분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눈먼 사람에게 베푸는 일로 상징화된 것과 같은 회복의 일을 전혀 하

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은 죽음의 그늘과 어둠에 앉아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34. 정확히 들어맞는 가련한 사람의 논쟁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의 응답을 주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않기로 걱정했다. “너는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이런 비난은 본 장 2절에서 같이, 인간의 소경됨은 그의 부모 또는 자신의 특별한 죄 때문이라는 그 당시 유행한 견해를 표현했는 듯 보인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이라는 권위로 진리를 판결했다. 모든 시대를 걸쳐 이와같은 영이 얼마나 우세했는지, 이와 똑같은 규율이 교회 안의 기회주의적인 것들의 뒤를 얼마나 잇고 있었는지 모른다. 위와 똑같은 영과 규율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 열정, 편견, 사리사욕들이 우리의 판단을 덮어 씌우고 있다. 너무나 종종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것에 반대되어 오는 사실이나 생각들, 증거들에 저항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믿음과 종파적인 이타애라는 회당이 새로운 진리를 포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좁다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이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효능을 새 진리가 보여줄 때 조차에서도 그러하다.

35. “예수께서는 눈멀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전능하신 예수께서 이미 아시고 있는데도 그분이 무슨 말을 들었다고 성경에서 읽게 될 경우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께 복종하는 마음 안에 그분으로부터 지각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지각함(perception)은 마음의 내면에 자리잡고 의지를 통해 오고, 들었던 것은 의지안으로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주님께서 눈이 치료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 지각이 그 대상을 발견하고, 그 발견에서 상응되는 지각과 상호간의 행동을 생산하도록 작동되었다는 뜻이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신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믿느냐?” 중요한 질문이다. 주님은 말씀 측면에서 사람의 아들로, 신성한 인성 측면에서는 하느님의 아들로 일컬어 지셨다.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이 신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주님

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을 믿는 신앙을 생산하신다. 이런 더 높은 믿음은 보다 더 낮은 수단들이 일을 벌려 운반하려 피하는 거듭남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이고, 이 반석에 대항해서는 어느 권세도 이길 수 없다. 그 이유가 주님의 영화된 인성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은 인성이 우리 안에서 영화되었음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36. 주님의 물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에 이 사람이 대답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복주시는 분을 과거 보지 못했는 바, 알지 못했다. 그는 귀로 그분에 관해 들었으나, 지금 그의 눈이 그분을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의 구분이 어떤지에 관한 예증을 갖게 된다. 이미 언급했듯, 듣는 것은 의지와 더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감각기관이고, 보는 것은 이해성과 더 직접 교통한다. 보는 것은 지각함에 완전과 구분(distinction)을 선물한다. 진리가 진리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진리가 충만된 직관 또는 마음의 지각 아래 오기 전, 그것이 진리임을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지각의 대상으로 주님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자기 눈을 열었다는 것을 거지는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몰랐다. 이제 그는 더 높은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예수란 분의 것이라는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믿음의 원리가 그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진리가 선포되고 명백해졌을 때 그의 믿음의 참 대상으로 예수가 마음에 안착되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37.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듣고 보는 것, 서로 협력하여 지금 함께 만나고 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말하셨던 그분이 지금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간 본성을 입으신 여호와로서, 예수를 구세주로서 믿으라는 신앙을 주장하시는 그분으로서 서 계신 것이다.

38. 그의 응답이야말로 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고 진실한가!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인정함의 영적 근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체험의 산물이다. 영혼은 그 자신의 재앙과 슬픔을 알고 있다. 영혼의 악과 무지함으로부터의 해방은 영혼의 해방자가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지각하도록 마음을 연다. 그리고 이것이 경배 드리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구절의 경우 존경을 바치는 것은 영적 예배의 품성을 충분히 지니지 않은 듯 여겨진다. 그러나 그런 품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주님으로부터의 더 큰 축복, 즉 영의 눈이 열린 이들은 그에 상응되는 더 높은 예배, 사랑과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사랑하는 심정을 그분께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39. 이 장의 많은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낸 상반된 두 인간 본성에서 추려내진 이 구절의 교훈은 엄숙하고 귀감적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지적인 소경과 보는 것에만 관계되어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각 안에서 눈먼 사람은 지적으로 소경된 사람을 표현하고, 박해하는 유대인은 지적으로 보기는 하나 신성한 선물을 남용하는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의 오심은 단순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 반면 슬기롭고 신중하다는 이들로부터서는 진리를 감추이게 하는 결과가 오게 했다. 자신으로부터서만 보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보고 있다. 이들이 더욱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을 추켜세우고 과장하기 위해 진리를 더욱 더 뒤집는다. 그 반면 보지 못하고 있으나 보기를 바라는 이들은 주님께로 인도되고 그분을 따른다. 심판은 주님이 오실 때마다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작업의 하나이다. 영계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분리는 교회에서도, 거듭나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도 그와 상응되는 결과를 가진다. 악과 선, 거짓과 진리 사이를 식별하고 분리함이 심판의 일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에게 끝맺어 주는 말씀에서 그런 분리가 복주시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던 말ियो?’ 하고 대들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하시는 소경의 뜻을 헤



아리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열 필요가 있는 소경들 틈에 있다는 암시에 공격적 자세를 취했다.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뚜렷하게 잘 보는 부류의 인간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교묘함(cunning)은 그 자체를 두고 지혜롭다고 언제나 자찬한다. 거짓은 그것이 진리라고 우겨댄다.

41.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죄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위반함도 없다.” 법을 알지 못하는 곳에 법을 위반하는 것도 없다는 것도 위와 대등한 이치이다. 이것은 신성한 법에 적용되어도 같은 결론이다. 법이 영원하고 변경될 수 없다 해도 우리가 법을 알고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무지함은 죄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면제된다. “너희가 소경이라면 너희에겐 죄가 없다”는 말씀은 참되고 위로를 주기까지 한다. 소경인 자는 볼 필요에 따른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보는 것 가지고 떠벌리지 않는다.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눈이 멀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본다는 데 따른 자부심이 죄를 지은 소경이다. 그들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과학은 가지고 있으나 지혜가 없다. 그들은 타인의 흠은 보고 있으나 자신의 것에는 소경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기꺼이 보겠다고 한다면 볼 수 있게 할 지식은 가지고 있다. 죄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이상 그들의 죄는 남아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회개와 자아 부정으로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10

이 장은 새로운 강연이 아니라 앞 장의 마지막 절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연결은 글자적 의미로부터 확실하다. 즉 주님께서서는 본인을 선한 목자로서, 유대교 선생은 악한 목자로서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에 관한 이 비유보다 더 아름다운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비교묘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내적 의미를 생각해 볼 경우 글자적 의미보다 더 친밀한 관계, 더 아름다운 묘사를 진리의 보편적 응용에

서 보리라 생각된다.

1.2.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판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지상과 천국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양우리이다. 교회가 표현되는 양상은 교회가 다른 이름, 예를 들면 포도원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경우 그 이름 아래에서는 다른 면모의 교회를 말하게 된다. 포도원은 영적 수준의 교회이고, 양우리는 천적 수준의 교회이다. 이 구절에서 중심 삼는 것은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참된 목자이나, 판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라고 대비시키고 있다. 뒤 구절에서 주님이 설명하시듯, 문은 교회에로 안내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상징이다. 그리고 그 문은 진리 쪽으로 이든, 선 쪽으로 이든, 또는 주님 쪽으로 이든 안내한다. 그러므로 문은 진리 자체, 선 자체, 그리고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진리는 선으로 인도하고 선은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문과 성막의 휘장,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의 것을 표현했다. 주님께 의해 양우리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자주 가르치셨던 내용이다. 문을 사용하지 않고 판데로 넘어 들어 가려는 사람은 제 능력으로 천국을 넘어 들어 가겠다고 시도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천국의 입장 허가를 얻겠다는 사람이다. 주님의 것을 그분으로부터 가져다가 그것이 자신에게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이런 자는 주님께에서 그분의 공적과 정의를, 그분의 구속하심과 구원해주심을 강탈한다. 주님을 던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주님의 속성, 즉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서 예수의 의미와 그 힘은 빠져 버린 채 예수라는 이름밖에 남아 있는 게 없다. 더 추상적 의미에서 마음에 있는 거짓과 악한 원리가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 이유가 이것들이 이해성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심정으로부터 모든 선을 털어 가기 때문이다.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최고의 의미에서 목자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 가는 의미에서 목자는 성실한 목사일 것이다. 영적 의미일 경우 목자는 성실한 기독교인이다. 추상적 의미에서 양은 사랑과 이타애라는 품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각각은 그의 심정 안에 이 품위를 품어 안기를 바래고 그 품위를 그

의 삶에서 가꾸어 키우는 영적인 목자이다. 그는 주님을 모방해서 그의 가슴에 어린 양을 끌어안아 나르며 새끼가 달려 젖을 먹이는 양들을 온화하게 인도한다. 양우리 자체는 각자의 따뜻한 심정에 위치하고, 조심스럽고 계발된 이해성에 있는 진리들로 울타리가 쳐져 있다.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란 그의 합리적 자질이다. 그리고 그 문이란 주님이 그의 목자이시다는 것,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야만 생명과 안전함이 있다는 것을 심정으로부터 이해성으로 인정함이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연다.” 우선 우리는 이 구절이 비유를 장식해주려고, 또는 완전케하도록 도입된 모양새 수준으로서 가볍게 여겨 지나쳐 버려서는 안된다. 말씀에서 모든 것은 의미심장하고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porter)란 누구이며 무엇일까? 목자와 문지기는 사랑과 지혜로서 서로 구별된다. 지혜는 사랑이 보물로서 소중히 하는 것을 지키는 파수꾼(guardian)이다. 지혜 또는 총명은 건물이나 성벽에서 지키는 경비원(watchman)이고 수위(porter)는 문을 지킨다. 문지기는 친구이든 적이든 누군가의 접근을 알려주고, 문을 닫아서 적은 배척하고, 친구에게는 문을 열어 주어 환영한다. 이타애가 목자요, 믿음은 문지기라고 말해도 이와 같다. 그 이유가 믿음은 이타애가 거주하는 심정의 문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표현한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그가 예수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 열쇠가 주어졌다 (마태16:16, 요한6:69). 문지기는 양의 목자에게 문을 연다. 지혜는 사랑이 진입하도록 길을 연다. 둘째가는 원리인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 사랑이라는 첫째가는 원리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 진실된 이타애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믿음이 있기 전, 자연적 수준의 이타애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은 이타애를 영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진리는 선을 진짜로 만드는데 요구되어지고, 지혜는 사랑을 순수하고 유용해지게 만드는데 필요하다. 목자에 관해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대화에서 소리는 애정을 표현하고, 자음(articulation)은 생각을 표현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웃을 향해 이타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수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참으로 이들은 그분의 진리를 지각한다. 더구나 다른 어느 사람보다 더 큰 완전함으로 지각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지각한 진리에 제일 먼저 영향을 준

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애정이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뿐 아니라 애정에 대해 그분 스스로 이렇게 전달하신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부른다.” 이름이란 품질(quality), 또는 특성(character)을 표현한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품질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채택하신다. 마치 그분께서 각각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섭리의 작전을 펼치시는 것과 같다. 그분께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심이 함축하는 또 하나는,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특성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분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이 말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이 거느린 양을 이름으로 아신다. 그들의 품질을 아시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을 밖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이타애의 애정을 끌어내 바깥쪽 생활에서 이타애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4.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옛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의 모습은 신성한 분 그리고 영적인 모든 목자의 지도함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을 제공하고 있다. 신실한 목자는 지휘하기도 할 뿐 아니라 꾸짖기도 한다. 그는 양떼 앞에서 이끌 듯 그의 본보기를 보여 이끈다. 목자가 앞장 서 가는 것은 목자를 따르는 양떼의 총명도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말해진바 목자는 그의 양떼를 “인도, lead”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목자는 그의 양떼를 내놓는다. put forth” 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선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가르침 아래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선의 상태를 달성했을 때, 그는 진리가 가르치는 모든 의무를, 선이 기뻐하는 모든 의무를 떨쳐버린다.

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여 달아난다.” 목자는 선에 바탕을 둔 진리로 그의 양떼에 호소하지만, 낯선 사람은 악에 바탕을 둔 거짓으로 그들에게 호소한다. 그러므로 양은 이상한 자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도망친다. 그 이유가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비유의 기본 골격은 평범한 수준에서 이해하는 이들, 또는 교

회 밖에 있는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마치 비유는 그것을 전달받는 이들에 의해 이해되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 차원에서의 유대인들, 세부적 차원에서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비유가 유대교회안에 있어야 할 진리를 지각하는 자질이 상당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자신들에게 응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 주제가 묘사하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그들의 선생에게, 또는 예수 자신과 연관되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7.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통상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그분과 그들에게 직접 관련시켜 비유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하신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들이 이 설명을 이해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 측면에서 문이시다. 이 신성한 인성은 위대한 매체에서 과거 타락을 통해 도입된 악에 의해 찢기고 나뉜 모든 것, 그야말로 천국과 세상,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단절시켰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주님의 신성한 인성은 문이 되셨다. 이를 통해 하느님은 인간에게 다가 가시고 인간은 하느님께 접근한다. 한마디로 이 인성을 통해 생명과 축복의 모든 통로가 새로이 열려졌다. 그분을 통해 천국과 지상에 있는 교회에로 입장할 수 있고 악에 대항할 때도 안전이 보장된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이 서술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으로 느껴왔던 대목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강림 앞에 있었던 모든 목자들이 악한 자들이었다 든가, 거짓 그리스도였다 든가 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적 수준의 관계가 애매하지만 영적 수준의 의미는 명확하다. 예수 앞에 왔었던 모든 사람이란 자신의 영을 자기 스스로 가르쳤다고, 자신의 영예를 예상하여 자신 스스로 잘난 인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들은 그분에 앞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이들은 주님께 속한 것을 자신에게로 가로챈 것으로 해서 도둑이며 강도인 것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 앞서 온 사람들이란 악과 거짓의 원리들, 그분의 선함과 진리에 직접 반대되는 원리들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심정과 이해성에서 그분의 것을 훔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

을 듣지 않는다. 양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애정들, 또는 심정에 있는 이타애와 믿음에 대한 애정들이다. 이들 중의 얼마큼은 인간의 마음 안에 보존되어 오고 있다. 어떤 인물 안에서는 그것들이 적극적일 경우도 있다. 어쨌든 모든 세대를 망라해서 일반적 부패함으로부터 얼마큼은 아껴 보존되어 왔었다. 이것들은 악한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것들은 악하고 거짓된 원리로 유혹되는 고통도 받지 않는다.

9. 다시 주님께서 선포하신다. “나는 문이다.” 그분이 반복하신 이유는 이 진리를 매체로 해서 그분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과 선용을 가르쳐 주시고저 해서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구원 될 것이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발견할 수 있다.” 구원은 주님의 신성한 인성을 통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신성한 인성이 구세주이시다.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을 영화하시어 우리를 거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을 거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통과하셨던 것들과 상응되는 모든 상태를 거친다는 말이다. 우리는 거둬남에 의해서만 구원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영화해 가셨던 것같이 우리는 거둬날 수 있다. 구원되는 이들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간다. 들어가는 것이란 사랑과 이타애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란 위와 같은 내향의 상태로부터 거룩함과 경건함이라는 바깥쪽 행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럴 때 발견하는 풀이란 영혼을 재창조하고 유지 존속되게 하는 선과 진리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님을 인정하는 이들에 의해 받아진다.

10. 이제 대조되는 두 가지,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대비가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공적(merit)의 악이 도둑으로 특별하게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갖가지 종류의 악과 거짓이라 해도 대체로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이 하는 짓은 오로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 즉 모든 선과 진리를 마음에서 떼어 판테로 빼내어 악으로 죽이고, 거짓으로 파괴한다. 그러나 선과 진리를 가지신 주님은 영혼에 생명을 주기 위해, 즉 사랑과 믿음이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이 더 풍부해지게 해주시려고 오신다. 영적으로 사랑은 생명이다. 그리고 의지에 있는 사랑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로 의미된 이해성에 있는 진리를 수단으로 그 자체 재생산해 간다.

11. 주님은 자신을 두고 문이라고 말하셨다. 이 문을 통해 목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자신을 목자라 부르신다. 목자일 뿐 아니라 선한 목자라 일컫고 계신다. 여기서 주님께서 간주하신 특성은 구약성서에서 여호와에 적용된 가장 특출한 특성 중 하나이다.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이나 이름들처럼 이 호칭도 여호와와 예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적으로 주님은 신성한 사랑 측면에서 우리의 목자이시다. 마치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 문이 되신 것과 같다. 이를 달리 말해보면 목자는 신성 측면에서이고 문은 인성 측면이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진리를 통해 들어간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준다.” 여기서 불리우는 생명은 영혼(soul)이라 말하는게 이해가 더 쉬울지 모른다. 더 외적 측면에서 주님이 내려놓으신 영혼은 게세마니에서 죽기까지 극도로 슬픔에 차있었던 영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영혼이었다. 신약성서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두 용어 중에서 하나는 내적 인간의 영혼을, 또 하나는 외적 인간의 영혼을, 똑같은 것으로 전자는 사랑의 생명을, 후자는 진리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주님은 그분의 외적 인간 측면의 생명에서 시험받으시고 고통받으셨으며 죽으셨는바, 그분은 이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다. 그분의 내적 인간의 생명은 시험 너머에, 시험에 따른 모든 것 너머에 있다. 외적 인간은 유전적인 악의 자리이다. 그리고 그 안에 처음 있었던 진리는 외관적 판단과 오류때문에 희미하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것들을 내려 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생명(영혼)을 내려 놓으신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시험을 수단으로, 그 시험의 마지막이기도 한 십자가의 고난을 수단으로 주님께서서는 진리의 모든 외관과 유전적인 모든 악을 벗으셨고, 시험을 통해 그분은 외적 인간의 생명과 진리의 생명을 추켜 올리시어 완전해지고 능력 있게 하셨다. 이 새로운 영혼, 주님 안에서 소생된 영인 이 영혼을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주시어 그분이 사시듯이 그들 역시 살 수 있게 하시고 있다.

12. “목자가 아닌 샅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샅꾼은 일 때문에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품삯 때문에 일하는 사람

이다. 그래서 그들이 노동하는 재미의 초점은 노동에 따른 이익이다. 샅꾼은 양을 소유한 이들은 아니다. 이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이타애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들도이다. 그들도 이타애와 믿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들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진짜 목자인지 그 여부를 구별짓게 하는 요건 중 하나는 그가 양을 보호한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방어한다는 것이다. 샅꾼의 사랑은 이를 위해 자아와 세상의 만사를 포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위협의 접근이 있으면 즉각 도망친다. 그는 악을 향해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그는 양을 내버리고 도망친다.” 이리는 우리의 심정에 있다. 이리에 대한 공포가 양을 사랑함보다 더 커질 때,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명의 사랑보다 더 강해질 때, 자기 속의 양을 적들에게 내어놓는바, 양들은 사로잡히고 흩어지고 만다. 선하고 참된 것이 악과 거짓의 권능에 무저항으로 노출될 때 마음 안의 선하고 참된 온갖 것이 깡끄리 사라진다는 것을 이 구절로부터 알게 된다. 그 이유가 악은 양을 포획하고 거짓은 양들을 흐트러지게 해서 그들은 천국에 속하는 의지와 이해성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13.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협이 등장하면 도망가는 것이 샅꾼의 진짜 속성이다. 정의의 자리에 자기 공적을 앗히는 이들은 시험에 맞설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아예 없다. 악과 거짓의 욕망이 저녁때 기어 나오는 이리같이 게걸스러워지면 이들의 선함을 위한 진짜 애정은 사라지고, 참으로 악에 저항해야겠다는 의사도 깡끄리 사라진다.

14. 주님께서 다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주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상호적인 지식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에 비추어 언급되어 왔다. 여기서 그분에 관한 지식은 더 완전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성은 주님이 제자 안에, 제자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결합의 완전함을 생산하고 있다.

15. 주님과 인간의 결합은 주님과 아버지의 하나됨의 모형이자 결과이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여 생명을 내려놓는다.” 주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상호적인 지식으로부터 주님께서서는 자신과 아버지에 관한 상호적인 지식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있다. 이런 경우는 유추적인 것보다 심도가 더 깊어서 그 둘은 원인과 결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심을 주장하시고 있다. 이는 그분께서 자주 그리고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구절에서의 경우 서로에 관해 동등하게 앎은 동등하게 무한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지식은 무한함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인물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그분과 그분의 자녀의 하나됨에 관한 근원이고 본보기이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과의 이 하나됨은 인성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려놓으심으로 결과되었다.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사랑, 인류의 구원을 그분이 바라심은 그분으로 하여금 악과 어둠의 모든 권세에 대하여 싸우게 하셨고, 그분의 유전적 인성 또는 어머니쪽의 인성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셨다. 이런 점에서 선한 목자가 샅꾼과 구별되어진다. 샅꾼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16. 더구나 주님은 그분의 양이라 부르신 이들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인접된 대략의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것이라 부를 양은 말씀이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소속된 선한 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양,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다른 양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자 나름대로 소유한 종교적 빛에 따라 서로 간의 이타에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 역시 주님의 양이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양우리로 데려와 그분의 목자적 보호아래 두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 내면적 의미, 더 수준 높게 이를 적용하면 두 양떼는 주님의 두 왕국, 즉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구성하는 이들이다. 다른 양들을 모으심, 천적인 수준의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양떼를 모으심은 영적인 왕국의 구원에 관계되고, 이것은 주님의 강림으로 특별히 결과되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위 선포는 자연계에서 육을 입으심으로 전망되는 결과뿐 아니라 이로부터 흘러 영계에서의 직접적인 결과까지를 가리키신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흥미와 중요성을 지닌 주제이고, 구속이라는 장엄하고 복된 일을 진열하는바, 비록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직접적인 결과라 해도 어느 정도 세세하게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온 천국은 세 천국과 두 왕국으로 구별되어진다. 이런 구분은 주님의 강림 전에는 비록 잠재적으로 존재했을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에 영적 왕국(the spiritual kingdom)은 천적 왕국(celestial kingdom)으로부터 주님이 오신 후와 같이 구분되지 않았고 - 비록 외적으로만 - 천적인 왕국과 하나된 채 있었다.” 그 때 존재했던 바대로의 천국은 태고교회(most ancient church)의 사람들과 유사했다. 물론 이로부터 천국도 본질적으로 파생되었다. 태고교회 사람들 안에서 이해성은 태고교회 이후의 사람들에서와 같이 의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외적이긴 하지만 의지와 하나였다. 큰 사람(the grand man)의 의지와 이해성인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은 그 교회 개개인 안에 있었던 것과 상황이 같았다.

아담적인 교회(the Adamic church) 즉 태고교회가 종말을 맞고, 노아적인 교회(the Noetic), 즉 고대교회(ancient church)가 시작되었을 때 불가사의한 변화가 인간 마음에 결과되었다. 이해성이 의지로부터 분리된 것, 또는 의지와 분리되어 식별됨으로 해서 두 기능은 구분되게 행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해성이 자발적 자질의 결정을 언제나 되풀이(echo)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와 상응되는 변화가 천국의 조건 또는 형체로 결과 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리했다. 어떤 분리된 천국 또는 어떤 구분되는 왕국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구속과 영화하심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이들 속에서 형성될 수 없었다. 주님은 육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일을 수단으로 인간뿐 아니라 천사까지 구속하셨다. 그리고 지옥을 복종시켰을 뿐아니라 천국을 정돈하셨다. 이런 주님의 신성한 일이 영계로 도입되면서 더 완전해진 질서 중의 하나는 천국이 두 개의 구분되는 왕국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천적인 왕국의 외부를 형성하는 영적인 왕국이 그 자체를 구별되게 하는 개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노아의 때(베드로전3:20)로부터 영들의 세계에 남아 있던 이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형성되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분의 부활 후에 풀어놓으셨고 그분의 승천에서 천국으로 올리셨다. 이것은 에집트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후손이 해방되는 사건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의 여행,

결국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일련의 사건에 그림자로 드리워진 위대한 해방과 축복이었다. 주님의 신성한 일은 두 왕국이 더 구분되고 더 하나가 되는 일이 한꺼번에 만 들어지는 결과를 보았다. 이 일 중 한 가지 부분이 그분의 인성의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그분 자신의 인물 안에서 선함과 진리의 원리 사이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구분과 하나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그분 안에 있어진 이런 구분됨과 하나됨은 천국과 교회, 인간 마음 안에서의 구분됨과 하나됨의 근원이고 원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첫 강림 때에 이런 두 왕국의 구분과 하나됨에 관한 예견을 발견한다. 천적인 왕국으로부터 영적인 왕국의 분리가 솔로몬 시대 (열왕기상12장) 이후, 이스라엘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나뉘는 사건에서 표징적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메시아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안주하실 때 그 산이 쪼개진다는 예언의 말이 묘사하고 있다 (즈가리아14:4). 그리고 두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한분 왕, 메시아의 끝없는 통치아래 한 개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왕국으로 다시 통일된다는 것이 수많은 예견(prediction)에서 묘사되고 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형성하시어 새로운 영적인 왕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들이 주님께서 가지셨고 데려와야겠다고 하신 양,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그분의 양과 한 우리를 형성하고 한 목자 아래 있어야 한다는 “다른 양”이다.

17. 지금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양떼를 하나로 모으시는 수단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는 다시 그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자연적인 것에 관점을 맞추어 응시해서는 안된다. 인간 아버지일 경우 그는 그의 아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사랑해주어야 하는지가 결정될는지 모른다. 신성한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증가될 수 있었으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럴 수 없었다. 이 구절에서 주목되는 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 내려놓았기 때문에서였다. 신성은 인성 속의 유전적인 생명이 내려 놓아지는 만큼에서 그 인성에 들어가 채워진다. 신성한 사랑은 주님의 초기 삶에 붙어 있었던 진리의 가상(appearance)이 제거되는 만큼에서 주님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진리와 하나되어졌

다. 이 제거는 시험을 수단으로 되었고, 그 시험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리하여 인간적 생명과 빛이 소멸되어 더 이상 시험받을 바탕이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은 다시 그분의 생명을 가지셨는바 이제 그분의 인성 속의 생명은 그분의 본질 되는 신성과 하나됨으로 영화되어 있다.

18. 그분의 생명에 관해 주님께서 말하신다. “누가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능도 있고 다시 얻는 권능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그분이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자발적인 희생, 자유로운 의지로 있어진 헌물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해준다. 따라서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까? 주님께서 위 구절의 말로 선포하신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분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다른 세계에 있는 어둠의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악속의 모든 권세와 싸우셔야만 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그분은 적들을 파괴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셨다. 이 말들은 주님의 구속에 관련하여 또 다른 진리로 표현되고 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을 수단으로 시험과의 싸움을 수행하셨다. 말하자면 그분은 이 싸움만을 수행하도록 남아 계셨다. 사실 그분 홀로 싸우신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적 의식 세계는 굴욕적인 그분의 상태로 홀로 있었다. 그 다음 그분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느꼈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행동하셨다. 그분의 인간적 의식 세계가 이렇게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었는바, 가장 큰 시련의 때에 그것은 마치 신성이 없는 듯, 그분을 버린 듯 여겨질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모든 것은 필수과정이었다. 구속하심, 그리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주님께서 그분의 인간적인 의식 세계의 깊은 속으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되지 않으면 성취 될 수 없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주님은 절대적 자유 안에 있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자유였다. 그래서 그분은 독자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으셨다. 그럼에도 신성이 주님의 인간적 자유로부터 추출된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생명을 내려놓는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명령에 순종했다. 인간성은 의지에 복종했고 신성의 요구에 응했다. 예수께서는 형식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신성이 명령

(dictate)하는 것에 일치되어 행동하셨다.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다른 경우나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도 신성한 사랑의 자극에 응하셨다. 그분이 순종한 명령은 무한하고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법칙이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었다.

**19-21.** 주님께서 지혜를 자비로 채운 위의 신성한 말씀을 말하셨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앞 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일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그분 자신에 관해 하신 말 때문에 의견이 갈리었다. 주님의 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은 나뉘게 하는 경향도 있다. 그분은 지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 이 칼은 영(Spirit)의 칼이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교회에 있는 성실한 자와 불성실한 자를, 각 개인의 마음 안에서 악과 선, 진리와 거짓을 갈라놓는다. 이런 종류의 심판을 위해 주님은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 반대되는 것을 분리시켜 념으로서만 교회는 회복될 수 있고, 인간은 거듭나질 수 있다. 이 분리는 질서의 도입이다. 특성에서 반대되는 것들을 반대쪽에 배열할 때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은 천국적 형체를 갖추게 되고 이를 수단으로 악과 거짓의 원리에 저항하고 정복한다. 악한 편에 자신들을 배열한 이들은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가 미쳤는데 왜 그의 말을 듣는 거요?” 라고 말한 자들이다. 그들은 신성한 질서를 뒤집어서 선함을 악마라고, 지혜를 미친 상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지에 입장하려는 신성한 사랑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선함 편에 자신을 배열한 이들의 경우, 진리는 악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 악은 진리를 지각하도록 이해성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도 있다. 악마가 소경의 눈을 열 수 있을까? 지식의 나무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나무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다. 같은 지혜라 해도 그 품성과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전자는 감각적 수준이고 후자는 영적 수준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아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마태7:20).

**22.**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축제

는 안디오크스 에피네스(Antiochus Epiphanes)에 의해 더럽혀 왔던 성전을 많은 비용이 든 제물로 정화하고 깨끗케 되었음을 기념한 것이다. 이 사건의 날짜는 구약 성서의 정경에 속하는 책의 어느 곳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감된 기자에 의해 그 축제에 관한 소개가 신약성서에 있어져서 이 축제가 기념된다는 본문의 언급에 신성한 의미를 주고 있다. 앞 구절에서 살핀 바 대로 지금 주님은 자신을 큰 제물로 내놓아 그분의 몸의 성전을 깨끗케 하심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별 되게 하시고, 내재하는 신성을 섬기게 함으로 영화하셨다. 그분을 인정했던 이들은 그 교회의 첫 열매였다. 그러나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께 고백함과 아울러 그분과 함께 헌신하겠다는 축제 분위기가 있는 한편, 일반적으로 유대교회는 겨울철이었다. 그리고 그분을 경멸하는 이들에게도 겨울철일 뿐이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글자보다 더 깊은 것을 찾지 않는 이들의 경우 이 구절을 두고, 예수께서는 겨울의 한랭한 기후 때문에 포근한 장소를 찾으려고 성전의 행각을 걸었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분은 더 깊은 의도에도 그러셨는바 그분의 행동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행동은 개인적으로 신비한 그분의 몸의 성전과 상징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마치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화하심의 문설주에 서신 것과 같다. 그분께서는 이 장대한 성전의 행각을 거니셨다. 그 안에 신성이 내재하고 신성의 모형에 따라 그분의 성전, 교회가 거룩해져서 그분이 인간들과 함께 거주하셔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장려한 행각을 거니신 것이다. 솔로몬은 영화하신 가운데 계신 주님, 즉 영화된 인성 속의 주님을 탁월하게 표현하였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름지어진 이 행각은 주님의상태,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대화하신 이들의 상태도 표현하고 있다.

24,25.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로 의심 가운데 있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준다.’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들이 믿을 수 있는 실재하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

할 만하다. 예수의 가르침과 일들은 그분의 엄숙한 확인보다 훨씬 더 나은 보증이 된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을 거절하시고 있다. 그 대신 그분을 증거 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던 일들에 호소하시고 있다. 참으로 그분은 이전에도 그들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았다. 비록 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해도 아마 그들은 그 정보를 받았을 것이다.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은 과거에 주장했던 것에 형식적인 확답을 물어 왔을까? 그들이 그분의 일들을 믿지 않았는데도 그분의 말을 믿게 될까?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해 그분은 신성한 본성의 영광 권능으로 일을 하신 것이다. 그분의 일들은 전능하심과 사랑의 일이었는바, 그 일은 그분 안에 내재하는 신성의 특질을 내비친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 이시다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나은 증거를 갖다 낼 수 있을까?

**26.** 그들의 불신앙에는 또 다른 원인도 있다. 불신앙의 원인이 증거 부족으로 발생된게 아니라 증거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결핍되어서 였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주님의 양은 사랑과 이타애에 있는 이들이다는 것은 이미 살폈다. 이것은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 어떤 선택된 숫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믿으려 하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다. 이 의지는 참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것을 받는 이들이 그분의 양들이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사랑은 그분으로부터 존재한다. 영접하고 거절하는 원인은 인간의 자유 의지 안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27,28.**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그분의 양이라는 것, 그럼에도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타애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양이다. 그러나 진리 없는 선은 자연적인 선일 뿐이다. 진리는 그 선을 영적인 선으로 만든다. 그 이유가 진리는 그 선으로 신성한 목적에, 영원한 목적에 방향을 두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면 그 선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인간 안에

있는 선이 진리로 확증되고 더 풍요로워질 때, 그 선은 결코 멀해지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도 못한다. 이타애가 믿음과 하나된 이들, 또는 선이 진리와 하나된 이들은 주님의 신성한 손, 즉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 있어 안전하다. 여기서 특별히 의미된 것은 신성한 인성 또는 신성한 진리의 전능하심이다. 이타애 안에 성실히 있는 이들은 설사 그들이 단순하고 계발 안된 수준이라 해도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면 주님의 양우리인 천국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그들의 이타애가 믿음과 하나될 때까지는 천사가 되어 천국으로 건너갈 수는 없다. 그러나 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저 세계에서 진리를 열심히 받으면서 이타애와 믿음의 결혼이 있을 때까지 중간 상태에서 남아 있지만 천국에의 입장은 당연히 결과된다.

29. 그들은 들어가서 신성한 진리의 보호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 또는 사랑의 보살핌 아래에도 있게 된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바,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본문의 모든 것(all) 안에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포함시키시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고 말하셨기 때문이다. 두 분이 모두 신성한데 어떻게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성은 인성보다 더 위대하고, 사랑은 지혜보다 더 위대하며, 선은 진리보다 더 위대하다. 그 이유가 전자는 본질에 해당되고 후자는 형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자는 생산자이고 후자는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가 더 위대하다는 것으로부터, 또는 아들보다 더 권능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야기된 것은 존재함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서이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시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심정에 존재할 때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다. 주님의 지혜 또는 진리가 우리의 이해성에 있을 때 아들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게 된다. 우리의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양들이 그분의 손 안에,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의 손 안에, 그래서 양쪽 모두에 있다고 말하시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진실로 그분의 백성 되는 이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이 두 본질 되는 기독교인의 품위가 그분의 진리와 사랑의 전능함이라는 이중



적인 보호 아래 비록 있다 해도 사랑 또는 이타에는 기독교인의 품위 중 가장 위대한 바 이것이 기독교인을 가장 크게 보호한다. 그 이유가 그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됨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버지에 관한 주님의 선포에서 주목할 만한 확실한 어떤 것이 있다. 그분은 우선 말하신 바, 아무도 그분의 양을 그분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시고, 그 다음 아버지의 권능은 그분의 권능보다 더 크시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이들보다 더 확실한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하시고 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손에 모든 권능을 주셨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 신성은 인성을 수단으로 모든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모든 권능을 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요한 의미가 진짜 의미이다. 주님은 아버지의 권능과 아들의 권능을 절대적 측면이 아닌 관계적 측면에서 말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체 있는대로 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경우에서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이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권능은 우리 심정에 있는 그분의 사랑의 권능이다.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권능은 우리의 이해성에 있는 그분의 진리의 권능이다. 사랑이 기독교인의 품위 중 가장 큰 바, 그것은 심정의 애정 안으로 가장 깊게 들어가고, 생활의 행동 안에서 가장 충만 되어 있다. 심정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형성한다. 참으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유일한 바탕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그들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말하실 때 가르치고 있는바, 이는 신성한 보호로 안전함을 향유하는 이들, 즉 그분의 진리와 사랑의 이중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의 믿음이 사랑에 근원을 둘 때 뿐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아들의 손이고 아버지의 손이다. 이로부터 어떤 권세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

30. 비록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라는 본질이 구분된다 해도 그들은 하나이고 분리할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또는 사랑과 지혜에 관해 말하든지 통일성(unity)은 그 두 속성에 필수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동등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들을 논쟁적 국면으로 몰고 가도록 교리적 생각으로 진입할 필요는 없다. 신성(Godhead)의 통일됨은 실재로도 통

일되고 있어야만 한다. 두 인물(persons)과 한분 하느님은 둘이라는 생각을 실지로 표현하는바 하나에 관한 실지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실지의 구분과 동등하게 실지로 합일됨(union)이 마음에 표현되는 것은 신성과 인성에서는 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에서 하나되어 있을 때뿐이다. 그 이유가 이런 구분과 합일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만큼이나 완전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다른 국면에서 이 주제를 찾아보아도 똑같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는 인간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마음 안에 있는 이타애와 믿음, 선과 진리의 경우와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에 관계되든, 거듭나는 마음 안에 계신 주님에 적용하든 똑같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두 본질 되는 원리는 그들의 신성한 근원에서, 신성을 성실히 받는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서도 하나이다.

31. “이 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이 폭력에 대한 이유는 앞으로 살필 구절에서 발견하는바, 여기서는 그에 따른 영적 의미만을 주목하기로 한다. 더 드높여진 진리, 더 명백해진 진리가 부정적인 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이 그 진리에 반대하고 미워함은 더 폭발적이다. 예수께 던지려고 돌을 집어든 것은 주님의 진리에 영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을 상징화한 것이다. 여기서의 돌은 거짓을 의미한다. 그들이 돌을 집어들었다는 것은 기억으로부터 지성으로 거짓을 들어올린 것, 이리하여 미워하는 진리를 기회만 되면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격노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실지로 돌로 치지 못했다는 것도 주목해 볼만하다. 그들은 그분의 평온과 명령적인 현존으로 위압되었고, 신성한 영향력으로 제지 당해 있었다. 우리는 이 구절의 경우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의 유대인에게 실시한 권능을 찾기 힘들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복하려는 종교적 열광이 움츠러지는데 대한 어떤 암시는 없다. 그분의 적에 대한 이런 그분의 권능은 그분이 그들에게 발표한 말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신 그분의 태도에 의해 더욱 증가되었을 것은 틀림없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부터 오는 많은 좋은 일을 보였는데 그 중 어떤 것 때문에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주님께서는 많

은 선한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적들까지도 그 일이 악한 것이라고 돌려 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복된 일중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돌로 치려 했을까? 이 질문은 미워할 뿐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파괴하려고 거짓말을 무기로 추켜 드는 이들에게 지금도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로부터 하셨던 선한 것으로 호소하신다. 이 일의 특성은 그 일이 신성한 권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더구나 그 일은 복된 일의 정도뿐 아니라 신성한 일이다. 그 일은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행해졌다. 그 일이 아버지로부터 근원 되었다는 주님의 선포가 이를 암시하고 있다. 만일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행동된다면, 그러므로 선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에 어떤 특별한 선이 반대로 방향을 잡고 있을까? 인간이 반대하고자 어떤 특별한 선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특별한 죄를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검사하도록 묻는 것과 똑같다.

**33.** “유다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자주 주목했었던 바대로 구약성서의 유다 출신 학생들은 주님이 아버지와 더불어 통일성을 주장하신 것은 그가 하느님이라고 주장한 것과 대등하다고 이해했다. 그들은 그분께서 하느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이해했지만 그들은 그분이 인간 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분의 일이나 그분의 가르침도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신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이 하느님과 단일성을 말함으로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예수의 말을 왜곡되게 돌림으로 진리를 모독했기 때문이다. 이것, 즉 “당신은 한 갓 사람인데 자신을 하느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연적 인간에게 있어서 죄지움의 원인이다. 주님의 주장이 함축한 것, 단순히 주님이 신성하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것은 자연적 마음에게는 큰 걸림돌이요 죄를 짓게 하는 바윗돌이다. 위 진리야말로 자연적 인간을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기어이 소멸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진리이다. 자연적 인간의 평가 기준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신 것이 모독인 것이다. 이를 말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가 주님은 그분의 인성 측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

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세상 밖으로 가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다. 후자의 탄생은 영화하심이었고, 영화하심은 신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이다.

**34-36.**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그들의 고발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깨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모독한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닌 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신들이라 불린다면, 하나님이 신성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낸 예수의 경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전연 볼 수 없다. 이 구절에서 “율법서”로 언급된 단원은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에 있는 구절이다. 인간에게 신성한 이름이 위와 같이 적용된 이유는 그 구절의 영적 의미에서 발견되어진다. 이 이름(god)이 복수 형체로 있고 신성한 존재에 적용될 경우 특출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형체의 영적 바탕에서, 이 이름(god)은 진리 측면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표현이다. 그 반면 여호와는 선의 측면의 신성한 본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Truth)는 수많은 겹겹을 이를 수도 있지만 선(Good)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Elohim)은 천국과 교회에서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시편 8편 5절이나 82편 1,6절에서와 같이 천사나 인간에게 응용된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았는고로 신들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인지라 신들이라 불리울진대 하나님의 말씀 자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 천사나 인간을 계발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야말로 신이라는 칭호 그 이상을 받고도 남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이를 영적으로 이해해보건대, 그들은 거듭나는 이들이다. 이들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 와 같다 (베드로후서1:4). 그러나 아버지께서 신성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낸 그분은 영원한 말씀, 거룩하신 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begotten of the Father)이시다. 이와 같을 진대 그분은 단순한 “참여 하는 자”가 아니라 신성한 본

성의 소유자, 신성이 육체 안에서 충만되어 계신 분(골로새서2:9)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이미 살핀 바대로 인성이 영화하셨음을 특별히 명시한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실지로 태어나심으로 있게되는 진실로 아들(the Son)이시다. 영화하심으로 예수는 신성한 측면에서 아들(the Son)이시다. 마치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적 측면에서 아들(son)인 것과 같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지기 전에 신성하게 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신성해진다는 것은 기름부어 진다는 말과 똑같다. 기름부어진 자로서의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거룩한 기름은 신성한 사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신성한 지혜에 신성한 사랑으로 채워진 기름 부어진 분이시다. 그분이 거룩한 것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가 바로 위와 같다. 거듭나는 자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해 신성하게 되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은, 거듭나는 자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거룩해진 다음 내적 인간의 하늘(heaven)로부터 외적 인간이 소속되는 세상으로 나와 그를 구속하고 구원한다는 뜻이다.

**37.**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는바 그분의 일도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교리적 관점으로 진입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관찰될 것이다. 아버지의 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신성한 사랑과 자비가 특별하게 더 명백히 나타내 보여주는 일들이다. 아들의 일이라 불리는 것들은 신성한 지혜와 진리가 특별히 더 나타나게되는 일들이다. 전자의 경우 주님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일이다. 그 이유가 그분이 설명하시듯, 그분 안에 내재하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지적해주시고 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말라.” 어떻게 그들은 예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인지 아닌지 알 것인가? 그분의 일에 신성한 권능이 있다는 증거, 그 일은 신성한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의 신성에 관한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데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심정 안에서 사랑의 일을 할 때 주님은 그분의 자녀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suffer)않으면, 아들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이런 주님의 말씀과 일치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 나에게 나올 자는 없

다.”

38.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의 경우 확실성을 가지고 안다. 그러나 참된 말의 경우 확실함으로 알지 못한다. 심정은 이해성보다 더 나은 재판관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나 일은 믿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성보다는 심정에 호소하시고 있다. 주님은 그들 자신을 위해 말씀하셨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로서 그분의 일에 호소하시고 있다. 예수께서 수행하신 엄청난고도 복된 일들을 바라보고서도 그 일이 그분께 내재하는 신성으로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거절해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일은 바깥쪽 일이 아닌 다른 것도 있다. 그들과 더불어 확신을 가지는 것들은 심정 자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심정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아들을 믿게 한다. 구세주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 신성한 선과 진리의 합일(union)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된다.

39. “그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사람의 일을 두고 수궁하려 하지 않는 이들, 진리의 말을 신뢰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과 거리가 먼 이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데 화를 내고 파괴해버리려 하기까지 한다. 더구나 불신앙자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한다. 악한 자는 진리를 자신의 능력 아래 두고 싶어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를 그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능력에서 옮겨 놓으심으로 그들의 바램과 반대되게 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분이 기적으로 빠져나가신 다른 경우도 있다. 예수의 경우 거기에 어떤 책략이나 변장하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인간만이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경우 적들의 분노와 세력을 그런 수단으로 피해갈 것이다. 사실 그분 주변에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도 있고, 논쟁하는 자도 있는 등등 다각도로 섞인 군중에 그분은 싸여 있었다. 따라서 붙잡으려는 그들의 시도를 특별히 저지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셨을 것이다.

40.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어 거기에 머무르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준비해놓은 바탕에 씨를 뿌리고 있으시다고 말해 볼 수도 있다. 요한이 말씀의 글자를 표현했고, 예수는 말씀 자체이셨는바, 주님은 요한에게서 시작되었던 모든 상태들을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완성하셨고 완전해지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요르단 건너로 다시 가시는바, 이는 교회가 없는 이들에게로, 또는 신성한 진리의 기운이 종결을 보는 가장 바깥쪽으로 가시는 것이다. 마치 신성이 인성 안으로, 그리고 인간 마음 안으로 흘러들고, 그로부터 다시 영화하심과 거듭남으로 승강하는 것과 같다. “요르단 건너편”은 거룩한 땅의 바깥쪽, 그러나 그 곳은 거룩한 땅의 입구이다.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 곳”이란 회개함으로 순수해짐의 결과를 처음 경험한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거기에 오시어 묵으신다는 것은 성령과 불의 세례가 거기 있다는 것이다. 바깥쪽 인간이 자아 부정으로 순수해졌고 내향의 인간이 지금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 물들여 지고 있다. 수준 낮은 의무가 충실히 수행될 때 수준 높은 선물이 주어진다. 예수는 요한 뒤에 오신다.

41.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고 하였다.” 군중들이 예수께로 모여든 것은 상호성(reciprocation)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상호성이 구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실 경우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으신다. 구원은 우리가 그분께로 갈 때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시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끌어당기시어 우리가 그분께 오도록 하시고 있다. 우리가 끌어 당겨짐, 그분께 매혹됨, 그분에게 옴 - 이것이 실지의 생명이다. 그분께 왔던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기적의 증거가 요한에게 없었다는 것은 자주 주목받아 왔다. 이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신성한 특사의 자격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합리적 증거는 영적 처방에 속하는 증거이다. 이 구절에 이런 참 증거, 진짜 테스트가 있다.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해 말했던 모든 것은 참말이었다.” 성경이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본다는 것은 정말 장엄한 요지이다. 성경이 가르쳤고 약속했던 그분을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모든 기적과 표

적 이상으로 장엄하다.

42.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은 요한이 그분에 관해 말했던 모든 것을 예수에게서 발견한 결과였다. 주님을 믿어 말씀의 증거를 그들 안에서 소생시키는 이들은 복되다. 지적 확신으로 자기 체험에 도장을 찍는 이들은 복이 있다. 더구나 진리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들은 더 복이 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곳이란 회개의 세례가 결실을 맺는 상태이다. 회개가 있는 바로 그 때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 있는 믿음,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는 믿음, 천국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이 생산되게 하신다.

## 11

이 장은 우리 주님, 구세주의 복음에 포함된 몇 가지 장엄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치고 있다. 생명과 불멸이 복음에 의해 빛으로 가져와진 것을 표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죽은 자로부터 라자로가 부활한 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일으켜질 것임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가 신성한 분으로서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자로의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라자로를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는 집의 위치가 유다 지역의 베다니아이고, 이 베다니아는 유대 교회라는 광야의 영적 오아시스였기 때문이다. 11장을 개인적으로 응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필시 맞이하는 죽음의 본성,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포함되었다는 것, 그들의 부활에 대한 수단과 능력의 본성을 가르치고 있다.

1.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시작함으로 그의 대화를 풀고 있다.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자매란 “그들을 하느님께서 도우신다” 를 뜻하는 이름이 되고 있다. 두 이름의 이런



영적 의미는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와 관한 그분의 아름다운 비유에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으로부터 추리된다. 그 비유에서 큰 부자는 유대인들, 즉 구원에 관한 지식의 보물로서의 계시된 말씀을 소유하여 부자인 사람을 의미하고, 라자로는 이방인들, 참된 부유함이 결핍되어있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이제 건설하시게 되는 이들의 이방인적인 상태가 베다니아 촌락에 있는 라자로에 의해 더 암시되어 있다. 후에 주님께서 이 베다니아로부터 천국으로 승강하심으로 예증된 이 촌락의 이름의 뜻으로 주어진 종려나무는 영적 선함의 상징물이다. 그러나 베다니아의 크기는 마을 수준이었다. 마을은 교회와 믿음의 외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성읍(city)은 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성읍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루살렘인데 이 성읍으로부터 과히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이 거룩한 성읍의 외곽 마을인 베다니아는 본문에서 라자로의 마을이라 불리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의 마을로 불리우고 있다. 물론 라자로나 두 자매 모두는 모두 이방인의 교회를 표현했다. 그러나 라자로는 그 교회의 지적 원리를, 두 자매는 그 교회의 의지적 원리를 표현했다. 더 특별하게 라자로는 진리의 이해성에 관한 예징(type), 마리아와 마르타는 진리를 그 대상으로 삼은 내적, 외적 애정, 또는 영적, 자연적 애정에 관한 예징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를 보탠다면 라자로는 신약성서의 야곱으로, 마르타와 마리아는 레아와 라헬로 비교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자로만이 병이 들었다는 바, 이는 이방인 사이에서 지적 생명은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애정 측면은 지적측면에 비교해 생각해 볼 때 건강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있는 애정들은 본질적으로 건전했다. 병들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건전한 애정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제대로 안내해주지도 못했다. 마음의 건강한 애정은 왕국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옥토이고, 매체를 통해 병들고 죽은 지성이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타가 그의 오빠에게 신성한 도움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된 것과 같다. 형제자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는 덜 내적인 영적 관계이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결합이 아닌 친척 관계를 암시한다. 하나임(eness)을 구성하는 친밀한 결합의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명은 영적 생명의 세 원리들, 즉 사랑, 이타애, 믿음을 표현하되 하모니는 있으나 하나가 된 것은 아닌 세 원리 - 셋 일뿐 하나는 아닌 원리들을 표

현하고 있다. 이 세명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라자로가 병들었다. 죽음을 기어이 맞이하는 이 병들은 이 장의 흥미 있는 역사의 전체에 대한 주제이고, 이 주제는 수많은 영적 교훈의 수송수단(vehicle)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든다. 영적인 아픔은 선함과 진리의 실행에 맞대결하는 악과 오류로부터 발생한다. 다시 말해 참된 생명이 반대되는 원리의 활동으로 참된 생명을 파괴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아픔이 라자로가 아픈 것에서 표현되고 있다. 마치 악이 악령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흥분되듯, 이런 적들의 출몰이 병들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라자로가 죽기까지 되도록 아팠다 해도 그를 건강과 생명의 저자와 연결해주는 그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2. “그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녀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이 여자의 오빠 되는 라자로가 앓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 헌신한 이 행동은 라자로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후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심오한 부끄러움과 순수한 사랑은 생명에로의 회복의 결과였다. 그녀의 행동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피게 된다. 여기서는 마리아만이 병들어 누운 오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 이유는 라자로가 지적 측면의 생명을 암시하고, 마리아는 마음의 영적 애정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생명이 병에 걸려 죽는 위협을 받고 있는바, 그녀가 주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드린 마리아였다고 말해져서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마리아와 구별되고 있고, 그녀가 표현했던 애정이 후에 심오한 사랑과 깊은 감사의 헌물을 구세주에게 바치고 있다.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타는 오빠의 병 때문에 심한 고뇌를 겪고 있다.

3. 시름가운데 빠져 있는 두 자매가 예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은 그 때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다. 환난 중에 주님은 영혼으로부터 나가 안 계신 듯, 시련이 심각하면 오히려 더 멀리 계신 듯 여겨진다. 주님이 안 계신 듯 나타나게 한 고뇌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고통받는 영혼이 찾게 한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기도의 영과 희망의 반석이다. 시련의 때에 사랑의 이런 느낌은 대단히 귀중하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려면 그

분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었어야만 한다. 그분만이 소유하시는 구원을 찾기 위해 그분께로 우리의 애정과 생각을 돌리게 하는 것은 심정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예를 계시록 첫 장에서 아름다운 상응의 언어로 기술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말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일곱 황금등경 사이에 계신 사람의 아들을 보았다. 주님의 사랑은 의지로 흐른다. 그리고 의지 안의 사랑의 영향력이 그분의 지혜를 받도록 그분께로 이해성을 돌린다.

4. 그분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전갈을 받기 전에 이미 이 병에 관해 알고 계셨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한 바램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두 자매의 메시지에 구체적인 청원 사항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암시했다. 그이유가 예수께 전갈을 보낸 목적은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앞 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과 관련하여 말하신 것과 유사한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시고 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셨지만 라자로는 죽었다. 이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것을 뜻하신 것이다. 그 죽음은 생명으로 뺏어지는 죽음이었을 뿐이다. 라자로의 죽음은 정의로운 자가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유추이다. 그들은 죄로 죽어야 하나 그렇게 행동함으로 정의로움에 산다. 그들은 주님께에서 생명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 의로운 자는 날마다 죽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죄에 대한 각각의 모든 죽음은 정의로운 삶으로의 부활이다. 육체에 대한 죽음까지도 영에 대한 부활이다. 라자로의 병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로부터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는 것이었다. 주님의 인성을 통해 행동하는 그분의 신성을 위해 제공된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영화하심의 수단이었다. 그분의 신성의 영광은 행동에서 빛났고, 그분의 인성의 영화하심은 그 빛남을 수단으로 전진해갔다. 그러나 주님의 인성만이 영광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작전의 주체가 되었던 이들 안에서도 영광이셨다. 그 이유가 주님은 그분의 창조물이 구원을 받는 가운데 영광되셨기 때문이다.

5-7.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들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지체하심은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말과 일치되지 않는 듯 보인다. 이것은 침묵으로 주는 그분의 사랑의 견책 중 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견책하시고 나무라신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꾸지람과 단련시킴에 노출되게 하신다. 우리의 자아사랑을 견책하는 것은 우리 안의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겪는 시련에 의한 단련은 주님의 사랑과 자아사랑이 다툰 결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심정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악에 저항한다거나, 견책 받는 일 같은 것은 없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영적 시험이란 것이 없다 (시편73:5). 더불어 그들에게는 영적 승리라는 것도 없다. 비록 주님께서 시험의 때에 도움고 계신다 해도 시험받는 영혼은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 시험은 환난과 어둠의 때인바,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삭막해진 심정에서 멀리 떠나가 계신 듯 보인다. 그러나 비록 느껴지지 않았다 해도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비록 그분의 도움심이 지체하고 있는 듯 보여도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영혼에 감추여 있는 영적 사랑의 샘 안에 계시면서 이를 통해 행동하시는 그분은 그 행동의 목적이 가능한 최고의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싸움을 조절하시거나 제압하신다. 시험의 장엄한 목적은 선과 진리의 결합이고, 먼저 마음 안에서, 그 다음 생활 안에서 결합하는 것이다. 이 결합이 숫자들로 의미되고 있다. 주님께서 이들 더 거기에 묶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세계와는 멀리 떨어짐을 통해 마음의 내면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을 때까지 시험의 상태 안에 계시어서 마음의 외면에서도 역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어 완성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최고의 선과 진리 되시는 주님은 말씀 속의 선과 진리를 통해 마음의 하급 영역에 진입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의미되는데 그들에게 그분은 “다시 유다로 가자”라고 제안하신다. 그분은 유대 백성의 광복 때문에 유다 지역을 떠나서 요르단 저 쪽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에 가셨다. 요르단 저 쪽은 원칙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구역이었다. 거기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교회에로의 진입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장소로부터 유다로 가자고 주님께서 제안하시고 있다. 이렇게 가심은 “다

시” 가시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적 삶은 외적 측면으로부터 내적 측면으로 오르고 내리는 이동을 계속하여 쌍 방향의 행동, 서로의 행동으로 양 측면 모두 완전해져 결국 결합되도록 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8.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지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는 제자로 표현된 말씀의 진리를 수단으로 한 이런 질문, 유대인들의 돌로 의미된 것, 거짓들이 악에 근원 되는지를, 이 악이 마음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지를,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악의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거나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

9,10. “예수께서는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나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대답은 글자적 의미에서일 경우 이전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적 의미일 경우 그 연결은 명백하다. 참된 교회가 악의 거짓 때문에 선의 진리가 위험에 빠질 거라고 납득할 때, 마치 제자들이 스승에게 유대인들이 돌로 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을 때, 인간이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면, 즉 빛 가운데 걷고 있다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의 연결과 독립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고 인상적인 형상을 수단으로 감명 있는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은 모든 사람이 다 알 듯, 두 반대되는 상태, 즉 지식과 무지, 진리와 잘못을 표현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지와 잘못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 지식과 진리는 우리로 확고하게 걸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진리의 가장 큰 썩음이 중의 하나란, 진리는 선함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게 하고 보게 해 주고,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걸어가게 한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수습 받는 이 세상의 세월은 우리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데 충분히 길다. 거듭나는 삶은 한 번의 행동, 또는 단 번에 달성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에 의해 완전해지고 진리를 수단으로 달성된다. 지속적인 상태들은 비록 진리의 생명에 어떤 수준이 필요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이 발전해 가는 수준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빛을 가져야 할뿐 아니라 그 빛에서 걸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빛은 우리 안

에 있었어야만 한다. 그 이유가 “밤에 걸터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빛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이 빛은 우리 주변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고, 우리의 기억이나 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심정과 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 빛은 인간이 선을 행하면서 하느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영혼을 구해준다. 주님께서는 이 빛을 이세상의 빛이라 부르시고 있다. 그 이유가 그 빛이 본질적 차원에서는 신성과 영적 차원에 있다 해도 그 빛은 자연적 마음으로 들어가 계발해주어 자연적 생각과 자연적 애정으로 진리와 정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걷게 하기 때문이다.

11.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글자적 의미일 경우 이 구절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영적 의미일 경우 그 둘 사이에 구분이 있다. 잠은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일시적 정지이고 죽음은 그것의 사멸인바, 잠은 지적 측면의 자연적 상태를, 죽음은 의지 측면의 자연적 상태를 표현한다. 그 이유는 유물(자연)주의(naturalism)가 이해성을 침공하면 영적 삶의 기능들이 정지되지만, 의지를 침범하면 영적 삶의 기능들이 사멸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분은 죽음 자체에서도 볼 수 있다. 심장의 맥박이 정지되기 전에 폐의 호흡이 중단된다. 폐호흡은 이해성 측면의 삶과, 심장의 맥박은 의지 측면의 삶과 상응된다. 영적 죽음도 자연적 죽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지성 쪽의 생명이 중단되고 그 다음 의지 쪽의 생명이 끊긴다. 지적 생명 또는 진리의 생명이 중단될 때 인간은 잠든다. 의지적 생명 또는 선의 생명이 중단될 때 그는 죽는다. 이것이 라자로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서 잠듦과 죽음으로 의미된 구분이다. 이와 똑같은 구분이 주님께서 잠든 라자로를 깨우러 가시겠다는 말과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겠다는 말에도 적용되고 있다. 참으로 이 행동은 하나였다. 그러나 그분이 나누어주시는 생명은 두 겹, 즉 지적 생명과 의지적 생명, 선과 진리의 생명, 믿음과 사랑이었다.

12. 주님께서 라자로는 잠들어 있다고 말하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다. “라자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죽음의 잠이 아니고 생명과 활력을 보충해주기 위한 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잠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잠듦을 시편

기자가 노래한다. “누운 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 옅니다” (4:8). 타락된 아담이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구제할 길 없는 지적측면의 자아(hard intellectual selfhood)를 아담으로부터 빼어내서 생명과 아름다움의 살아 있는 형체가 지어졌다 (창세기2:21-22). 이런 원기를 돋우어주는 잠은 죽음이 없었던 경우의 지상에 존재했다. 마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천국에 그 잠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자연적인 잠 같이 영적인 잠에서는 인간은 활동적이지 않고 하느님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 잠들 가운데 신성한 생명은 인간에너지가 다 소비해버려 폐기된 것(the waste)을 보충하시어 혼란해진 균형(equilibrium)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자로의 잠들이 이리할진대 그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잠들은 이보다 더한 어떤 것이었다.

1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한편 죽는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욕적인 생명의 소멸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죽는다. 자아부정의 모든 행동은 죄에 죽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일의 행동은 부패된 자아의 생명을 마지막, 충분히 내려놓는 데까지로 인도한다. 그럼에도 이 행동은 자아의 부분에서 의지적 부분은 아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는 이런 행동의 가장 높은 본보기를 제공하시고 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신다. 그것을 그분으로부터 가져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그분조차도 마지막 고뇌에서 움추러지시기도 하셨다. 그래서 이 잔이 자기로부터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생명은 역시 그분의 적들에 의해 가져 가졌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것은 사악한 행위였다. 자아의 죽음이 고뇌이고, 이는 그 고뇌를 활성화시키는 악령에 의해 결과되어진다. 악령의 목적은 전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이 끝날 때, 악령은 죄의 몸(body)만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정의를 소유했던 영혼은 지옥과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

1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그분은 싸움의 마지막을 발표하셨다. 그 마지막은 비록 새 사람의 생명을 아직 취하지 못했다 해도 옛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까지이다. 이것은 또 다른 행동이다.

15. 죽음의 이런 종류까지도 생명의 문인바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 하셨다.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주님은 그분의 권능이 없다면 깡끄리 실패하고 마는 시험의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과 아주 친밀하게 현존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목적(end)안에, 그리고 내적 생명의 평온한 애정 안에 현존하실 뿐 바깥쪽 인간의 싸우는 열정의 법석땀에는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의해 규율되고, 이 목적에 시험의 결과도 의존된다. 만일 주님이 삶의 우리 목적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행복이라는 수확을 거두는 삶의 모든 싸움들 안에도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멀리 떠나 있으신 듯 여겨지기까지 한다. 만일 그분의 현존하심이 환난의 때에 지각된다면 시험은 저지 될 것인바 그 시험의 근원이 된 악은 복종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의 현존이 지각된다면 시험의 환난이란 것은 있어질 수 없다. 이것의 현존은 저것의 결석됨을 함축한다. 주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는다. 시험의 모든 잡음이나 법석땀이 지나 간 후 들려지는 여리고 작은 소리 안에 계신다 (열왕기상19:11,12). 신랑이 있는 동안 신랑의 친구들은 단식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라자로가 죽게 아프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두고 기뻐하셨다. 제자들이 그 일로 믿게 될 것이기에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기뻐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된다는 목적을 위해, 악을 제거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장애물, 여타 모든 은총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위해 시험은 허락되고 시험의 끝(목적)에 까지 계속 허용되어진다. 역사적 측면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여기서 허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하늘의 처방은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의 선용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등장하는 모든 각 인물들은 함께 기뻐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한 몸 속의 여러 기관들이다. 즉 한 인물이 지닌 여러 원리들이다. 이것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 모두에 공통되는 관심사에 참여한다. 주님의 제자들은 인간 마음 안에서 주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원리들이 믿어지도록 요구 될 수 있을까? 이 원리들이 인간 마음 안에서 확장될 때 믿음 안에서 확장되어진다. 그들이 믿어질 때 그들은 믿는다. 진리 자체는 의심이나 믿겨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진리 없이 의심할 수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의심 또는 믿지 못함이란 무엇일까? 더구나 진리를 의심함 또는 진리를 믿지 못함은 무엇일까? 의심은 지식과 믿음 사이에 존재한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 내버리듯, 완전한 믿음은 우리의 의심을 내던진다. 의심과 불신되는 믿음이 부활을 체험하도록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새로운 믿음은 라자로의 무덤에 와 있는 제자들 안에서 태어나게(begotten)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가자."

16.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가서 그분과 죽음을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글자대로라면 이것은 과거 제자들이 유다인의 폭력으로 예상했었던 예수의 죽음(5:18)과 관계되고 있다. 영적 차원에서 예수와 더불어 기꺼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얻을 수 있게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 기쁘게 죽는다는 것이다. 본문의 사도, 그는 그분의 부활을 믿으려면 자기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아야 한다고 했던 사도이다. 그래서 그는 감각적인 믿음, 감각에 우송된 자체 대로 진리를 믿는 것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본문의 토마가 제의한 말로부터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의 가장 외적인 진리까지도 죽기까지 해서라도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최하위의 진리 안에 포함된 것은 모든 진리에서 공동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도 가서 그분과 죽음을 같이 합시다" 라고 토마가 그의 동료 제자에게 말한 것으로 의미되어 있다.

1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숫자 4도 숫자 2처럼 결합을 의미한다. 죽음, 이것을 악에 관련해 말하면 악과 거짓의 결합이다. 마치 생명이 선과 진리의 결합인 것과 같다. 그러나 거듭나는 사람에게 관련해보면 죽음은 악과 거짓된 모든 것에 관한 자아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라자로는 죽었을 뿐 아니라 나흘동안 무덤에 놓여 있었다. 죽음과 매장 사이에, 죽는 것과 무덤은 차이점이 있다. 죽음은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고 매장은 죽은 것을 거절함이다. 그러므로 무덤은 죽음 자체보다 더 깊은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영적 시험 또는 영적 죽음이라는 더 깊은 상태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을 표현

한다.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과 무덤이 같이 언급된 곳을 발견한다. 주님의 오심에 관해 가장 감격하게 하는 서술 중의 하나는 그분을 이런 외침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나는 그들을 무덤의 권세로부터 몸값을 치루고 되찾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속할 것이다. 오 죽음아, 나는 너의 재앙일 것이다. 오, 무덤아, 나는 너의 파괴일 것이다” (호세아13:14). 죽음과 무덤, 또는 죽음과 지옥은 생명과 천국에 반대되는 두 악이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정복하시러 오셨다.

18.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오리(fifteen furlongs)밖에 안되는 곳이 었다.” 역사는 지금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돌아가고 있다.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언급되고 있다. 베다니아는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는 곳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과의 거리를 언급하고 있다. 베다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는 교회 자체의 상태와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런 관계적 상태는 마을로부터 성읍까지 15퍼롱이라는 세밀한 언급으로 더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다. 퍼롱(furlong), 마치 그 거리를 척도 하는 방법같이 이 상태로부터 저 상태로까지 계속되는 단계를 수단으로 하는 진보를 의미한다. 숫자 15는 그 숫자를 구성하는 요소, 10과 5로부터 그 의미가 파생되고 있다. 10은 남겨진 것(remains)을, 5는 적은 것(a little)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보건대, 베다니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바, 이방인 또는 단순한 상태에 있는 교회내의 사람들에게 진리에 관해 “남아 있는 것”은 조금이어서 지적 측면의 영적 생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영은 간절하나 육이 약해 있는 것, 죽어 있기까지 되어 있다.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은 내향의 인간 안에 남아 있었으나 그에 부응되는 생명 있는 진리와 선은 바깥쪽 인간에는 없었다. 이럴 경우 인간은 실제로 죽어 있다. 그이유가 영적 생명은 애정과 생각, 이타애와 믿음이 통일되어 조화를 이루는 행동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주목되는 것은, 내향의 애정이 있는 곳에는 새 생명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담을 그릇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애정 자체가 죽어 있을 경우는 아니다. 라자로의 자매들은 생존해 있고 그녀들을 통해 죽은 자가 산 자로 회복되어졌다.

19. 예수께서 당도하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

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유대인이란 교회에 소속된 이들이다. 추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교회의 원리들이다. 교회의 원리, 설사 뒤집힌 상태가 된 원리들이라 해도 삭막한 상태에 있는 애정을 위로할 여유는 가지고 있다. 말씀 속의 진리가 뒤집힌 때라해도 순박한 사람들은 뒤집힘 없이 그 진리를 볼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진리 그 스스로는 뒤집혀지지 않고, 단지 인간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를 설명하거나 적용해 보려할 때 뒤집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시키는 교묘한 추론 없이 진리를 받는 단순한 마음 안에서는 고뇌에 빠진 애정이 위로 받을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한다. 마치 유대인들이 “오빠”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한 것 같다. 내적 인간에 소속되는 이타애의 애정의 오빠(brother)란 바깥쪽 인간에 있는 믿음과 이타애의 선이다. 그리고 이런 지경까지에서도 사랑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하고 희망을 호흡하게 하는 많은 진리를 언제나 발견한다.

20. 더구나 또다른 더 높은 위로자가 지금 당도하고 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 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주님께서 도착한다는 소식을 접한 마르타는 그녀의 동생에게 알릴 겨를도 없이 즉각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 비교적 차원에서 볼 때 진리의 외적, 자연적 애정은 주님의 접근하심을 먼저 통보 받는다. 그리고 먼저 그분을 맞으러 나간다. 더 내면에 속하는 애정, 영적인 애정은 그것의 집인 의지 안에서 한동안 의식하지 못한 채, 비활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애정의 영향력은 더 낮은 자질로 뻗어나가 지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돕는다.

21.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라자로의 죽음을 두고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을 표현한다고 하든, 개인적 시험의 위기를 표현한다고 하든 예수의 현존은 그 죽음을 방지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분의 현존하심을 보류하셨다. 그 이유는 각 경우 어느 것이라 해도 생명이 있기 위해 죽음이 있어야만 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2. 그러나 (마르타가 계속 잇는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

인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타는 자기 오빠가 회복되기를 바랬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마르타, 이렇게 생각된다. 그녀는 주님이 신성하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이 시점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분명히 생각한 것은 그분은 인간능력 그 이상을 소유하셨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그녀는 그분이 하느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오빠를 살리는 것까지 무엇이든 간구하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었던 그녀는 거듭나는 이들이 그분의 인성을 통해 주님의 신성에 접근할 때 갖게 되는 영적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한 진리가 승인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성한 사람이 수여할 것이라는 데 완전히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가 하느님이란 단어가 예수에 관련하여 언급될 때 주님의 신성 또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이 의미되기 때문이다.

23. 우리가 선한 것을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다 붙잡으신다는 마르타의 신뢰 있는 표현에 대답하신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 날 것이다.” 영적으로 이해해보자면, 이것은 시험 후에 신실한 자에게 주님이 붙여 넣어주신 희망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 그 결과는 싸움 안에서 죽어갔던 것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 주님의 약속에 따라, 내려 놓았던 생명을 다시 받는 것, 모든 시련 속에서 죽기까지 따른 신실한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4. 이런 보증을 받는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연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구절은 신성한 진리가 종교적 신앙의 어떤 주체에 환대를 받아 발생하는 특수한 관념에 의거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지는 형체에 관한 교훈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다. 주님께서 부활을 말하셨을 때 마르타는 그분의 말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했는바, 그분의 뜻과는 다르게 이해했다. 이런 식은 부활이란 주제이든 교리적인 다른 어떤 것에서이든 지금도 여전하다. 하느님의 진리는 신성한 말씀 안에서 선포된 것, 그리고 신성한 마음 안에서 있는 것과 매우 다르게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경우는 자주 있다. 그분의 진리가 이해성으로 들어갈 때 그 진리는 인간이 미리 품고 있던 관념 또는 신앙에 의해 틀이 짜진다. 부활의 주제만 놓고 생각해도 주님의 위 말씀이 마르타의 마음 안에서

가졌던 형체 처럼 성경의 말씀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옷을 입는지 모른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남이 언급될 때 교회 속의 사람들은 마르타가 말했던 것같이 대단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죽은 자들은 마지막날 부활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만일 영감된 언어가 그 의미를 표현하도록 허용된다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리라. 부활은 육체가 죽은 후 즉각 거행된다는 것을 마르타에게 가르치시려 의도된 것이다. 본문의 예에서 참으로 라자로의 부활은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회복밖에 더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부활의 상징, 즉 죄로 죽은데서 정의의 삶으로의 부활, 죽은 몸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로 일어남을 상징한 것이었다. 영적으로 마르타의 말은 그분의 약속된 말씀들이 시험 후 마음에 만들어 주는 첫 감명을 표현 한 것, 재생은 삶의 모든 상태들이 그들의 과정을 달려가서 그들의 마지막 결말에 이르렀을 때 기대될 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삶의 마지막 상태가 왔을 때 오빠라는 단어로 표현된 그 믿음, 믿음의 선은 자매로 표현된 진리와 선의 애정에서 회복될 뿐이라는 것이다.

**25,26.**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복음에서 밝히신 진리들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진리의 하나가 지금 주님이 발표하신 것,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부활이시다. 마치 죽은 자로부터 처음 탄생하신 것과 같다. 이 신성한 속성의 힘(force)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육체들이 부활한다는 보편적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만 한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그분의 육체와 더불어 일어나셨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영화화심(glorification)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화화심은 우리의 거듭남에 응답하고 있다. 주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것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였다. 그분께서는 타락되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인간 본성으로 자신을 옷입히셨다. 그분께서는 그런 인간 본성을 살아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생명(Life)으로, 완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완전(Perfection)으로 만드셨다. 자연적인 죽음은 죄의 열매가 아니다. 창조자는 인간에게 자연적 차원의 불멸을 수여하시려 의도하신 적이 결코 없다. 인간은 존재의 또 다른 더 높은 상태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을 위해 자연적인 죽음과 무덤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했다. 육체, 한번 제거되면 영영 되찾아 질 수 없

는 물건이다. 그것은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질 수 없다. 주님의 부활, 그것은 죽어지는 물질적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에 비교할 바 없는 더 엄청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분의 신성한 일을 수단으로 주님은 죄의 죽음에서 정의의 생명으로 우리의 부활의 저자로서 부활과 생명이셨다. 그분께서 라자로의 몸을 일으키신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참된 부활의 예징일뿐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는 주님의 말로부터서도 분명하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이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에는 영적으로 죽는 것만이 해당된다. 죽는 그들만이 믿을 수 있고, 살아 있는 그들만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마르타에게 그랬듯이 “...너는 이것은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 이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준다. 그 이유가 이 믿음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데에 어떤 영적 이익이 있는가? 없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첫 탄생, 잠들었던 그들의 첫 열매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위 주제는 취급이나 응용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요구되고 있다. 주님자신이 부활이 되시기 위해 이 죽음을 통과하셨듯 그분의 제자들도 그래야만 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수단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한다. 죄에 죽는 것은 정의로운 자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그들의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애정에 삽입되었을 때 그 다음 그것들을 통해 생명은 자연적 또는 외적인 생각들과 교통되고 신앙자는 생명의 새로움에 들어 올려진다. 그러므로 마르타에게 하신 그분의 질문은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이에 대한 호소이다.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죽은 자는 반드시 듣는 것과 믿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죄로 인간이 죽는다 해도 믿고 사랑하는 자질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초기 시절 모든 마음에 은근히 심어두셨던 선함과 진리를 위한 애정의 어떤 것은 그 마음 안에서 섭리적으로 보존되어 진다. 그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것들이 마르타와 마리아이고, 이들의 신앙과 사랑을 통

해 죽은 영혼이 생명으로 일어난다.

27. 너는 이것을 믿느냐는 구세주의 질문에 마르타가 대답한다.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 오빠의 죽음에 관련해서이든, 그를 살리는 주님의 권능에 관련해서이든, 어떤 국면에서라도 그녀의 믿음은 지금 믿음의 최정점에 도달되었다. 최소한 그 믿음이 충만 되어 있다. 마치 그녀는 예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동생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또는 그들에게 물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다는 말 안에 포함된다고 느꼈던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마르타는 믿는 것 또는 희망을 거의 몰랐던 것처럼 생각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는 바 대화의 이 부분이 주목받아왔다. 시험 후에 동요됨이 있다. 마치 통상적인 경우, 바다에서 폭풍이 있을 후 바다가 잠잠해지기 전, 진동이 있는 것과 같다. 흔들리는 상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도 거행되는데 여기서 그 상태가 묘사되고 있다. 이 상태에는 앞쪽을 쳐다보고 뒤쪽을 보기도 하는 상태가 있는데, 마치 마르타가 오빠의 죽음을 놓고, 예수께서는 오빠가 죽지 않게 마리 조처하셨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뒤쪽으로는 생각과 함께 오빠가 기왕 죽었다해도 자기들을 위해 뭔가 하실 게 있지 않나, 극단적으로 라자로를 살리시는 것까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앞쪽으로는 생각이 교차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 생각의 교차는 우리 영혼이 기대어야 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확증 안에서 모든 추론과 의심을 끝낼 수 있을 때에 본질적으로 끝을 맺는다. 언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까? 그분이 신성한 진리이실 때,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사라지게 하실 때이다. 언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아들이실까? 우리가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신 진리이시다는 것을 볼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서 그 진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때, 위 두 가지 모두가 그분의 신성한 인성 안에서 체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신 분이 그분이시다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있을까? 그분의 진리의 권능과 사랑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연적 마음의 애정과 생각을 통치하고 거룩해지게 하는 체험으로 명백히 나타날 때이다.

28. 마르타의 믿음이 행동하라고 불리우고 고백으로 고정되었을 때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께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 주었다.” 선한 자연적 애정이 영적 애정에 자극을 주고 있다. 마르타가 은밀하게 동생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애정들은 서로 알아차릴 수 없게 행동한다는 영적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영적 애정 자체는 마치 오빠의 죽음을 위로하러 온 이들로 표현된 잡다한 애정과는 별도로 감명을 받고 교통을 이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마르타의 즐거운 발표는 “선생님이 오셨다” 였다. 위로자, 회복자가 여기 계신다. 환난의 어두운 시간에 계시지 않으셨던 그분,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고 고대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그분이 지금 와 계신다. 광야에 앉아 있는 영혼, 시험받고 있는 영혼이 비록 그 고뇌에 우리를 방치해 두신 듯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환난을 스스로 알게 하신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만한 기쁨일까! 더구나 그분은 오셨을 뿐 아니라 “너를 부르시고 있다.” 기뻐해야 할 더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 측면과 특별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 부름은 모든 인간 존재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다. 영적으로 그분의 일반적 부르심은 그분을 아는 모든 이에게 있고, 그분의 특별한 부르심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다. 그분께서는 이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들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하모니가 되고 있다. 그들의 애정과 생각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허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간단한 관계만 가지고도 우리 영혼에 있는 신성한 작용의 본성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유입(influx)을 수단으로 우리 애정 안으로 오신다. 그렇게 오시는 목적(purpose)은 그분에게로 이런 애정들을 끌어당기시는 것이다. 동시에 끌어낸 애정을 수단으로 그들의 생명과 빛으로서의 그분에게로 그들의 생각을 돌리신다.

29. 주님의 현존에 기뻐한 마리아가 그분의 부름에 천천히 응답할리 만무하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본다는 것이 생각으로부터 지각되는 것이듯, 듣는다는 것은 애정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이다. 신성한 현존의 느낌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심정의 승강을 창출한다. 애정이 열렬하면 행동도 재빠르게 이루어진다. 그 이유가 느낌의 열렬함은 행동을 민첩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속함(quickness)이 신성한 존재를 서술할 경우, 마치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의 경우 그것은 확실하게(certainly)를 뜻한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행동의 결과로서 조건적으로 약속되어질 수 있을 뿐이다. 마리아는 즉각 일어나 예수께 왔다. 주님께서 오시는 실제의 방법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승강은 의지 속에 존재하고 모든 진보는 삶 속에 있다. 이것들은 상태를 실지로 바꾼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져다준다. 그 이유가 심정 상태와 삶의 실지 변화야말로 우리를 그분과 더 비슷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마르타는 자연적 애정을 표현하는바, 그녀는 예수께서 읍내로 들어 오시기 전, 그분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고 한편 마리아는 집 안에 계속 앉아 있었다. 읍내에 있는 집이란 비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성에 있는 의지 같다. 의지는 우리 생명의 사랑의 대상(object)인 원리들의 집이고, 이해성은 우리의 일반적 애정과 지각의 대상인 원리들의 거주지이다. 예수께서는 읍내에 오시지 않았다. 더구나 집 안에 오시지 않았고 밖에 계셨다. 영적 고뇌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의식세계로 볼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심정밖, 이해성밖에서 계신다. 사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죽은 것은 아니나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듯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과 삭막한 느낌을 가진다. 갱신되는 삶의 표시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알아채렸을 때, 그분을 만나러 밖으로 나갈 때 명백히 나타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나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신 그 곳, 심정과 지성으로 우리와 함께 되돌아오신다. 주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거듭나는 이들을 치료자요 회복자, 구세주요 위로자로서 그들을 방문하시되 아직 그들의 이해성과 의지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을 때 거듭나고 있는 이들의 상태가 두 자매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 그런데 아직 읍내로 들어오시지 않고 있고 마르타가 그분을 만났던 그 곳에 계신 예수의 모습으로 표본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곱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인 유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들은 선의 원리, 반대로는 악의 원리를 명시한다. 요한의 복음서에서 이들이 유대인으로 널리 불리우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다 더욱 많이 그들이 언급되는 것도 위와 같은 표본적 품성 때문인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요한이 사랑과 선함의 사도 일뿐 아니라 복음서 기자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내적인 역사 의미에서 이런 유대인들은 주님에 의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에 자신을 달라붙게 한 옛것 속의 사람들, 또는 확실히 구별되는 애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옛 것 속의 사람들이다. 위 구절에서 이들이 마리아를 뒤따라 나섰다는 모습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영적 애정의 영향에 따라 행동하고 살겠다는 것을 더 표현해주고 있다. 내적 의미에서 그들은 지식으로서 마음 안에 존재하는 선한 원리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 시련이나 시험은 심정 안에 있는 선과 진리의 영적 애정에 찬조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 애정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도록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려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갔는지는 모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항을 아직 더 배워야 한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 역시 마르타같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더 심오한 부끄러워함을 동반하고 있다. 그녀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예수를 뵈으면 엎드려짐이 있는 것은 당연할는지 모른다. 그녀의 경우 예수를 뵙는 것은 참된 믿음의 행동,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 믿음의 최고 대상,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녀의 태도로부터도 예상된 믿음이다. 사랑이 더 높으면 그분 앞에서의 부끄러움도 더 깊어진다. 마리아가 구세주의 발 앞에 자신을 내던지며 애통해 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던들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예수는 신성한 권능을 지니신 분이심을 실토했다. 예수께서는 죽지 않게 하실 수 있거나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을 가진 모든 이들도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께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33.** 우리는 복주시는 주님의 인간 품성을 복음서에 기록한 사건 중 가장 애처로운

모습 중의 하나를 읽게 된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셨다.” 이 구절 이하에서 펼쳐진 정경은 위대하고 교훈적이며 위로를 주는 이런 진리, 주님과 구세주는 구원하시는 그분의 자비의 대상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4:15). 주님께서는 우리 본성의 허약함을 아시고 있고 그분이 육을 입으시기 전이나 후에나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 도움고 계신다. 육을 입으시기 전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느끼셨고 육을 입으신 그 이후 역시 그분은 우리와 함께 느끼셨다고 말해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육을 입으시어 모든 인간적 슬픔, 고통, 시험을 통과하시므로서 지금 그분은 그런 인간적 상태 아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그런 상태를 통해 그런 모든 것이 중단 될 영적인 천국의 삶으로 가져다 놓아주는 권능을 가지고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상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겪는 갖가지 시험을 겪으시므로해서 그분은 죄의 불순함과는 별도로 인간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시어 인간적 모든 애정이 신성을 섬기도록 거룩해지게 해주신다. 주님의 인성은 소생시키는 영으로서 모든 인간성에 고루 미치어 그것들이 영성화될 준비를 갖게 하고 인간의 모든 슬픔을 거룩해지게 한다. 우리는 인간과 더불어 연민을 가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구절, 즉 그분의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치셨다”에서 발견한다. 슬피 울(weeping)이란 사랑과 슬픔의 결과이다. 슬픔(sorrow)은 애정을 잃게 한다.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에서만 마음을 아파한다. 그러나 죽음의 경우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있다. 그 기쁨(joy)이란 영원한 세계에서 인간이 태어나기에 있어지는 기쁨이다. 기독교인은 희망을 가지지 않은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보건대 지금 취급되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때, 또는 영혼이 비록 신성한 권능 속에 아직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신성한 현존이 되돌아 오고 있다고 느낄 때,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인 상태이다. 그 다음의 모습은 마리아와 그녀를 따라 온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이다. 자기와 꼭 붙어 있어야 할 진리를 빼앗긴 영적 애정, 이 애정을

받쳐주고 지지하는 진리를 상실한 영적 애정이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 순간에 신성한 현존을 느끼는 상태가 증가된다. 마치 우리의 큰 슬픔들이 사랑 받는 친구를 보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비운을 상기시킨다. 통치하는 우리의 애정이 움직일 때 그에 부수되는 애정들도 더불어 움직인다. 마치 마리아가 슬퍼하자, 그녀 주위의 친구들도 같이 슬퍼한 것과 같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주변 사정은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신 예수의 모습이다. 그분은 비통해하셨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 내재한 신성은 그분의 연약한 인성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과 똑같은 감정과 태도를 지금 우리 안에서 생산하고 있다. 예수의 인간적 느낌은 부분적으로는 감정적일지 모르나 본질적으로는 신성한 사랑이 바깥으로 돌출된 것이다. 마치 부드러운 자비와 깊은 동정심 같은 것, 인간 본성의 다정다감으로 옷입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속성이 거주하시는 것과 같다. 현 문단의 글자적 의미에서까지 이런 생각이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이 비통해 지신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비통하셨다고 읽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 느낌이 가지는 유한성은 어쨌든 그분이 영화하셨을 때 제거되었다. 그럼에도 이 순간 단지 인간적 느낌만을 주님이 가진 듯 적힌 이 성경은 아직도 진실이다. 그러나 그 진실은 절대성을 지닌 진실일 수 없다. 단지 상대적인 진실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성경 글자대로라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의 눈물과 간구에 동요하셨다. 이것은 가상이고, 진짜 진리인 즉,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의 심정을 건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영 안에서는 결코 비통해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죄 지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통해 할 때, 그래서 그분께 건져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라자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비통해 하신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 보내는 내향의 간구이다. 이와 같은 인간적 기도는 그분의 굴욕적 상태 안에서 그분에 의해 제공되어졌다. 지금은 우리가 심히 부끄러운 상태에서 기도하도록 우리 안에서만 기도하신다. 모든 이에게 명백한 바, 주님의 영은 인간 마음 안에서 또는 인간 마음을 통하여 있게 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슬퍼하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식의 어떤 중재역할도 없다는 것이다. 신성한 영이 아무개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식의 생각은 인간의 감격(emotion)에 의해 있어진 것일 뿐, 무한하고 변할 수 없는 존재(Being)의 본성에 관한 올바른 개념과는 모순된다. 유한

한 마음 안에서만 무한한 영은 유한한 인간적 느낌을 옷입을 수 있어 그 자체의 표현은 그것들을 수단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유한한 마음을 통해서만이 하느님과 그의 중재가 있어질 수 있다. 본문에서 예수의 경우도 이와 같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깊이 느껴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스럽고 경건한 마음과 더불어서 일 경우 그분은 슬퍼하신다.

34. 이 때 주님이 물으신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여기에서도 다시 가상의 진리가 있다. 주님은 라자로가 죽었을 때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를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실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마치 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듯 물으신다. 이런 물음은 우리를 위해서이다. “어디에” 라는 질문은 우리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구절은 “그들이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20:13)이다. 본문의 경우 주님 자신이 “어디에” 라고 말하시고 있다. 장소가 상태를 상징하듯, “어디에 그를 두었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죽은 상태를 마치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놓아두었던 것 같이 곱곰이 되새겨 보는 쪽으로 인도되도록 의도하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대답하도록 묻고 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밝히 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 진리 안에 있다. 질문을 받은 이들의 대답인즉,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로 와서 볼 수 있게 하실 때 주님은 오셔서 보신다. 주님이 이런저런 분이라고 말씀이 단정하는 사항들이 진보해가고 지각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해되는 모든 단계들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정 안에서 증가될 때 그분이 오시는 것이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이해성에서 증가될 때 그분이 보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어 라자로가 놓인 곳을 보시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힘과 진리의 빛이 자연적 마음에, 그 안에서 매장된 믿음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 얼마나 엄숙하고 감격적이며 의미심장한가! 사람의 아들이 우신 것은 자연적 삶이라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한 마디로 죽어 있는 라자로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주님은 라자로로 표현되는 이들의 영적 사항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가장 큰 의미에서 라자

로는 인류의 예징(type)이었다. 죽음이 인류를 사로잡았고 무덤이 그들을 삼켜 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예언자나 사도들에 의해 기술된 바 와같이 주님이 오시는 때의 인류의 상태였다. 마르타에 대한 그분의 말씀로부터 명백한 바, 예수께서는 라자로의 무덤이라는 장면을 통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중요한 것을 보셨다. 그분은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영적 죽음과 부활을 보셨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설비하려 오신 부활을 보신 것이다. 주제에 관한 이런 관점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해주려 오신 그분이 흘린 눈물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볼 때 예수의 눈물은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귀중한 것인지! 이 눈물은 인류의 영적 상황에 뿌려진 것임을 알았을 때 더욱 실제적이고 감명적이 된다. 예수의 눈물이 라자로라는 한 인간만을 위해서 흘리셨다면 그 눈물은 친구의 죽음에 대한 자연적 애정 수준에 불과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하느님-인간이신 분, 그분의 사랑은 온 인류를 포용하고 있고, 그분은 그들을 찾아서 구해주시려 오신 분임을 확신할 경우 그분의 눈물은 라자로 개인만이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인류의 잃어버린 조건에서 죄있는 사람으로 구세주의 마음 앞에 있었을 때 그분의 눈물은 한 개인 존재의 무상한 죽음을 목격한 인간적 느낌의 결과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는 인간 가족의 영적 죽음과 영원한 파멸을 두고 있어진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은 여인이 그녀의 많은 사랑 때문에 그만큼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을진대 (누가7:47), 인류의 죄있는 상태는 온유하고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흐르는 예수 자신의 눈물로 얼마나 더 씻어 내야 할까?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시기 위해 본문의 역사에서 우신 것이다. 죄인들을 위해 슬퍼하시는 그분의 눈물은 죄인들 안에서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되도록 고안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눈물만이 그들의 위법을 없앨 수 있고, 새 생명을 받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줄 수 있다.

36. 예수께서 우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더 더욱 말해야만 하는 것은, 그분께서 어둠에 앉아 있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이다. 라자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한 인물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인물 측면을 참작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들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와 관련시켜 사랑하신다. 그분은 무한히 사랑하시고 편견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해지지만, 그럼에도 그분도 다른 사람에 비해 누군가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분은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셨다. 그분의 사랑을 더 가지고 있다면 더 사랑하신다. 이것은 신성한 사랑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편파성(partiality)이다. 주님은 인간 속의 선한 특질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내 뺀 것을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우리는 인류의 구속으로 나타내신 주님의 사랑, 지금도 생명을 받기 위해 그분께 오는 모든 이의 구원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의 본성을 얼마만이라도 지각했을 때 이 주제의 더 높은 관점으로부터 감탄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리라.

37. 유대인 중의 누군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 하고 말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다. 물론 자연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증여하시는 분이신 바 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분인데 라자로의 죽음을 예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목적은 그를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있었다. 라자로를 인간성의 예징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의 위 질문은 때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물어 질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실 수 없단 말인가? 만일 이것이 하느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 모순 없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미결로 남아있었을리 만무하다. 그리고 주님은 자연적인 죽음에서 라자로를 구하려고 끼여드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을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려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죄가 없어야 함을 의무로서 이행해야 하는 길에 서 있다. 하느님은 강제로 죄짓지 못하게도, 정의를 확실히 붙들게도 하실 수 없다. 자유의지를 부여한 분이 그분이신바 그것에 반대되도록 강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자신을 두고 반박하는 것인바 그것은 불가능하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죽음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 세상에 오실 때까지,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선물로서 그분이 인류에게 증여하셨던 자유와 일치되는 방법에서 인류가 구원되도록 설비하시기 위해 세상

에 오시는 때가 찰 때까지 죄와 죽음은 인간을 누를 수도 있게 허용되었다. 참으로 구속은 인간 자유의 회복, 즉 무게가 천국보다 지옥으로 더 쏠려 있는 상태, 악의 권세가 선의 권세보다 더 강한 상태를 균형 되도록 회복하여 자유로움이 회복되는데 있다.

38. 우시는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을 기록한 후에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진행한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의 열렬하심은 라자로의 자연적 상황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영적 상태와 직접 연결되도록 그분의 인간성을 매체로 가져다 놓으시어 그 자체를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무덤이 죽음의 집에 해당되는바, 무덤은 마음 자체, 특히 마음의 자연적, 감각적, 물질적 수준을 표현한다. 이 마음 안에서 영적인 모든 것은 주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권능을 수단으로 깨어날 때까지 마치 죽은 듯, 매장된 듯 놓여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인간 자체가 죽어 있고 매장되어 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즉 감각적 본성이 아닌 합리적 본성이 인간이다. 합리성이 감각 안에 침몰되면 성경적 의미에서 인간은 죽어 있고 매장된 상태이다. 라자로가 놓여 있는 무덤은 동굴이었다. 동굴은 영적 사항에 희미해 있는 마음을 표현한다. 동굴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그것은 마음이 진리에 관해 희미함을 의미한다. 예언자로 표현된 말씀 자체를 표현하는 예언하는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 달아나 동굴 속에 숨었을 때의 모습은 아합이라는 악한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말씀 자체가 교회로부터 감춰져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라자로가 놓여진 동굴은 돌로 막아졌다. 좋은 의미일 경우 돌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마치 진리가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것과 같다. 말씀의 글자는 진리의 외관이고 이 외관에 글자적 의미의 대부분이 놓여 있다. 돌로 막은 동굴 안의 죽은 자는 자연적 상태 안에 있는 사람, 즉 이해성이 진리의 외관들, 감각의 오류들에 의해 희미해 있고 그것들 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왜곡된 확신만을 끌어내는 사람들을 예징한다.

39. 영혼이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 최소한 지적 죽음이라 불리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행해져야 할 첫 번째는 왜곡된 신조만을 생기게 하고, 의지숙의 악을 총애하는데 사용되기만 하고 이해성의 지각을 흐릿해지게 하는 진리의 외관



(appearance)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자연적 애정, 또는 자연적 마음 속의 애정은 진리의 외관을 제거하려는 신성한 작동에 장애물을 제공한다. 그 이유가 이 애정에게 생명의 회복은 희망이 없는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애정은 그것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믿음의 생명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부패되었기까지 진행된 듯 여긴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돌을 치우라는 명령에 마르타가 이의를 단 것은 거부하는 영으로부터가 아니라 라자로의 경우는 희망 없다는 확신으로부터였다. 지금쯤이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마르타가 말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표현이었다. 달콤한 냄새(sweet)는 선함과 진리의 지각에 상응하고 불유쾌한 냄새는 악과 거짓의 지각에 상응하는데 이것이 영적 부패의 근원이다. 그러나 악과 거짓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으나 선함과 진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그 이유가 악과 거짓의 품질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지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소견 발표가 선한 애정을 표현하는 마르타에 의해 있었고, 그 애정을 소유한 이들에 의해 표현된다. 마르타의 소견은 통상적인 질서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만, 그녀의 말 그대로와 같이 라자로의 몸이 부패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라자로가 나흘간 죽어 있었으나 그의 몸이 부패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사후 사흘 될 때까지 있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라자로의 경우 이런 분리가 예방되었으리라고 상상해보는 것도 무리는 안될 것이라 본다. 비록 통상적으로 죽어있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해도 그 단어는 주님이 표현한바 같은 것, 잠들어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의 권능이 없으면 결코 깨어날 수 없는 실제의 죽은 상태 같은 것으로 말해볼 수 있다. 이렇다고 해서 기적의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증대되었다. 이 기적은 하나대신 두 개의 기적, 라자로가 썩는 것을 방지 한 것과 그를 일으킨 것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이방인의 상태에 있는 이들, 라자로로 표현된 극도의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 적절히 응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부패가 표현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선함과 진리의 모독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썩어짐, 그리고 가장 지독한 영적인 냄새는 선과 악이 혼합되는 모독으로부

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비록 그들이 악과 거짓가운데는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모독 가운데는 있지 않았다. 그 이유가 거룩한 것을 모르는 이들은 거룩한 것을 모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을 수행하는 이들은 참으로 거룩한 원리들을 모독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 발생한 모독은 시험에 빠져버린 결과이다. 그리고 시험에 극도로 빠진 이들은 좀처럼 영적 부활의 주체이지는 않다. 부활을 획득한 이들은 라자로가 나흘 동안 죽어 있었던 것으로 표현된 상태에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됨을 암시하는 썩는 상태에는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죽어 있었으나 그들 안에 생명으로 다시 불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는 악과 거짓의 결합이 있었을는지 모르나 이 상태는 균형된 결합은 아니고 그에 따른 모독 역시 훨씬 덜한 상태였을 것이다. 진리의 영인 애정이 계속 거기에 있어서 신성한 권능이 육체에 그 영을 소생시킬 수 있고, 영혼을 다시 영적으로 살아 있게 만들 수 있다.

40. 라자로의 몸이 썩고 있다는 마르타의 확답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영광의 희망으로 그녀의 믿음을 개변시키시고 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왜 라자로의 부활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까? 이는 흥미 있는 질문이다. 이것은 라자로 개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 주님이 치료하신 많은 다른 경우에서도 치료되는 그 인물만의 믿음에 국한 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믿음을 통해 수행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바, 영적으로 믿음은 죽은 자의 행동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결과는 산 자를 통해 죽은 자에게 도달된다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원리를 통해 주님을 믿는 신앙을 수단으로 죽어 있는 어떤 것과도 교통한다. 앞 장의 강연(5장25절)에서와 같이 죽어 있는 자도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는 자는 살 수 있다. 마치 과부의 아들의 경우도, 라자로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것이 듣는다가 아니라 죽은 것 안에 이미 하나만 남아 있는 생명의 어떤 것이 듣는 것이다. 영적 죽음은 모든 생명의 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사랑과 믿음의 소멸이다. 이 두 가지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구성한다. 그러나 어쨌든 영혼이 이런 점에서 죽어 있을는지 모르나 새 생명을 받는

자질은 잔존해 있고 이 자질을 통해 새 생명이 교통 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질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두드리시는 문이다. 모든 사람이 각기 그 부름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다.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연다.

**41,42.**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의 명령에 의해 죽은 자가 놓인 곳에서 돌을 제거함이란 마음으로부터 진리 자체를 감추이게 한 진리의 외관을 실지로 제거하는 것이다. 돌이 제거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눈을 치켜올리시고 이렇게 말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인간성과 신성이 가장 깊숙이 교류됨, 주님 안에서 지혜가 신성과 가장 깊은 쪽에서 교제함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의 이런 하나됨은 우리 안에서 이타애와 믿음이 결합하는 근원이고, 이를 통해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청을 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청을 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모든 참된 기도는 그 기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의 최말단 목적을 위해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을 가진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드림은 이 하나됨을 위해 결과되어진다. 감사를 드리고자 치켜올리신 주님의 눈은 그분의 신성한 지혜이고,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과 섭리이다. “주님의 눈은 우리 위에 있고 그분의 귀는 우리의 외침에 열려 있다.” 그분의 지혜와 의지는 영원한 선을 위해 우리 위에 꾸준히 존재한다. 주님 자신에 관하여서 아들의 눈은 아버지를 향해 언제나 있고 아버지의 귀는 아들의 외침에 언제나 열려 있다. 신성한 지혜는 언제나 신성한 사랑을 보고 있고 신성한 사랑은 언제나 신성한 지혜를 듣는다. 신성한 언어에서 이렇게 기술되듯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지혜의 상호간 하나됨은 구원의 권능의 근원이 되고 우리 안의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생명으로 일으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계속하신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피조물의 청을 들으시는 것도 이와 똑같은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분께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묻지 않으셨고, 단지 신성한 의지에 일치할 수 있는 것만을 물으셨다. 다시 말해 신성한 사랑의 본성에 일치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묻지 않으셨다. 이 구절로부터도 이런 것은 나타나고 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건때문 이라기보다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은 믿게 해주시려 간청하고 있다. 주님의 기도는 선용(use)속에 있도록 고안되어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의 근원이 신성이시라는 것, 그분의 본성이 신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분인바 하느님이다.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든 신성하다. 신성은 나눌 수 없는바, 아들의 신성과 아버지의 신성은 하나이다.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마치 영혼과 육체같이, 의지와 이해성같이 구분 지어 볼 수는 있다. 본질상으로는 구분이 될 수 있으나 인물(person)로서, 일(operation)에서는 하나이다. 이 주제에는 이런 영적 관점이 있다. 주님이 아버지께 의해 보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려고 진행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선으로 채워지고 신성한 선으로부터 행동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믿음일 때, 사랑에 바탕을 둔 믿음일 때이다.

43.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무덤으로부터 라자로를 부르신 이 음성, 이 얼마나 강력하고 예언적인 것을 한꺼번에 담은 큰 소리인가! 죽은 자를 산 자가 되게 부르심은 하느님 같음(God-like)뿐만 아니라 신성의 행동이다. 생명이신 그분 말고는 아무도 생명을 나누어주지 못한다. 예수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위대한 기적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다. 비록 예수께서도 권능의 근원으로 아버지를 찾으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성이 그것과 하나되어 있는 신성을 찾은 것밖에 더 아니다. 어쨌든 이 기적은 썩을 육체를 살아 있게 부르는 것, 불멸의 영혼을 생명으로 부르는 위대함이다. 기적은 바깥쪽 상징밖에 더 아닐 뿐이나 거기에도 위대한 진리가 있다. 죄의 죽음으로부터 정의의 생명으로 부활함은 라자로의 일어남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있는 특유한 기능이다. 신성한 음성은 아직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듣는 이들은 아직 살고 있고,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교부한 생명 있는 무덤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인간의 모든 언어들, 생각과 애정, 즉 단어로 생각을, 음조로 애정을 표현하듯, 신성한 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신성한 회화에서 생각은 무한한 지혜이고, 애정은 무한한 사랑이다. 예수께서 발음하신 단어들은 그분의 지혜의 표현인데 표현을 나타낸 큰 음성, 큰 소리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것이 큰 음성, 큰 소리로 불리운 것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에서 명백해지는 신성한

사랑의 열렬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라자로의 무덤에서 외치신 예수의 음성은 인간 본성 안에서 명백해진 것,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음성이 기도했다. 육을 입심으로 신성한 진리는 최말단으로 가져다 놓여졌고, 최말단에 놓여진 신성한 진리는 최말단 안에서 충만하고 권능 가운데 있었다.

44.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수의가 라자로를 에워 쌓고 돌은 무덤을 가로막았다. 옷이 몸에 관계되듯 진리는 마음에 관계한다. 진리가 마음을 입히고 있는 것은 마음이 지닌 사랑의 따뜻함을 보존하고,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장식해 주기 위해서이다. 더 특별하게는 옷과 몸의 관계는 진리와 선의 관계와 같다. 그 이유가 선은 종교의 몸이고 진리는 그 몸을 입힌 의복이기 때문이다. 진리들이 올바른 법칙인바, 옷은 정의로움의 상징이고, 이 정의가 마음의 품위들을 옷 입혀주고 장식하여주는 아름다운 옷이다. 흰 모시옷이 사도들의 정의로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옷이란 생명이 이탈된 종교의 몸을 덮고 있는 진리와 같다. 따라서 권능이 없는 신성의 형체일 뿐이다. 라자로가 교회의 표본 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수의는 진리의 외관들, 종교의 갖가지 예식들이다. 이런 것들은 교회 말기 때에 순수한 진리대신, 정의의 일 대신에 교회를 입힌다. 이것들이 편협한 신조와 완고한 교회만능(중심)주의를 형성했는바, 이것은 죽은 자를 감싸는 옷으로 적합할 수 있겠지만 살아 있는 자를 위한 옷이 되는데는 부적합하다. 구세주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나와진 살아있는 교회는 손발이 묶여 있고, 안쪽과 바깥쪽 모두의 능력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음의 지각하는 자질은 마치 라자로의 얼굴이 수건으로 감겨 있듯 덮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이들의 모습이다. 세상이라는 끈이 아직 그 사람 주위를 맴고 있어 그의 능력은 묶인 상태이고 그의 시력은 장애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있다.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이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게 된 모든 이에 대한 신성한 명령이다.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것, 그 다음은 자유이다. 이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에게 수여되는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 그들이 모든 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외적인 끈을 내놓아 “내 명에는 지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내적 차원의 그분의 끈과 맞바꾸는 것이다.

45,46. 이 기적의 결과이다.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신성한 작전의 피할 수 없는 오로지 복주시는 결과인 것은, 신성한 작용은 테스트와 심판의 길에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신성한 작용은 인간의 상태들을 섭리하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해서 선한 자는 최고의 선 자체와 연결되도록 끌어내고 악한 자는 악이 우세를 떨치는 쪽으로 빠지도록 내버려두신다. 세상에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때도 이와 같다. 이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원리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옛 원리를 더욱 고집한다.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생명을 즐길 수 없는 죽음에 통곡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뢰의 바위가 되는 진리가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죄를 짓게 하는 바위가 된다. 또한 신성한 작용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분리되게 해준다. 그리하여 선은 끌어내서 주님과 연결을 이루게 하신다.

47,48.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하자,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유대 의회의 두려움은 과거 그분의 대화에서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수준에서 위기를 느끼는 수준까지 격양되었다. 라자로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게끔 되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누구나 다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곳과 백성을 짓밟을 것이다.”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신조나 부류들과 같다. 이기적인 자와 형식에 치우친 자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빛을 가지고 선함과 진리의 전진을 저지시키고 묶어 두려 할 것이다. 영적 차원에서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에 언제나 제공하는 반대가 위와 같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주님께서 새 생명을 영혼에 나누어 주실 때 더욱 그러하다. 새 사람이 천국의 생명 안에서 만드는 모든 진보는 옛 사람에게 더욱 적대감을 갖도록 자극한다. 악과 거짓은 서로 병합하고 선함과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그것은 그들의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천국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권능으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에 노예가 되는 쪽을 기꺼이 선택한다.

49-53.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렇게 아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을 한 셈이다. 그 예언은 예수께서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되리라는 것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를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는 뜻이었다.” 요한이 대사제의 이런 주목할 만한 발언을 영감된 예언이라고 이해한데 대해 의심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사악한 자가 이처럼 위대한 선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표본적인 교회인 유다교회일 경우 모독된 인물이 신성한 직능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그것은 사람이 아닌 직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예언하는 것은 기적 같은 선물인바, 이는 직능 때문에 그 인물에 선물되는 것, 발람의 경우 같이 그의 도덕적 품성과는 무관하게 수여되는 것이다. 대사제로서 가야파의 예언은 참 진리였다. 그는 신성하게 지명된 사건을 예언하도록 신성하게 영감 되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다는 것, 그분은 흩어진 하느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진리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두고 말하셨다. 그분은 흩어진 양떼를 모으고, 그분의 두 양떼를 한 우리에 넣어 하나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대사제의 예언과 맞물려 있는 주목할 만한 주변 상황은, 그것이 유대 종교회의에서 말해졌다는 것, 주님의 주장이 펼쳐지는 것을 막을 어떤 궁리를 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석상에서 발표된 말이라는 점이다. 이와 반대되는 어떤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가야파가 아마도 예수에 대한 의회의 분노를 더 흥분시키기보다는 진정시키기를 원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상상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가야파의 목적은 예수의 기적을 더 이상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도록 회의를 이끌려 했고, 따라서 말썽을 일으킨 소지를 단번에 잘라 내려는 의도가 그의 말에 담긴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야파의 의도는 이루어졌다. “그 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예언에 관한 그들의 이해를 예언의 참 의미와 비교한다면 말씀의 글자는 죽이고 그 영은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차이를 놀라웁게 예증하고 있다. 그들은 예언 속의 백성이 유대인이요, 흩어진 백성이란 이스라엘 왕국의 흩어진 백성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게 하려 했는지를 궁리한 내용을 위 예언에서나, 뒷장의 세부항목에

서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참된 의미에서 예언이 성취되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의도는 그들 자신의 계획의 성공으로 패배되어졌다. 그러므로 압도하는 섭리에서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선에 가한 악을 돌리심으로 사악한 자의 분노까지도 그분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있다. 사악한 자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악이 일시에 주님을 향했던 경우가 바로 이 사건이다. 그들의 권능은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들의 권세는 뻗칠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여다 볼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시험에 의해 우리 본성 속의 악을 흥분시켜 주님의 몸을 나무에 매다는 무익한 용도에 사용되었을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도 끝났다 (베드로전서2:24). 이교도는 격노했고 그 백성들은 떠들썩했다. 지상의 통치자들은 주님에 대해, 그분의 기름부은 자에 대적해서 작당을 꾸민다. 그들이 그분을 죽게 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놓고, 땅은 빗장을 쳤을 때 (요나2:6), 그들은 대승리라고 의기양양해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의기양양해 함은 잠깐 일 뿐이다.” 부활의 아침이, 그분께서 죽음의 고통을 풀어 버리셨을 때, 죽음이 그분을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2:24), 무덤의 문이 부서졌을 때, 그분은 정복자가 되셨다. 그분은 적들의 끈들을 끊으시고 그분으로부터 그들의 묶는 끈을 내던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복종하도록 환원시키고, 영원하도록 건설되는 정의의 왕국에 대항하는 그들의 호전적인 권세를 묶어 놓으셨다.

54. 바리사이파사람과 대사제가 작당한 결과 백성 사이에는 그분에게 적개심을 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이상 더 유다 지방에서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지방으로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계셨다.” 유다인의 반대 때문에 그분이 물러가 머무셨다는 기록은 이 구절이 세 번째이다. 앞 두 번의 경우 그분은 유다를 떠나 갈릴래야로 가셨다. 이 구절의 경우 그분은 유다 광야 근처인 에브라임 동네에 머무시고 있다. 비록 그분이 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다 해도 글자적 의미대로라면 그분은 안전을 위해 물러가신 것이다. 영적 의미라면 그분이 노골적으로 비난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걷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폭력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는 곳, 영혼이 파괴됨에서 구원되는 곳, 마음의 더 은밀한



부분으로 물러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체류하신 지방은 교회의 삭막한 상태를 예징하고, 희미한 상태, 시험의 상태를 표현하는 유다의 광야 근처였다. 그분이 가신 성읍, 에브라임은 교회의 지적 원리들, 교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지적 측면을 의미한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그들은 새로운 이해성과 새로운 의지, 또는 영적 교회의 지적 측면의 원리와 의지적 측면의 원리를 표현했다. 에브라임 성읍은 에브라임 자신에 의해 모형화된 것, 즉 원리의 교리적 형체를 상징했다. 거기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체류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곳, 즉 부패된 의지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바 주님의 현존은 지적 측면의 원리의 내면 안에, 그분의 말씀의 진리들 안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55-57. “유다인들의 과월절이 다가왔다.” 이 과월절은 우리의 주님이 기념하신 마지막 절기였고, 그분의 영화하심, 인류의 구속, 그분의 교회를 건설하심을 의미했다. 이 과월절은 그분의 제자로 표현된 교회와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으신 절기였고, 세상의 구속과 그분의 인성의 영화하심이 완성되는 것과 연결된 절기였다. 그분의 위대한 일의 완성이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것은 확실했을뿐 아니라 시간의 때 역시 가까웠다. 모든 것은 이 위대한 사건을 위해 선한 자의 쪽이든 악한 자의 쪽이든 준비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성전 뜰 안에 모여서 ‘어떻게 들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에 참례할 것 같지는 않지요?’ 하며 서로 수근거렸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 거처를 아는 자는 곧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던 것이다.” 비록 예식에 속할 뿐이지만 이 정결하게 함은 참회자가 추구하는 영적으로 깨끗해짐,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추구하는 영적으로 순결해짐을 표현했다. 그 이유가 제 고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선의 상태에서부터 진리의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모든 순수해짐은 진리를 수단으로 결과되기 때문이며, 선의 원리로부터 순수해짐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이들 에게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우리의 마음으로 실어다 놓아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자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우리 밖에서든, 안에서든 바리사이파 같은 원리들은 가장 거룩치 못한 목적을 위해 가장 거룩한 때를 이용한다. 거룩함의 참 영적 기운은 바리사이파식 원리에게 더욱

적개심을 일으키게 한다. 군중 사이에는 그분이 절기에 나타날 것인지, 그분이 오실 것인지에 의문을 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리로서의 주님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는 쪽도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 다음 장(12:12)에서 보여지듯, 그분을 구세주로, 구원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의견은 갈라졌는데, 마치 마음이 분단되었을 경우 같은데 이는 상태가 아직은 충만 되지 않은 때이다. 백성들 스스로 예수께서 축제에 오실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대사제와 바리시이파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즉각 잡아들일 수 있게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거룩한 분에 관련한 교회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의 의도는 비록 그들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취되었다. 주님께서 제거하시려고 고통받으신 것, 인류 또는 인간 심정 속의 적개심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이 악한 지도자들의 대목을 꼼꼼이 되새겨 보아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낮추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아직 적의 편에 서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예수께서 찾아 구해 주시려 오신 이들의 손으로 받은 대접은 타락의 영원한 증거요 기억해 두어야 할 장면들이다. 이 타락으로부터 주님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 있는 친절 속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타락된 우리는 본성의 참 모습에 충실하려는 것에서 그 얼마나 죄스럽게 떨어져 있는가!

## 12

라자로의 부활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일어남을 표현하고, 이 장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운 대화체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함께 생명의 언약으로 들어가심을 표현하고 있다. 개인적 측면일 경우 이것은 영적 부활인 거듭남이 만찬의 음식으로 표현된 선을 자기것 되게 함으로 해서 주님과 상호적으로 결합함을 표현하고 있다.

1.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는데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가 사는 고장이었다.” 이 과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사건과 연결되는 절기인바 이 구절의 “엿새”란 그분께서 마지막 시험을

끝내는 십자가의 고난, 노동의 옛세에 이어지는 안식일로 표현된 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노동에서 쉼으로 이어지는 부활을 결과되게 하는 시련의 상태들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영화하시어 주님의 상태는 쉼 자체이고 인간의 영적 쉼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난의 모든 상태에는 각 상태의 끝을 위한 쉼뿐만 아니라 시작을 위한 쉼도 있다. 우리는 환난에 앞서 있는 쉼이 없었더라면 환난을 알지 못하고, 쉼 그 전에 가버린 환난이 없었더라면 쉼을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영적 삶은 자연적 삶과 같다. 삶은 유아기의 평화로 시작해서 노년기의 평화로 마감한다. 그들 사이에 노동과 시련의 상태가 있고, 이 상태들은 꾸벅꾸벅 조는 평화의 상태를 정복하는 열정의 평화로 바뀌게 한다. 그러나 환난 자체도 휴식의 틈새를 가지고 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휴식하는 장소에 머물렀던 것과 같다. 거기서 그들은 약속된 쉼을 미리 맛보고 고된 여정을 위해 새로운 활력도 얻고 있다. 그 속에도 행복한 마감이 있고 넘치는 큰 보상도 있다. 이에 대한 어떤 암시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신 주님 자신의 삶에도 있다. 예수께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박해하는 유다의 적들로부터 평화스런 곳, 베다니아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물러가 계신 듯 보인다. 주님께서는 사랑 받는 형제를 죽은데서 다시 살아나게 회복시켜 주시어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집이 빛나게 하셨다. 여기서 쉼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으키시는 교회와 그분이 묶여지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여기서 그분은 마르타와 마리아 집의 손님으로 계시면서 사랑이 통치하는 마음 안에 그분이 계시는 감격적인 상징을 주시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 참되고 생명 있는 믿음과 하나를 이루어 사랑함이 더 배가된다는 것도 보이시고 있다.

2.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 졌는데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예수를 위해 마련된 만찬은 이스라엘 교회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와 어떤 측면에서는 유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제사의 제물은 일부는 하느님께, 일부는 인간이 먹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제물은 내향의 느낌을 외향으로 표현한 것, 그 느낌이 깊은 통회이든 깊은 감사이든 그것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느낌이 표현된 것이다. 여러 가지 제물은 인간의 사랑함과 예배의 참 대상이신 하느님과 영적이

고 구원해주시는 관계가 예배자와 있도록 응낙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다양한 인간 애정의 표현물이다. 하느님께 바치는 여러 가지 제물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수여했었던 선물을 그분께 되돌리는 것밖에 더 아니듯, 우리의 잔치나 제사는 그분과 결합하는 수단이 되었다. 잔치이든 제사이든 제물이든 그것 모두는 하느님과 우리의 영혼 사이의 계약이다. 우리가 본 구절의 주제에 관한 내면의 관점을 잡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음이라는 집식구되는 사람의 손님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겸손한 모든 마음은 주님께서 손님으로 접대 받는 집이다. 그 이유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주하시는 그분이지만 통회하는 겸허한 영을 지닌 사람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을 경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57:15). 그분은 아직도 무르고 여린 인간 본성을 지니고 있는 라자로와 그의 누이동생들과 함께 계시듯 그분은 그분의 영화된 인성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됨으로 현존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수단으로 우리 심정에, 그분의 지혜를 수단으로 우리 이해성에 거주하신다. 겸손해지고 순수해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다. 주님께서 현존하실 수 있는 절기(잔치)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위의 원칙 아래서만 해결될 것이다. 그 이유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한 존경을 교회의 예배에서 드리든지, 세상의 사업에서 드리든지, 심정과 생활 속에 있는 것밖에 더 진짜 제물은 없기 때문이다. 복음서 기자는 “마르타는 시중들고, 라자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고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미 살핀 바대로 마르타는 선함과 진리에 대한 자연적 수준의 애정 또는 사랑인데, 이 애정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랑을 피한다. 그러나 그것의 형체나 명백히 나타남은 자연적 차원인바, 한마디로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영적 사랑이다. 이 사랑의 적절한 기능은 시중드는 것, 섬김(serve)이다. 영적 사랑을 섬기고, 이 영적 사랑을 통해 신성한 사랑까지 섬기게 되는 가운데 자연적 사랑은 올바른 용도에서 쓰여져 그 사랑의 참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마르타가 시중들고 있다고 기록된 주변 모습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현존하실 수 있는 마음의 영적 질서를 표현한 것이다. 마르타가 시중드는 동안 그녀가 자기 홀로 일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기록은 없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경우 같이, 마르타는 주님께 마리아더러 자기를 도우라고 말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과 비슷한 기록이 없다. 이 구

절의 경우 그녀에게 할당된 조건을 묵묵히 응낙하고 그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는 모습은 자연적 사랑이 영적인 사랑에, 이를 통해 신성한 사랑 자체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마르타가 시중드는 동안, 라자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만찬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 식탁에 부활이신 예수와 죽은 자에서 살아난 라자로는 함께 있는 것이다.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 틈에 있는 라자로의 모습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자연적 원리로서 마음에서 죽어 나갔던 믿음이 영적 원리로서 마음에 회복되어서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더불어 분리되었던 영적 애정과 자연적 애정과도 결합을 이룬 것이다. 본문의 독특하고 복된 모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태를 미리 맛보게 된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계시록3:20-21). 라자로는 죽음자체를 극복했다. 그는 예수의 음성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불러 나왔다. 부활하는 모든 어린 아이도 이와 같다. 신성한 권능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극적 태도로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 한다. 본문에서 라자로의 부활은 한 순간에 있어진 행동이었지만 거듭나는 우리의 부활은 평생동안 진행되는 작업이다.

3. 위 두 구절도 이 구절의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 조치된 것이다. 이제 주목해보자. “그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아름다운 행동은 주님께서 그녀의 오빠를 살려주신 은택에 보답하고자 있어진 행동이다. 깊이 감사함은 자기 영혼이 영적 생명을 회복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야말로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천사가 가지는 기쁨인 것이다. 이것이 라자로의 부활로 표현된 회복인바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도 똑같은 품성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자로의 부활이 우리 믿음 속의 영적 원리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표현했는바, 마리아의 예물은 생명 자체가신 그분에 의해 수여된 새 생명으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살핀바, 마리아는 영적 사랑의 예징이고, 마르타는 자연적 사랑의 예징이며, 라자로는 주님의 진리를 지각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저자요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생명의 믿음을 받게 된 교회의 지적인 원리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회복된 마음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애정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자비로 주신 주님께 사랑과 은택의 애정을 쏟는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쏟아 바친 예물은 향유(ointment)이다. 향유는 사랑을 상징한다. 이 예물은 귀하다. 그래서 값도 비싸다. 그것이 귀중한 이유는 사랑은 모든 품위(grace)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값이 비싼 이유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리아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향유에 관해 성경에서 말해진 곳이 거의 없어서 그 향유가 향기가 많고 값이 비싼 물건이라는 지식 그 이상을 살필 수 없다. 이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마리아는 이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 전체에 부었다고 추측해 보는게 합당할 듯하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바, 복음서 기자들은 자기들이 사건을 관찰했던 것, 또는 자기들이 감명되었던 상황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들이 신성한 영감에 의해 복음서를 썼다고 믿는다면, 복음서들의 기록의 차이는 인간 즉 서로 다른 지각의 상태를 지닌 인물들이 똑같은 진리를 보게 될 때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복음서는 주님의 영화하심, 그리고 인간의 거듭남의 다른 상태들, 그리고 진척되어 가는 상태와 관계해서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일의 발전에서 내적 측면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 뒤에 외적 측면이 새로워진다. 주님께서 이를 두고 말씀하셨다. “먼저 네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네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태23:26). 이와 일치해서 먼저 앞 두 복음서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마지막 복음서는 발에 붓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주님께서는 이 기름부음이 그분의 영화하심으로 간주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기름부은데 대해서는 특이한 의미가 있다. 마치 주님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하신 말씀, “목욕을 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어도 된다”는 구절에서 배우는 것 같을는지 모른다. 내면이 순수해졌다면 외면을 순수하게 하는 것밖에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거듭나는 사람은 온전히 깨끗하다. 요한은 주님의 “발”에 기름 붓는 것을 기

술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의 복음서는 주님의 영화하심에 관련된 일의 마무리 차원에서, 그분께서 지금 다가왔다고 말하셨던 것 같이 주님의 마지막, 완성된 영화하심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머리에는 이미 기름 부어졌다. 그분의 인성은 내면적 차원에서는 이미 영화되었다. 내면의 영화되심이 최말단 수준에서까지 영화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이를 통과하심으로 완성하시었다. 이것은, 더 충분하게 거듭나는 자에 의해 보여지듯, 지금 마리아가 귀중한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는 것으로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기름부워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주님은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이셨다. 그분께 부어진 거룩한 기름은 신성한 사랑이었다. 더구나 주님은 여호와의 기름부으신 자이셨을뿐 아니라 교회의 기름부은 자이셨다. 신성의 사랑을 받으심으로 예수는 여호와와 하나가 되었고, 인간의 사랑을 받으심으로 그분은 교회와 하나가 된다. 우리가 교회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한 개의 교회를 말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많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기름 부었을 때, 만일 그녀의 귀한 향유가 그녀의 심정 안에 내재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귀한 품위를 진정 표현했다면, 그녀의 사랑이 실지로 주님께 기름을 부은 것이었을뿐 아니라 그에 대한 표본도 된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과 실지로 하나됨의 표본도 된 것이다. 예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은 뒤 그녀는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 인간의 머리털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편이다. 가장 주목되는 머리털의 예는 나지르인의 머리털, 그리고 나지르인으로 표현된 주님자신의 머리털이다. 나지르인으로서 삼손의 초인간적인 강함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관관이 구속자로서의 주님에 관한 예징이라고 생각해보면 때 일관된 종교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삼손의 머리털은 주님이 입으신 자연적 인성을 상징하였다. 신성의 권능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연계으로 내려다 놓는 매체가 자연적 인성이다. 이는 또 다른 형체로도 표현 될 수 있다. 주님은 말씀으로서, 또는 신성한 진리 자체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영원으로부터의 말씀 또는 첫 번째 원리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셨던 그분이 최말단에서 말씀 또는 신성한 진리가 되셨다. 그 이유가 신성한 진리가 최말단에 있을 때 충만 되고 권능이 있다. 주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세상에서 입으신 것, 즉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나지르인, 특별히

삼손의 머리털로 예징되어졌다. 주님의 모습을 파트모스에 있는 요한이 보았을 때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었는데, 이것은 머리털에 관한 신성한 의미의 결말이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께 관계되는 머리털의 의미일진대 인간에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하다. 머리털이 말해지는 많은 예증에서도 현 주제와 관계되는 한 가지 독특한 성향이 있다. 계시록 9장을 보면, 요한은 이상하게 합성된 생물이 끝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전갈의 꼬리, 사자의 이빨, 사람의 얼굴과 여인의 머리털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외모와 가장 파괴적인 품질이 하나된 종교적 원리들을 상징한 것이다. 사자의 이빨과 전갈의 꼬리는 사람의 총명과 여인의 애정이라는 외관으로 유혹해낸 이들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것과 마리아의 머리털의 용도와 목적은 그 얼마나 다른지! 그녀는 그녀의 가장 순수하고 애정어린 사랑이라는 귀중한 향유로 씻은 그분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 주님의 머리털이 최말단에 있는 그분의 지혜이듯, 마리아의 머리털은 최말단에 있는 그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권능과 아름다움, 영광에 있다. 참된 사랑이라면 지혜 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데, 이것이 그녀의 머리털의 의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복음서자는 기름을 붓는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집은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찼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기름붓기 위해 사용된 기름은 향료와 섞는 게 일반적이었다. 향료는 모세의 법으로 많은 경우에서 요구되었다. 기름이 사랑을 상징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냄새를 주도록 기름과 섞는 향료는 사랑과 혼합되어 사랑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냄새 자체는 지혜를 수단으로 사랑을 지각하는 것을 표현한다. 의지를 수단으로 선을 지각하는 것과 이해성을 수단으로 진리를 지각하는 것은 마치 냄새가 감각에 영향을 끼치고 색깔이 시각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다. 들판의 꽃들은 이런 두 가지가 병합되어 다양한 향기와 색조를 우리에게 던진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그 향기는 넘치게 풍부했는바, 온 집안이 그 냄새로 가득 찼다. 사랑이 순수한 심정으로부터 오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성한 자비와 선함에 깊은 감사로 가득 채울 때 온 마음은 사랑의 냄새로 가득 채워진다.

4-6.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그녀의 귀한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리옷 사람 유다가 ‘ 이 향유를 팔았다면 삼백데나리온은 받았을 것



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 있듯 유다의 품성은 마리아의 품성과는 놀랄만하게 대비된다. 유다는 긴 머리털과 귀중한 향유로 표현된 마리아의 겸허와 사랑에 전혀 동감되지 않은 채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물을 드리면 낭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의 불평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가치 있는 헌신적인 애정에 타락된 마음이 얼버무려져 얼마나 야비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유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쓸데없는 짓으로 간주해 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진열하도록 고안된 듯 보여진다. 그는 모든 악의 뿌리인 탐욕(avarice)이 인격화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의 말은 이보다 더 치장된 어떤 것의 형상을 우리 관점이 붙잡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는 타락된 우리 본성 속의 가장 낮고 가장 막돼먹은 부분, 즉 우리 이기심의 가장 깊은 바탕을 형성하는 육적인 원리에 관한 예징이다. 이것은 새로워진 내적 인간의 목적과 활동 자체에 언제나 반대한다. 이런 반대는 더 높고 더 순수한 내적 애정에 더욱 고집 세계 반대한다. 인간의 타락된 이기심의 두겹된 본성이 두 단어, 가리옷 사람 유다에서 암시되고 있는데 두 이름은 악과 거짓 같은 품질을 표현하고 있다. 이 이름의 암시에 주님을 배반할 자라는 말이 첨가될 때 우리를 더 가르치는바, 그것은 주님은 그분의 적들의 수중에 넘기는 수단인 인간 본성의 가장 낮은 원리라는 것이다. 또한 유다가 그분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 불리우고 있다. 열 둘은 인간 본성의 모든 원리, 뿐만 아니라 교회 속의 모든 원리들을 표현하나 유다는 이 원리 중 하나가 뒤집혀 있는 것을 표현한다. 어린 아이는 진리에 관한 납득이 온통 물질적이거나 그의 순진함이 그의 물질적인 진리의 납득에 어떤 믿음을 주고, 그것을 위해 애정을 준다. 그러나 순진함 대신 죄 지음이 있고, 죄짓는 것 외에 교활함까지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배반자라는 것으로 묘사된 품성을 생산한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하는 유다는 마치 그가 이타애가 동기가 되어 내 뱉어진 말인 듯 보인다. 그는 왜 향유를 삼백데나리온을 받고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돈은 지식을 상징한다. 돈은 부유함이 아니고 지식은 지혜가 아니나 그것들을 획득하는 수단이어서 마치 그것이라도 되는

듯 표현된다. 향유를 판다는 것, 삼백데니리온이라는 돈은 지식을 위해서라면 지혜와 선함까지도 기꺼이 내놓아 교환하겠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참으로 선한 일이다. 그의 말로부터 미루어보아 그가 가지고 다닌 자루 속의 내용물은 곤궁한 자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려 했던 것인 듯 보인다. 더구나 그는 스승을 섬기는 애정보다 가난한 자를 향한 애정이 그의 제안에는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뒤 구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주님께 속한 것을 두고 제 자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적인 도둑이다. 이것이 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으로 널리 표현되었다. 이런 유다의 도둑 근성은 그의 위선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그는 주님께 소속되고 있어야 마땅한 것을 갈취하기를 원했다. 더구나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는 주님도, 가난한 자도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뱃속만 배불리는 것만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게 유다가 표현한 영적 품성이다. 영적인 유다는 제 잇속만을 챙기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것, 소유한 전부가 종교적 지식뿐인 것, 기억 안에만 종교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유다가 주님의 돈을 자기 돈자루에 담아 운반하면서 스승의 영예 대신 제 영예와 사욕만을 위해 도둑같이 꺼내 쓴 모습과 같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가 부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유다에게 돈 자루를 맡겼다는 것이다. 그가 열 두 제자 중 돈을 맡은 영적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7. 아마 향유를 팔아야 한다고 말한 유다의 청원이 실지로도 그의 진실이었다 가정한다 해도 그의 제안이 옳다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례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 주님의 장례는 영적으로 그분의 영화하심을 뜻한다. 그 이유가 어머니쪽 인성이 매장되어 완전히 중단되었을 때 아버지쪽 인성이 온전히 입혀져 주님의 부활된 몸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그분을 완성하는 기름부음이었다. 신성한 사랑은 임신된 때부터 그분 위에 쏟아져 부워 있었다. 그러나 인성이 형체로나 본질로나 신성한 사랑 자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충만 되게 기름부어 졌다. 본문의

기름부음은 이미 말했듯이, 인간적인 매체를 수단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교회를 표현하고 예수의 몸에 그녀가 기름붓는 것도 교회가 주님의 인성 속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외부적으로 행동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가 행한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향의 신성한 작용이 상호적으로 일한다는 것, 신성한 인성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로 인식하는 것, 이를 통해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시고 최고 높은 선이신 주님과 결합을 이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8. 주님께서 또 다른 근거에서 마리아의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 영적인 재산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인바, 이것을 적게 소유한 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모든 이가 진리에 무지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많은 이들이 그런 상태에서 성장하듯,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런 가난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가진다. 그러나 그들이 뜻한다면 그들은 그런 것들을 유익한 쪽으로도 모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가난, 위의 사항보다 더 항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가난이 있다. 인간이라는 자질(faculty)들은 영적 사항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지식에 가난하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언제나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항을 인정해서 그것들의 결핍을 잘 보완해 가면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영적 자질을 갖추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부유함에는 지상의 일시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 있듯이 가난한데 부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부유한데도 가난한 자도 있다. 부자인데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나는 네가 겪는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계시록2:9). 가난한데 부유한 자란 종교적 지식이 풍부하나 종교적 덕행이 빈약한 자들, 즉 스스로 부자라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별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다 (계시록3:17). 우리 모두는 많은 적든 위와 같은 가난의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거하거나 완화되도록 애써 갈런지 모른다. 본문의 이 구절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더 특별히 암시하는 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그의 제자들과 헤어진다는 것, 그 때 그들은 슬픔을 가질 거라는 것, 이는 모든 기독 제자들에게 흔히 있는 슬픈 상태, 즉 신랑이 떠날 때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

분은 떠나시나 위로자로서 되돌아오시기 위해 떠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련의 상태가 보여주는 바,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더 바람직할 수 있고 더 의무감을 느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께 우리의 가장 좋은 애정이라는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 즉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을 그분께 충성스런 종, 복된 자녀로 보존하는 것이다.

9. 우리는 앞 장 19절에서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있었다는 것, 그들 중 일부는 라자로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일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여기서 다시, “예수가 베다니아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 들었다. 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유대의 백성들이란 선한 의도에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 영적 생명의 저자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다. 죽은 자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진정 회개한 죄인이라면 자기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육체의 눈이 보듯 영혼의 눈이 볼 수 있어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상태를 바라 본다면 그 얼마나 놀라움과 귀감이 있을 것인지! 어쨌든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라자로에게 베푼 구원하는 작전의 주체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 역시 자신 안에서 그런 것이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으리라.

10,11. 이 구절에서는 공생애의 앞 역사에서도 자주 있었던 상황의 반복이 있다. 악이 선에 반대하여 일어서는 것이다. “이것을 본 대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이 지금 생명의 선물을 수여 받은 라자로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다. 악한 자가 악에 반대되는 원리들을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은 종종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꾀한다. 즉 원리를 부정하는 것, 이는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그 원리를 뒤집는 것, 이는 그 원리의 근원

을 악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실제의 결과에서는 그 원리에 폭력을 휘두른다. 이와 반대로, 마음이 호의적인 사람들은 원리의 결과가 선한 것을 보고 진리를 호의적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가 선이 진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그로부터 진리의 저자까지 인정하기 때문이다. 마치 많은 유대인들이 라자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과 같다. 사제들의 눈에 거슬린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떠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들은 사제들의 권위를 멀리하고 사람의 아들의 권위 아래로 왔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오류를 버리고 선을 위해 악을 버린 것이다.

**12.13.** 죽은 라자로를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잠깐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제들의 영향력 행사를 압도했다. “명절을 지내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는 기록은 네 복음서 모두에 있다. 물론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요한의 경우 이 사건은 라자로의 집에서 만찬을 가진 다음 날 발생되었다는 것과 연관지어 놓고 있다. 새로운 상태는 이전의 상태 뒤를 이어오는 상태이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라자로의 죽음과 일어남에 뒤이어 오고 있다. 라자로와 더불어 가지신 만찬 때보다 더 거룩한 만찬이 신실한 이들을 위해 이제 섭리되어 사람의 아들의 피와 살을 먹게 해 주신다. 과일절이 예루살렘에서 기념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 주님의 모든 과정이 끝맺어 가는 과정에 진입되어 그분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심은 그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심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란 유대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고 과거 예언자들에 의해 예견해 두신 교회를 말한다. 우리 주님 스스로 건설하시는 교회, 진정한 시온, 어떤 모형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이다. 그분을 환영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 역시 표현적 형태 외에 더 다른 것은 없다.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멤버가 아니다. 단지 이들을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되는 모습으로 장차 신성한 인성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신성한 진리라는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인들을 그려 놓으신 것이다. 사람들이 꺾어 둔 종려나무 가지는 영적 교회로 구별되는 상징, 교인들이 지각하는 영적진리에 대한 상징물이다. 종려나무는 영적 진리의 선에 대한 상징물이다. 선과 진리를 사랑함은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호성

과 호산나 라는 노래로 표현된 것이다. 군중이 예수를 맞이하여 인사한 말 호산나란 믿음을 수단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 교회에 그분이 들어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진정으로 인정함과 기쁨이 튀어나오는 근원지인 각자의 심정과 이해성에 그분이 들어가시어 이루어진 각자 속의 진정한 교회를 표현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말하고,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된다는 뜻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로 의미되고 있다. 사실 주님을 찬양한 본문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인데도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단지 성막의 축제에 종려나무 가지들 들고 갈 때 늘 불렀던 노래를 반복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시편 118편 25-26절, “주소서, 야훼여, 구원을 주소서. 주소서, 야훼여, 승리를 주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는 거룩한 글로부터 노래했을 뿐이다. 시편의 이 구절 첫 부분의 단어가 호산나로서 이는 주님의 구원을 표현한다.

**14,15.**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은 신성하게 예보된 주제였었다.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였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심은 겸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습은 왕권적 권위를 표현한다. 그 이유는 왕이 나귀를 타는 게 그 곳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예보되고 묘사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심이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바, 이제 그분은 그분이 지니셨던 자연적 인간성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종속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위와 같은 하급의 원리들은 이제부터 인간의 심정과 지성에 그를 구원해 줄 능력을 실어다 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 따라서 한 개인이든, 전체라는 교회 측면에서 이든 모든 사람의 수단이 된다는 장엄한 의미가 담겨 있다.

**16.**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화하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에 의해 행해진 사항들, 예수께 발생한 사실들이 지닌 의미심장한 품성에 무지해 있었다는 위 구절의 한 가지 증언만으로도 자기들 주변에서 발생한 일들의 진정한 측면을 얼마나 적게 파악했었는지 가늠하게 해준다. 그러나 위 구절 같은 사실은 진정한 제자라고 자부하는 모든 이에게도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분이 제자 속에서 이든 우리 속에서 이든 영화되실 때까지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 우리 스스로 그분을 대했었던 사항들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다. 엄밀히 구분지어보면, 우리가 행하는 종교 측면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나 의미를 일할 때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주님께는 순종은 먼저 의무감에서 있기 마련이고 그 후에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추론해봄으로부터의 순종으로 이어진다. 위 구절 같은 제자들에 관한 기록은 아마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젊은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종교에 관련되는 단순한 진리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미덕과 경건을 습관으로 몸이 배도록 길러 준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한 단계 작업이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적게 배우고 행한다 해도 아예 가르쳐지지 않는다거나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구절의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왜 배워야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의 성숙된 지성과 순수한 심정 상태 속에서 영화될 때,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7,18.**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침묵으로 건너 뛴 대목을 서술하고 있다.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군중이 예수께 이목을 집중하고 경의를 표한 것은 라자로를 일으킨 기적 때문이었다. 군중은 두 부류였다. 하나는 기적을 본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적에 관해 들었던 자들이다. 주님의 기적을 본 이들은 그 기적을 지적으로 지각한 것이고, 그것을 들은 이들은 그것을 실제에서 지각한 이들도. 봄은 이해성을 서술하고 들음은 의지를 서술한다. 그러므로 기적을 본 이들이 그 일을 증언했고 그것을 들은 이들은 예수를 만나러 왔던 것이다. 구

세주의 일을 증언하는 자질은 우리의 지적 자질이고 영원한 생명의 저자로서 그분을 만나러 달려가는 자질은 실제적 자질(moral faculty)이다. 이를 한 개인에 국한해보면, 이들은 마음의 두 행동들이고 서로간에 연결을 가지고 있다. 라자로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지적으로만 확신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듯이 위의 설명을 이해해서는 안된다. 영적으로 이해해 볼 때 한 개인의 경험 안에서 보여지고 실감될 때 구별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즉 우리의 이해성은 주님의 일에 관한 기록을 낳고 우리의 의지는 그 증언을 수단으로 그것들을 실제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19. 군중이 예수를 열렬히 환호한 태도를 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치욕을 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이 표현에는 대중의 움직임을 제지하려했던 그들의 노력이 허사였다는 것, 개혁자를 죽이는 길외에는 혁신의 물결이 더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들어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의해 표현된 느낌과 확신은 마치 자연적 인간에 스스로 강요할 때 있는 것과 같다. 즉 올바른 원인의 진행에 반대하는 노력의 무익하고 소용없는 본성이 노골화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그들의 말은 비합리적 수단으로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참된 인간의 진보를 저지하려했던 이들이 내뱉는 어쩔 수 없는 승언이다.

20,21.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따라간 군중외에,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래아 지방 벳싸이다에서 온 필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섬들은 이렇게 언급되었을 정도로 저명했다. “섬들이 내 율법을 기다릴 것이다” (이사야42:4).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고 내 팔에 그들의 신뢰를 두리라” (51:5).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났는데 새로운 계시도 그리스의 다도해 중의 하나인 파트모스섬에서 요한에게 주어졌다. 이는 교회의 끝과 관련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더불어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회복된 교회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임도 의미하고 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해도 본문의 그리스 사람들은 명절에 예배하려고



올라온 사람들 틈에 있었다. 그들이 직접 주님께 나아오지는 않으나 제자들을 통해 그분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방인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은 교회에 소속된 이들을 통해 주님께 온다. 바꿔 말해보면 이방인 같은 선함을 지닌 이들은 주님과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교회의 진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직능을 발휘해주리라 기대한 제자가 필립이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필립에 관한 여러 기록을 참조하면 그는 예수를 알고 있으나 더 잘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표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립은 1장에서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말해진 베싸이다 출신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또한 필립은 베드로에 이어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는 나타나엘에게,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는 나자렛의 예수이오” 라고 말했고, 나타나엘이 “나자렛에서 무슨 신기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묻자, “와서 보라”고 응수했었다. 참으로 우리가 필립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은 예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에 관한 자료와 항상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립은 주님께 관련되는 진리에 관한 지적인 납득(intellectual apprehension)을 표현한다. 열 두 명이 열거되는 마태복음 10장을 살필 때 이미 언급했듯, 총 열 두 명은 네 명씩 짝지어 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첫 그룹의 첫째는 베드로이고 둘째 그룹의 첫째는 필립보였다. 그러므로 필립보는 두 번째의 베드로로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즉 그는 마음의 보다 낮은 수준을 이끄는 총명, 그리고 원리의 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지적인 요소들이다. 이와 같은 필립에 관한 의미들이야말로 주님과 그리스 이방인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일 가는 고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의 조건에 있는 그들은 예수를 뵈고 싶을 경우 그들은 필립이 표현한 총명을 통해 그분에게 접근해서 나아가야 한다. 14장에서 살필 때 알겠지만, 필립으로 표현된 예수를 보는 총명은 예수를 아버지와 하나되어 계신 분으로 보지 못하나 그 총명이 참된 빛에 있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승인할 수 있다.

22. 주님을 소개할 때 필립과 연계되어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리스 사람들이 필립에게 간청했을 때 “필립은 안드레아에게 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아와 필립이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필립과 안드레아,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경우와 비슷한데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이해성에 있는 믿음과 의지에 있는 믿음의

차이, 또는 믿음을 수단으로 획득하는 진리, 그리고 선의 차이를 예징한다. 필립을 통해 예수께 접근하려는 것은 지적인 믿음에 의해, 또는 진리만으로 그분께 오고저 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가르치는바는, 지적측면의 믿음뿐만 아니라 의지측면의 믿음, 진리만이 아닌 진리로부터의 선이 예수와 교체하는데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립은 안드레아에게 와서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이 더 가르치는바, 참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과 연결되는데는 의지와 이해성 모두에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드레아와 필립이 예수께 와서 말한다. 지금 안드레아가 먼저 놓였는바, 이는 믿음 속의 선이 그 첫 자리에 있고, 믿음의 진리는 둘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신앙 있는 그리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영화되어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 글자 또는 역사적 의미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런 이방인 또는 낯선 사람에게 그분이 고난받고 영화하신다는 내용의 말을 한다는 것이 특이한 듯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이라는 외국인은 그들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 또는 기독교회가 일으켜질 것을 표현했다.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심은 주님의 영화하심에 부수되는 결과였다. 그 이유가 그분의 신비적인 몸은 영화하신 몸의 모형에 따라 틀이 짜지기 때문이다. “때가 온다”, “오고 있는 중”이라는 문구는 주님에 의해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는 시간상으로 가까워지고 있음, 그리고 그 사건은 확실히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주님께서 영화하시는 때가 오고 있음은 주님을 세상에 오시게 한 위대한 일의 완성의 저녁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경이스러운 정도로 자비롭게 자신을 낮추신 것, 그분의 창조물의 구속을 위해 입으신 주님의 인성이 이제 그 겸손의 상태를 통과해 초연적인 영광의 상태로 건너가고 있다.

24. 사람의 아들이 영화하실 필요성, 그 본성, 그 복된 결과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다.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신성한 선포는 스페텐보리의 저술에서 대단히 알기 쉽고, 대단히 아름다우게, 동시에 아주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우리의 견해를 떠나 그의 저술 그대로 정리해 본다. 인간의 경우

의식적 삶 또는 인간성이 시작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합리적 원리의 영화하심, 그리고 주님에서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파생되는 영혼, 즉 신성한 인성 아래 직접 있었던 주님의 합리적 원리의 영화하심에 관해 취급하고 있다. 이 설명이 주어 진 그의 저술 속의 말씀의 부분은 이스마엘과 이사악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에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자연적 합리성, 즉 건전한 마음을 지닌 모든 자연적 인간이 획득하는 합리성을 표현하고, 이사악은 영적인 합리성, 거듭나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합리성을 표현한다. 창세기 21장 10절,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달라”는 대목은 단지 인간적일 뿐인 합리적 원리에 속하는 것들을 근절해버림을 의미 한다고 서술한 후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첫 번째의 합리적 원리가 종료 되고, 신성에 의해 계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히 설명될 것이다. 거듭나지는 모든 사람 각각은 두 개의 합리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또 하나는 거듭난 후에 가지게 된다. 첫 번째 것, 즉 거듭나기 전의 것은 감각의 경험에 의해, 시민생활과 도덕생활에 있는 것들을 되새겨 봄으로 해서, 과학에 의해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추출된 추론에 의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또는 믿음 속의 교리로부터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수단으로 획득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물질적인 바 육적인 기억으로 생각하는 한계를 거의 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물질적 차원인바, 내적 시야에서 오는 것들이라고는 오로지 비교 또는 유추에 의해 생산된 겉보기에 비슷한 것 뿐이다. 이와 같은 것이 첫 번째 합리적 원리 또는 거듭나기 전에 존재하는 원리의 본성이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의 합리적 원리는 영적 진리와 선에 이끌리는 마음 (affection)을 수단으로 주님의 모양을 형성한다. 이 애정은 첫 번째 합리적 원리 속의 진리 안에 주님의 의해 기적적으로 이식되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애정과 일치되고 그 애정을 선호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쓸모 없는 것들로 분류되는 동안 활기를 띠운다. 그래서 영적 선함과 진리가 마치 한 묶음같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알아챌 수 없는 것들, 즉 생명을 받아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들은 그 영역에서 거절되는데 동시에 영적 선함과 진리는 그 애정의 생명과 함께 증가해간다. 이런 것이 두 번째 합리적 원리의 본성이다. 이런 주제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도 예증될 수 있다. 첫 번째 원리는 아직 익지 않은 처음의 열매 같은데, 이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저장될 때까지 계속 익어간다. 그러나 씨가 저장되는 때가 차면 그 열매는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그 상태는 충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합리적 원리, 인간이 거듭날 때 주님에 의해 주어지는데, 마치 옥토에 떨어진 열매 같아서 씨를 싸고 있는 열매 부분은 썩고, 씨 자체는 그 깊은 부분으로부터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면서 새로운 나무를 성장하여 결국 새로운 열매가 열리게 한다. 이후 그 나무가 받았던 선과 진리의 애정에 따라 정원도 되고 낙원도 형성하는 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 예를 하나 더 들쳐보자. 시작에서 첫 번째 합리적 원리는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외의 다른 사랑은 모른다. 설사 천국적 사랑이 이런 사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훈육받는다 해도 두 가지 위의 사랑은 그 가르침을 이해 못한다. 그리고 후에 위 두사랑이 선을 행할 경우에는 자기 공적을 칭송받는 것, 또는 기독인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 혹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획득하는 것 외에 다른 즐거움을 그런 행동으로부터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합리적 원리, 즉 거듭남을 수단으로 주님께에서 선물로 받는 원리는 선함과 진리 자체에 있는 어떤 기쁨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아를 위해서가 아닌 선함과 진리의 기쁨에 감화되어간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부터 행동하도록 인도되면서 그 원리는 자기의 공적 자랑을 거절하고 급기야 공적 자랑이 악독한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까지 이른다. 새로운 합리적 원리에서 이 기쁨은 행복이 되고 그것의 천국이다. 이상 살핀 것은 어떤 경우가 거듭나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각 합리적 원리인지 나타나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되어진다. 비록 인간이 거듭난다 해도, 일반적, 특수적인 모든 것은 첫 번째 합리적 원리에 속한 채 그 사람과 더불어 남아 있고 오로지 다른 합리적 원리로부터 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주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더구나 주님 자신의 경우는 이 첫 번째 합리적 원리를 철저히 종료시키시어 이 원리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하셨다. 그 이유가 오로지 인간적인 것과 신성은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고 각각의 본질에서도 여호와이기만 하셨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화하심을 기술하시기 위해 고용한 비유(similitude)는 동등하게 그분의 부활도 묘사하고 있다. 주님께서 고용하셨던 모든 비유들이 상응이듯 이 구

절의 비유(comparison)도 영화하심과 부활 모두를 정확히 예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주제에서 파생되는 항목까지 더 넓혀 세세하게 살필 의도는 없다. 그러나 자연적 원리의 영화됨을 관장하는 질서의 법칙은 합리적 원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은 주목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영화됨(glorification)은 모든 그것의 등차에서 벗는 과정과 입는 과정에 의해 결과되어졌다. 만일 우리가 씨를 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유추해보려 한다면 이런 말도 모험적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그분의 온 몸을 완전히 일으키신 것에서 그 몸은 무덤에 놓였던 동일한 몸으로부터 일어나신 몸이 있어야 한다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자연적인 몸은 씨를 뿌리듯 뿌리워졌고 이 자연적인 몸은 신성한 몸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 자연적 몸이 뿌려졌고 신성한 몸이 일으켜 진 것이다. 이런 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필 필요는 없다. 이 문단의 명료한 해설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운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신성한 씨는 “그 자체를 펼침”으로 신성한 인성이 되셨고, 물질적 인성은 마치 씨를 저장해주었던 과일같이 그 안에 저장된 것이 명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씨의 발달과 완전해짐에는 한 가지 필수조건이 있다. 신성한 씨가 살 수 있기 위해 물질적 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영화하심을 완성한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었던지 그 과정은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시는 데까지 점진적이고 연속적이었다. 신성이 육체적으로 충만 되어 거하시신 인성은 신성한 인성(Divine Humanity), 모든 인간이 완전해지는데 대한 근원이요 모형이다.

25. 영화하심의 본성과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신성한 그분의 일의 형상으로서 그들의 거듭남의 본성과 방법도 이제 가르치신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방금 위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말하셨던 것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미워해야 하는 것은 영적 생명에 반대되는 자연적 생명, 천국적인 것과 반대되는 지상적인 것이다. 목숨(life)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는 영혼(soul)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는 상속받은 목숨, 유전적인 생명을 뜻하고, 우리가 거듭남을 수단으로 받게 되는 영적 생명에 반대된다. 본문의 목숨이란 단어는 존재 차원에서 주님이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이해 할 수

없다. 그이유가 어느 누구에게도 목숨을 미워하라고 요구되지 않고, 일시적일뿐인 인간 존재를 미워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확고히 붙잡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불멸(immortality)은 무조건적, 절대적(unconditional)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를 통치하는 사랑(ruling love)이고, 이 사랑은 그의 모든 생각과 심정의 의도 안으로, 그리고 생명의 모든 말과 행동 안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들어간다. 자아를 사랑함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인간이 생명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생명이다. 잃어지는 생명은 구원되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일찍이 인간은 그의 생명이고 그의 참 자아인 통치하는 사랑을 한 가지밖에는 가지지 못했었지만, 그가 부패된 그의 생명을 미워할 때, 주님께서는 본성이 천국적인 통치하는 사랑, 새 생명을 그에게 나누어주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붙은 즉,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한 사람이 생명을 영원히 간직한다는 것이다. 일은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하고 그 보상은 저 세상에서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의 자연적 마음과 영적마음에서 발견되어진다. 이 세상에서 악한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을 미워하고 금하는 것, 마치 그것이 자연적 마음 안에 존재하는바, 그것을 생각과 행동 안에서 극복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사랑함이 육신 안에서 죽음에 놓일 때 선을 사랑함은 영혼(spirit)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26. 자기희생(self-sacrifice)이라는 의무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본문의 섬김(serve)은 엄격히 말하면 보살핌(minister)이 더 나을지 모른다. 보살피는 자는 선으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자, 하인(servant)은 진리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다. 전자는 사랑으로부터 섬기고 후자는 의무로부터 섬긴다. 우리는 이웃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minister). 그 이유가 인간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선이 우리가 보살피야(minister)하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웃의 진짜 선에 도움이 될 때가 아니면 우리는 이웃에 진짜 선(real good)을 결코 행할 수 없다. 이웃의 선한 원리가 강건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웃의 진

짜 선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선한 원리는 인간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 원리를 보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도 보살핀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 그분의 진리로 자기들의 선을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행함이 총명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슬기롭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게 된다.” 진리는 선을 영화(정화, spiritualize)한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선한 원리는 자연적이다. 신성한 진리는 이 원리가 영적인 대상, 영원한 목적으로 방향을 잡게 한다. 진리가 인도하는 쪽으로 선한 원리가 따라 갈 때 그 원리는 진리와 하나되고 내적 인간의 천국 안에서 함께 거주한다. 그러면 이런 신성한 약속,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 실 것이다”는 약속이 실현된다. 자연적 선이 진리에 의해 순수해지고 거룩해질 때, 그리고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신성한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높은 기쁨과 더 순수한 환희로 채워진다.

27. 주님께서서는 주위에 둘러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화하심을 말하시는데서 그분 자신 쪽인 내향으로 초점을 돌리신다. 이미 그분 자신 안에서는 마지막 무서운 시련이 시작되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최정점을 이루는 시험이 이미 개시되었다. 영혼의 괴로움이 육체의 아픔에 선행되었다. 어둠의 권세는 그분의 바깥쪽 인간을 습격해서 그 생명을 자르려 하기 전, 내적 인간에 침입해서 내적 생명을 압박했다. 신성한 영혼은 고통받을 수 없는바 고통받았던 주님의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신성한 영혼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분께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되었던 인간 영혼, 주님의 인간적 본성에 의한 이해성, 인간의 원리가 시작되는 가장 깊은 것인 합리적 원리까지 포함되는 신성 아래 주님의 인간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여느 인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의 원리는 사람의 아들이 견디었던 그 고난을 견뎌 낼 수 없다. 그분 같은 시험의 슬픔에 종속 당해 질 수 있으려면 그 인간은 반드시 신성을 받았어야 한다. 순수한 신성일뿐인 경우도, 오로지 인간적 일뿐인 경우도 이 구절의 주님이 표현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신성이 거주한 인성만이 주님이 체험하셨던 것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분의 환난에서 예수께

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라고 외치신다. 우리 주님의 말들은 그분의 마음 안에서 지나갔던 것, 그분의 체험에서 발생했던 것, 그로부터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상응하는 상태에 속하는 것에 관한 계시였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머니쪽과 아버지쪽의 인성으로부터 느끼셨던 것을 말하고 있다. 먼저 어머니쪽으로부터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 다음 아버지쪽으로부터 “그러나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육과 영의 싸움에 시련은 언제나 있다. 육은 그것의 생명이 내려 놓이는 실지의 상태에 오그라들어 그 시간을 비켜가려 한다. 그러나 천국적 삶의 참된 질서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바로 잡으려는 의지도 언제나 준비태세에 있다. 양자택일이 그 자체 드러낸바,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이었다. 자연적 수준의 상태가 그것의 경향성과 약함을 보여주는 시련에서 조차 영적 수준의 상태는 자연적 수준의 상태가 무서워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시련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한다. 시련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28. 이런 확신의 권능 아래 주님은 지금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신다. 통상적 의미로 말해 본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참는다는 것이다. 마치 고통받고 순종하는 인간의 가장 높은 동기가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간구가 영광되심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 이유가 신성한 지혜가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 다시 말해 신성한 인성은 본질적인 신성이 표현된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름은 그 이름을 있게 한 사람의 특질 또는 품성을 표현한다. 그래서 인성은 신성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명백히 나타낸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에 보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기도했을 때, 그분은 신성이 인성을 영광되게 하도록, 또는 인성을 신성으로 만들도록,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는 간구하심과 응답하심을 놓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각각의 인물의 나타남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이것들은 자연이라는 범주, 최소한 유한한 존재 안에서 표현



될 수 있는 나타남, 외관(appearance)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역이어야 신성한 것들은 인간의 납득력에 잘 숙박되는바 그런 외관 아래 보여지고 있다. 무한한 것들은 그것이 유한한 생각에 상응될 때 유한한 마음에 의해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신성한 본성에서 구분되는 것들은 분리된 개성의 외관을 옷입는다. 그러나 이성(reason)은 이런 외관들을 고쳐 생각할 수 있다. 곰곰이 생각을 잘 정리해보는 사람이라면, 신성의 특질, 본질적 원리들은 다를 수 없다는 것, 지상에 계실 때 주님에 의해 표현된 본문의 경우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인물로 구분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신성한 인물을 상상해 보겠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구분되는 의식 세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상상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성한 통일성에 관한 제 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주님이 영화하시기 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위와 같은 구분은 있었다. 그 이유가 인성은 신성의 의식과 구분된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 의식 세계로부터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권능을 주셨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의 기도에 따른 응답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있다. “나는 그것들 모두를 영화되게 했고 다시 그것을 영화되게 할 것이다.” 인성의 영화하심은 다른 모든 신성한 일같이 신성한 행동들, 불연속적인 행동들, 각 행동들 자체가 각각 계속됨에 의해 결과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그것은 자연적, 영적, 천적인 수준이다. 그분의 영화하심이 인간의 거듭남에 응답하는 바, 주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위 세 과정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 “나는 그것 둘 모두를 영화되게 했고 다시 그것을 영화되게 하리라”는 말씀과 관련되고 있다. 이 구절의 경우 “둘 모두, both”, 그리고 “다시”라는 단어의 첨가로 우리 눈에 띄도록 세겟의 영화하심이 표현되고 있다.

**29,30.** 낭랑한 소리로 주님께 주어졌는데도 군중은 뚜렷한 어떤 의미도 갖지 않고 있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는 그분이 위로 받고 격려 받으려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 음성이 비록 그들에게 명료한 지각을 전달 할 수 없

다 해도 어쨌든 백성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믿음은 지식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진리에 관한 지식은 진리에 관한 믿음에 선행한다. 우리로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과 우리로 진리를 믿게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믿음을 주는 것은 지성만에 속한 상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심정 속에 있다. 이 문단에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화되심에 관련되는 진리, 더불어 영화하심의 열매요 형상인 그들의 거듭남에 관계되는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그들이 총명에서 들었던 것을 믿음 안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심정이 영향을 받도록 주어졌다. 이 주제를 우리라는 각 개인에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은 더 명확하고 쓸모 있게 지각된다. 신성한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올 때 더 울려 퍼지나, 그 소리가 커질 때 그 소리를 감지함은 더 불명확해진다. 천국의 천사들 사이에서 신성한 진리는 침묵의 소리이나 선명하고, 지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진리는 시끄러워울 정도로 큰 소리이지만 희미하다. 천국에서 빛과 평화였던 신성한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나이산의 천둥으로 말해졌다. 내적 인간 안에서 신성한 진리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명료하다. 그러나 그 진리가 외적 인간에게로 내려오면 그 소리는 대단히 커지지만 희미하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둘러서 있던 군중은 외적 인간의 애정과 생각들을 표현한 반면 주님은 내적 인간을 표현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천국의 음성이 명백해 있었으나 군중에게는 천둥이 울린 듯 했다. 천국의 소리는 듣는 자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그분께 말했다고 웅성거렸다. 성경에서 천둥은 의지에 영향을 주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한편 번개는 이해성에 영향을 주는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 이 구절의 경우 군중들은 천둥소리와 천사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전자는 신성한 진리가 의지에 만드는 감명을 표현한 것이고, 후자는 이해성에 만드는 감명이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천둥소리로 인간에게 오는 신성한 진리는 그것을 듣는 이들에 관계되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영계에서 천둥소리는 심판이 다가올 때의 소리이다. 자연계의 천둥은 전기가 과잉 충전된 대기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천둥의 폭발은 액체(기체)를 방산 시키고 대기를 맑게 해서 상큼한 공기로 바뀌게 한다. 심판의 용도도 이와 같다. 심판은 축적된 악과 거짓된 영향력을 제거하고, 도덕적, 영적 분위기를 깨끗하게 한다.

31.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신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왕자가 쫓겨날 것이다.” 누가복음(10:18)의 경우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심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려 하는 심판이다. 천둥 구름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서 폭발되었다. “그분께서는 번개를 보내시고 그들을 흘트셨다” (시편144: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첨가하신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9장39절). 모든 심판들의 목적은 조정(adjustment), 즉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 선한 자는 그들의 자질을 선용할 힘을 회복하고, 악한 자는 그들의 자질을 남용할 힘을 박탈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육으로 계실 때 어떻게 명백히 드러났고, 어떻게 이런 심판이 있어질까? 이것은 영계에서 심판이 수행됨으로 결과되었다. 악이 자연계에서 증가되어 우세해질 때 영계에 있는 악령도 증가하고 우세를 떨친다. 이러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equilibrium)이 혼란스러워지고, 이와 함께 땅 위 선과 악의 균형도 방해된다. 영계에서 지옥의 힘이 천국의 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 이로부터 자연계에서 악이 선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이런 종류의 일반적 심판은 모든 처방의 끝에서 거행되었다. 이스라엘 교회 처방의 말기에 거행된 심판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하신 심판이다.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과 주님의 인성을 영화하시는 것은 동시에 있는 작전인바 주님께서 이 둘을 함께 연결하시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하실 때, 장소 차원에서 뜻하신 게 아니라 상태 차원이다. 그 이유가 도덕적, 영적 상태란 점에서만 세상이 심판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만이 사탄이 왕 또는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악이 인간의 심정을 통치할 때 사탄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 결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사탄이 지배한다.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공정과 정의의 원리를 건설하실 때 세상이 심판되어진다. 어둠의 권세가 인간 구속과 주님의 영화하심으로 복종될 때 이 세상의 왕들이 심판되는 것이다.

32,33. 심판 후에 승강하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이 온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지상으로부터 들려진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이 들려짐은 자

연적으로 이해할 경우 주님의 십자가형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시어 말하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형은 그분의 영화하심의 수단이었다. 이 영화하심이야말로 진정 사람의 아들이 들리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게 되었다. 그분의 인성이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모든 인간의 유약함 위로, 모든 시련과 시험 위로 들리우고, 그분의 신성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끌어 내실 수 있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리인바, 주님께서 밝히 알리시는 진리, 복음서가 포함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진리들 중의 하나를 가르친다. 사람들을 그분께로 끌어내는 권능은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object)이요 씬씀이(use)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께 되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길가의 장애물을 제거하심으로, 사람들을 그분께로 끌어내는 권능을 발휘하심으로 설비되어졌다. 장애물들은 구속의 일로 제거되었고, 끌어당김(attraction)은 영화하심으로 실시되었다.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권세로부터 사람들이 그분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권세를 박탈하셨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영적 자유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심으로 주님은 회복시키는 권능을 획득하셨고 매체로서 그것을 설비해서두시고 이 설비를 통해 인간 존재를 끌어당기는 일을 하실 수 있으셨다. 그 이유가 그분의 인성이 하느님으로 인간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 놓았고, 그분과 그들 사이에 공감대를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이를 수단으로 그분의 권능은 그들을 그분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고 그분과의 결합도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입으신 인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끌어내실 수 있었다. 이를 개인 측면에서 응용해보자. 지상은 자연적 마음을 상징하고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림은 주님의 신성한 진리가 자연적 마음으로부터 영적 마음으로 승강하는 것이다. 그분의 진리가 마음의 지상적 영역으로부터 천국적 영역으로 높여질 때 그 진리는 모든 자연적 생각과 애정들, 당사자의 이름 아래 포함된 모든 것, 또는 진실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끌어낸다.

34. 주님께서 위와 같은 꼭 기억해두어야 할 놀라운 말을 하셨을 때,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런 질문에는 자연적 인간의 특성이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신다는 것,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위 위에 굳게 세우신다” 라고 직바르게 배웠다 (이사야9:7).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와 그 왕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므로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님께서 말하신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였는지도 물론 알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상에 건설하시려는 하늘나라의 본성에 관해서도, 그 나라를 건설하는 수단도,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제자들,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경청했던 열 두 명의 제자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그것을 밝히 알려 줄 때까지 군중이나 마찬가지로 어둠에 싸여 있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관념은 종교 생활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제자에게 흔한 마음의 조건의 자연적 소산이다. 진리가 알려져 있고 모든 기독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지금에서도 초기의 지각은 모든 것에서 똑같다. 그리고 거듭나는 삶이 발전되면서 자연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변화될 뿐이다. 그리스도를 받은 모든 사람 각각은 그가 받았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상태에 따라 주님을 영접하는바, 그의 상태가 바뀌면 영접된 상태도 바뀐다. 주님은 처음 우리가 그분을 받았던 그대로의 수준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육과 글자에 의거해서는 우리 안에서 죽어야만 하시고 우리로부터 떠나셔야 그분은 영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다.

35.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거짓 관념들을 직선적으로, 또는 수학 공식같은 방식으로 교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는 교훈을 주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누가 사람의 아들입니까?”하고 물어봄으로 그들의 소견을 끝마쳤다. 위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의견에 대한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빛으로서 말하신다. 사람의 아들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 말씀이 육이 되신 분,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진리가 인성으로 옷입은 것을 표현하는 이름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

도라는 인물로 그들과 더불어 가졌던 빛이었다. 이것이 들리워지게 되었던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심정 안에서 들리워지는 조건은, 빛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그 빛에서 걸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글자의 가르침에 의거 걷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영애로 올 수 없다. 글자는 언제나 우리의 안내자일 수 없다. 그렇다해도 우리는 그 가르침에 충실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걷는다면, 잠깐의 암흑기,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로부터 잠깐 숨어 계셨을 때같이 잠깐의 어둠 후에는 더 큰 광명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가진 동안 빛을 따라 걷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 위를 덮칠 것이다. 그 이유가 글자라는 베일이 찢어질 때 진리의 영적 빛에서 볼 수 있었던 이들만이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 걷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의 용도는 가는 길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몰라서 배회한다. 종교 속의 진리는 극도로 중요하다. 무지와 잘못은 모두 한탄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의 경향성은 마음을 어둠에 붙잡아 두기 때문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발을 배회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36.** 주님께서 말을 더 이으신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앞 절에서 사람들은 빛을 가진 동안에 걸으라고 권면받았는데 이 구절에서는 빛을 믿으라고 권고하시고 있다. 참된 믿음은 선한 일로 명백히 나타나야 할뿐 아니라 순종 위에 건설되어진다. 빛 가운데 걸음으로 우리는 빛을 믿게 된다. 빛을 믿고 빛 가운데 걸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자녀이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거둬나는 것, 즉 영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본문은 빛을 가진 것과 빛을 믿는 것을 구분 짓고 있다. 그리고 빛의 자녀임은 더 중요하다. 그 이유가 빛을 가진 것은 기억 안에 진리를 소유한 것, 빛을 믿음은 이해성에 빛을 가지는 것, 빛의 자녀임은 위 두 가지의 협동작용에 의해 사랑과 생명으로 진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떠나는 이들로부터서는 그분도 떠나신다. 그리고 교제할 수 없는 이들로부터서는 자신을 감추이신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의지 안의 악은 인간과 그의 하

느님 사이를 가르고, 이해성 속의 거짓은 그 사람으로부터 신성한 얼굴을 감추이게 한다. 본문의 글자대로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자신을 숨기셨다. 그러나 그분의 이런 행동은 제공된 빛을 믿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거절하는 이들, 본문의 군중 같은 이들과 관련하여 영적으로 조치하시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

37.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산해주는데 그 효력이 미미했다는 말이다. 믿기 위해서, 그들의 이해성은 계발되어야만 하고, 그들의 심정은 변화되어야만하며, 그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었어야만 한다. 참되고 생명 있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창조는 기적들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도 창조는 창조자의 존재와 현존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38. 그들의 불신앙은 미리 보여졌고 그래서 미리 말해졌었다.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에 있는데, 거기서는 주님이 굴욕 받으신 가장 깊은 상태들, 그분의 시련과 시험들이 취급되고 있다. 인간의 불신앙은 주님의 모든 시험의 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위 본문의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는 질문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관련되는 누가복음 18장 8절,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것인가?” 라는 주님의 질문과 대등하다. 이 질문의 대답은 예언자의 질문이 함축하는바, 아무도 없다이다. 우리가 전한 말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고, 주님의 팔이 밝히 보이신 것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다. 신성한 진리이든 사랑이든 인물로 나타났을 때도, 가르침에서도, 사람의 아들의 일로 나타났을 때 조차에서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의 교리가 비같이 내렸어도, 이슬로 살짝이 내려 앉는다 해도, 그분의 연설이 부드러운 초목에 이슬비같이 뿌려져도, 풀 위에 소나기 같이 내렸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들에게 유익한 행동을 보여주었어도 그분의 행동에 묵묵답답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주님의 팔, 예언자의 표현같이 여호와와 팔은 주님의 인성이었다. 이렇게 주님

의 팔이라고 일부러 일컬은 것은 주님께서 입으신 인간 본성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조건에 잘 숙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분의 구원의 권능이 뻗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의 팔은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진리이다. 그 이유가 육체와 팔의 관계같이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진리를 통해 사랑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39,40.** 여호와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나타내 보이신 대상인 군중은 불신앙으로 남아있었다.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완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언자의 위의 말, 복음서 기자가 이런 말을 소개한 것 모두에서 불신앙은 백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고 지적으로 소경 되고 심정적으로 완악하도록 신성이 고통을 준 결과인 듯 비쳐지고 있다. 물론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어떤 상태일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진리를 감추이시고, 그분의 선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도 감추어 있게 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는 이런 사항을 예수 자신의 말씀, 즉 그분이 아버지께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21).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분 자신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한다.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이들로부터 신성한 지혜를 감추이게 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일 뿐이다. 모독은 처음에는 진리를 믿고 있다가 그것을 부정하는데 존재한다. 모독을 하는 이들은 종교의 원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셀 수 없는 피해, 영원할 피해를 입힌다. 전환되었고 고침을 받았던 이들인데 불신앙과 죄지음으로 되돌아갔다면 그들은 과거 진리를 알지 못했던 때보다 더 지독한 상태에 있게 된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는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박아 옥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



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히브리6:4-6). 계시뿐만 아니라 이성도 우리에게 말해주는바, 완전한 존재, 지혜 안에서 선함이 무한하신 분이 어떤 종류의 그분의 창조물이라 해도 단지 그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들로부터 구원의 수단을 감추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말씀의 글자는 이런 대의와 반대되는 결말을 보이고 있으나 말씀의 영은 이런 경우의 참된 상태를 밝히고 있다. 말씀의 글자는 외관에 나타난 그대로에 따라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롭게 판결하는 사람은 진리의 저자에 더 가까운 관계에서 관조해야 할 것이다.

41.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함으로 결론 맺는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이었다.” 이 예언자가 말한 주님의 영광, 그는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여섯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들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들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 다녔다” (이사야6:1-2). 이 장의 취지로부터 확실한 것은 이것이 환상이었다는 것, 그 환상에서 예언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천국에서는 하느님의 보좌였고, 지상에서는 그분의 인성의 성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복음의 전파와 전도가 이 예언의 주제이기도 했다. “그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 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 요한이 인용한 말이 계속된다.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겠지만 이해 못하고, 보겠지만 지각하지 못한다. 너는 이 백성의 심정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정으로 이해해 돌아와 성해지지 않도록 하라’ (6:9,10). 이는 주님이 오시는 때 유다 백성의 일반적 상태를 묘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교회로서의 그들이 구원을 제공받으나 거절하고, 그 결과 혹독하게 황폐되리라는 것, 다시 말해 그들에 대한 교회 처방이 종말을 맞이하리라는 것이 미리 보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약속된바, “거기에 십분의 일이 남아 있겠지만 그것마저 먹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베어져 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6:13). 이 구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교회가 종말을 고하는 한편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에 의거 나머지(remnant)가 보존되어 새로운 교회 처방의 핵심을 형성할 것이라는 뜻이다. 예언자의 이런 예언적 환상의 명백한 취지에 의하면, 백성에게 초래된 소경 되고 심정이 둔해지는 것은 종말을 맞을 교회의 일반적 조건을 묘사한 것이고, 진리와 정의의 새롭고 더 높고 교회 처방이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42,43.** 나머지, 십분의 일, 거룩한 씨는 일반적인 부패함 안에 보존되도록 약속되었다는 것을 이제 복음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니고데모는 유다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님의 복음의 첫 열매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 사람만이 유다지도자들 중 기독교신앙을 영접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은밀히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두려워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칭찬보다 인간의 칭찬을 더 사랑했다. 비록 그들이 유대주의의 범주에 머물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제자였다. 그러면서도 국가적이고 상속적인 종교의 연결고리에 얽매어 있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은밀히 그분을 찾아 온 것, 그분을 믿노라고 공개적으로 고백 못하는 것, 어느 것도 나무라지 않으셨다. 비록 우리가 그분이 명령하시는 사항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해도 그분은 인간의 허약함에 온유하시다. 하느님의 칭찬보다 인간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상태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비록 비공식적인 제자이라 해도 더 신실한 이들로 승강될 수 있기에 소극적인 그들의 태도에 관대하시다.

**44,45.** 36절에서 이미 살핀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발견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위 말씀은 36절처럼 균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말하셨던 것 같이 상상된다. 그 이유가 그분이 “큰 소리”로 말하셨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큰 소리로 외침”은 사랑

의 열렬함, 그분의 진리의 명백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분이 발음하신 단어들은 이런 구분도 포함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자신을 보낸 분으로서 말하고 있다. 보내신 아버지는 신성이고, 보내진 아들은 인성이다. 보낸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보내진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다. 사랑은 지혜를 수단으로 인간에게 오고 그 자체를 인간에게 명백히 나타낸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하느님은 그분의 지혜를 수단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 주님의 신성은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의 아버지요 보낸 자이다. 하느님이 육 안에서 명백해지신 분이 예수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이 내재한 인간으로서 믿는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있다. 여기서 주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그 믿음 안에 하느님을 믿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시고 있다. 이를 더 강력하게 선포하시고자 이렇게 첨부하신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신조(reed)로 구체화된 신학적 주장 그 이상이다. 그것은 천국적 삶 안에서 구체화된 신성한 진리이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이것은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보는 것, 또는 신성한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하느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46. 우리의 주님은 이 구절에서 노골적으로 이를 가르치신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신성한 빛은 신성한 지혜이다. 그리고 빛과 열의 관계같이 사랑은 지혜 안에 있다. 주님은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영원한 말씀으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이는 참 빛이셨다. 내향으로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왔는바 바깥쪽으로 명백히 나타난 것, 이는 인간이 그들의 눈과 지성을 가지고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 빛은 그들 마음의 가장 높은 영역을 비추는데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자연적 이해성으로 내려오면서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신성한 사랑은 그들의 어둠을 제거해주시고 싫어하셨는바 인간의 마음이 계발되도록 지혜의 빛으로 오셨다. 이를 위해 무지와 잘못이라는 어둠의 지배가 사라지도록 밖으로 나열된 빛과 안으로 비추어왔던 빛이 하나되었다. 빛 자체이신 그분이 육을 입으심으

로 우리에게 왔던 빛은 주님의 인성까지 포함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계발되는 수단을 우리에게 설비해놓았다.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속에서 운행하시고 빛을 주시는 한편, 그분의 인성으로부터 그분은 자연적 마음에 빛을 주시어 인간의 안과 밖 모두가 계발되도록, 그 빛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도록 장치해 두시고 있다.

47.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신 자비,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던 이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태도는 얼마나 자비로운지!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심판이 단죄(condemnation)를 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주님께서는 3장 17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다. “하느님이 세상을 단죄하시려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되도록 하시려고 보내셨다.” 구원이 신성한 사랑의 목적이요, 육을 입으심에 있는 신성한 지혜의 일의 목적이다. 신성한 본성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육 안에서의 주님의 일은 보편적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 그러나 이 구원을 거절하는 이들까지도 구세주에 의해 심판되거나 단죄되지 않는다. 가장 지독한 죄인까지도 단죄않으시는게 그분의 본성 속의 특질인바 그분은 단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셨다. 단죄는 또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는 데 다음 절에서 진행되고 있다.

48.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의 말들이 심판한다면 이는 마치 주님자신이 심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반박할런지 모른다. 불신앙자는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을 단죄받는 수단으로 돌려놓는다. 만일 그가 진리로 안다면, 그 진리는 그를 자유로워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진리를 위반한다면, 그 진리는 그를 속박 당하게 만들 것이다. 단죄함은 없으나 진리를 더럽히거나 거절하는데 대한 단죄는 있다. 이것이 단죄인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인간의 행위가 악해서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죄하는 진리는 없지만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그들이 자신을 단죄하는 것이다. 진리는 그들에게 반대 않는다. 그들이 진리에 반대한다. 그리고 진리에 반대하는 가운

데 그들은 진리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는 천국 상태에 반대되는 상태에 자신들을 놓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의 반대로서 지옥을 구성하는 상태에 자신을 놓는다. 진리는 그 품성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진리는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천사이든 악마이든 어떤 대상을 두고서도 그 자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진리의 상대편 때문이다. 천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산다. 악마는 진리를 미워해서 그것에 폭행을 가한다. 천사를 만드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고 악마를 만드는 것은 진리를 미워함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에서 더 살핀다.

49.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진리가 지닌 보는 품성과 판단하지 않는 품성에 대한 이유를 주신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 말씀의 교리적인 취지를 잠깐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신성한 인물로서, 아니면 인간 존재로서 말하셨을까? 신성한 인물 차원이었다면, “나는 나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실 수 없다. 그 이유가 무한하신 인물이 말하시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말하실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인물에 의해 명령된 것 그대로를 그분이 말하실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 그리고 여타 다른 구절에서 아들 쪽에 관한 하급의 수준에 표현된 것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명목상의 차이가 아닌 실제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란 영혼과 육체의 차이 같은 것, 사랑과 지혜의 차이인 것이다. 비록 사랑과 지혜는 하나이어서 나뉘 수 없다해도 하느님의 본질 측면에서는 완전히 구분되는 본질이다. 신성과 인성 역시 하나이지만 구분된다. 지혜 역시 사랑으로부터 존재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존재한다는 말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신성에 관련된 인성 역시 이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지혜는 사랑의 자극으로부터 말한다. 육체는 영혼의 에너지로부터 행동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선포의 힘(force)을 보고 있다. 그분은 심판도 단죄도 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주님이라는 인물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 진리는 사랑으로부터 듣고 받았던 것을 말했다. 사랑은 명령의 근원이다. 예수 안에서 무한한 사랑은 무한한 지혜를 통해 말하고 있다.

50.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그렇다. 이것이 신성한 모든 명령의 목적이다. 이것은 지상에 오신 그분, 예수에 의해 행해진 모든 일, 말해진 모든 말씀의 목적(end)이다. 인간을 사랑함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object)이었다. 구속은 순수하게 무한한 사랑의 일이었다. 주님의 이 말씀,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신 대로 말할 뿐이다”는 이 얼마나 참된가! 주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사랑에 의해 영감 되어져 있다. 이 사랑은 인류에 관한 사랑이었다. 예수의 입을 통해 나온 모든 단어들은 지혜의 단어들이었다. 그 이유가 그 말씀이야말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을 구성하는 생명으로 인간을 가르쳐 안내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법의 근원이었고,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은 법의 완수였다.

## 13

12장의 마지막과 13장의 시작 사이에는 폭넓은 간격이 시간이 아닌 상황의 차원에서 놓여있다. 라자로를 일으키심이 마지막이었다. 아마 이 기적은 주님의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 기적 뒤에 전달하신 강연은 그분이 유대 백성에게 정식으로 보내는 마지막 강연이었다. 그분이 그들과 대화한 결말 짓는 말씀에 있는 세상은 장차 올 정의와 심판에 비쳐지면 그 얼마나 추잡한지! 이제 그분께서는 그들을 떠나시되 이런 신성한 확증,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것, 마지막 날에 그들과 직면하게 되는 유일한 심판은 그분이 말했던 말들이고, 그 말을 헛것으로 여겼던 이들에게만 단죄가 있으리라는 확증을 주시고 떠나셨다. 지혜로 가득차 있고, 아름다움이 완전한 강연들이 끝나는 한편 지금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시어 제자들과 더 내면의 것을 교통하신다. 이것은 그분과 함께 들어갈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일관되고 유익한 것이어서 비록 그들이 부활에 의해서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어둠과 구름으로 아직은 싸여 있다 해

도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베일 안의 것을 한 움큼 쥌 수 있게 한다.

1. “과월절 이전인 지금,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계셨던 그분 고유의 것(His own)을 사랑해오신 그분은 그것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에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도록 제정된 과월절은 이미 앞 장들에서 간간히 주목했던 바대로 세상이 구속됨을 과월절의 어린 양으로 상징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과월절을 고대 절기인 과월절을 수단으로 예정된 것이다. “과월절 이전. before passover”이라는 말이 어떤 이들의 경우 그것은 과월절을 하루 앞둔 날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하루 전이라는 견해는 이 경우 시간 차원보다는 전체 상황과 더 일치되고 있다. 참으로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었다(마태26:2). 그리고 같은 26장에서 만찬이 기록되고 있다. 요한이 이 두 개의 다른 상황을 그의 대화에서 구분을 만들지 않고 병합한 것은 실제의 날짜를 대조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어쨌든 말씀의 언어에서는 말씀이 글자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려 하는 것보다는 아주 더 높은 생각들을 담고자 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 글자가 채택하는 술어들은 더 높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내적 의미에서 “이전, before”이라는 단어는 상태라는 점에서 앞서는 것, 그것이 인물에 응용되든지, 시간에 응용되든지 내면적인 것을 뜻한다. 과월절 이전은 과월절 안에 이미 있다. 과월절에 이제 막 완성하시려 하는 것이 표징적으로 놓여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영화하심,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심과 인류를 구속하심을 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과월절 때에 그분의 제자와 생명의 언약으로 들어가신 이유이기도 했다. 이것은 과월절기에서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을 제자들에게 밝히 나타내셨고, 성만찬이 제정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를 가르는 결과가 있어진 이유이기도 했다. 거기서 그 때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아셨는바, 그분의 이런 언어가 함축하는 것은, 그분의 때가 오고 있을뿐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현존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닥치기 전, 그 사건을 보시는 그분은 비록 사건이 결과에 존재하기 오래 전이라 해도 그 사건의 원

인 안에 이미 존재한 그대로를 보고 계신다. 미래의 것들도 특별히 예언에서 같이 전능하신 분의 눈에는 현재로서 보여져 말해진다. 주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에 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됨은 세상을 떠남에서 완성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존재했다. 그리고 그분 고유의 것을 사랑해오셨던 그분께서는 끝까지 그것들을 사랑하셨다(having loved his own, he loved them to the end). 이 본문에서의 끝(end)이란 단어는 그분의 목숨이 끝남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작전(operations)이 집중된 끝, 특별하게는 그들이 종결되었던 최말단이다. 모든 천국들을 통해 최하위의 모든 유한한 존재에 내려왔던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이제 최말단의 것들 안에서 신성한 진리가 되어졌다. 이 진리가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인 것이다.

2. “만찬을 끝냈을 때, 악마는 가리웃 사람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도록 그의 심정에 놓여지고 있었다.” 만찬(supper)이 말해지고 있는 직접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만찬으로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일어서셨다는 것을 언급하려는 데 있다. 식사를 끝냈을 때가 아닌 식사 도중에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서 기자의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의미이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애정 어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22:24)의 경우, 즉 제자들 사이에 누가 제일 높은 자이나 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것, 예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서로 묻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고 상상하고 있다. 서로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낮은 태도로 섬김을 수행해 봄으로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겸손과 형제다운 사랑을 가르치는데 우리 마음에 잘 그려 내 볼 수 있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을 채택하셨다. 또 다른 경우에서, 제자들이 그들이 상상한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라고 입다툼을 했으며 예수께서는 즉각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앉혀 놓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바꾸어 그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가르치셨다. 그런데도 아직 야망에 차 있는 제자들의 발을 그분께서 씻으심이 덜 교훈적이다거나 덜 놀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차후 우리가 살피는데서 보게 된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 자체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이 구절은 우리의 시선을 모으게 하는 두 가지 세부사항이 있다. 복음서 기자가 여기서 관련시키고 있는 두 세부사항은 대비라는 수



단으로 강력한 빛에 겹손에 관한 주님의 행동을 놓고 있다. 가리옷 유다가 주님의 배반하도록 그의 심정에 악마가 놓였다. 인간으로서의 유다뿐만 아니라 그가 표현한 인간 본성의 가장 저질의 본성이 사람의 아들을 배반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실제적인 것으로 극에 달했던 불법에 거의 맞먹는 악으로 채워졌다. 여기서 그것은 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특이한 단계에 도달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이 지금 유다의 심정으로 들어갔다. 악이 그의 심정에 배반할 생각을 놓았다. 이런 점은 유다에게서만 있었던 특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악은 악령에 의해 심정에 놓여진다. 엄격히 말하면 악령들은 심정에 이미 있었던 악들을 흥분시킨다. 이 악들은 악으로 변질될 경향성(evil inclination)으로서 심정 안에 존재한다. 이 악이 유다의 심정 안에 있었다. 악마가 그것을 휘저었다. 악이 심정에서 흥분될 때 행동으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래서 유다의 경우, 이내 행동으로 전환되었다.

3. 악마가 유다의 심정에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의 주장을 파괴하도록 하는 것을 놓음과 동시에 예수의 심정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 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도록” 하셨다.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것이 무엇들인지, 그분의 손에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바, 아버지께서 아들에 주신 것들은 아버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 신성한 특성 자체,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까지 포함되는 아버지 자신외 다른 것은 없다. 본질이 신성한 것들은 전달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에게로 이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주어진다고 말해지고, 그리고 받는다고 말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일관된 어떤 견해를 가진다면 한 가지 방법에서는 이해될 수 있다. 주님이라는 인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신성이고 인간본성이시다. 그래서 신성한 속성은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어진다. 마치 영혼이 그 속성을 육체에 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비록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이동되지 않는다. 주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그분께로 간다는 것 역시 위와 똑같은 방식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님의 인성 부분은 임신을 수단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신성으로 돌아갔다. 이외 어떤 진행이나 귀환은 하느님에게 가능치 않다. 실로 우리는 신성한 지혜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신성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

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두 가지의 일이 아니고 똑같은 신성한 진리를 더 내면적으로 관조한 것뿐이다.

4. “그분은 만찬으로부터 일어나 겹옷을 한쪽에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표징적이었듯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도 모든 시대의 교회와 교인에 관련하여 높고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 그분의 위대한 일은 그분의 신비한 몸, 교회 안의 인성에 관한 최말단 원리들의 깨끗해짐과 거듭남을 설비하시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도록 고안되어졌다. 주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영화하시기 전, 인간 본성의 자연적 원리는 거듭나질 수 없었다. 이 원리들이 주님 안에서 영화되실 때까지 그것들은 인간 안에서 거듭나질 수 없었다. 될 수 없었던 이런 일이 복음의 처방 아래 가능해 질 수 있었다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심으로 표현되어 졌다. 지금 주님의 거듭나게 해주시는 작전들이 인간 본성의 가장 낮고 가장 저질의 부분에까지 내려와 닿음으로 인간의 가장 바깥 측면까지 구원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심으로 입증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개인적인 우리 자신에 관련하여 쳐다보아야 한다. 그이유가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에서 실감될 수 있으려면 체험의 문제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만찬으로부터 일어나셨다. 제자들이 구세주와 함께 먹고 있는 모습은 그들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영적인 진리와 선을 그분으로부터 내향으로 받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내향으로 영접될 때 우리의 최고 되는 선이신 주님은 심정의 더 높은 애정으로 승강, 또는 일어나신다. 그분은 윗저고리를 한쪽에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있다. 예수께서는 하인의 가장 수준 낮은 의무를 이제 막 수행하시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제자들의 주님이요 스승이라는 겹옷을 한쪽에 내려놓으시고 겸허한 직능에 걸맞은 옷(vesture)을 두르셨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인물에서 곧 결과되려는 것에 대한 표징적 표시였다. 예수께서 지금 입으신 직책과 옷은 그분께서 이제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입으시게 되는 인성의 최고로 낮은 수준과 씩씩이를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그분 스스로 영원한 매체를 옷입으셨다. 이 매체를 통해 그분은 최하위 상태, 최극도의 필요성을 가진 그분의 창조물에게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교통하시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화하심과 인간의 거듭남 모두에서 더 높게 승강하시면 더 낮게

하강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애정 안에서 더 높게 오르시면 우리의 행동과 말에 더 낮게 내려오신다. 그분의 영원한 진리가 더 낮고 더 타락된 상태의 인류에게 도달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건과 상태에 부응되는 진리의 수준을 옷입으셨다. 말씀으로서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겉옷은 글자적 의미를 표현한다. 이 의미는 제자들의 각기 다른 상태, 변해 가는 그들의 상황에 알맞도록 다양한 종류의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건, 또는 모시형겉,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허리에 두르셨던 이것은 성도들의 정의인 깨끗하고 흰 모시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정의는 주님의 정의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정의 자체이시고 성도들의 모든 정의는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단 한가지 행동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순종의 삶으로 일구워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순종이 정의인 듯, 그래서 정의를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없고, 정의의 그분 자신의 법칙을 완전한 상태로 성취하심으로 정의가 되신 그분의 영향과 힘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5. 예수께서 수건을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다. 이는 그분의 진리가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근원적 차원의 인간 마음의 자질 안으로 흘러갈 때이다. 그리고 이제 거듭남으로 그것을 받도록 준비되고 있다. 이 자질이란 인간의 이해성이다. 대야에 물을 받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신다. 신체에서 받은 인간 마음의 가장 낮은 수준을 상징한다. 마음의 가장 낮은 수준 또는 가장 바깥쪽 수준은 자연적 애정 또는 욕구를 구성한다. 이것들은 육적인 것, 지상적인 것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의 수준이어서 바깥쪽 세계와의 접촉으로 더럽혀진다. 이것이 조심성이 없거나 완고해서만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통해 가는 여정에 있는 순례자는 씻어낼 필요가 있는 불순물에 물든다. 그러나 기독교자들이 씻어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불순물은 꼼꼼히 말하다면 악한 행위들이지는 않다. 기독교인의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인간 허약함 같은 것 말고는 의도적인 악을 범하는 것, 악한 생활을 영위하려드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바깥쪽 악들로부터의 깨끗해짐이 세례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제자들과 더불어 종교생활의 시작에서부터 집행된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된 신분의 첫 시기 마지막에 수행하

신 발을 씻으심은 악한 일로부터 깨끗해짐이 아니라 악한 동기로부터 오는 일에서 깨끗해짐을 표현했다. 기독교인의 선한 행위에 달라붙어 있는 악이란 공적(merit)과 독선(self-righteousness)이라는 악이다. 이런 의지는 만일 우리가 제자들이 거듭나고 있는 인물이라는 차원이 아닌 거듭남이 결과되는 수단인 원리를 표현한다고 간주한다면 더욱 더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거듭남의 원리들은 부패된 우리 본성 속의 불순한 애정, 생각, 행동들과 접촉함으로써 때가 묻는다. 따라서 이런 원리들이 기독교 제자의 거듭남을 위해 주님 안에 있는 대리인으로서 확실히 작동하기 전에 거기에 묻은 더러운 것은 제거될 필요가 있다.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으셨다. 발을 씻고 닦는 물과 수건은 주님의 진리와 선함의 하나된 작전으로 결과된 것인 완전히 깨끗해짐을 지적하고 있다. 진리는 깨끗함을 개시하는 수단이고, 진리로부터의 선은 개시한 깨끗함을 완성하는 수단이다. 진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내는 물이고, 진리의 선, 즉 정의는 물기를 닦아내는 모시형겻이다.

6.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마음에 있는 믿음 자체 또는 믿음의 모형으로서의 베드로가 위와 같은 질문을 했을법한 것은 수궁이 간다. 이 사도의 질문은 겸손을 표시한 것 외에도 희미함과 의심도 함축하고 있다. 베드로의 이런 처신은 참되나 불완전한 제자, 그리고 신실하기도 하나 불완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있다. 바로 뒤에 이어지듯 그는 자기 발이 씻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는 아주 비천하고 보잘 것 없는 발을 씻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제의에 자기 발을 선뜻 씻으라고 내놓는 것이 너무 뻔뻔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 제안에 짐짓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곁들여진 놀람의 외침이다. 어쨌든 그의 마음은 이런 예식 같은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희미해 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겸손한 섬김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그분께 직접 묻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질문에는 그런 사항에 대한 대답을 바라고 있다.

7.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그가 바랐고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에게 꼭 필요했던 대답이었다. 이 대답은 여기 외 많은 다른 것에서도 우리가 행동하는데 필요하게 되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섭리적이고 구원해주시는 자비에 속하는 많은 행동들은 그 즉시에서는 측량될 수 없고 나중에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는 체험을 통해 보여질 수 있을 뿐이다. 체험의 지혜는 설사 우리가 그분의 작전의 특별한 목적이나 지혜를 명백히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장 유익한 교훈을 배우려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8.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그분의 행동이 겸비의 자세를 보이시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발을 씻는데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은 행동의 본성과 행동이 의도한 결과에 대한 반감을 그 생각 속에 함께 품고 있다. 이 제자가 자기 발을 씻는 주님의 행동에 이의를 달았을 때, 그가 그 사실에 관해 미처 눈치챈 것이 없는 탓도 있고, 또 한편 영원한 삶의 조건은 완전히 깨끗해짐인바 그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충분히 감명 받지 못한 탓도 있어서 였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마음내켜하지 않은 제자에게 이 교훈을 강행하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깨끗해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시는 이 단호한 서술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시선을 모아야 하는 대목이다. 사악함으로부터 심정이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생활이 깨끗해 있지 않고 구원은 없다. 위 구절로부터 명백해지는 것은 위 주님의 발씻어주는 행동은 단연코 상징적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천국을 위해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기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의 오염으로부터 생활을 깨끗하게 함이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씻음을 수행하시는 길밖에 우리를 구원해줄 방도는 없다. 우리는 씻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주님을 수단으로 씻어져야만 한다. 그분은 깨끗해짐의 저자이시다. 또한 그분은 깨끗해짐의 본보기(pattern)이시다. 그 이유가 인간의 깨끗해짐은 그분 자신의 인성이 체험했던 깨끗해짐의 형상(image)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의 깨끗해짐과 구원을 만드는 우리 안에서의 깨끗해짐 사이의 이런 연결은 우리로 그분과 상관 있게 해준다.

9. 주님이 그의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된다는 진리가 그의 마음에 차근히 호소하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지체 높으신 분이 왜 자기 발을 씻어야 하는가 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상태로부터 그는 그와 정반대되는 상태, 아예 온 몸을 씻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는 그의 구세주와 상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노력하겠다는 사도의 진지함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표징적으로 나타낸 것도 있는바, 그것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관한 생각이 혼돈되고 희미한 것, 그러므로 내향의 원리와 종교의 바깥쪽 의무 사이를, 그리고 마음의 품위(Grace)와 삶의 덕행(virtue) 사이를 뚜렷이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구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비단 정밀한 생각의 수단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규범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위 두 가지들은 하나이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 구별의 본성을 알고 이해할 때까지 그들의 하나됨을 증명하게 얻을 수 없다. 이런 구별점을 알고 싶어함, 최소한 그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또는 지각은 베드로의 두 행동, 즉 주님께서 그의 발을 씻으려 할 때 거절한 것과 그 뒤 발뿐 아니라 그의 손과 머리까지 씻어 달라고 간청하는 대목에 함축되어 있다.

10. 그러나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주님의 행동이 표현했던 깨끗해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표현된 씻는다는 것은 사도들의 발이 의미하는 외적 인간의 깨끗해짐이었고, 사도의 손과 머리로 의미된 내적 인간의 깨끗해짐은 아니었다. 거듭남에서 멀리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안에서 내적인간은 이미 깨끗해져있어 거듭나는 일을 완성하는데 더 이상 해야 할 게 없고 단지 그런 상태와 상응되도록 외적 인간을 가져다 놓는 일, 하급의 거듭남이 상급의 거듭남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하나될 경우 둘은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제자들, 특별하게 베드로는 깨끗해짐의 첫 번째 부분을 이미 수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심정에서 사악함을 씻어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첨가하셨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아마 유다는 발을 씻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볼수 있을는지 모른다.

다. 어쨌든 내적 인간이 불결하다면 바깥쪽 인간을 씻어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다. 제자들이 거듭나는 마음에 있는 원리들을 예징하는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주님의 이 선포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진리에 관한 계시를 보게된다. 즉 내적 측면이 깨끗할 때 조차에서도 죽어야 마땅한 수준의 불순물의 자리가 있는 외적 측면의 부분, 인간 심정 속의 유다, 마지막 시험을 오게 하는 것, 이를 수단으로 마치 유다가 아직 주님을 적의 손에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제자들과 분리되는 것, 즉 악이 중단되는 수단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험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시험의 경우와 같이 가장 큰 시험이듯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악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휘저겨진다. 오히려 마지막 시험은 그 끝을 위한 어둠의 권세를 수단으로 흥분된 이기심 속의 가장 깊은 악에 의해 꺼내어진다고 말하는게 더 나을 것이다.

11.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그분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주님의 선견에서 우리는 인간의 상태에 관하여 그분께서 보편적으로 하시는 한 가지 예를 가진다. 주님의 선견(foreknowledge)은 선한 자뿐 아니라 악한 자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뻗쳐있다. 악 자체가 활동하는 것은 신성한 허용에 의해서이고, 덜 지독한 악은 더 지독한 악을 예방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 섭리의 법칙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계속 알고 계셨다. 그분의 신성한 질서로부터 주님은 그분 자신과 하모니를 이루고 질서대로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을 보실 뿐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있고 거꾸로 되어버린 무질서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보시고 있다. 그 이유가 무질서의 뿌리인 악은 분리된 존재 또는 독립적으로 생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의 남용이나 악용은 과거의 선이 전도된 게 아니라 현재의 선이 계속적으로 뒤집히는 것이다. 악한 자는 선한 자 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 선은 꾸준히 흐르는 시냇물같이 주님으로부터 흐른다. 그리고 모든 악은 이런 선을 꾸준히 타락시켜 놓은 것이다. 그리고 악이 선에 대항하여 꾸준히 반작용하고 있는바 선은 반작용되어진 악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악을 감지 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선견이 우리에게 어느 만큼이라도 납득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분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그분이 그것에 반대된 것을 보는 한편 그 반대된 것은 그분의 영광을 결과하는 것외의 것을 위해 반대되도록 허용되지 않는

다. 이 정도의 사항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바 이 정도에서 감사해야 하리라. 거듭나는 인간에 관련해서도 그가 온전히는 깨끗하지 않다는 일반적 지식은 비록 어디가 깨끗하지 않은지 아직 모른다 해도 그에게도 나누어져 있다. 깨끗하지 않은 곳이 어딘지는 자아검증과 시험을 수단으로 해서만 그에게 밝혀진다.

12.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겂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알겠느냐?’” 아마 십중팔구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행동은 가장 크게 자신을 낮추는 방식의 하나로서만, 또는 초보적인 절차, 이를 수단으로 자기들은 그분의 지상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예식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분의 질문은 그들에게 위와 전혀 다르게 되새겨보도록 의도되었고, 그들을 위해 의도된 영적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시려는데 있다. 앞 절에서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발을 씻어 주었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지식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기독제자가 주체인 자비로운 많은 작전들은 그가 그것들의 주체가 된 후에야 그에게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바깥쪽 계시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온다. 내향의 계시는 바깥쪽 계시가 내향의 계시를 받도록 준비시킨 이들에게만 온다. 체험이야말로 참된 선생이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는 과거 그러했었던 제자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행동의 진짜 의미인 그분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쪽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 고안된 질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행동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그분께서는 지적해주시고 있다. 제자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행동 모습과 유대교 사제가 제 잔에서 재를 제거하는 모습에는 닮은 데가 있다. 사제가 재를 걸어 낼 때 그는 그의 늘 입던 겂옷을 벗어 한쪽에 내려놓고 모시옷을 입는다. 이 의무가 끝나면 그는 정상적인 옷을 다시 입는다. 주님도 제자의 발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했을 때 이와 같이 하셨다.

13.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예수를 스승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선생으로서, 그리고 최고의 진



리와 선되신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 분만이 우리의 스승,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되시는바 우리는 어느 인간도 우리의 스승이라 부르지 않는다. 예수만이 최상이고 그분 홀로만이 믿음과 실제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의 권위자이시고,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도 그분만이 권위자이시다. 어쨌든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요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부른 것은 옳다고 말하신다. 그러나 그분을 그렇게 부르는 것 이상의 더 어떤 것을 하도록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을 계속하시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직접 가장 큰 겐비의 행동을 진열하시면서도 한편 그분은 그들의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고도 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직책을 맡고 하인의 의무를 그들을 향해 수행하시는 한편 그분 자신을 그들의 스승이고 주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있다. 그분의 이런 주장은 자연적 인간이 자신을 떠받들게 하려는 목적에서 있어진 권리주장이 아니라 그들을 겸손해지게 하려는 목적에서 있어진 주장인바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비껴가서는 안 될 사항이리라.

14. “주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그들의 주님이요 스승이 그들의 발을 씻으심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크고 복된 교훈이 이 구절에 있다. 주님이 수행하셨던 예식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기독교인의 영적인 발 씻음은 종교의 이론으로부터 종교의 실제로, 종교를 말함으로부터 행동함으로 통과하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이요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 역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주님의 축복은 이렇게 분배되어진다. 그것은 그것을 받은 이들과 무작정 머무르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주신 분을 직접 인정함으로 그분께 귀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그것들 속의 복된 감화를 그 복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내려가 운반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수여하시는 모든 축복은 다시 그분께로 올라와 귀환하기 전에 활동과 유용함이라는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분의 말씀이 질서의 위와 같은 회전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과하지 않은 채, 공허로 되돌아 올 것인바 꼭 성취되어야 한다 (이사야55:11). 깨끗해진 모든 제자는 자기 형체의 깨끗해짐을 도와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시작되었던 깨끗

해짐만큼 그의 삶의 행동과 마음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옴으로 해서 전체가 깨끗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개선과 행복이 증진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신 그분 같아야 하리라. 마음과 삶에서 종교가 이론 차원에서 실제 차원으로 바뀌는 것은 상태가 도치(inverse)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상태에서는 진리가 첫째 자리이고 선이 둘째 자리였지만, 나중 상태에서는 선이 첫째 자리에 있고 진리가 둘째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에 있는 단어의 순서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앞 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라고 부른다”고 말하시고, 이 구절에서는 “너희는 주님이요 스승인 내가...”라고 말하시고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선보다 앞서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며 주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선이 그분의 진리에 앞서 있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며 스승이시다.

15. 주님께서 더 말을 이으신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의 본보기는 우리가 모방하는 바깥쪽 모형보다 훨씬 더한 것이 있다. 우리의 종교적 삶과 체험 모두는 그분의 것에 관한 형상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육을 입으심(Incarnation)은 주님께서 육을 입으시기 전부터 가르쳤었던 것이 행동된 것이었다.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그분의 진리를 행위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말씀이 육을 만드셨음은 선과 진리의 영원한 원리들이 충만 되어 체현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들은 인간의 행동과 체험 안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에 의해서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바래시고 요구하신 것이 우리의 척도 안에서도 되어지게 하셨다.

16. 우리가 그분을 모방하는 이유로서 말하신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올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올 수 없다.”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면, 종은 그의 주인이 자기에게 부여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셨던 대로 행해야만 한다. 영적 의미에서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의 외적 측면이 내적 측면에 종속되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을 가르치시고 있다. 다시 말해

내적 인간이 행했던 대로 외적 인간도 행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진리 역시 선에 종속되어 있고 선이 파견한다. 그 이유는 진리가 선으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치 생각이 애정으로부터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중시한다면, 선보다 진리를 내세운다면, 이타해보다 믿음을 강조해 간다면 이는 영적으로 주인 위에 하인을 놓는 격이고, 파견한 사람 위에 파견된 자가 있는 격이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원리들을 참된 질서에 놓는 것, 이는 교리에서도, 실제에서도 올바른 질서에 놓아야만 한다.

17.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위 진리는 그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그 얼마나 복된지! 만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적 교훈에서도, 이것은 올바른 행동의 규율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영원하고 영원한 삶에 관련된 것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 이유가지식 없이 총명한 행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은 모든 지식의 목적(end)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다. 행동의 규율이 되는 하느님의 법은 그 법의 보상으로 행복을 가진다. 그 보상은 그 일에 있다. 행복은 올바른 원리의 열매로서 올바른 행동으로부터 발생된다.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행동일까?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분이 하셨던 대로 행하는 그 속에 참된 행동이 존재한다.

18. 앞 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셨다. 깨끗한 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그분을 배반할 유다였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그분께서는 되돌아가시고 있다. 그래서 말하신다. “이것은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앞의 10,11절에서 유다는 인간의 부패된 자아를 표현한다고 이미 살폈다. 특히 그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이고 가장 격렬한 시험을 오게 한 인간 본성의 가장 낮은 원리 또는 육적인 원리를 표현했다. 교회 내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이 원리는 진리를 뒤집는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교회 안과 밖의 노골적이고 공인된 적들의 손으로 넘겨버린다. 마치 유다가 예수를 “죄 있는 사람”의 손으로 넘겨

침 뺨음을 당하고, 농락 당하고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인간 본성 속의 육적인 원리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바, 거듭나는 사람은 그 원리에 의사하는 일이 없으려면 그 위로 승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실 때, 그분의 깨끗해지게 하심은 인간 본성의 모든 원리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뺨은” 사람들만이 깨끗해진다고 하셨다. 뺨은 사람이란 그분 자신과 결합하도록 자신을 이끌어낸 모든 사람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선택은 모든 사례(instance) 안에, 인물과 원리 모두 안에 존재하고 그것들의 품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선을 뺨아 주시고 악은 거절하신다. 유다는 불결한 채 남아서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신성한 진리의 증언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유다의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일반적 의미에서 유다는 유대교회를, 그가 예수와 함께 먹은 빵은 천국적인 빵을 표현했다. 이 빵은 성경 안에 진리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진리가 그 교회 처방 속의 사람의 영혼을 먹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빵으로 먹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에게서 돌아섰다. 특히 그분이 예수라는 인물로 나타나셨을 때 더욱 두드러져 그분을 향해 그들의 타락된 본성 속의 가장 비열하고 쓰디쓴 감정을 노출했다. 주님의 빵과 몸을 무가치하게 먹는 사람은 그분에게 그의 발꿈치를 들어올린다. 발꿈치(heel)는 인간 본성의 가장 낮은 원리, 육적인 원리이다. 이 원리가 마음의 영적이고 천적인 원리들 위에 들려질 때 그것은 주님께 반대하여 들려지고 천국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에 반대한다.

19.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취됨으로부터가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견으로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을 보이시고 있다. “내가 미리 이 일을 일러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예견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고 단지 그 예견이 성취됨을 통해 그들이 믿도록 예견을 주시고 있다. 미래의 사건들같이 미래의 상태들은 그것이 존재되어서야만 믿어질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구원되어질 때에만 우리의 구세주로서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 없이 구원될 수 없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들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증명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하

셨던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믿는다.

20. 종교가 체험의 주제가 되었을 때 마음은 진리의 보다 낮은 수준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심지어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까지 승강한다.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 이 구절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면, 사도들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한 이들은 그분을 보낸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 우리를 가르친바,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이는 마치 주님의 말씀,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에 따르면 아들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줄거리는 유사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응으로 있다. 아버지는 인물적으로는 아들 안에, 그러므로 무한하게 계신다. 주님은 유입을 수단으로 제자들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유한하게 계신다. 그 이유가 주님의 인성은 무한정으로 신성을 받으나 제자들의 인성은 한정되고 다양한 그들의 수용력에 따라 주님의 신성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적 의미에서 아들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고,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와 선의 원리들이다. 마치 우리가 진리와 선을 소유하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보다 낮은 수준은 보다 높은 수준을 내포 할뿐만 아니라 밝히 보여준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것까지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포함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거둬나지면서 드러내 보이는 사항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진보적으로 결과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관련시켜 이것을 숙고한다면, 사도들은 글자적 의미 속의 진리를, 예수와 아버지는 영적 의미와 천적 의미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대로 진리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더 높은 의미 역시 받게 된다. 비록 그것들이 발달되지 않는다 해도 계속 그것들은 거기에 있고, 그것들이 현존함으로 거룩해진다. 만일 우리가 이 사항을 교회와 연관해 생각해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대로 진리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대로의 진리를 받게 되고, 그가 다음 세상으로 건너갈 때 그 천국에 있게 된다는 말이다.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몹시 번민하시며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

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하나 있다' 하고 말하셨다.” 이를 영적 의미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발전과 체험에서 이해한다면, 이로부터 우리가 배우는바, 진리의 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승강과 영적 발달은 싸움 없이 결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이 실제로 변민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 변민은 단순히 유다의 배반과 십자가의 고통을 응시하셔서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의 내향적 싸움이 더욱 노골화되었기 때문에서이다. 만일 제자들이 교회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유다는 주님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된 멤버, 그리고 내향적으로는 악마인 이들의 표상이다. 주님의 영이 변민하심은 뒤에 기록되었듯 잃어진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탄식을 표현하고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구원되는 것이 그분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하심은 그것의 넓고 넓은 포용으로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22.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았다.”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 때문에 그들이 서로 쳐다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 바라 본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배반자 한 사람을 빼 놓는다면 그들 중의 어느 누구라 해도 그렇게도 복주시려 애쓰신 스승을 배반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가능했을까? 어쨌든 이 구절이 우리 자신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 제자들이 서로 쳐다봄은 자기 검증을 표현한 것, 우리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이 생각을 통해 우리의 애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은 한 개의 마음 안에 있는 원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검증은 악이 어디에 잠복했는지 모르는 의심을 수반하고 있다. 우리의 심정은 모든 것보다 악하고, 그 사악함은 절망적이라고 신성한 지혜가 우리에게 확실히 해줄 때, 우리는 그런 진리에 동의할는지 모르나 체험이 그것을 분명히 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실감할 수 없다. 어쨌든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어 받은 절망적인 품성에 속하는 세부적인 어떤 악이 거론되고 그것이 죄있다고 말해질 때 그 악이 과연 우리 속 어디에 거주하는지 의심해보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하자엘이 장차 시리아의 왕이 되어 잔인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했을 때, “소인은 개보다도 나를 것이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하십니까?” 하고 말했다 (열왕기하8:13). 제자들이 느꼈던 고민은 방금 주님께서 체험하

신 번민이 그들에게 교통된 것이었다. 번민이 마음의 내면을 휘어잡을 때 그것은 외면으로도 내려가고, 이 악은 처음에는 막연한 악으로서 느껴진다. 다시 말해 그 악의 작용과 근원이 미처 발견되지 않은 상태의 악으로 느낀다는 말이다.

23. “그 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다.” 자기 검증에서 생각이 서로를 쳐다볼 때 마음은 의심 쪽으로 인도되지만, 이 의심의 해결을 위해 더 높은 것, 주님 그분에게 까지 이르는 높은 쪽을 쳐다보는 수단밖에 그 의심을 제거할 방도는 없다. 그러나 매체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최고의 선과 진리는 보다 낮은 수준의 선과 진리들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이 매체 중 가장 높은 것은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선이다. 이것이 요한에 의해 표현되었고, 그런 이유로 그는 예수의 가슴에 기대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예수의 가슴은 신성한 사랑 자체이다. “사랑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거주하고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거주하신다.” 예수께서는 그의 가슴에 기대었던 제자를 사랑하셨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는 주님이 그분의 모든 제자를 사랑하지 않으셨거나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사랑이 거주하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분의 사랑을 수용하는 이들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그는 그분의 가슴에 누워있다. 그 이유가 사랑은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이다. 추상적 의미에서 그것은 제자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를 통해 그는 주님과 직접 결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통해 그는 그분과 직접 교류한다.

24.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승강하는 수단으로 보다 낮은 품위가 있다. 이 품위는 믿음인데 시몬 베드로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손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쭙어 보라고 하였다.” 이 제자가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울 때, 그것은 사랑과 더 친밀하게 연결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께 여쭙도록 손짓하는 것은 마음의 행동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부터 찾아 보아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더 깊이 관심이 되는 것에 관한 계시를 받고자 하는 것, 그 악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 주님의 배반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다.

25. “예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그가 ‘주님, 그게 누구니까?’ 하고 물었다.” 중대한 질문이다. 영적 삶이 진보하는 가운데 있는 제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질문이란, 당신을 배반하는 것이 내 안의 어떤 것입니까? 를 뜻한다.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심정 안에 있는 배반자를 알게 될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셨다. 그리고는 빵을 적셔서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말하신 빵(sop)은 과월절기념을 관장하신 그분께서 쓴 나물이 들어 있는 그릇에 담가서 적셔진 빵조각(morsel)이었다. 과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게 되는 쓴 나물은 시험을 상징하고, 이 시험과 함께 영적 선의 영접이 있고, 이리하여 영적 선이 우리 것이 되는 결과가 있는바, 유다에게 쓴 나물즙에 담긴 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행동이었고, 이러므로서 제자들은 주님이 말하신 자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시험은 기독교인의 체험 속에서 심정 속의 악이 명백해지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것이야말로 시험의 씹씹이 이다. 그러기에 시험이 허용된다. 이런 시험의 허용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흠뻑 적신 빵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27.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2절에서는 악마가 유다의 심정에 들어가 예수를 배반하게 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 구절의 경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해지고 있다. 악마는 악을 사랑함으로 움직이는 영들에 대한 이름이고, 사탄은 거짓을 사랑함으로 움직이는 영들에 대한 이름이다. 사악함의 발전 단계가 여기서 명백하게 꼬집어 말해지고 있다. 처음에 악은 심정으로 들어가 그 심정이 죄짓도록 자극하고, 그 다음 거짓이 이해성으로 들어가 악행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죄를 범하는 수단을 궁리한다. 악은 죄짓게 하는 일없이 충동만으로 심정에 들어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성 안에서 거짓 추론으로 확증될 때 그것은 죄짓도록 하기 위해 기회만 엿보고 직접적인 시험만을 원한다. 시험은 악령에 의해 부추켜 촉진된다. 악령들은 심정으로 들어가 심정 속의 악들을 흥분시키고, 이것들은 욕욕(concupiscence)의 형체 안에서 봉기하여 죄 짓는 것을 사명으로 삼도록 자극해 낸다. 이 때야말로 욕욕이 튀겨오르게 하는 악에 저항하고 저항이 더 강



해져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바, 기독교인에게는 절호의 찬스일 것이다. 악이 흥분될 때, 거꾸로 된 추론에 의해 그 악이 확증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악은 죄가 되어간다. 이것은 그 악이 체재한 개인의 과오에 해당된다. 제자들 모두도 유다처럼 쓴 나물을 먹었다. 다시 말해 그들도 자기들을 기다렸던 시험의 쓰라림을 맛보기까지 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곱들어지고 말았다해도 범위반으로 유다의 경우 같이 나가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유다의 죄는 그 외 다른 제자들의 죄와는 아주 달랐다. 유다는 그의 스승을 신중히 계산해서 배반했다. 다른 제자들도 아직 덜 정복된 자아와 세상 사랑에 의해 그분을 배반했다. 그들은 주님의 목숨이 거두어 지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아를 내려 놓기에는 오로지 준비 안된 상태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유다가 종속당해 버린 시련이라 해서 그에게만 유별난 종류는 아니었다. 시험(temptation)은 어느 기독교제자라 해도 모두에게 공통된 과정이다. 그것들은 마라의 쓴 물이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시험(prove)하신다 (출애굽기15:25). 시험(temptation)을 극복할 수 없는 이들은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앞 절의 사건이 있어졌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유다가 기록된 것은 위와 같은 엄숙하고 유용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해서 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사탄이 유다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된 한 가지 목적(purpose)은 주님의 일이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무리된 그분의 일이 악을 흥분시키는 원인이 되는 지옥과 모든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었다. 유다 안에서 적극성을 띤 악은 인간 심정 안에 거주하는 악 중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악이다. 이 악이 행동을 취하여 주님에게 대항하도록 방향 지워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가지 않으면 구속은 죄의 가장 낮은 깊이까지 닿지 못했을 것이고, 악한 왕국의 가장 깊은 악의까지 정복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적신 빵 조각을 주심이 그분을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제자의 마음 안에 되어가고 있는 내향의 작용이 바깥쪽 행동으로 예정된 것뿐이다. 그 이유가 예수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빵은 주님이 영혼을 먹이시려 주시는 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분께서 빵조각을 적신 그릇은 자연적 마음을 표현했고 그 마음은 그것 자체의 타락된 본성이라는 쓴 나물을 담고 있다. 그 안에 유입되고 있는 신성한 사랑의 선이 침수된다. 그럼으로 해서 그 빵은 슬픔의 빵으로 바뀐다. 그분께서는 적

셔진 빵조각을 그에게 주시면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하고 이르셨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언제나 그분의 의지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허용일 뿐이다.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국가를 멸하도록 명령하실 때와 같다. 주님의 명령은 그분의 법칙들의 실행을 표현하고 있고, 종종 그것은 그분이 되어지기를 뜻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되어질 것에 대한 계시일 때가 많다. 위 본문이 바로 그런 예이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는 것은 유다가 하게 될 일을 말하시고 있다. 사탄이 그의 심정에 놓여졌는바 그는 빠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었다. 어서(quickly)란 확실함(certainly)을 뜻한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 때, 그분은 이런 진리를 표현하셨다. 부패된 인간이 하려 드는 것을 붙잡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지금 그 일의 목적은 확실해졌고, 빛나는 시작이 아주 가까이 끌어당겨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 구절의 말씀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지적하신 것으로만 간주하려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분 스스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의 종말, 부활과 승천을 보셨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그분의 영(Spirit)이 쏟아지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거듭나는 것을, 그래서 유다의 죄가 인간 범죄의 목록에서 마지막으로 닦아지는 것을 보셨다.

28. “그러나 그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앞에서는 제자라 불렀던 이들이 여기서는 식탁에 있는 사람들로 말해지고 있다. 이는 앞 구절에서는 진리에 관련된 명제들이고, 여기서는 선함에 관련된 명제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이다. 음식(meat), 그리고 그 음식을 놓은 식탁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되 이런 구분은 있다. 음식은 내적 측면이고 식탁은 내적인 것이 쉬게 되는 외적 측면이라는 차이이다. 식탁에 있는 이들은 그러므로 선함이라는 공통된 원리,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선함, 그분이 내재하시는 선함을 수단으로 결합하고 교체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이들 중 누구도 예수께서 유다에게 했던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선을 원리로 삼는 이들은 악을 어느 정도라도 결코 알아채지 못한다. 선의 영향력 아래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는 다른 사람의 악을 생각하지 못한다. 더구나 주님의 말들은 그 자체에는 악한 행동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 구절의 주님의 말은 유다가 해야 할 일을 어서 하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주님의 누구도 서둘러지기를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29. 비록 제자들이 유다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해도, 그들은 추측했는데 이런 그들의 추측은 그들 자신의 품성과 하모니가 되어 있다.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알았다.” 유다가 조그만 협회(brotherhood)의 회계 담당자이다는 것은 주님의 신비스런 말들에 관한 이런 해석을 암시했다. 유다의 이런 직책이 무엇을 영적으로 함축하는지는 이미 서술했었다. 돈이란 지식을 상징한다. 그리고 기억(memory)은 그 지식이 저장되는 그릇이다. 지식이 생활의 선용을 위해, 즉 과월절에 쓸 것을 사는데, 즉 사랑의 선한 것을 위한 더 높은 인간 자질의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데, 즉 이타애의 선한 것을 위한 보다 낮은 인간 자질의 충당을 위해 기억이라는 그릇으로부터 끌어낸다. 유다가 돈 자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성과 영적 사항에 관한 지식을 소유했으되 단지 기억에만 소유한 상태를 표현한다.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께서 유다에게 명절을 위해 물건을 사도록, 또는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라고 하신 줄로 짐작했다는 것이 뜻하는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자기가 지닌 지식의 사용은 선용의 더 다른 적합한 목적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 한 명의 제자와는 대조적으로 회계원으로서 그가 도둑이라 불리웠는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다. 그는 기억이 소유한 지식을 이기적인 목적외 더 다른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 지식을 자신의 것만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영예만을 위해 그 지식을 불리려 했다는 것, 거기에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선하고 유용한 모든 것에 대한 공적과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도, 자신외 아무 것도 없었다.

30.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이 서술은 얼마나 인상적인지! 가르치는 교훈은 얼마나 감명적인지! 빵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표시이고, 유다는 끔찍한 거짓 원리가 그의 심정에 진입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표시이다. 사실 악마가 그의 심정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자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가 그의 심정에 들어오게 승인되었던 것이 지금 그

의 이해성에서 확증되고 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다시 말해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부터, 충실한 동료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는 즉각 나갔다. 즉각은 갑자기 라는 단어처럼 확실하게를 뜻한다. 이는 흠모된 악 가운데 마음이 깊이 정착된 확증을 표현하고 그 확증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의지가 확고히 결정함이다. 그 때는 밤이었다. 영적으로 밤은 이해성의 상태를 뜻한다. 때에 속하는 것 중에서 덥고 추운 온도를 다양하게 결정하는 계절(season)은 의지의 다양한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나 빛이 있거나 없음으로 결정되는 밤과 낮은 이해성의 다른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밤은 정신적 어둠, 영적인 어둠이다. 그러므로 유다가 밖으로 나간 때가 밤이었다고 기록된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유다로 표현된 유대교회의 밤이었다. 참으로 그것은 유다로 표현되는 악이 마음을 송두리채 소유당한 죄인과 더불어 밤이었다. 유다는 빛이신 그분의 면전에서부터 어둠 안으로, 어둠의 행위를 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31. 그러므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되고, 하느님은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되신다’” 유다가 나간 지금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기뻐 날뛰듯 말하신다. 그분께서는 배반자가 황급히 떠나는 모습에서 그분의 위대한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그 일의 완성이 대단히 가까워진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류가 구속되는 것까지 보신 것이다. 주님의 기뻐하심(exultation)은 악이 제자들에게서 제거될 때, 또는 “지금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실 때의 깨끗하지 않은 한 명이 제거될 때 제자들 사이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자유롭게 팽창되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다. 불결함이 제거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그들 안에서 영광되고 하느님은 그분 안에서 영광되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치 그분이 이미 영광되신 듯 말하신다. 그 이유는 그분에게서 모든 미래는 현재이기 때문 일뿐 아니라 악이 제자들로부터 나갔을 때 그분은 그들 안에서 영광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님의 영화됨, 이것은 그분 안에서 결과된 것같이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동정녀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유한하고 악한 모든 것을 그분의 인성으로부터 제거함으로 결과되었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의 아들은 영광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분 안에서 영광되셨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두 개의 큰 행동 - 즉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들

고,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만드는 행동을 포함했다. 그분 안에서 사람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사람이시다. 인간됨(manhood)은 신성됨(Godhead)으로 들리워지고, 신성됨은 인간됨으로 내려온다. 이들은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똑같이 영광되는 일의 결과밖에 더 아니다. 전자는 후자 없이 거행될 수 없다. 영광됨의 모든 행동은 신성이 인간으로 내려오고 인성은 신성으로 올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승강과 하강이 있다. 하나는 인간이 신성쪽으로 승강하는 것, 또 하나는 신성이 인간쪽으로 하강하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됨은 이런 승강과 하강으로부터인바, 하느님은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인간은 하느님에게 승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분 자신에 관련하여 주님이 말하시는 영광됨이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게 관련해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상응차원에서 이해되어진다. 사람의 아들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이시고, 하느님은 신성한 선함으로서의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충만함과 순수함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받을 때 주님은 그들 안에서 영광되신다. 그들이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그분의 신성을 받을 때, 다시 말해 그분의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선함, 또는 그분의 지혜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하느님은 그분 안에서 영광되신다. 진리가 살아 있을 때 진리는 영광되고, 그 진리 안에서 영광된 선이 실감되어 진다.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 만큼 선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사람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영광되었다면 하느님은 그분 안에서 영광되신다.

**32.**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 되는 것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하느님께서 그분 안에서 영광되셨다면 하느님도 그분을 하느님 안에서 영광되게 하실 것인 즉 곧 바로 그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인성이 신성을, 신성이 인성을 만드는 상호간의 일이 아직도 말해지고 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됨은 앞 구절에서의 주체이고, 아버지 안에서 아들의 영화됨은 이 구절의 주체이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 안에서 그분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인성이 신성을 입었을 때 이 구절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주님이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을 때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되셨고,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셨을 때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영광되었다. 제자들이 신성한 진리를 그의 이해성에 받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는 제자들의 체험 안에 계신 아들 안에서 영광되신다. 제자들이

신성한 진리를 그의 심정으로 승강시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영광된 사랑으로 심정 속의 진리를 사랑할 때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영광된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 사랑이 우리의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느님은 아들 안에서 영광되신다. 우리의 진리가 사랑으로부터 진행될 때 하느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신다. 첫 번째 상태에서 우리는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고, 두 번째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한다. 우리가 이해성에 받은 진리가 의지에 있는 선과 하나될 때 하느님은 그분 안에서 아들을 영광되게 하신다. 그러면 진리는 순종을 수단으로 선으로 이끄는 법의 상태가 더 이상 아니고, 선함으로부터 순종하는 법일 뿐이다. 다시 말해 빛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더 이상 아니고 빛을 수단으로 사랑이 진행될 뿐이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을 영광되게 하신다고 말하신 후 이렇게 말을 추가하셨다. “그리고 곧 바로 그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됨의 확실성과 완성이 이 말씀들 안에서 가르쳐지고 뜻하는바, 아버지가 그분 자신 안에서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되 아들의 영광됨은 확실하고 완전하도록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상호적이고 완전한 영광됨이 다음 장에서 더 취급되는바 거기서 더 살필 기회가 있을 것이다.

**33.** 그분 자신에 관련되어 말하심에서 이제 제자 쪽으로 화제를 돌리신다. “어린 아이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 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부르시고 있다. 그분은 그들을 아이들이라고 이미 부르셨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순진하여 감으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셨을 때와 같은 참된 품성을 획득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눈에서 작아져 갔고, 그래서 위선과 불법이라는 누룩 속에서 더욱 더 완전하게 깨끗해져 갔다. 그러나 그들의 순진과 주님을 신뢰함은 이제 심각한 시련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분이 그들과 헤어지는 때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잠시” 동안만이 기쁨과 안전의 때요 상태였다. 그러나 이런 때가 끝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분으로서 주님을 찾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그분이 계시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을 위해 상책이다. 한 가지 상태, 어쨌든 기쁨 즐거워하고 번영하는 그

런 상태가 언제나 계속될 수 없다. 기독교인은 완전함으로 계속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 완전함은 상태의 교차 없이 달성될 수 없다. 기독교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태의 변화,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진입하게 되는 사건들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것은 죽음을 통과해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그분의 현존은 그들의 감각적인 상태와 일치되어 있다. 그분은 그들의 감각적인 마음 속에서는 죽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야만 한다. 그들 밖의 세상에서 거행된 사건들은 그들 안의 세상에서 거행되는 것들과 상응되었다. 이것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들은 주님께서 통과하시는 상태들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들로부터 이제 곧 떠나신다고 암시하셨을 때 덧붙인 말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이었다. 신성한 선생께서 여기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바, 그들은 자기들의 현 상태에서는 그분이 가시고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 말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유대인들 같은 상태, 마음이 외적 상태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와서 그들을 그분 자신으로 받아들인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그들 역시 있게 되리라고 약속해주셨다. 지금 그들은 참으로 개혁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나라에 합당하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요구된다. 주님께서는 육의 차원에서는 떠나셔야 하고, 그들이 영으로 태어날 수 있기 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되기 전, 영의 차원에서 되돌아 오셔야 했다.

34.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다. 이는 순종을 수단으로 그들이 그분의 오심에서 그분을 받을 준비가 갖추어 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실까?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옛 법도 요구해왔었다 (레위기19:18). 그러나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라는 하늘의 처방 아래 그것은 새로운 모형에 따라 새로운 원리로부터 행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이고 불멸하는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이고 영원한 원리로부터 서로의 사랑이 행동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

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해야 할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같이 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상호적인 사랑과 유대인의 상호적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받지 않고 있는 여타 다른 사람들의 상호적인 사랑들과 구분되는 아주 큰 특징이다. 우리가 그분과 적이 되는 때에도 그분은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셨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있는 수준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모방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인간 완전함의 어떤 것을 삶의 유용함과 순진함 안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을 닮을 수 있다. 그것이 그 이상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것같이 수는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 앞에 빛나고 죄없는 본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사랑했었던 사랑을 가지고 그들 안에 현존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그들 심정에 드넓게 뿌려질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영광 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각기 분량대로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받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무르고 약하며 죄있는 피조물이 구세주를 모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이 사랑은 그들 고유의 사랑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그들이 명백해지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행할 힘을 주시어 우리로 서로 사랑하되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같이 사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힘도 주신다. 제아무리 불완전한 순종이라 해도 이에 대해 감사함과 의무감을 지녔다면 자발적 행동이 없을 리 만무하다.

35. 이 계명에의 순종은 주님의 견지에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데 필요조건인 한편 인간의 견지에서도 동등하게 우리를 제자로 만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의 신분에 관한 이 테스트는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밖에 없는 테스트이다. 많은 사



람들은 오류로부터 진리를 식별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선과 악, 사랑함과 미워함은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이유는 진리와 오류는 생각에 속해 있고 그것들의 품질은 추론의 과정에 의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과 악은 애정에 속하고 그것들의 품질은 지각의 행동에 의해 알려진다. 애정의 언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보편적인 언어이다. 동물에게는 이 언어뿐이고, 그들은 이에 관해 직각적인(intuitive)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 존재는 사랑과 미움의 소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직각적으로 안다. 그들이 소리에서 그것을 식별하듯, 그들은 행동에서 그것을 지각할 수 있다. 단어와 행위에서 표현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언어이다. 사랑을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이웃과 자신에 선을 행할 것 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시켜야 하고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수준까지 서로 사랑함이 도달되게 해야 한다. 만일 이 새로운 계명이 어떤 수준에서라도 삶에서 일관되고 꾸준히 운용되고 있다면, 현존하는 교회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지! 교회 밖 세상에 얼마나 복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신실한 자들의 교제에서 얼마나 복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전쟁과 투쟁 같은 것은 중단되고, 인간 존재는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평화의 왕의 충실한 신하로서 살 것이다.

36. 제자들은 앞 구절의 교훈의 가치와 복됨을 충분히 음미한 것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사랑보다 아직은 더 적극적이다. 제자들의 믿음이 표현되고 나타난 사람인 베드로가 주님의 떠남에 관한 그분의 선포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대목은 그분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보다 그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지워주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지금엔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선포에 담긴 진짜 취지에는 아직 무지해 있었다. 이 질문이 보여주는바, 그들은 구속의 신비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아무 것도 모르고, 단지 그분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떠나시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겠느냐는 그의 질문에 있는 베드로의 목적을 예상하고 계신 것은 의심할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다. 미래의 상

태들은 그 미래의 상태에 진입하지 않은 이들, 또는 주님이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들의 심정과 지성에서 명백해지지 않은 이들에게 밝히 알려 질 수 없다. 그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 올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나 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 자신에 관련하여 훈육되는 것만으로 족하다. 물론 이 말씀은 실지 역사에서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되는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관련된 것으로 상상되고 있으나 지금의 경우 그들은 그런 상태를 요구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고 한참 후에야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교, 더욱 노력해야 하는 종류의 것, 그들이 그 때 준비되지 않았던 순교의 종류, 그래서 주님이 고통당하실때까지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견뎌낼 수 없었던 또 다른 순교도 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은 주님이 그분의 연약한 인성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때까지 그들의 자아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제자들은 큰 시험을 통해 그분의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자연으로부터 영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는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이 변화의 결실이 진열된 것인바 사도에 의해 이렇게 말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1서3:14).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생명에 연결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전달하신 이유를 알게 된다. 이런 이유는 글자적 의미만으로부터는 대단히 명백하지 않다.

37. 그분을 따르는데 제자들이 무능력함을 확실히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만족치 않게 여긴 듯 보인다. “베드로가 장담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질문과 선언은 마치 그의 사건이 보여주듯 일이 없는 믿음에 아직 머물고 있는 이들의 상태와 품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정했고 그 외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사색에 불과한 믿음, 이론으로 정연할 뿐인 믿음에 아직 머물고 있는 이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그분을 따르는 것에 무능하다는 것, 또는 그분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들의 존재가 못된다는 것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이 간

절히 바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자기들의 육이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38. 베드로의 장담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선견을 보이셨다. 인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영혼을 보셨고 그를 기다렸던 시련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 위 교훈은 얼마나 감명 있는지! 이 교훈은 우리가 자기의 심정에 관해 너무나 적게 알고 있는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들이 우리의 약함을 말하실 때, 우리의 위험함을 경고하실 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경청해야 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적 의미에서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말들은 그를 통하여 교회에 전달되고 있다. 닭이 우는 것은 교회의 밤이 지나고 새 교회 처방의 아침이 밝아왔다는 발표이다. 닭이 울기 전은 아침의 빛이 나타나기 전이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정함은 주님의 첫 오심과 두 번째 강림의 때에 종료되는 교회의 밤중에 주님을 철저히 부정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주님을 충분히 부정함이 베드로가 그분을 부정한 “세번 씩”에 표현되었다. 베드로가 믿음을 표징했듯 그의 결함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라고 예견한 것을 표본적으로 진열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정했다면 어디서 믿음이 발견되리라고 기대될까? 그러나 이 어두운 예견은 얼마나 복된 전망을 포함하고 있는지! 참으로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죄 이후 밝은 전망이 놓여있다. 닭이 울 것이다. 그리고 새 날의 아침이 밝아 올 것이다. 그 아침은 사람의 아들에게 빛과 사랑을 가져 올 것이다.

## 14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지식, 또는 기독교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귀중한 지식인바, 이 장은 성경이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들 중의 하나를 담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어떤 것들보다 더 충분하게 자신을 밝히 알리시고 있다. 이 장은 그분이 가는 곳에 그들이 따라 올 수 없다고 하실 때 그분이 떠나시는 것에 관해 그들에게 전달하는 연설에 이어지는 대목이다. 지금 그분의 말들은 그들이 그분을 향한 신앙을 통해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의 말들이기도 하다.

1. “너희(your hearts)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정신적 고민으로부터 해방 또는 면제는 예수를 믿음, 그분을 믿을뿐 아니라 하느님이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명백한 바,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하게 놓으신다는 것, 하느님을 향한 것이나 그분을 향해서나 믿음이 같아야한다는 것을 요구하시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분이 하느님이셨다 해도 아직은 하느님과 예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구분은 있다. 이 구분은 여기서 주님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으시듯 중요한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느님을 믿어라 하고 말하신다. 이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희미한 수준이고 환난에 굴복될 뿐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믿듯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곤경을 타고 넘거나 피할 수 있다. 하느님은 순수하고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신성이시고, 예수는 인성으로 옷입혀진 신성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음으로서가 아닌 육을 입으신 하느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심정의 걱정으로부터 안전해진다. 만일 하느님으로서의 주님이 걱정으로 가득 찬 심정에 평화를 줄 수 있었다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사람(Man)이 되신 이유는 하느님으로서의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상에 자신을 명백히 나타내신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의 영혼은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걱정으로부터 구원되어지려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2. 주님께서 말을 더 이으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버지를 거론하신 후 이제는 아버지의 집, 심정이 더 이상 걱정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체험만을 가지는 장소로서 그분의 집을 거론하시고 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다. 개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집은 주님이 그분의 사랑과 함께 거하는 곳, 즉 거듭나는 심정이다. 추상적 의미에서 심정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자체 아버지의 집, 그분에 대한 영예가 거하는 거주지이다. 천사들의 천국, 또는 완전을 만든 올바른 사람의 영들로 이해한다면, 많은 저택들이란 뿔뿔히 자가 살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구분된 주거지들이다. 천국은 어중이떠중이의 군중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하게 분류된 모임이고, 거기서 모든 사람 각각은 자기 고유의 장소, 자기 고유의 용도에 맞게, 자기 고유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있다. 천국은 무수한 사회로 구성되고, 각 사회는 선함의 원리가 공통된 자들, 세부적으로도 공통된 사랑 안에 있는 이들로 형성된다. 교회처럼 천국도 주님의 신비한 몸이고, 이 몸 속의 사회는 그 몸의 일부 또는 기관들을 형성하며 서로는 가장 완전하게 꼭 맞아서 하나의 장엄한 하모니, 하나의 큰 사람(Grand Man)을 형성한다. 그들이 달성한 완전의 수준에 따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런 완전한 배열은 그들의 행복에 기여한다. 마치 거기를 통치하는 질서가 행복을 창출해주는 것과 같다. 그 이유가 이런 방법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과 닮은꼴로 연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가장 자유롭게 행사하며 가장 충만한 기쁨을 만끽한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신 후,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는 말을 첨가하시고 있다. 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소견을 말 뒤에 붙이셨을까? 그분으로 말하면 대단히 가까운 시간인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일까? 아버지 집은 지금 그분께서 가시려고 서두르시는 곳, 머지 않아 제자들이 따라 가야하는 곳이다. 천국은 땅 위에서 그분의 노동의 목적(end)이었다.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의 문들을 들어올리고, 마치 영광의 왕과도 같이 그분이 들어가시고,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이들도 뒤따라들어 오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전투의 목적이고 승리의 열매였다. 그러나 교회와 천국모두 안에서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모으기 위해 제자들은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영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언어와 백성과 나라,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알도록 요구된 진리였으나 그것을 배우는 것은 느렸다. 마치 그 습득은 지상에서 완전해진 만큼 천국에서 빼어나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별과 저 별의 광휘가 다르듯 정의로운 사람의 부활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위로의 말일뿐 아니라 격려의 말이기도 하다. 영광의 모든 수준을 포함하는 그 집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의 수준을 위해 저택을 가지고 있다. 지상에서 처럼 천국에서도 손은 발에게 말할 수 없는바 우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대단히 일치되는 영원한 진리인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선포되지도 않았으리라. 천국에 많은 저택이 있듯 모든 사람을 위한 방도 있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만들고 싶어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곳도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첨가하시고 있다. 왜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장소를 예비하셔야 하되, 어떻게 예비하실까? 천국은 구속의 일에 포함되어 있었다. 주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구속하셨다. 지옥을 정복하실뿐 아니라 천국을 정리정돈하심은 주님이 육안에서 이루신 신성한 일의 대상(object)이요 결과였다. 주님의 인성의 영화하심은 천국과 교회 모두에게 각기 상응되는 변화를 초래했다. 구속자를 위한 장소로서 천국을 예비함이 그분의 승천에서 주님에 의해 완성되었다. 마치 구속자를 위한 교회를 준비함이 그분의 부활에서 주님에 의해 완성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장소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의 주님은 이것을 예비하셨다.

3.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나 자신에게 너희를 받아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그들을 위해 예비한 곳으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죽음을 수단으로 천국의 저택에로 그들을 옮기기 위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물론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체적인 의미는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오순절에 다시 오셨다. 그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높은 곳으로부터 성령(his spirit)을 부르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몇 번씩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했던 오심이었다. 위로자로서 오신 그분은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였고, 그분께서 과거 그들에게 상념하고 있으라고 말했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고 장차 올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두 번째 오심, 첫 오심의 완성이다. 주님께서는 참된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두 번째 오심을 만드신다. 그분은 먼저 훈육자로서 오시고, 그 다음 계발자로서 오신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선생으로서, 그리고 진리 속의 영으로서 오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신실한 이들을 그분께로 받는 오심이다. 이를 수단으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인 결합으로 끌어당기신다. 이러면 참되고 갱신된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없고 그는 주님의 것이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자신에게 받는 목적은 그분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게 하려해서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그분이 계신 장소가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시는 상태, 주님께서 바라는 제자들의 상태이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고향을 발견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천국적인 상태는 천국적인 장소에로의 확실한 허가증이다. 이것은 신성한 사랑의 모든 바램과 신성한 지혜의 모든 작업이 하나되는 것에서 보증된다.

4. 그분의 떠남을 말하신 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신다.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신성과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 기억 속의 지식과 이해성과 심정 속의 지식, 과학과 체험 속의 지식이다. 제자들은 지식의 한 가지 종류는 소유했으나 다른 것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알았으나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 그들도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셨었다. 그들은 그 길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던 그 상태 안에 있는 데도 이해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귀환하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게 되어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로 주님은 그분의 인성의 영화됨,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하나됨을 의미하셨다. 그분의 가심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 즉 인성이 신성의 상태로 승강됨이었다.

5.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 서술과 질문은 토마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 이유가 그는 외적인 품성 속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천국의 빛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교회의 사람들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 토마가 표현하는 인간 본성 속의 원리, 여느 다른 제자들 안에도 존재하는 원리, 즉 감각적인 원리는 토마의 말을 끌어낸 주님의 주장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한다.

6. 주님께서 토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 올 자가 없다.” 예수 자신이 길이다. 비록 제자들이 주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길이 되시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다 해도 그들이 알도록 진실로 말하셨다. 주님께서 지금 전달하시는 사상은 위대한 진리, 신약성서에 있는 위대한 진리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는 길이다. 그분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에게 나아올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주님이라는 인물(person)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임을, 그분의 인물 안에서 체현된 그분의 속성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임을 우리가 알 때만이 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으로의 길이다. 그 이유가 그분의 본질적 신성 안에 계신 주님에의 접근은 신성이 내재하는 신성한 인성이 아니면 안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밝히 알려주는 진리, 그분의 사랑을 입힌 진리이시다. 진리는 빛과 같고 사랑은 열과 같다. 열은 빛을 마치 겉옷 두르듯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로 둘러 싸여있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 사상은 요한의 선포,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1:4)와 일치된다. 생명은 빛을 생산하고, 사랑은 지혜를 생산하며 지혜로 그 자체 옷입는다. 모든 이런 품성들, 속성들의 권리를 주장하신 그분이신데 덜 신성이실 수 없다. 신성한 삼위일체(divine trinity)를 구성하는 하느님의 본성 안에 있는 필수적인 원리들의 위와 같은 구분이 이 구절에서 놀라웁게 가르쳐지고 있고 이런 구분으로 주어지는 인간에 대한 유익함 역시 지적되고 있다. 신성은 인성과 구분되고 사랑은 지혜와 구분된다. 주님의 위대한 목적(object)은 우리를 그분의 인성을 수단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가져다 놓는 것, 그분의 지혜를 수단으로 그분의 사랑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 또는 그분의 지혜만이 신성 또는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way)이다. 인간에 관련해보면 길이란 교리이고 진리는 교리와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생명은 선함이다. 선함은 교리와 진리의 생명이다. 진리의 지식이 삶에 응용되는 길밖에는 생명을 영적으



로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진리가 삶의 법칙을 만들 때 진리는 삶에 응용되어 진다. 그러면 인간은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은 그들과 현존하시어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그들 안에 있는 기쁨과 진리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주신다. 주님은 인간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 안에 계신다. 그 이유가 모든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진행되고 그분으로부터 진행된 것은 그분의 것이요 그분 자신인바 그분은 참된 모든 제자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계신다. 그리고 인간 안에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자신 안에 있을 때 이를 수단으로 그는 주님께 나아올 수 있고, 그가 받았던 것만이 그것을 주셨던 존재에로 그를 인도할 수 있다.

7. 예수께서 더 말하신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보았다.” 제자들은 예수를 알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으나, 그들은 그분을 그분의 참된 품성 측면에서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영원하고 본질적인 신성이 인성 안에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더라면 인성을 수단으로 신성을 알았을 것이다. 인성은 신성을 인물 측면에서, 품성 측면에서 명백히 보였다. 주님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인물적으로 명백히 모습을 나타냈다. 마치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 안에서 진열됨으로 해서 특징을 나타내도록 드러내졌다. 마치 인간의 의지가 그의 이해성 안에서 진열된 것과 같다. 예수를 아는 이들은 아버지를 안다. 예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습득될 때 그후로부터 그의 심정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영접함으로, 그의 이해성에서 그분의 진리를 지각함으로 해서까지 그에게 아버지는 알려지고 보여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본다. 그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 신성과 인간, 사랑과 지혜가 예수라는 한분 영광의 인물 안에 한꺼번에 있기 때문이다.

8. 더 많은 빛 또는 예증을 요구하는 제자가 아직 더 있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토마는 감각으로부터 판단하는 이들을 의미하고, 필립보는 신성한 진리의 광선에 의해 아직은 계발되지 않은 이성으로부터 판단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보기를, 신성이

밝히 알려지기를, 신성한 사랑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보는 것 즉 아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있다. 필립보와 비슷한 수준의 상태에 있는 많은 이들은 아버지가 아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마음의 눈으로라도 인물 또는 존재로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한다.

9. 필립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위의 예사롭지 않은 잘못을 고치는데 충분하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나?...” 주님께서는 필립보가 것처럼 오래, 자주 보았던 그분을 보아야겠다고 묻는데 놀라신 말투로 대답하시고 있다. 예수는 그와 오랫동안 함께 계셨는데 그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필립보가 예수가 진실로 어떤 분이셨는지에 무지했다는 바탕에서만 말해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지내 온 것이다. 예수는 아버지가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보다 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되물으신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10. 주님께서 진행하신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단일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둘의 구분됨과 하나됨의 본성 역시 가장 명백한 빛에 놓여져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나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인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라는 신성한 인물(person)로부터 구분되는 신성한 인물이었고, 모든 신성한 속성을 그분과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면 위 언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를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영혼과 육체의 관계같이 생각해볼 때 주님의 말들은 가장 의미심장한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게 된다. 육체가 하는 말

은 육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스스로 하는 일이다. 인간의 말과 일은 비록 육체에 의해 말해지고 행해진다 해도 그것은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의해, 또는 육체를 통해 영혼을 수단으로 말해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인간 안의 의지와 이해성같이 주님 안의 사랑과 지혜도 이와 같다. 지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말하고 행동한다. 이는 인간 이해성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의지로부터 인 것과 같다. 공동으로 영원하고 상호 동등한 신성한 인물들을 참작해서 우리 주님의 말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성한 존재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의 두 필수적인 원리를 참작하여 이해할 때 위 주님의 말들은 어느 방법으로도 일치되고 일관된 의미와 본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위 주님의 말들은 육을 입으신 하느님으로서 주 예수의 한분 인물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주님께서는 필립보에게 그분과 아버지의 상호적인 하나됨(reciprocal union)을 믿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시고 있다. 혹 그가 그것의 타당함과 일치됨으로부터 진리를 볼 수 없다면, 필립보 스스로가 목격자이기도 한 그분이 수행하셨던 일 때문에서라도 이를 믿으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시고 있다. 이런 일들은 그분 안에 신성한 권능이 내재함을 증거했었다. 경이로운 일들은 과거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에 의해서도 얼마큼은 있었던 것이고, 신약성서 때라 해도 사도들에 의해서까지, 아마도 필립보에 의해서도 약간의 일은 있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님의 이름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경이로운 그들의 일들을 수행했으나, 예수는 자신의 권능으로, 내재하는 신성의 권능으로 그분의 일을 수행하셨다.

12. 주님의 일들이 이렇게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시느바, 참된 제자들은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가능하다고 말하신다.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서이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주님이 수행하신 것보다 더 위대

한 일들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 그분이 말하시는 사항들은 그분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위대하나 그 일의 종류는 다르다. 그 일은 내적인바,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은 내적인 일의 그림자 내지 예징밖에 더 아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고 하게되는 더 위대한 일들이란 영혼에 관계되는 일, 영적 건강과 생명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다. 영혼이 육체보다 더 위대하듯 우리 주님이 수행하셨던 일들보다 제자들의 일은 더 위대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께서도 육으로 계셨을 당시에도 이런 영적 일들을 수행하셨다. 그러나 주님이 영화되셨던 것같이 인간이 거듭나질 수 있었을 때까지, 즉 그분이 영화하실 때까지 영적 일들은 충분히 결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신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심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하나됨(union)이었다. 영적 의미에서 이 사항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주님의 진리가 제자들의 마음에서 그분의 사랑과 하나됨은 그들로 하여금 거듭남이라는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위 선포를 읽으면서 이런 의미와 능력에서 빛나가는 것은 거의 가능치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을 놓고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수행했던 기적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행할 것임을 언급하셨다고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의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다. 설사 주님의 기적적인 일과 비슷한 일들을 제자들이 수행하도록 승인되었다해도 주님의 일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적으로 치료되고 허약한 신체가 회복되는 것은 일시적인 일뿐인바,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화하심에 뒤를 잇는 영적인 일들을 말하셨다는 것은 두 번 말할 여지가 없다. 영원한 결과들을 가지는 이런 영적인 일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이다. 선함과 하나되기 전의 진리는 개혁(reform)이고, 선함과 하나된 진리는 거듭남이다.

13.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말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행할 것인즉,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되실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묻는 것은 또 다른 인물을 위해 호의를 베풀도록 한분 신성한 인물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표현의 성격적 형체에 관한 의미가 아니다. 또 다른 신성한 인물로서의 아들의 이름으로 신성한 인물로서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보내는 기독교인의 일반

적 관습은 주님의 말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뿐만 아니라 육으로 계셨던 때의 주님의 일의 본성을 잘못 관조했던 데서 야기되고 있다. 그들이 상상했던바, 예수는 죄를 위한 만족(땃가)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열납하심을 발견한다는 것,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신성한 정의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행하셨기 때문에서 였다는 등등이다. 이런 식의 교리는 성경에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인간적인 정의와 모순되고 무한하게 완전한 신성한 정의와는 더욱 더 맞지 않는다. 신성한 정의는 위와 같이 취급당함으로부터 그 정의를 만족시켜 줄 어떤 것도 보증 받을 수 없다. 참으로 이런 양식의 만족은 하느님의 정의를 유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묻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은 무엇이든, 그가 믿고 있다면,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주님의 영의 선물이요, 인간 심정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의 영이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라는 품질을 뜻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의 방향과 그분의 사랑의 영향 아래에서 묻는 것이다. 모든 신성한 품질과 속성들은 주님의 인성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묻는다는 것은 신성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신성한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되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제출된 청원을 인정한다고 약속하신다. 아버지는 신성으로부터 인성이 수행하는 모든 구원하는 작전(operation), 또는 인성을 통해 신성이 수행하는 모든 구원의 작전 안에서, 그리고 아들 안에서 영광되신다. 우리는 위 진리를 다른 형체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신성한 사랑은 그것이 수행하는 은총의 모든 행동 안에서, 그것이 제거하는 모든 악 안에서, 그것이 인간 심정에 이식하는 모든 선 안에서, 한마디로 신성한 진리 안에서 영광되어진다.

14. “너희가 어떤 것을 내 이름으로 묻는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가 다시 주목해보아야 할는지 모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묻는 것이 그분을 위하여 묻는다는 것을 뜻할 수 없다는 것, 그밖에도 그분이 아닌 아버지가 그것을 행하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분이 말하셨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인물에 관한 약속, 즉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을 그분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는 약속에 어떤 의미를 첨부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 안에서 묻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그분의 겸허와 온유하심, 그분의 자비와 용서하심,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닐까? 그분이 하셨던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에게 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묻는 것이 제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묻은 것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을 만들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묻는 것, 즉 그분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묻는 “무엇이든” 받는다는 데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은 기도의 응답자이실 뿐 아니라 영감을 불어넣는 자가 되어 계신다. 이러면 우리가 묻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분의 이름이 기도 안에 있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불어넣으실 때까지, 그분의 영이 우리 기도의 영일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실지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기도는 명백히 나타내시지 않은 하느님이기에 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에게 보내지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도 끝 말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쳤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에 박힌 형식에 따라 기도하는 이들도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그들도 예수의 영 안에서 기도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형식 자체는 기독교적인 의미 또는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설사 그 기도 형식이 결백하다 해도 그것은 주님을 영예롭게 하는 편보다는 불명예스럽게 할 경향이 있고 해를 끼칠 경향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그 형식이 왜곡된 신뢰를 창조할는지 모르고, 그럼으로써서 마음을 참된 것에서 밀어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15.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조건을 가르치신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 자체만 생각해도 이것은 크나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사랑은 하느님의 명령을 애정어린 순종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도

록 해야만 한다. 신실한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 순종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과하심은 한편으로는 순종 없이 존재하는 사랑의 종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분의 권고가 함축하는 바, 우리는 의무들을 이행하는 가운데 사랑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 만일 의무들이 소홀히 취급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 즉 실지로는 애정의 힘을 가지지도 않은 채 이름만을 주장하는 모조품의 사랑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상 주님께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었고,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서 라고 말하시는 셈이다. 실제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 받도록 보증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위해 주님 자신의 기도해 주시는 보증도 받게 하는바 다음 절에서 진행된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가장 귀감 있는 주제는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 드림이다. 글자대로 주님께서는 굴욕 받던 그 시절에 기도하셨다. 그런데 영화되신 지금의 날에도 주님께서는 글자대로 기도하실까? 우리가 추측하는바,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받는 자보다 더 아래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육으로 계신 시대의 주님일 경우 주님의 인간성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주님께서는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러나 신성으로서의 주님이 신성에 기도하실 수 없다. 기도 할게 없는데 기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순수한 신성은 기도할 수 없다. 신성 그 자체는 기도의 대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기도하셨다. 그 이유는 그분은 연약한 인성을 옷입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인성은 신성 아래 있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있는 신성에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하는데는 장소는 없고 상태뿐이고, 상태 차원만이 인간에게 하느님과의 간격에 관한 감각을 줄뿐이다. 무한과 유한은 장소를 수단으로 분리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gulf)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인성이 유한했던 만큼, 그분은 굴욕적인 그분의 상태들, 열등감과 지독한 의존심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아버지와 하나됨

은 그분의 기도에서 최고 높은 목적이었다. 이 하나됨이 발전 과정에 있는 동안은 기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글자적 의미에서의 기도는 중단되어야 하셨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하나됨이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지혜,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이 주님 안에서 처음 결과된 이후, 인간 안에서도 있어야 하는바, 이것이야말로 내려야 할 것,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님의 기도는 인간 구원을 위한 그분의 지혜의 활동이요, 그분의 사랑의 바람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인데, 그분은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수여하기 위해 또 다른 인물을 보낸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성령, 보혜사(Paraclete), 또는 위로자(Comforter)는 이미 살핀 바같이, 주님의 신성한 인성으로부터 진행되는 거듭남의 영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같이 불리우는 이유는 구세주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분의 교회에 오시려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with) 계시나, 이후 그분은 그들 안에(in) 있으시게 되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진짜 의미는, 그것의 실제적 응용에서, 이와 그분의 여러 선포에서처럼 거듭나는 자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결과된 것, 즉 아버지와 아들의 일,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일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결과되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심이 없으면, 이 기도가 천국 안에서 있듯 우리 자신의 마음 속의 하늘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룩한 위로자의 하강은 우리에게 의해서는 결코 체험되지 않을 것이다.

17.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내주신다는 “위로자는 진리의 영(the Spirit)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불리우는데, 그것은 신성의 감화(Emanation)가 사랑을 마음에 불어넣었다거나, 진리만으로 지각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가 성령은 그분의 진리의 영일뿐 아니라 사랑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진리로 불리우기 때문에서 일 따름이다. 이 진리가 진행되어 나오게 한 것은 선함 자체이다. 그분으로부터 진행된 것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 모두를 포함한다. 진리



의 영(the Spirit)을 세상은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쪽에만 쏠린 마음, 세상적 수준의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는바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지성에 집착함으로써 그분을 보지 못하고 심정의 우직함으로 해서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로부터 명백한바, 주님 자신이 그 영이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with) 계셨고, 그들 안에(in) 계시게 되었다. 이 가르침이 힘주어 말하는 대목은 이것이다. 제자들의 상태는 주님이 계셨던 때와 떠나신 이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외적 차원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 안에 있으시기보다는 그들과 더불어 계셨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으나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알았으나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진리에 관한 영적 지각도, 그분의 선함을 위한 영적 애정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서 그들 자신의 마음이 외적 측면에 몰입해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지상에 계신 이상 상대적으로 외적이고 덜 영화된 상태에 계신 주님 자신의 상태 때문에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의 영화된 인성,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 그분의 영이 내려왔다. 또는 그분 스스로 영으로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의 심정과 이해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분의 사랑의 선과 그분의 지혜의 진리를 수단으로 그들 안에 계신다.

18. 주님 자신이 진리의 영이시다는 것이 이제 명백히 선포되고 있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위로자로서 오시게 되었다는 말이다. 주님과 영의 정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the Spirit)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게 아니다. 주님과 영(the Spirit)은 본질들에서는 구분이 되나 그 둘은 한 인물(one person) 속의 본질들이다. 실제적 측면에서, 영이 위로자로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다음 예수 자신이 위로자로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주님은 거듭나는 그분의 백성에게 오시되, 처음에는 진리의 영으로 오시어 이해성을 계발해주시고, 그 다음 사랑의 영으로 오시어 심정을 따뜻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고아들처럼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그분께서 진리만에 그들을 남겨두지 않으시리라

는 것, 그들에게 와서 선함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고아란 어머니가 없다거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이다. 아버지는 내면의 선을, 어머니는 그 선과 접합된 진리이다. 그 자녀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이다. 여기서의 고아란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서의 진리를 훈육 받았던 이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고아들은 진리 안에 있고 선을 바라고 있는 이들도 말하고 있다. 영적 의미에서 주님은 아버지이고 교회는 어머니이다. 교회는 진리로 그들의 자녀를 훈육하고, 이 진리 속에서, 이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은 선을 교통하게 하신다. 선을 교통시키는 그분은 신실한 아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의 제자들을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남겨 두지 않겠노라는 애정어린 주님의 약속이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만드는 선 없이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다.

19. 예수께서 더 말하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살아 있어 너희 또한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주님이 죄있는 육체를 옷입고 있는 동안 그분을 보았다. 그분이 죽어야만할 운명의 걸음을 더 이상 걸치고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했다. 어쨌든 세상을 영적으로 이해해본다면, 세상만의 사랑에 빠져 있는 이들이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구세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참된 제자들은 볼 수 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계실 때보다 떠나신 이후 더 선명하고 더 유일하게 주님을 보았다. 그분이 육체 안에서 계시어 그들과 함께 현존하시는 동안에 세상이 그분을 보듯 그들도 그분을 보았다. 그들이 자기들의 영혼의 구세주요 주님으로서 진실로 보게 된 것은 그분이 "그들의 시야로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이후였다. 그들의 이해성의 눈은 열렸다. 그들은 그분을 그분의 진짜 품성에서 보았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세상에 약속할 수 없던 것, 그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약속이다. 즉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너희 역시 살 것이다."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관련된 것,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되신 것, 그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기도 했다.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듯, 아버지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아들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생명은 단지 존재 (existence)라는 것만이 아니다. 참으로 존재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하신 생명

안에 포함되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으로 사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시기 때문에서이다. 그분의 인성이 살아 있고 “그 자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이다. 신성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의 생명이 인성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인성은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수단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성을 위한 희망의 반석이고 이는 육을 입으심으로부터 야기된 것인바, 예수께서 사시듯, 예수의 제자들 역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신성한 생명은 인간에게 그 자체 속박되었고, 그 자체 모든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 놓여 있어 만일 인간이 뜻한다면 누구든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20.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받는 상태와 때에 관해 말하신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다는 말은 이미 필립보에게 말하셨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살기를 시작하는 날에 그들은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뿐 아니라, 그 결과로서 그분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 그들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날이란 그들이 이것을 실감하는 상태를 뜻한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충분히 하나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함과, 신성한 지혜가 신성한 사랑과 하나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주님이 그분의 제자와 결합함은 위와 같은 하나됨의 결과요 형상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마치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 그분 안에 있는다. 예수는 신성한 자의 아버지이시다. 마치 하느님이 예수의 아버지 되신 것과 같다.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탄생하시듯,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출생한다. 제자들은 아버지 안에 직접적으로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간접적인 방법,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므로 이 아들 안에 있는 방법으로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신성과 직접 결합할 수 없고 인성을 통하는 간접적으로만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 자신과 아버지에 관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라고 말하신 것이다. 이런 상호적이고 서로 간의 하나됨(union)은 그것의 본성과 의미에

서 대단히 중대하다. 교회에서 인정된바, 주님 안에서 하느님은 사람이고,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것, 하느님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심으로 사람이고,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하느님이시다는 것이다. 신성이 인성에 그 자체 하나되심으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인성이 그 자체 신성과 하나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 신성이 인성이 되고, 인성이 신성이 되는데 있어 신성 자체가 인성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나, 인성이 그 자체 신성과 하나되는 것도 똑같이 필요하다. 인간으로서 주님의 시련들과 체험 모두는 인성이 신성과 하나되는 수단이었다. 이런 연유에서 주님은 자신을 내버려두셨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셨다. 그 이유가 그분이 모든 인간의 체험을 통하여 가지지 않으면, 자신 홀로 있는 듯 느낄 정도까지, 인간뿐 아니라 하느님도 그분을 포기하신 듯 느끼기까지 하는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하느님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분 자신과 하느님과 결함이 있을 수 없었다. 인간과 그분이 상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상호적인 하나됨이 요구되었다. 인간으로서의 주님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행위로서 인간 자신도 주님과 합쳐질 수 있었다. 인간은 주님처럼 스스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나 인간은 마치 스스로 행동한 듯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그렇게 행동하게 한 힘이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함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런 상태는 주님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 체험으로부터 결과된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준다. 그 이유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 각각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닌바,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모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21. 신성한 선생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분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이 그들 안에서 구원의 섭리 속에 계실 것인지를 말한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사랑한 것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셨다. 이미 우리가 아는바, 사랑은 결합의 수단이요 하나됨의 끈(bond)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 그러므로 그분과의 결합을 가진 이들인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들이다. 흔히 생각하는 사랑,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조차 사랑을 느낌(feeling) 같은 것으로 흔히 착각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의 강도를 개인적으로 그분을 향한 그들의 느낌의 열렬함에 의해 측정한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한 개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느낌을 깊게 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상념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인간을 한 개인 단위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품격에 따라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그분의 품성에 따라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분의 본질 측면에서 사랑과 지혜이시고, 선함과 진리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비, 관대, 용서, 진리, 정의, 거룩하심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구성하는 위와 같은 품질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품질을 사랑하여 심정 안에서 흠모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이런 품질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그런 품질을 획득하여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들을 실천하는 길뿐이다. 우리는 의지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사랑을 존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가 생활을 통해 행동하게 함으로 사랑이 존재하도록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고 싶다는 것만으로 사랑할 수 없으나, 사랑이 바탕으로 깔린 선을 의지로부터 행동해냄으로 사랑이 오게 할 수 있다. 사랑으로부터 순종함이 튀어나오기 전, 사랑은 순종함에 의해 획득되었어야만 한다. 사랑은 거듭나는 마음 속에서 가장 높은 품위(grace)이고, 사랑보다 낮은 모든 품위들을 통해 승강함으로서 도달되어 질뿐이다. 순종은 우리의 천국적인 집을 짓는데 기초이다. 순종은 영적 사다리를 놓는 땅이다. 이 사다리로 영혼은 모든 여타 품위들을 통해서 사랑과 선함의 천국으로 기어오른다. 영혼이 승강하는 수단인 사다리는 영혼이 하강하는데, 즉 하느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인간에게 유용한 삶으로 하강하는 수단이다. 이런 두 번째의 영적 삶의 단계에 있는 순종은 첫 번째 시도된 순종보다 훨씬 더 완전한 품성이 되어 있다. 첫 단계의 순종은 두려움

으로부터 비롯되지만 둘째 단계의 순종은 사랑으로부터이다. 첫 단계의 순종은 의무의 수행이나 둘째 단계의 순종은 기쁨으로부터 진행된다. 사랑은 그것에 적절하고 불가결한 기초로서 여전히 의무 위에 안주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는 특출하고 영원하게 진리인 것이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심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바, 주님의 지혜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진리를 행함은 진리의 영을 위해 길을 준비한다. 주님은 진리의 영, 그분의 진리가 깨끗하게 한 그분의 영, 또는 사랑의 거주지로 준비된 심정 안으로 들어가신다. 주님이 말하신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자신에 의해 사랑될 뿐 아니라 아버지께 의해서도 사랑될 것이라 말하시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정 안에 있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애정 안에 있을 때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객체가 될 때만이 아닌 주체일 때에도 주님은 참되고 실용적 측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애정의 목적물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명백히 나타내 보여주신다. 사랑을 수단으로 마음에 거주하는 신성한 지혜는 그것에 실례(illustration)를 준다. 그리하면 주님의 지혜는 더 이상 법칙이 아니라 빛이다. 다시 말해 주님이 구세주로서, 사랑과 진리를 주시는 분으로서, 그것들이 수여하는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빛이다.

22. 이 가르침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아직 또렷해 있지 않다. “가리웃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 유다는 서간문의 유다이고, 그는 주님을 유일하게 슬기로운 하느님, 구세주로서 그분만이 단독으로 신성하심을 명백히 증거한 사람이다. 이런 유다지만 이 당시는 덜 계발된 상태여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제자들은 이제 세우실 나라, 일시적일 뿐인 왕국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 왕국을 세우면 세상에 드러내질 수밖에 없을텐데 자기들에게만 드러낸다 하신 주님의 말에 놀람과 실망을 제자들 모두가 느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위 대화는 이 사도가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Judas 또는 Lebeus)으로 기록된 유

일한 것이다. 사도들의 이름이 열거된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은 마지막 켤에 있고, 누가(6:16)의 경우 비록 그가 가리옷 유다와는 아주 다르지만 어쨌든 가리옷 유다 다음에 그의 이름을 적고 있다. 가리옷 유다가 인간 본성의 육적원리(corporeal principle)를 표현하는바, 지금 말하는 유다는 그 원리 다음에 해당되는 원리, 즉 감각적 원리(the sensuous)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가리옷은 아니다. 그는 참된 제자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진리를 알고 있으나 후에 다음 구절같이 표현했듯 충분히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유다서1:20,21). 유다의 질문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명백히 나타내심의 본성을 알고 싶은 바램, 즉 제자들에게 있어지는 명백히 나타내심의 본성과 세상에 만드는 명백히 나타내심의 본성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음을 표현하고 있다. 신성한 지혜가 어느 시대에서 이든 밝히 알려던 방식과 다름없이 그 지혜는 인간 납득의 일반적 상태에 따라 보여졌는데, 이 밝힘은 진리를 문의했던 이들에게 그 진리를 주는 방식으로 진리의 뜻을 암시했다.

2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선포에서 주님은 유다에게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명백히 나타내 보이시되 세상에는 그렇지 않게 되는지를 지적해주시고 있다. 그분의 명백한 현존은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의 말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지키지도 않는 세상에는 그분이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도 없다. 이 설명과 주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셨던 서술 사이에 어구상의 차이가 있으나 아주 경미한 차이이지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예수께 말하셨다. “내 계명을 가진 사람이 그것들을 지킨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말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전자의 경우, 순종의 사랑의 테스트로서 주어졌고, 후자의 경우 사랑이 순종의 원인으로 주어졌다. 그럼에도 둘 다 선한 행위 없이 사랑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말을

지키기 위해 그분을 사랑해야한다.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관해서, 그리고 그분의 오심에 관해서 말하신다. “우리는 와서 그와 함께 우리의 처소를 만들리라.” 이는 하나된 사랑과 지혜가 제자들에 의해 영접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은 사랑있는 제자들에게 올 뿐아니라 그와 함께 살리라는 것에 대해 확증된 믿음과 사랑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해성과 의지 모두에서 영접되는 상태이다. 그 이유가 “오리라”는 것은 이해성에 받아들임을, “살리라”는 것은 의지에 받아들임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24. 그 반면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구절의 앞 대목은 이미 설명한 셈이다. 그 이유가 이미 생각해보았던 진리의 부정적 측면밖에 더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의 말을 지키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말을 행하지 않고 지킬 수도 없다. 주님의 말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하심으로 그분의 말의 권위를 역설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신성한 인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분과 아버지는 동등하게 신성이시고 한분 하느님이신데 그분의 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위 구절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아버지는 신성이시고 아들은 인성이시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입술이 발음한 말들이 육체의 것이 아닌 영혼의 말인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보자.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밝히는 심오하고 위대한 진리를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이 말하신 단어들은 지혜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은 그분의 말들의 원천이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말과 일들의 진짜 근원이다. 그분의 말들은 사랑의 말들이다. 참으로 그 말들은 지혜의 말들이나 그 말들은 사랑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온 것이고, 그 말들의 참 본질은 사랑이다. 그 말들은 가장 영원하고 무한하며 가장 부드러운 사랑의 참 형체요 표현이며 사랑으로 숨쉬고 있다.

25,26. 그분에 대한 의무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이렇



게 지금 말하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위로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육안에 계신 동안 자신을 그들에게 부분적으로만 밝히 실수 있었던 것처럼 말하시고 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열매맺을 수 없었다. 성경의 법규(canon)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교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밝히 알려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밝히 앎(revelation)이 추가되어야 했다. 더 높은 계시란 말씀의 글자뿐 아니라 그 글자 속의 영, 내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위로자(comforter)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고 그분이 그들을 가르쳤던 모든 것을 되새겨 보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위로자란, 지상에서의 주님이 베푸신 권능과 덕행의 모든 것, 현재 그분이 거주하시는 영화된 인성에서 체현된 구원하는 품질의 모든 것을 그분의 영(the Spirit)이 그분과 함께 가져다 주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게 되었다. 제자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전달한 말들의 모든 것 중 기껏해야 아마도 절반밖에 이해되지 않았는듯하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해되어진 것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분의 말을 이해하는 자질조차도 없었다고 단정하는게 더 나은 설명일지 모른다. 주님이 그분의 체험을 거쳐 천국으로 승강하시고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제자들에게 되돌아 오실 때까지 그들은 건설이 완성된 천국의 신비를 알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불완전하게 이해되었을뿐만 아니라 잊혀졌는지!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것과 삼일만에 다시 일어나신다는 예견이 여러 번 반복되어 말해졌는데도 잊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는 제자들의 건망증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 이유가 영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은 자기가 실감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적인 기억은 이해성 측면에 속한다기 보다는 심정측면에 속하는 기억이다. 그 이유가 그것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애정을 기록하고, 생각이 애정의 형체 또는 애정이 바깥으로 출생했을 경우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해서 성경 안에서 심정은 기억으로서 자주 말해진다. 주님의 말씀의 글자와 영에 관한 것도 이와 같다. 제자들이 글자에 있으면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과 함께

현존하지만, 제자가 영 안에 있으면 주님은 성령으로서 그 제자와 함께 계신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 그들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것들은 그들의 수용력의 한계 내에서 왔고, 그들의 상태에 일치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그들의 회상(remembrance)안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들이 잊었던 사실(fact)들까지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들 안에 포함된 것, 즉 그들이 거의 이해 못했던 언어나 비유로 주어졌던 것 안에 포함된 것까지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게 있어 그것들을 더 가르치시고자 해서 라거나 씌어진 말씀 안에 밝히 보이지 못하는 대목이 더 있어서 그분의 영이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신다는 뜻으로 이 구절의 주님의 말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된다. 성령은 성경과는 별도로 무관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을 수단으로 가르친다. 성령은 성경이 포함한 진리를 제자들의 마음에 성경 속의 진리들에 관한 영적 지각을 줌으로서, 마음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을 더 내면적으로 관조하도록 열어줌으로서,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알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사항들을 들추어냄으로서 성경에 포함된 진리들을 가르쳐 준다. 주님의 영(the Spirit)의 가르침은 사람의 아들의 가르침과는 수준에 있어서, 종류에 있어서도 다르다. 주님의 영은 글자를 추가하는 식의 계시는 주시지 않고 단지 주어졌던 말씀을 펼쳐 보여준다. 주님의 영은 주님이 가르쳤던 것외의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신다. 주님의 영은 계시된 진리를 확장하는게 아니고 단지 계시된 진리의 모든 계통을 드높인다. 그리고 주님께서 글자로 주셨던 계시의 영을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의 가르침은 사람의 아들의 가르침에 의해 시도되어졌고, 그 영이 제안한 모든 계시는 계시된 말씀이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검사(test)되어진다. 주님의 영의 가르침은 사실상 계시들이라기보다는 예증(illustration)들이다. 이 사항은 우리가 차후 살피는 주님의 강연에서도 더 충분히 알게 된다.

27. 주님의 영을 선물하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평화를 선물하시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순진과 평화는 완전해짐과 행복됨을 이루는 가장 깊은 원리이다. 순진(innocence)의 상태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했고, 그 상태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이

런 결과가 있기 위해 주님은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그분의 인간성을 순진 자체로 만드셨다. 그분은 인간을 자신 안에서 신성한 본성에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셨다. 이리하여 죄가 인류 안에서 파괴해버렸던 순진과 평화는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안에 있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져와졌다. 주님께서 “나의 평화, My peace”라 일컬으신 주님 고유의 평화는 주님 자신의 인물 안에서 인성을 신성에 완전히 일치되게 함, 또는 하나됨의 결과 또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물(person)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union)은 본질적이고 완전한 평화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정 안에 있는 적개심을 제거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일치되는 바, 그분의 평화를 나누어 받아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수단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자신에 일치되게 해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과 떨어져서 하느님께 적의를 품고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분의 육 속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닦할 데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일치시키셨습니다” (골로새1:19,20).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서 있는 벽을 허무셨으며, 적의를 품은 것, 즉 교회 의식 안에 포함된 명령의 법들까지 그분의 육 안에서 폐지시키셨습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둘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만드셨고, 적개심을 제거하는 십자가를 수단으로 한 몸 안에서 하느님에게 둘 다 일치되게 하셨습니다” (에페소2:14-16).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 안에서 작업된 일을 수단으로 그분 스스로 평화의 왕이 되게 한 수단에 상응하는 평화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다. 인간 마음에 있는 평화는 타락된 심정 속의 적개심(enmity)을 제거하심으로 생산된 상태, 주님의 영에 의해 타락된 심정이 갱신된 상태이다. 새 심정과 새 영은 새로운 본성의 본질들이고, 그 안에 주님의 평화가 머문다. 주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하나됨이 그분 고유의 평화이듯, 우리와 그분과의 결합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평화이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결합함은 우리 내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결합에 의해 결과되어진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첨가하신 말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었다. 그분의 평

화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세상이 수여하는 평화의 반대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어 생산된 평화인바 정복된 열정(passion)속에 그런 평화는 없다. 그것은 바깥쪽 평화이지 내향의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평화이지 영적인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인 삶의 평화이지 영원한 평화는 아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평화 아닌 평화이다. 이 평화 안에는 불만, 시기, 미워함, 무자비함이라는 자벌레(cankerworm)가 있어 심정 속의 순수한 모든 애정, 참된 모든 즐거움을 먹어 치운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을 극복한 이들의 평화이고, 그분은 세상을 극복한 이들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 우리는 정복자 그이상되시는 오직 한 분, 죄를 이기는 승리의 평화이신 오직 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의 권고, “너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경청할 줄 믿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와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안에 사랑과 진리가 하나되어 평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악도 거짓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 인간과 더불어 평화에서 우리는 악으로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수도 없으며, 거짓으로 해서도 근심할 이유가 없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환난을 가지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닌 내향의 평화를 결코 파괴하지 못한다.

28.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시고 되돌아오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을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그들 심정을 채웠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만일 그들이 그분을 사랑했다면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시고 있다. 만일 제자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분의 구원하는 미래의 일을 돕는 모든 것에서 기뻐할 것이다. 구원을 결과하기 위한 수단, 그것을 설비하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의 영화하심,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됨이었다. 주님을 사랑함은 이런 사항에 언제나 기뻐해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영적 기쁨의 원인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제자들의 것이 표현한 상태일 경우 인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참된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거

의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가 알고 있었고 사랑을 했다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분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서이다.” 아직은 신성이 인성보다 더 위대하시어 있다. 완전히 영화되기 전의 인성은 신성 아래에 있다. 신성한 인성으로부터 계발과 사랑, 평화가 오는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은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되어 가는 발전단계였다. 이 하나됨은 기쁨의 원인이었다. 기쁨은 사랑에 새겨진다. 사랑 안에 기쁨이 있다. 그 이유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던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제자들 안에 국한되고 있지만 이 말들이 전해지는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의 제자들 못지 않게 중대하다. 내적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바깥 인간에 있는 하느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이시다. 거듭남이 진보하는 동안 외적 인간에 있는 진리는 내적 인간에 있는 선을 찾고 그 선 쪽을 향해 전진하여 하나된다. 선은 진리보다 더 위대하나 그들이 하나될 경우 각각은 동등하고 둘은 하나이다.

29. 우리의 주님께서 더 말하신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믿지 않았다. 그 이유가 우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이 죽음을 지나 영광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책인 것은, 사건들이 그 예견을 성취할 때 그들이 믿도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르쳐 주어야 했다.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진리는 미리 말하고 선은 미리 말한 것을 충족시킨다. 지식은 예견이고 경험은 성취이다. 영적이고 구원하는 믿음은 체험을 수단으로 온다.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진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믿는 것은 심정이다. 진리가 충분한 믿음을 생산하거나 또는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진리가 선에 하나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30,31. 주님께서는 다음의 말로 강연의 이 부분을 결말지으신다.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왕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는 나에게서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자 일어나 가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 오셨던 그 일이 성취되는 때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일이

끝났을 때 그분은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시었다. 즉 그분자신의 신성한 의도를 행동
 해내시는 것, 그분의 일이 그분과 더욱 더 밀접하게 하나되도록 이끌어 내는 일을
 수행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말하시는 때와 아버지가 그분께 하라고 하신
 것을 행동하는 때 사이에서 이 세상의 왕들이 인류를 구속하는 주님의 목적을 꺾으
 려는 마지막 결정된 노력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
 고 끔찍하게 주님의 체험에서 실감되었는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
 던 명령은 그분의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목숨을 얻는 것이다. 이 명령은 신성한 법
 이 요구했던 모든 행동을 포함했다. 그 이유가 마지막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두 세
 계에 있는 악의 모든 권세가 저항했을 때 사랑과 지혜의 권능도 적극적이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악마는 이 세상의 왕이라 불리우고 있다. 세상을 사랑함이 이 세상의
 왕이다. 그 이유가 이 사랑은 세상에서 통치하는 사랑이고, 세상이 그의 제국을 가
 진 곳인 자연적 마음에서 통치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하셨다. 이 세상
 의 왕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후에 주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을 정복했다” 라
 고 선포하셨다. 어쨌든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왕들이 그분 안에서는 시
 험받게 할 어떤 바탕을 발견 못한다는 것을 뜻하시려고 말하신 게 아니라, 시험은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으로 확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뜻하신 것이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이 그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하신 게 아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왕이 그
 분 안에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세상은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했다
 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가 담긴 구절은 소경 되어 태어난 사
 람에 관련해 제자들에게 말하실 때이다. “이 사람도, 그의 부모도 죄가 있지 않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 안에서 명백히 드러내져야 한다” (9장3절). 제자들에
 관련해보면, 주님의 말들이 가르치는바, 말과 행위 사이에, 진리를 받음과 선을 행함
 사이에, 지적인 믿음 상태와 실용적인 믿음 상태 사이에는 다툼의 상태가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이 다툼은 더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더 높은 상태를 소개하고, 기독교인이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도록 인도한다. 이
 런 상태에 선행되는 상태가 진리의 상태와 시험의 상태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
 면, 우리는 주님께서 결말짓는 말 “일어나라. 여기에서 가자”에 관한 의미를 볼 수

있다. 이는 바램의 표현인 것, 구세주께서는 신실한 자의 심정에 언제나 영감을 주시면서 그 심정이 진리의 상태에서부터 선의 상태로 승강하도록, 환난의 상태에서부터 평화의 상태로 오르도록 노력하시고 있고, 이를 수단으로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세상은 두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세상은 그것과 관련되는 애정과 생각으로 구성되는 자연적 마음이다. 이 자연적 마음은 세상을 사랑함이 그 마음의 왕으로 군림하는 동안은 악이다. 그러나 그 왕이 정복되고, 세상 사랑이 굴복될 때 세상 자체는 그것의 통치자로서 주님을 알고 인정할 수도 있다.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애정을 세상 위로 올리는 것이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등의 삶에서 이미 획득한 보다 높은 원리들을 수행해내는 것이다.

## 15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과 아버지와의 관계, 제자들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전달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그들이 그분께 기대고 있던 식탁에서 일어남에 뒤이어 있었고, 성안으로 그분과 함께 가고 있다. 이때 그들에게 그분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대한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

1. 주님께서는 그분과 아버지, 그분과 제자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지금 그분은 그 관계의 본성을 예증하시고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분과 아버지, 그분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소개된 주제들 중 가장 아름답고 교훈적인 예증이다. 창세기의 시작에서 주님이 그분의 교회에 생명을 주시어 유지존속되게 하시는 분으로 교회와 더불어 현존하심이 동산 한가운데 심어져 있는 생명의 나무를 수단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되었다.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과일을 먹는 것, 또는 그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려 시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묘사되고 있다. 인간은 지식의 나무의 것을 먹음으로 생명의 나무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상실했다. 주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짓부수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분의 자녀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분으로서 오셨을 때 그분은 영혼의 중앙에 사랑이라는 생명의 나무를 새로이 심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하느님의 낙원으로서 갱신되어지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세상 안에서 입으셨고 영화하셨던 인성이야말로 참으로 생명의 나무이다. 이 인성 안에서, 이 인성을 통하여 교회와 교인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참 포도나무”로서 자신을 보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서 있는 관계를 설명하신다.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상응되는 관계로 정립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그분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상응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인 것은 그 시작에서나 그 발전과정에서나 공히 같은 관계에 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듯, 인성은 신성으로부터 탄생되었다. 주님의 신성이 인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성이 완전히 영화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지휘하면서 돌보심은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다. 추상적, 또는 내적 의미에서 포도나무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상징하고, 농부는 그분의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의 주님을 예징하고 있다.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 위에, 또는 그 진리를 통해 작동하심은 비유 전체를 망라해 취급되고 있다. 먼저 신성한 선이 인성 자체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그 다음 주님의 몸의 멤버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작용하는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2. 그러나 인성이 그 주체가 되어진 신성의 작업이 더 세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비유를 주님 자신에 관련시켜 먼저 생각해 본다면, 가지들은 동정녀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그분의 인성에 소속된 인간의 애정들이다. 주님이 입으신 타락된 본성이 뿌리로부터 자라 오른 것들은 그것을 자라게한 뿌리와 속성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열매가 없었던 인간 본성의 모든 애정은 제거되어졌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모든 애정은 자연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숙청되어 더 많은 열매, 더 풍부할 뿐 아니라 더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제거되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수단으로 주님의 인성은 점진적으



로 완전해지셨고, 참 포도나무-주 구세주의 신성한 인성에 접목되어 가지가 된 이들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의 자체를 만드셨다. 이런 의미들은 비유의 두 번째 가는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두 번째 의미의 응용에서 포도나무는 주님 자신인 영광의 몸이 아닌 천국과 교회에 의해 형성된 그분의 신비로운 몸에 대한 예징(type)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해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제일 가는 분이시다. 그 이유가 천국과 교회는 그것들을 조립한 근원적인 것들로 구성되는게 아니라 천사와 인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즉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것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천국과 교회는 인간이라는 수용체들로 구성되는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신성한 사랑과 진리로 구성된다는 말이다. 비록 주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받는 그릇은 분리될 수 없다 해도 그것들은 구별되어질 수는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릇에 담긴 주님만에 속하는 선함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주님의 몸의 멤버가 된 이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이 참 포도나무 가지는 아니다. 그들이 천국과 교회와의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얻는 가지가 되어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천국과 교회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고 있다. 인생 초기에 모든 사람 각각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순진의 상태와 심정이 단순한 상태에 있는 동안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위의 상태를 지나가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은 포도나무와의 연결이 잘리워진다. “나에게 붙어있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분은 쳐내신다.” 열매 없는 가지들은 나무에게는 방해물일 뿐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외에도 열매를 맺는 가지들의 열매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한 열매를 생산하지 않는 가지들은 포도나무의 주스(juice)들을 죄를 위한 영양분으로 돌려놓음으로 악한 열매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 자체를 위해서,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라도 쳐내야만 한다. 그러나 열매가 아무리 작더라도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면 포도나무와의 연결이 계속 존속되고, 그 가지의 불완전함을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포도나무는 그 나무 가지가 아무리 넓게 퍼져 있다해도 모든 가지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농부는 모든 가지가 유지 존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가지들이 그 자체

뿐아니라 다른 가지에 무익하고 해를 줄 때만에 한해서 그 가지들은 잘라진다. 자기들의 불순물을 기꺼이 잘라내는 이들, 개혁이라는 잘라내는 과정을 기꺼이 수락하는 이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완전해지는 과정에 진입하는 이들은 유지 존속되어 그들을 성장하게 한 줄기(stem), 접목되었던 줄기로서 포도나무와 조화를 이룬다.

3.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분 자신이신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이 비유를 응용하시고 있다. “지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말을 통해 깨끗해 있다.” 순수해짐(purification)은 진리를 수단으로 결과되는데, 성경에서 물로 상징되어 있다. 아마 주님께서서는 방금 전에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다” 라고 말하셨을 때인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 즉 의미 있고 상징적인 행동을 암시하고 있으신 듯 여겨진다. 그분의 진리로 순수해지는 효력은 그분의 피가 순수하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으로도 역시 묘사되어진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셨던” 바로 그분이시다(요한계시록1:5). 그리고 저 수많은 군중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말이를 빨아 희게 만들었던” 바로 그들이다(계시록7:14, 히브리9:14, 요한1서1:7). 주님의 말씀이 순수해지게 한다. 그분의 말은 인간을 가르치고 악을 금하는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회개의 일을 수행하게 한다. 주님의 말이 순수해지는 일을 결과한다는 것, 그분의 말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이 진리 안에는 구속하심과 영화하심의 주님의 일들의 권능과 공적이 포함되어 있는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함이 있다. 이것은 특출한 의미에서 그분의 피로 의미되고 있다. 이 피는 죽은 자의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성한 몸의 피로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깥쪽 상징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주님의 피는 깨끗하게 할뿐 아니라 살아있게 하고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있다. 이 피란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다. 그 이유가 우리의 죄로부터 피로 우리를 씻으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이기 때문이다.

4.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분과 제자들 사이에 존속하는 관계의 본성을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매우 극명하게 묘사하시고 있다. 가지는 그 가지의 생명 전체, 결과적으로 가지가 열매맺는 능력까지 포함되는 모두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은혜를 입고 있다. 참으로 가지는 잎을 통하여 대기로부터, 그리고 뿌리를 통하여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영양이 공급되는 그 자체의 힘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에 전적으로 기인되는 것이다. 참으로 예징(type)과 대형(antitype) 사이에 차이가 있듯, 자연계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자발적이고 선택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나 영적인 포도나무와 가지는 자유 의지(free will)를 소유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참 포도나무로서의 그분 안에서 가지로 있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열매맺는 살아있는 가지이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분의 교회의 멤버들은 그들이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살든지 살지 않든지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매맺을 것인지 열매맺지 않을 것인지도 선택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라고 말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다. 따라서 이 말씀이 보내지는 이들에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자유가 없다면 권면의 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호소하심, 죽음보다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호소,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그분과 연결된 채 남아있음으로서만 존속된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고집스럽게 떨어져 나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근원에 남아 있는 게 유리하다고 제자들에게 호소하신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가지의 직능이요 그 씩씩이 이다. 모든 종교는 삶에 연결되어 있고 종교의 생명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요점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아니라 선함 자체이신 그분의 권능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들은 주 예수와의 영적 연결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선들은 실제의 선이 아닌 가상의 선(apparent good)이다. 다시 말해 가상적인 선은 그것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선일는지 모르나 그것을 행한 당사자에게는 선이 아니다. 이 선은 선함의 어떤 동기로부터 실제로 행해지지 않

는다. 그것은 주님의 영으로부터 행해진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영으로부터이다. 이와 같은 선은 그 선의 본성 측면에서 일시적일뿐아니라 그 선이 존속되는 동안에도 일시적이다. 그 선을 행하도록 자극한 동기는 세상 속에 있는바, 세상과 더불어 끝난다.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잘리워지는 열매 없는 가지는 내던져져서 시들고 말 것이다. 그것의 심판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심판과 같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마가11:14).

5. 농부의 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그분이 사용하신 형상의 의미를 설명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사람안에 머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없이 너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시기 위해 고용한 언어는 그분의 본성과 권능에 관한 가장 빼어난 생각을 주고 있다. 무한하지 않았던 존재는 이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언어는 예수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힘과 영적 생명이라는 것외 무엇을 더 함축할까? 그들은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힘으로 행동한다. 그분 없이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언어는 이런 생각, 즉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본보기를 모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단지 따라감으로 획득되어진다는 생각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그분의 제자들이 생명을 가지는 것은 예수께서 계셨었고 행하셨던 것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고 행하시는 것으로부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본보기로서 뒤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모든 권능을 가지신 오직 한 분으로서 그분을 찾고 있어 그분 안에 머물음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접목되어야 하고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그들의 자양분을 끌어들이야 한다. 열매를 맺음만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음이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살아 있는 결과이다. 제자들이 더 많이 받게 되면 그분께서는 더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분은 선한 모든 일들 안에 충만해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음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편,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이고 천적인 것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나 스스로 행위자의 영혼을 풍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심정 안에 정의와 평화라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나타내거나 명백히 보이게 만들지는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후, 즉 선을 행하기 위한 지상적인 모든 동기들이 죽어질 때, 진리는 밝혀질 것이고, 영혼은 별거승리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없이 너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6. 지금 우리는 참 포도나무로서 주님 안에 머물르지 않은 결과를 배운다. “내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열매가 없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없다. 이 구절에서 말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 안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 안에 머물지 않는 것에 대해서이다. 주님께서는 누구로부터서도 그분이 머무시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오로지 인간이 머물지 않음으로 인해 밖에 버려지는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 명목상의 제자들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된 믿음과 사랑을 원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밖에 내던져져 시들어지는 가지외에 더 다른 운명이 남아 있지 않다.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하느님의 영광도 타인의 선을 위해 더 이상 생명 있고 번성하여 열매맺는 것이 없을 경우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밖에 더 합당한게 없다. 모은다(gathering)란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의 전체로서 가져다 놓은 것을 표현한다. 주님께서는 전 인류의 애정들을 하나의 사람이라는 형상으로 되게 하기 위해 통일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안으로 정의로운 자들을 모으신다. 마치 농부가 밀을 곳간에 모으는 것과 같다. 천사들은 뽑은 자를 천국 이쪽에서 저쪽 까지 사방으로부터 모은다. 사악한 자들의 애정이 그 애정을 통치하는 사랑을 수단으로, 그 사랑 주위에 모두 모일 때 사악한 자들은 모아진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랑이 완전하게 주도권을 쥐어 악의 욕망으로 명백히 나타날 때 사악한 자들은 불에 던져 진다. 그리고 그들이 배웠었던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모든 생각과 애정에 불이 붙여질 때, 그래서 미워함, 복수심, 무자비한 모든 것의 바람으로 태워질 때 사악한자는 불에 타는 것이다.

7. 위와 반대되는 경우를 주님께서 계속 말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면 너희가 뜻하고자 묻는 것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지리라.” 주님 안에 머무는 이들은 그들이 묻는 것이 무엇이든 받게 된다. 그 이유가 그들은 주님 자신이 묻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는 신성한 의지에 동의할 수 있는 것밖에 더 이상은 물을 수 없다. 그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뜻한다. 참으로 그는 주님의 의지로부터 행동한다. 그 이유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신성한 본성을 구성하는 신성한 속성들의 사랑 안에 있는 것외 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과 믿음의 상태를 확증함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묻는 그 사람은 주님이 수여하시되 기뻐하시게 되는 것을 달라고 한다. 영적 수준의 마음을 지닌 자는 영적인 것만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요구야말로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다. 만일 그가 시련 또는 고뇌로부터 해방되기를 구한다면 그는 주님 자신이 물으셨던 것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여 신성한 뜻에의 복종을 구한다. 우리 같은 인간의 경우 주님이 그분의 기도에서 달성했던 완전해진 높이에 도달 가능해질 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을 자신의 분량껏 성실히 바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의 기도들은 주님의 기도의 본성에 참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받는 대답들은 예수께서 받으셨던 것 같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뜻하는 것을 물어라” 라고 표현하셨듯 참된 제자의 바램이나 뜻하고자 하는 것에는 할당된 한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무엇을 뜻하든지 구하라”는 말의 밑그림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물어야 하고 또한 열심히 자주 묻기를 바래시고 있다는 것이다. 신성한 뜻인즉, 인간은 높은 데로부터의 영적인 선물을 게으르게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뜻한 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애원하는 의지가 묻는 것은 무엇이든 획득한다는 약속은 주님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그 사람 안에 주님의 말이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꼼꼼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문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 주님은 기도의 영을 주시고 그분의 말을 통해 그분은 기도의 주제를 가르치신다.

8.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받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쪽으로 인도한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안에서 나의 아버지는 영광되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일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법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을 수단으로 아들이라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영광되실 까? 우리가 아느냐, 주님은 아들이실뿐아니라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사랑 측면에서는 아버지이시고, 지혜 측면에서는 아들이시다. 인간의 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있어질 때 아버지는 인간의 그 일 안에서 영광되신다. 그 다음 신성한 사랑은 그것들을 수행하는 제자 안에서 영광되신다. 그 이유가 제자들이 사랑의 열매인 선을 행한 만큼 하느님의 사랑은 제자의 심정 안에서 드높여진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나의 제자일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진리를 배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선을 행함은 진리를 취득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한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한다. 우리가 더 사랑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을 가진다. 우리가 심정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 드높일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를 이해성 안에서 더 명백히 보게 된다. 우리가 아버지를 더 영광되게 할수록 우리는 아들에게 더욱 신실한 제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라.” 주님의 인성이 지닌 중재하는 특성이 여기서 놀라웁게 드러나 있다. 주 예수는 아버지와는 구분된 인물(person)로서 아버지에게 중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흔하게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주님의 중재인 같은 일은 실지로 인간을 지도하고 있다. 쌍방에 필요한 것은 일치되는 것뿐이다. 하느님은 인간에 수여하시려는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직 필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육을 입으시기 전에는 하느님의 선물이 인간에게 교통될 수 있는 적당한 매체가 없었다. 주님이 입으시고 영화된 인성은 지금 이와 같은 매체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직접 건너갈 수 없었던 구원의 선물이 지금은 주님의 인성을 통해 오고 있다. 신성한 사랑은 주님의 인성 안에서 인간이 되어간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 안에 숙박되어진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그분

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이런 언어로,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로 묘사되고 있다. 신성한 사랑이 주님의 인성에서 역사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에서도 작업되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말의 글자적 의미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 사랑의 대상(object)이고, 인간은 아들 사랑의 대상이다. 만일 우리가 영적 생각에 일치시켜 말한다면, 아들이 아버지 사랑의 주제가 된 것 같이, 인간은 아들 사랑의 주제가 되었다 인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를 표현한 셈이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인간은 주님께서 영화하신 것을 수단으로 그것과 똑같은 과정과 방법에서 거듭나진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심정 안으로 내려오는 매체를 설비하실 목적에서 하느님이 육을 입으셨다는 것, 이 위대한 진리는 그 얼마나 경이로운지! 따라서 주님의 권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있어라”는 말씀은 그 얼마나 중요한가!

10. 지금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를 가르치신다.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 것과 같다.” 우리의 주님께서 말하시는 명령들은 구속의 일에 관련되어 아들에게 지운 어떤 특별한 명령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지상에 오셨던 영원한 법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명령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들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들을 단순한 글자적 의미에서 가져본다면, 우리는 그 의미들로 이런 유용한 교훈,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계속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분은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되돌려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시고 있을 뿐이다. 물론 상호적인 사랑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사랑함과 행동함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것이 저것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둘 중에서 순종은 그것 홀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쁘게 되돌리지 않을 경우 참된 순종은 없다. 기쁘게 행동된 것은 그만큼 애정 있게 행동된 것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되풀이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순종이 사랑을 놓는 기초이다는 것, 이 기초 없이 사랑



은 실재의 존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심정 안에 있는 사랑은 하느님의 옥좌이고, 생활 안에 있는 순종은 그분의 발판이다. 심판과 공의는 그분의 옥좌를 받친다. 이것들이 있지 않은 심정이라면 그분의 지배도 끝나야만 한다. 이미 살핀바 같이 영적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주제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보건대 우리가 더욱 더 명백히 보게 되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들은 사랑의 법들이다. 이 법들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진행되고 있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될 때, 사랑 안에 우리는 보존된다. 우리가 지옥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성한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신성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신성한 명령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다. 이런 점에서 역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형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마치 그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 것 같이 되기 위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큰 사람(the Man)이시다. 그분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므로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시고 있다. 그분은 법 전체를 완성하셨다.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행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 것은 모든 법이 사랑의 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영원하고 변경될 수 없는 정의와 질서의 법을 그분의 인성에 새기심으로 그분은 질서 자체와 정의 자체가 되셨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문다. 그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신성한 사랑이 바랬던 모든 것, 신성한 지혜가 요구했던 모든 것을 실재화 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각자의 분량껏, 수준껏 주님의 계명들을 행해야 한다.

11. 주님의 계명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 그것을 획득하는 수단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발음하신 단어들로부터 더 명백해 진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남아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 되게 하려 해서이다.” 주님의 기쁨은 그 기쁨이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분 자신의 완전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인간의 후손들에게 나누어주심으로부터 발생하는 복됨이다. 주님의 기

쁨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을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이로부터서만 우리는 그분의 복됨을 어느 정도라도 가지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하시는 기쁨은 그분이 구속의 일을 성취하시어 발생된 특별한 기쁨이다. 인간 종족에 대한 사랑은 주님으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도록 자극했던 사랑이다. 그리고 신성한 기쁨은 신성한 사랑이 실제화 하려 결심했던 의도의 열매였다. 이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보존되기를 바라시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자신이 그것을 획득했던 수단 외의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런 신성한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 오셨던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었다. 그분은 인간성이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슬픔을 견뎌내셨고 시험을 이겨내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쁨이 머물게 하겠다면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의 슬픔을 견뎌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 되게 하겠다면 우리는 악마와 세상과 육과의 싸움에서 그것들을 확실히 정복해야만 한다. 물론 주님께서 정복하셨던 만큼 우리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정복하심을 뒤쫓느라 꾸준히 분투해야 하고 그것만으로도 족할는지 모른다. 참으로 우리의 완전은 완전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데 존재한다. 충만된 우리의 기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충만 속에 존재한다.

**1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다. 그래서 제 13장 34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소개된 것은 의무감 같은 것을 표현해 주시려는데 있다. 즉 지금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수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 주님을 사랑함은 이웃을 사랑함 안에서 모습을 명백히 보인다.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함이다. 우리에게 밝혀지고 주어진 바로서의 주님의 사랑은 그분의 창조물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안의 이 사랑은 그 사랑의 본성을 수단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도록 자극한다.

**13.** 사랑은 그것이 수여한 이익,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드는 희생을 수단으로 보여

지게 되어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방을 위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가지고 있다. 그분은 그분의 친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적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로마서5:7,8). 그러나 예수는 여느 인간이 아니셨고 특별한 사람(the Man)이셨다. 가장 위대하게 완전함에서의 인간성이 그분 안에서 구체화되었고 본보기화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느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하였고 그분은 친구뿐만 아니라 적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 구절에서 그분이 위와 같은 그분 자신의 품성에 관한 두드러진 점, 즉 경이롭고 비길데 없는 사랑을 과시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사랑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즉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도록 자극하는 사랑에 제자들의 마음이 향하게 하신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 놓으셨다. 그들 심정 속의 적개심은 아직은 온전히 극복된 상태와는 너무나 멀리 있었다. 아직 주님은 크나큰 적, 계속 인류를 붙들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 마음을 속박해 놓고 있는 악마를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았다. 지금 그분의 신성한 일 안에서 자기들의 주님을 따라왔던 이들에게, 세상이 미워했던 그분, 즉 어둠의 모든 권세가 병합해서 대들고 있는 그분에게 친구가 되는 만큼에서 제자가 된 이들에게 말하시고 있는 것이다.

14. 예수께서는 그분의 친구들인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든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만일 친구로서의 사귄이 사랑을 수단으로 형성되고 단단해진다면, 사랑처럼 친구 관계도 고결한 행동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구세주와 그분의 제자 사이에 친구로서의 사귄의 묶음에는 어떤 특이함이 있다. 친구들은 서로가 상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은의, 신세를 지는 관계(obligation)로 묶여져 있다. 이 은의는 그들 서로를 명백히 보이고 유지존속되게 하는 사랑처럼 일반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친구됨은 제자들만을 존중히 여기는 조건 위에 놓여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것이 무엇이든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그분은 곧 이런 조건들의 저자요 대상이

시다. 제자들만이 그 조건에 복종해야 한다. 참으로 주님 편에 있는 수단은 질서의 법들이고, 이 법에 따라 제자들과의 친구됨은 행동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그분 자신에서 근원된 것이고 그분 자신이다. 그 이유가 신성한 법은 신성한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이름, 신성한 사랑의 법으로서 지혜가 작동하는 형식밖에 더 아니다.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법이고, 그들은 이것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법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한다면 그 제자들은 그분의 친구들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수여하시기로 약속하는 모든 축복의 조건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꾸준히 상기하도록 자극을 주시고 있다는 점은 우리 역시 그 대목에 시선을 집중해볼 가치가 있다. 다음 절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종이든 친구이든 모두 순종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둘 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요구된다. 둘 사이에 유일한 차이는 그들의 순종의 품질을 구별지어주는 총명과 동기에 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라 불리웠다 (이사야 41:8). 그 이유가 그는 주님 사랑을 원리로 삼는 이들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와 일치해서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친구라 불린 것은 그가 일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2:22-23).

15. 주님께서 계속 이으신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다 알려 주었다.” 제자들은 종이라는 수준에 있어왔다. 지금 그들은 친구라는 수준으로 승격되었다. 종은 의무감에서, 또는 보상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이다. 친구는 이해타산이 없는 사랑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라는 견지로부터의 순종은 영적인 노예상태이다. 사랑의 느낌으로부터의 순종은 영적 자유이다. 제자가 첫 상태에서 둘째 상태로 건너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느님의 친구이다. 우리의 주님께서서는 이런 상태와 수준 사이에 있는 차이의 바탕을 설명하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어떤 종이 충직한 종이 되기에 앞서 그는 주인의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법을 그가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적인 명령으로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는 주인의 뜻을 알고 있으나 그 법을 강력히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 이유와 목적은 보다 더 높은 상태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모든 것을

나는 너희에게 알게 해 주었다”는 말로 서술하시고 있다. 주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추어 말할 때는 언제든지 그 말은 그분의 인성과 구별되는 인성에 내재하는 신성을 두고 하시는 말이다. 또는 그분의 지혜와 구별되는 신성한 사랑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제자들에게 알게 만드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법과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주님은 사랑으로부터 언제나 말하시지만 그분이 말하는 상대방들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모든 것을 나는 너희에게 알려 주었다” 라고 말하시고 있다. 이것은 성령에 관한 선포, “그가 (모든)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는 것과 비슷하다. 제자의 충만됨은 주님의 충만됨의 형상이다. 위 주님의 표현이 함축하는 바, 우리의 친구로서의 그분은 그분께서 그분의 친구라 부르는 이들에게 한정 없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모든 마음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들의 저장고로 만드시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비밀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시편 25:14).

16.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승격되는 조건뿐만 아니라 원인은 주님 쪽에 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임명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 없어지지 않고 있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열 둘이 주님께 의해 사도 신분으로 뽑혔고 복음을 전파하여 노동의 열매로서 영혼을 그분께 가져오도록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단순한 제자들이 아닌 사도로서의 제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그분의 연설의 용어와 일반적 의도는 공적인 삶과 품성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인에 더 관계되고 있다. 우리가 그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려는 것은 이런 빛 가운데 있다. 주님의 말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참되다. 그들이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의 구원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운영되었으며 완전해졌다. 그 일은 그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의 저자요 대행자이신 반면, 그들은 그 일을 받는 그릇이요 재대행자일 뿐이다.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원인을

생산한다. 우리가 그분을 뽑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뽑았다. 그리고 우리를 뽑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임명하셨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뽑아주셨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임명하셨다. 우리가 심정에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뽑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해성에 그분의 진리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우리의 애정은 그분의 사랑과 결합함에 도달되고 우리의 생각은 천국적 질서의 상태로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선택했고 임명했으며, 그들이 나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고, 그들의 열매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시고 있다. 주님의 바램과 의도란, 그분의 제자들이 선한 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함으로 인도하는 길인 진리와 일치되는 삶을 수단으로 “나 가야” 한다. 정의와 성실의 삶 안에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명백히 나타내 보임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지하고 있음으로 “그들의 열매는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제자들이 해내서 그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해 주시기를 주님은 바래시고 있다. 14장 13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묻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이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이미 말하셨다. 이 구절의 경우, 그분께서는 아버지가 그것을 해 주시리라고 말하시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아들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제자들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놓고 아버지께 접근하라는 것은 확실히 아니고, 주님의 겸허의 영광 그분의 헌신의 영인 온유함으로 채워진 심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하라는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한번 더 반복된 이 교훈은 그 얼마나 감명적인지! 이것,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그분이 그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수단으로 모든 사람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모든 주님의 가르침의 대상(object)이요 모든 그분의 명령들의 목적(end)이다. 그래서 신성한 선생님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가르쳐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인상깊게 해놓으려 하셨다. 기독교인의 의무에 관한 어떤 교훈도 이 계명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이 반복적으로, 지엄하게

인상지위 놓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그 이상으로 그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 필요성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이 사랑의 얼마나 적은 양,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양의 얼마나 적은 양으로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던가! 자기들 앞에 본보기와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서로 다투지 않았던가! 그분을 믿노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웃의 복지에는 아랑곳없이 자아 이익에 몰두했던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 그분을 사랑함과 서로 사랑함이 명백히 보여질 수 있는 참된 방법만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받는 한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도록 경고되고 있다. 주님은 선한 자에게 있어서는 사랑해야 할 최고의 대상이 되지만 사악한 자에게서는 미워해야 할 최고의 대상이다. 그분은 위로와 격려의 교훈으로서 이런 사항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기에 앞서 그분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절히 이해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면 위 말씀은 진실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다. 세상이 제자를 미워함은 그에 앞서 주님께서 미움을 당해왔던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분은 적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분이 그것들을 정복한 이후의 세상의 미워함은 만일 악의가 더하지 않다면 덜 위험해 있다. 이것을 그분의 연설의 뒷부분에서 가르치시고 있다. 거기서 그분은 세상을 극복한 이래 제자들이 기운을 내도록 권면하시고 있다. 세상의 미워함이 이러할진대 제자들은 그 미워함을 견뎌내어야 한다. 그러나 견뎌는 소극적 수단일 뿐이다. 기독교는 모든 박해를 개선의 수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참고: 18절은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음)

19. 세상의 반대는 세상 속에 있지 않은 이들이 예상해야 한다.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인간이 세상의 일원으로 세상 안에 있는 한 그는 세상으로부터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세상적인 인간은 서로가 미워하고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 원리에서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 목표와 이익추구에서 경쟁하기 때문

에서이다. 세상이 세상 속에 있지 않은 이들을 미워함은 원리 수준에서 발견되고 기  
 어이 적대관계를 생산하고야 만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말은 영적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제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서로 반대되는 원리로서 이해되어진다. 위 주님  
 의 말을 개인 차원에 응용하면 세상이란 우리 본성중 세상적인 부분, 즉 자연적 생  
 각과 자연적 수준으로 기우는 경향성을 지닌 자연적 마음이다. 그리고 제자들이란  
 거듭나는 동안 획득되어지는 영적 원리들이다. 애당초일 경우 우리의 영적 원리조차  
 도 자연적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거듭 나아가는 생활을 진척해갈 때 영  
 적 원리들은 자연적 마음으로부터 영적 마음으로 승강된다. 그러면 그 원리들은 세  
 상으로부터 가려내진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 원리들을  
 미워한다.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천국과 세상 사이에는 서로간에 반대하고 다  
 툼이 있다. 이 다툼은 세상이 정복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그 정복은 지금 있지  
 않는다. 새 삶의 단계에서, 특히 주님의 이 시기가 관계되는 단계에서 미워함과 박  
 해는 극에 달할 정도로 왕성하다.

20.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로부터 위로를 끌어당  
 겨내고 강건해짐도 끌어낸다. “좋은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고 한 내말을 기  
 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영적인 기억은 내적 삶에 속한 것이다. 영적으로 기억함은 우리  
 가 지식으로 획득했던 진리들을 원리로서 재생산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께서 우리에게 말하셨던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좋은 그의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13장 16절 에서의 강연에서 말하셨었으나 지  
 금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박해하듯 그들도 박해하리라는 경고의 말을 추가  
 해 놓고 있으시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체험하신 박해를 피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분의 바깥쪽 적들로부터 감당한 박해 같은 종류는 오늘  
 날 시대의 많은 제자들에게 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겪으신 내향의 박해는  
 모든 시대에 있는 그분의 제자가 견뎌내야 하는 박해이다. 내향의 박해란 시험들이  
 고 이 시험을 주님이 특별히 언급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이 시험들은 그들이 순수해지고 구원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실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님의 체험의 또 다른 행복한 부분도 있



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들은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제자들이 파견되어지는 세상에는 두 부류, 즉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부류,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부류로 구성되어있다. 주님의 박해를 나누어 가지는 이들은 그분의 성공 역시 나누어 향유한다. 이것이 우리로 힘을 내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적 삶에 관련하여 이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연적 상태에 있을 경우, 우리는 종을 주인 위에, 자아를 하나님 위에, 세상을 천국 위에, 자연적 수준을 영적 수준 위에, 지식을 선함 위에 놓는다. 우리는 거꾸로 된 위와 같은 질서를 개정해야 하고, 종이 그의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 마음과 삶에 소속된 모든 문제에서 종을 그의 주인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박해로 의미된 그런 환난의 주체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 이 박해가 오는 세상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세상, 통치하는 사랑(ruling love)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다. 세상을 사랑함이 극복될 때, 한 때는 반대의 위치에 놓였지만 세상은 주님과 그분의 말을 청종하도록 설득될 것이고 구세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들을 지킬 것이다. 자연적 마음 속의 적개심이 제거될 때, 자연적 마음은 영적 마음에 종속되고 순종하게 된다. 모든 생각은 신성한 권위에 종속되도록 가져다 놓여 모든 것은 그렇게 종속됨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 이유가 그분은 싸움을 수행하셨기 때문, 그리고 반역적인 인간 본성에 있는 모든 반대되는 것을 극복하시어 그것들을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초래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음은 그들이 실제화하고 본보기화했던 그들 주인의 원리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관련해보면, 우리의 영적 삶과 체험에서 우리가 겪는 내향의 박해는 주님을 위해서이다. 우리 자신의 악과 잘못들 쪽에서 반대하는 제일가는 최말단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이다. 여기서 말해지는 미워함과 박해는 제자들에게 직접 향해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이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원리들이다. 따라서 이런 원리가 미움을 받고 반대에 부딪칠 때, 주님이 미움을 받고 반대되는 것이다. 세상이 주님 자신

에게 그것을 가했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만큼, 즉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을 가지지 않은 만큼 우리는 그분의 진리에 자연적인 미움을 가진다. 주님의 진리는 그분의 사랑이 파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진리는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는 것, 마치 태양의 빛이 태양의 열에서 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는 바, 그 이유는 빛이 그들의 악을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설사 우리가 새 삶에 진입해 있다 해도 우리의 부패된 근성이 우세해 있는 만큼 우리는 빛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진행되어 나오게 하는 신성한 사랑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너무나 적게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들에 행하는 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이 만일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없이 살아 갔을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들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이 육이 되신 분으로서, 참 빛으로서의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미워했기 때문에서이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단죄받는 원인이었다. “이것이 단죄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해서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세상을 단죄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오시었다.” 그러나 마음씨 고운 사람에게 해당되는 구원은 그 반대되는 품성의 소유자에게는 단죄이다. 그들을 단죄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빛에 반대됨이다. 빛의 본성은 대상을 명백히 알게 만드는 것이다. 어둠은 악을 덮고 변명해낸다. 이 어둠은 고집부려 있어진 잘못된 어둠이 아니라 본의 아닌 무지의 어둠이다. 빛이 올 때 인간은 그들의 죄에 대한 구실을 가지지 못한다. 변명할 수 없다. 악이 자연적인 경향성으로서 의지 가운데 있고,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로 간파되지 않고 판결 받지 않고 있는 한 그것은 단죄되지 않는다. 빛이 와서 악을 명백하게 만들어 주는 데에도 악을 계속 사랑하여 행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단죄

될 수밖에 없다.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했다고 말하셨다. 지금은 그분을 미워하는 가운데 아버지도 미워한다고 말하시고 있다. 하느님을 사랑함을 지니지 않은 이들이 그분의 진리를 미워하듯, 하느님의 진리를 미워하는 이들은 그 진리를 밝히 알게 하는 그분의 사랑을 미워한다. 사랑과 진리는 하나이다. 사랑은 진리의 생명이고 진리는 사랑의 빛이다. 따라서 전자를 사랑할 수 있으면서 후자를 미워할 자는 없고, 전자를 미워하면서 후자를 사랑할 자도 없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는 그분의 뜻과 지혜이다. 하느님의 지혜를 미워하는데 하느님의 뜻을 사랑할 자는 없다. 그분의 지혜를 미워함도 없이 주님의 뜻을 미워할 자는 없다. 진리는 빛이다. 하느님을 사랑함을 미워함 없이 하느님의 빛을 미워할 자 역시 아무도 없다.

24. “내가 일찍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지금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일에 관해, 마치 이전에 그분의 말씀들에 관련해 언급하셨던 것같이, 그분의 일을 보고서도 여전히 불신양자로 남은 것이 유죄인 것같이 말하신다. 주님의 일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가 관계되는 것같이 그분의 말과도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은 의지가 바깥쪽으로 뻗어 나온 것이고 말은 생각이 뺏어나온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본성, 그분 자신의 무한한 사랑의 본성을 공개하시는 것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내가 한 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만일 내가 일찍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고 말하신다. 그분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일만큼 탁월하였고, 그분의 본성이 그들의 일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분이 하셨던 위대한 기적만큼 큰 기적을 행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했었다. 그러나 주님의 일 안에 있는 위대함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도 없었다. 그분은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권능을 수단으로 기적을 행했다. 물론 기적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그런 차이점을 갖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

들 같이 권능과 함께 존재했다. 그래서 그분의 바깥쪽, 눈에 보일 수 있는 일들은 여느 사람들의 것같지 않게 유한한 모든 권능과 대행인을 초월하는 가시적인 일들과 내향의 일을 동반했다. 구속함과 영화하심의 주님의 일은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산 자로 일으키시는 그분의 일과 동시에 있었다. 이런 일들은 더 위대한 일들을 동반하고 표현해주었다. 구속의 일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었다. 과거 자유의지는 어둠의 권세가 다소 우세함으로해서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도 변명이 인간을 방치했다.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소유할 때 선한 것을 선택 않고 악을 거절 않는 것은 죄이다. 그리고 인간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일을 보는데 회개 않고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심정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해성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이다.

25.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인용문은 시편 35편19절, 69편4절에 씌어있다. 그러나 인용 자체는 그것이 주님의 예언임을 우리로 확실히 해두게 하는 것뿐이다. 유대인들이 미워해대는 것을 주님께 관련해보는 한, 참으로 정당한 원인이 없었다. 그 원인은 그들 자신 안에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미워함의 모두는 거룩한 분에 대한 것이었다. 원인이 덜 정당할수록 미워함은 더 깊어진다. 유대인들은 위 예언이 그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필연성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지 않았다. 선견(foresight)에 선-지명(foresight-appointment)이 함축되고 있지 않는다. 개인적 차원인 우리 자신에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그들의” 율법에 씌어 있다고 말하시는 그 속에 충만한 영향력을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우리를 단죄하는 법은 우리들의 것이다. 신성한 법은 그 법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지고 그 법 안에서 훈육될 때까지 우리를 단죄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모르는 법은 우리의 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법이 아니다. 법이 없는 곳에 법위반도 없다. 그러나 신성한 법이 우리의 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미워한다면 그것에는 그러해야 할 까닭이 전혀 없다. 그 이유가 법은 하느님이 모든 순수함과 자비이시다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의 품성을 미워하는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유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까닭 없는 미워함까지도 우리의 법에 썩어있다. 만일 우리가 이유도 없이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 법이 말하는바, 만일 우리가 악하다면 우리는 이런 까닭 없는 미워함을 혐오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심정 안에 있는 악 자체는 우리 자신의 불순함으로부터 어떤 이유도 없이 순수한 것을 미워만 할뿐이다.

**26,27.** 새롭고 더 희망 있는 어떤 것들의 상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하강, 그것의 본성과 결과들이 오순절 때에 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의 증언은 세상에 위대하고 유익한 변화를 생산했다. 제자들이 “평화의 줄로 성령과 하나된 것을 간직함으로 하나의 몸과 하나의 영이었는데(에페소4:3-4), 예수의 원인은 변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잘못들과 악에 대적하려고 하나되어 노력하는 대신 그들은 교리의 요점들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오갔을 때, 기독교 신앙의 힘은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도 기울고 말았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마음을 나누게 해서 급기야 냉담한 두 개의 단체로 분리하게 한 분쟁의 요점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즉 성령은 아버지로 진행되는 것이냐 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이냐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개혁하지 않은 교회의 두 큰 종파 사이의 차이점이 되는 요지이기도 하다. 라틴 또는 로마-카톨릭 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진행되어 나온다는 견해를, 그리스교회는 아버지로부터서만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인물(person)이라고 간주하는 한, 위 논쟁의 의문을 정착시키는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이라는 인물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뜻한다고 이해할 때 이 주제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쉽게 볼 수 있다. 하느님의 영(the Spirit)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진행되고 아들을 통하지 않는 견지는 이런 견해와 똑같다. 즉 인간의 말과 행동은 그의 영혼으로부터 진행될 뿐 그의 육체를 통하여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주님의 언어는 특별한 시선을 받을 만하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을 말하시나 그분이 그것을 보낼 것이라고도 말하시고 있다.

아들이 성령을 보낸다고 말해질 때, 그럼에도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진행된다고 말해질 때, 이 사항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하느님의 영이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한편,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성을 수단으로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하느님의 영의 사명에 보내지고 있는 것, 주님의 인성은 주님이 육안에서 명백히 보인 덕택으로 소유하게된 구원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신성과 인성이라고 부르든지, 신성한 사랑과 지혜라고 부르든지, 우리가 알게 되는바는 아버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근원지(from) 측면에서의 주님 안에 있는 원리이고, 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수단(by) 측면에서의 원리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하느님의 영을 보내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하느님의 영을 보낸다. 주님의 인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게 활동하고, 이 신성한 영을 내보내고 있으며, 특히 그분의 인성이 지니는 모든 효능을 그 영에 부여하고 있어, 인간을 구세주처럼 만들기 위해, 즉 그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듯 인간도 거룩해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신성한 인성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이 계시 속의 진리들의 협동함을 수단으로 그분의 영의 작업이 후원 받을 때, 인간 마음, 만일 그 마음이 하고 싶을 경우, 주님의 영에 의해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 설비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제를 우리 개인의 경험에 관련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실용적인 진리를 볼 수 있기도 하다. 주님께서 부패된 우리의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권능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영적 마음으로 영화되어 승강하셔서, 지금 천국적인 질서의 상태로 가져다 놓였을 때, 그 다음 그분의 영은 오순절 때같이 풍부하게 내려오시어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획득했던 선과 진리들을 채운다. 마치 과거 그 영이 사도들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새 혀로 말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의 영의 증언과 말씀의 증거가 주님의 구속함과 구원하심 안에서 공표되어 하나가 될 때, 그것들은 세상에서 한번 결과 되었던 것같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심정과 마음 안에서 역사 되었던 것같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을 만든다.

## 16

이 장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연의 연속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과 지금 말하시는 것 사이에는 구분되는 점이 있고,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 그분은 두 개의 중요한 주제들에 관해서 이미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분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의 본성을 설명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즉 그분께서 수행한 권능 있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연결의 본성에 관해서도 가르치셨는 바, 이 연결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같다는 것, 그 연결은 아주 친밀하고 생명의 원천을 이룬다는 것, 그들이 그분의 교회의 유용한 멤버로서 참되게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이 그들 안에 머물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신성한 선생은 성령의 하강으로 그들과 세상 위에 있게 되는 결과에 관해 말하신다.

1. 그들 앞에 놓인 일들을 위해, 그들의 충성과 덕행이 보상되는 영예를 위해 겸손과 이타애를 함양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본보기와 교훈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평범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훈육하셨던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흔들림(offend)은 실족함(stumble)이다. 이 구절의 말씀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의무와 시련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라앉고 마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주쳐야만 하는 미움과 박해에 관해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다. 미리 경고된다는 것은 대비한다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자들이 그의 영적 순례에서 그에게 닥쳐오게 되는 시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가능치도 않고 필요치도 않다. 단지 그의 순례여행이 심각하고 혹독한 여행이라는 정도만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여행에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성공적인 여행은 주님의 영이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기독교인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가 걷는 그 길을 먼저 밟고 지나가셨던 안내자요 위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의 구원의 대장은 고통을 통해 완전을 만드셨다는 것, 따라서 그분의 추종자들은 그런 길에서 무력해지고 실족되지 말라는 것등이다.

2. 그러나 주님은 박해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시련을 제자들에게 말하신다.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은 글자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박해를 가한 것, 더구나 그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일을 자행한 것을 본다면 위 주님의 말씀에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구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이고 실용적인 교훈을 더 발견한다. 위 예견이 글자대로 유대인의 행동에, 다른 것으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에 관계되는 한편, 영적으로는 사도들 자신이 아닌 사도들이 표현했던 원리들에 관계되고 있다.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오게 될 때”란 기독교 자체가 순수한 종교의 원리들을 거절하는 때, 즉 제자로 의미된 것, 즉 말씀 속의 진리 안에서 주어진 순수한 원리가 회당 안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때,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의미되듯 그들이 순수한 원리들로부터 영적 생명력을 박탈하는 때, 결국 이런 짓을 범한 자들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때들이다. 그분이 보낸 것이 인물이든, 원리이든 그것들을 죽임으로 하느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 즉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대신 어둠을, 어둠대신 빛을 놓는 것,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그들의 관념들이 진리에 반대된 상태를 표현한다.

3. 이렇게 제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견뎌낸 박해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박해했던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도 아들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고, 제자들은 말씀 속의 진리들을 표현하고,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현존하고 있다. 이런 원리들을 거절하는 이들, 스스로 그 원리들을 파괴하는 이들은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식하기를,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성으로부터 주님의 지혜



를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정에 주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와 교훈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지혜 또는 사랑의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인간은 계시로부터가 아니면 주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될까? 주님에 관한 지적인 우리의 모든 지식은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외적 경로로 가르치는 한편, 주님 자신은 내적인 경로, 즉 썩어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운반해 주는 진리 속의 교훈과 사랑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다. 우리가 심정과 이해성을 제공된 사랑과 빛에 여는 만큼에서만 우리는 바깥쪽 가르침을 진실로 이해하고 받게 된다.

4. “그러한 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시작 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많은 것을 정작 그 사건이 도래할 때까지, 또는 주님이 반복해 말하시어 상기시켜 줄 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신 목적(object)은 때가 왔을 때 그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려는데 있었다. 그분의 말이 성취됨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한층 더 힘을 얻어 더 의연하게 고통을 받아 낼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위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역시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이전에 받았던 진리들은 체험에 의해 확증되어진다. 그리고 진리들이 이렇게 확증되면 그 다음은 내적인 기억으로 건너가서 영원히 그 기억에 새겨져 남아 있다. 이런 때 우리는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해 주셨었다는 것도 기억하게 된다. 그 이유가 그 진리들은 그 진리의 저자가 주님임을 다시 기억함으로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작하던 그 때에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삶의 시작은 모든 것이 빛나는 환희적인 때이다. 새 날이 마음에 드리워지고 아침 햇살이 아름다운 풍경을 씻어낸다. 그러나 폭풍과 그늘짐이 때늦지 않게 온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조차 빛을 주지 않고 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때는 슬픔의 때이다. 우리의 영적인 시작, 마치 우리의 자연적 삶의 시작 같이 빛나고 희망인 것은 우리를 위한 행복이다. 그런 이유는 정의의 태양이 그분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면서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외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진실이다. 우리가 진리를 처음 받을 때 그 진리는 피상적이어서 상당 부분이 자연적 수준이다. 우리는 육에 따라 주님을 안다. 이런 앎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이다. 마치 그분이 지상 순례 기간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다. 이런 초기 상태에서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에게 닥쳐올 슬퍼하는 때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5.6. 어쨌든 때가 되면 그들은 밝히 알아야만 한다. 제자들에게 이런 때가 당도해 있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모두 슬픔에 잠겨 있다.”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하고 말하셨다. 그런데 왜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 보아야 할까? 그들은 알았으나 몰랐다 - 그들은 알았으나 이해 못했다. 그들은 그분이 떠나는 사건의 밝은 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심정은 그분이 그들을 떠난다는 생각에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저 넘어 있는 그분의 영광을 몰랐다. 그들은 자기들이 외톨이로 남을 것만을 생각했다. 주님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시고 있었다. 인성이 이제 막 영화되시는 것, 신성한 지혜가 신성한 사랑의 품으로, 지혜가 근원 되었던 그 품으로 귀환하려는 찰나에 있다. 이를 우리의 개인적 경험에 관련해 생각해 보라. “돌아가심”이란 주님이 자연계에 있으셨던 것 같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자연적 마음에 있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듯 영적 마음으로 승강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것은 슬픔의 때는 아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때문에 슬퍼한 듯 여겨지지 않는다. 그 다음 그들이 안 것은, 주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 영광으로 건너가셨다는 것,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죽음이 그분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던 때, 그분이 부활로 오심을 모르고 있던 때, 그들은 슬피 울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은 삼 일만에 일어나신다고 말해주셨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던 것은 무엇이든 상기할 수 있게 하는 하느님의 영이 그들에게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 “떠나가심, going away”은 시련의 때이다. 그 이유가 우리의 안내자요 받쳐주는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진리를 잃어버린 듯, 우리를 위로해 줌도 없이 훌쩍 떠날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시련의 본성과 심각함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역시 결국 보

게 될 것이다.

7.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떠나심은 이 일의 완성이었고, 이 완성 없이 구원은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인성이 신성과 하나됨이 유일한 수단이었고, 이 수단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시는 방도만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길이다. 만일 그분이 떠나지 않으면 위로자(Comforter)는 오실 수 없었다. 만일 주님의 인성이 고통의 극렬함에 의해 완전해지지 않았다면 성령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을 거듭날 수 있게 해 주는 설비도 장치 못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 진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있다는 진리만큼이나 위대한 진리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성령의 현존이 그분 자신의 현존보다 그들을 위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분 자신이 성령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현존은 그분이 그들과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이었다. 더불어 선포하신 것은 만일 그분이 떠나시지 않으면 위로자가 그들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성령은 구세주로서의 주님의 영인 바, 그것은 그분이 떠나실 때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 자신으로부터 보냈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이 제자들로부터 이동하시는 것을 두고 두 가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시고 있다. 두 용어의 글자적 의미는 다르다. 마치 ...로부터 가고 있음, going from과 ...에로 가고 있음, go to의 차이와 같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 제자들로부터 떠나시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신성한 선으로서 아버지에게로 출발하시고 있다. 주님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됨을 달성하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진리가 더 이상 아니고 그분의 인성까지 포함되는 신성한 선이셨다. 그리고 그 다음 신성한 진리는 성령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온다.

8. 성령이 올 수 있도록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성령이 수행하게 될 신성한 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죄에 대하여 정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꾸짖을 것이다.” 꾸짖는다(reprove)는 단어는 납득시킴

(convince)으로 읽는 것이 더 낫다. 세 개의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보내는 하느님의 영이 수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영의 임무는 주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는데 있어 악덕과 잘못들은 방해가 되고, 미덕과 진리들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 죄인들의 마음에 죄에 관해, 정의에 관해, 심판에 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9. 하느님의 영이 세상을 납득시키는 첫 번째 일은 죄이다. “죄에 관해서,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의 지각은 주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의 첫 번째 행동이고 첫째 행동은 진짜로 전환하는 것이다. 죄를 자각함은 정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인간은 그의 죄를 버리는 것을 시작할 때까지 정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임을 확신할 때까지 죄를 버리는 것을 시작할 수 없다. 그분이 죄에 관해 세상을 납득시킨다는 것, 주님의 영의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주는지! 죄는 인류를 파멸시켰다. 그리고 주님을 세상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그분을 고통받는 자로 만들었고 죽음에 놓이게 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의 영은 그분으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분은 “죄 있는 육의 모양 안에 오셨다. 그리고 죄를 위해 육에 있는 죄를 단죄하셔서 육에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정의가 완성되게 하셨다.” 하느님의 영이 죄에 관해 인간을 납득 시키도록 와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영이 인간에게 납득시켜 주는 죄란 주 구세주에 대한 불신앙이다. 그분에 관한 지식 없이 죄가 범해진다면 죄에 관한 참된 지식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믿지 않고 죄에 관한 참된 납득도 없다. 불신앙이 죄이다. 그 이유란, 구세주를 인정함을 배척하고 있으면 죄를 인정함도 배척되기 때문이다. 심정 속의 이런 완고함을 제거하고 죄에 대해 뉘우침을 가져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의 영향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은택 중의 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구세주가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이들에 대한 사도들의 답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설득함이 아니라 참회하는 심정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안에 죄의 고백과 뉘우침 그리고 악을 버리고 주님의 계명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려는 신실한 목적과 노력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

10. 하느님의 영은 정의에 관해 세상을 납득시키기 위해 오신다. 하느님의 영은 주님의 정의에 관해, 구원과 행복의 수단으로서의 정의에 관해 세상에 납득시키려 오셨다. 말씀 자체의 서술에서와 같은 것, 즉 주님은 우리의 정의이시다는 것, 그 정의는 그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되신 것, 우리의 정의는 그러한 그분 속에 있다는 것, 등등은 기독교인의 믿음의 한 부분이다. 이 진리는 명백히 서술된 바와 똑같이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져 왔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깨트린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간이 초래되게 했던 죄지은 것들로 해서 고통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되는 것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정의, 설사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어 행한 정의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어떤 정의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정의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구원에 관한 이런 개요의 기초에 놓인 실수는 이것이다. 죄와 정의는 인간의 생명의 책 안에 씌어진 상태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억의 책 안에 기록된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인간으로 하도록 요구했던 것을 행함으로 그분에 반대되게 손으로 쓴 것을 삭제할 수 있었고, 마치 그분이 율법을 스스로 완성했던 것처럼 그분을 수용하기 위해 그분의 정의와 일관되게 할 수 있었다. 구세주의 공적은 신앙자들에게 귀속된다고 상상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자신의 불순물은 덮어진다. 마치 그리스도의 정의의 흠없는 도포로 하느님의 시야로부터 감추여지는 것과 같다. 신실하게 종교적인 많은 개인들은 이런 교리의 진리에 의문을 던진다면 그만큼 자신이 불경해진다고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짙다. 어쨌든 이 교리는 죄와 정의의 본성 모두에서 그릇된 생각 위에 안주하고 있다. 죄 또는 죄 있음은 양도되어질 수 없고, 정의 또는 공적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다. 정의를 행한 자는 정의롭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죄짓기를 중단함으로 죄인 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중단을 권유하시는 것, 정의를 행함으로 정의로워지도록 권유하시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는 그것을 결과되게 했을까? 아마 우리는 그것이 유일하고 가능한 길이 아니다 해도 최상의 길에 있다고 보증될 것이다. 정의의 법을 완성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정의로워지셨을 뿐 아니라 정의 자체가 되셨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그 정의를 절대적 차원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간 삶을 수단으로 그분은

율법을 확대하시고 그것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드셨고 율법 자체가 되셨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그분 고유의 정의의 영광 권능을 수단으로 정의의 길 안으로 우리를 인도 하심으로 우리를 정의로워지게 만들려고 노력하신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동안 우리는 자기 고유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정의는 그분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정의로워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분 안에서 작업되고, 그러므로 그분의 정의가 우리에게 작업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심으로 “그분의 영광은 정의에 관해 세상을 납득시키러 오신다.” 하느님의 영광의 임무의 근원, 그리고 정의에 관해 세상을 납득시키는 힘의 근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있다고 우리의 주님은 선포하시고 있다.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하나되셨을 때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던 때이다. 이미 아는 바대로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 또는 선행이다. 그분의 인성을 본질적이고 영원한 정의로 만드셨을 때, 그 정의는 우리의 정의가 되어 주셨다. 제자들이 주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말하셨을 때 그분이 뜻하신 바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영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아들(the Son)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그들의 체험 안에서 사랑을 잃었을 때이다. 사도들의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 당할 때에는 아드님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느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 15:28).

11. 더구나 하느님의 영광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납득시키러 오신다. “그 이유가 이 세상의 왕이 심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왕들이 심판된 것은 주님께서 어둠을 정복하셨을 때, 그리고 영계에서 심판을 결과되게 하셨을 때, 이를 수단으로 지상에서 살았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시켰을 때이다. 그러나 영계에서의 이 일의 효과는 자연계에도 미치는 바, 그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선을 악으로부터 분리해준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자는 악한 자와 분리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시대가 더 부패해지면 해질수록 선과 악, 미덕과 악덕이 덜 구분된다는 것이다. 신성한 심판의 결과 중 하나는 이런 구별을 공포 하는 것이

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하느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식별 가능하게 하심으로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납득시키려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오신다 (말라기 3:18). 이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 심판된 유익한 결과이다. 그 결과는 저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 세상에는 선과 악 사이의 힘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악의 힘이 선의 힘을 능가했다면 인간 사회는 더 존재할 수 없었다. 사악함이 이 세상에 있지만 악만큼 선도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12. 주님께서 진행하신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 때로부터 예수께서는 부활 전 이든 후 이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론 그분이 죽은 자에서 일어나신 후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대화했던 몇 가지 경우에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셨을 것이라 믿는다. 그 중 한가지 기억할 수 있는 예는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여행하셨던 경우이다. 그 때 모세와 모든 예언서에서 시작해서 그분은 자신에 관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상술하셨다. 그분의 해설의 폭과 깊이는 두 제자 자신들이 이런 증언,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라는 고백으로도 가늠된다 (누가 24:32). 이 약속은 어쨌든 그 당시 예수께서 전달하셨던 그 제자들 자신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시대에 있게 되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교회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을 고려한다면 주님의 말들은 그 당시 현존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미래에 교회를 만드실 것을 드러낸 것에도 관계된다.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 처방은 그 당시 사람들의 수용력과 필요성에 걸맞은 수준의 진리를 받는다. 빛의 과잉은 더욱 눈멀게 하고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수께끼로 그들을 혼란하게 한다. 참으로 성경은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 또는 교회가 계시된 진리에 관해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그 진리의 발달은 한계가 없다.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 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영의 기능이 이 구절 안에 있고 또 이 뒤를 잇는 구절에서 더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제자들을 진리로,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은 계시의 저자이다. 그 이유가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 움직여졌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계시가 주어진 지금의 경우 성령은 이해성을 열어서 말씀 속의 가르침을 지각하게 한다. 여호와의 영이 계시를 주었다. 예수의 영은 예증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부활후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느님의 영에 관해 “그분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으신 대로 말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신다. 마치 아버지와 관련된 자신을 말하실 때같이 그분 자신에 관련된 하느님의 영에 관해 말하신다. 아들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은 그가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물론 우리는 이 언어를 자연적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언어는 신성한 생각들이 신성한 마음 안에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교통하는 순서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 언어는 세 신성한 인물들을 생각 해내어 이해하려 할 때 합리적일 수 있는 의미는 없다. 그러나 세 분이란 세 신성한 본질들이라고 생각하여 이해할 때 이 언어는 드높은 의미를 표현한다. 세 본질들이란 신성, 인성, 펼치심(operation), 또는 사랑, 지혜, 힘(power)들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에 근원을 두고 그분의 지혜를 수단으로 모양을 이루고 방향을 잡아서 그분의 힘을 수단으로 결과에 가져다 놓인다. 상응의 언어에서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을 수단으로 인간에게 교통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은 자신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이 나누어 주는 것은 성령에 근원을 둔게 아니다. 하느님의 영의 작용은 참으로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능만이 행사하는 것, 또는 권능만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권능의 작용은 지혜만의 방향제시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이럴 경우 지혜는 우리의 의지에 반대하여서도 우리를 확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사랑에 의해 움직여지고 지혜에 의해 방향이 제시된 권능의 행사만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심정에, 지성에, 삶에 행동된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나 그 권능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 권능은 무한한 지혜로 제시된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일 뿐이



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의 말로 제자들을 잘 위로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을 안내해 주겠다는 하느님의 영은 그들에게 장차 올 것을 보여 주시게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영 자체가 오심에 따라 있게 될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온 뒤, 이를 따라 발전되어 가는 것들, 주님이 밝히 알려셨던 것들, 또는 거행되어질 사건들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느님의 영은 제자들이 이해하도록 계발시키고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사도들은 미래의 사건, 약속에 관한 지식을 선물 받았다고 상상해 본다 해도, 그것이 우리와 관련되는 만큼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예수 안에 있는 바대로의 진리를 우리의 이해성이 보도록 열고 우리의 심정이 받게 해서 우리가 계발되고 거듭난다는 희망을 줄 수 있을 뿐이다.

14. 주님께서 성령에 관해 더 말하신다.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앞 구절에서와 같이 이 구절도 인간 방법에 따라 표현된 신성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역시 한분 신성한 인물이 또 다른 신성한 인물에 속한 것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보여준다는 방식은 합리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인물의 영이 그분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와서 수용력 있는 피조물에게 구원의 선물을 운반해 주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됨에서 그 구원의 선물의 저자 역시 영광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느님의 영은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것을 가져다가 제자에게 보여줌으로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영이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구원할 때 끝마치는 그 일에서 구세주를 영광되게 한다. 인간의 구원이 주님의 영광이다.

15. 하느님의 영이 아들로부터 받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성령의 시행에 관한 서술의 이 시리즈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하느님의 영 사이에 있는 구분되는 점과 연관되는 점의 본성을 가장 명백하고 납득되게 가르치고 있다. 먼저 주님은 하느님의 영에 관해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들은 대로 말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 다음 말하시기를, “그분은 나의 것을 가져갈 것이고,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셨다. 이런 모든 사항은 그들이 세 분의 구분되는 신성한 인물들이 아니라 세 가지의 신성한 본질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가르치는게 아닐까? 이런 진리의 지식들, 즉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이고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는 것,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아들이 그분을 밝히 알리신다는 것, 아버지에게 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아버지는 아들만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오시지 않는다는 등등의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연마해도 부족할 뿐임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을 신성한 인물들로서 고려한다면 그것은 명료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분 주님의 인물 안에 있는 신성이고 아들은 인성으로 간주할 때 위 신성한 선포는 실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면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은 그분의 인성 측면에서의 하느님이라는 것이 보여진다. 더불어 알 수 있게 되는 바, 하느님께서 그분이 입으셨던 인간 본성을 영화하셨을 때 신성의 모든 특질은 인간 본성과 교통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영혼이 생명과 힘을 육체에 부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육을 입으신 이래 하느님은 그분의 인성을 매체로 피조물과 교통하신다는 것도 알게 된다. 마치 인간의 영혼이 각자의 몸을 매체로 해서 그의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과 같다. 주님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은 인간화 되셨는바, 인간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납득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더 강력해졌다.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화되었기 때문에 그 속성들은 인간의 구원에 더 효험이 있게 되었다. 신성이 인성이고 인성이 신성임을 수단으로 주님의 현존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순수하게 신성한 존재로부터, 또는 단지 인간일 뿐인 존재로부터서 구원해주는 효능은 그들의 현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의 후손 안에서 진행되어 갈 수 없다. 순수한 신성은 타락된 인간과 접촉할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단지 인간성 측면만이라면 타락된 인간을 회복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주님의 말들이 이것을 놀랄만하게 가르치고 있다.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그분이 나의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여야만 하는 것들이란 지금 그분 자신의 것이 된 것, 즉 아버지의 것들이었다. 아들의 것이 되지 않은 아버지의 어떤 것이 있다면, 또는 아버지의 것이 되지 않은 아들의 어떤 것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한 혜택도 돌아가지 못했으리라. 인성이 된 신성만이, 신성이 된 인성만이 타락한 인간성에 도달해서 일으켜 거룩하게 해서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는 모든 기독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남겨야 한다. 이 진리는 예수를 자기의 하느님과 구세주로 가지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임을 기독 제자들에게 밝히 알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바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가득한 바, 하느님의 영의 약속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 쉴 곳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위해 편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16. 그분의 마무리된 일의 열매가 그들에 의해 실감되어질 때인 빛나고 행복한 때를 제자들에게 내다보게 하신 주님께서서는 현재에도 되돌아 와서 위의 상태가 달성되게 하는 통로인 시련을 상기시키고 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이다.” 글자대로 일 경우 이는 죽음으로 해서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이동되고 부활로 해서 그들에게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이것은 영혼의 체험, 즉 죽음으로부터 영혼으로 건너가는 때와 건너갔을 때가 관련되고 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에게도 개인적으로 한번은 실제였는데, 제자들의 체험 안에서는 아직도 실제이다. 거듭나는 삶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때가 오는데, 그 때란 그들이 그분을 육에 따라서는 보지 못하는 때, 그리고 다시 영을 따라서 그분을 보는 때이다. 후에 주님께서서는 이 두 상태들의 본성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두 상태 모두가 주님에 관련해 말해지고 있는데 마치 그분께서 제자들의 지적 시각 또는 시야 앞을 지나쳐 갔다가 다시 오는 듯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적인 상태들 또는 믿음의 상태들과 관련된다. 우리의 첫 번째 지식과 믿음은 외적이다. 그 이유가 우리의 자연적 이해성은 자연적 방법에 따라 신성한 것일지라도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욕적인 생각들은 신성과 영적 진리들을 육체의 덮개를 가지고 옷입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육욕적인 방법 안에서 주님을 보고 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이 육욕적인

상태를 지나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적인 방법에 따라 보게 된다. 상태의 변화는 시련 없이 결과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모든 변천의 상태는 환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련은 짚막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날카롭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그 나뭇의 보상을 가져다준다. 일시적인 희미함이 더 명료한 빛의 뒤를 따른다. 달빛이 태양의 빛으로 되어간다. 그래서 태양의 빛은 일곱 날의 빛으로서 일곱 겹이되어간다. 사랑 없는 믿음의 밤빛 대신 우리는 그분의 날개안에서 치료하시면서 떠오르는 정의의 태양에 의해 생산된 구름 없는 아침의 명료하고 따뜻한 빛을 가진다. 굴욕 받는 상태의 주님을 보는 대신 우리는 영광으로 계신 그분을 바라본다.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암시되고 있다. 그 안에서 그분은 보는 것을 위해 두 개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분의 부활 후에 그분을 본다는 것을 표현한 용어는 그분이 육에 계실 때 본다는 것을 표현한 용어 보다 더 강력한 용어이다. 영의 빛 또는 내적 인간의 빛은 육의 빛 또는 바깥쪽 인간의 빛보다 더 우수하다.

17,18. 이런 변화는 확실히 있고 체험에서 실재하지만 아직도 첫 번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은 그 본성을 납득할 수 없다. “그러자 몇몇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고 또 얼마 안가서 다시 보게 되리라든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든가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 안가서’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깡그리 모르는 제자의 상태, 그들의 전체 역사가 그들에게 주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보이고 그를 수단으로 건설되는데도 아는 바 없는 제자의 상태가 위 구절에서 그림같이 표현되고 있다. 위 묘사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은 상태들이 제자의 상태와 상응되는 모든 상태의 기독교제자의 상태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 미래의 상태들은 미래의 사건들만큼이나 우리의 시야로부터 감추여 있다. 그리고 지금 조차도, 즉 복음서에 기록된 과거 사건들에 드리워 졌었던 상태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지금 조차에서도 그 상태가 우리의 체험 안에 존재할 때까지 그것들의 참 본성에 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비록 모든 제자들은 아니고 그들 중 몇몇만이 주님의 신비스런 말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사건들을 납득한 자는 그들 중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말해졌을 때 그들은 믿기를 거절했다. 제자들 모두를 묶어서 생각하면,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실용적인 진리라

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인 것만을 언제나 발견하고 있다. 체험이 그것을 벗길 때까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수수께끼이다. 만일 우리가 제자들을 거둬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애정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들 중의 몇몇은 준비 단계 안에서 이 주제에 관해 어둠밖에 보는 게 없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제자들을 말씀 속의 진리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희미함이 관찰될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메시아는 일시적인 왕국으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심판의 보좌에 그들을 앉히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부로부터 빛을 내는 참 빛에 의해 자신을 계발할 때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아무런 빛도 드리울 수 없다.

19. 거둬나오는 삶의 초기 단계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관한 희미함을 거두어 낼 수 없는 한편, 진리로서의 주님으로부터 계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낱말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고 얼마 안가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한 내 말을 가지고 서로들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 이 구절은 제자들이 그들의 바램을 표현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또 다른 실예이다. “어느 누가 사람을 증언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필요치 않다. 그 이유가 그분은 그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고 싶은 바램이 강하게 일도록 모호한 말을 하신다. 애매모호한 진리 안에는 알고저 하는 바램과 수용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은 빛을 수용할 준비가 될뿐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을 생산하도록 이해성과 심정도 준비된다.

20.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시고 되돌아오심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신 그분께서는 이 사건들이 그들의 심정에서 흥분시킬 느낌을 들추어내신다.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슬피 울며 통탄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느낌에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 상태에서 영적 믿음과 사랑의 상태로, 지상적 왕국을 생각함에서 천국적 왕국을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의 위기에 접근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공통된 경험이다. 그래서 그 상태나 결과들을

아는 것도 공통되는바 우리는 자신에 관련해서 그것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교회와 세상의 반대되는 요소들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시련은 서로 반대됨이 싸움질하는데서 비롯된다. 우리들 안에는 구세주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잠깐동안 그분은 우리의 영적 지각에서 감추여 있게된다. 그러면 제자들은 슬피운다. 애정이 그 대상을 박탈당할 때 그들은 고통할 수밖에 없다. 뒤에 남겨진 애정의 슬픔만큼 심각한 심신의 고통은 없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과는 달리 슬피움(weeping)은 심정과 이해성의 즉각적인 슬픔을 표현한다. 그 반면 통탄함(lamentation)은 심정과 이해성의 슬픔에 대한 바깥쪽 표현이다. 그러나 제자들로 울며 통탄하게 한 사건은 세상에게는 기쁨의 원인이 된다. 마치 정복당하기만 하던 그들의 적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으로 눈썹을 치켜 휘날리며 자기들의 권능을 떠벌린다. 이것은 일시적인 승승장구일 뿐이다. 마치 에집트군대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와 홍해바다 안의 통로에까지 바짝 뒤따랐던 모습과 비슷하다. 그것은 또한 육욕적인 마음의 원리의 마지막 승리이다. 그이유가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졌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가 보았던 에집트인을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영혼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서 구세주의 부활은 영혼으로부터 통치하는 원리로서의 세상을 영원히 제거한다. 삶의 상태가 이렇게 뒤바뀐다. 천국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 위쪽으로의 승강을 획득한다. 그리고 상태가 뒤바뀌는 것은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은 슬픔을 깊이 느꼈으나 지금 그 슬픔은 환희로 변해진다.

21. 이 슬픔과 환희의 본성을 우리의 주님께서 설명하신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주시는 주제에 관한 예증은 매우 중요한 사실에 관한 놀랄만한 예증인바, 그분은 단지 비유의 언어만이 아니라 상응의 언어로도 자신을 표현하셨다. 거듭남은 진실로 새로운 출생이다. 자연적 출생과 영적출생 사이에는 정확한 상응이 있다. 새로운 출생은 심정 안에 탄생(begotten)되었었던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원리를 삶에 실지로 존재하도록 가져오는데 있다. 지금 그것은 우리의 내향의 확신과 원리들을 삶의 큰 노동, 즉 격렬한 시련이 체험되는 행동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을 행위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 잘 안

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성실과 충성을 가장 높게 보이는 본보기의 증거가 되어왔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랑했고 심정에서 믿었던 것을 그의 삶에서 실감하는데 그의 자연적인 변덕스러움과 선을 행하는데 무력함에 얼마 통탄했는지! 그는 내향의 인간에 따른 하느님의 법에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더불어 법에 대항하는 그의 멤버들 안의 법을 느꼈다. 그가 선을 행하기를 바랬을 때 악이 그와 함께 현존했다. 그래서 그의 영의 바램과 육의 욕망의 대결로 심한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그는 강렬하게 외치기까지 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나를 해방해 줄 것인가?” 영은 간절하나 육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은 곤경과 곤란이 동반되는 것이다. 자연적 마음은 우리의 유전적인 악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영적 마음에서 탄생되었던 영적 사랑과 진리의 원리들이 자연적 마음에 하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것의 참되고 실용적인 빛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주제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다. “여인이 해산할 즈음이면 걱정이 태산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신 때에 제자들의 슬픔을 예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로부터 떠나신 것은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의 첫 출생”이 되도록 죽음을 수단으로 한 것이었다. 옛 사람의 죽음은 새 사람의 출생에 필수적이다. 영적 인간의 출생에 자연적 인간의 저항은 새 사람이 출생하는데 경험되는 슬픔의 원인이다. 그러나 출생이 완성되었을 때 실로 대단히 컸던 슬픔은 대단한 기쁨으로 바뀐다.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아이 출생의 쓰라림은 모성애의 달콤함으로 순간적으로 풍요하게 보상되어진다. 이와 같이 영적 해산의 진통도 새 삶이 영감 받는 새로운 기쁨으로 확실하고 풍부하게 보상된다. 어머니 쪽의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함을 수단으로 영감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의 기쁨은 사랑이시기에 복되고 그분으로부터 파생되었기에 절묘하다. 영적인 출생들이 선함과 진리의 새로운 상태의 존재를 가져올 때, 그 상태는 천국 안에서 거행되고, 새롭고 더 높은 더 없는 행복의 상태가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체험된다. 그들은 더 완전하고 더 행복하다. 그 이유가 그들은 인간성의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여인”이란 교회인데, 이 교회란 우리 밖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기쁨의 원인인 출생되어진 “사람”이란 새

로운 사람 또는 거듭나진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삶의 행동과 말 안에 실지로 존재하게 된 인간의 참된 원리들이다.

22. 위의 교훈적인 유사점을 다가오는 상황을 맞이할 사도들에 적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말하신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에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그분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셨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시고 있다. 이것은 상호적인 지식과 결합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을 뵈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서로의 짝이고, 지각의 완전함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향한 위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뵈는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분을 보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정은 기뻐한다. 그 이유가 심정 안에 있는 기쁨은 의지와 의지 속의 애정에 주님의 진리를 수용함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리를 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느끼고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이 이 기쁨을 불어넣으실 때 그 기쁨은 우리로부터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악과 잘못의 권능은 깨트려지고 사랑과 진리의 권능이 건설된다. 그리고 거룩한 원리들에 불어넣어진 기쁨은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권능 그 너머에 있다.

23. 지금 우리는 새로운 상태와 그 기쁨의 복된 결과를 듣는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나에게 물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보통이 아닌 이 선포는 무엇을 표현할까? 제자들이 그분에게 물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들의 기도가 보내어지되 아버지에게 요청한다는 의미일까? 제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그분의 승천 이후 사용되었던 바대로 기록된 그들의 첫 기도는 그분에게 직접 보내어졌다 (사도행전1:24). 언급되어진 두 번째 기도도 첫 순교자에 의해 그분에게 보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7:59). 지금 공통적으로 이렇게 뜻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기독인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에게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청원을 수여하도록 아버지께 물어야 한다



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신약성서에서 이에 대한 암시가 없다. 한가지 예란, 번역자가 원어에 포함되지 않은 생각을 표현한 경우에서이다. 바울이 서로 용서하도록, 마치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고 에페소인들에게 권면했다 (에페소4:32). 그러나 글자대로 번역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이다. 어쨌든 하느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견해는 여기서이든 성서어디에서이든 가르치지 않는다. 자주 말해서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물들이 아니고 신성 속의 두 본질들이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고 주님이 말하실 때, 그분이 암시하신바, 그분이 제자들의 심정 안에서 일어나시고, 그들이 그분의 사랑의 영향 아래 행동하고 살아갈 때 제자들이 도달하는 더 높고 더 거룩한 상태에서 그들은 아버지밖에 아들에게 물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묻는다. 그러나 지혜의 이름으로 묻는다. 지혜는 사랑을 계발한다. 그 이유가 사랑이 지혜의 지시를 받을 때만이 참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사랑할 때만이 올바르게 사랑한다. 아버지께 묻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고 싶다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것은 지혜의 지시에 일치하는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은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에 의해 감화되고 지혜로 안내되는 한, 그들은 하느님의 뜻과 지혜에 일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의 답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부적당하게 묻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물을 때 우리는 부적당하게 묻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 있게 물을 때, 묻는 것이 무엇이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기도인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하리라. 이것은 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결코 도달 못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해야 하는 대목이다.

24.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신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 상태 근처에 진입하지도 안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해 본 적이 없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의 기쁨은 넘칠 것이다.” 의심해 볼 것도 없이 그들은 하느님께 물었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묻지는 않았다. 아직 그들은 그리

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 인간 안에 계신 신성, 영원한 지혜 안에서 명백히 된 영원한 사랑을 예비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까지는 지혜를 수단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고 품질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장차 오게 된다는 왕국이 지상적 왕국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어서 하늘의 왕국에 속하는 그분의 영 또는 이름으로는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이것을 그들은 머지 않아 행하는 쪽으로 인도되었다. 이것은 그들 삶과 생각의 모든 흐름을 바꾸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것도 묻지 않았는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면서 그들이 묻도록 조언하시고 있다. 이 보증, 참되고 열렬한 기도의 어떤 성공에 관해서 말씀의 모든 곳에 있는 이 보증은 가장 용기를 주는 대목이면서도 동시에 수색하고 있다. 주님께 의해 숨이 불어넣어진 참된 기도는 그분의 뜻과 지혜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 만큼에서만 참될 뿐이다. 모든 참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이다. 참된 기도 안에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이 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 즉 우리 자신의 것을 표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말할 때 우리는 진실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가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기도는 죄짓게 하는 불완전함의 어떤 것을 그 안에 담는 일이 혼한 것은 사실이다. 불완전한 만큼 주님의 뜻에 반대되어진다. 이런 반대의 요소가 항상 담겨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도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기도에 나의 뜻대로 마음시키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를 늘 첨가해야 하리라.

25. 주님께서 아득히 멀리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것을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이 불완전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장차 본문의 제자들만큼 희미한 이해력을 지닌 모든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달하시는 말씀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주님의 말들을 참되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을 비유(proverb)로 들려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께 관하여 비유를 쓰지 않고 명백히 일러 줄 때가 올 것이다.” 비유(parable)는 친숙치 않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친숙한 형상(image)이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비유였다. 그들은 그분을 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분이 하느님이시다고 명백히 아는 수준에 아직 도달되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진리를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 안에 아버지께서 육체적으로 머무신다는 것,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들을 하셨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다. 제자 중 하나가 자기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위의 말을 하셨다. 그들은 명백하고 완전무결한 이 위대한 진리를 알 수 없었다. 그 이유가 주님이 그분 자신이든, 그들 안에서이든 어디에서이든 아직 영화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께 관해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명백히 보여줄 때가 아주 가까웠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만 보여질 수 있었다. 그 이유가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들이 밝히 알게 해주는 자만이 그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본질면이든 인물면이든 아버지와 하나되실 때까지 아들 안에서 명백히 보여질 수 없었다. 인성이 신성이 될 때까지 신성은 인성 안에서 완전하게 보여질 수 없었다. 그런 다음이면 주님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신성을 감추어 놓이게 했던 연약한 인성이 땅에 떨어져 죽는 씨같이 죽음을 수단으로 벗겨질 때, 그분의 부활에서 새롭고 영광의 인성이 솟아오르고 내재하신 신성의 형상이 표현된다. 그 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명백히 보이셨다. 그분 자신 안에서 이런 변화는 그분의 제자 안에서도 그와 상응되는 변화를 생산했다.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뿌렸었던 진리의 씨, 정직한 심정이라는 옥토에 떨어졌던 진리의 씨가 지금 죽었고, 씨가 지녔던 영적 진리라는 씨눈은 튀어나와 신성한 인성안에 계신 주님을 참 대상으로 삼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다.

**26,27.** 이런 때와 상태를 말하시면서 주님은 말하신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너희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시고 있다. 우리는 그 뒤를 잇는 선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성경의 여타 다른 서술을 대단히 글자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끌어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청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의 경우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시고 있다. 대단히 만족스런 이

유인즉, 아버지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아버지가 사랑 그 자체가 시다면, 그분을 설득하려는 기도는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서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구분되는 개인적인물이라는 인간의 생각을 제껴놓고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분, 무한하신 하느님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로 간주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바, 주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길은 그분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이 발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주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지혜가 우리로 이렇게 해야하고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진리는 선으로, 지혜는 사랑으로 인도한다. 진리 역시 선을 바래고, 지혜는 사랑을 바랜다. 그래서 바램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는 바램의 표현이듯, 진리의 기도는 선에 대한 것이고, 지혜의 기도는 사랑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둘의 결합이 결과되면 서로의 바램과 기도는 중단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준비하는 상태를 두고서는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완전한 상태를 묘사하실 경우에는 “나는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버지 스스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시고 있다. 기도의 목적이 달성될 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라 불리는 또 다른 인물에게 기도한다는 글자대로가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기를 바랜다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함은 지혜가 사랑과 하나됨을 위해 가지는 바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바램이 결과될 때 그 바램은 중단된다. 주님께서는 굴욕당하시던 시절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 이유가 그 때는 주님이 유약한 인성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인성이 영화되시고 그분의 신성과 영원히 결합하신 지금 그분은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선함과 하나되기를,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과 하나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이 결과될 때 그 성취를 위한 기도는 중단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들로 표현한 진리를 실감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아버지 스스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28. 주님께서 그분이 말하셨던 마지막 단어에서 표현된 진리에 제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게 하시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에 의해 이 진리가 반복된 것은 그 진리가 신앙의 문제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에서라고만 설명될 수 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왔다. 어떻게 그분이 오셨을까?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느라 또 다른 한 사람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무한하고 전능하신 존재에 관련하여 한순간이라도 마음에 품어보아서도 안되는 항목들이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을 만드심같이 자신을 명백히 나타내심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지혜이다. 지혜는 빛이 열로부터이듯 사랑으로부터 진행된다. 말씀으로서의 예수는 사랑의 빛, 세상에 와서 만민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말씀으로서의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마치 신성한 지혜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된 것같고, 인간의 본성을 입으심으로 세상에 오셨다.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object)은 구속의 일이 결과되게 하는 것, 그 다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자연적 인간성을 입으심으로 세상에 오신 것 같이, 그분은 신성한 인간성을 입으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육을 입으시기 전에 주님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실 때 그분은 천사적 속성을 입으셨고, 그들과의 교류를 마치고 떠날 때 그 속성을 한쪽에 내려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출생으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는 그것을 결코 한쪽에 내려놓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그것 속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제거하시고, 신성하게 완전한 하느님으로부터 출생시키셨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던 것을 하느님에게로 귀환시킬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 자신의 말에 나타나 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주님은 어머니로부터 파생되었던 모든 것을 벗으셨다. 그러므로 지상적이고 유한한 모든 것을 벗으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온 인성, 그러므로 순수하게 신성을 입으셨다.

29,30.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신비하고 알아채릴수 없는 듯 여겼던 그분

의 떠나심, 되돌아오심에 관해 위와 같이 간략한 선포를 보충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쭙어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께서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이 증명하는 그들의 태도란 그들이 얼마나 희미한 지각을 지녔는지 금방 눈치채게 해준다. 이후 그들의 역사 역시 이를 풍부하게 증명하고 있다. 어쨌든 그분의 언어는 명백했다. 그래서 그분의 언어는 진지한 청중자들에게 그분의 한정 없는 지식에 관한 확신,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신성한 근원에 관한 증거 자체를 운반했다. 영적 삶에서 지식에는 진보해감에 따른 수준이 있다. 이것은 계시 속의 진리들이 정신적 발달 수준에 맞추어 열리는 것과 더불어 정신발달의 계속적인 수준을 수단으로 달성되어진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밝히 알리시되 그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수준에서 알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추가하고 승강함을 수단으로 밝히신다. 추가함(addition)이란 그들의 이야기들로 확대하는 것이고, 승강함(elevation)이란 그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더 높은 관점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첫 제자들의 역사에서 이런 이중적인 발달과정을 보게 된다. 진리가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졌고, 천천히 그 취지와 의미가 그들에게 표명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고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이해성을 열어주신 후에야 가능했다. 모든 기독교제자들이 체험으로 아는바, 한 때는 수수께끼 같았던 것들이 마음이 열리고 확대됨을 통해 명백히 보여진다는 것이다. 진리, 그것은 보다 수준 낮은 상태에서는 인간 수준인 듯 여겨지고, 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신성이라고 보여진다. 진리는 마음에 진리 고유의 신성에 관한 증거를 가져다준다. 이런 증거는 신성한 진리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추론(reason)이 도달 못하는 것들에 관해 밝히 알려주는 자일뿐만 아니라 심정의 의도들과 생각 속의 식별자가 된다는 확신으로부터 온다. 이 확신은 교훈으로 꽉차 있고, 만족으로 넘쳐 거기에는 의심의 빈방이 없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도 그분께 물어야할 필요가 없다. 이를 수단으로 우리가 참으로 아는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는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부터 오셨다는 것,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이다.

31.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제야 믿느냐?...’ 이것은 의문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확인 또는 용인(admission)이다. 지금 그들은 전보다 더 총명하고 더 굳건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 더 넓고 더 탄탄한 기초 위에 놓였다. 그러므로 머지 않아 그들이 당하게 될 시련을 버텨낼 수 있었다.

32. 그들의 믿음의 시련들을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밝히 알려신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에 관한 언어는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늑대의 추격과 공격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제각기 흩어지는 양떼들 같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 목자가 맹습을 당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남아 있지만 폭풍이 그들 사이에 몰아붙여 오면 피난처를 찾게 된다.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에서 주님께로 돌아선 애정과 생각들이 제자들로 표현됐는바 그들의 흩어짐은 대단히 인상적인 것이다. 시련과 시험이 극도에 달할 때 애정과 생각들은 서로 갈라진다. 그러면서 그들이 빠져나왔던 옛 것들과의 연결은 행동은 아니다 해도 최소한 바래는 쪽으로 기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시련에 부딪치자 그들이 탈출했던 에집트로 되돌아가기를 바랬던 것과 같다. 극렬한 시험의 상태에서 사랑과 믿음은 서로로부터, 그리고 그것의 저자유 목적되는 주님과 분리되는 듯여겨진다.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을 수용하고 그 믿음을 승강시켜 왔던 애정과 생각들이지만 시험의 상태에서는 내던져 진다. 승강되었던 믿음이라 해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아직 못되어 있다면 내향의 시련이 올 때 쉽게 나가떨어지고 만다. 서로를 묶는 끈, 주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고 그들은 자연적 마음의 욕망과 어둠 안에 침수되어 있다.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정성과 헌신으로 그분께 기울고 있었던 생각과 애정들에 비하면 버림받은 예수는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비중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홀로 계신다. 그런 때조차 그분은 홀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위로 받게 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다. 심각한 시련과 시험의 상태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보통의 신앙생활을 가질 때보다 더 친밀하게 그들과 현존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때에 신성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예전보다 더 극진해져

서가 아니다. 마음의 상태가 시험을 수단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연결을 가져오는 결과를 생산해서이다. 모든 시험은 영원한 생명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반된다. 이때 어둡고 곤경받는 때, 심정을 쥐어짜는 괴로움이 발생한다. 생명의 손실을 두려움에서 생명을 사랑하려는 애착은 다른 때보다 더 강렬해진다. 주님은 이 애착 안에 머무시고 있는바 그분이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는바, 시련이 더 심각하면 더 우리에게 접근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분이 현존하시는 곳은 마음의 내면이다. 그분은 거기에서 진리만으로 있지 않고 그분의 진리와 함께 그분의 사랑도 있다. 시험의 용도 중 하나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영적 마음에서 더 가까운 연결과 하나됨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 지나갔을 때 그 둘은 과거 싸움이 체험되었던 자연적 마음 안에서도 역시 더 충분하게 하나된다.

33. 믿음과 성실이 시련 받은 결과, 시험의 또 다른 복된 결과는 마음에 예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신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영적 평화는 열정이 정복된 결과, 또는 휩싸였던 의심과 두려움의 열매들이다. 자신 안에서는 영적 싸움 따위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 경험되는 평화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아 만족의 평화이다. 자신 안에 들어 있는 악과 전쟁을 치렀던 이들이 예수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 평화는 모든 수준의 이해성을 통과한 평화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이다. 이 평화는 세상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이 죽어질 때까지는 결코 완전히 경험되지 못하는 평화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방해받지 않는 평온을 마음이 확보하게 해 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을 가질 것이다” 라고 무한한 지혜는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시고 있다. 참으로 “세상”이란 우리가 사는 바깥쪽 세계만을 뜻하는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내적인 세계까지 뜻하는 말이다. 세상적 요소는 많은 적든 우리의 생각과 애정에 들어오고, 이것들은 주님과 천국이 언제나 생산해내고 보존하려는 고요를 어지럽힌다.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고난은 슬픔과 낙담이라는 기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기독교인의 고난 안에는 용기와 희망이라는 굳건한 바탕도 제공한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스스로 고난을 견뎌내셨고, 세상을 정복하셨



고, 이를 근거로 제자들이 용기를 갖도록 권면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정복 자체에 우리의 희망이 놓여 있는바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내셨고, 그리하여 우리도 극복해낼수 있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상속받는 본성을 입으셨다. 그분은 인간성에서 일어나기 쉬운 모든 시련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모든 이런 시련들을 이기셨다. 그분은 시험받은 우리를 원조하시기 위해서 시험 당하셨다 (히브리2:18). 그래서 신성한 이 말씀은 그 얼마나 장엄하고 용기를 주는가!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을 겪을 것이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 17

지상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대목에 해당될는지 모를 앞장에서 제자들에 대한 강연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시어 그분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있다. 이 기도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장엄하고 감명적인바, 우리의 겸손과 존경 어린 생각을 가지게 하고도 남는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 한가지 경우는 주님이 산으로 물러가셔서 하느님께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제자들에게 되돌아와 말하신 감사나 라자로의 무덤에서, 계세마니에서 괴로워하신 짧은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자포자기하시는 울음의 말같은 짧은 대목을 제외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헌신적으로 보내는 언어나 주제들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요한이 보존한 이 장의 기록은 주님께서 길게 기도하신 유일한 것이다. 이 기도는 그것을 말하신 분이 참 존재되신다는 점에서, 그 기도를 읽고 있는 책의 비중에서도 그 가치가 있다. 이 기도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참 영으로 호흡하고 있다. 이 기도는 기도의 표현에서 같이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형(pattern)이다. 이 기도는 죄를 대신해 희생한 제물로서 구세주의 고통 또는 순종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청원 같은 것은 그 흔적조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

(Mediator)이셨던 그분의 기도로서 꼭 알맞다. 이 기도의 취지(burden)는 육을 입으 시도록 움직이게 한 원인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구속을 결과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거듭남을 실행시키는 원인, 즉 구세주의 형상으로 새로이 창조하는 것같이, 그들을 하느님과 하나를 만들고, 그 리고 그들을 참 행복이 되시는 그분과의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원인으로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아들과 교통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주변여건 자체는 비록 어떤 점에서는 신비로우지는 몰라도 깊은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유약하고 죄있는 창조물인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의 저차요 자비의 저자에게 도와달라고 청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실뿐 아니라 하느님이셨고, 죄인들과는 분리되는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신성의 지지를 받을 필요를 느끼셨을 것이라는 것, 그분의 영혼을 하느님께 쏟아내야 했다는 것, 등등은 설명할 수 없을 듯 여겨진다. 참으로 이런 상상도 가능하다. 육 안에서 주님의 일은 죄인들 대신에 서서 희생하신 것, 그분의 순종과 죽음처럼 그분의 기도도 그분 안에 있는 그들의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필립보서 2장 6-8절을 읽어보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성한 존재이신 그분은 그분의 신성을 상실할 수 없었고 자기가 신성하다는 의식을 빼앗길 수도 없었다. 그리고 마치 그분이 종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받은 고통, 순종까지도 비실재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신성은 고통받을 수도, 기도할 수도 없다. 그분이 진실로 겸비하고 순종하며 고통받고 간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도록 의존하는 상태에 올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느낌과 인간의 의식을 가진 우리의 본성을 입으시는 방법이다. 예수의 기도, 실제의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안에 있어야만 한다. 어쨌든 그분의 기도는 깊이에서, 순수성에서, 신뢰도에서 인간의 기도를 능가하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이것 또한 참되다. 비록 주님의 기도가 본성 측면에서 인간적이라해도 근원 측면에서는 신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항에서 그분의 기도

는 어느 다른 인간의 기도와 유사했다. 하느님이 기도의 대상이요 저자이시다는 성경의 교리에서이다. 우리가 기도에서 표현되는 모든 거룩한 바램과 생각은 기도가 전달되는 그분에 의해 영감된 것이다. 어느 기도라 해도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천국으로 승강될 수 없다. 따라서 예수의 기도가 인간의 기도의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신성한 생각은 천국에서 하강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변화되었어야 하거나, 주님께서 어머니쪽 인성의 유한한 자질을 입으시어 신성이 그 안에 내려오실 때 필요했던 사항같이 인간생각으로 신성한 생각을 옷입혔을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예수께서는 그분 안에 내재하신 신성에 분리된 존재로서 기도를 보낼 수 있었는지를 착상해보는 것은 곤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곤란은 어쨌든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것은 아니다. 신성과 인간의 의식은 무한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두 의식을 소유하는 이들에게 이 두 의식은 무한하게 먼 거리를 느끼게 한다. 주님의 인간적 의식은 신성과 분리된 듯, 아주 멀리 떨어진 듯 여겨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분은 우리 자신같았다. 비록 하느님보다 더 가깝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로부터 더 멀리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분리됨이라는 감각은 공간 차원이 아니라 상태 차원이다. 무한과 유한 사이에는 비례(proportion)라는 것이 없다. 예수께서 시험 당하고 고통받으신 상황 같은 굴욕 받는 상태에 계셨을 때 그런 상태가 그분에게는 마치 아버지께서 자신과는 분리된 존재,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여겨졌다. 그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유한한 의식을 가진 어머니쪽 인성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영화되는 상태에 있으셨을 때에는 유한한 개체성이라는 감각을 가지시지 않았다. 그 이유가 그 때에는 아버지쪽 인성 안에 있으셨고, 아버지와 그분은 하나로서 말하셨기 때문이다. 현재 그 둘은 완전하게 하나이다. 하나인바 인성은 분리라는 어떤 느낌도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주님은 과거 지상에서 하셨던 중재자적인 기도를 하실 수 없다.

이 장의 기도에서 첫째가는 일괄적인 청원은 이것이다. 아들이 영광되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서 영광되시라는 것, 그 영광됨 안에서 인간이 구원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영화하심이 완성되고,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되셨을 때 예수는 인간의 방식에 따라 더 이상 기도하실 수 없었다.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여전하시다. 이것은 그분의 기도 안에서 표현되고도 있고, 그분 안에서 무

한하게 행동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 꾸준히 실시되어서 죄인들이 그분 자신과 재회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하느님이요 구세주로서의 그분과 더 친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됨 쪽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있다. 바램이 기도의 필수이듯, 인간 구원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비록 더 이상 발음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의 방식과 언어에서 여전히 묘사되고 있다. 똑같은 이유로 주님이 보내는 성령은 발음될 수 없는 소리 (groaning)로 우리를 위해 중재를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로마서8:26). 이것은 지금 그분이 계신 것같이 주님 자신에 관련된 이 장의 언어의 사용을 위해 만족스런 이유를 공급한다. 성령의 중재는 비록 우리를 위해서이지만 기도의 영감을 주는 자로서 우리 안에 실재로 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하십니다” (로마서8:26). 비록 주님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 해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이 신성한 영향력은 그분 자신의 연약한 인성 안으로 내려오셨고, 실제적이고 진지한 기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적 심정과 입술로부터 승강하셨고, 지금은 그분의 영화된 인성으로부터 유약한 우리의 인간성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심정과 입술로부터 그분께로 마치 그분이 아버지께로 오르셨듯 오르시려 하시고 있다. 이것이 거행될 때, 이 신성한 기도의 마지막 목적,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 성취되어진다.

1.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감각 속의 하늘(heaven)은 영혼(soul) 속의 하늘과 상응된다. 마음의 눈이 방향을 바꿀 때 육체의 눈도 그렇게 된다. 눈을 하늘 쪽으로 들어올리는 것은 생각을 하느님의 옥좌에로, 그 위에 앉으신 그분께로, 그런고로 천국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에도 승강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내향의 승강, 즉 인성에 내재하는 신성을 더 내면적으로 지각함을 주었다는 것에 관한 바깥쪽 표시였다. 또는 그것은 그분의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선을 향해 주님의 외적 인간 안에서 신성한 진리가 승강함을 표현했다. 내적 인간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의미되었고, 외적 인간은 아들이 계셨던 땅으로 의미되었다. 그 이유가 주님의 영광

됨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선과 진리의 하나됨, 그로부터 그분의 인물(person)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에 있다. 아들이 찾았던 아버지, 그분이 하나되기를 열망했던 아버지는 그분의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선 또는 신성한 사랑이었다. 우리가 주님의 인성 안에서 선과 진리의 하나됨에 관해 말하든, 또는 신성과 인성이 그분 안에서 하나됨에 관해 말하든 그것의 결론은 똑같다. 그 이유가 이것은 저것을, 저것은 이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됨은 13장 31절에서 이미 살폈다. 거기서 주님은 지금 그분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사함과 유사한 말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아들에 관한 아버지의 영광됨이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영광됨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도 영광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질서의 법에 따른 것이다. 선이 작용하고 진리가 협조하여 작용한다. 선이 행동하고, 진리가 다시 행동한다. 선은 진리를 자체에 하나되게 해서 승강시키고, 진리는 승강되고 하나되기 위해 스스로 감내한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의 하나됨은 상호적이다. 신성이 인성과 하나됨, 인성이 신성과 하나됨은 선이 진리와 가지는 신성한 결혼, 주님 안에서 진리가 선과 가지는 신성한 결혼이고, 이로부터 천국적 결혼, 인간 안에서 선함과 진리의 결합이 온다.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그러므로 서로의 작용이고 상호적이다.

2.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 그 하나됨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 기도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flesh)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화되심의 직접적인 효과는 모든 육체(flesh)를 지배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이다. 주님께서는 육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인간 본성을 능가하여 구원하는 권능을 획득하기 위해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신성한 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언제나 똑같지만, 그 권능을 인간에 연계해 생각하면 악의 창궐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신성한 권능이 쇠약해진 듯 되었다. “모든 육체의 일들이 땅위에서 썩어 있었다”(창세기6:12).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이 육체를 입는 것밖에 더 다른 회복의 수단은 없었다. 이 방법만이 그분 자신을 인간에게 상대적이거나 더 가까이 가져오게 하

였다. 주님께서 모든 육체를 지배하는 권능을 획득하신 것은 억측(assump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영화됨에 의해서였다. 이로부터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기도의 언어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다”로 되어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능을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심으로 획득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 의해 결과되었다. 신성한 인성이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능을 가진 것은 기꺼이 거둬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유한한 인성을 주님 안에 있는 인성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육을 입으심의 큰 신비이다. 즉 하느님은 인간과 함께 구원하는 현존을 획득하셨다는 것, 그리고 인성을 영화하심 안에서,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권능을 획득하셨다는 것, 이 권능을 신성은 인성에 주셨는데 그 수단은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심으로 하셨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이 권능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 이 구절의 숫자를 두고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어떤 숫자만을 뽑아서 그분께 주셨고 그 사람만이 구원되고 구속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식의 오관은 있어서는 안된다. 엄격한 글자적 의미는 이와 반대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직접적이고 제한된 숫자는 열 두 사도, 오히려 아마도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에 충직히 남았던 열 한 명이라는 숫자뿐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복음의 첫 열매밖에 더 아니고, 이 씨로부터 풍부하고 한없이 증가하는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되어 있다. “그분의 통치와 평화에 관한 그들의 것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분의 주권은 스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7:14). 주님의 주권의 보편성이 개개인의 선택 안에서 제한을 받는 것과 모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문의 주님의 말씀도 열 두 명이라는 신성하게 임명된 제한된 숫자와도 그 자체 모순된다.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음에도 구원하시는 그분의 작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구절과 엇비슷한 언어로 표현된 구원함에 한계가 있는 것을 몇 번 말한 적이 있다. 그 때 우리가 살핀 것을 본문과 같이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란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혜 속의 거둬나게 하는 권능을 수단으로 자신이 그분께 끌려지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모든 이들이다.

3.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이 이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인지 선포하신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들의 기능, 그것이 여기서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는 바같이, 인간에게 유일한 참된 하느님, 그리고 그 참된 하느님께서 보내셨던 분으로서 자신에 관한 것같이, 아버지께 관한 지식을 주는 것이다. 그 지식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유일한 참된 하느님이라 부르고, 자신을 구세주, 즉 세상에 보내신 기름부은 자로서 말하신다. 독단적인 견해를 펼친다면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는 두 인물들일뿐 아니라 아버지에는 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상상해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과 모순되는 것으로 우리를 마주치게 하는 언어 자체의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한 참된 하느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는 아들에 관한 지식도 아버지께 관한 지식과 동등하게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에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일한 참된 하느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란,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다. 두 본질은 비록 완전하게 동등하고 하나되고 있다 해도 완전하게 구분된다. 주님의 신성한 말씀에 포함된 위대한 진리는 이러한즉,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알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들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어떤 이들은 그분이 아버지보다 한 등급 아래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가 그들은 아들이신 그분의 인성은 어느 다른 사람의 인성 같은바, 그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보다 무한하게 한 등급 아래 일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신성한 인성에 관한 지식은 다함께 영원한 생명을 구성한다. 주님의 신성은 유일한 참된 하느님이요, 그분의 인성은 유일한 참된 인간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디모데전서2:5). 주님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은 마치 영혼과 육체같이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느님은 사람이시고 사람은 하느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참된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지나가 버린 교회에 불과한 지식, 유대인의 하느님에 관한 지식일 뿐 기독교인의 지식이 아니다. 기독교라는 교

회의 처방 아래에서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명백히 나타난 지식들, 아버지와 더불어 있었다가 우리에게 명백히 나타내 보이신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고 그 생명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와 친구관계를 가진다 (요한1서2:3).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그분과 친구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특전이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 안에 계신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고 교류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4. 계속 아버지께 기도를 보내는 주님이 지금 말하신다. “나는 지상에서 당신을 영광되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하라는 일을 마쳤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했고, 그분의 일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점진적일뿐 아니라 계속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연속적인 등차일뿐 아니라 불연속적, 구분되는 등차에 의해서도 결과되었다. 이것이 원문 자체에서 표현되고 있는바 읽기가 애매하지만 그대로 번역한다면 “나는 영광되었다. 나는 끝냈다” 로도 될 것이다. 이것은 영화됨의 특별한 행동, 이미 말했듯이 특별한 단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될는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끝냈다고 말하실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그분의 일이 끝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나는 지상에서 당신을 영광되게 했습니다” 하고 말하시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예수는 그분께서 가르치신 신성한 지혜의 교훈과 그분이 수행하신 자비의 많은 신성한 일들로 땅 위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라는 한 인물에 관련시켜 영광됨을 생각한다면, 땅은 그분의 인성의 지상적, 자연적 부분을 표현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상에서 영광되신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것을 신성으로 만드신 만큼에서 였고, 신성과 인성이 본질적으로 하나되기까지 했을 때이다. 그 둘은 영화됨의 행동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로서는 아직 아닌데, 그 이유가 다음 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5.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더불어 나를 영광되게 하십시오.” 이 말들은 매우 놀랄만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근원과 목적(object)을 생각해보



아야 한다. 이 장의 머리 글에서, 바램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의 청원은 우리를 “무엇이 바램의 본질인가?”에 대해 더 깊이 더 멀리 조회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다. 거룩한 바램은 진리가 선을 위해 가지고, 선이 진리를 위해 가지는 친화력(affinity)이다. 이것과 본문과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을는지 모르나 연결되고 있다.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선함과 진리와 관계되고 있다. 모든 완전함은 그 둘의 하나됨(union)으로부터 발생한다. 모든 불완전함은 그 둘의 분열(disunion)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 안에서 상태의 완전함은 행복을, 불완전함은 불행을 생산하는바, 행복과 불행의 수준은 모든 것의 원리들인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과 분열됨의 수준에 의한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불완전함과 불행의 느낌은 우리에게 기도에서 표현된 바램을 주고 있다. 사악한 자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선함과 진리의 분열, 뿐만 아니라 악과 거짓의 하나됨이 있다. 이 하나됨에 관해 꼭 말해두어야 할 것은 이것은 불행뿐만 아니라 재난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들 또한 자기들의 바램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성하는 원리에 그들의 근원을 두고 있다. 거룩한 바램이 선함과 진리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이 있듯이 불경한 바램도 악과 거짓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이 있다. 선은 진리를, 진리는 선을 바랜다. 마찬가지로 악은 거짓을, 거짓은 악을 바랜다. 전자나 후자에 속하지 않는 인간의 바램은 사실상 없다. 완전과 불완전, 그 결과인 행복과 불행을 현 주제와 관련해 말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제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해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면 불완전하다는 느낌,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행은 기도에서 표현되는 바램을 주고 있다. 우리의 바램의 직접적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은 만일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원리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행복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이다. 따라서 완전함은 이 목적이 도달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선함과 진리의 천국적 결혼은 완전함과 행복의 참 바탕이요 유일한 바탕이다. 모든 것에서와 같이 이 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요 모형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듯 그분은 영화되셨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완전함이 존재하는 이 하나됨, 그분 안에서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강렬하게 바래시고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이 지금 그분께서 아버지에게 전

달하는 청원이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당신과 함께 영광되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하는 신성한 지혜이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당신 자신과 더불어 나를 영광되게 하소서” 인바, 이 기도는 절대적 측면에서 신성이 육체적으로 충만 되어 머무시는 그분만에 의해서만 제공될는지 모른다.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 신성이 그것의 모든 특질을 인성의 소유가 되도록 한다는 것, 인성이 신성이 되는 것 등등밖에 더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결과되었을 때, 신성과 인성은 충분히 하나되어 주님이 기도하신 목적인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다. 우리가 인성이 신성과 하나됨에 관해 말하든, 또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인성 자체 안에서 하나됨에 관해 말하든, 결과는 똑같다. 그 이유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인성 자체 안에서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어진 기도의 말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영광되게 하소서” 이었다. 세상 창조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은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되어 있는 무한한 지혜의 영광이었다. 신성이 기도할 수 없는바, 현재의 청원은 스스로 계셨던 바와 같은 영원한 말씀에 의해 제공될 수 없었고 인성 안에 계셨던 바와 같은 영원한 말씀에 의해 제공될 수 있었다. 참으로 인성 안에서는 완벽하게 영화되지 않는다. 신성한 지혜로서의 예수에게 신성한 사랑으로서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느낌을 준 것은 육을 입으심이었고, 이것이 하나되고저 하는 열망, 그분과 다시 하나(reunion)되고저 하는 열망을 높이 치솟게 했다. 이 하나됨이 영화하심이었고, 주님의 영화하심은 신성한 지혜가 세상이 있기 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귀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입으셨고 영화하신 인성 안에서, 인성과 더불어 있었다.

6. 이 기도 전체가 제자들과 관계되는 점에서 지금 표현되는 관점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그분의 본성을 표현해 준다. 예수는 이름일뿐 아니라 하느님의 속성들, 즉 신성한 뜻과 지혜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속성들을 그분은 그분의 인물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과 일들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분은 이것들을 아버

지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분께 주셨었던 사람들에게 명백히 나타내셨다.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분께 준 이들이란 하느님을 사랑함을 수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끌어내지도록 자신을 허용한 이들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힘을 수단으로 그분 자신과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분이 아버지께 “그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끌어질 때, 주님께서 “당신은 그들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이들이다. 단순한 선(simple good)에 있는 이들, 그들이 어른이든, 아이이든, 기독교인이든, 이교도이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만큼에서 그분 자신과 천국과 연결되어 보존된다. 그러나 선만이 기독교인과 천사적 특성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선과 진리가 하나됨으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와 은총의 꾸준한 목적(object)은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진리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지식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아들에게로 언제나 이끄시고, 아들은 인간을 아버지에게로 언제나 인도하신다. 그 이유가 선을 통하여 주님은 인간에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받도록 배려하시고,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그들의 선이 형성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선을 그분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것으로, 그 선에 의해 그분의 사랑이 명백히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아버지께 의해 아들에게 주어진 이들이란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수단으로 그분의 진리로 끌어낸 이들과 같다. 그러므로 첨가하신 말은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었다. 주님의 말씀이란 그분의 진리이다.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 불리울 때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뜻한다. 사랑에 의해 진리로 이끌리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들은 그것을 알뿐 아니라 그것을 살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냄으로 그들은 자신 안에서 그것을 실감한다.

7. 주님의 말씀을 들음은 아버지의 지식을 아들에게 준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그것 모두는 신성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알고 있다. 이 지식의 획득은 모든 참된 제자된 신분에 상응하는 단계에 소속되고 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을 지킬 때까지 그리스도의 참 신성, 즉 그분의 인성의 신성하심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알려지지 않는다. 주님의 인성의 신성

의 형상(image)이 우리 자신의 체험 안에서 반사(reflect)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결코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spirituality)이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의 형상이다.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의 모든 것이 신성한 선 속에 있다는 것, 신성한 선의 실체를 표현한 형상(히브리서1:3)이라는 것도 더불어 안다는 것이다. 본질(essence)은 형체(form) 속의 모든 것이고, 실체(substance)는 형상(image) 속의 모든 것이다. 주님의 신성한 진리, 또는 신성한 인성은 신성한 선이 형체로 있는 것밖에 더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리는 자신의 선함의 형체와 형상, 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향한 그의 사랑의 형체와 형상이라는 것을 알 때,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8. 주님께서 계속 이으신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들은 비록 표현에서 인간적이다 해도 근원과 본성 측면에서 신성이었다. 그리고 비록 진리의 말들이나 해도 사랑의 말들이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받았을 경우 그것은 사랑의 말씀이었다. 이것이 제자들로 확실히 알게 한 것은, 신성한 진리 자체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 진리의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은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의해 보내진 특사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8장42절에서 살폈듯이 신성한 진리는 그 스스로 왔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이 보낸 것이다. 만일 신성한 진리가 그 스스로, 그것만 왔다면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을 단죄했을 것이다. 진리는 사랑이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진리 안에 머물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던 것이고,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받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 사랑 없이 받은 진리는 아직도 단죄한다. 그 이유가 진리를 알고 있을 뿐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심판 받기 쉽다. “내가 말했던 그 말들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로부터 주님의 기쁨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한 알게 된 것에 있다. 어쨌든 이 정도조차도 그들이 참된 제자라면 소유하도록 요구되는 지식의 절반만 소유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실히 알았으나, 그들은 그분이 하느님

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기꺼이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그들은 그분이 영화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이유가 그분이 이런 사항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슬픔이 그들의 심정을 메웠을 뿐이기 때문이다.

9.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기도 대상이 아니다. 세상의 원리를 구성하는 추상적 의미의 세상 자체는 존재 않았고 존재될 수도 없다. 아버지께 의해 아들에게 주어진 이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것은 선한 이들이고, 세상의 것은 악한 이들이다. 주님의 현재 기도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세상너머로 들어올려져 왔었던 이들, 그리고 선함을 수단으로 진리를 인정함으로 가져와졌었던 이들이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주님의 기도에는 이런 사항 역시 포함되고 있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진리를 지각함과 하나되어 왔었던 선에 대한 애정이 보존되고 완전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분은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받았던 천국적 원리와 혼합된 세상적요소를 위해 간구하신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간구하셨다는 표현보다는 반대하셨다고 하는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

10.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첨가하신다.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안에서 영광되어졌습니다.” 이 말들을 주님 자신의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신성이 아들의 인성에 속해 있다는 것, 아들의 인성은 아버지의 신성에 속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사람이시고 사람은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진실로 아들의 것인 모든 것, 모든 개인들은 아버지의 것도 되고, 실지로 아버지의 것인 모든 것은 아들의 것도 된다. 진리 안에 진실로 있는 모든 이들은 선함 가운데도 역시 있고, 선함에 실지로 있는 이들은 진리 안에서도 역시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사랑 역시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믿음도 가지고 있다. 거듭나는 동안 제자들은 선과 진리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그 하나됨은 불완전해 있다. 이것은 저것에 의해 완전해진다. 진리는 선을 순수하게 하고 계발시켜 주고, 선은 진리를 따뜻하게 하고 드높인다. 전자가 순수해지고 후자가 드높여질 때, 그들은 하나되고, 그들의 하나됨이 거듭남을 구성한다. 그러면 전자가 가진 모든 것은 후자의 것이다. 선은 진리에 속하고 진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진리는 선에 속하고 선에게 빛을 준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과 관련될 때 위의 설명은 제자들의 상태이다. 그리고 주님이 거듭나는 이들 안에서 영광되실 때, 거듭나는 사람 안에서 “나는 그들 안에 영광되었습니다” 라는 신성한 말씀이 성취된다. 영광 (glory), 이 단어를 주님께 관계시켜 볼 때,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 그 이유는 신성한 진리가 천국의 빛이기 때문이고, 이로부터 천사와 인간에게 모든 총명과 지혜가 파생될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행복도 나오기 때문이다. 영광이 이러한바, 주님의 영광은 천사와 인간을 계발해주고,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며, 행복 되고 즐거운 모든 것으로 축복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에 장려한 아름다움을 준다. 그러므로 신성한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는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인간적 영광은 자신의 탁월함만을 추구하나 신성한 영광은 타인들에게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1. 주님께서 계속하신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들을 당신의 이름을 통해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다 (16장33절). 제자들은 세상을 아직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안에 아직 있다. 그러나 예수는 세상을 정복하셨는바, 그분의 제자들 역시 이겨낼 수 있게 해 놓으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고난을 건너가면서, 그들 자신의 심정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느라 분투하는 동안, 주님의 바램과 기도는 “거룩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이 내게 주셨던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이었다. 아버지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신성에 청원을 보냈던 예수께서 지금 그분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교회 멤버를 보존함이 원하고 바라던 복됨일 경우 하느님이 거룩함으로 불리는게 타당하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가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있다. 가장

높은 측면에서 예수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 이유가 예수가 아버지를 알려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룩함은 여호와 예수 모두에게 있는 특출한 품성이다. “당신은 옥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 (시편22:3). 예언적으로 예수는 거룩한 분으로 불리우고 있다 (시편16:10). 그분은 임신되신 때부터 거룩하셨다 (누가1:35). 천국에서 그분은 거룩이신 유일한 분으로 찬양되었다 (계시록 15:4). 주님자신이 거룩하신바, 천국은 그분의 거룩함의 옥좌이다 (시편47:8). 그리고 거룩함은 땅 위 그분의 집이 된다 (시편93:5). 주님은 거룩한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교회 멤버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자들을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킨다는 것은 그들을 거룩함의 상태로 보존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임을 특징짓게 하는 거룩함은 예수 자신을 특징 지워주는 것, 그분만이 있는 거룩함, 그분만이 인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함에 속한 것이다. 이 거룩함은 마치 그분의 신성의 형체 또는 이름으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 또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 또는 이름으로서 그분의 진리 안에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룩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사랑에 의해 진리에로 이끌려 왔었던 이들을 똑같은 영향력에 의해 믿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이도록” 하는데 있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형상이요 효과이다. 아버지와 아들, 신성과 인성은 하나이다. 마치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 의지와 이해성이 하나이듯, 선과 진리가 하나이듯 한 것과 같다.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이런 하나됨(unity)은 인간 안에서 하나됨의 큰 원형(grand archetype)이요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됨의 큰 원형이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불일치는 영과 육, 의지와 이해성의 분열(disunion), 불화에 그 원인이 있다. 이를 위해 섭리가 장치되었다는 것은 그 얼마나 다행인가! 이것을 바래어 간구하신 이 기도는 그 얼마나 자비로운가! 우리 속의 하나됨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같이 되는 것, 그들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취(consummation)이다. 우리가 육의 욕망을 이겨내고, 자연적 모든 욕망과 더불어 옛 사람이 영적인 모든 애정과 더불어 새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의지의 바램과 이해성의 생각들이 일치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자기가 생각한대로 뜻하고, 뜻한대로 생각할 때, 선행과 진리, 이타애와 믿음이 마음과 삶의 모든 행동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을 때, 영과 육은 하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결과되었던 하나됨으로 결과된 것이고, 이것만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은 화합시키고, 각각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됨이다.

12. 우리의 주님께서 말하신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그 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시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던 동안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 지금,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있다. 우리의 주님께서 말하시는 두 시기는 모든 제자들의 체험에서 발생하는 두 상태들이다. 첫 번째 상태는 진리의 힘으로 선함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상태는 선함의 힘으로 진리를 간직하는 상태이다. 주님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 선 자체와 진리 자체 모두 이시다. 첫째 상태에서, 진리가 제자들을 선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들과 더불어 계셨고, 둘째 상태에서, 선이 그들을 진리를 수단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들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셨던 모든 이들, 즉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리에 이끌려 왔었던 모든 것을 간직하셨다. 제자들 중에 멸망의 아들 안에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이들 중의 한 명인 유다가 바로 한 가지 예외이다. 그는 사랑을 수단으로 진리로 이끌려 왔던 사람이었으나 후에 타락해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 모독죄를 짓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유다는 유대교회를 표현했다. 그 교회가 말씀을 소유하면서 말씀 속의 진리를 뒤집었다. 마치 유다가 주님이라는 인물로 육이 된 말씀을 배반한 것과 같다. 유다는 인간 본성 속의 육에 속한 원리들도 표현했다. 이 원리는 진리를 뒤집는 것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유다는 인간 사이에 있는 육적인 마음도 표현한다. 이 마음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도구로 진리를 이용해버린다. 진리가 자신의 심정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 진리를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진리를 모독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인 대신 멸망의 아들인 것이다. 멸망(perdition)으로 번역된 단어는 완전한 파괴를 뜻한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 곳, 메뚜기 군대의 왕이 되



있던 끝이 없는 구렁의 천사의 이름으로 계시록(9:11)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이름이다. 메뚜기란 감각적 원리의 상징체이다. 이 원리가 통치할 때 모든 선과 진리의 완전한 파괴, 멸망이 결과된다. 그 이유가 인간이 그의 감각에 노예가 되고 있을 때 그는 모든 영적인 선과 진리를 뒤집고 부정한다. 그러므로 메뚜기는 왕을 가졌고,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 파괴자이다. 지금 유다는 인간 본성의 가장 낮은 감각적, 또는 육적 원리를 표현했다. 멸망의 아들을 잃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성취되는 것이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누군가가 멸망의 아들, 악마의 자녀라고 불리울 때, 이것은 그가 확증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이유가 이미 살핀 바대로(1장13절),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는 악마의 자녀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그 자신을 통치하는 사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것을 닮아 감으로 태어나져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 빠른 측면에서 보면, 멸망의 아들이란 악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출생한 거짓 원리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선함의 산물이듯, 거짓은 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멸망의 아들은 잃게 된다고, 성경이 성취되기 위해서라고 말해지고 있다. 유다에 관한 예언은 시편 109편에 있다. 이 시편은 주님의 깊은 시험을 취급하고, 가장 격렬한 저주가 적을 향해 말해지고 있다.

13. “지금 나는 아버지께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물 안에서 인성이 신성과 하나됨이 지금 가까워졌다. 거룩한 기도의 이 구절,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됨이 마치 성취되신 것처럼 말하시고 있다. 이것은 말씀이 미래사건들을 말할 때 있는 것으로 대단히 흔하다. 특히 그것들이 주님께 개인적으로 관계될 경우 마치 그 사건들은 현재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이사야9:6). 그러나 본문의 경우 추가되는 이유가 있다. 이미 우리가 살폈듯, 주님의 영화하심은 계속적인 등차를 수단으로 결과되었다. 그리고 각 등차(degree)는 두 가지 구분되는 행동들, 즉 내적 인간에서의 행동과 외적 인간에서의 행동들로 구성되고 있다. 주님의 내적 인간의 영화하심이 지금 결과된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완성하는데 요구되어졌던 모든 것은 십자가의 수난이었고, 이를 수단으로 외적 인간, 그분의 몸까지도 신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 나는 당신께로 옵니다, now come I to

thee"는 그분의 말은 지금 때가 된 것, 이미 성취하셨다고 말하셨던 것, 즉 인성이 신성과 완전히 하나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비록 그분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해도 그분의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있었다. 그런고로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말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내 기쁨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려 해서" 였다. 영적 측면에서 세상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인데 주님은 이 측면을 말하시고 있다. 글자대로 보면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보내고 있다. 영적으로 이것은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아직 그들 안에 있는데 그 세상은 온전히 이겨내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있는 제자들에 관련해 생각하면, 주님의 이 기도는 심정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하나된 후 이해성에 있는 그분의 진리의 열망(aspiration) 이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복된 결과가 천국적 기쁨으로 충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그분의 기쁨이라고 부르시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기쁨이라 부른 기쁨은 진리가 선과 하나될 때 그 진리가 가지는 기쁨이다. 거듭남은 노동과 슬픔의 일인바 거듭남 후의 기쁨이야말로 어떤 기쁨인지 곰곰이 되새겨보면 위의 주님의 기쁨을 감지 할 것이다. 진리를 수단으로 거듭남이 결과되는바, 진리는 실질적인 대리인(agent)이다. 진리는 이런 일을 자연적 마음 속의 악과 싸워서 그것을 몰아냄으로 수행해낸다. 악과 싸울 때는 슬픔의 때이다. 그러나 전투가 끝나고 진리가 선과, 믿음이 사랑과 하나될 때 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뀐다. 이 기쁨이 기도의 내용인바, 이 기쁨은 아직 실감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진리가 아직 자연적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함축하게된다. 이 마음은 개인적으로, 실험적으로 세상을 말한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쁨은 그분 자신인데, 그 이유는 거듭남이 그분의 영화하심의 형상 때문만이 아니라 더불어 거듭나는 상태의 기쁨은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의 기쁨이 가득차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거듭남은 신성한 진리가 자연적 마음 속의 악과 싸워서 결과된다고 위에서 말했다. 이에 관해 우리 주님께서 말하신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도구인 진리는 진리만이 아니다. 선함으로부터 온 진리가 새 삶, 기독교인의 체험의 실지의 시작을 형성

하는 진리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진리가 바로 위의 진리이다. 그 이유가 그분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은 아버지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적사랑과 적대관계에 있는 품성 속에 위 진리는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은 지식의 형태로 있는 진리에는 대항하려 붕기하지 않지만 선함의 형태로 있는 진리에는 일어나 대항한다. 세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미워한다. 그이유가 천국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세상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짓에 반대되기 때문이고, 언제나 미움과 적대감만을 일으킨다. 이런 진리는 제자들을 세상 속에 있지 않게 만든다. 마치 선함으로부터 오는 진리 자체로서의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다.

15.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이 기도, 자연적 의미에서 생각해도 대단히 유익하고 유용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세상은 천국을 위한 학교이다. 세상 속에서의 의무들, 만족들, 시련들은 더 높은 세상에 있는 선용(usefulness)과 행복을 우리에게 교육하는 수단으로 모두 신성하게 허용되거나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이세상에서 기독교인은 그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원리를 실습할 현장을 발견한다. 격리된 생활이 정신적인 종교나 바깥쪽 경건함에 더 적당할 듯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종교는 하느님을 생각해보는데 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닌 본질적인 경건함에 존재한다.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말들, 행위들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관심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세상이든 천국이든 관계없다. 이 세상 속에서 노력하고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 천국적 삶을 가꾸는데 불리하게 한다는 관념은 천국적 삶이 무엇인지에 관한 완전한 잘못에서 근원 되고 있다. 주님의 왕국은 씹씀이(use)의 왕국이다. 현재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위 왕국의 씹씀이와 의무들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도록 창조와 섭리의 법칙을 수단으로 질서 잡혀 있다. 정의를 실습하는 학교인 이 세상은 덕행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악행을 행하도록 하는 시험도 받게 한다. 죽음의 나무는 아직도 생명의 나무 옆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참다운 덕행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하는데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 한편 그들이 악으로부터 지켜

지기를 기도하시고 있다. 그분은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을 바래시고 있다. 세상 안에서 죄있는 행동으로 존재하는 악은 죄짓고 싫어하는 경향성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상존한다. 따라서 자신 안에서 악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바깥 세계에서도 악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극복할 기회를 우리에게서 박탈한다.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함이 극복되어지는 행동과 그 반대 행동이 있는 동안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 자체의 연결도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덕 있는 행동은 시험을 피함으로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정복함으로 결과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세상으로부터 은둔해 생활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생활로 가능하다. 우리가 세상을 실지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안에 있을 때뿐이다. 그 이유가 우리의 원리들이 실지로 테스트 받는 것은 이 세상뿐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도피함으로 혜택을 잃는 것 외에 우리가 생각해야하는 것은 그분이 수여하는 혜택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다 놓은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기도 하다. 그것은 안쪽으로 우리 자신을 누르는 것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여행길에서 타인을 돕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의 영역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 주님의 바램은 세상의 참 악들을 선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만이 악의 시험에 저항하는 참된 선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부분적이거나 들추었던 세상에 대한 순수한 영적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란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이다. 이것은 주님께 의해 마음 안에 이식되어져 왔다. 세상은 자연적 마음 자체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란 자연적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는 유전적인 악, 그리고 우리가 획득한 악이다. 영적인 선이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 원리대로 살았어야만 한다. 영적인 선이 마음의 의도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선은 삶의 행동과 습관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선은 세상이나 세상의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추상적 원리에서는 발달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된 채 존재하는 악으로부터 지켜질 때 발달된다. 이런 발달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은 선이 악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조금이라도 악과 뒤죽박죽되어서는 안되는 것, 또는 악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님은 인간 마

음 안에서 선을 악으로부터 절묘하게 분리하신다. 그리고 그분 자신으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있는 어떤 것들과 혼합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꾸준히 섭리하시고 있다. 선과 악을 혼합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혼을 가장 깊은 재난으로 빠지게 한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되 악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그분 스스로 말하신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모든 참된 제자의 심정에 지금도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모든 제자가 실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16.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심으로 위 진리를 더 명백한 빛에 놓으시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신 본보기는 경건하든 또는 감정적이든 추상적인 모든 종교 형체에 대한 실제의 꾸지람이다. 그분은 세상의 인간 사이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선을 베풀었다. 그분은 그들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장터에서, 길에서 만나셨고, 슬퍼하고 있는 집에도 들어가셨고 잔치석상에도 앉으셨다. 세상에서 그분의 삶은 짧았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는 30세이었다. 그 나이 이전에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는지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기록되지 않은 그분의 삶은 기록되어진 삶을 준비시켰다. 그분의 삶의 세부적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것은 그분의 무한한 선행과 가장 순수한 거룩함의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있다. 그분만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시면서 “나는 세상 속에 있지 않다” 라고 진정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세상의 원리들을 동기로 하여 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세상의 불순물로 때묻은 적도 없으셨다. 그분은 거룩하셨고, 더럽혀지지 않았고 죄인들과는 분리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들은 얼마 큼의 분량일지는 몰라도 기독교자들의 것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그와 같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참된 제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신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그분 자신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아는 수단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비세상적인 품성이다. 세상 안에(in)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of) 있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추종자에 관해 주시는 묘사이다. 인간을 참된 제자로 만드는 것은 그 원리 자체에 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다 해도 세상 속에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주님 자신과 닮아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리는 그것의 본성에서 비세상적이고, 비세상적인 것이 파생되는 신성한 진리와 같다. 그래서 비세상적 원리는 제자들을 비세상적 삶으로 안내한다.

17.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제자들은 영적인 순수함과 온전함을 발전시킬 수 있다.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정화시켜주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화한다 (sanctify)는 것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화는 신성한 진리에 의해 결과되어 진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해성에 접수된 상태의 신성한 진리만으로도 아니라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된 신성한 진리, 즉 심정에 접수된 신성한 진리에 의해 결과된다. 그러므로 정화되게 하는 신성한 진리는 말씀 - 씌어있는 말씀이다. 말씀은 거둬나게 하고 구원해주는 모든 진리의 직접적인 샘이고, 가장 높게는 주님, 즉 말씀이 육을 만드신 바대로의 주님, 진리의 근원, 진리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이다. 씌어진 말씀 속의 모든 효력은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부터이다.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주님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지혜이시다.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한 사랑 또는 선함은 모든 정화되게 함과 구원받음의 근원이다. 그러나 신성한 선함은 이해성에 의해 언제나 행동한다. 우리가 이 구절이든, 신, 구약성서의 어느 다른 구절에서이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간에 의해 발음된 단어들로 생각하여 지나치기 쉽고, 기껏해야 어떤 마음이 또 다른 마음에 사상을 운반해주는 생각의 표현으로 간과하기 쉽다. 단어들은 이런 식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이 발음하는 단어들은 그의 온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이유가 생각과 애정의 참 본질은 모든 표현 안에 체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유한하고, 그의 말들은 그의 유한함과 불완전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것은 설사 그가 진리를 말할 때조차, 그것이 사랑 안에서 말해질 때 조차에서도 그러하다. 신성한 존재의 경우 이 경우는 다르다. 그분은 진리를 말할뿐 아니라 말해진 그 진리 자체이다. 그분은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말하실뿐 아니라 그 사랑 자체이시다. 최고 높은 측면에서 주님 자신은 진리이시고, 이 진리를 통해, 이 진리 안에서 제자들은 정화된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진리이신 말씀이다. 그분 안에 정화됨이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정화하신다.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둬나

게 하신다.

18. 진리로 정화된 후 제자들은 그것을 선포하려 파견되어진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다른 일과 같이 세상을 기독교에 귀의시키는 일에 신성한 스승을 따르게 되어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것보다 더 깊고 또 다른 의미도 있다. 그분이 내려오신 세상, 그분이 수고하신 세상은 타락된 인성이라는 세상이었다. 주님이 타락된 이브의 딸로부터 입으신 인성 안에서 온 세상이 이해되어졌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 죄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정의로 회복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오신 게 아니라 파견되어졌고, 특히 아버지로부터 보내졌다. 즉 그분은 신성한 진리만으로 오시지 않고 신성한 사랑에 의해 보내졌다.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사랑의 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진리는 사랑의 영향 아래 행동하였다. 그래서 진리의 모든 역사는 사랑의 복주시는 목적을 실어오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아들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으시다. 만사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행하게 되어있다. 주님이 보내셨던 방식같이 그들도 보내져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진리의 힘과 그분의 사랑의 영 안에서 일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 주위의 세상에 가든지, 자신 속의 세상에 들어가서 이든지 이것을 행해야 한다. 그들의 일, 그 일이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이든, 타인의 거듭남을 위해서 이든 그 일은 우리 주님이 수행하셨던 일의 형상이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듯이 그분은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

19.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에게 그분의 진리를 통하여 제자들을 정화시켜 달라고 기도 하셨다. 이 구절, 여타 다른 경우에서나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은 그들의 본보기이셨는바, 지금 그분께서 그것을 선포하신다. “그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정화하는바 이는 그들도 진리로 정화되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우리 주님의 이 선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즉 육을 입으심의 직접적인 목적,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인간적 희망의 바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구절은 장엄하지만 단순한 이런 진리, 주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을 정화하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이 정화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자주 살펴왔던 것은, 주님께서서는 타락

되고 퇴보된 상태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는 것,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의 인물 안에서 그 인간 본성을 완전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였다는 것, 무한한 권능의 소유자라해도 타락한 인간성을 근본적인 질서와 행복의 어떤 것으로 회복시키는데 유일한 수단은 위 순서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복된 말씀의 구절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명백하게 위 내용의 진리를 선포한 구절은 없다. 우리가 이 구절으로부터 배우는 바, 주님은 자신을 정화하셨다는 것, 그분이 정화하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도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욕을 입으심, 그리고 구원의 참 본성에 관한 진짜 의도에 무지해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정화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의도라고 기독교인이 믿는 것은 옳바르다. 그러나 구세주가 인간을 정화되게 하시기전, 그분 자신을 먼저 정화하셨어야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짐작이라도 하는 기독교인이 드문 것도 현실이다. 이와는 거리가 더욱 떨어진 채로 흔히 믿고 있는바, 그분은 죄의 유전적인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되도록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미 거룩하신 채 계신 그분의 여건이 구세주로서 일하실 능력의 바탕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유가, 예수는 인간의 죄를 귀속(imputation)시킴으로 자신 위에 놓아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 대신 죄없는 희생자로서 죽어감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 구절의 주님의 선포는 위와 같은 논리와 불일치되고 있다. 제자가 정화됨도 예수의 정화됨과 나란히 하고 있다. 둘의 정화는 유사하고 결과도 비슷하다. 이것은 이런 견해를 붙잡고 있는 이들, 즉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고 믿는 이들을 곤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대목을 이렇게 관찰한다. “정화되는 것, 그리스도에 적용한다면 성화 되는 것(consecrate)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제자들에 응용한다면, 정화됨은 이전에 정화되었던 것에 추가되는 생각을 가진 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거룩한 것만이 현물로서 나아갈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정화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고 단지 성화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인즉, 그리스도가 순수해 계시지 않았다면 제물로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한 진리이다. 예수는 죄없는 자신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자신을 제물로 만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제단에 바치는 모든 동물은 흠없어야 한다는 유대교의 법은 제물들 모두가 표



현했던 것인 주님께 드리는 이런 제물을 통하여 보았던 법이었다. 예수는 흠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다고 상상하는데 있게 된 큰 잘못 하나는 그분은 우리 모두가 상속받는 본성 속의 부패된 것으로부터라도 자유로웠다고 상상한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 측면에서 그분은 참으로 거룩하셨으나, 마리아의 아들 측면에서 그분은 인간 연약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죄를 대신 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분이 죄를 짊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도 모든 악의 씨가 포함되어있는 인간 본성을 입으시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상속받은 결과 예수께서는 우리가 시험받는 모든 측면에서 시험되실 수 있었다. 이런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그분은 자신을 정화하셨다. 그분은 흠없는 삶을 영위하심으로 자신을 흠없게 만드셨다. 이 대목에서 그분이 제물이된 효력이 존재했다. 그 이유가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셨을 때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히브리1:3). “이러한 대사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과는 분리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었다. 그분은 대사제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 실시했던 것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 되셨다. 그분은 한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끝내셨다” (히브리7:26-27). 그리스도의 순수성은 유전적인 악에서 자유로워서 있어진 게 아니라 실제의 죄로부터 자유로워 있는데 있다. 유전적 악없이 태어난다면 수고하여 얻는 것이 있을 수 없는바, 실지로 죄없이 사는 것에 큰 공적이나 보람이 있는 것이다. 만일 예수가 죄를 짓게 하는 유전적인 경향성 없이 태어나셨더라면 죄없는 삶을 살으신 그리스도이지만 거기에는 큰 공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입으신 인간 본성 안에는 죄짓게 하는 시험의 바탕을 이루는 것들과 통상 우리가 갖는 모든 경향성을 담고 있기에 죄없이 살으신 그분의 삶의 큰 공적이 인정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여느 인간이 가진 죄지으려는 경향성 없이 지내셨다면 구세주와 구원받는 자 사이에 실제의 유사함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가지 점에 있어서 제자들은 그의 스승 위에 있어야 할지 모른다. 그 이유가 악에 대한 경향성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보다 죄에 대한 시험뿐 아니라 경향성을 지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 인간적 해설을 추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추켜들어 보면, 제자의 일과 주님의 일이 종류 측면에서는 완전히 비슷하다 해도 수준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언제나 이해하면서 그분의 일은 그분의

제자들 안에서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더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되풀이하여 가르치시려는 위대한 진리를 구성하는 것과 주님의 말에 요점을 주는 것 사이는 완전히 평행한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것을 그분이 해내셨던 것같이 인간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인성을 거룩함 자체로 만드심으로 자신을 성화하셨다. 거룩하게 만든 이 인성으로부터 그분은 지금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으시다. 그분은 완전하신 그분만큼까지도 인간을 만드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장엄한 진리이다. 우리가 결코 충분하게 헤아릴 수 없는 것하나, 우리가 이 진리를 심정에 제아무리 조심스럽게 새기고 있다해도, 또는 체험에서 실감해보려 제아무리 노력해도 그 새김이나 노력은 결코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그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정화해서 그들도 진리를 통해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신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진리이시다. 그분 자신은 우리의 정화됨이다. “너희는 하느님께서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느님께서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사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1:30).

20.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그분 자신과 제자들에 관해 말하셨다. 이제 그분은 아버지께 그분의 종들이 모든 땅에 운반하고 모든 창조물에 전파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보편적인 구속은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수용력을 회복시켰다. 구속과 구원은 구분된다. 모든 사람이 구속되었다. 그 이유가 구속은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복종케하고 심지어 신체적 기관까지 점유하면서, 사탄이 붙들고 있었던 영적 속박의 상태에서부터 인류를 해방되게 함으로 결과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속을 수단으로 영적 자유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주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결과되게 한 것이 어둠의 권세의 정복이고, 주님께서 구원을 설비하신 것이 인성의 영화되심이다. 인간은 거듭남으로 구원된다. 주님이 영화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거듭날 수 있다. 더 작은 일은 더 큰 일의 형상과 결과이다. 모든 인간이 구속되어졌듯이 모든 사람은 구

원될 수 있다. 구원은 모든 이에게 제공되어 있다. 예수는 이 구절에서 모든이를 위해 보편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되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나 현재 그분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제공한 은총과 자비를 수납하는 모든 이들이 그분과 하나되는 것에 관해서이다. 이것이 다음 절의 말씀에 표현되고 있다.

21.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네 가지 흥미 있는 요점을 포함하고 있다. “땅에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는 선한 의지...”는 예수께서 구세주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부른 영광의 노래였다. 복음의 목적은 평화이다. 그리고 평화는 그것이 영 안에, 진리 안에 받아들여지는 한도에서 결과를 보게 된다. 불화와 전쟁은 악의 열매이고, 조화와 평화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정의이듯이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이기를 기도하시고 있다. 주님께서 말하는 단일성(eness)은 육을 입으시기 전, 하느님과 말씀사이에 존재했던 단일성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다운 단일체(unity)의 원인과 모형이 아니다. 그러했다고 가정한다면 말씀이 세상에 오셨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다운 단일체의 원인이요 모형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단일성(eness)과 합일성(union)이다. 주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그분 자신에 일치시켰고(reconciled) 결합(united)시킨 터에 그분은 지금 인간을 서로에게 일치시키고 하나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 사이의 단일체는 주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존재하는 단일체의 모습뿐이라는 점이다. 그분 안에서 이 둘은 한 인물(one person)이다. 주님 안에 있는 이 단일체에 의해 생산되는 것, 즉 사람들 사이의 단일체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단일체의 본성에 의거한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분의 제자들에 관해 기도하시고 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의 말다툼을 가라앉히시고 그들 사이에 단일체가 있어야한다는 의무를 가르치신 적이 몇 번 있었기도 했다. 지금 그분은 그들의 단일체가 그분의 기도의 주제를 만드시고 있다. 주님과의 합일, 마치 형제간의 단일체같이 그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 단

일체를 통하여 생산되어진다. 교회 멤버의 마음 안에서 사랑과 믿음, 또는 선함과 진리의 합일은 그들을 주님과, 그리고 서로 서로 단일체가 되게 한다. 이것 없이 진정한 단일성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합일은 주님의 인물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합일과 가장 가깝고 가장 참된 형상이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 있는 합일은 두 번째 가장 가까운 형상이다. 개개인이 주님과 닮은 것을 통해 제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일 수 있다.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됨, 주님 안에 있는 하나됨은 이런 목적, 예수는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바람직하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있는 합일은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증거이다. 참으로 그분이 천국으로부터 계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형제 사이의 단일체는 각자 안에 있는 이타애와 믿음의 합일로부터 발생된다. 이와 같이 세상 안에 있는 일반적인 신앙은 그 신앙을 구성하는 개개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신앙에 의해 생산되어진다. 영적 차원에서 세상은 인간의 자연적 마음이다. 제자들 사이의 합일은 영적 마음 속의 원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통일이다. 이로 인한 결과, 인간의 작은 세상이라 부를 수 있는 자연적 마음 안에서도 신앙이 생산되어진다.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으로 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셨는데, 이 구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시고 있다. 영광은 신성한 진리의 광휘이다. 진리가 마음을 계발할 때 진리는 영광이고, 하느님의 영광이라 불리운다. 신성이 인성에게 준 영광도 이보다 더 다른 것은 없고, 그분의 인성이 인간에게 준 영광도 신성한 진리의 광택의 더 다른 것은 없다. 어쨌든 진리가 광택 또는 영광을 가지는 것은 선으로부터이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영광은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지혜에게 준 영광이다. 주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할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준다. 거듭나는 자의 영광은 그분 자신의 영광의 형상이요 그 결과이다. 그리고

로 이 말씀, “우리가 하나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가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통일은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하는 근원이고 모형이다. 이로부터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통일성, 조화, 평화가 있다.

23. 주님께서 이런 합일의 본성과 방식을 설명하신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을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 안에 있고, 이 인성이 제자들 안에 있다. 이는 이런 위대한 진리, 즉 주님이 세상에서 입으시고 영화하신 인성은 신성의 권능과 영광이 인간의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중매역할(medium)을 한다는 것을 얼마나 명백하게 표현하는지! 인간이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하느님은 인류와의 결합과 교류의 매체가 되도록 인성을 입으셨던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면서 이 인성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있으시게 된 것이다. 예수는 중개자(mediator)이다. 이는 죄인에게 일치되라고(reconcile) 하느님에게 간청하는 두 번째 신성으로서의 중개자가 아니라 그분에게 일치되어야 한다고 죄인에게 탄원하는 신성한 인간으로서의 중개자로서이다. 그분의 인성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참된 속죄판(mercy-seat), 또는 서로서로가 교통하는 속죄소(propitiatory)이다. 이 속죄판은 증거의 궤 위에 있고, 사랑과 자비의 거룩 사이에 있어 그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의 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그들 안에, 그리고 당신은 내 안에”는 육을 입으심(Incarnation)의 신비가 설명된 것이다. 위 말씀은 지상의 교회와 천국이 하나 안에서 완전을 만드는 수단이고, 지상에 있는 것이든, 천국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그분과 일치되는 수단이다 (고린도전1:20).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뿐 아니라 지상의 교회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애정과 생각들이 한 개의 통치하는 사랑 아래 통일될 때 그것들은 하나 안에서 완전을 만든다. 그것을 통치하는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함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완전해진다. 이 구절을 글자대로 추겨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매우 교훈적이고 용기를 준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수여하신 무한한 사랑의 똑같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성한 사랑은 모든 이에게, 모든 이 안에서 똑같아야

만 할 것이다. 차이가 있게 되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랑을 받는 그릇의 차이이다. 아들은 하느님의 영을 무한정 받으신다. 그러나 모든 인간과 천사의 수용력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두 개의 수용력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신성한 사랑은 모든 이에게 그 자체를 제한 없이, 통째로 주시고 싶어하신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과 동등하게 일으키실 것이다. 글자적 의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 글자속 영적 의미에 있는 위와 같은 천국적 진리를 가르치시는 한편, 또 다른 교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미 여러 번 서술한 적도 있는 교훈이다. 즉 제자들은 신성한 사랑의 대상일뿐 아니라 주제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신성은 근원(Source)이고, 그분의 인성은 원천(Fountain)이시다는 것이다.

24. 앞으로 그분의 제자가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관한 그분의 바램을 표현하시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두 가지 사항을 바라시고 있다. 즉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바램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설비하셨던 영원한 고향으로서의 천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기도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장소 안에 있어야 할뿐 아니라 그 상태 안에도 있어야 한다.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다. 천국은 거룩함의 상태 때문에 행복의 장소이다. 영원한 세계에서 상태와 장소는 동시에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상태가 준비해준 장소와 더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 의로운 자는 천국에 가고 사악한 자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각자가 그의 가슴에 천국 또는 지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제자가 그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분의 기도는 깊은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분이 영화하신 것같이 그들도 거듭나야 한다는 기도이다. 이로부터 더 진전된 기도는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구세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어 있게 된 개인적 영광의 광경이 아니라 마치 그분의 일 안에서 구속과 영화하심이 진열된 것같이, 그리고 천국의 태양이 천사와

인간의 마음 안에서 빛나는 것같이, 양쪽 세계에서 인간의 흥미와 총명의 모든 대상과 주제들을 계발하시는 그분의 지혜의 장려함을 지적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더 세세하게 이 기도를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셨던 이들을 위해 이 축복을 간구하시고 있다. 영적으로 이해해 보건대 그분의 기도는 이런 바램의 표현, 즉 그분의 사랑의 영향으로 끌리어 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의 충만된 빛으로도 가져다 놓이게 되어서 그들 거듭남의 원형과 원인으로서 그분의 영화하심을 이해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주님이 있는 곳에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는지 모른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의 인성의 영화하심은 천사들의 깊은 명상 중 가장 높은 주제이고, 그에 관한 지식은 천사들의 지혜가 도달할 가장 높은 지점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청원을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있기도 전에 그분을 사랑하셨다는 바탕 위에서 제출하시고 있다. 앞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이 있었기 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말하셨었다. 지금 그분은 그분에 대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영광은 아들에 붙어 다니고 사랑은 아버지에 어울린다.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로부터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 안에 있다. 지혜는 사랑의 영광이고 사랑은 지혜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둘은 세상의 기초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성한 주제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까?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객체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제에는 가치가 있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주제이라는 주제에는 장엄한 의미가 있다. 신성한 지혜 안에서 신성한 사랑은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지혜는 사랑이 의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성한 안에서 지혜를 수단으로 무한한 사랑은 창조하고 규율해간다. 지혜를 수단으로 무한한 사랑은 세상을 구속하고 구원한다. 유대교라는 교회 처방 아래에서 유대인들조차도 이에 관한 진리를 어느 정도 지각했다. 솔로몬이 창조적인 지혜에 관해 말한 잠언서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다. “그가 하늘을 펼치시고 깊은 바다 둘레에 테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구름을 높이 달아 매시고 땅 속에서 샘을 세차게 솟구치시며 물이 바닷가를 넘지 못하게 경계를 그으시고 땅의 터전을 잡으실 때,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시게 헤드렸다” (잠언8:27-28).

25. 지금 주님께서는 간구하신다기 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의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그 이유가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 그분의 정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의로운 존재로서의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위의 품성 아래에서 아버지를 알고 계셨다. 그 이유가 그분 자신이 정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간구하심 중 하나를 거룩한 분으로서의 아버지께 전달하였다 (11절). 여기서 그분은 아버지를 정의로운 분으로 부르고 있다. 그분께서 아버지를 거룩하신 분으로 지칭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지켜달라고 간구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세상이 아버지를 모르나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고 선언하시는 이 때의 경우 그분은 아버지를 의로우시다고 부르고 있다. 교회와 특별히 관련지어 볼 때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세상과 특별히 관련될 때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거룩한 하느님의 영의 행동중 하나는 세상으로 하여금 정의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행동을 하시게 되었다. 비록 세상이 정의로운 아버지를 몰랐다고 해도 그분은 아버지를 알았다. 주님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출한 측면일 경우 예수만이 아버지를 알았고, 그분만이 여타 모든 다른 신성한 속성에 관한 정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알고 있으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계신 바로서의 하느님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the only begotten Son),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아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자들의 경우, 정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정의를 선포하고 명백히 밝히시기 위해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것은 제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 소속되는 지식이다. 예수는 아버지를 안다. 제자들은 예수를 아버지의 아들로써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것은 이 기도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선율이다. “나도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6. 지금 신성한 기도의 이 결말로 주님께서는 앞 구절들에 있는 몇 가지 간청의 말들 안에서 표현하셨던 전체적인 진리를 요약하시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한 이름은 신성한 본성, 신성한 속성들, 신성한 품성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명백하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말씀에서, 기적에서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흠없고 복되신 삶으로도 선포하셨는바, 이것은 완전한 인간 안에 완전한 하느님이 전시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에 관한 이름, 즉 품성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아직도 그분은 그것을 밝히 알리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완전을 이루어 실시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신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다 놓였고 우리에게 의해 납득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신성한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이 지니는 의도와 목적은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인간에게 교통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바람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이 인간의 심정 안으로 내려오는 것,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더불어 주님이 기대하는 다른 한 가지 목적도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셨을뿐 아니라 신성한 지혜로서 그분도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셨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심정 안에 머물고, 그분의 지혜가 그들의 이해성에 머물기를 바라셨다. 이 구절의 기도에 표현된 진리는 주님께서 이외 다른 구절에서 선포했었던 것, 즉 그분과 아버지 모두가 그분의 완전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처소를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이 진리가 더 큰 충만함에서 똑똑히 발음되고 있다. 아들에 의해 제자들과 교통되었던 것과 같은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주님의 인성 안에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 놓인 바대로의 신성한 사랑이다. 신성한 사랑은 주 예수라는 인간적 삶을 수단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인간성을 사랑의 참 형체로 만드셨다. 지금 그분은 죄있고 교통받는 인간에게 사랑의 샘이시다. 사랑만이 주어진 계

아니라 지혜도 주어져서 우리는 사랑의 애정을 심정 안으로 주입 받을 뿐아니라 이 해성에 사랑의 법을 새길 수 있다. 마음 안에서 사랑과 지혜가 합일되는 것, 생활 안에서 사랑과 지혜가 일치되어 움직이는 것은 새로운 인간을 형성시켜주고,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즉 신성한 사람이라는 가장 높은 형상을 만들어준다.

## 18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보낸 앞 장의 기도는 이 장의 사건 시리즈로 해서 주님께서 거듭 말해오셨던 것, 즉 그분께서는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삼 일만에 일어난다는 예견의 성취로 직접 이끌어 가는 복음의 역사가 뒤를 잇게 하고 있다.

1.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서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성으로부터 “가셨고”, 그분이 자주 가신 장소는 계세마니 동산인데 거기서 그분은 큰 고뇌와 더불어 배반도 당하셨다. 그분이 건너신 개울은 도성과 올리브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통하여 흘러서 사해에로 떨어지고 있다. 이 장소는 구약성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곳이다. “은 백성이 광야 쪽으로 나가려고 키드론 개울을 건넜고 다윗왕도 따라 건넜다. 사람들은 개울을 건너면서 통곡했다” (사무엘하15:23).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살고 여기로부터 나가 키드론 시내를 건너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시므이는 삼 년이 지날 무렵 그의 종들이 달아나자 그들을 추격하느라 이 개울을 건너게 되어 죽고 말았다 (열왕기상2:36-46). 위 인용한 구절은 본문과 어떤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개울의 이름은 이 개울과 연결되는 주변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개울 키드론(cedron)은 검은 흙탕의 시냇물을 뜻한다. 예수께서 지금 건너신 검은 흙탕물의 시냇물은 이제 그분이 진입하시게 되는 검은 상태, 곤경스런 상태를 암시한다는 것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 어쨌든 성경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는 주변 여건은 단순히 시적 상상을 복돋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우리의 이해성을 계발하기 위한 영적 유추물로서 간주해야 마땅할 것이다.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땅의 모든 다른 부분들은 예징적(typical)이었다. 가나안은 교회를 표현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적 부분에서 가장 안쪽에 해당되는 지적인 것, 즉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또는 교회 속의 교리를 표현했다. 예루살렘 맞은편 너머의 올리브산은 거룩한 사랑, 특히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원리를 표현했다. 도성과 올리브산을 분리시키면서 흐르는 검은 시냇물은 마치 요르단강이 가나안을 광야로부터 분리했듯, 그리고 불어난 요르단강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의 경우 같이 시험을 상징하였다. 물 자체는 진리의 상징물,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까지도 상징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 자체의 본성이 언제나 같지만 진리가 흐르는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진리는 마음이 어떤 상태이나에 따라 깨끗하거나 흙탕물, 밝거나 검은 물, 순조롭거나 곤경의 물이 된다. 진리는 마음의 상태를 반사시킨다. 이를 수단으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상태를 보고 정정할 수 있게 한다. 말씀이신 바, 진리 자체이셨던 우리의 주님은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상태의 주체이셨지만 그런 상태에 복종 당하시기도 했다. 그 이유가 그분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이 되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육(flesh)은 진리 위에 육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것은 진리의 평화스러움을 어지럽히고 진리의 깨끗한 물을 더럽힌다. 이런 것이 벌어질 때, 그것은 환난의 때이다. 주님이 키드론 개울을 건너신 것은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였다. 그 동산은 게세마니 동산이었다. 이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olive-press)을 뜻한다. 거기서 주님은 홀로 올리브 기름틀을 밟으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거기서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오는 가장 깊은 극단적인 종류의 시험을 견뎌내셨고, 이 시험의 정복은 인간 해방을 위해 필요했다. 에덴의 동산은 첫 아담이 시험 당했고 시험에 나가떨어진 곳이다. 게세마니의 동산은 두 번째 아담이 시험을 견디어 극복한 장소였다. 동산을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선에 대한 애정과 진리에 관한 지각이 주님에 의해 이식되는 마음 자체, 그리고 생명의 나무나 죽음의 나무를 선택하는 마음 자체이다.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의 나무를 선택해서 죽음이 근림했었던 마음 자체에 생명을 이끌어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야하는 것이다. 그들 또한 시험에 진입해야만 한다. 비록 그들이 예수께서 체험하셨던 고난과 똑같은 깊이의 고난을 견뎌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 그분의 시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견디어야 한다 (누가22:28).

2. 예수께서는 내부로부터 어둠의 권세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 세상과 타락한 교회의 공격도 받으셔야 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끔 거기에 모이곤 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넘길 유다도 그 곳을 잘 알고 있었다.” 유추는 없다 해도 게세마니 동산에서 거행된 것과 에텐 동산에서 거행된 것의 기록 사이에서 유사함이 이런 세부사항에서 더 추적해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에텐은 태고적 인간의 기쁨, 뿐만 아니라 태고적 인간의 시험과 타락의 정경을 가졌었다. 게세마니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던 곳, 그 곳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정답게 어울리던 곳이었다 (시편 55:14). 그러나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자들이 태고적 낙원의 아담을 순진과 지혜에서 훨씬 더 능가하는 음성에 열중하는 동안 뱀은 거기에서 잠행하면서 에텐에서 일으켰던 파멸보다 더 큰 파멸을 바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만일 예수께서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피하고 대신 죄로 돌아섰다면 인류는 참말로 타락했었을 것이고 그분의 법 위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돌이킬 수 없이 타락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분의 계획에 성실히 매달리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되었을리 만무하다. 예수와 더불어 동산에서 머물곤 했던 제자 중에는 유다도 있었다. 그는 인간 타락이 성취되게 하는 인간 본성 속의 원리를 예정했다. 지식의 나무의 뱀과도 같이 유다는 순진의 배반자였다. 악마이고 사탄인 옛 뱀은 구세주의 목적을 헛되게 해버릴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유다 안에서 발견했다. 다시 말해 지옥의 권세를 복종시키게 되는 것, 즉 구속이라는 그분의 일의 완성을 방해할 도구를 발견할 것이다.

3. “유다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과 함께 한 떼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다.” 지금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긴 대사제의 첩자로서 행동하고 있었다. 물욕(cupidity), 대단히 빠져들기 쉬운 이 유혹이 지금 크나큰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다를 자극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유다의 케이스는 하나의 경고로서 의도된 것임은 의심할 바 없고, “탐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 탐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로 납득하게 유인하고 있다. 돈 자체를 위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선용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 탐욕은 관심을 두어서 획득하려는 목적이 씹씹이에 있지 않은 지식, 지

식 자체를 위해 지식을 사랑하는 것과 상응된다. 이런 품성의 사람들이 유다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돈을 담은 자루를 운반하였고, 그는 도둑이었다. 이미 살핀 바같이 (돈)자루는 기억이고, 이곳에 악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악들의 지식을 쌓아놓고 악 자신을 위해 꺼내 쓰는바 그들은 영적인 도둑들이다. 물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겨받은 은전은 악이 탐내는 영적 진리에 관한 지식을 표현했고, 이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그들은 진리 자체를 적의 수중에 팔아버린다. 이 배반을 결과하기 위해 유다는 대사제와 바리사이파 사람으로부터 보내진 경비병과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몰려갔다. 그들은 악한 세계와 뒤집어진 교회의 권능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것 자체를 만들고 있다. 유다와 그를 따라간 무리들이 가는 길을 밝히고 찾아내려는 대상을 가려내고자 들고 간 등불과 횃불이란 자연적 인간의 왜곡된 빛들이고, 이 빛이 교회의 밤에 채용되었고, 이 빛은 인간으로 어둠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이 무장한 무기란 악의 지배 아래 진리 자체를 가져다 놓기 위해 진리에 반대하여 사용할 준비를 갖춘 거짓 원리들이다.

4. “예수께서는 신상에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과거 군중이 그분을 붙잡으려 했을 때 그들을 피했던 경우(10:39)와는 아주 다르게 행동하셨다. 지금 그분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같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으시다. 이 경우에서의 주님의 행동, 이제 집행되기 시작하는 끔찍한 많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행동들은 그분의 천국적 가르침이나 복을 베푸신 일만큼이나 아름답고 장엄한 그분의 품성을 나열하고 있다. 참으로 그분은 장차 있게 될 모든 것,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아셨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잘 준비하시기도 했다. 그분께 가해진 바깥쪽의 모욕이나 신체적 고통들은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부분 중 미미한 것밖에 더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적들을 단숨에 패배시킬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채 그분을 잡겠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조용히 자신을 내놓으시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조용한 항복을 존경해야 하는 한편 잊지말아야 할 것은, 그런 주님의 행동은 그분의 실제적인 삶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본문에서 글자로 나타낸 광경은 글자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

는바 우리는 그것을 숙고해 보아야 하리라. 이 바깥쪽 세계, 수세기 전에 천사와 인간의 눈 앞에서 행동되었던 이 광경은 참된 모든 제자의 의식세계인 내적 세계에서, 한편 변절자의 의식세계에서 지금 행동되고 있다. 우리는 주님과 제자 안에서 새 사람을, 유다와 경비병들 안에서 옛 사람을 가진다. 유다 안에서 우리는 인간 자아의 참 본성을 보고 있다. 그야말로 순진의 그늘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단순한 인간 자아가 아닌 지혜와 세상의 권위가 동원되어 무장한 모습의 끔찍한 인간 자아를 보고 있다. 우리가 새 사람을 말할 경우, 이는 거듭남으로 획득되는 새로운 원리와 품성을 뜻한다. 이것은 주님, 즉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진리로 머무시는 신성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으로부터 받는 새 본성이다. 그 반면 옛 사람이란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옛 본성을 뜻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리와 실제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옛 본성을 채택하여 만든 자기 자신을 뜻한다. 거듭남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들 안에서 옛 본성과 새 것은 함께 현존하면서 실제적이다. 복음서 역사의 이 부분은 두 본성 사이의 마지막 싸움을 진열해 놓고 있다. 거듭나지고 있는 이들 안에서 새 본성은 안쪽에 있고 옛 것은 바깥쪽에 있다. 싸우는 목적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중 어느 것이 통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의 어느 경우에서도 악은 선을 공격하나 선은 방어만 한다. 더구나 가장 높은 상태일 경우 선은 악에 저항조차 하지 않는다. 경비병을 데리고 온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다. 그들은 선과 진리 자체이신 그분에 폭행을 가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서시며 누구를 찾는지 물으신다. 신성한 진리는 내적 측면으로부터 악이 있는 곳, 즉 악이 공격하는 곳인 외적 측면으로 나서신다. 그리고 악과 거짓이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미워하고 추구해대는 것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일깨운다.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같이 이 구절에서도 예수는 어느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그분이 가르친 그대로를 완벽하게 행동해 내시고 있다.

5.6. 예수께서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으소’ 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잡아 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뒷걸음을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대사제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내는데 제자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이 잘 안되는 대목이지만 그 이유인즉, 유다는

군중이 없는 틈을 타서, 즉 떠들석함없이 예수를 배반할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고, 이 계략에 대사제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동의했기 때문에서이다 (누가22:6). 이렇게도 생각된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는데 제자의 도움을 기꺼이 수락한 것은 과거 예수를 붙잡으려다가 실패했던 때와 같지 않게 체포를 완벽히 해내고 싶어 었을 것같고, 그 당시의 경비병들은 이교도인였는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은 들었을는지 몰라도 정작 그가 누군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서 일 것이다. 이 경비병들로 표현된 자연적인 합리성은 진리를 알되 진리를 모른다. 예수 자신이 진리를 밝히 알려시고 진리 안에서 드러내시고 있다. 마치 그분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군인들에게 말하신 것과 같다. 그러나 자연적 이성이 악의 영향 아래 있을 경우, 진리를 밝히 알게 함은 선의 영향 아래에서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비록 예수라는 이름과 참 존재 사이의 연결을 밝히 알림이 자연적 이성을 영성화되게 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것이 위압당하고, 마비되게 한다. 어떤 마음에서, 또는 어떤 상태 안에서 이든 주님의 현존은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사실 군인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해 적개심 같은 느낌을 가졌을리 만무하다. 아마 그들이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해도 무관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 해도 그들 역시 예수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신성의 기운 아래 놓여질 수 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내적 인간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외적 인간에 있는 악과 잘못들에 유입된 결과가 이 구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뒷걸음질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의 신앙으로부터 퇴각하는 것, 특히 말씀이 육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지다는 신앙으로부터 뒷걸음질하는 것이다. 주님을 버리는 이들이 뒷걸음질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예레미야 15:6). 그리고 뒤를 향하고 앞을 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7:24). 뒷걸음질하는 것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인 반면 뒤로 넘어짐은 선으로부터 하강하는 것, 그리하여 지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7. 주님께서 다시 묻는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대답한다. “나자렛 예수요.”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은 마음 안에서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 즉 의지 안에서 거행된 것이 이해성 안에서 반복되는 것, 또는 내적 인간 안에서 있었던 것이 후에 외적 인간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그 대답도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은 대답이 표현한 목적물 안에서 마음이 확증된다는 표시이다. 군인들은 예수에게 아무런 적개심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자렛 예수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들을 동원한 이들이 그분을 찾아 나선 것은 그분을 파괴하려해서 였고 그야말로 심정과 지성으로 그 일을 도모하고 있다. 유대와 대사제와 바리사이파 사람이 보낸 무리는 똑같이 그분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나자렛 예수란 신성한 인성 측면에서의 주님이시다. 특히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입으신 신성한 자연성 측면에서의 주님이시다. 이에 대해 세상과 세상적 원리들은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세상적인 것들이 격렬한 시련과 시험 후 주님 안에서 영화되었듯이 우리 안에서 영화될 수 있다.

8.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두어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단순한 역사적 의미만을 추켜든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답을 기다린 것은 제자들은 내버려두게 하고 그분만을 붙잡도록 하시고 그분께서 말았던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의미의 이해가 한정된다. 그러나 그분의 행동과 말씀이 포함하는 의미가 위와 같은 수준만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없다. 이 구절을 가지고 더 많은 의미를 찾는 노력을 가져보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진리의 본보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붙잡아 가도록 기꺼이 응낙하시지만 그분의 제자들은 자유로이 가기를 바래셨다. 목자로서의 그분이 죽음을 각오하면 양들은 흩어질 뿐 잃지는 않는다. 제자들이 이 당시 붙잡혀 갔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이 그분의 큰 시련을 다 통과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제아무리 작은 시련도 통과할 수 없다. 그분이 시험받지 않으면 제자들이 시험받을 때 그들을 지원하실 수 없다.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시기 전에는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가는 그들의 여행을 받쳐줄 수 없다. 아버지에 의해 예수에게 주신 바로서의 제자란 주님의 사랑을 수단으로 그분의 진리에 이끌려 왔었던 이들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들의 현 상태에서 그들은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의 사랑에 인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이미 살핀바 있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유익하



리라 본다. 알려지지 않은 영향력 차원에서의 사랑은 우리를 진리로 끌어당긴다. 그 다음 계발해주는 안내 차원의 진리는 우리를 알게 된 힘으로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자연적 삶의 어린 시절에 우리는 삶에 대한 사랑을 수단으로 지식의 획득으로 이끌려진다. 그후 그 지식은 통치하는 원리로서의 사랑의 달성으로 인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삶의 어린 시절에 주님은 그분의 은밀한 사랑의 영향을 수단으로 그분의 지혜를 획득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다음 그분의 지혜를 수단으로 그분의 사랑을 의식해서 소유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 이 방법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지혜를 수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함으로 인도하신다. 그 이유가 우리가 하느님을 알 때까지, 그분을 사랑함이 의미하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서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신 이들 외에 누구도 아들에게 올 자는 없고, 아들이 안내한 이들 외에 누구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말하셨을 때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그분께로 이끌려졌고,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이들이다. 예수께서 적들의 수중에 붙잡히시는 때에 비록 그분의 제자들이 아버지께 의해 그분께 주신 바 되는 이들이라 해도 아직 그들은 아들에 의해 아버지께로 인도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은 갈 수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하나될 수 없었다. 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연약한 인성을 내려 놓으실 때까지 아버지와 하나될 수 없었다. 제자들은 자아의 생명을 내려놓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할 때까지 아버지와 하나될 수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가는 주님을 버리는 모습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된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라” 고 예수께서 말하셨을 때 그분이 참작하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제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시련에 노출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제자들, 개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 말고도 그들은 교회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구절,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인성이 강타 당할 때 교회는 흩어졌다. 그러나 교회 속의 원리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장치되어 졌다. 정말 그렇다. 연약함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형은 권능 안에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수단이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흩어짐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확증을 주고, 또한 그들의 하나됨에 대한 수

단이었다. 주님께서 완전히 영화하셨을 때 그분의 신성한 인성은 그분의 교회가 건설된 완전하고 진실된 반석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대해 지옥의 권능이 감히 대들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다음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과 존재들은 질서에 가져다 놓이고 질서 안에 보존되어 하나됨 안에서 함께 있다.

10. “이 때에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베드로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그의 칼은 진리의 상징물이다. 왜곡되게 사용된 진리는 왜곡된 것으로 돌아가진다.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자름은 이런 표시였다. 교회의 마지막 날에서는 지각하는 능력이 파괴되고, 이 파괴와 함께 모든 영적인 들음과 순종도 파괴될 것이라는 말이다. 요한이 기록한 이 사건의 특이함은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을 말한 것이다. 말코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멜렉(melch), 왕(king)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왕은 순수한 의미일 경우 진리를 의미하고 반대의미일 경우 거짓을 뜻한다. 지금의 경우 왕은 사제와 관계되고 종은 주님과 관계되고 있는바, 이름 말코스가 지닌 의미는 선에 관계된 진리나 악에 관계되는 거짓인데, 그 중 후자가 말코스가 표현한 품성일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참으로 대사제의 종이 거짓 자체라는 원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 진리 또는 지식들이 악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자연적 진리나 지식은 악뿐만 아니라 선을 위해서도 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우 대사제가 주님께 반대되듯이 대사제의 종은 주님의 종에 반대되고 있다. 우리 모두 아는바, 말씀의 인간적 해석에서 이런 진리가 저런 진리에 반대될 수 있다. 특히 말씀의 가상적 진리는 순수한 진리에 반대될 수 있다는 말이다.

11.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대사제의 종을 친데 대해 나무라신 그 속의 원리란,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 내려 놓으셔야 했었던 것, 그리고 그분께서 스스로 언제나 본보기화 하셨던 것,

즉 “악을 방해 말라, resist not evil”이었다. 이것은 천적인 천사와 천적 인간의 원리이다. 천적 인간은 사악한 자를 습격하거나, 악에 저항하는 것조차도 결코 없다. 우리가 자신 안에 악을 가진 만큼에서만 악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바, 악은 악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 선함에 해를 가할 수 없다. 이것은 주님 자신과 더불어서도 그러했다.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악은 그분이 시험받는 바탕이었다. 그리고 이런 악들의 공격은 그런 악들이 극복되고 제거되는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잔(cup)은 그 잔에 담겨진 것에 대한 공통된 모양 (figure)이다. 성경에서 잔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양쪽에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잔(시편116:13)과 진노의 잔(이사야51:17), 즉 주님의 격노의 잔에 대해 읽어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가 마시라고 그에게 주셨다고 말하시는 잔이다. 말씀 안에 존재하는 순수한 진리와 가상의 진리 사이의 구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그들에게 그분의 분노 하심과 불쾌하심을 쏟으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인류는 그들의 악한 상태와 죄짓는 행동 때문에 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바, 인간이 응당치러야 할 그들의 죄인 신성한 분노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견뎌내셨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예수께서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다고 이해한다. 이런 어둡기만 하고 무가치할 뿐인 견해들은 점차 거두어져 가고 있어 머지 않아 다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 인간들은 이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의 진상을 볼 날이 올 것이고, 그 때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는 것, 그분에게 분노이든, 진노이든 그런 것은 하등 존재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 그분께 오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리라. 성경의 언어, 분노라는 의견이 안주하는 성경의 언어는 가상의 언어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상태와 일치해서 나타나신다.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이 없이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사무엘하22:26-27).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있으셔야 하는 바대로 말씀 안에서조차 자신을 묘사하시고 표현하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가할 수밖에 더 다른 방도가 없었던 처벌을 예수에게 가했다는 관념은 하느님이 통치하는 정부는 보상과 처벌을 수단으로 유지된다는 학설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하느님의 법에 순종함은 행복을 확실히 생산하고, 불순종함은 재난을 생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순종자에 대한 보상과 불순종자에 대한 처벌로부터 야기되는게 아니라 이런 사실로부터, 즉 선함은 선함 고유의 보상이 있어서인데 그 이유는 하느님이 선함 안에 계시기 때문에서 이고 악은 악 자체의 벌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하느님이 악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고 결합하는 것은 행복을 생산하고, 하느님과의 비조화와 불결합은 재난을 생산할 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육 안에서 명백히 보이신 행동은 신성한 분노를 견디내신 행동이 아니다. 참으로 그분은 어느 어느 인간도 고통받은 적이 없는 고강도의 고통을 견디어 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그런 고통은 하느님의 분노로 인한 게 아니라 악마의 분노로부터이다. 그분이 마셨던 잔은 하느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 그분이 견디어내신 시험의 잔이었다. 이 고통의 잔은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어졌다고 말하시고 있다. 그분의 고통의 잔과 똑같은 의미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고뇌는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고, 이는 그들이 순수해지도록, 거룩함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고뇌는 하느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계시록3:19).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잔은 주님께서 그분 고유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받았던 고뇌의 잔이었다. 그렇다고 그분의 고통받음이 그분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고통을 견디도록 그를 자극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이 고통 아래에서 그를 참고 견디게 한 것이다.

12. “그 때에 군인들과 그 사령관과 유대인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가한 것들은 유대교회가 말씀에 저질렀던 것을 표현했다. 지금 기록된 행동의 시리즈는 마태복음, 그 외 다른 복음서와도 비슷하다. 군인과 그들의 사령관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악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거짓들이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을 붙잡아 결박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신성한 진리들이 그것과 반대되는 오류 아래 놓일 때 그 진리는 붙잡혀 결박되는 셈이다. 그러면 죄를 나무래고 정의를 가르치는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고 만다.

13,14. 이렇게 결박했을 때,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는데 그는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을 냈던 자이다.” 주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고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뿐이다. 그 이유가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내면에 속하는 교회의 상태를 취급하기 때문인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대사제의 장인은 대사제 자신보다 더 내면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장인과 사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안나스와 가야파는 의지와 이해성 측면에서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참된 교회의 진정한 사제였다면 그들은 사제적으로 예정되는 것, 즉 선에 관한 의지와 이해성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패된 교회의 악한 사제였는바, 그들은 악에 관한 의지와 이해성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 당시와 다른 때와를 비교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상상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같지 않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의 적으로서 말하고 있고 그들이 주님의 단죄에서 가졌던 몫을 말할 뿐이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의 의미로부터 모든 성경적 품성의 영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아마도 안전치 못하다. 설사 글자적 의미 수준이라 해도 그렇다. 그러나 만일 안나스가 자비스럼을 뜻하고 가야파가 바위를 뜻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의지와 이해성이라는 구분되는 본성에 그만큼 관계된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직능에 관련해보면 비록 그 직능 자체에 반대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쪽에 해당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관계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수가 있는 곳, 대사제의 관저 안에 들어간 두 제자와 두 대사제는 동시에 생각해보면 예수의 이쪽 편에는 진리 자체와 조화를 이루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권능이 있고 저쪽 편에는 이와 대조되는 권세가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안나스와 가야파의 구분되는 품성은 그들을 표징적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심문되는 내용안에 그들에 관계되는 것이 특별히 나타나고 있다. 안나스는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교리에 관해 질문을 했다. 그리고 가야파에게 넘겨졌다. 가야파가 지적 측면의 품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가 했던 말,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낫다고 벨은 말에 의해 암시되고, 그는 실제로 이 예언을 성취시킨 장본인이다. 가야파만을 언급하는 마태는 대사제의 관저에 예수의 뒤를 따라 들어간 사람으로 베드로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안나스와 가야파를 언급한 요한은 주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말하

고 자기가 둘 중 한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복음서를 영적으로 간주해 보면 두 복음서의 차이점은 보다 덜 완전하거나 보다 더 완전한 종교적 상태에서 사건을 묘사해 놓은 것이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 가셨는데, 이것은 예수라 명명될 때 의미되는 주님의 신성한 선택은 의지 안에 있는 악에 의해 시간 차원뿐 아니라 상태 차원에서도 먼저 교회 안에서 반대된다는 것, 그 다음 둘째로 이해성 안에 있는 악을 수단으로 반대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분이 넘겨진 가야파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조언했던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은 예언자인 체하는 발표로 단지 예수를 죽음에 처하게 하기 위한 사제의 계획에 백성들이 찬동하게 하려 했을 뿐이라고 일축한다. 이보다는 이스라엘 처방 아래 다른 초자연적 선물 중에서 예언의 선물을 주었다는 사제적 직능 때문에 그가 말한 예언으로서 간주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선물은 한 개인의 품성에는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사제로서의 그의 직책의 결과로 그에게 합병된 것이다. 그러나 사제는 자신의 개인적 품성에 일치되어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예언적 영으로부터 말할 수도 있었다. 그이유가 인간은 “예언의 선물과 모든 신비와 지식을 이해하면서도 소리내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 지금 생각해보게 되는 거룩한 역사의 이 부분은 가야파가 아닌 안나스의 관저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사건과 아주 다른 점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사제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들먹여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다. 베드로를 두고서는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자신을 두고서는 또 다른 제자라고만 부르고 있다. 그가 쓴 복음서 안에 있는 “다른 제자”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함으로부터 있게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요한이 표현했던 이타애 또는 사랑이라는 품위는 이기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는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다. 이름은 품질을 표현한다. 이름 속에서 품질이 밝혀진다. 사랑은 스스로 자신의 품질을 밝히지 않는다. 사랑이 의지 안에 있을 경우 이름이 없다. 오로지 사랑이 이해성으로 하

강할 때 품질과 이름을 얻는다. 그리고 지혜의 형체로 옷입는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따라갔다. 처음에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위 두 사람은 되돌아 와서 비록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그분을 뒤따랐다. 주님은 아직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서 사랑과 믿음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품위들은 아직은 너무 미약하고 비확고적 이다. 그 이유는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이 완전히 절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두 제자,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품성을 표현했던 두 제자가 주님을 뒤따라오고 있다. 심문 당하는 상황에서 두 제자의 행동은 믿음과 사랑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제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과 같다. 또한 그것은 교회 말기에서 발견되는 종교의 두 본질 되는 품위를 예언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표현했던 두 품위 중에서 사랑은 더 고정되고 변치 않는다. 이런 특성은 요한의 일반적 행동으로부터, 본문의 경우 주님을 대사제 관저 안에까지 따라 온 것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제자는 대사제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둘바는 대사제라 불리우는 사람은 안나스였다는 점이다. 비록 안나스가 가야파같이 대단한 적개심으로 예수를 대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구세주에게 친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바 그는 주님이 죽으신 뒤 머지 않아 기독교신앙을 억압하는 유다지도자와 사제들 중에 그도 끼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볼 것은, 직무와 공무원, 사제직과 사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이를 구분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독하는 어떤 개인에게 어떤 직책이 수여되어 있다 해도 그 직책은 거룩해 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직책과 직능이다. 그 이유는 직책들이 특별하게 표징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이 대사제가 요한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의 대목도 직책 차원에서 의미의 연계를 해야려야 한다. 예수의 겸손한 추종자가 대사제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아주 특이한 것으로 생각되어 오고 있다. 어떤 연고에서 요한과 안나스가 서로 안면이 있게 되었는가를 캐보는 것은 오늘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두 사람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관계를 영적 측면에서 살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요한은 사랑 또는 선함의 원리를 표현했다. 이 원리는 사제직능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제자가 대사제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표징하는바, 마치 요한과 대사제로 표현된 것같

이 기독교인의 선과 유대교회의 선 사이에는 동족관계같은 어떤 연결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요한이 제자로서가 아니면 이 구절에서 말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 자체는 알려진다 해도 그가 표현했던 선의 진짜 본성은 눈에 띄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로 추리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든 교회에서 선에 속하는 어떤 그릇터기는 보존되어진다. 믿음이 지독하게 실패해도 사랑이 깡그리 소진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이렇게 소진된다면 어떤 새로운 교회도 옛 교회의 잿더미로부터 솟아오르는 일도 없게 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바, 그분께서 건립하셨던 교회 처방의 말기를 점철하는 타락의 와중에도 교회에 생명을 이루는 요소의 어떤 것은 보존하시리라는 것, 두 번째 오심에 까지 보존하시리라는 것이다. 이 약속은 요한 자신에 관련되는 이런 상징적 언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바란다 해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말하심으로 주어졌다. 이 제자는 이 말씀이 그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를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들의 이해는 옳았다. 그 이유가 사랑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발화시키는 불꽃의 한 조각이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영혼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보존되고 있다. 이 불꽃 마저 꺼진다면 새 시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지막만이 우리를 대기하게 된다. 유대교회 안에서 까지 선의 이런 남겨짐이 보존되었음을 본문으로부터 알게 된다. 이것은 주님을 인정해서 따르는 제자됨의 바탕을 형성했다. 또한 기독교와 유대교회를 연결해주는 실오라기를 형성했다. 이것은 우리자신의 시대에서 옛 교회와 새 교회가 접촉하게 해주는 디딤돌도 되었다. 옛 것 속의 선은 새 것 속의 선을 돕는다. 마치 용의 박해를 받을 때 땅이 여인을 도왔던 것과 같다 (계시록12:16). 비록 참 진리 자체가 부패된 교회의 심판에 기소당한다 해도 마치 요한이 자신을 수단으로 대사제의 관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들어갔듯이, 부패된 교회 안에서 조차 더 높은 선을 소개하는 수단으로서의 선은 남아있다.

16. “베드로는 대문밖에 서 있었다. 대사제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선과 사랑의 어떤 것이 교회로 진입하는 동안, 믿음과 진리는 문밖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진리는 선을 수단으로,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소개받는다. 그리고 애정에 있는 선과 사랑의 영향력을 수단으로 소개하는 이것이 문을 지키는 하녀로 의미되고 있다. 비록 베드로가 소개되었다



해도 그가 대사제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곧바로 그는 하녀와 다른 하인들에게는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오직 예수라는 사람의 범죄에 공범이라는 제자로서만 인식되었다.

17. 믿음이 교회와 마음에 입장하도록 승인하게한 영향력인 애정은 이제 그 믿음의 대상과 근원에 관해 면밀히 조사한다. “그 짧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아니오’ 하고 부인하였다.” 예견된바 같이 베드로의 믿음의 시련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시작부터 낙방하고 있다. 이 구절, 그리고 다른 예들에서도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존재하였던 그대로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하는 것은, 베드로의 행동은 전에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발견할까?” 라고 말하시어 묘사되었던 상태, 첫 기독교회의 마지막에 있는 바대로의 믿음의 품성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의 베드로의 역사는 교회의 믿음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 이 행동은 역사적인 예견, 이런 표징적인 가르침, 즉 교회 말기, 자아와 세상사랑이 사람 사이에서 득세를 해서 본질적 차원에서 사랑과 진리 되시는 주님과 대적할 때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믿음의 근원과 대상인 그분을 부정하는 것을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베드로는 하녀가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는 추궁에 간단한 어구지만 단호한 부정으로 응답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 이 사건을 읽을 경우 그의 세 번 부정은 점점 더 부정의 강도를 높여가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그가 진리를 처음 부정할 때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대담하게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다. 그는 진리로부터 첫 번째 떠남을 만들었다. 만일 그 떠남이 오직 한 번이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의 모든 다른 멤버들에게 엄숙한 경고로서 남는 사건이 되었을는지 모른다. 첫 번째 부정에서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는바, 죄짓는 첫 단계, 그리고 이 구절의 경우에서 가르치는바 불성실이라는 죄는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죄짓는 또 다른 단계는 첫 단계를 허용할 경우 더 큰 죄임에도 오히려 더 쉽게 뒤를 잇기 때문에서이다. 첫 단계는 의지의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해성의 행동으로 죄짓는 힘을 더 모으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생활 속의 행동으로 결정적이다.

18. “하인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이유가 날이 추웠기 때문),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하인과 경비병이란 대사제로 표현되는 교회에 종속되는 원리나 멤버들이다. 이 교회 말기에 추위가 그 교회를 내습했다. 이 추위란 순수한 사랑의 따뜻함이 떠났을 때의 상태, 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찬 것으로 덮여 있을 때의 상태이다. 해가 질 경우 그 교회의 멤버들은 밤이라는 어둠뿐 아니라 추위에 떠는 상태에 노출된다. 그러면 자기들의 자연적 수준의 사랑의 숯불을 지펴서 자신을 덥힌다.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 그 믿음까지도 자연적 마음 속의 욕망과 욕구가 지퍼놓은 불로부터 따뜻함을 얻는다. 대사제의 하인들이 불을 지폈고 예수의 종이 그 불로 따뜻함을 얻고 있다. 불이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거룩한 불은 천국으로부터 오고, 이 불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심정에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사랑의 상징물이다. 인간이 지피는 불은 그 근원과 품성에서 지상적인 사랑의 표현물이다. 우상숭배자들은 그가 우상을 만들고 남은 나무토막으로 불을 피워놓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게다가 “아, 따뜻하게 불까지 쬐니 좋기도 하구나” 하고 흥얼거린다 (이사야44:16). 어둠에서 걸으며 빛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하느님께 머물도록 권면되고 있다. 그러나 이 뒤를 이어 위협적인 경고가 첨부되고 있다. “너희는 하나 같이 불을 피우고 화살을 달구는 구나. 너희는 모두 스스로 피운 불 속에 뛰어 들어라. 스스로 달군 화살이 날아오르는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이것을 내 손에서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뒹굴리라” (이사야50:11). 신실한 사람이 인간이 지퍼놓은 불에서 따뜻함을 구할 때, 또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 속에서 발견해야 할 따뜻함을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자연적 수준의 사랑에서 찾고자 할 때, 이것은 그가 주님의 생명과 빛으로부터 자신의 사랑과 총명의 생명과 빛으로 돌아섰다는 표시이다.

19. 베드로가 하인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동안, “대사제 안나스는 예수를 심문하며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이 질문과 그분의 응답은 마태복음(26:62,63)에 기록된 것들과는 아주 다르다. 안나스 앞에서 있었던

심문, 비록 안나스가 공식적으로 대사제는 아닐지라도 관습상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이미 주목한바 있다. 주님의 제자와 교리 또는 가르침에 관해 그가 물었던 이유는 예수를 기소할 구실을 그분의 대답으로부터 찾으려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님 역시 그렇게 짐작하셨을 듯 보인다. 그렇다 해도 가야파가 그의 입으로 주님을 단죄하는 것과 위 심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안나스는 요한이 알고 있는 대사제라고 말해진 것같기도 하다. “그분의 제자와 교리” 라는 말의 의미는 대략 이러하다. 주님은 교리 자체이시다. 그 이유가 교리 전체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고 그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란 그분의 교리를 받고 그 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 속의 모든 교리는 두 가지 상황, 즉 두 개의 큰 계명,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관계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교리이고 이 교리에 따라 살고 있는 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이다. 악한 자도 이런 교리에 관해 문의하고 그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에 관해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이 알려 하는 것은 그 교리를 존경하려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겠다는 것, 또는 말씀에 흠집을 낼 어떤 건수를 포착해볼까 하는 계책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취급한 것같이 대사제도 그러했는지는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20,21.** 예수께서는 대사제에게 그분의 교리에 관해 말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백성에 관해 언급하시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내가 숨어서 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한 말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 무가치한 목적을 위해 말씀을 심문하려드는 이들은 말씀 자체로부터 그들이 바라는 대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그들에게 오고 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하셨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받는 그릇이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이라는 성전으로부터, 그리고 그 인성에 관계되는 교리로부터 오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배와 행동지침을 삼기 위해 실지로 원했던, 형식적으로 원했던 상관없다. 그분은 비밀리에 말한 적이 없으셨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를 두고서

는 개인적으로 가르친 적은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따로 떼어 말했던 교리 역시 군중으로부터 감추어야 할 교리였던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았을 뿐이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이해하도록 준비된 것이다. 왕국의 신비를 알도록 주어진 대상은 제자들이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비유였다. 그분이 군중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해설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대사제에게 “왜 나에게 묻느냐? 나에게서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하고 말하신 것이다. 이 대답의 힘을 보기 위해 우리는 회상해야 하는 것은 대사제는 예수께서 백성을 가르치셨던 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을 암시하셨다. 말씀의 일반적 교리들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진다. 세부적인 가르침 또는 계발되는 것은 그들이 아는 진리를 실제에 응용한 이들에게 교통될 수 있다.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 이런 연유로 우리의 주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자주 거절하셨고, 오히려 그들이 믿고 싶지 않고 응용해보고 싶어 않는 것을 가르치셨다.

22.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곁에서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대사제님께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며 예수의 뺨을 때렸다.” 주님께서 대사제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물은 것들에 답을 거절하신 한 가지 이유는 모독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공생애의 많은 예에서 보듯이 그분은 하늘나라의 진리들을 똑똑하고 신중하다는 이들에게는 감추어 있게 하시고 어린이에게는 밝히 보이시고 있다. 진리를 모독하고 훼손시키려는 기질이 본문에서 대사제의 경비병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때린다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다. 인간이 진리에 폭력을 휘두를 때 진리는 파괴된다.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진리가 잘못된 것을 들추기 때문이다. 이런 폭력행사가 우리에게 복주시는 주님을 경비병들이 막대기(이 구절을 아주 엄격하게 번역할 경우임)로 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막대기란 악으로부터 진행되는 거짓 원리를 의미한다.

23.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대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하셨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테스트로서 주셨던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심리하라는 테스트이다. 말씀의 가르

침은 정당한 심판을 열게 한다. 만일 말씀이 악을 말하고 가르친다면 인간은 악의 증거를 낳을 것이나 만일 말씀이 진리와 정의를 가르친다면 왜 말씀이 매질을 당해야 할까? 그럼에도 주님이 얻어맞으시듯, 그분의 말씀은 매질을 당한다. 그 이유가 말씀이 악을 질책하고, 죄 있는 자의 욕심을 거절하며 그들의 목적에 걸맞은 조언을 기대하려는데 비난만을 주기 때문이다.

24.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채 대사제 가야파에게 보냈다.” 안나스와 가야파는 유대교회의 자발적 측면과 지적 측면의 원리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론해둔 바 있다. 이 원리들은 그분의 이름 예수가 함축하는 본질적 측면에서의 선함에 정반대 된다.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밝히 알게 하는 선함, 또한 말씀이 욕을 만드신 측면에서의 선함에 정반대 되는 원리라는 말이다. 안나스가 가야파에게 예수를 보내는 모습은 의지와 이해성 모두가 신성한 선함과 진리에 계속해서 반대함을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이고 본질적인 반대인 의지의 반대가 있고, 그 다음 이해성의 반대가 있다. 안나스가 예수를 “묶은 채” 보냈다는 것은 신성한 말씀이 교회에 복종당함으로써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자유가 박탈되는 것, 신성한 의지가 인간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이 가야파에게 보내지는 것은 말씀이 이해성의 판결에 노출되기도 전에서 조차 인간 의지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럴진대 그것의 단죄밖에 더 어떤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까?

25. 말씀이 위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을 때 믿음의 또 다른 시련이 오고 있다.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베드로는 서서 자신을 따뜻하게 했다. 이 모습은 믿음이 천국으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자아사랑으로부터 따뜻함을 얻을 때의 상황에 꼭맞다. 이런 사랑의 영향 아래에서 교회의 믿음은 주님을 부정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두 번째 부정이다. 그러나 더 대담한 부정이 이 뒤를 잇고 있다.

26,27. “그 때 대사제의 종으로서 베드로한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이

나서면서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하고 몰아 세웠다.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답이 올었다.” 지금 베드로의 언행일치가 심각한 테스트를 받게 되었다. 그가 예수와 함께 보여지는 시간과 장소는 그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임을 언급하는 셈이지만 한편 그의 이기적인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준비된 부정, 성내는 부정을 하도록 마치 사악한 자가 모독된 맹세로 단언해버리는 짓을 하도록 자주 하고 있다. 거듭나는 삶에 진지하게 진입해 있는 때에서조차 인간의 자연적인 부패행위의 힘과 영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구절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은 간절하나 육이 약하구나”, “내가 선을 행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진리를 입증하고 있다. 영적 시련의 때에는 악령이 고소하고, 그로부터 사탄이 형제의 고소자라 불린다. 그러나 악령은 인간 안에 있는 악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를 단죄해서 그가 구원을 포기하도록 유인한다. 여기서 하인들은 베드로를 악행자로 고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긍정적 측면을 그의 과거 행동에 담아주고 있다. 그런데도 유대인 꽤거리의 평가에서 선은 악이었다. 베드로에게서도 이 상황에서 선이 악인 듯 비쳐졌다. 진리가 자신을 불리하게 하는 궁지로 몰아 세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이 대목에서 대사제의 종들은 자연적 인간이 소유한 이런 지식들, 즉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어느 쪽에서든 사용될 수 있는 지식들을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추궁한 대사제의 종은 앞서 베드로의 칼에 귀를 잘린 종의 친척되는 자였다. 그러므로 이 종은 말코스로 표현되었던 원리에 친척되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자르는 성급한 행동을 나무라셨는데, 지금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예수와 함께 동산에서 보았는데 왜 그러시오?” 라는 추궁을 당하고 있다. 귀를 잘랐던 사건으로 있게 된 이 질문의 세부사항과 직선적인 질문 자체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부정을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한 원인인 듯 보여지고 있다. 어쨌든 위의 추궁한 문장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시험 속에 있다는 것, 내적인 믿음과 인정함을 수단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또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약함 중 하나란 이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같이 지금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주님이 변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의 제자로 있고

싶었으나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는 그분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상태에 위기가 닥쳤다. 이 순간에서 그는 뻔뻔한 죄지음을 밀고 나갔고, 그 다음 순간에서 그는 가장 깊은 회개의 먼지 속에서 겸손해졌다. 베드로의 세 번째, 마지막 부정이 있자 답이 올었다. 요한은 이 예견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진 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로부터 이 부정함은 그에게 얼마나 갑작스럽고 깊은 상태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품성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아니다. 생명과 죽음을 달고 있는 저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재난의 위기에서 있어지는 변화에 불과하다. 답이 운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날, 구원의 날, 새 날의 여명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28. 이제 천사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세주의 적들에 의해 연출되는 끔찍한 드라마의 또다른 행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예수는 처음에 안나스에게, 그 다음 가야파에게,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 신성한 진리가 의지의 반대에, 이해성의 반대에, 행동의 반대에 놓여졌다는 말이다. 빌라도는 영적인 것에 결과를 주는 시민적 권능을 표현했다. 여기서 소개되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제 펼쳐질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바,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의 통치력이 지니는 표현적 품성을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두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로마 세력에 복종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상에 복종당해 있는 교회, 또는 자연적 측면에 복종 당해 있는 인간 안의 영적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러나 로마인이 표현했던 세상과 자연적 수준의 원리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것들, 또는 단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과 같다. 모든 주석자들에게 의해 평을 받았던 빌라도의 품성에 관한 특징이 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편을 들고 싶었던 듯하다. 그는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19장4절). 그는 예수를 석방하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12절).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10절). 그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었다(16절).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표시로 그의 손을 씻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자연적 인간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것들, 원리의 결핍이다. 그들은 올바른 것을 보고 그것에 호의적이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나, 실제에 부딪치면 그

들의 행동은 원리가 아닌 편리주의에 의해 결정되고 만다. 자연적 동기로 규율되는 자연적 인간은 설사 나쁜 호의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 때 조차에서도 선에 의해 인도 될 수 있을 만큼 악에 의해서도 쉽게 이끌리고 만다. 그 이유가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그들 세대에서는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설득력은 그들을 안내하는데 더 높은 빛을 가진 이들의 설득력보다 더 강하다. 빌라도는 예수를 좋게 보고 있는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행동하지 않고 예수에 반대하는 유대종교 의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간 “그 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을 타서 과일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총독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를 심리한 유대인의 회의는 밤새 동안 개최되었다. 어둠 속의 그들의 행위, 마치 심리가 있던 밤중처럼 교회가 그 끝에 도착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 교회의 밤은 왔다. 새 날의 새벽이 개시되었다. 물론 이 새 날은 빛과 희망의 날은 아니었다. 시간 차원의 달력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날,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었다. 이 날은 태양 자체가 어두워졌던 날, 그래서 정의의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과 상응을 이루는 날이다. 이 날은 십자가의 수난동안 사람의 아들이 마지막 시험 가운데 있는 날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무고한 분을 단죄해달라고 로마 총독에 넘기는 죄악상을 펼치면서도 그들의 예식 범규에는 충실하려는 위선까지 저질러 그들 스스로 부정을 타서 과일절 음식을 먹는데 방해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보다 더 교회의 종말을 암시하는 게 있을까? 안으로는 불경하고 겉으로는 거룩할 때 교회는 끝장을 맞이한다.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다우나 그 속에는 죽은 인간의 뼈와 온갖 부패된 것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29.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지 않자,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왔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의해 자신의 집으로부터 이끌려 나오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상태로부터 밖으로 나가 그들 안에 자신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그들의 영향 아래 놓으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하고 물었다. 이는 마치 심판이 이성으로 주관되는 이해성이라는 좌석을 떠나서 격정이 통치하는 곳인 의지에 와서 순진을 고발해대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과 같다.

30.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



했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걱정과 편견이 올려대는 기소와 똑같다. 예수는 범죄자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어떤 법위반도 그 고소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심문했고 죽여 마땅하다는 결론을 맺어 놓은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집행할 권한이 없는 터에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 자기들이 결론 맺은 죄목을 확인해서 형을 집행하라고 외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으로 몰아 세운 증거가 없는바 그분의 범죄자라고 소리쳐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31,32.** 로마 총독은 예수가 유대인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라’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죽음에 놓이게 하는 법률적 권한이 그 당시 박탈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두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박탈되기 전, 말해졌을 것같이 여겨진다. 예수께서 유대인에 의해 죽음에 놓여졌다면 필시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형에 의해 집행된 것은 그것이 로마인에 의해서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견되어 말해진 것은 그분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조롱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형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을 수단으로 주님의 예견은 성취되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불신해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불신한 것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의지를 가졌고 로마인들은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전자의 의지가 후자의 권한으로 행동되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분의 왕국을 무너트리려는 사탄의 의도가 집행된 것이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조롱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신다”는 이런 모습에는 섭리적인 목적이 깔려 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법을 어기고 죄가운데 죽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이런 측면에서 죄인이라면 이방인들은 저런 측면에서 죄인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분께 직접적으로 반대하여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은 간접적으로 죄를 지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죽기를 바랬고 이방인들은 그 뜻을 결과되게 했다. 이런 대목에서 발견되는바, 계시된 진리, 명백히 나타난 진리에 대한 이방인들의 적

대감은 진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라기보다는 그 진리를 독점하면서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반영된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교회 내에 있는 이들의 행동을 수단으로 진리를 판단한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견지 않는 이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좋지 않게 여기게 만들어 진리를 때리고 침뱉게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33. 이방인 부류와 그 품성에 속하는 이들이 본래 그들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면 진리 자체로부터 오는 진리에 관한 것을 듣고 싶어한다. 이것이 지금 로마 총독에 관한 기록으로 표현되어 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감은 마음이 내부 자체, 특히 지적 자질 자체, 즉 이성이 예증을 드는 곳, 판단이 있게 되는 곳에 머무는 것을 표현한다. 그가 예수를 부름은 진리 자체가 인간적인 심판의 법정에서 불리울 때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형성될 증거를 진리 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였다. 말씀 안에서 주님은 천국과 교회를 구성하는 왕국, 그분의 왕국의 통치자로서 왕이라 불리신다. 어쨌든 주님께서 실시하는 정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분은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로부터 통치하신다. 이 구분은 그분 자신의 뜻으로부터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이들의 상태로부터이다. 그분은 사랑으로부터 모든 이를 통치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모든 그분의 신하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원리로 삼고 있다면 그분의 나라는 하나일 것이고 통치하는 방법은 사랑의 주권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사랑에 의해 통치되지만 또 다른 이는 진리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므로 천국과 교회는 두 왕국, 즉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으로 구성되고 있다. 비록 이들이 구분은 된다 해도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서로에게 훨씬 덜 적대적이다. 그들은 인간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같아서 서로 구분되는 자질이지만 한 마음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 주님의 시야에서 천국과 교회가 한 사람으로 있듯이 두 왕국은 이 큰 사람(Grand Man)의 의지와 이해성을 형성한다. 의지와 이해성이 마음의 모든 것에 들어가 있듯이 두 왕국은 천국과 교회 전체에 들어가 그것을 구성한다. 표징적 교회(representative church)에서 주님의 이 두 왕국은 유대와 이스라엘 왕국으로 표현

되어져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모두로 불리우시고 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께 유다의 왕인지를 물었을 때 그것은 그가 사랑 또는 선함에 관한 그분의 통치 주권에 관해 물은 셈이다. 물론 빌라도에 이런 의미를 그의 질문에 담고서 물었던 것은 참으로 아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 안에 영적 의미를 담도록 섭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리고 사건과 그것에 연계되어 말한 것은 거룩한 이들 역시 신성한 영감에 의해 안내되고 있다. 빌라도의 질문 역시 영감의 저자만이 그 말에 답을 수 있는 의미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께 한 질문을 역사적 의미에서 읽는 동안 영적 의미에서 빌라도가 표현한 것들을 수단으로 진리들을 탐색하고 정신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을 취한다. 그가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의 상태에 있었던 이들, 진리에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더 호의적 상태에 있는 이들, 그러나 진리의 정의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는데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들에 의해 자기 판단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들의 상태를 표현한다.

**34.**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 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주님께서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다른 것을 묻는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은 그분 자신에 관한 것을 그분께 묻는 이들이 자기들의 심정과 이해성으로부터 튀어나와 반사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기억에 들어와서 묻는 것인지, 또는 마음 자체의 자극으로부터 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암시되었던 것을 묻는 것인지를 확실히 해두셔야 했기 때문이다. 심정이 갈망했다는 것과 호기심으로 막연히 묻는 것은 폭넓은 차이가 있다. 우리 자신의 원함이라는 느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과 흥미로부터 진행되는 것들 사이에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넘어 놓인 주제들이 있음을 느낀다.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되 그 대답은 그분이 알았던 것이 진리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빌라도를 이끌려 의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로마 총독은 과거 대사제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들었던 것들로부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므로 보여주는바, 빌라도는 이 고소가 어떤 유대인의 법에 관계된다는 것, 로마법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란 것은 예수가 유대인의 통치자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35.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이 답변에서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 이미 결론을 맺어 고소한 이들이 아닌 자유로이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동시에 빌라도에 의해 예수께 전달된 이 질문은 그분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발한 것을 인정 또는 부정을 끌어내려는 것, 유대의 왕임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에서 멀어지는지 그 여부에 대한 답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예수께서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그는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이나고 물으면서 네 동족들이 너를 범죄자로 내게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이교도들을 다룰 목적으로 세속의 권한을 사용할 경우 그것은 대단히 선량한 사람의 안전까지 피해를 끼치는 큰 원인이 된다. 인간적 신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신성한 계명의 위반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할 때 어떤 덕행이나 경건함도 이교적인 의견을 보존하는 것을 정당화 해준다고 기대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 우리 주님은 본보기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 자신의 경우는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한 이들의 행동에 너무 적은 영향력을 주었을 뿐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내적인 삶에 적용될 경우 우리 개개인과도 관계를 맺는다. 진리가 저질의 의지에 의해 소경된 이해성 또는 거꾸로된 이해성이 재판하도록 넘겨질 때, 공평한 재판은 거의 예상될 수 없다. “네 동족과 대사제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라고 빌라도는 예수께 말했다. 말씀 안에서 의지의 원리,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 이름들인데 이 구절의 경우는 악한 원리임이 분명하다. 빌라도가 예수께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고소내용을 함축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분은 말하시되 또다른 것, 더 높은 주제로 건너가신다. 그러나 그분이 유대인의 왕임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신다.

36.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속에 있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빌라도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권력을 추구하려는 것에 대한 빌라도의 의심의 바탕을 제거 해

버렸다. 동시에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심으로 그분이 왕임도 선포했다. 그리고 지상의 어느 권력가의 경쟁자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동시에 그분은 위대한 진리를 서술하셨고 위대한 원리를 내려놓으셨다. 예수는 참으로 왕이시다. 왕들 중의 왕이시기까지 한다. 그분은 왕국을 가지고 계신데 그 왕국은 여느 다른 왕국 너머에 있다. 제 왕과 왕국들은 그분에 의해 규율되고 존재한다. 신성한 진리 차원에서 그분은 모든 진짜 권능, 모든 정당한 법, 모든 참된 통치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왕권과 왕국은 지상의 왕 또는 왕국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안으로 그분의 왕국이 들어가기로 추구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와 정의라는 영원한 원리로 호흡되게 하신다. 비록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 안에(in) 있도록 의도되고 있다 해도 그 나라는 이 세상 속에(of) 있는 게 아니다. 그분께서 우리로 사용하도록 주신 기도 중의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올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예언의 언어가 우리를 가르치는바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갈 때를 기대하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백성들의 심정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 있듯이 그분의 뜻이 지상에서 있어질 때이다. 교회는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분의 왕국이다. 그러나 그분의 참된 옥좌는 인간 심정 안에 있다. 그분이 그 곳을 통치하실 때, 인간의 영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모든 일들, 모든 곳을 통치하시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왕국은 지금까지 존재해온 바 같은 이 세상 속의 왕국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속에 있다면 내 종들은 내가 유대인들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그분은 싸우지도 않고, 거리에서 그분의 목청을 돋구는 일도 없다는 것은 예언에서 주어진 메시아의 특색 중 하나이다.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 말코스의 귀를 자름으로 이 세상의 왕국과 싸웠던 일이 있었다. 이때 그분은 그 제자를 나무라셨고 이런 모습의 제자를 통해 무력으로 그분의 대의를 돕거나 방어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주님께서 이것을 그분의 나라가 비세상적인데에 근원과 본성을 두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로서, 그분의 종들은 싸워서 안된다는 증거로서 주시고 있다. 진리는 방어를 위해 육욕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진리는 그것 고유의 공로 위에서 있다. 그리고 진리에 부수되는

힘에 의해 규율되려고 애쓴다. 만일 이 힘이 방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친구의 전투적 기질에 의탁해서 곤경을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적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쪽을 선택한다. 이것은 유다인의 손에 넘어간다는가 악의 지배 아래 놓이든가 하는 것이다. 아마 죽기까지 박해 당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전의 권능보다 더 강력한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분의 바깥쪽 적들의 손에 자신을 무저항으로 노출시킴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

37. 그분의 왕국에 관한 그분의 선포를 들던 “빌라도는 ‘아무튼 네가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었다. 그리고 주님이 그분의 왕국에 관해 말하신 것도 들었다. 이 총독은 “아무튼 네가 왕이냐?”고 질문하여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는 올바른 추정을 이끌어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시고 있다. 그 다음 왕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진리이심도 선포하시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권에 관한 자신을 표현하셨다. 왕권의 첫 번째 원리가 진리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왕이란 통치자이다. 그리고 진리는 통치하는 원리이다. 진리가 통치한다 또는 법이 규율한다 라고 우리가 말하든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그 이유가 진리는 질서의 법들이고, 이에 따라 모든 올바른 통치는 실시된다. 신성한 진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통치한다 라고 말하든가 진리가 왕이라고 말하든가 같은 뜻을 전달한다. 주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하늘과 땅 너머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은 신성한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분이 세상에 오신 특성이었다. 그분은 모든 무질서를 내려 놓게 하고 정의의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신성한 진리로서 오셨다. 무질서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 그분이 굴복시켜야할 왕국이고, 정의의 왕국은 빛의 왕국, 그분이 사람 사이에 세우시고 회복시켜야 하는 왕국이다. 이 목적을 위해 그분은 태어나셨고, 이것 때문에 그분은 세상에 오셨다. 이 목적과 이 원인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 그분의 진리가 우리 심정에서 태어나고 이해성

에 올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잘못의 무질서를 내려놓고 그대신 정의의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말하신 것은, “진리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이었다.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진리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청중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복음서를 쓴 이 사도는 이렇게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느님께서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요한1서 4:5-6). 그래서 진리 편에 있는 이들은 진리를 행하는 이들이다. “이러므로 진리 속에 있다고 하는 이들은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요한1서3:18). 진리 편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은 생명 있는 애정을 가진 진리이다. 이 진리를 듣는 이들은 그 진리를 귀담아 듣고 순종한다. 두 견해사이에 서 있는 자들, 특히 외부로부터의 증거를 수단으로 진리를 납득하려는 이들에게 위 말씀은 그 얼마나 교훈적인가!

38.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 같은 이들에 의해 이런 때에 제안되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사실 이 질문은 그 시대의 현자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토론되었던 것이고, 우리 시대 역시 옛날 시대 만큼이나 연이어 토론되는 질문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이들 까지에서 존재했던 것은 진리가 진실로 무엇인지, 참으로 진리인 것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측해본다면, 빌라도는 진리에대한 명확한 정의이든, 진리 그 자체이든 받을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같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가 알려지려면 보여져야만 하기 때문에 일 것 같다. 최고 높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 또는 신성한 지혜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었다. 영원한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은 존재하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아마 모든 것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말로 표현된 참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것의 실체(substance)이다.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사랑으로 창조와 구속함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원리이다. 진리는 영원한 질서의 법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불변하게 행동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본성 속의 법,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의 법이다. 진리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런고로 진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진리를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아마 빌라도같이 묻는 이들은 빌라도 같이 이렇게 처신할는지 모른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 동시에 그들의 뜻에 그분을 맡겨버린다. 예수가 무고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었다면 빌라도는 그분을 석방했어야 지당하다. 그러나 그는 공적에 관한 깨끗한 지각이 없었던 듯 여겨진다. 그래서 정당한 분의 운명은 시골뜨기 수준의 편협한 총독의 변덕스러움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39,40.** 예수가 무고한 자임을 발표하는 한편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말했다. “과월절이 되면 나는 너희의 관례에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다.” 저명한 범죄를 동반하는 유대인들 앞에 그들이 선택을 결정짓게 유보되는데 이 관습이 놓여졌다는 것은 매우 독특하다. 과월절 자체는 순진한 자는 구하고 죄있는 자는 죽이는 신성한 심판의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들 조상들은 천사들이 압제자들을 지나가면서 파괴했던 그 밤에 자비심의 무관심을 체험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신성한 절차의 순서를 뒤엎었다. 즉 그들은 죄 있는 자를 석방하는 기회를 만들므로서 제정된 과월절을 모독했다. 이 시기의 경우 더 놀랄만하고 호된 시련은 더 격렬하다. 강도와 구세주 모두 예수라 명명되고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이다. 바라빠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주 초기에 속하는 사본의 어떤 것에서 초기 선조에 의해 인용된 바, 바라빠는 역시 예수로 명명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후기 기독교의 복사자의 마음에 매우 거리낌을 준 탓에 그들이 생략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목에서 선과 악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유대인들 앞에 제출되어 있다. 이름으로는 그들이 똑같은데 실제로는 그 둘은 얼마나 다른가! 어쨌든 이름의 정체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선과 악이 유대인 앞에, 그리고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예를 우리는 가지게 된다. 현재의 예에서 제출된 태도중 선 쪽을 더



선택하도록 암시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면 어떻게든냐고 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의 석방이 유대인들을 달래는데 무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길들여지기를 거절하는 귀먹은 독사 같다. 사랑과 진리의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을까? 따라서 “그들은 악을 쓰며 ‘그 자가 아니라 바라빠를 놓아주소’ 하고 소리질렀다.” 이런 유대인의 행동으로부터 엄숙한 교훈을 배워야 할뿐 아니라 상기해야 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선택의 기회가 우리들 앞에도 장착되어 있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함과 진리,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과 거짓된 것들은 우리의 일상업무나 꾸준히 되풀이하는 사건들 안에 제출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양 편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 악을 선택하고 선을 거절하는 선택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선은 가장 높은 선이요, 이 선에 정반대 되는 가장 수준 낮은 악은 자아를 사랑하는 악임을 우리는 늘 상기 해야 하리라. 18장의 사건 기록의 마지막 문장인 “바라빠는 강도였다”는 구절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가 표현한 인간 심정 속의 가장 깊이 박힌 악은 우리로부터 귀중한 모든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참된 행복에 들어 있는 사랑과 진리를 강탈해간다.

## 19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구해보려 한 빌라도의 유약한 노력,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분께 잔인함을 가한 후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건을 살피게 된다. 이 장의 사건은 마태복음에 관련해 볼 때 여러 세부사항들이 빠져 있는가 하면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첫 복음서에 포함된 것은 간략히 다루면서 요한의 복음서에만 특별히 게재되어 있는 것은 보다 더 상세히 살필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온유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사람의 아들에 가하는 잔악함을 읽게 될 때 앞서 유대인들이 죄지은 선조들을 두고 한 말, “만일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구절

로 즉각 반문하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언자들 보다 더 크신 분의 피에 연루되고 있을는지 모른다. 예수는 예언자가 가르쳤던 정의와 진리라는 영원한 원리가 인물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 원리에 반대하여 저지르는 모든 죄는 사람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이다. 주님께서서는 정의와 진리의 원리들을 아주 완전하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어 주셨다. 따라서 인간이 씌어 있는 말씀을 존경하거나 불손하게 취급하면 그것은 육을 입으신 말씀, 즉 인간 사이에 인물로 나타나신 그분을 존경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받고 죽으신 사건을 읽되 올바른 영 안에서 진짜 유익한 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건에 관련된 지식들이다. 구세주의 거룩한 인물(person)에 가해진 잔혹함을 읽게 되면 심정 안에 동정심 같은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등등의 느낌이 생산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역시 가치나 쓸쓸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물 측면에서의 취급이 그분의 말씀에 관한 취급, 또는 영원한 원리에 관한 취급을 표현하고, 그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될 때만이 성서의 이 기록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참된 가치가 있게 된다. 주님이 인간 사이에 오신 것은 그분께 위탁되는 본질적 가치가 있어서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만일 인간이 그분의 품성 속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분을 전혀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박해한 것은 그분의 행동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삶의 거룩한 기록을,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에 관한 기록을 읽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속성 역시 그분이 육으로 계실 당시의 사람들이 표출해냈던 것들을 얼마나 내놓고 있는지 가늠해 보아야 하리라.

**1-3.** “그러므로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하였다.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도포를 입혔다는 것은 자칭 왕이라 부른 것을 놀려대기 위해서였다. 주님의 왕권이 인간 심정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그 진리의 통치를 표현하는 바, 놀려대는 이 모습은 주님의 왕되심이 표현하는 모든 것에 모독을 가하는 것을 표현했다. 우리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 말씀

속의 진리를 뒤집을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에 채찍질하는 것이다. 우리의 악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한 잘못의 체계를 조립할 때,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지혜를 예수의 지혜보다 더 높다고 우쭐댈 때, 우리는 가시로 관을 엮고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우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대체시킬 때 우리는 자홍색 도포로 그분을 입히는 것이다. 우리가 바깥쪽에서는 그분을 예배하면서 안쪽에서는 자기를 숭배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배는 “유다인의 왕이여, 만세!” 라는 인사로 놀려대는 경배일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하는 철면피한 죄들은 사람의 아들을 때린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땅에 관해 말해진 것은, 땅은 그를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창세기 3:18) 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죄가 처음 세상에 진입되었을 때 죄의 표시로 그 결과인 가장 특색 있는 것으로 관을 쓰게 되었다. 인간을 위해 저주된 땅이란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의 인간의 심정이다. 이 심정이 가시덤불을 생산했다. 그리고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 그것이란 심정의 부패함에서 자라나는 욕망이다. 우리의 죄짓고 싫어함이 부패되고 썩은 토양에서 생산한 가시덤불을 가지고 지금도 관을 만들고, 초라한 구세주의 이마에 눌러 씌우며 잔인한 조롱을 퍼붓고 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에게 쌓아 놓은 오만불손이란 그분 자신이신 진리에 쌓는 것들이다.

4.5. 이 조롱과 잔인한 행위가 총독 관저에서 있을 후,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 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보라, 이 사람이다’하고 말하였다.” 왕권을 조롱하는 표지를 달고 예수를 유다인에게 데려 온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그분을 존경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고 예수에게는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말을 한 것도 억지인 듯 비치고 있다. 심정이 타락하고 이해성이 부패했을 경우 설사 올바른 판단이서도 잘못 쪽으로 쉽게 유인되고 만다. 그럼에도 악한 심정은 진리쪽을 선호하여 증거를 주는 이해성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없다. 때로 진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가 본문의 경우같이 예수 자신이 유다인에게 나왔고, “자,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번역에서는 빌라도가 말한 듯 나타나지만 여

기서 빌라도의 이름은 발생되고 있지 않는다. 더구나 이 말은 예수 자신에 의해 말해진 듯 느껴지게 하고 있다. 어쨌든 누가 말했든지, 이 문구, “Ecce Homo”는 위대한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은 참 사람(The Man)이시다. 그 이유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듯 그분만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육을 입으심을 필요로 하게 한 퇴화의 표시들 중 하나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내가 본즉 사람이 하나도 없다”(이사야 41:28). “내가 왔었을 때 사람이 없었다”(이사야 50:2). 진실로 사람인 모든 것은 인간들로부터 멸망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말고 또 무슨 인간인 것이 있을까? 진실로 인간인 모든 것은 신성의 형상이다. 인간성에 속한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는 유한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람의 모습이 된 만큼에서 유한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 또는 인간성은 하나님이 육 안에서 명백히 나타내신 바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람(Man)이시기 때문인데, 이는 그분이 창조되고 유한한 인간이 근원 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신성 안에 가지셨을뿐 아니라 양쪽 세계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창조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서이다. 주님께서서는 창조된 세계 안에서 뿐 아니라 타락된 세계 안에서의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참으로 그분은 그분이 입으신 모든 허약한 것, 모든 유한한 것을 벗으심으로 입으셨던 인성을 영화화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입으셨던 그 인성까지 포함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인간, 또는 신성한 인성이다. 그러므로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하셨을 때, 그분은 그 당시 그분을 보았던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인간성의 모형이신 참 사람(The Man)에게, 그분만이 스스로 참 사람되신 이래 참으로 인간인 모든 것이 파생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셨다. 참 사람으로서 주님은 신앙과 예배의 참 대상(object)이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본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무한하고 납득 안되는 실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분, 부활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분, 승천 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걸어나신 분,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으셨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셨고, 머리와 머리털이 눈같이 양털같이 희셨고, 눈은 불꽃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으며 얼굴은 대낮

의 태양처럼 빛났던 그분, 한마디로 신성한 인간 안에서 그분을 알고 경배하는 특전을 받았다. 이분은 과거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병사들의 막대기에 피를 흘리시고, 자홍색 도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사나워진 군중의 야유와 적개심에 노출되었던 예수와 정확히 똑같은 존재이시다. 지금 그분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군 천사에 의해 경배되고, 이후 한없이 증가하는 땅 위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 경배될 것이다.

6. “대사제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모습은 악과 더불어 언제나 있다. 특히 교회의 부패된 멤버와 더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수치를 그분께 안겨준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더 거세지고,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소리가 더 커질수록 더욱 그들은 신성한 형상을 스스로 일그러지게 한다. “빌라도는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다시 법과 정의의 바탕에서 유다인에게 호소하고 있다. 교회에서 선고한 것을 확인하거나 무시해 버릴수 있는 특권을 지닌 빌라도가 예수에게 아무런 흠도 발견 못했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진행 절차에서 예수의 운명에 거의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 불공정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유다인 스스로 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한편 이방인들은 부정한 처벌로부터 그분을 구해줄 만큼 충분한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7. 나는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고 빌라도가 반복해 선포하자, “유다인들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그 자는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대꾸하였다.” 여기서 참고한 율법은 이것이다. “야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한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따라가서 그를 섬기자고 말하는 예언자나 꿈장이가 있거든 죽여야 할 것이다” (레위기 24:16, 신명기 13:1-5). 유다인들은 예수를 모독 죄로 고발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인데 자신을 하느님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이다 (10장 33절).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5장 18절).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면 메시야는 하느님이 육으로 명백히 나타나시는 것밖에 다

른 도리가 없다는 것,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지상의 왕이고 지상의 왕국을 회복시킬 자였다. 그분이 메시아의 왕국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고 선포하셨기에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미워하고 박해했다. 이와 똑같은 지상적 바램은 예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바탕에, 그분을 밝히 알리는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 바램은 판결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해대고 있다. 편견을 내세우는 한편 욕정은 진행절차를 정당화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율법을 뒤집고 꿰맞춘다. 교회 안에서 신성하고 영적인 주제에 관해서 인간들은 성경 자체에서 그들의 법을 발견하고 그들의 악은 그것 자체의 용도에 맞게 그 법을 뒤집어 놓는다. 주님의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수단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쓸모 없게 만들었다. 그들의 전통이란 인간의 명령을 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이다. 그가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신성한 법이 있을까?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꾸는 법을 뒤집어 응용함으로써 꿰맞춘 억지이다. 악마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진리를 사용했던 것 같이 악한 자들은 그분을 부정하는데 진리를 채택한다. 그러나 양쪽 모두의 경우에서 진리는 그들 고유의 것과 씨름질 하고,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동안 자신을 파멸에 빠트린다. 그 이유가 진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8.9.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관찰되어지고 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치안 방해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사회법을 위반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자, 그 다음 그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일컬음으로 종교적인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의거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질렀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 그를 단죄하는데 실패하자 모세 법으로 죄목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들의 어떤 법을 위반하여 기소했다는 것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우리는 분별없이 생각하지 않는 바 이렇게 관찰된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다. 예수가 정치적으로 죄를

지은게 없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 병사들이 그를 짐승같이 다루고 조롱하는데도 그의 품행에는 위엄과 은유함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두고 새로운 죄목을 유대인들이 꺼내들자, 예수를 단죄하는데, 의심적이고 불명확한 정치적 범법자를 죽이라고 유대인에게 동의한다는 것에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상상된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를 심문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그의 질문은 주님의 고향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그분의 근원에 관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신론자가 늘 제의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주지 않으셨다.” 주님의 침묵, 이는 온화하나 엄한 문책이 표현되고 있다. 진리의 근원에 관하여 제안된 모든 질문에 답을 요구하는 망설이는 무신론자, 뿐만 아니라 답을 제공하겠다는 무식한 열광자와 주의 깊은 논쟁자를 향한 근엄한 질책이기도 하다. 진리는 그것 자신의 근원뿐만 아니라 본성까지도 밝히 알려준다. 그러나 진리는 꾸밈없는 마음에 자신을 밝힌다. 그들에게 진리의 천국적 근원을 밝히는데 그들이 진리가 어디로부터인지 알기를 바라는 이유는 밝히 않으므로 그들은 진리와 더불어, 진리를 수단으로 진리가 온 구원인 그분께로 승강하기 때문이다.

10,11. “나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걱정인가?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빌라도의 언어는 주님의 침묵에 대한 이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석방해 줄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진리와 잘못,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인간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속하는 권한이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는 이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대답이기도 하다. “네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표현은 이중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수단인 합리성과 자유라는 능력은 하느님께서 꾸준히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선이 신성한 섭리 속에 있듯 모든 악은 신성한 허용 속에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성한 허용을 그분께서 악을 찬성하고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되고 단지 그분이 그것을 절대적 차원에서 막으시지 않는다는 것, 어떤 한계 내에 그것을 억류하시고 있다는 것, 악이 허용되는 때란 선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더 큰 악의 예방을 위해 덜 큰 악을 선 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서만 있어진다. 악에 대한 신성한 허용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 바, 인간의 책임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죄가 얼마나 더 크냐는 지식의 분량에 비례된다.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죄가 더 큰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자기들을 인도하는 법을 가졌기 때문이다.

12.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만일 그 자를 놓아준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르의 적이 아닙니까?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예수를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노력은 부패되고 외고집 센 심정의 경향성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절반밖에 확신이 서 있는 이해성의 버둥거림과 같았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 애썼으나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세력, 하나는 유대인들, 또 하나는 카이사르가 있었다. 영적 동기와 일시적인 동기가 하나를 이룰 때 그 동기가 온전히 서서 버틴다는 것은 그 얼마나 힘든지! 카이사르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지 못했다고 하여 예수를 미워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카이사르와 라이벌되는 왕이라는 것을 단죄의 빌미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에, 천국의 것이 세상의 것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뒤집는 이들에 대한 것이고 그들은 신성한 질서를 거꾸로 놓는다.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 포장도로라 불리는 장소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것은 히브리말로 가빠타라 하는데 ‘돌 깔아 놓은 자리’ 라는 뜻이다.” 우리는 자연적 인간의 흔들거림, 반대해대는 힘을 맞이하되 얼마나 그쪽으로 휘기 쉬운 주체에 불과한지를 보게 된다. 다시 빌라도는 예수를 데리고 나와 그분의 적 앞에 세웠다. 한편 그는 스스로 포장도로에 있는 재판석에 앉는다. 돌 깔아 놓은 장소(stone-paved place)는 그 단어가 뜻하는 바대로 집정관 밖에 있었다. 여기에서는 재판석이 유대인의 면전에 놓여졌다. 이 장소로부터 발표되는 선고(sentence)는 진리에 일치해야 했다. 그러나 돌은 참된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도 상징한다.



이 구절에서 돌의 상징적 의미는 너무나 완전하게 증명되고 있다. 포장도로(the Pavement)를 위한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뿌리가 두 갈래에서 파생되기에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표면(surface), 또는 승강(elevation)을 뜻하기에 오로지 추측만으로 그 의미는 헤아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어뿐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름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사람의 아들에게 발표된 판결은 유대인의 마음 뿐 아니라 이방인의 마음 안에 그 바탕을 두었다는 것, 거룩한 분에 대한 부정한 재판이 마지막으로 유출된 이 장소를 수단으로 표현된 상태는 교회와 세상 모두에서 신성한 진리에 반대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정에 “앉은” 빌라도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마지막 결정과 공존하는 마음의 더 내면적이고 항구적인 조건도 표현하고 있다.

14. “그 날은 과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제 육시(sixth hour)쯤이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과월절 준비는 동시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차원에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고린도전서 5:7). 이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느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30)은 과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되, 세상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흠없는 동물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의 시각은 제 육시쯤이었다. 마가는 제 삼시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 불일치는 조정의 가망이 있을 듯 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들은 성서의 역사적, 글자적 의미를 명료하게 하려고 자신의 재능을 다 쏟은 이들의 주석에서 제공되고 있다. 거기에도 영적 의미가 있다고 간주해 보면, 모순되는 것은 없고 다양함만이 있는 바, 각 서술은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구분된 생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숫자 3과 6은 영적 차원 특히 6은 쉼이라는 안식일에 선행되는 노동과 시련이라는 상태의 마지막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충만과 완전함을 위해 요한의 복음서에서 언급되기에는 숫자 6이 더 적합할 듯 여겨진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은 타 복음에서 기술되는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 시각에 빌라도는 예수를 위해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둘 것은,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즉 본질적인 선함으로서의 사람, 그리고 본질적인 진리로서의 왕으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개의 구분되는 특성 아래 그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나신다는 점이다.

15. “그들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 하고 말하자 대사제들은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의 호소에 이렇게 응답하는데 섬뜩 놀라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구세주의 품성 측면에서 주님을 거절하기 보다 단죄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예수에 대하여 부정, 공언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부정은 말씀을 신성으로 받는다 고백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하다는 것, 그분의 품성은 완전히 거룩하다는 것에서 돌아서는 이들에 의해서는 범죄성을 초과하고 있다. 악과 거짓은 종교의 가장 건전한 지적 관점과 연결되어 존재할는지 모른다. 이들은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오” 라고 함성을 지르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이런 외침은 의지와 이해성 모두에 의해 신성한 사랑과 진리를 미워하거나 반감을 갖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사제는 “우리에게는 카이사르밖에는 왕이 없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이 대답에서 진리로서의 주님, 온 심정과 마음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할 주님을 거절한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에 근원을 두는 세상적일 뿐인 권세를 주님 대신에 최고 통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탈무드가 말한다. “우리는 카이사르밖에 왕이 없다.” 이는 급히 서두른 미봉책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는 하느님을 예배함에서 인간을 예배함으로 교회의 변화된 상황을 표현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죄는 아니다. 이는 영적인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추앙하는 모든 이들에게 뻗쳐있는 죄이다.

16,17. 이제 우리는 십자가형에 관한 주님의 사건을 살핀다. 이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를 보충해 주는 세부 사항들은 상세하게 주목할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여기서 표출된 광경은 참으로 가장 정감어리되 가장 굴욕적이다. 주님께서 달리시게 될 십자가를 메시고 있는 이

광경보다 주님의 공생애에서 더 애통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을까? 가장 순수하고 복주는 혜택을 직접 맛본 그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자로 몰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럼에도 이런 일련의 장면들은 인간 구속의 일을 완성하는 슬기롭고 자비로운 목적을 위해 허용되었다. 그러나 여느 다른 악이나 마찬가지로 신성한 섭리의 불가결한 법에 일치되게 허용되었다. 즉 악이 압도하면 그만큼 선을 위해서 그 악을 제압하기 위해 꾸준히 섭리를 펼치는 것이다. 창조 속에 있는 법칙과 같이 섭리의 법칙은 자연적, 영적 모든 것에서 균형의 상태를 보존하고 동시에 행동의 자유도 보존한다. 자유로운 행동은 두 개의 동등한 힘의 영향 아래, 또는 작용과 반작용이 균등할 때 있어진다. 지구는 두 개의 반대되는 힘에 의해 자기 궤도를 보존하고 있다. 하나의 힘은 태양을 향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고, 또 하나의 힘은 지구를 태양에서 멀어지게 끌어당긴다. 만일 그 어느 한쪽의 힘이 우세해져 끌려간다면 어느 쪽에서이든 파멸되고 말 것이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창조 때에 상응하는 균형(equilibrium)의 주체이었다. 의식(consciousness)과 이성(reason)은 두 개의 힘이고, 이 두 힘의 균형을 수단으로 인간은 자유로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소유하였다. 밝히 알게 해 주심(revelation)으로 계발된 이성은 이렇게 말한다. 창조된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그 반면 의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고유했던 것 외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이 자각 없이 우리 중에서 누구도 유한한 개체성의 상태로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 자신(propertius), 우리의 자아(self)로 구성한다. 이것이 박탈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성(Deity)에 흡수되어질 것이다. 마치 원심력을 상실한 행성일 경우 태양으로 빨려드는 현상과 같다. 이와 반대로 이성과 계시가 그들의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되는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어둠과 죽음의 영역에서 배회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을 맞이하는 상황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오신 것은 타락 안에 있는 인간의 상황을 질서의 궤도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그들에게 빛과 생명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타락으로 잃어졌던 영적인 균형은 개인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에게서 상실되었고 자연계, 영계 모두에서 그 상실은 퍼져

있었다. 지상의 삶에서 악한 삶을 스스로 확증했던 이들은 정의의 태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지혜의 빛과 사랑의 따뜻함을 공급받는 천국에서 살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에게는 천국에 반대되는 왕국, 즉 어둠과 죽음의 왕국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반대되는 두 왕국 사이에, 두 왕국 각각이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균형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선보다 더 강력해져 인간은 선택해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박탈당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히 가늠 못해도 실상이 되어 왔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균형의 회복,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 안에서 침해당하고 거의 파괴될 뻔한 이 균형의 회복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장엄한 목적 중 하나였다. 이 회복이 성취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뿐이다. 육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모든 일은 악이 파괴해 놓은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었다. 그분이 참아내신 격렬한 고통과 죽음은 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로 집중되도록 하시기 위해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악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이, 선과 악 사이의 균형이 회복되도록 하셨다.

이제 우리는 죄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신 분으로서의 주님께 관련된 세부 사항의 일부를 간략하나마 언급해 보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예수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를 석방해야겠다고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는 어정쩡한 빌라도의 태도는 유대인들로 함성을 지르는 결과만을 산출한 셈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실했으면서도 유대인의 손에 예수를 넘겼다.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해본다면 빌라도는 의도는 선량하나 공정과 정의에서 확실한 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자연적 인간의 품성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다. 자연적 선함이라도 자기 품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 이 세상일지라도 그런 사람으로부터서는 악이 행동되지 않게 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의 선함이 올바르고 유용한 행동으로 돌출되게 인도하는 원리가 부족할 경우 그는 굳이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은데도 설득과 압력이 있게되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창출하는 쪽으로 기우는데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진리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인 같은 선이다. 그래서 이런 선은 교회 밖 이방인 사이에, 또는 교회 내의 이방인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존재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진리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인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존재할는지 모른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고 복음서에서 이방인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방인으로서의 그는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바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달라는 유대인의 함성을 초래하게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분의 죽음에 비록 범죄성에 수준의 차이는 있다해도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 의해 죽으셨고 그들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겼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 끌고 갔다. 이 두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개의 부패된 원리의 합일을 보게 되고, 이 합일 아래 유대교회는 예수를 향해 행동했다. 그 이유가 그분을 데려갔다(to take him)는 것은 의지의 행동을 표현하고, 그분을 끌고 갔다(to lead him away)는 것은 이해성의 행동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장소로 향해 가셨다.”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는 속죄해야 할 악에 대한 표시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메고 가도록 강요했을 때 그들의 의도는 그분이 죄를 지었다는 표시가 되게 하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서 무고하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진실로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표시였다. 따라서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저질렀던 것을 표현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말씀 위에 그들의 불법을 얹어놓고 그 불법의 짐을 말씀더러 지고 가도록 강요한 것을 표현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신 다음 “해골의 장소”로 가셨다. 그들이 말씀에 저지른 행동과 똑같은 이 장소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 유대인 자신에 관한 한 말씀은 그 생명을 박탈당했고 죽은 글자 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권능이 없는 진리의 형체만 남아 있었다는 말이다. 이 장소에 대한 히브리 이름은 이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임은 의심할 바 없다. 즉 주님의 죽으심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히브리 교회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원리는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히브리 교회란 고대 교회의 연속이었다. 이 교회는 노아라 불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교회 사이에 시간상으로, 그리고 품성면에서도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어떤 것들이 이 교회를 통과해 이스라엘 교회로 건너갔다. 교회 속의 모든 것,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멸망되었다. 따라서 하느님의 예언자(oracle)를 소유하는 바로서의 유대교회라는 하늘의 처방은 영적인 골고타였다.

18.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치명적인 처벌이 있었다. 그것은 돌로 치는 것과 목을 매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의 견해에서, 목을 매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큰 고통을 입히지 않는 바, 이 처형이 중요한 처벌 방법에 첨가된 이유는 범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도 말한 구절이 있다. “...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 21:23). 이와 비슷한 예가 여호수아 10장 26절에 있다. 그외 여호수아 8장 29절, 에스델서 7장 9절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처벌의 이런 두 종류는 분리해서 또는 병합해서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한 말이다. 그것들은 영적 죽음의 두 종류, 거짓을 생산한 영적 죽음은 돌로 치는 것으로, 악을 생산한 영적 죽음은 나무에 매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돌은 거짓을, 나무는 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목을 매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바울은 목을 매다는 것이 더 불명예스러운 처벌이고 큰 목적이 그것에 첨부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갈라디아 3:13). 성서를 순수하게 자연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것을 뜻한다고 이해한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입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로부터 저주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을까?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그분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율법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 발표하는 저주는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죽음 또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함이 심정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 사랑이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온 인류가 천성적으로 놓이는 저주란 신성의 어떤 악담 (malediction) 또는 죽음의 선고 같은 게 아니라 죄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 창조물의 피할 수 없는 조건,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하는 유전적 경향성이 아주 강한 상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유전적 저주를 가진 우리 본성을 자신에게 입힘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 그분은 입으셨던 인성이 저주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인간의 경우에서도 저주를 하지 않음을 설비

해 두셨다. 예수의 십자가형, 이를 영적 국면에서 생각하면, 이는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밝히 알려 주었던 신성한 진리로서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한 것을 표현했다. 주님의 십자가형은 부패된 세대에서만 저질러질 수 있었던 범죄였다. 그런데 이것이 사제직에 있는 자들에 의해 결과됐는 바 이것은 부패된 교회에 의해서만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노라고 고백하고 존경한다고 했던 그 말씀 속의 원리들을 생활로 본을 보이셨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강요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이 요구했던 가장 순수한 삶을 연출했던 사람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법이 명령했던 것, 거룩함을 위한 진실된 모든 사랑을 그들 심정으로부터 박살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썩어있는 말씀을 다룬 것과 똑같이 주님을 취급했다. 유일한 차이는 썩어있는 율법은 외형상 존경을 받았는데 비해 말해지고 행동된 율법은 노골적인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박해는 십자가형에까지 이르렀다. 처벌의 고통을 더 큰 모욕으로 만들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 양쪽에 두 사람을 같이 처형했다. 이 모습은 역시 주님 자신이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 주셨던 것과 유사한 표시였다. 이 두 사람, 그 중 하나는 참회하는 강도였는데 그는 선과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했고, 참회하지 않는 강도는 진리 가운데만 있는 이들을 표현했다. 그러나 추상적 의미에서 그들은 선과 진리 자체의 원리를 표현한다. 이들이 예수의 양쪽에 있고, 그들이 합쳐지는 곳, 가운데에 그분이 있으셨다.

19.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라고 써어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예수에게 적용된 경우는 꼭 두 번이었는데 그분이 태어나실 때와 죽으실 때였고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하다. 그분은 동방의 현자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서방의 총독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물론 이렇게도 추측되어질 수 있다. 이방인이 예수를 왕으로 생각했다면,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는 추측의 하나는 빌라도가 써 붙인 죄명은 그분의 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얻은 지식에서 발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이후 구절에 기록된 것으로부터의 암시이다. 즉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적은 명패에 이의를 제기 했

으나 빌라도가 그것의 정정을 거절해 버린데서 알 수 있다. 명패 그 자체만을 생각해 보면 네 복음 모두 거의 같지만 각 복음은 세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특히 요한의 경우는 다른 세 복음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함유하고 있다. 마태의 경우, “유다인의 왕 예수”이고, 마가는 “유다인의 왕,” 누가도 “유다인의 왕”인데, 요한복음만이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의 차이가 있게 된 데 대해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기록이 성경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감화력에 의해서, 또는 성령이 불리준대로 받아쓰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함에서 있게 되는 개인적 특질이 문자에 주는 영향의 차이 그 이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의 경우, 즉 말씀의 기록은 큰 테두리뿐만 아니라 미미한 글자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권위가 담겨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네 복음서의 기록의 차이 역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한에 의해 기록된 십자가 위의 명패(inscription)는 마태와 요한에 의해서는 자세하고 완성된 것, 특히 요한의 경우는 마태보다 더 완성된 상태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리즈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가장 중요하고, 특히 마지막 째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다. 그 이유가 마지막 안에는 그에 앞서 있는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충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복음서 중 가운데의 두 복음은 유다의 왕이라 기록할뿐이나 첫 번째는 예수가, 마지막에는 나자렛 예수로 기록해 놓고 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거듭남의 가장 높은 상태에 도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즉 천적 수준의 품성을 기술하고 있는 바, 그가 기록한 명패 역시 네 복음 중에서 가장 충만한 상태의 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명패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지혜를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실감하는 교회 안의 사람에게 알려져 인정되는 바와 같은 것, 즉 구세주의 영화된 인성(the glorified humanity of the Saviour)을 표현해 놓고 있다. 예수는 주님의 사랑 측면을 표현하는 그분의 이름이고, 왕은 그분의 지혜 측면을 표현하는 칭호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자렛 예수라고 불리울 때 이는 그분을 충만한 상태의 신성한 사랑으로 묘사한 것이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울 때 이는 그분을 권능으로서의 신성한 지혜로 묘사한 것이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울 때 이는 그분을 권능으로서의 신성한 지혜로 묘사한 것이다. 예수가 세상에서 입으신 인성에 관해서서 그분은 나지르인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이 인성이 영화



된 상태가 신성한 자연성(Divine Natural)이다. 그분이 유다인의 왕이라 불리고 유다의 왕으로 표현된 것은 그분의 신성한 지혜에 관련되는 바, 이는 천국과 교회라는 정부, 특히 그분의 천적인 왕국을 구성하는 이들을 통치하는 정부를 나열한 것과 같다. 십자가 위에 적힌 표제를 쳐다본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의해, 우리의 체험에서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것과 같다. 나자렛 예수가 유다인의 왕이 되는 것은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이해성을 통치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언어까지 관할할 때이다. 또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지혜를 수단으로 해서 예수가 우리가 존재하고 소유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이다.

20. “그 명패는 히브리말과 라틴말과 그리스말로 적혀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이 명패가 이방인에 의해 씌어졌고 유다인들에 의해 읽혀졌는 바, 이는 장차 이방인의 세상에 의해 예수가 인정된다는 것, 그분을 믿지도 않는 유다인들이 그분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에 관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명패는 많은 유다인들에 의해 읽혀졌다. 그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형의 집행이 도성 밖에서 거행됨으로 죄를 위한 유다인의 제물에 관한 표징적인 법을 충족시키고 있다. “유다인의 대사제는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11). 이미 여러 번 주목한 바는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베드로전서 2:24), 이는 타락된 어머니로부터 파생된 것을 지니신 그분은 죄를 짓기 쉬운 우리의 유전적 경향성을 모두 짊어지셨다는 말이다. 어머니 쪽의 인성, 무르고 약한 인간성은 마치 속죄를 위한 제물의 몸이 거절되어 진영 밖으로 운반되었던 것같이 (레위기 4:11) 벗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속죄 제물은 우리가 그에 관한 충분한 의미 파악과 올바른 응용을 볼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항들, 특히 번제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속죄 제물의 경우 내장을 덮은 기름과 두 콩팥은 번제물의 제단에서 태웠다. 이 제단 아래에서 피가 뿌려진 후의 남은 피가 부어졌다. 다리와 피부를 지닌 동물의 몸은 진지 밖으로 옮겨 태웠다. 번제물의 경우,

동물 전체가 제단 위에 놓여지고 온전히 불살랐다. 위와 같은 두 종류의 제물에 관련된 사항은 인간의 거듭남과 주님의 영화하심의 발전 과정에 있는 두 가지 구분된 행동들, 두 개의 일반적 단계들을 표현했다. 속죄제물에서 피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는 하느님께 바쳐졌는데, 이는 내향의 인간의 거듭남을 예징적으로 묘사한 것이었고, 번제물에서 동물 전체가 살라지는 것은 인간 전체, 즉 안쪽과 바깥쪽의 인간, 마음과 생활 모두가 거듭나는 것을 표현했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인간 거듭남이 더 드높여진 형체인 바, 위와 같은 제물과 그것의 바침 역시 양쪽 모두에 관한 예징적인 묘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성 중 내적 측면의 영화하심이 속죄제물에 의해, 그분의 인성 전체의 영화하심, 즉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모두의 영화하심은 번제물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런데 왜 동물의 일부만 바쳐지는 속죄제물이 그분의 인성이 완전히 영화되고 신성에 하나되는데 대한 마지막 행동인 주님의 십자가형에 적용될 수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형은 그분의 영화하심의 마지막 행동이었으나 그분의 부활과는 양립할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리심은 속죄제물이었고 부활하심은 번제물이었다. 십자가형을 수단으로 그분은 어머니쪽 인간성을 벗으셨다. 그 이유가 이때 마리아의 아들은 죽었기 때문이다. 부활을 수단으로 그분은 신성한 인성을 입으셨다. 그 이유가 그때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로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하느님에게 생명 있는 제물로 바치신 것이 부활에서 입게 된 몸이었다. 그 다음 완전히 신성이 된 인성이 본질적인 신성과 하나가 되었고 영원히 한 분(one Person)으로 계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소는 성문 밖이되 그 도성과 가까운 곳이라고 이 구절이 말해놓고 있다. 가까웠다고 언급한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위의 명패를 읽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그분을 단죄하려고 애쓰고 그 결과가 있게 한 그들의 부패된 원리와 아주 가까운 연결을 아직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읽었던 명패는 그 세상에 있는 세 언어로 씌어 있었다. 신약성서 자체에서는 이 세 언어는 그냥 세상으로 말해지는 때도 있다. 이 명패가 세 언어로 씌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의 폭넓은 지배권에 관한 표시로 이해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마치 그분께서는 모든 나라와 언어들에 그분의 왕권을 휘두르실 것이라는 예언의 선포와 같다. 이렇게 더 암시되고 있다. 오순절에, "...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사도행전 2:6). 명패가 세 언어로 씌었다는 기록은 누가와 요한에 의해서만 언급되고 있는 바, 이는 거듭남이 더 진보된 상태를 달성한 이들에 의해 실감되는 것을 암시하고, 두 기록의 유일한 차이는 요한의 경우 히브리말이 처음에 언급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의 복음서의 특성과 일치하고 또한 그가 서술한 영적 질서와 삶의 상태와도 일치하고 있다. 명패에 사용된 세 언어는 유다인의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가 알려져 인정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 가지 특징 있는 일반적 차이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누가이든, 요한이든, 어느 쪽이든 그 질서에 따라 각 개인이 주님을 고백하는 세 가지 요소들도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 그리스, 라틴말을 각 백성의 특징적인 것들로 판단해보든, 그들의 언어나 문학 같은 것들로 이루어 생각해보든 이 세 언어는 의지, 지성, 행동에 응답하고 있고, 사랑, 총명, 힘이라는 마음의 올바른 조건과도 응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21,22.** “유다인들의 대사제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 붙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빌라도는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이 대사제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표현하는 대신, 자아를 사랑하고 숭배하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유다인의 왕이라고 선포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그분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매단 후 씌어진 명패에서조차 만족치 못한다. 대사제들은 그분이 스스로 유다인의 왕이라 말했다는 식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분을 두고 왕이라고 한 것을 확인했을 뿐이고, 단지 그분의 왕국은 이세상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안을 사절했다. 부정한 판결을 받은 자를 보호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 보려 했던 이방인,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충분한 원리가 그에게 없었던 이방인이 아직도 그분의 십자가 위에 그가 유다인의 왕이었다는 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이 칭호를 주장한 것으로 암시하는 것밖에 어느 다른 빛으로 달리 간주하기는 거의 힘들 것처럼 보인다. 범죄자의 십자가 위에 적힌 것은 그가 고통받아야 하는 범죄일 거라고 유다인들이 알았는 바, 주님의 십자가에 적힌 것은 “죄목”이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에 틀림없다. 때로 진리는 조소받고 있는 중에 말해지기도 한다. 이 구절의 경우는 이에 꼭맞는

예임이 확실하다. 이 예증에 있는 것같이 말해지거나 씌어짐이 표본적인 사람을 수단으로 했다. 또한 이방인 상태로 교회 내에 있는 이들은 헛된 철학을 통해 망가졌다. 그들은 마치 빌라도가 그랬듯이 진리에 적개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는 호의적인데도 진리의 적들로부터 오는 정보로부터 진리를 판단하고 취급하고 단죄하는 쪽으로 쉽게 동조한다. 빌라도는 진리 자체의 증거로 진리를 판단해서 진리를 볼 수 있으나 다른 것을 증거로 들이댈 때 쉽게 자신의 처음 판단에서 물러나고 마는 이들에 대한 표본이다.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가 쓴 것을 고수했다. 신중한 행동을 수단으로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23,24.**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 술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의논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겹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한은 마태나 마가에 의해 기록된 것보다 한층 더 정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여기서도 다시 요한의 복음서가 갖는 특성을 볼 수 있다. 관점이 깊을수록 세부사항도 더 구분되게 보여진다. 더 세세할수록 더 납득력이 있다.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역사적 모습에는 흥미 있고 귀감 되는 영적 의미가 있다. 그분을 표현했던 여느 예언자처럼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표시(sign)였다. 그분이 견뎌낸 것은 참으로 끔찍한 실재였던 것이나 그것은 이스라엘 교회가 말씀에 저질렀던 것에 관한 결과로 그것에 대한 표시였다. 말씀을 품성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겹옷과 속옷은 말씀의 바깥쪽과 안쪽에서의 의미(sense)를 표현했다. 가장 깊은 본질 측면에서 말씀은 참 신성한 진리, 가장 높은 천국 위에 있는 진리, 그러므로 천사와 인간의 유한한 능력에 초월하는 진리이다. 이 진리를 생물적인 마음에 의해 납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신성한 진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의지와 지혜로 천사와 인간의 생각이라는 섬유를 가지고 깎여진 옷을 가지고 그 자체를 입혔다. 이 옷들이 말씀의 영적 의미와 글자적 의미들이다. 말씀의 영적 의미는 천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이고, 글자적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이다. 이 진리는 인간이 거룩한 성경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계시 안에 있다. 비록 영적 의

미가 본질적으로는 천사를 위해서 있다 해도 그 의미가 인간의 눈으로부터 완전히 감추여 놓여있다고는 이해되지 않는다.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영적 의미에 관한 얼마간의 지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글자적 의미를 통해, 다시 말해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 즉 칙칙한 유리를 통해 보는 것과 같다. 그 반면 천사들은 자연적 매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빛으로 직접 본다는 말이다. 우리가 본문의 주님을 말씀으로 간주하고,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말씀의 안쪽 의미와 바깥쪽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의미는 천사와 인간의 납득력에 잘 숙박될 수 있는 의미로서 생각할 때, 군인들이 그분의 겉옷은 나누어 가지되, 속옷은 제비뽑아 가져가는 본문의 상황 안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의미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건대 그분의 겉옷은 찢어서 나누되 속옷은 통채로 보존하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이교의 창시자들(heresiarchs)에 의해 찢겨지고 나누어졌다. 그리고 각자는 그 한 부분씩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영적 의미는 온전하게 언제나 보존되고 있다. 유대교회에서 그 교회의 말기 때에 말씀은 서로 경쟁하는 당파에 의해 조각으로 찢겨졌다. 모든 교회의 말기에는 이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각 당파는 자기들에 걸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에서 뽑아내감으로 말씀의 분리된 몫을 챙기고 있다. 그리하여 각 당파는 전체로서의 진리에 파괴적인 교의(tenet)들을 챙겨간 파편에 불과한 말씀의 부분들로 건설한다.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당파들은 말씀을 나누어 가지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에게 함께 연합되었던 것까지 찢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타애와 믿음, 신앙심(piety)과 실행(work)을 나뉘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분리는 믿음만을 수단으로 구원됨이라는 교리를 존속시킴으로, 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생각과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운반함으로써 괴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본문에서 주님의 거룩한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의미되어 있다. 그 이유가 숫자 넷은 숫자 둘처럼 이타애와 믿음, 신앙심과 일이 하나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네 조각으로 나뉘는 그들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것이 결과될 때 진리(the Truth)의 통일과 교회(the Church)의 통일은 파괴되어진다. 말씀에 관한 한, 이것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the Church)의 말기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알지 못하고 인정도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 가상의 진리(apparent truth)를 우선시해서 구성되는 글자적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각 해석자는 진리의 어느 부분을 획득하나 전체를 소유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영적 의미는 실제의 진리(real truth)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자의 가지각색의 관점에 순응되도록 구부리려 가지각색으로 설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내적 의미를 진실 되게 바라는 이들에게 내적 의미에 관한 지식을 소개한다. 내적 의미는 안으로 들어감으로 진리를 모독하는 이들을 저지시킨다. 그 이유가 그들은 성소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문턱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사방으로 돌고 있는 불붙은 칼이다. 이 칼이 에덴의 문에 놓여 있고 거룩이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고 있다. 영적 의미는 글자 의미와는 달리 가지각색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바 나뉘어지지도 않는다. 주님의 속옷처럼 혼 솔 없이 통으로 짜여있다. 이 의미는 모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뉘어질 수 없다. 말씀의 영은 이타애와 믿음의 통일을 대단히 명백하게 가르치는 바, 어떤 인간의 재주로도 말씀의 영의 증거를 뒤뜰어 중대한 이 문제를 하찮은 쪽으로 처박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악한 시대에서 무지는 진짜 의미를 모독하는 것을 예방하는 안전판이다. 이 모독은 성령을 거스른 죄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적 의미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퇴각되어 있다. 비록 그 의미가 물러서 있다 해서 그것이 잃어진 게 아니라, “제비로 정하는,” 즉 더 나은 때를 위해 보존되어진다. 인간이 기회라 부르는 것을 천사들은 섭리라 부른다. 섭리는 이 귀중한 보물이 더럽혀지지 않게 보존한다. 그래서 새롭고 더 높은 교회의 처방 아래 사용되기 위해 가져다 놓는다. “이 모든 것은 성서의 말씀, ‘그들은 내 겹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성취되도록 있어졌다.” 인용된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은 외관상으로는 메시아를 언급한다고 비쳐지지 않지만, 세상 안에서의 주님의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그려서 구약성서 안에 그림자로 드리워 놓여 있다. 다윗은 주님을 예정하는 인물인 바 그를 수단으로 말해진 모든 것, 그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예정한다. 예견과 그 사건 사이에 연결되는 모든 것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합당하게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신성과 영성을 보여주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책은 가치 있는

교훈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 그 속의 영감된 모든 것은 정의에 관한 교훈을 위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27.** 이 구절은 고통스런 모습의 시리즈로부터 잠시나마 아주 다른 품성의 하나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인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요한에 의해서만 언급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 구절은 회복된 낙원의 참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격렬하지만 단련된 사랑의 부드러운 달콤함을 엿보이고 있다. 세 기독교인의 품위, 세 마리아가 구세주의 온화한 감화력 아래 십자가의 발 아래에 서 있다. 그분은 큰 고통 가운데서조차 그들에게 진저리나는 땅에서 큰 바위 그늘이 되시고 있다 (이사야 32:2).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통, 그분의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을 견디시면서 한편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정하고 돌보고 계신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이들보다 덜 인간적이었다거나, 그분은 우리의 공통된 본성이 느끼는 것에 덜 민감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하려 드는 것은 이 본문을 보면 사라지리라 본다. 모든 것에서 예가 되신 그분이 그를 낳은 그녀에 대해 자식으로서의 효성이 결핍될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인간적 애정 속에 있는 유약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복음서의 어느 곳에도 예수께서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말하거나 전달한 실예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분 삶에 관한 영감된 기록이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도 덜 진리인 것은 아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영화된 만큼에서 그분은 유한하고 죄있는 어머니이기를 중단하셨고, 그만큼 의로우신 아버지와 신성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Mother)라는 단어는 지금 드높게 완전해진 인성의 본성을 표현하도록 배려하시고 있다. “여인이여, 네 아들을 보라” 라고 말하심으로 주님께서 과거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차지하고 계셨던 자리를 사랑 받던 제자에게 양도하시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요한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예증(type)이 되고 지상에서 그분의 표징이라는 것, 그는 교회에 의해 그녀의 아들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 받던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하여 마리아를 그의 정감어린 보호에 위탁했을 때,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을 이렇게 가르친다. 사랑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생명이 된 이들만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 신성한 훈계의 성취로서 계속 기록된 바,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에 모셨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를 훈육하신 것은,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 곳, 인간에 대한 이타애(charity)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개인 차원에서, 또는 더 세부사항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서 추가적인 교훈을 더 얻게 된다. 여기 십자가 아래에 세명의 여인이 있다. 그들을 지칭한 단어 자체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어머니, 아내, 딸이라는 여인의 세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올려다보는 그 여인들 안에서 고통 받고 슬퍼하는 자를 동정하며 섬기는 모든 것을 언제나 발견하게 된다.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이 세 여인들은 세 가지 천적 수준의 애정들, 주님 사랑, 서로간의 사랑, 이 두 사랑에서 결과되는 씹씀이(use)의 사랑에 대한 애정을 본다. 천적 수준의 왕국(celestial kingdom)에 있는 서로의 사랑(mutual love)은 영적 수준의 왕국에 있는 이웃사람다운 사랑(neighbourly love)에 유추된다. 이 두 사랑의 차이는 친구관계(friendship)와 자매같은 애정(sisterly affection)의 차이와 같다. 이웃사람다운 사랑은 친구 사이의 사랑 같고, 서로의 사랑은 자매(sister) 사이의 사랑 같다. 그러므로 클레오파의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라 불리우고 있다.

**28-30.** 그분의 마지막 의향을 표현하시어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가 정립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 사랑과 이타애의 선을 가진 집에서 발견된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아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뱃 적시어 히솅 풀대에 꿰어 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 예견과 그것의 성취는 역사적 목적보다 훨씬 더 높은 목적을 가졌다.



예언자들과 복음서 기자들 사이가 연결되는 것은 그들의 진리에 대한 증거이고, 더  
 불어 성경은 신성한 영감에 의해 씌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하모니  
 로 대답함으로 의도된 전부는 아니다. 사건들 자체는 신성한 지혜의 문서 보관소에  
 쌓여 있는 바, 그것은 거룩한 상태와 거룩한 것의 표징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  
 녀들이 영적이고 영원히 흥미를 가진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은 십자가형에 따른 자  
 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하는 격통을 불평의 증얼거림 없이 견  
 디었던 그분은 이것 역시, 그분께서는 고통을 완화되게 하려 했다는 원인이 되게 하  
 실 수 없었고 하시지도 않았다. 그분의 갈증은 영적이거나 신성한 목마름, 죄짓고  
 멸망하는 창조물의 구원을 강렬히 바래심이었다. 이것이 그분이 느꼈던 목마름, 성  
 경이 성취될 수 있게 한 목마름이었다. 그 이유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구원을 주체와 객체로 모두 가지고 있고 그것이 육을 입으신 유일한 목적의 성취였  
 기 때문이다. 쓸개를 탄 신포도주(마태 27:34), 또는 몰약을 탄 포도주(마가 15:23)  
 가 예수에게 제공되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신 포도주만을 받으셨다. 이  
 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열렬히 바래신다는 것, 그럼에도 악과 혼합된 잘못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악은 없고 잘못 가운데  
 에만 있는 이들은 받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다. 죄라 할 수 있는 고집스런  
 악만이 하늘 나라로부터 인간을 축출시킨다. 뻔뻔한 죄와 연결되지 않은 잘못은 천  
 국에의 입장을 승인 받는데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는 것을 표출하신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러하다. 이와 같은 잘못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의해 지지되었을  
 지 모른다. 마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이 갈대에 놓은 것과 같다 (마태 27:48). 동  
 시에 말씀의 도덕적 교훈들은 악으로부터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될는지 모  
 른다. 마치 해면을 썬 갈대가 히습(우슬초)이었던 것과 같다. 그 이유가 갈대는 말씀  
 의 글자적 의미를 의미하고 히습은 깨끗케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교에 있는 잘  
 못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결과이다. 진실 되게 종교적인 마음들은 주로 기억 안에 주  
 재하고 있다. 그런데 기억은 잘못들로 꽉 차 있을는지 모른다. 마치 십자가 앞에 놓  
 인 그릇이 신 포도주로 채워져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생각들은 기억으로부터 잘못  
 들을 흡수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그 잘못된 생각을 일으킬는지  
 모른다. 마치 해면이 신 포도주로 듬뿍 적셔지고 다시 구세주의 입술에 들어올린

것과 같다. 그럼에도 만일 그것이 그분의 목마름을 소진할 의도로 행하여졌다면, 다시 말해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그분의 사랑을 만족시키려고 했다면, 심정의 고백적인 기도가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 “누가 그의 잘못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은밀한 과오들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었다면, 이와 같은 예배는 바깥쪽 나타남을 보시지 않고 심정 속을 헤아려 보시는 그분에 의해 열납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하셨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 신성한 선포를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인간 본성을 입도록 제안된 신성한 사랑의 모든 것은 성취되었다. 고난이라는 마지막 시험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복종시킴으로 인간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이 끝내어졌다. 지금 인성의 영화하심이 끝내어졌다. 이를 수단으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원히 계신다. 신실한 자들이 예징(type)과 전조(shadow)를 통해 그들 모두의 실체와 충만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해 왔는데 이제 그런 처방은 끝내어졌다. 신성한 섭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왔었던 큰 사건들, 영계와 자연계에서 지금 완성되었다. 지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부수었다. 이 큰 싸움에서 뱀은 여인의 뒤통치를 물었다. 구세주로 하여금 구속하는 작전을 펼치는 영역 내에 신성한 권능을 허용시키는데 필수인 그분이 입으신 죽을 운명(mortal), 그것은 인간 본성 속의 것과 같았는 바 싸움에서 졌다. 그러나 불멸의 운명으로 다시 일어나셨다. 불멸의 운명을 가지신 예수는 싸움을 통해 그분께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저자가 되셨다.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모든 인류에게 언제나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쉬워지게 만드셨다. 예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님께서 머리를 떨구심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생명력이 없다는 표시와 결과이고 이는 죽음에 선행된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바 같이 그분이 상속받은 유약한 인성 속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있어진 행동이다. 그분께서 머리를 떨구심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성의 완전한 굴종(humiliation)에 대한 표시였고 이를 수단으로 시험의 바탕이 되는 유전적 생명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 아버지쪽 인성과 반대되는 어머니쪽의 자연적 또는 유전적인 생명의 모든 것이 완전히 중지됨을 우리에게 뜻해준다. 이것은 또한 그분이 영을 포

기하셨다에서도 암시되고 있으나 두 표현에 차이는 있다. 머리를 떨구심은 의지의 소멸이고, 영을 포기하심은 이해성 쪽의 생명이 소멸됨, 또는 어머니 쪽 인성의 자발적인 생명과 지적인 생명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다.

**31-37.** 예수의 죽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제 죽은 그분의 몸에 관련해 두 가지 세부 사항을 첨부하고 있다. “그 날은 과월절 준비일 이었다. 다음 날 대축제일은 마침 안식일과 겹치게 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차례로 꺾고 예수에게 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이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참되며,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서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다.” 사건의 작은 부분, 상징적 품성의 보편적 인식이 영감된 페이지 안에 자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다. 예식에 대한 유대인의 용의주도함은 예수와 관련해 그들이 진행한 실질적 품성과 얼마나 고통스럽게 대비를 이루는지 모른다. 그들은 예수의 피로 그들의 양심을 얼룩지게 했다. 그러나 안식일의 예식적 거룩함은 꼼꼼하게 챙겼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을 넘기지 말고 그 날로 묻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있다(신명기 21:23). 이 엄한 명령은 영원한 죽음의 상징이 되어 왔던 것, 즉 시체를 묻지 않고 나무에 매단 채 밤을 지새우는 것이 표현하는 영원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어졌던 것이다. 주님의 경우, 유대인의 용의주도함뿐만 아니라 신성한 섭리에서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이 영원히 부활과 생명에 반대되는 것을 표현해 왔던 것에 종속 당하지 않도록 율법이 그들에 의해 준수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법집행은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청원한 이유로서 언급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그것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한다. 그들은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웠다. 특히 대축제에 해당되는 과월절에 더럽혀지는 것은 더더욱 두려웠다. 주님의 죽으심이 과월절

때에 거행되었어야 한다는 것, 그분의 몸이 안식일에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하고 십자가에 놓여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중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유에 근원된 이런 상황이 있다. 과월절, 이는 이스라엘이 에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 주님의 구속을 예징화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이는 창조의 육일에 이어지는 쉼으로서 주님의 영화하심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구속하심과 영화하심, 비록 서로 구분은 된다 해도, 함께 완성되었다. 시체가 안식일 동안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몸에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요한은 이 상황이 두 예견의 성취로서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다. 첫 번째, “그분의 뼈는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입으로 말해진 예언으로서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에서 발견된다.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 주신다.” 과월절 어린 양에 관한 율법에서 이렇게 추적된다. “...뼈를 꺾어도 안된다” (출애굽기 12:46). 요한의 이런 서술은 복음이 구약성서의 예징적인 속성을 얼마나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가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눈에 띄는 어떤 암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월절 어린 양에 관련해서, 뼈가 부러 트러져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법이 왜 집행되었어야 하는 것일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의를, 왜 하느님의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을까? 이런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 사건이 예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외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견과 이 사건이 표현한 예외적인 상황은 영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가졌다. 예수께서 조롱 받고 십자가형을 받는 것, 그분의 옷이 조각으로 찢기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그분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설비되었다. 이미 살핀바 같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향해 행동한 것과 상응되는 태도에서 주님을 향해 행동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 그분의 다리를 꺾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바, 그들이 말씀의 높은 원리들을 모두 파괴한 후의 그들의 바램, 즉 다리나 뼈로 표현된 것들, 즉 말씀의 최말단적인 모든 원리들까지도 부러트리고 흩어버리고 파괴해야 한다는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유대인 또는 유대교회가 그들 스스로 종교의 기초되는 최말단 원리를 파괴했다는 것은 주님이 달린 십자가 양쪽에 매달린 두 사람의 다리가 꺾인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최말단 원리(ultimate

principle)는 그것보다 더 높은 원리가 그들의 반석으로서 안주하게 해준다. 만일 이 반석이 파괴되었다면, 정의는 힘이 없고 또한 계속 존재조차 할 수 없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최말단 수준의 인성을 입으시기 위해서였다. 이 수준의 인성은 가장 최말단의 조건 뿐 아니라 가장 타락된 상태의 인성이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이 입으신 인성은 모든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인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서 참으로 그분의 구원하시는 작전은 최고 끝까지 도달되었다. 뼈가 인성의 아주 최말단 원리를 표현하는 바, 부활 후 주님께서는 그분의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인성이 구분되는 표시로서 그분의 뼈에 관해 말하셨다.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가지고 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 자신은 기초요 모퉁이 돌이라 불리셨다. 그 이유가 그분이 입으신 인성은 보편적인 영적 존재가 안주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천국과 교회가 큰 사람(the Grand Man)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볼 때 지상의 교회가 천국의 교회와 비교되듯, 뼈는 살과 비교된다. 주님께서 살과 뼈로 구성된 그분의 인성에 관해 말하셨을 때, 또는 인간 구조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때, 그분은 자신을 두고 천국과 교회 모두에, 영계와 자연계 모두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참 존재로서 말하신 것이다. 신성하게 설비된 바, 통상의 관습에 반대되는 것, 본문의 경우 예외로 적용된 것, 즉 예수의 뼈는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설비되고 허용된 것은 통상의 관습에 반대되는 바, 그분의 옆구리는 창으로 찢린 것, 거기로부터 피와 물이 나오게 된 것이다. 유대인에 관련해 보면 이 행동은 말씀으로서의 주님에게 휘두른 폭력, 거절을 표현했다.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렀던 피와 물은 영적, 자연적 차원의 신성한 진리, 다시 말해 영적, 자연적 진리에서의 말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의 옆구리를 찢는 것은 창으로 상징된 거짓들에 의해 말씀의 두 측면에 있는 진리 모두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그 행동을 저지른 당사자에게서는 악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선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악을 선의 수단으로 돌려놓으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부터 흐른 피와 물은 인간의 깨끗해짐과 구원을 위해 그분의 영화된 몸으로부터 흐르는 선함과 진리의 영을 상징한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깨끗해짐은 그분의 가슴으로 의미되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된다. 기독교인에게 거의 보편적이 되다시피 하여 인식된 것에 이런 것이 있다. 주님의 역사의 이 부분은 상징

적이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면제가 없다는 피를 밖으로 흘리신 표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대한 표시로서 너무 흔하게 이해되고 있는 바는 이리하다. 하느님께서 이 피를 잘못된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흘린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모두 보상하는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면제되어진다는 것이다. 어쨌든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거나, 주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거나 하였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는 어떤 구속함도, 구원도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의 정복도, 주님의 인성의 영화하심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님의 인물 안에서 인간이 하느님과 재회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피는 주님의 자연적 피가 표현한 의미 속에 있다. 이 피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으로부터 생명 있는 시내 안으로 흐르는 신성한 진리이다. 이 진리를 심정과 이해성이 받아들이면 인간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을 사악함으로부터 씻어낸다. 이 씻어냄으로 진리는 심정으로부터 거룩한 삶이라는 행동 안으로 흐른다. 요한이 자신에 관해 서술한 한가지는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그는 자기가 관련된 것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증한다. 그는 자신 스스로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는 보았고 기록했고 그것이 참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가 쓴 것으로부터, 이 글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이 자연적으로 본 것을 영적으로 보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요한의 상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보아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그는 사랑의 사도, 기독교인의 품위 중 가장 높은 품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 역시 위의 사실들이 포함하는 진리를 지각으로 알게 되고 심정으로 그것들을 믿으리라.

**38-40.** “그 뒤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 왔던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몰약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이 구절에 관련된 상황은 모든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 간략히 말해

주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받아 무덤에 놓는 모습이다. 세 복음서는 이 장례가 아  
 리마태아 사람 요셉에 의해 있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요한은 요셉이 경건한 의무  
 수행에서 니고데모와 협동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두 사람은 비공개된 주님의 제  
 자였다고도 언급한다. 이들은 옛 교회 안에 있는 선하고 신실한 사람을 표현했다.  
 이 사람들은 진리가 모독됨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진리를 휴식처로 옮  
 겨져 그것의 부활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새 교회에 의해 영접되고 인정되도록 하는  
 데 주님의 손에 있는 도구들이다. 매장은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참으로 매장은 언제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생명으로의 부활과  
 단죄됨으로의 부활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주님의 매장은 가장 걸출한 측면에서  
 의 부활을 의미하는 바, 그 부활이 지니는 표징적 특성과 영적 의미를 위해 꼭 필요  
 한 것은, 그분의 매장은 불신앙의 적들의 불경한 손에 의해서가 아닌 신앙심 있는  
 친구들의 경건한 손에 의해 치러져야 했다는 것이다. 그분의 적들이 그분을 십자가  
 에 못박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이 그분을 묻는 것도 필수적 순서이  
 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시신에 바르기 위해 침향을 섞은 몰약을 한 백근쯤 가져 왔  
 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과일절 어린 양에 사용했던 쓴 나물에 유추된다. 향료  
 (spice)는 애정과 지각을 의미한다. 달콤한 향료는 기뻐하는 애정과 감사하는 지각  
 을, 쓴 향료는 성서에서 영혼의 쓰라림(사무엘상 1:10)이라 불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성한 진리가 참으로 지각과 애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때에도 사랑의 부드러움과  
 지각의 감사함과 혼합된 영혼의 쓰라림이 있다. 그 이유가 영혼은 진리에 가해진 폭  
 력이나 진리의 결핍, 또는 손실에 슬퍼하기 때문이다. 향료 안의 쓴 것은 완전한 사  
 랑이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전,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 같다. 본문의 경우 쓴 향료  
 가 사용되었다. 이 향료는 방부처리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 이유가 여기서 슬픔이  
 있는데, 이는 죽음이 합당한 빛에서 바라보이고 있는 때 조차에서도 슬픔은 있기 마  
 려이다. 이와 반대로 희망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 슬픔도 없다. 슬픔과 희망이 섞  
 여 있다. 슬픔은 잃었기 때문에, 희망은 다시 얻기 때문에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충만 안에서 설비되어졌다. 그 이유가 향료는 약 백근쯤 된다고 말해졌기 때문  
 이다.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은 시신을 붙잡았고, 니고데모는 향료를 샀다. 요셉은 사  
 랑의 선을 원리로 삼는 이들, 니고데모는 믿음 속의 진리를 원리로 하는 이들을 표

현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께 갔던 사람이고, 주님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특히 거듭남에 직접 관계되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다. 요셉이 신성한 선함인 예수의 시신을 획득한 반면, 니고데모는 진리의 지각을 의미하는 향료를 구입하고 있다. 이 두 제자를 개별적으로 보면, 그들은 의지와 이해성, 주님이 영접되는 수단인 그들에 속한 선과 진리를 표현한다. 두 제자가 이런 준비를 마쳤을 때,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예수의 시체란 뒤집어진 교회의 멤버에 의해 사랑의 모든 생명이 박탈된 주님의 신성한 선이다. 그러나 부패된 교회가 모르는 채로 그 교회 안에서 보존되어 왔었던 사랑있고 신실해 있는 사람에 의해 그분의 시신은 영접 받고 소중히 여겨졌다. 주님의 신성한 선을 영접하는 이들은 그 선을 진리 안에서 받고, 이 진리로 그들은 선을 감싼다. 선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있고, 진리는 씌어진 말씀으로부터 있다. 선은 내부로부터 존재하고 진리는 외부로부터 존재한다. 이 경건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두룬 아마포천(linen cloth, 삼베옷)은 교회들이 거절하고 파괴해 버린 선을 신실한 자들로 받게 하는 진리를 표현했다. 모시옷(fine linen)은 성도들의 정의이다 (계시록 19:8). 정의(righteousness)란 실제에로 환원된 진리이다. 이 진리는 제자들로 주님의 신성한 선을 받게 하고 그 선을 보존시키고 심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그 선을 준비시킨다. 두 제자는 예수의 시신을 방부처리 하는데 있어 유대인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 매장에 관련된 유대인의 관습과 풍속은 부활의 수단을 표현했다. 주님의 인성과 그 인성의 영화하심에 관련해서 성실한 두 제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장례 예식은 특이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것,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바치는 애정의 관습적 표시였다. 옛 시대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이 예식은 표징적이었고 정작 이 예식을 치르는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알려지지 않았다. 방부처리를 한다든가 기름을 붓는 방법으로 자연적인 몸을 보존하는 것은 연고(ointment)나 고약(unguent)이 상징했던 것, 미점(grace)과 미덕(virtue)을 수단으로 영적인 몸을 보존하는 것을 표현했다. 유대교회의 모든 예식은 주님과 관계를 가졌다. 기름붓는 것과 방부처리하는 것은 칭호가 기름 부어진 자(the Anointed)이었고, 거룩한 분으로서의 그분은 썩지 않아야 한다고 약속되어 있는 그분의 경우에 독특하게 걸맞고 아주 드



높은 의미 심장한 일이었다. 주님의 시신을 성급히 방부처리한 것은 부패함에서 시체를 보존하려는 수단이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것은 자연적 수준의 표시요, 섭리적으로 장치된 기름부음이요, 방부처리이다. 즉 주님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의 시신이 실지로 방부처리되게 한 향유나 향료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었고, 사랑과 지혜의 교통을 수단으로 신성은 인성에게 신성이 되도록 했다. 주님의 시신에 부여된 향유는 그분의 경우에서 특이하게 어울린다. 그 이유는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된 그분의 인성의 영화하심은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 영광된 몸으로 일어나시기 전, 영화하심의 완성의 저녁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약과 침향은 그분의 인성 속의 감각적이고 육적인 원리에 속해있던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상징했다. 그리고 이 애정은 주님이 교회와 세상에 의해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조차 주님을 썩지 않게 한 것들에 부속되어 있었다. 두 정성어린 제자에 의해 주님의 시신이 방부처리되는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예언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시편 45편의 이 부분과 연결시켜 상상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몰약과 침향과 육계향기로 당신 옷들이 향내를 피우고 상아궁에서 들리는 거문고 소리도 흥겹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참으로 주님은 굴욕된 상태가 아닌 영광의 상태로, 십자가에 달린 몸이 아닌 영화된 몸으로, 비밀리에 동반하는 제자가 아닌 왕들의 딸들이, 한편 그분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황금으로 단장한 여왕이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위 구절같이 주님이 교회와 합일되는 경축에서 그분의 결혼 예복은 몰약과 침향의 향기를 풍기는데, 이에 더하여 그분의 시신을 방부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육계(cassia, 계피)의 향기까지 풍기고 있다. 계피는 향료 중에서 가장 귀중했다. 이 계피는 성막과 그 안의 모든 내용물, 아론과 그의 아들이 임명될 때 사용된 거룩한 향유의 구성 요소였다 (출애굽기 30:24). 이 계피는 가장 깊은 진리를 표현하는데 이 진리는 선으로부터 직접 진행되어 몰약과 침향으로 의미되는 보다 낮은 수준의 진리에 들어가 더 드높여지게 한다. 그리고 낮은 진리들과 한데 어울려 천적, 영적, 자연적 수준이라는 세 가지가 한 조가 되어 가장 깊은 것을 형성하고, 셋으로 된 한 조(trinity)는 주님과 말씀 안에서 무한하게 존재하듯이 천국과 교회에서 유한하게 존재한다.

41.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장시지낸 일이 없

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글자대로라면 이 동산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장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었다. 글자적 의미보다 더 높은 의미에서 부활은 십자가형을 당한 곳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구역 안에 있다. 어쨌든 이것은 죽은 자에서 부활을 획득한 이들과 더불어는 경우이다. 그들에게 죽음은 생명의 문이고 죽음은 세상에로의 육체의 감각을 닫히게 하고 하늘에로의 영혼의 감각을 연다. 정의로운 자에게 육체의 죽음은 행동들의 시리즈에 있는 마지막 행동이고, 이 행동으로 자연적 인간의 생명은 내려놓고 영적 인간의 생명은 집어 올린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계를 두어 생각해둘 것은, 이런 과정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을 따라 온 이들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만이 그들을 위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고통의 광경을 승리의 광경으로 만드시면서 십자가로부터 왕국에로의 대단원을 여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에 동산이 있었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 죽음의 상징인 해골의 장소로부터 무덤이 터지고 부활이 거행된 곳, 생명의 빛나는 상징인 동산까지는 오직 한 걸음에 불과했다. 동산에서, 그러므로 십자가 근처에 아무도 장사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의미 심장한지! 무덤은 부활의 상징이다. 주님이 놓이셨던 무덤이 아무도 놓인 적이 없는 새 것이었다는 것은 인성을 새로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분은 자연적 죽음의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잠든 자들을 위해 그들의 첫 열매이었다. 이 죽음으로부터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부활과 생명이셨다. 주님은 죄가 피어 들이는 죽음, 영적이었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획득한 첫 번째이시다. 영적 죽음은 모든 인간을 거쳐간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육체의 죽음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육체 역시 먼지로 되돌아 갈 때 다시 생명을 회복하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자연적 죽음이 생명의 문이도록 근원적으로 고안되어 있다. 이런 행복한 때인 육체적 붕괴가 죽음으로 간주되어 있지 않고 그럴 수 없고, 오로지 그것은 감옥의 벽을 헐어 내리는 것, 육체라는 장막을 걷어내는 것, “인간 손으로 만들지 않은 천국의 영원한 집”을 발견하도록 일시적인 집에서 영혼이 풀려나는 것이다. 인간이 그들의 고향으로 천국을 삼기에 앞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지상적이고 감각적이 된 자들만이 죽음을 현세의 삶의 끝으로 간주한다. 기독교인에서

조차 자연적 육체의 죽음을 죄의 저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로 그들을 위해 구매해져야 했던 게 구원이라고 간주한다.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죽음은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 또는 죄로 인한 죽음이다. 그분만이 이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42. “그 날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주님의 매장은 성급히 치러졌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두 경건한 제자들은 그들이 방부처리한 주님의 거룩한 시신을 가장 가까운 무덤으로 운반했다. 성급히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과 과월절에 음식을 성급히 먹는 것, 에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서 나가 달라고 재촉한 것은 유사한 점이 있다 (출애굽기 12:11,33). 성급함(haste)은 애정 측면의 표현이다. 그 이유가 성급한 모든 것은 어떤 애정이 흥분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그들이 과월절 음식을 서둘러 먹고, 그들을 속박한 땅을 황급히 떠나는 것은 폐지어 몰려드는 이들로부터 분리되려는 애정을 의미했다. 본문의 성급함도 이와 유사하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성급함도 유대인 스스로 쓸모없고 진저리가 나서 내팽겨 쳤던 신성한 진리, 그들 스스로 파괴해버린 신성한 진리를 그들로부터 옮겨 분리하는 애정을 표현했다. 이 제자들에 의해 예수의 시신은 황급히 매장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용된 시간이 매우 짧았지만 경건한 배려와 원칙은 준수되었다. 주님의 거룩한 시신을 불경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하여 있게 된 이 성급함은 또 하나, 즉 그 시신이 놓이는 새 무덤을 설비하게 해 주었다. 그 이유가 그 무덤이 가까이 위치해서 성급한 매장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죽음의 표상이었고, 그분이 매장되신 곳은 생명의 표상이었다. 생명은 죽음 가까이 있다. 천국조차도 지옥 가까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큰 구렁에 의해 분리되고 있다. 주님은 이 구렁을 맨 처음 통과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조차도 건너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나무가 한번 넘어지면 영영 그대로 누워있듯이 그들이 영원히 건너 간 후가 아닌, 그들이 준비되는 세계의 거주민으로 있는 동안 가능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과월절 기념을 준비하는 그 날은 또 다른 더 높은 준비, 죽음과 무덤의 정복자로서, 죄로 죽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정의로 살게 하는 영원한 구원의 저자로서 주님의 부활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

의 매장과 부활 사이에는 삼 일 낮과 밤이라는 간격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땅의 심장에 남아 있는 것을 예언하듯,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 버렸다” (요나 2:6) 고 말했다. 수심에 잠긴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매장되어 있을 것처럼 여겨졌다. 이 신비스런 침체(slumber) 후에 구세주는 그분의 권능 안에서 일어나셨다. 그들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했다. 장례를 경건하게 마친 두 제자는 이제 죽음의 지배 아래 “생명의 왕”을 둔 채 떠났다. 그 때까지 세상에 있었던 밤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이 지금 그들 주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뵈지 못하리라고 예상하면서 그분께 사랑과 은택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신비 안에 포함되었다. 그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어둠으로 쌓인 밤이 그들에게 내려왔다. 그들을 내려놓았고 당혹케 했던 모든 것 위에 드리우는 새 날은 아직은 밝아 오지 않고 있다.

## 20

우리는 앞 장에서 잔인하게 대우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고통의 주님의 역사를 간략히 살폈다. 이 대목의 중요한 모양새는 복음서 전체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미 설명한바 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라는 희망으로 밝게 빛나는 영광의 본문에 당도해 있다. 더불어 거기에는 온유하고 교훈적인 사건이 연계되고 있다.

1.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구속과 영화하심이 완성된 첫날의 새벽은 사람의 아들이 땅의 심장에 놓여 있었던 삼 일 밤낮을 계승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는 이른 새벽에 막달라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오고 있다. 일곱 번 깨끗해진 마리아의 영혼은 구세주에 집착되어 두려움을 던져버리게 하는 사랑으로 자극 받아 있는바, 그녀는 십자가형을 받은 그분의 몸에 경건한 애정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려고 그분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에 아직 컴컴한 시각이지만 그녀의 행보를 서두르게 하고 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만이 무덤에 제일 먼저 왔던 것으로 요한의

복음서는 기술하고 있다. 비록 그녀 한 사람만이 여기서 언급된다 해도 마태나 마가의 증언에 의한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견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 두 사람의 동료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두 제자에 대한 마리아의 말에서도 수궁이 간다. 즉 “그들이 주님을 꺼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위 짐작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막달라 여자 마리아만이 무덤에 온 것으로 말해진 것은 요한을 인도한 성령의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추리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고 그의 복음서는 이 품성이 인간에 대해서뿐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도 활동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모형(type)이었다. 그 이유는 가장 충분하게 순수해진 사랑, 즉 사랑으로서의 그분을 사랑함, 주 구세주를 사랑하는 대상의 최고인 분으로 사랑하는 경우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왔을 때 그녀는 돌이 무덤에서 치워진 것을 보았다. 주님을 안장했던 무덤은 말씀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굴욕된 그분의 상태에 국한되는 말씀을 표현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은 말씀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의미, 즉 내향의 영적 의미를 에워싼 자연적 의미를 상징화하고 있다. 어쨌든 마리아가 주님을 아는 수준은 영화하지 않은 인성의 주님, 자연적 마음에 의해 납득되는 것, 자연적 의미에 의해 지각되는 주님만을 아는 수준이다. 마리아 같은 이들에게 주님의 신성은 그분의 어머니쪽 인성을 통해서 빛을 발했다. 따라서 그것은 칙칙한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 쪽의 모든 인성을 벗으시고 영화된 신성한 몸으로 일어나셨다. 그러므로 돌이 무덤입구에서 치워져 내면이 열려 있게 된 것이다. 단순한 역사적 의미에서 추론한다면 돌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 의해 치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굳이 필요한 것같지 않다. 그이유가 이제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분, 문을 잠그고 들어앉은 제자에게 나타나신 바 있는 주님이신데 무덤에서 나가는 일에 어떤 천사의 도움도 필요없으셨을것이기 때문이다. 돌이 그분을 위해 치워진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즉 주님의 영화하심과 부활하심은 내적 의미로 있는 말씀을 여신 것, 즉 주님께 관계되는 의미, 그분의 영화하심을 기술하는 가장 깊은 말씀의 의미에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였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 모든 말씀은 그분에 관한 예언이다.

2. 무덤을 들여다 본 첫 결과는 깜짝 놀램과 실망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상태가 바뀔 때 대체로 불활실함과 흥분 그 중 하나가 따라 붙기 마련이다. 옛것이 사라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영적 존재 안에 공백이 있다. 참으로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졌다. 새벽이 심정 안에 떠올랐다. 그래서 애정은 주님을 찾도록 부추킨다. 그러나 이해성은 아직 어둡다. 이해성은 살아난 진리에 관한 명확한 지각을 획득하지 못했다. 예언자에 의해 예견된 독특한 상태, 즉 “주님만이 아시는 그 날, 낮도 밤도 아니다. 빛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을 때,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즈가리아14:7). 이것은 무덤에 왔을 때의 마리아의 마음 상태이다. 주님의 시신을 보지 못한 그녀의 실망은 그녀로 하여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는 일이었다. 이 달려감은 마리아의 느낌이 격렬해진 결과이고 이는 마리아가 표현했던 이들의 마음 상태, 즉 뭔가 해결책을 기대하고 성급히 원조를 요청하려 나서는 마음상태를 상징하고 있다.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감이 묘사하는바는 어떻게 마음이 최상의 애정으로 강한 자극을 받으면 공포에 휩쓸린 두 제자로 표현된 잠들어 있는 믿음과 이타애더러 활동하도록 일깨우는가에 대한 것이다.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실망 섞인 말로 이렇게 전달하였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진리를 실지로 부정하고 미워함으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마지막 때에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무거운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정의의 태양이 어두워질 때 마치 십자가형이 진행될 때 이 세상의 태양이 어두워졌듯 신실한 자의 마음까지도 어둡으로 깔리고 만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 주님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나은 애정으로 그분께 향유를 바르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런 경건한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한편 그들은 그분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무덤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비록 무덤이 주님의 굴욕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을 표현한다 해도 더 멀리로는 그분의 영화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일어나셨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분의 적들이 그분을 꺼내갔다고 생각한다. 주님 자신의 가르침, 즉 그분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삼 일만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시리라는 가르침을 여타 다른 그분의 희망적인 가르침과 함께 그들의 기억에서 깡그리 사라졌다. 제자들의 상태도 이 역사의 시점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게 별로 없는 수준이었다. 주님은 사악한 자에게서 뿐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서도 죽음을 당하신다. 그러나 의로운 자쪽에서는 같은 죽음이라도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비록 주님이 그들 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다 해도 그것은 의로운 자에 의해 당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과 주님은 의로운 자 안에서는 일어나시고 사악한 자 안에서는 죽어 계신다. 의로운 자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하든지,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다고 말하든지 마찬가지로 말이 된다. 그 이유가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은 제자 안에서도 역시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성의 생명은 내려놓여지고 매장되어야 영화하신 인성이 심정 안에서 참 생명과 권능으로 일어난다. 텅빈 무덤이란 주님의 진리가 자연적 낚득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 주님의 진리가 송두리째 옮겨진 것, 그리고 마음이 기댈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영적 황폐함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텅빈 무덤이란 새로운 모든 것을 받도록 준비되기 위해 옛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됨을 의미한다.

**3.4.**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다 다랐다.” 활동을 개시한 믿음과 사랑이 퇴거해 은둔했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잃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스스로 말씀에로 향한다. 그리고 진리의 생명을 박탈한 이들이 전과 같이 그것을 거두어 갔는지 자신들 스스로 검사하고 확인한다. 마리아가 달려간 경우같이 제자들이 달려감은 강렬한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왔다는 것은 자연적 차원에서 일 경우 그가 베드로보다 더 젊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속단해 버릴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요한이 표현하는 품위가 더 정력적이고 활동적임을 표현한 것이다. 사랑은 믿음보다 더 빨리 달린다.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듯 사랑은 거듭남에 관련되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이다. 시간상으로 먼저라는 말은 상태

상으로 우위라는 말이다.

5-8.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흠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흠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흠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이 몸을 굽힘은 겸손의 상태를 표현한다. 여기서 몸을 구부린 것은 예배의 표시로 엎드리는 것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존경심이 가득하여 진지한 상태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살펴본다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신약성서 중에서 베드로 전서 1장12절과 야고보서 1장25절이다. 영적으로 이것은 존경어린 탐색과 깊이 생각함을 뜻한다. 두 행동 중에서 “몸을 구부림”은 의지의 행동이고, “살펴봄”은 이해성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 관점에 일치되어 요한의 복음서는 의지로부터 되어진 행동, 그러므로 애정의 가장 깊은 바탕으로부터 이루어진 행동을 기술하는바, 이 구절에서 요한이 몸을 구부렸다고 말해지고 있다. 누가복음(24:12)의 경우 몸을 구부려 살핀 사람은 무덤에 제일 먼저 왔던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겸손과 가장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 것은 사랑으로부터이다. 사랑이 강력하게 적극적일 때 그 사랑은 믿음에 선행한다. 한 때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보다는 애정의 대상이 되어주신다. 그분의 형상은 이해성보다는 심정에 새겨진다. 참으로 이런 경우는 느낌이 크게 흥분될 때 흔히 있는 경우이다. 어떤 때에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느낌과 상응되는 것 이상으로 느끼게 될까? 잃은 죄인 하나를 찾게 될 때 온 하늘이 기뻐하는바, 진지하고 사랑 있는 영혼이 잃은 구세주를 발견할 때에 기쁨이 가득해야 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대화체의 주제 역시 이보다 덜 한게 하나도 없다. 마음이 깊이 낙담했던 상태에서부터 높은 희망을 가지는 상태로 일깨워져서 바랬던 대상을 추구할 때 사랑이 무덤에 먼저 오는 것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순서이다. 그러나 생각은 느낌을 돕기 위해 때맞춰 와진다. 마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 같다. 반사적인 생각은 흥분되어진 느낌이 하지 않은 것도 한다. 생각은 느낌이 발견했던 것만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검사한다. 마치 늦게 당도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갔으나 먼저 도착했던 요한은 들여다 보았을뿐 들어가지 않은 경우와 같다. 그리고 생각은 세부사항을 발견해서 느낌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까지 구분한다. 마치 베드로도 요한처럼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본 것에 더해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까지 본 것과 같다. 이 구절에 기록된 세부사항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끌게 하는 교리적인 특성 하나가 더 있다. 예수의 몸을 감았던 수의가 무덤에서 발견된 반면 예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데 대해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훔쳐 갔거나 옮겼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부활 때에 주님의 몸은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자로가 무덤에서 나오라고 불리웠을 때 그는 손발이 베로 묶인 채, 얼굴은 수건으로 감긴 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묶인 채 있었다. 부활에서 주님은 그분의 몸을 감았던 수의와 머리를 들렀던 수건을 남겨 두셨는바, 이제 그분의 몸은 매장될 때와 같은 몸이 아니었다는데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무덤에 남겨 둔 수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거듭남과 주님의 영화하심에 관한 것이다. 이 수의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 속의 진리에 관한 상징물이다. 그분이 몸을 감았던 수의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에 있는 진리들이고, 머리를 감았던 수건은 말씀의 천적 의미 속의 진리들이다. 이 두 진리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영적 수준에서와 천적 수준에서 영화하시어 그분의 영적 왕국과 천적 왕국이 신성한 그분의 일 안에 포함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분의 인성은 모든 수준, 즉 가장 높은 수준으로부터 가장 낮은 수준, 가장 안쪽에서부터 가장 바깥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영화하셨다. 수건과 수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는 영화된 그분의 인성에 관해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천적, 영적 수준 모두에서 구세주 또는 거듭나게 해주는 분이 되셨다. 이것들, 그리고 그들의 거듭나는 수단들은 따로따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구속이 결과되고 그분의 인성이 영화하셨을 때 더 충분하게 명백해졌다. 이것이 몇 가지 표적들로 묘사되고 있는바 그 표식들 중 본문에서 묘사되는 것은 무덤에서 수건이 발견된 것, 잘 개켜져 있는 수건이 발견된 것들로 묘사되고 있다. 베드로가 무덤을 검사하고 수의가 흩어진 것을 보았고 수건은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본 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이 무덤에 맨 먼저 당도했으나 그 안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다. 사랑은 활동

면에서 가장 빠르고 식별하는 것도 재빠르다. 믿음은 탐색 면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바 요한이 무덤에 와서 들여다 보았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가서 검사한 후 요한 역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을 들어가 보았다는 것이다. 믿음 또는 이해성이 어떤 주제에로 들어가서 보고 믿는다. 이리하여 이해성 속의 믿음은 의지 속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된다. 이럴 때 믿음은 완성된다.

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가 전한 말, 즉 유대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꺼내 갔다는 것만을 믿고 있었다. 무덤의 상태가 암시하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나타난 게 없었다. 그 이유가 “그 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과 희망은 이전보다 더 짓눌려 있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죽었을뿐 아니라 아예 누군가가 시체마저 꺼내갔다. 그들의 희망의 닦은 꺾여있고 유약한 그들의 배는 몰아치는 바다에 휘감겼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암흑의 때를 맞이한 그들이 영영 가버렸다고 상상되어버린 그분은 이 큰 환난에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바랬던 천국에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해서 안내하시고 있었다. 믿음과 사랑의 큰 시련에 있는 기독교제자의 이 체험에서 누군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때를 알지 못할까?

10. 이렇게 두 제자가 그들의 모든 희망의 끝을 보았을 때,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서 숙소로 번역된 것, 그 숙소가 함축한 것은 글자대로 그들 자신, 본래의 그들 자신(their own)이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기독교제자의 이런 상태가 지금 표현한 것은 얼마나 인상적인지!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의 상태에서부터 열띤 행동 중 하나로 일깨워졌으나 자기들이 잃어버렸다는 것만을 확인시키는 행위가 되었을 때 희망 없는 이전의 상태로 더 더욱 가라앉고 만다.

11,12.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이제 무덤은 앞서 두 제자에게 표현했던 것과는 대단히 다르게 마리아에게 새 광경을 표출하고 있다. 이 천국의 특사는 마리아

아에게 맨 먼저 주님이 일어나셨음을 발표하고, 그녀를 통해 교회에도 전달하였다. 이것은 천사의 사명 중 한가지 목적이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그들의 나타남에는 또 다른 의도, 훈도 해주는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천사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 부활의 소식이 두 제자에게 먼저 알려지도록 되어지지 않았을까? 신성한 지혜는 다른 방도를 강구하셨다. 우리는 기록된 상황을 수단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응답되어졌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맺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영적 교훈에서 이 주제를 들여다보자.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사항들과도 연결되어있다. 비록 사랑과 믿음을 가진 마음이 희망 없는 비활동의 이전 상태로 붕괴되어 있다해도 아직 심정 안에는 선함의 가장 깊은 애정이 생명력과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끌어당기는 사랑의 힘의 중심 가까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마치 마리아가 무덤 가까이에서 머뭇거렸던 것과 같다. 아직 마리아는 큰 상실감으로 흐느끼고 있다. 흐느낌은 가장 깊은 슬픔을 표현한다. 그리고 경건한 슬픔은 선함과 진리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느끼어 발생하는 고통이다. 그러나 그녀는 슬피 울면서도 곱혀 무덤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두 천사가 앉은 것을 보게 된다. 앞에서는 수의만이 보여졌을 뿐이나 지금은 두 천사가 나타나고 있다. 수의는 죽은 지식으로서의 말씀에 관한 진리들이다. 천사는 생명 있는 원리로서의 말씀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 생명 있는 진리들은 주님의 영화하심, 그리고 인간의 거듭남에서 처음과 마지막 상태에 이르러 있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과 관계된다.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은 앉아 있었다. 이런 자세는 의지 안에 수용함으로 오는 내면적이고 확증된 상태를 표현한다. 이 진리들은 지식들이 원격적으로 암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곱곰이 되새겨 확신을 받게 해준다.

13. 이 생명있는 진리들은 마음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환난과 슬픔의 원인에 관해 반성해보도록 한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우리가 슬피우는 이유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슬픔에 대한 이유를 주도록 천국의 부탁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랑이다. 또한 두 가지 다른 결과를 가진다. 그 이유가 천국적인 심정의 수색은 자기 검증 쪽으로 인도해서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주어 마음이 한 단계 승강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질문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로 이렇게 대답한다. “그들이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나는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제”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그분과 더 가까이 더 다정한 연결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임을 느끼고 자신을 구원하려면 그분이 필요함을 느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를 구원해줄 자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자기의 죄와 슬픔에서 해방될 전망조차 파악 못한 처지이다.

14. 위와 같이 진행된 상태는 마음이 뒤바뀌는 쪽으로 인도한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마리아가 돌아섬을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해본다면, 이는 천사들이 말했던 결과가 아니다. 그 여자 뒤에 서 계셨던 주님이 하신 결과였다. 다시 말해 천사들의 말보다 그분의 영향으로 그녀가 뒤돌아 섰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분께 돌아서게 한다. 참고로 계시록 1장 12절을 보면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는 뒤에서 오는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머리의 뒤쪽, 소뇌가 있는 그 곳은 의지와 상응된다. 대뇌가 있는 얼굴은 이해성과 상응된다. 계시록의 요한에 관한 기록의 의미는 이러하다. 신성한 영향력은 먼저 의지로 들어가 영향을 주는데 귀라는 기관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기관이다. 그 다음 의지를 통해 눈이라는 신체기관을 이용해 이해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주면 그는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 이해성을 뒤돌린다. 마리아가 자신을 뒤로 돌렸을 때 그녀는 자기에게 영향을 느끼게 했던 주님께로 자신을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분이 그 여자 앞에 지금 서 있는 셈이 되었지만 그녀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다. 그녀는 그녀와 구세주 사이에 드리워 있는 그녀 자신의 상태인 베일(veil)을 통해 그분을 인식할 식별력을 아직도 원했다.

15. 주님께서서는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었던 말을 보내고 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첨가하시기를,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께 의해 물어지고 있는 이 질문은 천사들에 의해 물어진 것보다 더 깊은 의식세계의 바탕으로부터 이다. 그러므로 슬픔의 원인을 더 내면적으로 지각하는 쪽으로, 그로 인한 더 심오한 부끄러움

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두 번째 질문하셨을 때 그녀의 마음은 구세주라는 인물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마음이 심히 슬퍼하는 원인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도, 그 손실이 회복되기를 열렬히 바라는 쪽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위 질문의 말이 누구에게서 있어졌는지 몰랐다. 단지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은 주목할 만 하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수단을 허용하실 때까지, 즉 그분의 나타남은 이전과 더 이상 똑같지 않다는 증거, 그분의 몸은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내리실 때까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벗으셨는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 그분의 나타남이 그분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 참으로 그녀는 주님이 현존하신다고 생각지 못했다. 그녀가 그분을 인식 못한 진짜 원인은 그녀가 그분을 부활자, 생명 자로서 그의 진짜 품성에 관해 생각하지 않은데 있다. 이것은 예수가 보여지지 않았던 원인일뿐 아니라 그분이 더 친밀하게 알려져 있었던 이들에게도 부활 후에 그분이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기도 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은 기적과 비유, 양 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과거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에서 그분이 하셨고 말하셨던 것들보다 덜 아름답고 덜 교훈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동산에 있는 마리아는 이런 사항 중 어느 하나를 관찰한 목격자이다. 거기서 발생했던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어 있다. 말씀 안에서 교회는 동산, 포도원, 양우리로 비교된다. 그리고 주님은 농부, 포도원지기, 목자로 비유되고 있다. 무덤에 있는 예수는 인성 측면에서의 주님이다. 십자가형을 받은 그분의 몸이 놓인 무덤은 교회에서 주님에 관련한 신성한 진리가 부정될 때와 같다. 주님이 일어나셨음을 발표하는 천사가 있는 무덤은 교회가 말씀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을 보게 되는 때, 말씀이 주님의 영화하심에 관한 본성과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되었을 때의 말씀이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아직 듣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마리아는 그분이 인간의 손으로 무덤에서 치워진 것처럼 느꼈고, 아마 동산지기가 그분을 옮긴 장본인이 아닐까 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

나시고 동산지기로 착각 받는 상태는 이런 영적 생각, 즉 그녀는 그분 자신, 신성이 아니라 인간적 품성에서 그분을 아직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동산지기로 착각된 상태를 두고 그녀가 말한 것은, “만일 당신이 그분을 어디론가 옮겨주었다면 그분이 모셔진 곳을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다” 이다. 그녀는 자기에게 말했던 사람이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이 라는 것은 거의 생각지 못했다. 마리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그분이 살아있는 자 가운데 계셨다는 것, 생명 자체,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 라고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은 이유는 그분이 그녀에게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가장 깊은 애정 안에서 까지 죽은 것은 아니고 그녀의 가장 바깥쪽 생각 안에서 죽어 있기 때문, 또는 그녀 안에서 아직 일어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녀의 자연적 마음에서는 죽으셔서 있고, 그녀의 영적 마음 안에서 의식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주님이 무덤에서 옮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모시려면 그분이 옮겨진 곳을 알기를 원했다. 그녀는 주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이 바람이야말로 예수께서 말하실 수 있는 준비가 그녀에게 완료된 것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 뵤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라는 뜻이다) “그녀의 이름이 직접 발음된 것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밝히 알게 했을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조차 꼼꼼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비록 그녀가 그분의 모습이나 음성에 익숙해 있었을 것은 틀림없다 해도 마리아가 자기에게 말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식별한 것은 더 이상 그녀의 눈과 귀가 아니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그녀를 실패하게 했다. 오히려 지금의 예수는 그녀의 눈이 보아 왔었고, 그녀의 귀가 들어왔었던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았던 형체, 들었던 소리는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예수는 변모되었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상태에 따른 모습과 품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내향으로 그분을 품고 있던 모습대로 바깥쪽에서도 그분을 보았다. 그렇다고 그분의 몸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왔던 그분이 몸보다 덜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현존한 것도 덜 실감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그분은 자연적 감각의 대상이 아니고 영적 감각의 대상이

되어 있으셨다. 영적 감각은 이런 특이함, 즉 보는 것과 생각, 그리고 듣는 것과 애정이 일치하는 특성이 자연적 감각과 구별되는 점이다. 눈과 지성, 귀와 의지는 동일한 능력이 단지 전자는 외적 측면에서, 후자는 내적 측면에서 일뿐이다. 그리고 행동은 두 개가 일치하여 있는 것이다. 위 본문, 주님께서 막달라 여자를 부르신 것, 그렇게 부르심으로 그녀가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상황에는 깊은 영적 흥미가 담겨 있다. 영적 의미에서 어떤 인물의 이름은 그의 전체 품성을 표현한다. 저 세상에서는 말로 자신을 나타낸 이름을 모든 이가 각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그의 온 마음에 대한 생각을 주고 있다. 주님께서 그녀를 이름인 마리아로 불렀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그녀의 가장 깊은 심정을 알고 있었던 분으로서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심정이 그녀 자신에게 유일한 바로 그분 - 그녀의 주님, 구세주인 예수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다시 자신을 돌아서게 한다. 즉 자신을 주님께, 실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그녀를 돌아서게 하신다. 돌아섰을 때 그녀는 그분께 라쁘니,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생이란 단어의 사용은 신성한 진리, 주님의 영화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을 지금 만드셨던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을 인정하고 지각하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거듭나는 삶에 상응되는 단계에 맞추어 기독교인의 제자가 되게 하는 신성한 진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함축한다. 지금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 마리아라는 말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인사하고 그녀 역시 선생님이라는 한마디로 그분께 답하고 있다. 이 두 단어들 안에, 두 말이 발음되는 순간에 마리아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에서 계시가 온통 전달되었다. 순간적 황홀함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발치에 던져서 그분의 무릎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나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네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라고 일러주셨다.” 이 대목 역시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우리가 마태복음(28:9,27)에서 읽는바, 여인은 무덤에서 되돌아 가다가 예수를 뵈었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토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도록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그분은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하시고 있다. 마태복음의 상황과 본문의 상황이 일치될 관점을 두고 다양한 학설이 제안되었었다. 위 두 상황을 역사적 의미에

서만 생각할 때 위 상황의 곤란한 대목에 만족할 답변을 누구도 주지 못했다. 구세주를 만지지 못하는 금지 명령이 놓여 있는 이유는 “나는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이 신성하게 영감 되어 있다면 마지막 구절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영감되어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영적인 계발이다.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한바, 지금 주님은 물질적인 것을 벗으셨다는 것, 모든 사람은 그의 상태에 따라 주님을 보게되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그분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실시되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제자들 중 누구는 주님을 만지도록 허용하신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금했다. 즉 그들의 상태에 맞추어 그들의 체험도 허용되었었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녀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는 수단이 되어준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들어 가셨다.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실 때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셨다. 바로 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버지께로의 승강은 이 신비스런 과정의 완성이었다. 그리하여 인성은 형체에서도 신성한 사랑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왜 이런 상황이 마리아 더러 그분의 승강에 앞서 그분을 만지지 말라 하셨고, 한편 다른 사람은 만져보도록 허용하거나 권유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상태는 주님의 인성의 현재 상태와 상응되었던 반면, 마리아의 상태는 주님의 인성에 속한 것에 상응되었으되 지금의 상태가 아닌 그분께서 아버지께 올라 가신 후에 있어질 인성의 상태와 상응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살핀바 같이 마리아는 거듭나는 상태중 대단히 높은 상태, 즉 사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럴진대 우리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아서이다” 라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명령하신 대목의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할까? 이 금지 명령에서 그분이 암시해주신바, 마리아로 표현된 천적 수준의 것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사랑 자체로 만드실 때까지 그분과의 결합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바 천적 수준의 사랑의 상태에 있는 이들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과 결합될 수 없고 오직 신성한 사랑으로서의 그분과만 결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 같은 이들은 선생으로서의 주님과 결합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아버지로서의 주님과 결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의 승강을 위쪽과 앞쪽에서 찾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분께서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선함이신 곳, 천적 사랑의 최고의 대상인 선함으로 계신 곳인 가장 깊은 심정 속의 천국에로 주님의 승강이 있다. 그분을 만지는 대신 주님께서서는 마리아 더러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느님과 너희의 하느님에게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이르시고 있다. 여제자는 의지 속의 애정에 대한 모형(type)이고 남제자는 이해성 속의 생각에 대한 모형인바, 위 분부가 마리아를 통해 주님의 형제들에게 보내지는 것은, 주님의 진리가 의지를 통해 이해성으로, 애정을 통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더 특별하게 묘사한 것은, 주님께서서는 심정 속의 가장 높은 애정, 즉 그분을 사랑하는 애정을 통해 거듭나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유입(influx)은 사랑을 통해 이타에 안으로도 있어진다. 이런 까닭에 본문에서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서는 “내 형제”라고 높이 불러주신 것이다. 형제(brethren)란 이타에 또는 형제다운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된 이들이다. 이타애로 주님에게 합쳐진 이들은 영적으로 그분의 형제이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 특히 이 놀라운 말씀, “내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느님과 너희의 하느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대목은 이 진리, 즉 주님께서 그분 자신과 아버지를 거론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놀라운 증거이다. 아마 삼위일체에서 그분이 두 번째 서열의 인물(person)로 위 구절에서 말해졌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를 그분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똑같은 하느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놓으신 대목에서 더 명확해진다. “내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느님과 너희의 하느님”이라는 대목만으로 따로 떼어낼 경우 이 말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있는 완전한 동등성을 가르치는 것으로도 간주해 볼 수 있다. 이 대목은 신약성서의 위대한 진리인 이런 진리, 즉 예수는 마치 제자들이 인간이듯 인간이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인간성과 교통하고 있다. 마치 그 인간성이 그분의 제자들과 교류했듯 온 인류에 대해서도 그러하시다. 주님의 인성은 제 아무리 드높여진다 해도 인성은 역시 인간일 뿐이다. 인성은 영화되었기 전이라 해서 더 인간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사람은 하느님 형상에서 창조되었다. 그가 더 하느님의 형상일수록 더 사람인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는 아버지가 표현된 형상이다.

그러므로 그분,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시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거쳐 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반 측면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희망적인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모든 제자에게 그러했던 대목이다. “나는 올라간다”는 그들도 승강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하신 것이다. 그들은 인간성의 이런 드높여짐에서 그분과 공통된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올라가신다고 그들에게 말하신 것은 그들도 올라 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이다.

18.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빈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메시지는 신실하고 정성어린 마리아에 의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생명 있는 말씀은 의지 안에 있는 선함이라는 가장 깊은 애정을 통해 이해성에 있는 진리의 지각으로 내려와 주님의 영화하심과 자신의 거듭남 모두에 관한 지식을 마음에서 교통되게 하는바, 이제 막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무덤을 처음 갔을 때 그녀는 예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어서 제자 중 두 사람에게 달려가 말했다. 두 번째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주님을 뵈었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전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것이다.

19. 주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이른 아침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명백히 나타내시는 저녁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분은 제자 중 엠마오로 여행하는 두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어쨌든 열 한 명의 제자 모두는 믿지 않는 채 있었다. 다른 기록을 보면 그들은 헛소문이라니 하고 있었다.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은 그들을 확신시키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아걸고 있었는데도 직접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입증해보려고 논쟁할 필요는 이제 없어도 될 것이다. 그 이유가 글자와 영의 관계가 이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단어는 부활의 날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기록된 1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그 단어

가 다시 사용되고 있다. 비록 안식일 다음 날이라 해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이 부분에서 사용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임이 표현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 여호와 자신의 명령으로 제정된 안식일이 표현하는 모든 것이 실감나지도록 의도된 것임은 의심치 않는다. 안식일의 주기로 보면 이 날은 한 주간의 첫째날, 새 주일의 시작, 거룩함과 쉼의 상태를 소개함(introduction)에 해당된다. 혹은 여기서 사용된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다른 부분(마태28:1, 마가 16:9, 누가18:12)의 경우같이 한 주일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인의 주간(week)은 그 첫째날 주님의 부활로 거룩해진 안식일임을 암시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일곱째 날에 있는 유대인의 안식일은 노동의 상태에 보답되는 쉼의 상태를 표현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계속 일어나는 고생의 상태 안에서 거룩한 상태가 팽창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제자들이 문을 닫아걸고 있었고, 예수께서 들어오시어 그들 가운데서 계셨던 것은 새로운 거룩함의 첫 날 저녁이었다. 이리하여 “저녁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세상의 빛이요 빛 자체이신 그분이 그들 사이에 서 계셨다. 낙담으로 하루가 지나갔다. 지금 제자들은 불신앙이라는 회미함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주님께 헌신함이라는 한가지 공통된 감정으로 한데 모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장 깊은 고뇌가운데서 생각과 애정이 하나되어 있고, 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걸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 사이에,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내면의 생각과 애정에 나타나신다. 더불어 이렇게 말하신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 심정과 지성 안의 가장 높은 장소를 차지할 때 모든 것은 평화의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고 의미에서 평화는 주님이라는 인물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다. 둘째 높은 의미에서 천국과 교회와 더불어 그분이 결합함이다. 개개인의 차원일 경우 이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선함과 진리의 결합이다. 평화는 하루 중 아침과 같고, 일 년 중 봄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의 새로움과 아름다움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수용할 마음을 갖게 한다. 평화는 그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선함과 진리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심정과 영혼에 대한 축복이다. 그러므로 선함과 참된 것과 악하고 거짓된 것 사이의 싸움, 또는 영적 불일치나 전쟁이 없게 된다. 이것이 평화이다. 이 안에서 선함의 결실이 있고 진리의 배가가 결과되고 있다. 그

러므로 역시 거기에는 총명과 지혜도 있다. 평화가 주님만으로부터 천국의 천사와 교회의 사람 사이에 있게 될 때 최고 의미에서의 평화는 천국과 교회의 관계 측면에서 주님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역시 그 평화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 있는 진리와 결합된 선도 의미한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증거, 십자가에 달렸었던 예수와 동일인임에 대한 증거를 주심으로 그분은 제자들의 허약함 안에 그분 자신을 숙박시키실 수 있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열린 채 있다거나, 그 상처가 부활한 몸의 손과 옆구리에 있다거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없다 해도 주님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인간과 천사들에게 나타나신다는 법칙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분을 뵈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바로 그 때에 나타나셨다. 그분의 몸, 더 이상 물질적이지는 않으나 실체적이었다. 그 몸이 비물질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심으로 증명되었다. 그분의 실체성은 제자들이 그분을 만져보고, 여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표시들로 증거 되었다. 더구나 주님께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즉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형을 당한 구세주이시다는 것, 예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된 제자에게 증거 해주시는 행동이었다. 주님의 손은 그분의 권능을 상징하고 그분의 옆구리는 그분의 사랑을 상징한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죽음에 놓이셨으나 영으로는 깨어나신” (베드로전3:18) 이후,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신실한 제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갱신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힘과 진리의 권능을 그들 안에서 명백히 보이신다. 그분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매우 기뻐했다.” 그분의 죽음이 조절할 수 없는 비탄으로 그들을 몰아 넣었었는데 살아 계신 그분을 뵈었으니 제자들의 기쁨이야말로 최고에 달했을 것임은 틀림없다. 시험의 어두운 밤, 위로되기를 거절했던 그 밤이 지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체험을, 참으로 그들의 심정 안에서 일어나신 체험을 여지없는 표시로 그들의 이해성에 증언된 체험으로 결국 확증을 받고 있다. 이 체험이야말로 얼마나 순수하고 드높은 것일까? 거룩한 기쁨은 부착물의 잃은 부분이 회복되는 데 있게 되는 자연적 애정의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심정의 영적 애정의 기

뱀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마지막 시험에 의해 완전해졌는바 이를 통해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갔다.

21.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평화의 선물과 인사는 이런 경우 얼마나 꼭 맞는지! 제자들은 과거 갈릴래아 바다에서 자기들을 삼키려 들었던 폭풍과도 비교가 안되는 더 큰 환난의 상태를 통과해갔다. 격동하던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분은 “잠잠해라., Peace, be still” 라고 말하시자 큰 고요가 바다에 흘렀었다. 이제 무기력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어 환난의 바다에서 허욕적대는 그들에게 고요가 오고 있다. 그 때와 똑같은 전능의 단어, 평화라는 단어는 괴로워하던 그들의 영들을 잠잠해지게 하고 말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채우고 있다. 더구나 주님의 인사와 평화를 선물하신 데 대한 적합한 이유가 더 있다. 지금 예수께서는 큰 전투를 끝내셨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리고 정복과 영화하심의 확실한 반석 위에 평화를 건설하셨다. 그분 스스로 달성하신 평화가 지금의 제자들, 굴욕으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수여되었다. 그분의 평화를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한편, 그분께서는 이런 임무를 그들에게 주셨다. 즉 자신들이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일이 더 진척되게 함으로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분이 시작해 놓으신 인간의 거듭남이라는 일은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말씀에 가장 적합할 것이다. 왕국의 복음은 이제 새로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강림이 복주신 결과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도록 파견되어졌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워진 그들의 일을 하되 더 높은 목적과 더 순수한 동기로부터 해야했다. 주님의 나라에 관한 참된 본성이 그들에게 이제 막 열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새 영향력이 이제 막 그들 위에 내려왔다. 새로운 모형이 그들의 노력에 방향을 주기 위해 그들 앞에 놓여졌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듯 아들이 제자들을 보냈다. 신성이 인성을 보냈다.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사랑에 의해 보내졌다. 이렇게 주님이 이행하셨듯이 제자들도 해야한다. 그분은 가신 것이 아니라 보내졌다. 진리로서의 그분이 사랑에 의해 보내졌다. 제자

들의 경우도 이와 같다. 사랑은 제자들의 모든 일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어야만 한다. 진리는 움직이게 하는 도구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일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일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이 행동은 매우 교훈적이고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성령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된 하느님의 영이라는 것, 그 영은 그분의 영화하신 몸으로부터 제자들의 심정과 지성 안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신 영은 그분께서 영화하시기 전에는 주실 수 없으셨던 하느님의 영이었다. 그이유가 그 당시의 영은 거듭나는 하느님의 영(7장39절)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존재로부터 발산되는 것인 하느님의 영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에 관해서는 구약성서에서 자주 읽는다. 그리고 신약성서일 경우 동정녀에게 드리운 하느님의 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하느님의 영의 본성과 그 효과는 육을 입으신 전과 후에서 매우 다르다. 지금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성령(Holy Spirit)은 여호와와의 영이 아닌 예수의 영, 창조하는 영이 아니라 구속하는 사랑과 권능의 영인 것이다. 이 영이 죄와 잘못으로 죽어 있었던 이들에게 영적 생명의 숨을 쉬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순종과 정의의 삶으로 회복하신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불어넣은 영은 간단히 말해서 거듭남의 영(the Spirit of regeneration), 이 영을 받게 되면 인간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듭남의 영이다.

23.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분의 영을 내쉬셨을 때 그들에게 말하신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런 진리, 즉 죄는 하느님만에 의해 용서될 수 있다는 진리로 일관되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주님의 위 말씀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의미란, 사도들은 참회하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죄의 면제란 실지로는 죄가 제거되는 것인데 무한한 자비와 은총조차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분 스스로 소유하지 않은 권능을 그의 종들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는 참회로 청산되어진다. 죄를 용서해주고 해주지 않는데 있어서 사도들의 임

무는 그들의 개인적 품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는 표현적 측면에서 위 주님의 말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면 가장 잘 알 수 있게 된다. 선함과 진리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말씀 속의 진리들은 그 진리가 죄를 제거할 때 용서한다. 이것은 진리들이 당사자에게 그가 죄지었음을 확인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삶의 새로움으로 인도해갈 때 용서도 있어진다. 또한 말씀 속의 진리들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게도 한다. 그 이유가 정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된다” (고린도후2:16).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않은 채 있게 하는 권능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은, 복음의 빛은 율법 속의 빛보다 선과 악의 구별을 더 명백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더 충분하게 그 결과도 밝히 알린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말씀하셨다. “이것이 정죄이다. 자기들의 행위가 악해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오히려 더 사랑한 것이다.”

**24,25.**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열 두 사도들 각각의 품성이 서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도록 구성되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고 또한 그것은 신성한 목적의 일부라는 것도 의심할 바 없다. 품성의 다양함이 필요하게 된 것은 그들을 통해 교회 멤버 사이에 있는 다양한 모든 품성과 상태, 교회 멤버 각각에게 들어가 형성하는 원리들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였다. 토마는 감각의 증거 위에 믿음을 얹히고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토마가 믿지 않으려고 미리 작정했다거나 부정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심정 안에 신앙이라는 원리를 가졌다. 단지, 그의 마음의 조건과 상황에 걸맞은 충분히 고정된 신앙을 보증 받으려면 완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그것을 원했을 뿐이다. 토마는 그의 동료 제자들 보다 한 단계 뒤에 있었을 뿐

이다. 사실 모든 제자들이 부활에 관한 여인의 증거를 믿기를 거절했었다. 그들이 보고 들었던 부활의 사건은 그들에게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였었다. 토마는 이런 동료 사도들의 증거를 받기를 거절한 것이다. 열 명의 제자와 토마교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 아마 이는 각기 좋아하는 측면의 차이일 것이다. 열 명은 예수를 뵈는 것에 만족했을 한편, 토마는 뵈는 것뿐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한 몸의 상처를 만져서 그분을 느껴보아야 하는 것을 요구했다. 만진다는 감각은 감각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감각들의 기초이다. 이 감각은 믿음의 고리 중에서 마지막 서열에 해당되고 이를 넘어 믿음의 요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내주신 사람들의 품성에서 위 믿음의 등급에 관한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발견한 바, 주님은 맨 처음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다른 여인들에게, 그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남자 제자에게, 그후 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토마에게 나타나셨다. 이리하여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 그분의 언성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부터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는 모든 인물과 상태를 포함하고 공명하신다는 것, 그분은 그분께 나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이 받은 상처를 그분의 몸에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만남은 한 주간의 첫째 날, 주님의 날, 노동과 시련의 상태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날 이후에 다시 일어났다. 본문에서 이 날은 여드레 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덟은 일곱같이 완성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만남에서는 토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다시 문은 잠겨 있었는데 다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시고,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부활한 그분의 실제의 존재가 확인되도록 증거를 토마에게 주시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다시, 세 번째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신다. 이 인사는 지금 막 그들 사이에 그분이 나타나신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표시이다. 이 상황을 각 개인 자신과 대조해 들여다보면 이는 내향의 체험이 외향의 사건에서 묘사된 것 같은바 우리는 교훈적인 어떤 것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우리가 깊은 시



런의 상태에 빠져있을 때 마치 본문의 사도들 같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한 관점과 느낌을 벗게 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확신과 애정이 점진적으로 생산되어진다. 이 새 국면에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표출되어 질 때 이 진리는 마음의 더 낮은 등차나 자질에 내려가 있는바 이런 더 낮은 마음이 진리를 받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설사 이 진리가 마음의 의지나 지성에 의해 기쁘게 인정되고 지각된 이후였다 해도 이의제기가 감각의 오류로부터 들쭉거리 돌출한다. 감각적 원리, 토마같이 자기 본성에 걸맞은 증거가 없으면 믿기를 거절한다. 이런 때조차에서도 주님께서는 확신을 담아 주시려 애쓰신다.

27,28.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했다.” 제자들 사이에 즉각 나타나심으로 주님은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을 보이셨고, 그분이 하셨던 것을 토마에게 말하심으로 그분이 전능하심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토마에게 그의 불신앙과 그가 적절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증거를 그에게 제공하시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권면하셨다. 토마에 대한 이 두 가지 호소에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졌는지, 만지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버렸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확실한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그 확신이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확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의 외침이 그로부터 터져 나올 정도로 그의 영혼에 깊이 뿌리박혔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우리는 토마의 이 외침을 두고 이것은 믿음의 표현은 아니다 라든가, 놀랜 결과로 있는 함성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들과는 아예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 이 외침은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에 관한 인정인 것을 복음서 기자의 언어는 보여주고 있다. 토마는 외침으로서 그의 말을 내뱉은게 아니라, “그는 그분께 ‘나의 주여... 나의 하느님이시여!’” 라고 예수께 고백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관계된 분은 예수였다. 이 인정함은 제자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주님이요 하느님으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절대적 인정이었다. 여기에는 예수의 신성을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외에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다. 즉 예수를 자기의 주님이요, 자기의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과 사랑의 살아있는 대상

으로서 그의 이해성과 심정 안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셨다. 참으로 예수는 주님이요 하느님 모두이시다. 이런 위대한 진리에 토마의 고백만이 유일한 증언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참으로 가치 있는 증언이다. 시련과 의심, 그리고 부정함이 있는 후, 예수에 관한 진리가 꿈쩍할 수 없게 하는 증거에 의해 우리의 이해성과 심정에 즉각 가져다 놓으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요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수단으로 심정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이해성의 하느님이시다. 주님에 적용된 이 두 이름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29.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토마에 대해, 그리고 그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증거”인 믿음을 위한 외적 증거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부드러운 꾸지람으로 의도되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치 않는다. 주님은 자신을 숨겨 두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자기 존재를 가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자 안에 있는 신성한 현존과 그 작업하심에 대해 의식으로 증거를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감지조차도 할 수 없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 위에 계속 운행되고, 그분의 영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항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참으로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이 그분신의 우주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진리에 대한 증거는 있다. 이보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정과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더 나은 증거, 더 확신케 하는 증거를 가진다. 참으로 이에 대한 증거, 또는 종교의 모든 것에서 증거에는 두 종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다. 말씀과 주님의 신성에 대한 최상의 증거는 그 진리가 영혼에 내향의 빛과 평화를 가져올 때 운반하는 증거일 것이다. 이것은 내적 증거이다. 이로부터 일어나는 믿음은 그 자체에 신성한 축복을 실어 나른다. 전통이나 권위, 기적, 또는 감각의 증거를 배경으로 한 믿음은 주님이 토마에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느냐?”고 말하신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외적 품성에 기대는 사람의 믿음은 위와 같은 것들을 열망한다. 이런 수단들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그들로 “의심을 버리고 믿도록” 배려하시는 그분의 자비 덕택이다. 그러나 천국적인 믿음은 더 높은 증언, 말씀 안에서 밝히 알리는 바와 같은 진리의 증언, 심정 안에서 밝히 알리는 진리의 영의 증거에 기초를 둔다. 이것이야

말로 진실로 복되다. 그 이유가 이것은 이성의 가장 높은 요구를 만족시키고 심정의 가장 순수한 바램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30,31.**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표적들, 신성한 지혜가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채 남겨둔 많은 사건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그분이 수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안에 씌어있고, 그 위대한 일이란 그분이 천국으로 승강하기위해 준비과정으로 영계에서 수행된 일까지 포함된다. 우리가 감히 상상해보는 것은 그 일들은 그분의 부활과 승강 사이에 주님의 인성에 결과되었던 신비스런 변화에 공헌했다는 것, 이 변화로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셨고 이리하여 그분은 아버지께 오르셨다는 것이다. 복음서 기자가 써 놓은 사항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건설하기 위해 주어졌다. 따라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전이기도 하다. 복음서 기자의 이 구절의 말들은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많은 일 중의 몇 가지만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리라. 이 표적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자체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는 증명이다. 그리고 이 증거는 그것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확신시키는데 유용하게 고용되어야 하리라. 제자 자신들은 이 증거들을 주님의 정체에 관한 증거로 우선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의심할 바없다. 일반적으로 이 표적(sign)들은 주님이 초인간적일뿐 임을 증명하는 품성에 속한다기보다는 십자가 이전에 그분이 보였던 표적 중 어떤 것에 해당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행하셨던 모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두 가지 있다.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똑같은 말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결과된 그분의 부활은 라자로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보다 훨씬 더 큰 표적이었다. 물론 이것은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표적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적은 그 자체에서뿐 아니라 그 결과에서 측량할 수 없게 더 위대한 것이었다. 라자로는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

복음서 기자가 언급하는 표적 중의 하나란,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놀라웁게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그분께서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시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의 그분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심을 보여 증명하신 사항이다. 이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그 이유가 예수는 그분의 인성(Humanity) 측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성(humanity)이 영화하심으로, 즉 유한함을 벗고 무한함을 입으심으로 진실로 완전하게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인성은 무소부재하신바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었다. 이는 장소가 변하여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시야가 열리고 단힘으로, 인간의 상태가 변함으로 나타나시고 사라질 수 있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기타 다른 표적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로써 참된 영적 믿음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의 복음서에 씌어진 바대로 우리에게 의해 읽혀져야 하고, 우리의 이해성과 심정에 씌어진 대로도 읽혀져야 한다. 이것들은 체험의 문체가 되어 우리 자신의 생명의 책에 씌어져야 한다. 우리 삶의 책에 씌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현존 안에 해두셨던 많은 다른 표적들이 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 결코 오지 않는 경이로운 일들을 포함하는 일이다. 그리고 거듭남은 우리의 가장 높은 개념을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의 지식과 개념에 오는 거듭남의 일만 가지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써, 본질적으로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으로서 믿는 신앙을 생산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 그분의 이름이 표현하는 권능과 영으로 산다는 것이다. 우리의 하느님과 구세주로 예수를 믿는 생명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 21

이런 비평가의 견해도 있다. 원래의 요한의 복음서는 앞 장의 마지막 구절로 끝난다는 것, 이 장은 사도 자신에 의한 보충물이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져 추가된 것이든가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장은 다른 부분에 있는 통상적인 요한의 표현 방법과 경미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 무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내용물이 시시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요한복음의 모든 사본에서 이 장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 교회의 가장 영적이고 지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이 장에 상징적인 해석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들이 요한의 복음서의 이 부분에 관해 위와 같은 견해를 발견한 이유, 이 복음 그리고 말씀의 다른 부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판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거나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의 영성을 떠나서 글자의 의미와 구조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어쨌든 거룩한 성서 본문을 연구하느라 일생을 헌신한 학자들은 경의를 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우리는 더 수준 높은 비평가의 주장, 즉 분석적이 아닌 종합적인 측면에서 성서를 관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해야 한다. 위 비평 모두는 거룩한 성서 본문을 완성해 주는 견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위의 주장들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성서 본문의 진짜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바 양측의 증거를 병합해서 균형을 맞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장의 세부사항에 관한 우리의 설명이 초기 성서 주석자의 것과 다른 양상을 띄운다 해도 이 복음서의 결론을 맺는 이 부분, 단지 글자만으로 볼 경우 무가치한 것을 사도들이 기록한 듯 여길는지 모르는 이 대목에서 교훈적인 유익한 내용을 감지하리라 믿는다.

1. “그 뒤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요한에 따르면 이번에 주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심은 세 번째요 마지막이다. 이 광경은 애정이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교훈적 내용이 그보다 덜 한 것도 아니다. 티베리아 호수(sea), 이곳은 예수께서 첫 제자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처음 나타내시고 그들의 천한 직업으로부터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던 곳이다. 이제 이곳은 그들에게 마지막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그들과 그분의 언약을 확증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들에게 그분의 교훈과 지시를 하사하신 곳이 되었다. 바다(sea)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한다. 세상이란 죽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된 세상을 말하고 말씀이란 영원한 진리들로 구성된 말씀이다. 말씀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구속하게 된 그분으로부터 온 계시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잘 숙박되도록 배려되어 보내진 그분의 신성한

뜻과 지혜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부가 될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 특별한 수색자이어야 한다. 그 이유가 말씀 속의 진리들은 영혼을 세상에서 끌어당겨 하느님께 이르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몸소 그의 제자들에게 티베리아의 호수에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 그야말로 복음의 선교라는 위대한 일에 이제 막 진입하는 이들로서의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분이 고안하셨던 교훈을 보여주셨다. 물론 이 사항은 본문의 제자 외에도 모든 제자와 관련되는 교훈이다. 모든 사람은 제각각의 길을 가면서 어부가 되어져 있다. 참된 모든 제자는 자신의 교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사람의 선생이 되든 그렇지 않든지 말씀에서 진리를 끌어내야만 한다. 말씀은 종교적 진리의 근원이다. 에제키엘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른 물은 그 물이 닿는 곳은 어디에든지 생명을 실어다 주어서 바다를 치료하여 많은 물고기가 우글거리게 했다(47장). 이 환상은 주님의 오심에서 그분에 의해 건설되는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 문턱에서 흐르는 물은 마치 계시록에서 말해진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순수한 강처럼 영원한 말씀 속의 영이다. 이것이 씌어진 말씀으로 흘러 내려 정도를 벗어난 인간이 더럽혀 놓은 씌어있는 말씀, 중독 되게 한 인간의 씌은 것들을 정제한다. 그리고 그 안으로 새 생명과 건강을 실어다 주는바, 즉 말씀의 진짜 진리들을 영성화 한다. 그 이유가 교인을 훈육하고 훈도 함이 영적 어부이기 때문이다.

2. 이제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보이셨던 주변을 살피고 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는 토마와 갈릴래아 가나 사람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과 그 밖의 두 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일곱 제자가 거기 있었다. 일곱은 거룩한 숫자이다. 일곱 명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되고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일곱 명중 베드로와 토마는 부정했고 나머지 사람은 믿지 못했었던 경력이 있다. 이들이 먼저 거론된 것은 마치 신실하고 깊은 회개로 얼마나 행하여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보인다. 더불어 믿음이 베드로로 표현되는바 믿음은 위 일곱 품성을 이끄는 품위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가 모든 경우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체에 품격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시리즈는 첫째가 베드로,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 갈릴래아 가나 사람 나타나엘인데 이들은

의지 안의 믿음, 이해성안의 믿음, 그리고 생활에서의 믿음을 표현한다. 그 다음 제 베대오의 두 아들은 내적 인간 안에서 하나되어 있는 이타애와 믿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두 사람은 외적 인간 안에서 하나된 이타애와 믿음을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세 번째 나타나심을 이들에게 만드셨는 바, 이는 우리에게 위 원리들이 마음 안에 함께 존재하고, 마치 위 제자들이 이번 경우에서 가졌던 것같이 한 가지 목적 즉 거룩한 생활에 사용하려고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활성화 될 때 주님은 현존하시어 자신을 명백히 보이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이런 목적이 지도자격인 제자 베드로에 의해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다.

3. “그 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으나 그 날 밤에는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말한다”란 베드로로 표현된 것인 의지 안의 믿음으로부터 실시되는 심사숙고함을 뜻한다. 많은 경우에서 베드로는 대변인이었는데 아마 지금의 경우가 대변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제자들은 사람의 어부라는 것을 결코 실감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어부가 되려는 찰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지금까지 그들이 불완전하게 이해했고 수행했던 영적 일의 예징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예수께서 영화되었고, 세상의 복음화, 인간 영혼의 거둬냄이 마치 새로이 시작되듯 움트고 있다. 어쨌든 이런 운동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무엇이며, 그들이 전파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가능해 있다. 지금까지, 지금조차도 그들은 왕국의 영적 본성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가져다 놓이게 될 이들 안에서 결과되어야 하는 영적 변화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를 본문이 적절히 표현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갈릴래아의 어두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밤으로 표현되었다. 그들이 수고한 결과는 그들의 고기잡이에 관한 것과 같다. 즉 그들은 밤새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생명 있는 진리의 저장소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에 관련해서 이것을 관조해보자. “나는 고기를 잡겠소”란 영혼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획득하고 싶다는 기독 제자의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믿음이 말한 이 바램은 다른 기독 품위와 상호 협조하고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 어쨌든 본질

적으로 보면 이해성의 자극이다. 그들이 수고했던 밤은 유대교회의 밤이었고, 이런 상태는 제자들이 바다에 던진 그물 안으로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일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밤은 교회의 상태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태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복음이라는 하늘의 처방에 직, 간접적으로 희미한 상태였다. 열매 없는 노동의 이런 밤은 기독 제자들에게 공통되는 경험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참 빛이신 주님이 사라지셨을 때, 또는 자신 스스로의 능력과 총명으로 해보겠다고 할 때 그 사람 스스로 발견하고야마는 정신적 희미함이라는 상태이다.

4. 이제 위 상태에 대한 밝은 면모이다. “이튿날 날이 밝아 올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과 분리된 상태의 제자들, 그들 스스로 행동하는 제자들, 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았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제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그들이 행동한 결과를 보게 된다. 이른 아침, 즉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아침, 그러나 대기를 통해 산꼭대기에 빛이 뿌려지고 있는 이른 아침이란 이런 마음의 상태, 즉 하느님의 사랑이 심정 안에 뿌려졌으나 진리의 빛은 그 강함이 아직 부상되지 못한 채 믿음의 눈에 보이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런 상태가 지금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을 때의 아침이었다. 호숫가(해안가)는 땅과 호수의 경계선이어서 언제나 그 선이 변화하는 곳이다. 그래서 선과 진리가 만나는 곳인 마음의 외적 또는 감각적 부분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말씀에 관련시켜보면 해안가란 선과 진리의 원리가 합해지는 곳인 외적 또는 글자적 의미를 표현한다. 여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자기들의 영적 삶을 받쳐 줄 생명 있는 진리를 말씀으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있다. 이런 경우에서 주님은 보여지면서도 보여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아는 것 같은데 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독특한 상황은 기독교인의 체험의 어떤 상태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더욱이 인간의 구세주로서의 예수와 관련된 사항에 이르기까지의 진리를 배울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항들을 알지 못할는지 모르고, 그 본성에 관한 영적 식별력도 지니지 못하고, 더욱이 그 진리의 권능에 관한 체험도 없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진리의 형체를 보면서도 그 실체는 보지 못한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는데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몰랐던 것과 같다.

5.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이 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 사용한 수단들은 현재까지도 그분께서 신실하나 어두움에 있는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밝히 알리는데 고용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 예수께서 ‘얘들아, 고기를 줌 갖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어린 아이를 귀엽게 부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시고 있는바,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표현하시어 이어지는 구절이 입증하듯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위 같은 것으로 가르치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 같은 수준, 지식 수준에서 어린 아이 같아서 성인의 수준으로 아직 자라지 못한 지식 수준까지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으되 그들이 고기를 성공적으로 많이 잡았는지 이를 묻지 않으시고 단지 어떤 음식물(meat)을 가졌는지를 물으셨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음식물(meat)은 빵은 아니고 생선(fish)같은 것, 식사할 때 함께 먹게되는 어떤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용어 음식물은 진리와 구별해서 선에 관한 원리를 의미하는바, 이 질문은 중요하고 탐문하는 것에 해당된다. 즉 영혼의 양식을 구성하는 생기 있는 원리의 어떤 것을 획득했는가? 이것을 획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 이것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우리의 수고는 쓸모 없다는 것을 짐작하도록 해주시고 있다. 이 질문은 바야흐로 주님께서 그분의 영의 영향력과 말씀의 가르침을 수단으로 진지한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향해 암시하시고 있다. 제자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였다. 얻으려고 애를 써왔으나 결핍되었을 뿐임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대로나마 성공의 서곡이다.

6.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다.” 이 대목을 자연적 의미만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되물으는지 모른다. “하필이면 왜 배 오른쪽에...” 그러나 위 주님의 명령은 기적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이타애를 표현하는 한편 왼쪽은 믿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시작해보면 위 신성한 명령은 얼마나 교

혼적인지! 우리를 가르치는바, 우리가 복음을 배우든, 가르치든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부터 행동하는가, 어떤 원리에서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성과 믿음으로부터 행동한다면 우리는 온 밤을 지새워 수고해도 소득이 없겠지만 우리가 심정과 이타애로부터 행동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행동하는 한, 우리는 상대방의 영적 개선과 행복에 마땅히 관심을 기우려 주지도 않으면서 우선 자신의 특이한 교리로 전환하라고 노력해댄다. 대신 우리가 이타애로부터 행동하는 한,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견해에 찬동하라고 단순히 설득하지 않고 그의 심정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변화를 기대한다. 우리 자신만에 국한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태도를 들여다보자. 우리가 지적인 믿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면 결국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확증해달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진리를 획득하려 애쓴다. 그러나 우리가 이타애로부터 행동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 기독교 생활의 품위와 미덕을 함양할 목적으로 진리를 획득하려 애쓴다. 위 활동의 두 종류가 한 인물에 의해 연속적으로 나열될는지 모른다. 전자는 그의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보다 더 적극적이었을 때이다. 이것은 그에게 영적인 밤이다. 그 이유가 밤과 낮은 마음의 상태, 즉 밤은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을 압도할 경우이고, 낮은 영적 인간이 자연적 인간을 종속시킬 경우의 마음 상태이다. 이 상태들은 거듭남의 수준이 제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게 된 인간이라 해도 교차되는 마음의 상태들이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창세기8:22). 이런 교차됨은 필수적이라 할만큼 유용하다. 이런 교차됨이 없이 어떤 상태도 완전해 질 수 없다. 작용과 반작용은 평형(equilibrium)을 보존하고 건강한 활력과 발달을 증진시킨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의 영적 힘과 원리들이 적극적일 때, 천국적 사랑의 따뜻함과 천국적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적극 활동할 때 당사자는 낮이라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연적 애정과 생각이 적극적이 되고, 자연적 삶의 일과 그 일의 충동이 한동안 우위를 점하고 적극성을 떨 때 그 사람 주위는 밤으로 둘러 쳐진다. 실망과 보답 없는 노동의 밤이라는 상태는 또 다른, 더 나은 것을 준비시킨다. 그리하여 빛과 희망,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분의 진리의 소리와 그분의 사랑의 영향이 그의 심정을 격려하고 마음을 더 행복된 결과로 인도해간다. 이 결과가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맞이한 성공 안에 그림자같이 드리워있다. 그리하여 지금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수가 많음(multitude)은 진리에 적용되는 단어이고, 양이 많음(magnitude)은 선에 적용하는 단어이다. 많은 고기는 많은 사람, 특히 이방사람이 많다는 것을 어렵듯이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제자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전환하게 될 사람들이다. 그들이 기독교 원리의 시대, 지금 그들 위에 드리우는 새벽인 기독교 원리의 시대에 오고,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듯 그분의 가르침 아래 있게 되어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닌 영적이고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 받는다. 또한 이 구절이 투영하는 의미는 진리들의 증가, 즉 이타애의 영향 아래에서 성경을 수색하는 이들에게 말씀이 산출해 주는 진리의 증가이다. 선은 진리의 생명이요 진리가 증가하는 근원이다. 그 이유가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유용함의 수단과 권능을 확장시킨다. 선이 풍부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선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느 때이든지 진리들이 불어난다. 그래서 아마 처음 진리를 수확할 때 예상했던 우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배가 된다.

7. 이런 기적적인 증가의 결과 중 하나로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은 예수 외에 더 다른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벌거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몸에 어부의 외투를 두르고 물 속에 뛰어 들었다.” 그들의 노력에 방향을 정해주고 또한 더욱 번창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생각은 그 자체 요한에게 먼저 표출되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신성한 유입은 의지 안으로, 그 다음 의지를 통해 이해성 안으로 있어 지거나 이타애를 통해 믿음 안으로 있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이 주님과 결합하는 쪽으로 노력하게 한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에게 가겠다고 결정했던 것과 같다. 그런데 베드로는 벌거 벗었다. 그는 고기잡이 옷을 둘렀다. 이 구절, 그리고 성경의 다른 장소에서 등장되는 벌거벗음(naked)은 겉옷이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영적인 벌거벗음을 뜻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는 진리의 결핍이다. 옷과 몸의 관계 같은 것이 진리와 마음의 관계이다. 외투(coat)로 사용된 이 단어는 신약성서의 어떤 부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동사적 형태로서 고린도후서 5장 2,4절에 등장할 뿐이다. 거기서 사도가 말한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clothed upon)를 갈망하면서도 신음하고 있습니다...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unclothed)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clothed upon)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육체가 영혼(soul)의 의복으로 말해지고 있다. 자연적인 몸은 이 세상을 위한 영혼의 의복이고 영적인 몸은 저 세상을 위한 영혼의 의복이다. 모든 실체(essence)가 형체(form)를 가져야하듯 모든 영혼(soul) 또는 영(spirit)은 몸(body)을 지녀야만 한다. 믿음의 영은 마치 겹옷을 걸치듯 믿음의 진리로 옷 입혀져 있다. 신성한 존재의 경우 빛으로 옷 입으시고 있다. 믿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진리가 없을 경우 그것은 방어벽이 없는 것, 말쑥한 형체가 없는 것, 화려한 장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미적지근했던 라오디게이아 교인들, 즉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와 같다 (계시록3:17). 베드로의 벌거벗음이 함축하는 것은 그가 위 계시록의 언급같이 걸땀된 상태, 부끄러운 상태, 즉 어떤 자각심도 없는 뻔뻔한 상태가 아닌 그 반대의 상태이다. 즉 그는 자신이 벗었음을 발견한 한편 옷 입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그의 흥분어린 애정의 대상이 된 그분 앞에 나서고 싶어서였을 뿐이다. 이 제자가 자신을 옷입힌 진리들은 주님과 결합하는 수단들이다. 이런 연유에서 말씀 가운데에는 옷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고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특히 천국 결혼에 입장하려면 결혼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을 꼬집어 언급해두고 있다. 베드로가 자기 겹옷을 두르는 모습은 기독교인이 주님 앞으로 입장하고 그분과 결합하려면 믿음의 진리로 입어야함을 표현한 것이다. 옷을 두른 베드로는 물에 뛰어 들었다. 겹옷을 열른 걸치는 잽싼 그의 행동은 그의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해보려 했으나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해주심을 수단으로 그들에게 그분이 밝히 알려졌을 때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진실한 자의 열면 바람도 표현하고 있다. 이 구절의 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해주셨던 것을 후에 그분은 그들을 수단으로 이루셨다. 그분은 그들의 수고함을 번영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했던 것은 진지한 믿음이 제자들 더러 하라고 자극하는 것,

자신을 줄라매는 것, 그리고 물을 통해 그분께 가는 것, 더불어 “죽음도 감히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라는 약속에 관한 본보기였다.

8.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가 잔뜩 걸려든 그물을 끌며 작은 배로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들어갔던 곳은 육지에서 백 미터(이 백 큐빗)쯤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나머지 제자들이란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을 드높이고 확증하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이다. 이들은 믿음이 인도하는 곳, 즉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의 저자이시고 믿음의 최고대상으로서 주님께 인도되는 대로 따라간다. 따라서 그들은 배로 상징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님께 왔다. 이 제자들이 탔던 것은 작은 배였다. 양이 많음은 선에 관계되고 수가 많음은 진리에 관계된다고 앞에서 언급했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작은 배”로 왔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로 오게 된 수단인 지식이 선함에 바탕을 두었긴 했으나 그것이 작은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 관해서, 자신의 참된 천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는바 있긴 하나 그것이 아주 조금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조금만 가졌어도 그들에게 뭔가 생산해주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오는데에, 기적적인 어획고를 올린 그물을 끌어오는데에 세상으로부터 교회에로 데려와지는데에 충분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로부터 배우는바, 그들의 수단을 측량하는 것은 규모의 크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까지도 규모의 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분의 힘으로 일하는 이들은 스승의 일을 해내는데 자기들의 배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는 또 다른 격려의 교훈이 담겨 있다. 제자들이 작은 배로 그물을 끌고 올 때 그 곳은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였다. 주님이 더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멀지 않다. 오히려 신실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는 언제나 닿을 수 있게, 그리하여 노동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또다른 교훈이 이 구절에 있다. 그 이유가 땅과 바다(호수)는 선과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주님이 계신 육지로 가기로 한 것은 선함 자체이신 그분께 선함의 상태인 안쪽으로 자신을 강요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 백 큐빗(cubit)역시 땅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바 이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 이타애와 믿음의 결합의 어떤 수준을 표현하고 있다.

9.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빵도 있었다.” 이 사건은 그 주위에 초자연적 모양새를 띄우고 있다. 불, 고기, 빵같은 물건들이 언제, 왜 준비되었을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런 물질적 존재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서 거주하셨을까,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무엇을 잡수셨을까하는 등등에 관한 상상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의 본성에 관한 물질주의적 견해의 산물일 뿐이다. 주님의 몸은 지금 신성이셨다.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들은 육체를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음식이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으되 그것은 그들의 자연적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다. 이와 똑같이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을 위해 만든 설비도 보았다. 합리적인 모든 사람은 본문의 경우가 위와 같다고 보아야한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서는 영적 삶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곤란해할 것같아 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영계는 자연계만큼 실재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육체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영계의 것도 영혼의 감각에 사실적이다. 영혼이 육체에 가깝게 있는 만큼 영계도 자연계와 가깝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전부란 인간으로 하여금 영계와 감지할 수 있는 연결이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영적 대상을 감지할 수 있는 지각을 주는 것, 이 영적 지각을 수단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함으로서 그들의 영원한 상태에 관해 한정된 체험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일시적인 상태는 신, 구약성서에서 천사를 보고 있고 그들을 접대한 사람들 모두에게 권유된 상태이다. 이런 감각에 의해서만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 수 있었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 그들 앞에서 하신 것, “구운 생선과 벌집”을 잡수신 것 (누가24:42) 까지도 볼 수 있었다. 영적 감각이 열리는데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질 필요성은 하나도 없다. 이를 체험했던 이들은 변화가 있었는지 의식조차 없었다. 영 안에 있을 경우 모든 것은 자연계에서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당사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보고 있다고 알뿐이기에 더 다르게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중적으로 환상을 향유했는지 모른다. 즉 영계와 자연계에 속한 대상을 동시에 본다는 말이다. 비록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자연적 눈은 닫히는 것이 일상적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영과 몸의 시야가 동시에 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구절이 나타낸 초자연적 명백함의 영적 의미 파악이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이 광경은 그 당시 직접적 대상인 제자들

을 위해서였을뿐 아니라 그들 뒤를 잇는 참된 모든 제자들에게까지 교훈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다. 제자들이 본 불은 신성한 사랑의 불에 대한 상징물이었다. 이제 인간 구속을 완성하신 저자가 지상 안에, 교회 안에, 신실한 이들의 심정 안에 불을 지펴놓으신 것이다. 이 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리고 빵을 제자들이 보았다. 이 생선과 빵의 개수는 매우 특이하다. 그 이유가 한 마리의 고기와 한 개의 빵만을 여러 사람이 먹으라고 그분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식사를 공급해주심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던 바로 그분이심을 제자들로 확실하게 하시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의도해놓으시고 있다. 이는 차후 제자들이 종사하게될 영적 일에 관계되는 것, 그들의 가르침이 생산하게 될 영적 결과에 관계되는 것에 관해서이다. 빵과 생선은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를, 불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불 위에 놓인 생선은 사랑의 선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이 개혁됨을 표현한다. 이 묘사에는 교회가 완전히 황폐된 결과에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이었다. 이 절을 시작하는 말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해놓고 있다. 이는 바다와 육지가 의미하는 것인 진리로부터 선으로 진보하는 이들은 그들이 선함의 상태를 달성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10,11. 그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렸다. 그물 속에는 백 쉰 세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가득히 들어 있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들어 있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해둔 빵과 고기를 먹으라고 즉각 초대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영적 총명과 믿음의 근원은 두 가지, 즉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로부터 받을 때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생명 있는 원리로서의 선과 진리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오지만, 지식으로서의 선과 진리는 씌어있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영감이 붙어넣어져야 생명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마음 안에 공존하고 함께 만나야 한다. 생명 있는 원리로서의 선과 진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만드신 준비물로 표현되어있고, 지식으로서의 진리는 제자들이 잡은 고기로 표현되어 있

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생선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내적인 선물과 내적인 획득물이 함께 가져와지고 있다. 제자들 전체에게 내려진 명령인데도 베드로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 이 행동에는 다른 모든 품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은 믿음이 승강되게 해준다. 마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배에 “올라” 갔던 것과 같다. 자연적 수준의 믿음은 마음의 자연적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로 드리워짐으로 영적 믿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획득한 소유물을 그분께로 가져오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결과되어진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분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이되, 겸허하게 인정함으로, 즉 그분의 능력과 안내해주심 덕분에 획득된 내 것인 바, 진정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인정함과 더불어 행동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림은 획득된 진리가 선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 또는 그것들을 이해성에서 들어올려 의지 안으로 가져다 놓는 것, 또는 자연적 마음으로부터 들어올려 영적 마음으로 가져다 놓는 것을 의미한다. 해안가에 끌어다 놓은 그물은 큰 고기로 가득했다. 용어 크다(great)는 선함의 품질을 표현하는 바, 이 구절에 대한 영적 의미란, 주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이타애의 영향 아래 행동되어 획득된 진리는 단지 지적일 뿐인 진리가 아니라 실지의 진리, 그 내용물이 선함으로 가득해 있는 진리이다는 것이다. 이 고기들은 클 뿐 아니라 많았다. 양이 많음(magnitude)은 선함 측면에서의 품질에 관계되나 숫자(number)는 진리 측면에서의 품질에 관계된다고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큰 고기는 백 쉰 세 마리였다. 이 세 숫자들은 말씀이 포함하는 세 가지 다른 종류 또는 수준의 지식,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다른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교훈을 수단으로 교회로 끌어 올려지는 것들, 즉 천적, 영적, 자연적 교훈들, 또는 사랑의 진리, 믿음의 진리, 순종의 진리를 받는 이들까지 일괄하여 표현해 놓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줄 만한 사실은 그물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사건과 연계해 생각해 보면 더욱 의미심장함을 느끼고야 만다. 이 본문의 경우 우리가 발견하는 바, 사건의 시작은 기적적인 고기잡이고 그 마무리는 주님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계신 모습이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은 것, 즉 그분께서 뱃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을



기술해 놓고 있다 (누가 5:1-9). 이 대목을 보면 주님은 군중을 시몬의 배에 올라 가르치셨는데 그 뒤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고 분부하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썼어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다고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서 겁을 먹은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위 두 사건에 있는 고기잡이와 어획고는 상징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또한 티베리아 호수에서 같은 기적이 반복된 것 역시 상징적이라고 암시해 볼 수 있다. 첫 경우에는 그물이 찢어졌으나 두 번째 기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을 잡는 수단에서 그들의 부름 받는 초기 때에는 덜 완전했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위촉을 받는 때는 보다 더 완전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구속과 영화하심이라는 일은 두 번째 기적의 때에 완성되어졌다. 그러므로 진리를 획득하고 나누어주는 능력이 증가되어졌다. 구원의 수단은 더 넉넉해지고 완전해졌다. 그물은 많은 고기를 예워쌌을 뿐 아니라 버터냈다. 그물(마태 4:18)은 교리를 의미한다. 또한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고, 그 결과 아는 능력, 이해력까지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교회나 개개인의 거듭남의 시작에서는 약해서 획득한 것을 단단히 붙잡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이 영화하시고 인간이 구속되었을 때 그 자질들에 기운이 보강되어졌다. 그리고 추론하는 힘과 진리를 지탱시키는 힘 역시 배가되었다.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초대받은 식사는 통상 우리가 말하는 저녁 식사는 아니고 아침 식사일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의 주변 상황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새로운 상태, 그리고 선함과 진리의 새롭고 더 높은 원리들로 충당됨을 표현한다. 이것은 부활이후 주님께서 생명의 요소를 수단으로 제자들과 교류하신 첫 번째는 아니다. 그러나 그분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시고 먹도록 초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만드신 이 첫 준비가 이 중대한 날 그들의 첫 식사, 영화하심 그들의 구속자의 교회에서 일꾼들의 새 날에 대한 예징이 된다는 것

은 매우 적절하다. “와서 먹어라.” 이는 제자들,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주게 될 초대장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설비해 두셨던 좋은 것들로 채워지도록 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제공되고 있다. 특이한 대목이 있다. “와서 먹어라”고 초대하실 때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심오한 존경심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현존에 너무 위압되어서 신비스런 그분의 모습에 관해 아무도 물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알았음에도 감히 묻지 못했다. 그들은 묻고 싶었지만 감히 말을 뱉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바깥쪽 나타남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위해 수행하신 기적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알았다. 마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에게 그분이 알려질 때도 이와 비슷했다. 즉 그분이 알려진 수단은 그분의 외관, 즉 목소리가 아닌 빵을 떼시는 것으로였다. 기독교인의 체험에서 이에 부응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울이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 5:16). 제자들은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세속적 표준으로 주님을 알았었다. 그들은 그분이 육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육적으로 있었을 때 그분을 알았다. 이런 경우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한결같다. 그가 육적인 태도만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이상 그는 육적인 표준으로 주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영적 수준으로 될 때 그는 더 이상 육적인 표준으로 주님을 알지 아니하고 영의 표준으로 알게 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분의 권능, 지혜, 사랑을 수단으로 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을 수단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 그는 신성한 권능을 앎으로 해서 신성한 진리의 바깥쪽 형체를 안다. 마치 이 권능이 심정과 이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신성한 진리를 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묻지 않는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그대로의 진리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육적 표준으로 알았었던 진리를 지금 영적 표준으로 알고 있다. 진리는 그 자체에 증거를 동반하고 있다. 그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알고 느낀다. 이제 이 대목이 아래에서 더 충분히 명백해 지고 있다.

13.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 주시고 또 생선도 집어 주셨다.” 그분께 오도록 제자들을 초대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에게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하나됨은 상호성(reciprocation) 없이 결과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결합(conjunction)의 법칙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계시록 3:20).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빵과 생선은 영적인 음식, 신성한 선함과 진리이다.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영혼, 즉 와서 먹어라는 신성한 초대를 응낙하는 이들을 먹이실 때 주시는 것들이다.

14. 요한이 상술한 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예수가 제자들에 의해 보여진 것을 모두 합한다면 세 번 이상이다. 물론 그분 스스로 보이신 것과 제자들이 보게된 것을 구분 지어 말하느라 세 번이라는 언급이 있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말씀의 언어는 자연적 의미보다 더 높은 의미를 포함하도록 골격이 짜여 있다. 여기서 의도된 셋이란 숫자는 명백히 나타내 보이심의 완성을 표현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는 그들의 영화하신 구세주,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시어 한 분으로서의 예수를 알도록 제자들에게 주신 충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심을 뜻한다. 이는 단지 그분스스로가 하느님-인간이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들 안에 있는 모습, 인성의 완전함, 구속과 구원에서 영화하신 모습, 그들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모습,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뜻하고 있다.

15-17.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신 뒤 상징적 행동을 수단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의도된 신성한 교훈으로 그들을 이끄신다. “모두를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반적 교훈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을 먹이셨 듯 그들도 그분의 교회를 먹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알게 하려는 듯 비치고 있다. 비록 그분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내려졌으나 그렇다고 그분의 명령이 다른 사도들에게 해당 안되는 것은 아닌바 그 명령은 베드로가 표현한 품성에 놓여진 명령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수단이 된 이름은 지금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시는 직능에 걸맞은 품질을 지니는 누군가에 속하는 품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타애로부터 파생된 믿음을, 시몬은 듣고 순종함을, 요한(Jonas)은 이타애의 상징물인 비둘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시가 비록 베드로 개인에게 떨어졌긴 해도 그가 받은 임무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 해당된다. 그 이유가 그는 믿음이라는 품위, 또는 지적 측면의 원리를 표현한 인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품위 또는 원리에 주님의 양떼를 안내하고 자양분을 공급하는 임무가 위탁되어져 있다. 베드로는 진리로 건설된 이들, 믿음에 강한 이들, 가르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강한 이들을 표현한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못하는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가장 중요한 품위를 소유했는지 묻고 계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불확실한 게 있다. 그것은 네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인지, 또는 네가 지금 종사하는 일시적인 세상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인지에 관해서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하고 소극적이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의 고백에는 어떤 과장도 없이 주님 자신에 직접호소하고 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증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고백이다. 그 이유가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어쨌든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예견해

말하셨을 때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 태도와 지금 구사하는 언어는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그 당시의 경우 그는 지니지도 않은 불변함을 떠벌렸다. 지금 그는 자기가 소유한 사랑을 자랑하지는 않고 있다. 그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위해 그는 지금 자기 심정에 주님 사랑을 이식하신 분,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기를 잘 아시고 계신 분, 이런 것을 쓴 경험으로 배우게 하셨던 분께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호소에 대해 그에게 이런 큰 의무, 그보다는 이런 드높은 특전, 즉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위탁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있다. 이것을 뾰족한 수준에서 말하면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위촉된 임무이다. 물론 이것은 그들만에 한정된 임무는 결코 아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 돌보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다 내적 측면의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쌓아두신 것, 즉 주님께서 아껴두신 순진과 이타애를 먹여 키우고 보존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순진과 이타애가 어린 양과 양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것들이 그분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원리로서 간주되고 있든지, 어느 정도라도 적극적인 존재로서 간주되고 있든지 어쨌든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세 번 반복되고 있다.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양을 먹이고 보호하도록 엄숙한 임무를 놓으시고 있다. 세 번 이르는 말이 전부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에서는 먹을 것을 주라는 것(feed)이고, 나머지는 돌보라(tend)는 것이다. 베드로가 세 번 질문 받은 것은 교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완전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셋이란 숫자가 완성, 충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질문 받아진 세 번째란 교회의 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 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바람에 슬퍼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세 번이란 단어가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이르는 모든 시기를 의미하듯, 그 단어는 교회의 계속적이고 하강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맨 먼저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 양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그 다음 그분의 양에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 말하신 어린 양(lamb)은 순진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두 번째 말하신 양(sheep)은 이타애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세 번째의 양은 믿음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개인적인 교인 차원에서 이해해본다면, 이 대목이 우리를 가르치는바, 이는 주님의 신

성한 사랑의 열렬한 바램이라는 것, 즉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그들의 심정과 지성에 이식하신 순진, 이타애, 믿음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해주어서 이것들이 그분의 양떼로 잘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양우리에 가져다 놓이도록, 그들 고유의 목자로서 그분 아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시고 있다는 말이다. 혹 어떤 이들은 세 번 질문한 주님의 의도는 그가 세 번 주님을 부정했기 때문에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가 상심하라고 그의 죄과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닐 것은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셋이란 숫자의 의미에 위 두 사건이 바탕을 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전자는 옛 교회 처방에서 주님이 충분히 부정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후자는 새로운 교회 처방에서 주님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각 개인의 거듭남에서도 옛 사람에 의한 것과 새 사람에 의한 것도 위와 같다.

**18,19.** 주님에 의해 언급된 세 번이란 표현이 베드로가 표현하는 믿음에 관한 교회의 연속되는 시기들을 의미했는바, 주님께서는 교회의 시작 시기와 마지막 시기에 있는 믿음의 다른 품질을 묘사하시고 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임무를 다 말하신 후 이런 놀랄만한 말을 그에게 전하시고 있다. “이어서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글자적 의미 차원일 경우 이 대목은 베드로 스스로 이해했던 것(베드로후1:14)같이 그의 순교와 관계되고 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이 구절들은 교회의 시작과 끝에 있는 믿음의 상태와 조건들과 관련되고 있다. 젊은 시기의 베드로는 교회의 초기에 있는 믿음 같은 것이다. 노령기의 베드로는 교회의 말기에 있는 믿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이 구절이 믿음의 상태에 관해서, 그리고 초기 때와 마지막 때의 인간 이해성에 관해서 얼마나 비유적으로 묘사된 대목인지 놀랄만하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그는 스스로 띠를 매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걸었다. 그가 늙게 되었을 때 그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띠를 매어 그가 뜻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전자는 자

유롭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속박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교회의 초기 시절에서 이해성은 계발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안내 아래 자유로이 행동한다. 교회의 말기 시절에서 이해성은 소경 되고 겁많은 믿음의 암시에 굴복되어 있다. 교회 초기, 믿음이 젊었을 때 교회는 스스로 떠를 띠고 본인이 원하는 데로 걸었다. 즉 교회가 진리를 자유로이 탐사하고 획득한 다음 자유로이 결정해서 그것에 따라 살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믿어지고 행동된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믿음이고 행동이다. 이것의 봉사는 완전한 자유이고, 이것의 사랑은 걱정을 몰아낸다. 그러나 속방 당함으로부터 믿어지고 행동된 것은 세상과 자아로부터인 바, 이것의 봉사함이란 갇힌 상태이고 그들의 두려움은 사랑을 몰아낸다. 이것이 노령기의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떠를 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것은 교회의 말기에서의 믿음의 조건과 상태를 기술한 것이다. 그런 다음 마음의 실질적 능력과 지적능력은 인간의 의지에 종속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마음은 신성한 진리의 자유 안에 보존되는 대신 인간 오류라는 속박 아래 놓여지고 만다. 이런 상태는 이해성이 믿음의 권위 안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 신학적 격론(maxim)의 작동으로 본보기화 되어 있다. 참으로 이 대목은 마치 믿음에 모든 권능이 서임 되어 있는 듯하게 들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인간 견해에 폭정을 가하는 이름밖에 더 아니고, 믿음의 이름 아래 구호를 외친다. 이리하여 마음이 기독교의 자유를 박탈할 때 마음의 자질은 강압 당하고 그릇된 지시를 받고, 그 삶은 하느님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뜻에 의해 결정되고 만다. 결국 믿음은 제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견게 된다. 이는 믿음이 젊고 자유로웠던 때, 사도들의 시대 때의 조건과 폭넓게 다른 믿음이다. 믿음이 인간의 의지와 지혜에 속박된 상태에 놓일 때 그런 상황의 믿음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믿음이 사멸하면 그 대신 가짜가 그 자리에 들어앉는다. 그러나 신성한 자비는 교회의 이 처방에서 믿음이 종료될 때 또 다른 교회 처방에서 새로워지게 해서 그것의 죽음까지도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는 수단이 되도록 인간의 마음 안에서 신성한 진리를 드높이도록 설비하신다. 이와 같은 것이 베드로의 끝에 관한 주님의 예견이었다.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의미하신 것이다.” 죽음에는 두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두 의미가 있다. 자연적 측면에서는 육체의 붕괴이다. 영적 측면에서는 육체로부터의 이탈

(emancipation)이다. 교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 측면에서는 교회의 끝이고 저 측면에서는 교회의 시작이다. 이를 암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이 보이신 본보기를 내 발걸음으로 삼아 걸을 때 믿음은 주님을 따른다.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이 명령은 이런 요구, 즉 믿음은 그분 자신의 어느 것도 따르지 말라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그이유가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 그분을 좇아 걷지 않는 믿음은 어둠 가운데 걷는 격이기 때문이다.

20.21. “베드로가 돌아다보았더니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앞 사건은 베드로와 관계되고 이 사건은 요한과 관련이 있다. 이 두 제자는 종교의 두 필수 요소, 그러므로 교회의 두 본질 되는 요소를 표현했다. 현재 사건에서 그들에 관해 기록된 것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서, 그리고 후기 시대에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것도 관계되고 있다. 기록된 상황은 매우 특이한 것이고 엄숙한 하나의 역사로 도입되는 특별한 측면이 있는데도 그 자체로 보면 크게 중요한 듯 보이지 않는다. 즉 이 대목은 믿음이든, 실제에 관해서이든 어떤 교훈도 가르치지 않는 것 같고, 품성 면에서도 눈에 띄는 예언적 모습이 아무 것도 없다. 더구나 그것이 상징적인지 여부도 비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살핀 바와 같은 베드로에 관련해 관조한다면 깊은 교훈이 있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한 예징(type)이고 요한은 사랑 또는 이타애에 대한 예징이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과거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고 그분을 배반할 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그분의 사랑을 받던 제자로서 기술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안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그 사랑을 사랑하신다. 사랑은 그분과의 결합을 준다. 이것이 그분의 가슴에 놓여 있다. 그리고 사랑은 적들의 수중에 진리를 팔아 넘기는 것에 관한 계시를 신성한 지혜의 입술로부터 끌어낸다. 베드로는 믿음에 관한 예징이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베드로는 명령에 의해, 요한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베드로는 뒤돌아서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 묻되 그의 동료 제자를 알보고 시기하는 듯한 어떤 암시를 풍기는 표현을 써



서 묻고 있다. 베드로의 돌아섬은 믿음이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뒤를 쳐다보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신성한 지혜가 우리에게 말한다. 쟁기를 붙잡은 채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이 있는 직후 요한을 경시하면서 뒤돌아보는 베드로가 의미하는바, 이는 교회가 개시된 후 머지않아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고 이타애를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사실이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에 관한 그들의 온전함을 이내 잃기 시작했다. 더불어 상호간의 사랑과 이타애라는 따뜻함도 상실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진리에 관한 논쟁, 특히 주님에 관련된 진리를 토론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요 중심 되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서고 서로간의 말다툼 속에서 이타애는 경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참 교회의 멤버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엄숙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교인이 교회의 참된 멤버가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꾸준히 찾고 따를 때, 믿음과 사랑이 선한 일 안에서 하나될 때뿐이다.

**22.**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체류하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대목의 여건이 특이한데 비해 위 대답은 특이한 것 같지가 않다. 이 대답이 알려주는 내적 의미가 없다면 글자적 의미로는 질문에 대해 만족 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 같다. 주님의 오심은 하늘의 구름 안에서의 그분의 오심이다. 그분의 두 번째 강림은 끝을 맞게 되리라고 그분이 예견하셨던 것 대신에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요한에 관한 주님에 예언적 선포가 발표하는바, 사랑과 이타애에 관한 어떤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교회 안에서 보존되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류와 부패함이 극성을 부리고, 믿음 자체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설사 믿음 자체가 죽음에 놓여지고 만다 해도 이타애의 어떤 것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생존하리라는 말이다. 주님께서 본문 외의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본문의 교훈일 것이다. 그분이 말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 위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될까?” 이는 아무 믿음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과 이타애가 완전히 소멸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그분이 말하신다.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의 사랑이 찬 상태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이 차진다

해도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따뜻함이 보존되도록 설비되어 있다. 그 이유가 이 타애에 관해 아껴 두신 것 없이는 새로운 교회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의 상황 안에는 또 다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면, 그 다음 주님께서 건설하시는 교회는 또 다른 처방, 더 높은 처방으로 이어진다. 교회에 관한 이 두 처방은 베드로와 요한 사이의 특징있는 차이점과 같은 동일한 상이함이 있다. 기독교회에 관한 첫 처방은 사도 베드로의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것은 믿음의 교회였다. 진리가 교회에서 우위적인 힘을 가졌고 믿음이 교회의 중심되는 품위였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진리의 각 한 팔이 세상의 오류와 대적하는데 요구되었고, 교훈적인 지혜가 교회를 가르치도록 요청되었었다. 교회의 두 번째 처방은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처방이다. 추측해 보는 바, 요한은 이런 연유로 두 번째 처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시록을 쓰도록 선택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첫 처방이었듯 요한은 두 번째 처방의 사도로 상징적이 되어 주님이 오실때까지 체류하게 되었다. 일반적 교회 측면의 처방에 관련된 위와같은 진리외에도 개개인이 제자된다는 측면에서도 교훈을 담고 있다. 교회 측면에서 처럼 개인 측면에서도 진리는 선에 앞서 진행되고 믿음은 이타애에 앞서 온다. 참으로 제자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명령과 요한의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23.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제자는 죽지 않으리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하지는 않으셨고 다만 ‘실사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체류해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주님의 말씀은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 즉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있을 것이고, 한편 베드로는 그분을 따라 그의 스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어 진리에의 순교자가 되리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복음서 기자는 이런 향간의 오류를 끌어내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실제 말했던 것을 반복해 놓고 있다. 그가 말한 것은 자연적 의미로만 간주하면 확실하고 충분하게 이상야릇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반면 만일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았었다면 그것과 동등한 뜻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셨다. 형제들 사이에 떠돈 소문은 글자대로는 틀렸으나 주님의 말씀의

영의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요한에 관해 믿게 된 것은 주님이 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신성한 언어가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주해야 한다. 요한의 체류(John's tarrying)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원어는 이 뜻 외에도 머무르다(abiding), 거주하다(dwelling), 그리고 명사로서 주거(dwelling), 저택(mansion)도 뜻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 두 명이 예수께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주무시는 곳에 와서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우리의 처소를 만들리라” (요한 14:23). 천국적인 삶을 따르려고 성실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비록 각자의 성취가 차이가 있다 해도, 그들에게 이런 행복한 보증,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요한 14:2)는 보증을 주시고 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사랑 받은 제자가 체류하기를 그분이 바라신다고 하는 요한에 관련된 주님의 신비스런 말씀은 이런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믿음이 실패할지라도 이타애는 끝까지 생존하리라는 것이다. 교회가 황무지로 된다 해도 이타애는 곤경의 때에 피난처로서 지낼 곳을 발견하리라는 말이다. 또한 체류함 또는 거처를 정함(dwelling or abiding)이라는 단어는 의지 안에 선행이 거처를 두겠다고 고집 하는 상태도 표현한다. 이것이야말로 본문에서 묘사되는 것에 꼭 맞는 상태이다.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진리의 뒤집음과 추론으로 황폐될는지 몰라도 선에 관한 어떤 것이 순박한 사람의 마음 안에 보존되고 있다. 주님께서 이 마음에 평화의 길로 이타애의 발을 안내하기 위해 새 빛을 주시고자 오실 때 진리는 보존된 이 선 위에 접목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의 말하심과 행동하심에 관한 요한의 기록이 끝나고 있다. 그리고 이 결론은 희망과 위로로 가득차 있다. 이것은 시작을 쳐다보는 끝이고, 이것은 그분의 첫 강림의 교회가 두 번째 강림의 교회로 건너갈 수 있기 위해 보존되는 수단을 밝히 알게 하고 있다.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는 것은 이타애이다. 이타애는 길을 만든다. 이 길을 수단으로 주님께서 옛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건너신다. 이타애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은 새로운 처방의 핵을 형성하기 위해 견여지는 남겨진 자, 사방에

서 모은 뽑힌 자들이다. 이들은 주님의 오심에서 그분을 영접한다.

24. “그 제자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의 선포, 예수가 사랑하셨던 그 사람, 만찬 때에 그분의 가슴에 기대었던 그가 이 일들을 증언하는 제자이라는 선포는 사랑의 예징이었던 그 사람에게 의해 씌어진 바대로의 주님의 생애에 관한 역사는 믿는 자의 심정에서 사랑이라는 품위를 생산하고 강화시켜 주는데 아주 적합한 국면에서 주님의 품성과 생애가 표현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바로서의 요한의 복음에 대한 특이하고 드높일 품성이기도 하다. 이외 이런 사실은 각자에게도 특이하게 응용되는 점이 있다. 우리의 구원이 결과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 씌어졌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요한의 이 복음서, 사랑의 이 복음서는 사랑이 우리의 이해성에 사랑의 진리를 증언하고, 우리 심정에 그 사랑의 진리를 새겨야 우리 안에서 복음이 되어 질 수 있다. 이런 다음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참 진리를 알게 된다. 사랑은 진리의 가장 높은 증거이다. 이해성이 이 증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증거가 참된 것임을 믿는다. 심정이 그 증거를 승인할 때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되다고 알게 된다. 지성이 주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해내 결론을 맺게 하는 자질인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해성 자체는 예, 아니오를 말하는 의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의지에 의해 나누어 받는 긍정적, 부정적 경향성이 우리의 모든 지적 작용 안에 있다. 이것은 특히 도덕적, 종교적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바, 우리의 이해성과 의지가 하나 되어 진리에 동의해야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아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도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 “예수께서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구절은 수많은 글로 적히지 않는 주님의 생애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의심할 것 없이,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것들 외에도 그분의 공적 생애 동안만 가늠해 보아도 많은 일들이 주님께 의해 말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지혜의 보물 안에 감추여 있는 깊은 것들 중의 하나이다. 육을 입은 말씀에 의해 말해지고 행해졌던 것만

큰이나 계시로 충만된 씩어진 말씀, 말씀이 육이된 것의 말로된 형체인 씩어진 말씀 안에 기록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님이 말하셨고 행하셨던 것들이 잃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말했던 모든 단어, 그분이 수행하셨던 모든 일은 천국 안에 씩어져 있고 그분 자신의 인성 안에 새겨져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그분의 구속하심과 영화하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말씀이 알려지도록 만든 이런 영원한 실재 안에 항구적으로 고정되었다. 영화된 말씀은 지상에서 있었던 주님의 위대한 일의 결과들을 그것 안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지금은 천국들의 천국까지의 모든 세계들, 모든 천국들 넘어 까지도 영화되었다. 신성한 영향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밝히 알리는 두 방법으로 천국 안의 교회에, 이로부터 지상의 교회에 내려와 그들이 하나되게 하면서 주님의 신성한 인성의 완전한 형상으로 하나를 만든다.

“아멘”은 교회의 응답이다. 더불어 이는 사랑 받은 사도가 인류에 밝히 알리는 선택된 도구였다는 위대하고 위로를 주는 진리들에 대한 인간 심정의 응답도 되어야 할 것이다.

